금강학술총서 2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慧均 撰 · 崔鉛植 校注

불광출판사

◉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7-361-AM0046)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이다.

책머리에

삼론학三論學은 인도 대승불교의 중관中觀 사상의 동아시아적 버전[異形]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중관계 논서들인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의 사상에 기초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체계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형성한 삼론학은 중국의 남북조시대 및 한국의 삼국시대와 일본의 나라시대 불교학의 중요한 흐름을 이루었고, 후대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한 화엄華嚴, 선禪, 천태天台 등의 사상 체계에 많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삼론학은 그동안 불교(학)계에서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학파 혹은 종파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여 후대의 불교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중세 이후 다른 종파들이 불교계를 주도하는 가운데 삼론학의 이론 중 각 종파에 필요한 부분만이 선택적으로 활용되었을 뿐 삼론학의 독자적인 이론적 전승은 단절되었고, 삼론학에 관한 자료들도 대부분 일실되고 말았다.

다행히 근래에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삼론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

면서 삼론학의 사상 내용들이 적지 않게 밝혀졌지만 아직은 삼론학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삼론학의 전개과정 전체를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삼론학에 대한 연구는 전해지고 있는 자료의 성격상 대부분 길장吉藏의 사상에 대한 해명에 집중되고 있는데, 삼론학이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발전되었고 길장 이외에도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길장 개인 중심의 삼론학 이해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기존의 삼론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자료의 결핍 때문에 한국 고대의 삼론학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일부 역사 자료들을 통하여 7세기를 전후한 시기 한국 불교의 주류적 흐름이 삼론학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길장과 동시대에 활동한 혜균慧均이 찬술한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는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길장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삼론학의 이론들을 서술하고 있어 삼론학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중국이 아닌 백제百濟에서 찬술된 문헌으로서 한국 고대 삼론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아직 불교(학)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찬술자가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 책의 내용까지도 삼론학의 방계적 문헌으로 취급되어 왔고 그 내용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본 교감본은 현전하는 여러 사본들을 비교 검토하여 기존 판본의 잘못들을 바로잡는 동시에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초장중가의> 편 사본의 내용을 아울러 소개하여 이 책의 본래 모습에 보다 가까운 모습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6~7세기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주요한 흐름이었던 삼론사상의 내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삼론사상 형성의 사상적 분위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필자가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01년 가을이었다. 당시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고마자와駒澤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 연수를 하고 있던 필자는 담당교수이던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 선생의 소개로 비판불교批判佛教의 관점에서 중국불교를 연구하는 같은 대학의 이토 타카토시伊藤隆壽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날 이토 교수는 자신이 비판불교의 관점을 가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본래 전공은 삼론학이라면서 문득 필자에게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유하였다. 혜균慧均이라는 행적이 명확하지 않은 승려가 찬술한 『대승사론현의기』라는 삼론학 저술이 있는데, 자신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 아마도 한국에서 찬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인 연구자가 살펴보면 그 점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곧바로 속장경에 들어있는 『대승사론현의기』를 복사하여 읽어보았지만 삼론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였던 탓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한국 문헌으로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그때에는 통일신라와 고대 일본의 화엄학의 교류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으므로 삼론학 문헌인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 나중에 삼론학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다시 살펴보리라 생각하고 일단은 『대승사론현의기』 복사본을 책상에서 밀쳐두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필자의 바람과 달리 삼론학을 공부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고, 『대승사론

현의기』 또한 오랫동안 필자의 연구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필자가 다시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2004년 6월 독일 보쿰 대학에서 열린 한국의 종교문헌에 관한 워크숍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 워크숍을 기획하였던 요르그 플라센Joerg Plassen 교수는 워크숍이 끝난 후 하루의 시간을 내어 필자와 한국 불교사 특히 고대 불교의 사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하였다. 플라센 교수가 삼론학 전문가인 것을 알고 있던 필자는 이토 교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플라센 교수는 곧바로 자신도 이 문헌과 원효 사상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한국 찬술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 자리에서 필자와 플라센 교수는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해보자고 뜻을 모았고, 우선 각자 이 책을 읽으며 내용을 검토하고 기회가 되면 함께 공동연구를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독일에서 돌아온 후 오랫동안 밀쳐 두었던 『대승사론현의기』 복사본을 꺼내어 다시 읽기 시작하였지만 연구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 책의 주제인 삼론학의 주요 이론들은 물론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물들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책의 문장 중에도 일반적인 한문 문장과는 너무나 다른 읽을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억지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두 차례 정도 책 전체를 완독하였던 2005년 가을에 플라센 교수로부터 한국과 유럽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1개월씩 상대방 국가에 머물면서 연구하는 프로그램인 아셈듀오ASEM-DUO에 응모하자는 제의가 왔고, 응모에 통과되어 필자와 플라센 교수는 2006년 3월과 7월에 각기 목포 대학과 보쿰 대학에서 함께 『대승사론현의기』를 강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일본의 대학 도서관들에 소

장되어 있는 『대승사론현의기』 필사본들을 복사하여 속장경본과 대조하여 검토할 수 있었다.

목포와 보쿰에서의 집중적인 강독을 통하여 책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가능하였고, 2006년 7월 보쿰 대학에서의 강독 중에 드디어 이 책이 한국 그것도 백제에서 찬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제 찬술을 확인한 필자와 플라센 교수는 그해 10월 목포대 인문학연구원과 한국사연구회 공동 주최의 학술발표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한국 최고最古의 문헌 발견이라고 대서특필하였지만 뜻밖에도 학술회장에 참여한 학자들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우리들이 백제 찬술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하여 필사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용상 『대승사론현의기』는 백제 찬술 문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 뜻밖의 반응에 충격 받은 필자와 플라센 교수는 반론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학술발표회 이후 필자는 반론을 제시한 학자에게 반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반론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필자와 플라센 교수의 연구 내용이 발표된 같은 잡지의 다음 호에 반론자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플라센 교수와 상의한 끝에 필자가 반론에 대한 반박 논문을 쓰기로 하였는데, 반박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속장경본과 필사본들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했다. 백제 찬술설의 증거에 대하여 필사상의 착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필사상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반론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필사상의 착오는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반론자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이 속장경본의 판독상의 착오에 의거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속장경본뿐만 아니라 필사본들에도 적

지 않은 필사 혹은 판독상의 잘못이 있고, 『대승사론현의기』 중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 중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필사 혹은 판독 상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승사론현의기』의 본격적 연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속장경본과 필사본들을 대조하여 필사 혹은 판독 상의 착오를 가려내는 교감본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워낙 힘들고 방대한 작업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에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대승사론현의기』 역주본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왔다. 필자는 이에 대해 역주본보다 교감본이 먼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교감 작업에 대한 후원을 부탁하였고, 불교문화연구소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2007년 봄부터 『대승사론현의기』 교감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교감 작업을 시작한 직후 자료 수집 차 일본을 방문하여 이토 교수에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토 교수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속장경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초장중가의初章中假義> 부분의 필사본 복사본을 주면서 그 부분도 교감본에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초장중가의> 필사본은 1950년대 말에 처음 존재가 알려졌지만 소장자와 몇몇 연구자들만이 보고 있었고 아직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소장자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토 교수는 필사본 복사본과 함께 판독에 참조하라며 해당 필사본 소장자가 스스로 판독해 정서한 필기본筆記本의 복사본도 함께 주면서 한국의 문헌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에서 교감본을 준비하는 만큼 <초장중가의> 부분을 포함한 현전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대승사론현의기』가 출판되기를 바란다면서 <초장중가의> 필사본 소장자에게 허락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제로 얼마 후 이토 교수는 소장자로부터 허

락을 얻어 주었다. {<초장중가의> 필사본 소장자는 역시 속장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팔불의八不義>의 필사본도 소장하고 있는데, 이 <팔불의> 부분은 『대승현론大乘玄論』의 <팔불의>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필사본과 『대승현론』 <팔불의> 사이의 약간의 글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장자가 스스로 대조·검토하여 보고하였으며, 본 교감본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2007년 봄부터 시작한 교감 작업은 2008년 여름에 일단락되었지만 곧바로 출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2007년 가을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HK 연구소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조직 개편 등의 과정에서 출판 작업이 늦어졌던 것인데, 이것은 필자로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올해 1월에 출판사를 정하고 본격적인 출판에 들어가면서 다시 작년 여름에 제출한 교감 원고를 필사본 등과 대조해 보니 전에는 간과했던 부분들이 또 다시 적지 않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부터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느라 애초 2월에 출판하기로 했던 계획은 몇 달이나 미뤄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속장경본에서 판독하지 못했던 글자들을 모두 판독하고 잘못된 글자들을 모두 바로잡는 완전한 교감본을 목표로 하였지만 작업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목표였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제대로 판독되지 않았던 글자와 잘못 판독한 글자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이전에 비하여는 비교적 더 잘 이해되는 책이 되게 하였지만 여전히 판독되지 않는 글자와 제대로 된 한문 문장으로 보기 힘든 문장들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교감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러운 불완전한 교감본이 되고 말았고, 교감본으로 공개하기에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자료들을 모두 비교, 대조하여 판독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고, 필사본들의 오류의 경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보다 발

전된 교감을 위한 토대는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교감 작업 과정에서 현존하는 필사본들이 제작될 당시에 이미 판독 불가능한 상태의 글자들이 적지 않았고, 필사자들도 자신들이 적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베껴 쓴 부분이 적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잊혀지고 등한시되었던 결과일 것이다.

이 교감본은 그러한 망각과 무관심 속에서 『대승사론현의기』를 다시 일깨워내는 초기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여 검토해 나가면 현재는 읽을 수 없는 내용, 잘못 쓰여진 내용들이 빠짐없이 올바르게 읽혀지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때가 올 때까지의 과도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해 연구하고 본 교감본을 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가장 먼저 처음 이 책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고, 본 교감본이 보다 완전해질 수 있도록 <초장중가의> 필사본을 제공해 주었던 이토 다카토시 선생님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초장중가의> 필사본의 공개를 허락해 준 필사본의 소장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필자가 본격적으로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함께 연구해 온 플라센 교수는 본 교감본의 사실상의 공동 저자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필자가 고마자와에서 공부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고, 또 귀국한 이후에도 연구의 동학으로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이시이 코세이 선생님은 이토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어 필자가 『대승사론현의기』를 처음 접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후의 여러 연구와 본 교감본의 작성 과정에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마음속으로부터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불교학과의 여러 선생님들은 필자가 본 교

감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필자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다. 물심양면의 후원에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목포대학교 역사학과의 선생님들은 바쁜 학내의 여러 일들을 제쳐두고 『대승사론현의기』 연구에 몰두하는 필자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며 플라센 교수와의 공동연구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었다. 그간의 태만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항상 바빠하며 충분히 시간을 내 주지 못하는 선생이지만 늘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목포대학교 역사학과 학생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본 교감본의 출판을 맡아 어렵고 귀찮은 작업을 해 준 불광출판사의 사기순 부장님과 매컴의 김다정 님의 수고에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말없는 가운데 답답한 필자의 삶을 사랑으로 지켜봐주는 부모님과 가족 모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2009년 6월 7일

최 연 식

◉ 차례

◉ 校勘 ◉ 大乘四論玄義記

◉ 해제

『大乘四論玄義記』와 韓國 古代 佛敎思想의 再照明

◉ 해제◉

『大乘四論玄義記』와 韓國 古代 佛敎思想의 再照明[1]

---

1) 본 해제는 필자가 이전에 발표한 <백제 찬술문헌으로서의『大乘四論玄義記』>『韓國史研究』136 (2007년 3월, 한국사연구회, 서울); <『大乘四論玄義記』 百濟撰述 再論 - 김성철 교수의 반론에 대한 비판>『韓國史研究』138 (2007년 9월, 한국사연구회, 서울); <『大乘四論玄義記』と百濟佛敎>『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39 (2008년 10월, 駒澤大學佛敎學部, 東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大乘四論玄義記』와 韓國 古代 佛教思想의 再照明

머리말

삼국통일 이전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후원 하에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왕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널리 믿어졌을 뿐 아니라 불교 경전과 이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불교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알려져 있는 것을 보아도 삼국의 불교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삼국시대 불교계의 구체적인 모습 특히 불교사상의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당시 불교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자료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삼국시대에 저술된 문헌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三國遺事』와 같은 후대의 자료들에도 삼국시대의 불교사상에 대한 내용은 극히 빈약하다. 이와 같은 자료적 제약 때문에 현재의 삼국시대 불교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불교의 정치사상으로서의 역할을 검토하거나 당시 중국 불교계의 교학사상을 토대로 삼국시대 승려들의 불교사상을 추정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료적 제약 때문에 당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삼국의 불교학은 6세기 이후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고대 불교문헌들에는 양국에서 활동한 삼

국 출신 승려들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모두 상당한 수준의 불교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세기 초에서 7세기 전반의 시기에 활약한 승려들 중에는 三論學의 대가가 많이 보이고 있고, 6세기 말 이후 중국에 유학한 승려들 중에는 당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던 攝論學을 전공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현재는 이들에 대하여 극히 단편적인 자료만 전해지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타난다면 당시 삼국시대 승려들의 불교사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당시 중국의 불교계와 구분되는 그들의 독자적인 사상적 경향에 대하여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필자는 독일의 한국불교 연구자 플라센(Plassen)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중국의 불교문헌으로 알려져 온 『大乘四論玄義記』(이하 『사론현의』로 줄임)라는 문헌이 실제로는 百濟에서 찬술된 한국의 삼국시대의 문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중국의 불교문헌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중국 삼론학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되었고 한국 고대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 이 책이 삼국시대의 百濟에서 찬술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한국의 고대불교사상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문헌은 삼국시대 불교사상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三論學에 관한 개론서로서 당시 불교계의 주류적 사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한층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문헌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그동안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고 있던 삼국시대의 불교사상, 특히 백제의 불교사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大乘四論玄義記』의 傳存狀況

『대승사론현의기』(이하 『사론현의』로 줄임)는 고대 三論學 문헌으로서 삼

론학의 주요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설명하고 있는 삼론학의 개론서적인 책이다. 삼론학의 개론서로서는 분량이나 서술된 주제의 범위로 볼 때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삼론학과 경쟁관계에 있던 地論學, 攝論學, 成實學, 毘曇學 등의 이론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 학파와 삼론학파의 사상적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론학파뿐 아니라 다른 학파들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은 불교계에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근대 이전 중국과 한국 불교계에는 이 책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일본 불교계에서는 고대와 중세에는 비교적 널리 읽혔던 것으로 보이지만 중세 후반 이후에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의 삼론학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60년대와 70년대에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기는 하였지만 이후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지는 못하였다.[2)]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삼론학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吉藏(549-623)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론현의』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어도 그다지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특히 비

---

2) 지금까지의 『大乘四論玄義記』에 관한 주요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橫超慧日, 1958 <新出資料・四論玄義の初章中假義>『印度學佛教學研究』13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東京); 1963 <四論玄義の初章中假義>『岩井博士古稀記念論文集』(岩井博士古稀記念事業會, 東京)
伊藤隆壽, 1969 <慧均『大乘四論玄義』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35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東京); 1971 <『大乘四論玄義』の構成と基本的立場>『駒澤佛教學部論集』2 (駒澤大學佛教學部, 東京); 1972 <慧均『大乘四論玄義』について(二)>『印度學佛教學研究』40; 1974a <『大乘四論玄義』逸文の整理>『駒澤佛教學部論集』5; 1974b・1975・1976 <三論教學における初章中假義(一)・(二)・(三)>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32, 33, 34 (駒澤大學佛教學部, 東京)
三桐慈海, 1970 <慧均撰四論玄義八不義について(一)-大乘玄論八不義との比較對照->『佛教學セミナー』12 (大谷大學佛教學會, 京都); 1973 <大乘玄論の八不義-慧均撰八不義について(二)->『佛教學 セミナー』17; 1990 <慧均の三論學>『三論教學の研究』(平井俊榮 監修, 春秋社, 東京)
諏訪隆茂, 2004 <慧均『大乘四論玄義』にみえる感應思想>『印度哲學佛教學』19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 札幌)

교적 이 책이 널리 유통되었던 일본에서도 중세 후기 이후 삼론학 완성자로서 길장의 위상이 확립되면서 그의 저술들만이 중시되고 『사론현의』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따라서 『사론현의』는 삼론학에 관한 중요한 문헌이면서도 거의 잊혀 진 상태로 있었고, 이 책의 성격이나 불교계에서의 위치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근래 들어 길장의 저술과 구별되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의 관심에 불과한 형편이다. 한마디로 『사론현의』는 오랫동안 불교계에서 잊혀 졌다가 근래에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충분히 그 성격이 밝혀지지 못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론현의』에 관한 자료는 중국과 한국에는 보이지 않고 일본의 불교자료에만 나타나고 있다. 일찍이 奈良시대의 寫經目錄에 이 책의 필사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으며, 중세의 여러 불전목록에도 삼론학의 주요 문헌으로 수록되어 있다. 즉 나라시대의 사경기록에는 『三論廣章』(12권, 768년), 『均章』(12권, 740년), 『大乘四論玄義記』(12권, 744년), 『十二均章』(12권, 744년), 『大乘四論義記』(12권, 연대미상),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12권, 768년) 등의 필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3] 이들은 책의 제목이나 撰者, 卷數 등으로 미루어 모두 『사론현의』와 동일한 책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平安시대 초기의 삼론종 문헌을 정리한 『三論宗章疏』와 헤이안시대 후기의 종합 佛典目錄인 『東域傳燈目錄』에는 각기 '四論玄義 十二卷 均正述',[4] '三論廣章 十二卷 均正師/ 四論玄義記 十二卷 均正 又云均僧正十四卷 又云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5] 등이 보이고 있는데, 이 문헌들 역시 『사론현의』를 가리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근래에 확인된 京都 法金剛院에 소장되었던 佛典目錄을 정리한 『大小乘經律論疏記目錄』(헤이안시대 前期편찬)과 名古屋 七寺藏에 소장되었던 佛典目錄을 정리한 『一切經論章疏集幷私記』(헤이안시대

---

3)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石田茂作,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教の研究』(東洋文庫, 東京) 附錄]의 2484번 및 2523-2529번 항목 참조.

4) 『大正藏』55, 1138b

5) 『大正藏』55, 1159c

末期편찬)에도 각기 '均章 12卷 480丈/ 三論廣章 十二卷 均正師, 610丈/ 无依无得大乘四論玄義記 14卷 700丈'[6] 및 '四論玄義 12卷 均正撰'[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사론현의』와 같은 책으로 보인다.

또한 『사론현의』는 중세 일본 삼론학 문헌들에도 길장의 저술들과 함께 중요한 문헌으로서 빈번하게 인용되었다. 즉 9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시기에 편찬된 일본 삼론학 문헌들인 『中論疏記』, 『大乘法門章』, 『三論玄疏文義要』, 『三論名教抄』, 『大乘玄問答』, 『大乘正觀略私記』, 『玄疏問答』, 『三論祖師傳集』, 『三論玄義檢幽集』, 『大乘玄聞思記』, 『三論眞如緣起事』, 『三論玄義抄』, 『三論玄義肝要抄』, 『八幡宮勸學講問答抄』 등에 이 책에서의 인용이 다수 보이고 있다.[8]

현존하는 『사론현의』의 板本과 寫本도 일본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현재 일반에 알려진 유일한 판본은 大日本續藏經 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전체 12권 중에서 7권만 남아 있고 그나마 일부 권들은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는 상태이다.[9] 寫本의 경우 京都大學과 龍谷大學 도서관에 각기 한 종류의 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10] 두 사본 모두 속장경본과 마찬가지로 전체 12권 중 7권만 남아 있고 내용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속장경본과 이 두 사본은 같은 계통의 底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950년대 말에 續藏經本과는 내용이 다른 2권 분량의 필사본의 존재가 알려지고 이를 토대로 일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11] 이 2권의 내용은 아직까지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사론현의』는 현재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7권본과 2

---

6) 落合俊典 編, 1998 『七寺古逸經典硏究叢書 第6卷 中國・日本經典章疏目錄』(大東出版社, 東京) p.359

7) 위의 책, p.276

8) 이 문헌들에 인용된 내용은 伊藤隆壽(1974a)에 정리되어 있다.

9) 大日本續藏經 第1套 第74册에 수록되어 있다.

10) 京都大學圖書館 藏經書院文庫 (도서번호 藏/6/タ/3)와 龍谷大學圖書館(도서번호 多/9/11)에 소장되어 있다.

11) 横超慧日(1958;1963)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三桐慈海(1970;1973)와 伊藤隆壽(1974b;1975;1976) 등에 의해 그 내용이 검토되었다.

권본 등 2종이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2종을 합하면 전체 12권 중 9권 정도가 된다. 다만 전해지는 책의 일부 권에도 결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으므로 9권의 분량이 모두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현재 전해지는 『사론현의』는 원래의 책에 비하여 4분의 3 정도에 불과하여 본래의 체제와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 일본 중세의 불교문헌 등에서 『사론현의』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제○권' 등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사본과 함께 이들 인용자료들을 활용하면 『사론현의』가 본래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가능하다.[12]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론현의』는 전체 12권[13] 23편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권별 구성은 다음과 같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4]

卷1 初章中假義 (신발견)

卷2 八不義 (신발견)

卷3 二諦義 (續藏經수록, 후반부 결락)

卷4 夢覺義 (逸失), 感應義 (續藏經수록)

卷5 十地義 (逸失), 斷伏義 (續藏經수록), 金剛心義 (續藏經수록)

卷6 佛性義 (續藏經수록)

卷7 佛性義 (續藏經수록, 전반부 결락)

卷8 五種菩提義 (逸失)

卷9 二智義 (續藏經수록)

卷10 成壞義 (逸失)

---

12) 현재의 續藏經本의 각 편에 붙여진 卷次는 일본 중세의 불교문헌에 인용되고 있는 『사론현의』 각 편의 卷次와 차이가 있는데, 현재의 권차는 후대의 잔결본에 임의로 붙여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13) 『사론현의』의 체제는 대부분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2권본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후대에는 14권본으로 편집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목록 등에 보이는 제목이나 卷數(12권과 14권), 분량(480丈, 610丈, 700丈) 등의 차이는 얼핏 별개의 책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기록을 종합할 때 이들은 동일한 책의 편집 혹은 필사상의 다른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4) 伊藤隆壽(1971) p.143

卷11 開路義 (逸失), 十四音義 (逸失), 四悉檀義 (逸失)

卷12 三乘義 (續藏經수록), 莊嚴義 (續藏經수록), 三位義 (續藏經수록), 三寶義 (逸失)

(그밖에 涅槃義, 法身義, 淨土義, 般若義 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수록되어 있던 卷數는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는 23편 중 현재 전해지는 것은 續藏經에 수록된 二諦義, 佛性義, 斷伏義, 金剛心義, 二智義, 感應義, 三乘義, 莊嚴義, 三位義 등 9편과 새로 발견된 필사본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初章中假義, 八不義 등 총 11편이며 이 중 二諦義, 佛性義의 일부 내용은 결락되어 있다. 나머지 12편 중 涅槃義, 法身義, 淨土義, 般若義 등 4편은 몇 권에 수록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다.[15)]

寫經기록이나 佛典目錄 등에 책의 제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론현의』의 본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현재 전해지는 사본들은 모두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라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 이로 보면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가 정식 제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大乘四論玄義記』 혹은 『大乘四論義記』는 정식제목을 줄인 것이고, 『三論廣章』이나 『均章』 등은 삼론학 개론서라는 책의 성격이나 찬자의 이름을 따서 간략하게 일컬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四論이라는 용어는 삼론학에서 중시하는 네 종류의 논서, 즉 『中論』, 『百論』, 『十二門論』과 『大智度論』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후대 삼론학파에서 四論과 三論은 통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론현의기'라는 제목은 삼론학의 주요 논서들의 깊은 뜻을 드러낸 책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續藏經本 『사론현의』의 본문에서는 三論과 四論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전자는

15) 伊藤隆壽, 1974c <彌勒經遊意と大品經遊意> 『印度學佛教學研究』44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東京)에서는 현재 吉藏의 저술로 전해지고 있는 『大品經遊意』(『大正藏』 33책 수록)가 실제로는 慧均의 『四論玄義』 중의 일부분으로서 <般若義>에 해당하는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찬술자 자신이 속한 삼론학파, 후자는 삼론학파에서 비판하는 네 가지 학파 즉 地論, 攝論, 成實, 毘曇 등의 학파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16] 과연 '四論(玄義)'이라는 용어가 본래의 제목에 사용되었을지 의심스러운 점도 있다. 속장경본의 내용으로 볼 때 비판의 대상이 되는 '四論의 깊은 뜻[玄義]'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17] 이런 점에서 '사론현의'라는 제목은 찬술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후대에 붙여진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본래의 제목은 일본의 불전목록에 보이는 『三論廣章』과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

2. 百濟 三論學 文獻으로서의 『大乘四論玄義記』

(1) 中國 撰述說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론현의』는 일본 불교계에만 전래되어 왔고, 중국과 한국 불교계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문헌이 처음부터 일본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책은 아니었다. 이 책은 일

---

16) 言破三歸一者 佛世尊赴緣說三乘者 本欲令其無(會?)三歸一教而其逐名相 執三作三解 如地攝等四論宗 是故破此解執 然此破卽收 破是破執 意正破如四論等 但大但小病 收卽收教令二乘歸一義故 正破三歸一也(續藏經本, 89右上).

問 若然者 何意性性(=往往？)破四論相 各(=答？) 亦處處科中說 爲著名取相 故落有所得被 亦名甘露亦名毒藥也 亦是有得四論 失於中假 於位中得 爲究竟至極 無故△落無所得宗 故被破也(續藏經本, 95左上).

如四論諸義 迷(=悉？)是有所得 被破不入一乘宗 只得次第緣不得作習因得佛也(續藏經本, 96左下)
彼四論義宗 恰恰有人與法 從小至至也 今無依無得宗 永異於有得四論宗(續藏經本, 97右下).

17) 일본의 중세 불교문헌에 인용된 『사론현의』의 내용 중에는 '四論'이 三論學派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三代四論師'[伊藤隆壽(1974a) p.70]로 나타나는 내용이 실제 필사본에는 '三代三論師'(伊藤 교수가 제공한 初章義 필사본에 의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후대의 불교문헌에 나타나는 '四論'이라는 용어는 필사자에 의해 개변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본의 여러 불교 문헌들에 '慧均 僧正'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혜균 승정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6세기 후반 중국 강남지방에서 삼론학을 크게 선양하였던 法朗(507-581)의 문하에서 吉藏과 함께 수학하였던 중국의 삼론학자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근대의 연구에서도 『사론현의』의 내용 중에서 법랑을 자신의 스승으로 중시하면서 그의 사상을 선양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와 같은 기존의 인식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르면 『사론현의』는 법랑의 제자이자 길장과 동문이 되는 혜균이라는 승려에 의하여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사이에 찬술된 문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찬술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중국에서 찬술된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먼저 이 책에서 耽羅에 대해 언급하면서 탐라인들을 문화적으로 미개한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가) 그들은 大乘의 論書에서 因中有果 혹은 (因中)無果 등의 견해가 배척된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헤아려서(私心卜著) 그런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논파할 대상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치 耽羅・刀牛(??)利 등의 사람이 禮樂의 교화를 입지 못한 것과 같다.[18]

耽羅는 주지하듯이 제주도를 가리키는데, (가)의 기록에서 탐라인들은 禮樂의 교화를 받지 못한 존재 즉 미개인의 대표적 존재로 언급되고 있다. 당시 탐라인들의 생활양식을 禮樂 즉 중국 문화의 교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당시 중국에서 (가)와 같이 탐라를 미개한 사회의 대표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적지 않은 의심이 든다. 기록에 보이는 중국인들의 耽羅와의 접촉은 隋나라 초기에 처음으로 나타나

18) 『四論玄義』 佛性義(續藏經本 卷7, 48左上)
"彼師 不識大乘論中因中有果無果等被破 故私心卜著作義 不足及破限 如耽羅刀牛(??)利等人 非禮樂所被也." '刀牛'는 寫本의 글자가 명확하지 않으며, 임시로 판독한 것이다.

고 있다. 즉 남북조시대 말기에 남조의 陳을 멸망시킨 隋의 군대 중 일부가 바다에서 표류하여 탐라에 이르렀다가 이후에 백제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19] 이것이 중국의 문헌에 보이는 중국인들의 耽羅와의 최초의 접촉이자 耽羅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이어서 隋 煬帝 大業 3년(607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파견한 사신이 백제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耽羅를 바라보았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만,[20] 이때는 멀리서 탐라를 바라본 것일 뿐 직접 탐라와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隋나라 초기에 군인들의 표류와 일본으로의 使行 도중의 견문 등으로 중국인들이 두 차례 탐라와 접촉하게 되었지만 두 차례의 접촉은 모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고 접촉을 통해 얻은 지식도 극히 제한적이었다.[21] 더욱이 이러한 형태의 접촉조차도 이후에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남중국을 완전히 통일한 이후에 다시 남쪽 바다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일이 없었고, 일본으로의 使行도 단 한 차례로 그치고 말아서 멀리서라도 다시 탐라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결국 당시 탐라와 접촉한 사람은 극히 제한되었고, 일반인들에게 탐라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다. 수나라 초기의 우연적인 접촉에 관한 언급을 제외하면 元代 이전의 문헌에 탐라에 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元代까지 중국인들의 탐라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대에는 중국의 문헌에 탐라에 관한 언급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탐라가 元에 직접적으로 예속되면서 중국인들의 탐라와의 접촉이 활발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元代 이전까지 중국인들의 탐라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에서와 같이 탐라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들의 대

---

19) 『隋書』 卷81, 列傳46 百濟 및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衛德王 36년 기사 참조.

20) 『隋書』 卷81, 列傳46 倭國.

21) 『隋書』에서 耽羅에 대한 언급은 백제로부터의 거리와 크기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인종이나 풍습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其南海行三月, 有耽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土多麞鹿, 附庸於百濟.”(『隋書』 卷81, 列傳46 百濟)

표적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중국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론현의』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사이에 찬술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는 비록 중국인들의 탐라에 대한 접촉이 처음으로 기록에 보이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당시 탐라와 접촉한 중국인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설혹 일부 사람들이 탐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라에 대하여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찬술된 중국의 문헌이라면 (가)와 같이 예악의 교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 존재로서 탐라 사람들을 언급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고대부터 주변 민족들을 야만족이나 미개인으로 여기는 華夷思想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었고, 따라서 耽羅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미개인으로 언급되는 종족을 많이 알고 있었다. 실제로 탐라에 대해 보다 많은 접촉을 하게 된 원대 이후의 중국문헌에도 탐라가 미개인의 대표적 존재로 언급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탐라를 미개한 사람들의 대표적 존재로 언급하고 있는 『사론현의』는 중국에서 찬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사론현의』에만 나타나는 '吳魯'라는 용어도 이 책이 중국에서 찬술되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주목된다.

(나) 다만 이곳[此間]의 攝論師가 三論義疏를 몰래 외워 그들의 주장 중에 집어넣은 것이니, 가벼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일 뿐 吳魯師의 뜻은 아니다. 이른바 (중국 북부지역 사람들이 머리에 쓰던 관인) 章甫를 머리를 풀어헤치고 몸에 문신을 한 (남방 사람들의) 머리에 씌운 것과 같다.[22)]

---

22) 『四論玄義』 佛性義(續藏經本 卷7, 45右上)
"但此間攝論師偸誦三論義疏意 安置彼義中 輕毛之人信從之 非吳魯師意 所謂是章甫安編髮文身頭戴也."

(다) 吳와 魯 두 나라의 큰스님이 항상 이르기를 부처님의 正法을 깨뜨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총명함을 믿고서 大乘과 小乘의 經論을 널리 들어 종합하여 밝게 이해할 수 있게 공부하지 않아서 經論의 뜻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正法을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둘째는 비록 한 종류의 經論의 뜻은 자세히 들었지만 나머지 經論은 널리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경론의 뜻으로 다른 경론의 뜻을 해석하려고 한 사람들이니 이들도 또한 佛法을 없애는 사람들이다. 뒤에 공부하는 여러 사람들은 그러므로 삼가고 삼가야 할 것이다.[23)]

(라) 『起信論』은 吳魯人이 만들고서 馬鳴菩薩의 이름에 가탁한 것이다.[24)]

(마) 첫째로 魯國師는 半・滿의 두 가지 教로 구분하였고, 吳國師는 漸・頓・偏의 3종류의 教로 구분하였다.[25)]

吳(國)와 魯(國)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양자강 하류 남쪽 지역과 山東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이들 지역을 묶어서 '吳魯'라고 일컫는 경우는 중국 문헌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 역사적・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들 두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가리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론현의』에 사용된 '吳魯'라는 용어는 단순히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吳(國)와 魯(國)의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사론현의』에 나타나는 '吳魯'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吳(國)・魯(國)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의 吳魯兩國이나 (마)의 魯國・吳國 등의 용어로 보아 吳(國)와 魯(國)

23) 『四論玄義』 佛性義(續藏經本 卷8, 68右下)
"吳魯兩國大德常云 有二種破佛之正法 一藉聰明不就學 廣聞大小經論 漫融通明故失經論旨趣 故名爲破法人也 二雖熟聽聞一部論旨 而不廣習餘論故 一論意致通釋諸論意 復是滅佛法人也 後學諸人故須愼之愼之也."

24) 『四論玄義』 十地義 逸文 [伊藤隆壽(1974a) p.75]
"起信是虜(=吳)魯人作 借馬鳴菩薩名."(虜는 吳의 誤字로 생각된다.)

25) 『四論玄義』 佛性義 逸文 [伊藤隆壽(1974a) p.76]
"一魯國師 立半滿兩教 吳國師 判頓漸偏三種教也."

는 두 개의 서로 대칭되는 국가나 지역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나)의 吳魯師나 (라)의 吳魯人이라는 용어로 볼 때 이들은 서로 합하여서 하나로 총칭될 수 있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 그런데 이처럼 서로 별개의 지역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총칭될 수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점에서 吳와 魯는 중국의 강남과 강북지방 혹은 강남과 강북지방에 있던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생각된다. 실제로 (마)에 보이는 魯國師와 吳國師의 教判論은 각기 남북조 시대 중국 강북지방과 강남지방의 승려들의 教判論과 일치하고 있다. 즉 남조의 승려들이 불교의 경전들을 頓教・漸教・不定教 등으로 구분하는 3教判을 주장한[27] 반면 북조의 승려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가르침인 大乘의 滿字教와 불완전한 가르침인 小乘의 半字教로 구분하는 教判論이 주장되었다.[28] 일본 중세에서도 吳國과 魯國은 각기 중국의 강남과 강북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었다.[29]

이처럼 『사론현의』에서의 吳(國)와 魯(國)는 중국의 강남과 강북지방 혹은 강남과 강북지방에 있던 국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국의 강남과 강북지방 혹은 그 지역에 있던 국가들을 吳(國)와 魯(國)로 대칭하여 가리키는 모습은 다른 중국의 문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강남지방 혹은 남조의 국가를 吳(國)로 표현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강

---

26) 伊藤隆壽는 吳와 魯의 大德을 각기 僧詮과 法朗으로 보고 있는데[伊藤隆壽(1972) p.296], 『四論玄義』의 전체 내용으로 볼 때 특정 승려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 지역의 승려들 다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27) 吉藏, 『勝鬘寶窟』(『大正藏』37, 5c)
"南土人云 教有三種 一頓教 二漸教 三無方不定教."

28) 半滿兩教判은 중국에 地論學을 본격적으로 전래한 菩提流支에게서 비롯되어 이후 남북조시대 北朝의 地論宗 승려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天台智顗, 『妙法蓮華經玄義』권10 (『大正藏』33, 801b) "五者菩提流支明半滿教 十二年前皆是半字教 十二年後皆是滿字教."]

29) 일본 중세의 삼론학자인 珍海(1092-1152)는 吉藏의 『三論玄義』에 대한 주석서에서 吳國과 魯國을 각기 강남과 강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珍海, 『三論玄疏文義要』 권1 (『大正藏』70, 211c) "江南者吳國也ツシマノ音ハ此國音也對馬國始傳也 江北者魯國也ウルハシキ音ハ魯國ヲ云也 江南是吳也 或時呼吳云江左 又云江東 今案 南東雖似吳卽不違歟."]

북지방 혹은 북조의 국가를 魯(國)로 일컫는 용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둘을 연칭하는 '吳魯'라는 용어로 강남지방과 강북지방을 아울러 가리키는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문헌에서 남북조시대의 강남과 강북 혹은 남조와 북조의 국가를 가리킬 때에는 江南・江北, 南土・北土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吳나 魯와 같이 특정 지명을 사용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불교문헌에서 남북조의 승려들을 가리킬 때에도 北地師・南地師, 南土人・北土人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사론현의』에는 그러한 표현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江南・江北, 南土・北土, 北地・南地 등의 표현과 비교할 때 吳(國)・魯(國)와 같은 표현은 외부에서 他者가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한데 이런 점에서 『사론현의』는 중국의 다른 문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외부에서 찬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30)]

『사론현의』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찬술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나)에서 '이곳[此間]의 攝論師'와 '吳魯師' 즉 吳(國) 및 魯(國)의 승려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중국의 강남지방 혹은 남조의 국가를 가리키는 吳(國) 및 강북지방 혹은 북조의 국가를 가리키는 魯(國)와 구별되는 '이곳[此間]'은 중국과는 다른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용상 '이곳[此間]'은 『사론현의』의 찬술자가 이 책을 찬술할 당시 있던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31)] 만일 『사론현의』가 중국에서 찬술되었다면

30) 일본 불교계에 吉藏의 저술로 전해지고 있는 『維摩經略疏』에 '吳魯'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 용어가 중국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동국대 金相鉉 교수의 教示에 의함). 하지만 길장의 『유마경약소』의 존재는 중국과 한국의 불교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일본의 佛典目錄들에도 撰者에 대하여 慧遠과 吉藏으로 혼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책에 제시된 『유마경』의 序分-正說分-流通分의 단락 구분은 길장의 다른 『유마경』 주석서들의 단락 구분과 차이가 있고, 길장의 다른 저술들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의 성격에 대하여는 길장의 眞撰 여부를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1) '此間'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즈음 사이'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곳'이라는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일본어의 경우

찬술자 자신이 있는 곳을 吳魯 곧 중국과 구별되는 '이곳[此間]'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의 내용은 『사론현의』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찬술되었음을 보여주는 보다 직접적인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百濟 撰述說의 근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론현의』의 내용 중에는 중국에서 찬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론현의』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찬술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론현의』 본문에는 이 문헌이 중국이 아닌 백제 지역에서 찬술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즉 백제의 사찰에서 활동하던 승려가 『사론현의』의 찬술 당시에 '지금, 이곳'의 인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바) 질문: 앞의 10명의 학자들의 견해는 모두 잘못을 옹호하는 것이어서 논파되었다고 한다면 지금[今時] 이곳[此間]의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이 眞如를 (佛性)의 正因性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대답: 일단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冶城(寺) 素法師의 견해와 비슷하며 아울러 莊嚴(寺 僧旻)이나 地論(宗)의 견해와 같은 부류로서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또한 그들은 大乘의 論書에서 因中有果 혹은 (因中)無果 등의 견해가 배척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헤아려서[私心卜著] 그런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논파할 대상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

此間(このあいだ)은 '요즈음'이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근대 이후 우리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此間은 '이곳, 자기가 있는 곳'이라는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치 耽羅・刀牛(??)利 등의 사람이 禮樂의 교화를 입지 못한 것과 같다.[32]

이 단락은 『사론현의』의 찬술자가 佛性의 體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존의 10가지 견해들을 삼론종의 입장에서 논파한 이후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자와 對論하는 부분으로, 대답의 뒷부분에는 앞에서 인용한 耽羅를 언급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질문자는 앞에서 『사론현의』의 찬술자에 의해 논파된 10가지 견해와는 별도로 '지금[今時] 이곳[此間]'에서 활약하던 寶憙淵師와 祇洹雲公 등 두 사람의 승려의 견해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고, 『사론현의』의 찬술자는 그들의 견해는 대승의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논파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조차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론현의』에 보기 드물게 찬술 당시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곳으로서 『사론현의』의 찬술상황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지금[今時] 이곳[此間]'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질문자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이 어떤 인물인지 알면 『사론현의』의 찬술시기와 찬술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 중에서 이들 중 寶憙淵師를 隋나라 때 활약하였던 靜淵(544-611)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었지만,[33] 이는 특별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승려 중에 淵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靜淵의 행적에서 그가 寶憙寺와 관련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寶憙淵師로 보기는 힘들다.[34] 일반적으로 불교 문헌에 등장하는 승려들의 호칭은 그들이 머물렀던 사찰 이름에 법명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은 각기 寶憙寺

32) 『四論玄義』 佛性義(續藏經本 卷7, 48左上)
"問 前十師說 竝爲護過 故被破者 今時此間 寶憙淵師 祇洹雲公 作眞如爲正因性 復云何耶 答 一往觀述彼師義宗 似落冶城素法師義宗幷莊嚴義及地論炁(=氣)而非正宗 亦是彼師 不識大乘論中因中有果無果等被破 故私心卜著作義 不足及破限 如耽羅刀牛(??)利等人 非禮樂所被也."

33) 伊藤隆壽(1972) p.296

34) 靜淵의 전기는 『續高僧傳』 권11에 수록되어 있다.(『大正藏』50, 511b)

의 淵師와 祇洹寺의 雲公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제까지 알려진 자료에서 보희사에 주석하였던 '○淵', 祇洹寺에 주석하였던 '○雲' 등의 승려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寶憙寺의 경우 여러 곳에 비슷한 이름의 사찰이 건립되었던 祇洹寺[35]와 달리 어떠한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백제 목간의 기록을 통하여 寶憙寺라는 이름의 사찰이 7세기 무렵 백제 지역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2000년 4월 백제의 고도인 부여의 陵山里 절터에서 발견된 20여 점의 목간 중 하나에 寶憙寺라는 글씨가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사진 1〉),[36] 이 목간은 정황으로 보아 백제 왕릉의 陵寺였던 능산리 사찰에서 개최된 4월 초파일 의례에 참여한 승려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7] 특히 이 목간의 뒷면에는 소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사진 2〉) 능산리 사찰과 보희사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보희사는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나 부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었던 사찰로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비슷한 이름의 사찰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론현의』의 보희사와 목간에 나오는 보희사가 서로 별개의 사찰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문헌자료에 寶憙(寺)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寶憙'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불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38]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백제의 목간에서 확인된 보희사와 『사론현의』

---

35) 祇洹寺의 이름은 석가모니 생존 당시 부유한 상인이었던 급고독장자가 석가모니를 위하여 건립하였던 기원정사(祇園精舍, 祇洹精舍)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국 僧傳의 기록에 祇洹寺, 祇園寺, 枳園(薗)寺 등이 보이고, 新羅에서도 祇園寺가 건립되었다.(『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二十七年春二月 祇園實際二寺成.")

36) 木簡의 前面과 裏面에 각기 '四月七日 寶憙寺 智眞/乘□ (이하결락)', '(윗부분 결락) □送塩三石'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편, 2004 『韓國의 古代木簡』 328 참조)

37) 尹善泰, 2004 <扶餘 陵山里 出土 百濟木簡의 再檢討> 『東國史學』40 (東國史學會, 서울) 60-62

38) 寶憙라는 용어는 여러 한자어사전과 불교사전에 보이지 않고 있으며, 大正新修大藏經을 비롯한 여러 佛典文獻들의 검색에서도 寶憙라고 하는 용어를 찾을 수 없었다.

의 보희사를 동일한 사찰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바)에서 '지금[今時] 이곳[此間]'의 승려로 언급된 寶憙淵師가 머물렀던 寶憙寺가 7세기 당시 백제의 수도 부여 지역에 있던 사찰로 인된다는 점에서 『사론현의』가 찬술되었던 '이곳[此間]'은 백제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의 (나)에서도 『사론현의』의 찬술자는 자신이 있는 곳을 '이곳[此間]'이라고 하여 吳魯 즉 중국과 구별하고 있었는데, 그 때의 '이곳[此間]'도 백제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론현의』에 보이는 寶憙寺가 백제의 사찰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론현의』는 백제에서 찬술된 문헌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론현의』의 내용 중에 중국에서 찬술된 문헌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앞 장에서 검토한 사실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론현의』를 중국문헌으로 이해하였을 때에는 耽羅와 吳魯와 같은 용어가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이 책을 백제에서 찬술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별다른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진 1〉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寶憙寺' 목간 (앞면)



〈사진 2〉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寶憙寺' 목간 (뒷면)

元代 이전의 중국에서 탐라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百濟와 탐라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였다.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文周王 2년(476년)에 탐라는 백제에 方物을 바쳤으며,[39] 東城王 20년(498년)에는 탐라가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자 백제 측에서 탐라 정벌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40] 5세기 후반에 이미 탐라는 백제에 종속되어 그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탐라가 백제에 예속되어 있었음은 중국과 일본의 자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 南朝의 梁에 朝貢하는 외국 사신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梁職貢圖』에서는 백제에 종속되어 있는 小國 중 하나로 탐라에 해당하는 下枕羅를 들고 있고,[41] 『隋書』에서는 탐라가 백제에 附庸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42] 『日本書紀』에는 508년에 탐라가 백제와 통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43] 『사론현의』가 찬술되던 시기에 백제인들에게 탐라는 대단히 잘 알려지고 익숙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백제는 5세기부터 탐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耽羅와 같은 남방의 사람들을 '南蠻' 즉 남쪽에 사는 미개한 종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서기』에는 일본에서 南蠻인 忱彌多禮를 정복하여 이를 백제에 하사했다는 기사가 있는데,[44] 이 기사는 본래 백제의 기록을 『일본서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일본으로 바꾸어 집어넣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忱彌多禮를 南蠻이라고 여기는 것은 본래 백제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

39)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 2년
"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

40)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20년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耽羅卽耽牟羅."

41) 『梁職貢圖』 百濟
"傍小國有 叛波 卓 多羅 前羅 新羅 止迷 麻連 上己文 下枕羅 等附之."

42) 주 19)의 사료 참조.

43) 『日本書紀』 卷17, 繼體 2년
"十二月 南海中耽羅人 初通百濟國."

44)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49년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이해된다. 이 忱彌多禮는 일반적으로 耽羅 즉 제주도로 비정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백제에서는 탐라를 미개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5] 이처럼 탐라를 미개한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론현의』에서 탐라인들을 禮樂의 교화를 받지 못한 미개한 사람들로 여기는 인식과 상통하는 것이다.[46] 따라서 『사론현의』가 백제에서 찬술되었다고 한다면 탐라인들을 미개한 사람들의 대표적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론현의』에서 중국의 강남지방과 강북지방 혹은 남조와 북조를 각기 吳(國)와 魯(國)로 일컬으면서 양자를 합한 '吳魯'라는 명칭으로 자신들과 구분되는 별개의 지역을 가리키는 것도 이 책이 백제에서 찬술되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다. 백제는 바닷길을 통하여 중국의 남북조 국가 모두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강남지방의 남조와의 교류는 양자강 하류지역, 강북지방의 북조와의 교류는 산동지역을 이용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 양자강 하류지역과 산동지역이 吳와 魯로 불리는 지역이었으므로 백제에서 강남지방의 남조와 강북지방의 북조를 각기 吳(國)와 魯(國)로 일컫는 것은 자연스러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기』에는 609년에 백제왕이 승려와 속인들을 吳國으로 파견하려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47]

---

45) 忱彌多禮를 『일본서기』에 보이는 新彌諸國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제주도가 아닌 전남 남해안의 강진·해남 지역으로 비정하기도 한다.[李丙燾, 1981 <近肖古王拓境考>『韓國古代史硏究』(博英社, 서울); 이근우, 1997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百濟研究』27 (충남대 백제연구소, 대전) ; 姜鳳龍. 1999 <3-5세기 榮山江유역의 '甕棺古墳社會'와 그 성격> 『歷史敎育』69, (역사교육연구회, 서울)] 이 경우에도 백제인들이 남방의 小國들을 미개한 종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는 변화가 없다. 직접 육지로 이어진 강진·해남 지역의 사람들을 南蠻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보다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탐라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미개한 종족으로 여겼을 것이다.

46) 耽羅와 함께 나오는 '刀牛(??)利'는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續藏經本에서 '刀牛'라는 글자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京都大圖書館 소장의 필사본도 이 부분의 글자는 제대로 판독되지 않는다. 底本의 해당 부분 자체에 결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7) 『日本書紀』 卷22, 推古 17년

이는 백제에서 실제로 남조의 국가를 吳國으로 불렀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론현의』에서 '지금(今時) 이곳(此間)'의 사찰로 이야기되고 있는 寶憙寺가 백제의 목간 자료를 통해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백제 지역에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중국에서 찬술된 문헌이라고 할 경우 잘 이해되지 않던 耽羅와 吳魯 등의 용어도 백제지역에서 찬술된 문헌이라면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사론현의』는 중국에서 찬술된 문헌이 아니라 백제지역에서 백제의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여 찬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48]

(3) 百濟 撰述說 批判에 대한 反論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사론현의』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중국의 문헌이 아니라 백제에서 찬술된 한국 고대의 불교문헌으로 파악되지만,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면서 『사론현의』를 백제의 문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49] 이 견해에 따르면 『사론현의』에서 '今時此間'의 승려로 언급되고 있는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이라는 두 사람의 승려는 백제의 승려가 아니라 중국 승려인 '寶亮法師'와 '光宅法雲'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즉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의 佛性에 대한 견해가 『사론현의』에 제시되어 있는 寶亮 및 法雲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중

"夏四月丁酉朔庚子 筑紫大宰奏上言 百濟僧道欣慧彌爲首一十人 俗七十五人 泊于肥後國葦北津 是時 遣難波吉士德麻呂船史龍 以問之曰 何來也 大曰 百濟王命以遣於吳國 其國有亂不得入 更返於本鄉 忽逢暴風 漂蕩海中."

48) 『四論玄義』가 본래 읽기 위한 책으로 찬술된 것인지 아니면 講義 내용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講義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의 여러 곳에서 '자세한 설명은 某某義에 이야기하였다'는 식으로 다른 편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講義라고 하여도 이미 기록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49) 김성철, 2007 <『大乘四論玄義記』는 백제에서 찬술되었나? -최연식 교수의 '백제 찬술설'에 대한 반론->『韓國史硏究』137 (한국사연구회, 서울)

국의 남북조 시대 승려인 寶亮(442-507)과 法雲(467-529)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50) 따라서 '寶憙淵師'는 '寶憙寺의 淵師'가 아니라 '寶亮法師'의 필사상의 착오이고, '祇洹雲公'은 寶亮의 제자로 흔히 '光宅法雲'이라고 불린 法雲의 異稱이라는 것이다. 필사상의 오류가 적지 않은 『대승사론현의기』의 성격으로 볼 때 '亮→憙', '法→淵'의 착오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51) 祇洹寺가 법운이 활동하던 金陵 지역에 있었고, 법운이 한 사찰에만 머물지 않았으므로 법운이 기원사에서 강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寶亮과 法雲은 眞如性(理)을 佛性의 正因體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眞如를 佛性의 正因性 즉 본질로 보고 있는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의 견해와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眞如를 佛性의 正因으로 여기는 것은 당시 불교 승려들 다수에게서 보이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을 각기 寶亮, 法雲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眞如를 佛性의 正因으로 여겼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사실들이 모두 타당할 때에 비로소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을 寶亮·法雲과 같은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론현의』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을 寶亮·法雲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먼저 寶亮이 앞의 인용문 (바)가 나오는 단락의 바로 앞부분에서 두 차례나 小亮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寶憙淵師를 寶亮法師의 誤寫로 보기 어렵게 한다.52) 즉 佛性의 正因에 대한 논의 서두에 기존의 견해 10가지 중의 세 번째로서 '靈味(寺)小亮'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네 번째 梁武帝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결국은 '小亮'의 견해와 통하는 것이라

50) 김성철(2007) pp.342-344

51) 寶亮을 중국의 자료나 불교 문헌에 보이지 않는 寶憙로 誤寫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해지는 『대승사론현의기』의 원본이 寶憙寺가 있던 백제에서 필사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문헌은 '백제 찬술문헌'이 아니라 '백제에서 필사된 문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김성철(2007) p.343 각주 35) 참조]

52) 중국의 불교문헌들에서는 寶亮을 같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道亮과 구별하기 위하여 小亮으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보량보다 활동 연대가 빠른 道亮은 大亮으로 일컬어졌다.

고 이야기하고 있는데,[53] 이와 같이 같은 단락의 바로 앞부분에서 小亮이라고 일컬은 인물을 다시 지칭하면서 '寶亮法師'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인물이라면 적어도 같은 단락에서는 같은 호칭을 사용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이 점은 法雲을 가리킨다고 본 祇洹雲公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法雲은 이 단락의 앞부분에서 '光宅(寺)法雲'이라는 이름으로 10가지 견해 중 여섯 번째 견해의 주창자로 인용되고 있고,[54] 바로 뒤에서 그의 견해를 비판할 때에는 '光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55] 뿐만 아니라 『사론현의』 전체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인용되고 있는 법운의 경우 '光宅雲法師' '光宅法雲' '光宅' '法雲' 등으로만 일컬어지고 있을 뿐 어디에서도 '祇洹'이라는 호칭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법운이 광택사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헌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자료에도 法雲이 '祇洹'이라는 호칭과 연결되어 일컬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운이 일시적으로 金陵의 기원사에서 머물렀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며, 실제로 법운과 기원사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운의 전기에는 그가 莊嚴寺에서 출가하여 道林寺에서 강의를 들었고, 妙音寺에서 처음 강의를 하였으며, 황제의 명령으로 光宅寺와 同泰寺에 머물렀고 入寂한 후에는 定林寺 옆에 묻혔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사찰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祇洹寺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56] 이처럼 그의 행적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찰의 이름을 붙여서 法雲을 일컬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승려에 대한 호칭과 연결되는 사찰명은 그를 대표하는 대명사와 같은 것으로서,[57] 그와 관련되는 사찰 중에서도 그가 주로 활동하였던 대표적

---

53) 『大乘四論玄義記』(續藏經本 46左上-下)
54) 『大乘四論玄義記』(續藏經本 46左下)
55) 『大乘四論玄義記』(續藏經本 47左下)
56) 『續高僧傳』권5, 法雲 (大正藏50, 463-5)

인 사찰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그와 관련된 사찰들 중에서 아무 사찰이나 선택하여 임의로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승려들의 경우 사찰 이름만 들어도 어느 인물인지 알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사찰의 이름이 함께 사용되었고, 한 사람의 승려를 지칭할 때에 여러 사찰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실제로 법운의 경우 여러 사찰에 머물렀지만 光宅寺만이 그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사찰들은 그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사례가 보이지 않고 있다.[58] 또한 광택사에서 활동한 승려들이 적지 않지만 法雲이 아닌 다른 승려가 광택사와 연결되어 일컬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法雲은 유일하게 光宅寺와 연결되어 '光宅法雲'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祇洹雲公이 法雲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운이 祇洹(寺)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최소한의 자료나 혹은 그와 비슷한 다른 승려의 사례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논리 전개라고 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이 거론되고 있는 바로 같은 단락에서 寶亮과 法雲이 각기 小亮과 光宅(法雲)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사론현의』는 물론 다른 어떠한 자료에도 법운을 '祇洹(寺)'과 연결 지어 일컬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을 寶亮과 法雲을 가리킨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어져 있는 두 승려의 이름 표현 방식을 볼 때에도 寶憙淵師를 寶亮法師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 寶憙淵師를 寶亮法師의 誤寫로

---

57) 중국의 『續高僧傳』이나 『宋高僧傳』 등의 목차에서는 각 승려의 이름 앞에 특정 사찰명을 함께 붙이고 있는데, 이는 특정 사찰을 해당 승려를 대표하는 사찰로 일컫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8) 法雲과 관련되는 사찰 중 莊嚴寺는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활약하였던 僧旻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볼 경우 곧바로 이어져 있는 寶亮法師와 祇洹雲公의 호칭이 하나는 '이름(2字)+존칭(2字)'이고 다른 하나는 '사찰명(2字)-이름+존칭(2字)'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비대칭적인 표현은 對句를 중요시하는 한문 문장에서는 사용되기 힘든 표현법이다. 실제로 寶亮法師와 祇洹雲公이 인용되고 있는 『사론현의』의 같은 단락에서 두 명의 승려를 나열할 때에는 '莊嚴(寺)旻法師・招提(寺)白琰公' '定林(寺)柔法師・開善(寺)知藏師'와 같이 '사찰명(2字)-이름+존칭(3字)'의 동일한 구조를 이용하고 있으며, 승려 이름을 나열할 때에 비대칭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는 『대승사론현의기』에서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다른 문헌들에서도 '寶亮法師・祇洹雲公'과 같은 비대칭적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을 '寶憙(寺) 淵師'와 '祇洹(寺) 雲公'으로 해석하면 두 호칭은 '사찰명(2字)-이름+존칭(2字)'으로서 정확하게 대구를 이루게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寶憙淵師는 寶亮法師의 誤寫가 아니라 백제에 있던 寶憙寺의 승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祇洹雲公 역시 중국 승려 法雲이 아닌 백제 祇洹寺의 승려가 될 것이다.

나아가 <佛性義> 해당 단락의 논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아도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을 寶亮과 法雲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이 인용되고 있는 <佛性義> 중의 세 번째 단락인 '第三論體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기존의 견해들 소개

a. 佛性의 體・相에 대한 道生, 曇無遠, 望法師 등 3 舊師의 견해 제시

b. 이 세 가지 주요 견해에서 비롯된 10가지 지엽적 견해들 제시

① 白馬(寺)愛法師: 道生의 견해를 따라 當果를 正因으로 삼음.

② 靈根(寺)令正(令僧正): 望師의 견해를 따라 일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치[本有得佛之理]를 正因體로 삼음.

③ 靈味(寺)小亮法師: 俗諦와 眞諦의 근본이 되는 衆生의 眞如性理를 正因體로 삼음.

④ 梁武蕭天子(梁武帝): 마음에 있는 眞神을 正因體로 삼음. 진제와 속제를 초월한 것으로서 小亮의 견해와 비슷한 것임.

⑤ 中寺小安法師: 마음의 冥傳不朽한 것이 正因體가 됨. 역시 진제와 속제를 초월한 것을 상정한 것임.

⑥ 光宅(寺)雲法師: 마음의 避苦求樂性을 正因體로 삼음. 역시 진제와 속제를 초월한 것을 상정한 것임. 또 스승인 亮師(=寶亮)의 견해를 따라서 眞如性을 正(因)體로 삼음.

→ ④, ⑤, ⑥은 마음을 셋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임.

⑦ 河西道朗法師의 후예인 莊嚴(寺)旻法師, 招提(寺)白琰公 등: 衆生을 正因體로 삼음. 역시 진제와 속제를 벗어난 것임.

⑧ 定林柔法師義 開善知藏師所用: 通으로는 假・實이 모두 正因體, 別로는 心識이 正因體.

⑨ 地論師: 제8 無沒識이 正因體.

⑩ 攝論師: 제9 無垢識이 正因體.

→ ⑨, ⑩은 自性淸淨心을 正因佛性體로 여김. 지론과 섭론은 曇無遠法師의 뜻과 같음.

c. 평가: 이들 10가지 견해는 모두 자기 생각으로 경전의 내용을 해석한 잘못된 것들임.

B. 기존의 견해들에 대한 비판 및 올바른 견해 제시.

a. 10가지 견해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 비판.

<問1>: 10家의 견해는 모두 경전에 의거한 것인데 왜 틀렸다고 하는가?

<答1>: ①에서 ⑦까지의 견해에 대하여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비판함.

<問2>: 河西(⑦ 견해의 최초 주창자)는 왜 衆生을 佛性이라고 하였는가?

<答2>: 法師(=河西)의 견해와 후대 다른 승려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함.

이어서 ⑨와 ⑩ 및 ⑧의 견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판함.

b. 10가지 견해에 대한 총괄적 비판.

c.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의 견해에 대한 평가.

<問3>: 앞의 10가지 견해가 모두 잘못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비판되었다면 현재[今時] 이곳[此間]의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이 眞如를 (佛性)의 正因性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答3>: 일단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冶城(寺) 素法師의 주장과 비슷하며 아울러 莊嚴(寺 僧旻)이나 地論(宗)의 견해와 같은 부류로서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또한 그들은 大乘의 論書에서 因中有果 혹은 (因中)無果 등의 견해가 배척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기 멋대로 헤아려서[私心卜著] 그런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논파할 대상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치 耽羅・刀牛(??)利 등의 사람이 禮樂의 교화를 입지 못한 것과 같다.

d. 三論學派의 입장에서 본 올바른 견해 제시.

大乘의 올바른 견해는 中道를 正因體로 삼는다. 正因佛性은 正法이다. 앞의 견해들은 모두 二義인데, 有二는 有所得이고 無有二는 無所得이다.

<問4>: 無有二가 반드시 無所得인가?

<答4>:『대품경』,『중론』,『열반경』「범행품」 등의 내용에 의거할 때 中道正法이 正因佛性體이다.

<問5>: 다른 근거는 또 무엇이 있는가?

<答5>:『열반경』「여래성품」,「가섭품」,「사자후품」 등 근거는 매우 많다.

앞의 10가지 견해에 대하여 비판하였지만, 동시에 그들은 모두 일정하게 佛性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모두 옳은 것이다.

이상 정리한 것처럼 <佛性義>'第三論體相'은 기존의 견해들을 소개하는 부분(A)과 그 견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판하면서 三論學派의 견해를 소개하는 부분(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부분(B)은 다시 기존의 10가지 견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판하는 부분(B-a)과 10가지 견해의 공통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비판하는 부분(B-b), 그리고 寶亮淵師와 祇洹雲公의 견해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B-c) 및 三論學派의 견해를 제시하는 부분(B-d)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으로 볼 때 寶亮淵師와 祇洹雲公은 앞에서 비판한 10가지 견해와는 별도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앞의 10가지 견해[前十師說]는 모두 잘못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비판되었다면, 현재 이곳[今時此間]의 寶亮淵師와 祇洹雲公이 眞如를 (佛性)의 正因性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앞의 10가지 견해와 寶亮淵師와 祇洹雲公의 견해를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問3>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백제 찬술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寶亮淵師와 祇洹雲公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寶亮과 法雲의 견해에 대한 추가적 비판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 내용은 10가지 견해에 대한 비판이 모두 끝난 다음이 아니라 일곱 번째 견해에 대한 추가적 비판(〈問2-答2〉)처럼 10가지 견해에 대한 개별적 비판 부분(B-a) 중의 寶亮과 法雲의 견해에 대한 비판 부분 다음에 위치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미 10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개별적 비판은 물론 종합적 비판이 다 끝난 뒤에 새삼스럽게 寶亮과 法雲의 견해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이 단락의 전체 구성으로 볼 때 수긍하기 힘들다. 더욱이 <答3>에서는 寶亮淵師와 祇洹雲公의 견해에 대하여 '자기 멋대로 헤아린 것으로서[私心卜著] … 논파할 대상에도 미치지 않는다[不足及破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寶亮淵師와 祇洹雲公이 寶亮과 法雲이라면 이것은 모순되는 이야기이다. 寶亮과 法雲의 견해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하고 있으므로, '논파할 대상에도 미치지 않는다[不足及破限]'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寶亮과 法雲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대표적인 불교학자로서 『사론현의』에도 빈

번하게 그들의 견해가 소개되고 있다. 비록 삼론학자인 『사론현의』 撰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禮樂의 교화도 입지 못한' 수준 낮은 오랑캐와 같은 존재로 평가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59]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론현의』의 다른 부분에서 寶亮과 法雲을 지칭하는 용어와의 차이, 連稱되는 승려 이름의 표현의 비대칭성, 해당 단락의 논의 전개 맥락 등으로 볼 때 寶憙淵師를 寶亮法師의 誤寫로 파악하거나 祇洹雲公을 중국 승려 法雲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들과는 별개로 寶憙淵師가 寶亮法師의 誤寫라고 하는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왜 그러한 誤寫가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백제 찬술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사론현의』에서 '藏'이 '滅'로, '宋'이 '宗'으로, '小'가 '山'으로, '素'가 '索'으로, '關'이 '開'로 잘못 쓰여져 있는 등 수많은 誤寫가 있고, '喜根菩薩'이 '憙根菩薩'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寶亮法師가 寶憙淵師로 잘못 쓰여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잘못 쓰여진 글자들이 있다고 하여서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의 글자를 잘못 쓰여진 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논의 방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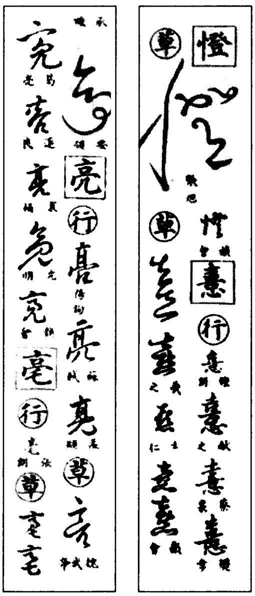
59) 김성철 교수는 『대승사론현의기』에서 寶憙淵師와 祇洹雲公 등을 禮樂의 교화를 입지 못한 대단히 미개한 오랑캐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심하게 비판하는 삼론학자들의 家風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김성철(2007) pp.352-356] 다른 학파에 비하여 삼론학파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견해에 대하여 엄격하게 비판하고 힐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의 견해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방의 견해에 대하여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비판의 대상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승사론현의기』에 나타나는 (今時此間의)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에 대한 비판이나 (此間의) 攝論師 등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그들의 이론상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므로 검토할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일반적인 삼론학자의 비판 대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당시 불교학의 일반적 이론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론현의』를 살펴보면 실제로 수많은 誤字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거론된 것들 이외에도 '與→輿', '因→目', '始→如', '空→定', '無→此', '諦→論', '靈→虛', '能→然', '後→改', '假→任', '周→朱', '楊→陽', '正→政', '或→惑'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誤字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誤字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그와 같은 誤寫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정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글자의 형태, 특히 草書의 형태가 비슷한 경우와 발음이 같은 同音異字의 경우에 주로 誤寫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이유' 이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엉뚱하게 잘못 쓰여진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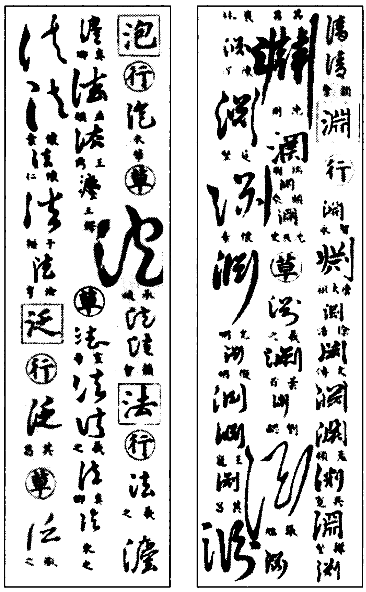
위에 제시된 사례들 중에서 '宋→宗', '與→輿', '觀→開/開→關' 등의 誤寫는 정서체에서 조금만 벗어난 필사에서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藏→滅', '小→山', '因→目', '始→如', '空→定', '無→此', '諦→論', '靈→虛', '能→然', '後→改', '假→任' 등은 일반 정서체에서는 명확히 구분되는 글자이지만 草書로 쓸 경우에는 쉽게 혼동될 수 있는 글자들이다. 그리고 '喜→憙', '周→朱', '楊→陽', '正→政', '或→惑' 등은 같은 발음의 同音異字를 착각하여 쓴 것이다. 이상과 같은 誤寫의 사례들은 양의 많고 적음에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한문 사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실제로 동일한 誤寫의 모습을 다른 필사문헌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면 『사론현의』에 보이는 誤寫의 사례들은 모두 위와 같은 적절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들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亮과 憙, 法과 淵의 경우에는 상대되는 글자들의 발음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글씨의 형태도 楷書는 물론 草書의 경우에도 전혀 달라서 쉽게 잘못 쓰기 어려운 글자들이다.(〈사진 3〉·〈사진 4〉 참조) 더욱이 亮과 法은 획이 단순하고 자주 쓰는 글자들로서, 憙와 淵처럼 획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글자로 잘못 쓸 가능성은 거의 상정하기 힘들다.[60] 뿐만 아니라 '寶憙'라는 용어는 경전을 비롯한 불교

의 문헌에 전혀 보이지 않는 낯선 용어로서 필사자에 의한 착각을 상정하기도 쉽지 않다.[6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憙와 淵이 각기 亮과 法의 誤寫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이유'나 '근거'없이 특정 단어를 잘못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면 해당 문헌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亮'과 '憙'의 초서체 비교



'法'과 '淵'의 초서체 비교

---

60) 『대승사론현의기』 전체에서 憙는 5회 사용되고 있고, 淵은 寶憙淵師의 사례에서만 단 1회 나타나고 있다.

61) 김성철 교수는 필사자가 백제인으로서 寶憙寺라는 사찰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독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 이름인 '寶亮'을 사찰 이름인 '寶憙'로 잘못 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사본들은 모두 에도[江戶]시대 후기 즉 18세기 이후에 필사된 것들로서 사본에 보이는 誤字들도 대부분 후대의 轉寫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寶憙' 부분을 백제인에 의한 誤寫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발견하기 힘들다.

한편으로 백제 찬술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사론현의』<佛性義>에서 寶亮과 法雲이 眞如性(理)을 佛性의 正因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삼론학 저술들에서 寶亮, 法雲의 佛性에 대한 이론이 冶城(寺) 素法師, 莊嚴(寺 僧旻), 地論(宗) 등의 견해와 상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등 『涅槃經遊意』에서 冶城寺 素法師가 眞諦를 佛果로 보았는데, 『大乘玄論』에서 和法師와 보량도 眞諦를 佛性으로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冶城寺 素法師와 보량의 佛性에 대한 견해는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근거로 하여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은 寶亮과 法雲임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62] 먼저 地論宗과 관련하여 『사론현의』에서 지론종과 섭론종의 佛性에 대한 견해가 曇無遠法師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曇無遠法師는 本有의 中道眞如를 佛性의 體라고 하였고 寶亮과 法雲 역시 眞如性(理)을 佛性의 正因이라고 하였으므로 지론종의 불성에 대한 견해는 寶亮, 法雲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사론현의』에서 莊嚴寺 僧旻의 불성에 대한 견해는 招提寺 白琰公과 같고, 또 초제사 백염공의 견해는 中寺 小安法師와 같다고 하였는데, 소안법사가 眞如性을 불성의 正因의 體로 삼았으므로 장엄사 승민의 견해 역시 진여성을 불성의 정인으로 보는 보량, 법운과 같으며, 冶城寺 素法師와 관련하여서도 지론종과 장엄사 승민, 야성사 소법사 등의 불성에 대한 견해는 모두 보량, 법운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견해와 같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은 보량과 법운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시된 사례들은 하나같이 A(지론종, 승민, 소법사)는 B(담무원, 소안, 眞諦)와 같고, B(담무원, 소안, 眞諦)는 C(보량·법운)와 같으므로 A(지론종, 승민, 소법사)가 C(보량, 법운)와 같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와 B, B와 C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상 논리적으로는 성립되기 힘들다. A와 B가 비슷한 측면과 B와 C가 비슷한 측면이 동일

---

62) 김성철(2007) pp.356-361

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지론종과 함께 담무원법사의 견해와 같다고 언급된 섭론종의 불성에 대한 견해 역시 寶亮, 法雲의 견해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소안법사와 견해가 같은 초제사 백염공도 보량, 법운의 견해와 같을 것이다.

한편 『사론현의』에 제시된 10가지 견해 중 네 번째인 양무제의 경우는 직접 小亮(=寶亮)과 같은 경향이라고 하였으므로[63] 당연히 보량, 법운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운의 견해에 대한 설명에서는 開善寺 智藏의 견해와 같다고 하였으므로[64] 지장의 견해 역시 보량, 법운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 『사론현의』에 제시된 10가지 견해 중 첫 번째 白馬寺 愛法師와 두 번째 靈根令正의 견해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의 견해(보량, 양무제, 소안, 법운, 승민·백염, 지장, 지론종, 섭론종)가 모두 寶亮·法雲과 비슷한 견해들이 되고, 이들은 모두 眞如를 佛性의 본질로 여긴 견해들로 확인되게 된다. 이와 같이 10가지 견해 중 8가지 견해가 眞如를 중시하는 비슷한 것들이었으므로 『대승사론현의기』의 찬술자가 단순히 眞如를 佛性의 體로 보았는지에 대해서만 중시하였다면 이들을 나누어 서술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나누어 서술한 것은 단순히 眞如를 중시하였다는 공통점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眞如를 어떻게 이해하며, 眞如와 衆生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당시 승려들의 불성에 대한 견해는 단순히 眞如性이라고 보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眞如性을 어떠한 것으로 보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 차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眞如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견해로 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63) 『大乘四論玄義記』 권7 <佛性義>
"第四梁武蕭天子義 心有不失之性 眞神爲正因體 … 亦是小亮氣也."

64) 『大乘四論玄義記』(續藏經本 47左下)
"第六光宅云 … 又云避苦求樂性 亦是開善…類."

당시 많은 학자들이 佛性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眞如性을 중시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은 모든 중생들이 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열반경』의 '悉有佛性' 이론이 널리 퍼지던 상황에서 많은 승려들이 중생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眞如性을 주목하고 그것을 佛性의 正因(體)으로 간주하던 것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진여를 불성의 正因이나 體로 간주하는 것은 당시 특별한 사상적 견해가 아니라 불교계 일반의 견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寶憙淵師와 祇洹雲公이 보량, 법운과 마찬가지로 眞如를 佛性의 正因으로 보았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쉽게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3. 撰者 慧均의 행적과 저술

『사론현의』의 찬술자인 慧均의 행적에 관한 자료는 『사론현의』 자체를 제외하면 거의 발견하기 힘들다. 중국과 한국의 자료에는 慧均에 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중세의 불교문헌에 혜균에 대한 언급이 종종 보이지만 吉藏과 함께 法朗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 밖의 행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를 吉藏과 同門이라고 한 언급도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한 것이라기보다 『사론현의』와 길장의 저술들 사이의 유사성에서 추론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론현의』라는 상당한 분량의 저술이 남아있는 것에 비하여 찬술자인 혜균의 행적은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혜균의 행적은 결국 『사론현의』에 보이는 내용을 통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사론현의』 중에는 그의 행적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먼저 慧均은 전통적으로 알려졌던 것처럼 陳代 삼론학의 대가였던 興皇寺 法朗의 문하에서 수학한 것으로 보인다. 『사론현의』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언급들로 볼 때 그가 법랑의 문하에서 직접 수학하였음은 분명한 사실로 생각된다.

(사) 興皇寺의 스승께서 大建 6년(574년) 5월에 房 안에서 또한 6章을 열어 보여주셨다. 첫째는 다름(異)을 깨트려 중도(中)를 밝힌 것이고, 둘째는 임시적 모습을 이룸과 이루지 못함으로 중도를 밝힌 것이며,… 65)

(아) 興皇大師께서 강설하실 때에 7백여 사람이 있었다. 地論과 攝論, 成實과 毘曇을 공부하는 사람도 70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 제자들을 이끌고 강의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麈尾(강의할 때 손에 쥐던 물건)를 던지고 無依無得大乘(=三論學)을 배우기를 청하였다. 이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들은 것이다.66)

(자) 이른바 疏·密이라고 하는 것은 中·假에서 생겨난 것이다. 다만 이것이 생겨난 뜻을 알아야 한다. 어떤 뜻에서 이 疏·密의 이론을 만들었는가 하면 栖霞寺의 大朗法師(=僧朗), 止觀寺의 僧詮法師, 興皇寺의 法朗法師 등 3代의 四論師들의 疏·密, 橫·竪, 雙·隻, 單·複의 이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67)

한편 慧均은 『사론현의』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삼론학을 배우기 이전에 成實學을 공부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차) 나는 成論玄義를 50번, 成實論 본문을 40여 번 본 후에 비로소 大乘(=삼론학)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 初章中假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곧바로 크게 소리 내어 비웃었다. 그런데 공부하여 뜻을 얻게 되니 참으로 도(道)에 들어가는 올바른 길이고 이치(理)를 얻는 핵심임을 알게 되었다.68)

---

65) 『사론현의』 初章中假義 {橫超慧日(1963) p.154에서 재인용}
"興皇師 大建六年五月 房內亦開六章 一破異明中 二成假不成假明中…."

66) 『사론현의』 成壞義 逸文 {伊藤隆壽(1974a) p.84}
"興皇大師講說時有七百餘人 直地攝兩論成毘二家諸人 有七十許師 竝領人講說者 擲摩尼(麈尾) 伏請學無依無得大乘 余親眼所見聞也."

67) 『사론현의』 初章中假義 逸文 {伊藤隆壽(1974a), p.70}
"所言疏密者 有中假而生也 但須知此起意 何意作此疏密之義者 栖霞寺大朗法師 止觀詮法師 興皇朗法師 三代四論師中 疏密橫竪雙隻單複義宗起也."

68) 『사론현의』 初章中假義 {橫超慧日(1963) pp.152-153에서 재인용}
"吾聽成論玄義五十遍論文四十餘遍 始聽大乘 初聞見初章中假語 往往大怪笑也 學之得意 眞可謂是

이로 볼 때 그는 法朗의 문하에서 삼론학을 수학하기 이전에 성실학을 수학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성론현의』와 『성실론』을 각기 50번과 40여 번 읽었다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학을 수학한 것으로 보인다. 『사론현의』를 보면 혜균은 실제로 성실학의 이론과 동향에 상당히 정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開善寺 智藏(458-522)의 이론에 대해 친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9] 아마도 개선사 지장 계통의 인물에게서 성실학을 수학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70]

6세기 후반 남중국의 불교계에서는 성실학이 크게 성행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승려들이 성실학을 수학하였다. 실제로 법랑조차도 처음 출가한 직후에는 성실학을 수학하다가 스승인 僧詮을 만나 성실학을 비판하고 삼론학으로 전향하였다. 이런 점에서 혜균의 수학과정은 스승인 법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주목하여 혜균이 어린 나이에 법랑의 문하에 들어가 스승과 함께 행동을 같이하며 성실학에서 삼론학으로 전향하였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71] 하지만 『사론현의』 중에 법랑을 삼론학으로 인도한 僧詮에 대해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삼론학 스승으로서 법랑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혜균의 성실학 수학은 법랑의 문하에 들어오기 이전의 일로 생각된다. 즉 혜균은 처음 법랑을 만나기 이전에 성실학을 수학하였고, 이후 법랑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삼론학으로 전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론현의』에는 삼론학의 상대자로서 地論과 攝論, 成實, 毘曇 등이 비판되지만 그 중에서도

入道之龍津 得理之眼目."

69) 『사론현의』 斷伏義 (續藏經本 卷2, 4左下)
"論師開善云 於五方便與三十心中緣境前後釋不同 法師在東山時釋云 竝緣虛假理也 中出陽(楊)州時云 緣眞不稱緣 近臨死時定云 是緣虛假理…."
『사론현의』 感應義 (續藏經本 卷6, 34右上) "第八開善師云 公自手書出感應義道…."
『사론현의』 佛性義(續藏經本 卷7, 51左下) "此是智藏法師 自手書佛性義 作此說也."

70) 新羅 출신으로 남중국에 유학하였던 圓光도 成實學을 수학하였는데, 그는 莊嚴寺 僧旻(467-527)의 제자에게서 수학하였다.

71) 三桐慈海(1990), pp.224-225.

특히 成實學에 대한 비판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6세기 후반 남중국에서 성실학과 삼론학의 대립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찬술자 혜균 자신의 사상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혜균이 法朗의 문하에서 수학한 것이 분명하므로 혜균과 吉藏을 法朗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同門이라고 본 전통적인 이해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가 어떠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론현의』에는 길장이 종종 인용되고 있는 반면 길장의 저술에는 慧均이나 『사론현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慧均이 吉藏보다 후배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사론현의』에서는 길장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길장의 견해로서 찬술자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모습이 보일 뿐 아니라 '藏公'이라는 존칭도 사용하고 있다.[72] 僧朗, 僧詮, 法朗으로 이어지는 삼론학의 祖師들 다음으로 중시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인용된 길장의 이야기들은 길장의 저술의 내용과는 그대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길장 본인으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견해들을 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혜균이 길장의 후배였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吉藏이 법랑의 문도들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부류에 속하였고 법랑이 입적하였을 때 아직 강의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위치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단정하기도 힘들다. 더욱이 혜균은 법랑의 문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기간

---

72) 『사론현의』 佛性義 (續藏經本 卷8, 63左下-64右上)
"問 旣與其當分常淨 何不與其當分我樂 答 藏云 通而明之 皆得 此文互擧一邊也 又[問] 責等互擧何意不我樂答云 俱不勉[免]難故也."
『사론현의』 十地義 [伊藤隆壽(1974a), p.75]
"一家自有頓漸悟義 藏師云 從凡入聖必是漸入 無有頓悟 而經云頓斷者 應迹引接論之也 諸師多云有頓漸悟義 隨人意提之 而大乘無所得宗意 應如諸法師釋 但難明也 鈍根薄福學有相善比丘不信."
『사론현의』 佛性義 (續藏經本 卷7, 44右下)
"藏公開爲八種 故說於佛性 何者…."
『사론현의』 初章中假義 逸文 [伊藤隆壽(1974a), p.68]
"又藏公云 論主破外道 外道心無所安 成斷見求覓法…."

동안 성실학을 수학하였으므로 길장보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론현의』에서 길장이 중시되고 있는 것은 이 책이 편찬될 당시에 이미 삼론학 대가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던 길장의 위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근래의 연구들에서는 길장이 慧均과 『사론현의』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저술 중에 『사론현의』의 내용을 의식하고 이를 비판 혹은 발전시킨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길장의 저술로 전해지는 『대승현론』 중의 佛性義와 八不義는 『사론현의』의 내용을 의식하며 찬술된 것이고,[73] 길장의 『二諦義』 역시 『사론현의』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한 차원 발전시킨 것이라는 것이다.[74] 특히 吉藏이 삼론학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서 비판하고 있는 中假師가 다름 아닌 『사론현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75] 이와 같은 견해들에 따를 경우 慧均은 吉藏의 선배이거나 적어도 사상적으로 길장보다 선배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길장의 논의가 실제로 『사론현의』를 의식한 것인지, 『사론현의』의 입장을 길장이 비판한 中假師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차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76]

이와 같이 혜균과 길장은 함께 法朗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사론현의』에 길장의 견해가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종래 중국 삼론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吉藏과 비슷한 역할을 한 인물로 백제에서 활동한 慧均이 있었다는 사실은

---

73) 伊藤隆壽(1969), 三桐慈海(1970, 1973).

74) 三桐慈海(1990).

75) 橫超慧日(1963), 伊藤隆壽(1971), 平井俊榮, 1974 <吉藏と中假および中假師> 『印度學佛教學研究』 44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76) 플라센 교수는 필자와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사론현의』의 사상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吉藏과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이 문헌을 길장이 비판하는 中假師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法朗과 그 문하의 慧均, 吉藏의 관계는 화엄종에서의 智儼과 義相, 法藏, 법상종에서의 玄奘과 圓測, 窺基의 관계를 연상시키고 있어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된다.

『사론현의』가 백제에서 찬술된 사실을 통해 혜균이 백제에 들어와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가 언제 백제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 법랑에 대한 강한 존숭태도를 볼 때 법랑이 입적할 때까지는 계속 그의 문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77]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론현의』에서 陳 멸망 이후 법랑 문하제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慧均이 隋나라 초기까지도 중국에서 활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론현의』에서 삼론학파의 상대적 입장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地論과 攝論 등은 주로 북중국에서 성행하였던 것이므로 법랑 입적 이후에 혜균이 북중국으로 건너가 이들을 접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78] 그렇지만 법랑의 제자들의 남중국 지역에서의 활동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론현의』 중의 地論이나 攝論에 대한 설명도 남중국에서 활약하였던 眞諦三藏의 견해를 제외하면 대단히 소략하므로 혜균이 북중국에서 건너가 활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스승 법랑에 대한 존경심을 볼 때 적어도 법랑이 입적할 때까지는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스승 입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陳의 멸망으로 남중국 지역이 혼란스러워지자 얼마 후에 백제로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慧均의 출신지역을 드러내는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

77) 『사론현의』 斷伏義 중의 "論師開善云 於五方便與三十心中緣境前後釋不同 法師在東山時釋云 竝緣虛假理也 中出陽(楊)州時云 緣眞不稱緣 近臨死時定云 是緣虛假理…."(續藏經本 卷2, 4左下) 문장을 근거로 慧均이 法朗의 입적을 지켜보았다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法師는 開善寺 智藏이다. 위의 문장은 다른 자료에 나오는 다음 구절과 같은 내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而開善義 在東山時 說五方便 皆緣於假理 … 還楊州時云 五方便皆緣於眞 … 而死時云 先說謂得…." (『大品經遊意』 大正藏33, 64b)

78) 伊藤隆壽(1969)와 伊藤隆壽(1972)에서는 각기 華嚴經과 攝論・地論의 활용을 근거로 『사론현의』의 찬자인 慧均이 北地에서 공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로 보아 본래 백제 출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백제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론현의』에 보이는 여러 독특한 표현들, 즉 중국을 吳·魯로 표현하고, 耽羅를 야만족의 대표적 존재로 일컫는 것 등을 볼 때 그는 중국문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인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젊어서 —혹은 어린 시절에— 남중국에 유학하여 성실학과 삼론학을 수학한 이후 陳의 멸망을 전후하여서 백제에 돌아와 활약한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 유학하였던 백제의 승려로는 梁나라에 건너가 관음신앙을 익혔던 發正[79]과 陳나라에 건너가 慧思(515-577)의 문하에서 法華三昧를 수학한 玄光[80]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 백제에서의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백제와 남조국가와의 긴밀한 교류를 고려할 때 남중국에 건너가 유학한 승려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陳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삼론학을 수학하고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가졌던 慧均의 존재는 당시 백제와 남중국과의 긴밀한 불교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실마리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남중국에서 삼론학을 수학한 백제 출신 혜균의 행적과 관련하여 후대의 기록에 남중국에서 吉藏의 저술을 수집하여 백제로 돌아왔다는 百濟 출신 승려의 존재가 주목된다.[81] 명확하게 해독되지는 않지만 대략 백제 승려가 길장의 저술을 모두 가지고 가서 중국에는 오히려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吉藏과의 관련성 등으로 볼 때 그 배후에 慧均의 존재가 연상된다.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백제 승려가 혜균 본인은 아니겠지만 그와 일정한 관련은 있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사론현의』의 찬술자 혜균의 행적은 극히 일부만

79) 牧田諦亮, 1970『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硏究』pp.58-60 (平樂寺書店, 東京)

80)『宋高僧傳』권18, 陳新羅國玄光傳 (大正藏50, 820c-821a)

81)『涅槃經遊意』卷後 記錄 (大正藏38, 239a)

"道融先於江南會稽遊學 問彼大德等 云其吉藏法師涅槃疏記等 百濟僧竝將歸鄕 所以此間無本留行道融 京感亭曰年過 見百濟賢者持此吉藏法師涅槃玄義 行故鄕寫之二有疏而未得讀 乃寫其賢者在彼訓."

알려져 있지만, 최근 그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종래 吉藏의 저술로 알려져 온 일부 문헌들이 실제로는 慧均의 저술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大品經遊意』(大正藏 제33책 수록)이다.[82] 이 책은 종래 길장이 지은 『대품반야경』에 대한 주석서로 이해되어 왔지만 근래 『사론현의』의 내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제로는 『사론현의』 중의 한 편인 般若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83] 『대품경유의』 중에 개선사 지장의 견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斷伏義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하였는데,[84] 해당 부분이 『사론현의』 중의 斷伏義에서 그대로 확인될 뿐 아니라[85] 『사론현의』의 莊嚴義에서 般若와 毘婆舍那와 闍那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具如般若義中說'이라고 한 내용[86]이 『대품경유의』 중의 설명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사론현의』 중의 일부였던 것이 후대 어느 시기엔가 독립되어 길장의 『대품반야경』에 대한 주석서로 유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역시 길장의 저술로 알려졌던 『彌勒經遊意』(大正藏 제38책 수록)도 혜균의 저술로 밝혀졌다.[87] 이 책은 현재 유통되는 續藏經 등에는 吉藏의 저술로 되어 있지만 일본 중세의 불전목록인 『東域傳燈目錄』의 일부 사본에 '均僧正撰 上下兩經遊意 一卷'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중세에 필사된 『彌勒上下經遊意十重』이라는 이름의 사본에는 撰者를 '均僧正'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책에는 『사론현의』와의 공통점이 많이 보이는데, '地攝兩論 成毘二家'나 '崑崙三藏' 등의 표현이나 불교의 여러 가르침을 頓敎・漸敎・偏敎 등으로 구분하는 敎判방식은 『사론

82) 吉藏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대승현론』 중의 <八不義>도 실제로는 『사론현의』의 <八不義> 사실이 밝혀졌다. [三桐慈海(1970-1973) 참조]
83) 伊藤隆壽(1974c)
84) 大正藏33, 64b
85) 續藏經本, 4左下
86) 續藏經本, 101右下
87) 伊藤隆壽, 1973 <『彌勒經遊意』の疑問點> 『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4 (駒澤大學佛敎學部, 東京); 1977 <寶生院藏『彌勒上下經遊意十重』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50 (日本印度學佛敎學研究會, 東京)

현의』에는 나타나지만 길장의 다른 저술들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미륵상생경』을 大乘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미륵상생경』과 『미륵하생경』 모두를 小乘으로 이해한 吉藏의 사상과는 다른 입장이다.[88] 한편 『미륵경유의』 중에는 저자가 일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열반경』과 『대품반야경』의 주석에 미루고 있는데,[89] 이로 보아 저자인 혜균은 『열반경』과 『대품반야경』에 대한 주석서들도 찬술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사론현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종래 길장의 저술로 알려졌던 저술 중 일부가 실제로는 혜균의 저술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들 새로 밝혀진 저술들은 분량이 많지 않고 경전의 내용 설명 이외에 혜균의 행적이나 당시 불교계 동향을 보여주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의 분석 여하에 따라서는 慧均의 행적이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혜균과 길장의 사상 경향은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 여하에 따라서는 혜균의 저술로 밝혀지는 저술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4. 『大乘四論玄義記』와 韓國古代佛教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사론현의』가 7세기 초에 백제에서 찬술된 三論學 문헌이라는 사실과 찬술자 혜균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들을 검토하였다. 이처럼 『사론현의』의 역사적 위상이 구체화되었으므로 이

---

88) 이 『미륵경유의』의 내용 중 '佛自出世從周莊王至契合得一千二百四十年'이라는 구절을 부처의 입적으로부터 이 책의 찬술 당시까지 1240년이 지났다는 의미로 읽어서 633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伊藤隆壽(1973), pp.64-5], 위 구절의 해독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89) "具如大經疏與大品疏等也."

책을 비롯하여 찬술자 慧均의 다른 저술들이 갖는 사상사적인 의미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단 이 책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격들을 토대로 하여 이 책이 갖는 사상사적인 의미 및 그것에 대한 연구방향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검토는 앞으로의 연구들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사론현의』및 기타 혜균의 저술들은 삼론학을 비롯한 백제 불교사상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세기 말 이후 백제에서 삼론학이 발전되었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일본에 건너가 활약한 백제 승려들이, 慧聰과 觀勒 등이 三論學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백제에서 삼론학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90] 길장의 저술로 전해지는『涅槃經遊意』의 뒷부분에 기록된 내용에도 백제의 승려가 중국에 유학하여 삼론학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였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91]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백제 삼론학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백제에서 찬술된 삼론학 문헌인『사론현의』등의 문헌이 확인되었으므로 백제의 삼론학, 나아가 백제 삼론학자들의 영향 하에 발전한 일본 고대 삼론학의 사상적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92]

또한『사론현의』에는 당시 백제 불교계의 攝論學이나『大乘起信論』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들도 보이고 있는데,[93] 이것은 이 책이 찬술될 당시에

---

90) 백제 출신으로 일본에서 활약한 삼론학자로는 慧聰과 觀勒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각기 588년과 602년에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의 시기에 일본에 건너와 활약한 高句麗 승려들도 대부분 三論學의 대가로 이야기되고 있으며,『元亨釋書』나『三國佛法傳通緣起』등에서는 日本에 최초로 三論學을 전해준 인물로 聖德太子의 스승이었던 고구려 출신 慧灌을 들고 있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주요한 불교사상이 삼론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91) 앞의 주 82)의 인용문 참조.

92) 慧聰과 觀勒 등은『사론현의』의 찬술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과 慧均과의 사상적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93)『사론현의』에서 백제 지역[此間]의 攝論學에 대한 언급은 續藏經本 45右上, 90左上 등에

백제에서 섭론학이 상당한 정도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此間'의 섭론학에 대하여는 섭론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였다고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백제 불교계에서 삼론학과 섭론학이 경쟁하면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론현의』에서는 섭론학에 대하여 비판적이면서도 섭론학의 祖라고 할 수 있는 진제삼장에 대하여는 비판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때때로 진제삼장의 설을 인용하여 백제의 섭론학파가 진제의 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되는데,[94] '此間'의 섭론학자들이 섭론학의 이론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론현의』 撰者의 백제 섭론학자들에 대한 평가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종파적 편견이 개입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사론현의』의 내용을 통하여 백제를 비롯한 삼국시대 섭론학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95] 신라의 경우 6세기 말에 남중국에 유학하였던 圓光이 남조가 멸망한 후에 북쪽의 長安으로 가서 섭론학을 배우고 귀국하여 이를 가르쳤고, 그 후에도 慈藏이 당에 건너가 섭론학을 배우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비슷한 시기의 백제에서도 섭론학을 배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이다.

한편 『사론현의』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撰者인 혜균이 『미륵경유의』를 저술하였다는 사실은 백제 불교계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를 비롯한 삼국시대 후기의 미륵신앙은 크게 주목되었지만 그 교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혜균의 활동 시기와 백

보이고 있고, 『대승기신론』에 대한 언급은 <逸文>(伊藤隆壽, 1974) p.75와 p.81에 보이고 있다.

94) 『사론현의』에서 眞諦三藏 인용은 續藏經本 8左上-9右上, 14左下, 44左下-45右上, 80右下-左上, 90左上-左下, 93右上 및 <逸文>(伊藤隆壽, 1974) p.87 등에 보이고 있다.

95) 『사론현의』에서 백제의 섭론학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서 眞諦三藏의 주장이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백제의 섭론학이 당시 중국의 섭론학과 달랐음을 반영하는 자료로서도 주목된다.

제 및 신라 미륵신앙의 성행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혜균의 『미륵경유의』는 백제와 신라 미륵신앙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미륵경유의』는 동아시아 불교계에서의 미륵경에 대한 주석서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동아시아 미륵신앙의 발전에 백제의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96]

『사론현의』 등의 문헌은 삼국시대의 불교계 동향만이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불교학의 사상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헌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元曉는 영취산에 머물고 있던 朗智의 가르침을 받고서 『初章觀門』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初章'은 삼론학의 주요 개념이고 특히 『사론현의』의 가장 첫 부분인 <初章中假義>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원효의 사상에 삼론학의 영향이 있었음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吉藏의 저술로부터 영향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백제 불교와 신라 불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효의 삼론학 이해는 吉藏의 저술만이 아니라 『사론현의』와 같은 백제의 삼론학 문헌을 통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원효는 비슷한 시기에 활약하였던 義相과 함께 백제 지역에 유학하여 普德의 문하에서 涅槃學을 공부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97] 원효는 백제에서 열반학만이 아니라 『사론현의』 등의 삼론학 문헌

---

96) 이와 관련하여 백제 미륵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사찰로 알려진 익산 彌勒寺址에서 '龍樹房'이라는 명문을 가진 기와가 발견된 사실이 주목된다. 이 기와는 백제시대의 것은 아니고 통일신라말기 혹은 고려초기의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용수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미륵사에 '용수방'이라는 건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용수가 삼론학의 祖라는 점에서 미륵사는 삼론학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용수방'이 백제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백제의 미륵신앙은 삼론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승사론현의기』와 함께 『미륵경유의』를 지은 혜균의 저술 내용과 잘 조응하는 것이다. 특히 미륵사는 武王(재위 600-641) 때에 창건되었는데, 시기적으로 혜균의 활동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제의 미륵신앙은 혜균에 의하여 기초가 놓여 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97) 義天은 원효와 의상이 백제로 이주해 온 普德의 문하에서 『涅槃經』을 수학하였다고 이야기

을 읽고 공부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플라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원효의 『열반종요』의 佛性義 부분에는 佛性에 대한 앞 시기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白馬寺愛法師, 莊嚴寺旻法師, 光宅雲法師, 梁武蕭天子 등의 이름과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론현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98] 물론 다른 문헌에도 이들의 견해가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이름과 이론을 직접 연결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사론현의』와 원효의 『열반종요』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므로 두 책 사이에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원효의 사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三論과 攝論 즉 中觀과 唯識 사상의 대립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원효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주석서의 序文에서 먼저 三論과 攝論의 결점을 지적하고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승기신론』의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99] 지금까지는 원효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된 신라 불교계의 구체적인 사상적 배경이 해명되지 못한 채 中觀과 唯識의 대립이라는 大乘佛教 혹은 中國佛教의 일반적 상황의 극복이라는 틀로 이해되어 왔다.[100] 그런데 『사론현의』에는 당시 백제에 삼론학이 발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삼론학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섭론학도 발달되어 있었고, 양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통일기 신라의 불교가

하고 있으며(『大覺國師文集』 卷17, <孤大山景福寺飛來方丈禮普德聖師影> “元曉義相 嘗參講下親禀涅槃維摩等經.”), 이는 대체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8) Plassen, 2007 <On the Significance of the *Taesŭng saron hyŏnŭiki* 大乘四論玄義記 for research on early Korean Buddhist Thought>『韓國史研究』136 (한국사연구회, 서울)

99) 『大乘起信論別記』 大意 “其爲論也 無所不立 無所不破 如中觀論十二門論等 偏破諸執 亦破於破而不還許能破所破 是謂往而不偏論也 其瑜伽論攝大乘論等 通立深淺判於法門 而不融遣自所立法是謂與而不奪論也 今此論者 既智既仁 亦玄亦博 無不立而自遣 無不破而還許 而還許者 顯彼往者往極而遍立 而自遣者 明此與者窮與而奪 是謂諸論之祖宗 群諍之評主也.”

100) 高翊晉, 1981 <元曉 思想의 史的 意義>『東國思想』14 (東國大 佛教大學學生會, 서울); 1987 <新羅中代 華嚴思想의 展開와 그 影響, 1>『佛教學報』24 (東國大 佛教文化研究所, 서울) 崔柄憲, 1989 <東洋佛教史上의 韓國佛教>『韓國史市民講座』4 (一潮閣, 서울)

백제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원효 역시 백제에 유학하여 불교학을 공부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삼론과 섭론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원효의 사상적 입장은 『사론현의』에 반영되어 있는 앞 시기의 불교계의 사상적 동향을 계승하면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효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義相의 경우 中道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중국의 화엄사상과는 달리 中觀的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는데,[101] 의상 역시 백제에 유학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의 사상 경향 역시 백제 三論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상과 그 제자들의 저술에는 『사론현의』와 비슷한 분위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원효와 의상을 비롯한 통일신라 승려들의 불교사상을 『사론현의』와 비교하여 검토하면 삼국시대의 불교사상이 통일신라 불교사상에 어떻게 계승 발전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102]

한편으로 『사론현의』를 비롯한 혜균의 저술들은 한국의 불교사상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고대 중국 불교계의 동향, 특히 吉藏 이전의 삼론학의 사상 내용을 전하는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삼론학에 관한 자료들은 대부분 길장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서 그의 스승이었던 法朗을 비롯하여 앞 시기 삼론학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사론현의』에는 길장의 사상과는 구별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 중 일부는 길장 이전의 삼론학의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사론현의』를 길장의 저술과 함께 비교하여 분석한다면 길장 이전의 삼론학의 동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나아

---

101) 佐藤厚, 1996 <義湘の中道義> 『東洋大學大學院紀要』32 (東洋大學大學院, 東京); 1999 <義湘系華嚴思想における無住> 『印度學佛教學研究』94 (日本印度學佛教學研究會, 東京)

102) Plassen(2007)은 이러한 분야의 개척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길장 사상이 기존 삼론학과 어떤 차이를 가졌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103]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론현의』는 7세기 초에 백제에서 찬술된 삼론학 문헌으로서 찬술자 혜균은 일찍이 남중국에 유학하여 성실학과 삼론학을 수학하였고, 陳이 멸망한 후에 백제에 돌아와 『사론현의』를 저술하고 삼론학을 강의하였다. 그의 저술로는 『사론현의』 이외에 몇 종류가 더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의 행적 및 사상 경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혜균이 찬술한 문헌들은 7세기 전후의 백제를 비롯한 고대 한국불교계의 사상적 동향 및 당시 중국과 일본 불교계의 동향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문헌들에 대한 검토는 고대 한국불교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사상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사론현의』는 慧均이라는 승려가 중국에 유학하여 수학한 내용을 본국 百濟에 돌아와 정리한 것으로 이후 新羅와 日本에 전해져 불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책이다.[104] 이후 중국과

---

103) 『사론현의』와 길장의 저술로 알려진 『大乘玄論』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이다. 『사론현의』 중의 「八不義」와 『대승현론』 중의 <八不義>가 동일한 것임은 이미 밝혀졌는데, 왜 『사론현의』와 『대승현론』이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명되고 있지 않다. 『대승현론』은 중국과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책으로서 일본에서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승현론』은 한 사람의 글을 모은 것이 아니라 길장과 혜균, 혹은 또 다른 삼론학자의 글을 모아서 편찬한 책일 수도 있다. 『대승현론』의 편찬 문제는 앞으로 보다 자세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사론현의』를 비롯한 혜균의 저술들과의 비교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4) 『사론현의』가 新羅와 日本에 전해지는 구체적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사론현의』 각 권의 말미에 붙어 있는 "顯慶 3년(658년) 戊午年 12월 6일에 興輪寺 學問僧 法安이 大皇帝와 內殿을 위하여 공경히 이 義章을 바친다(顯慶三年 歲次戊午年十二月六日 興輪寺學問僧法安 爲大皇帝及內殿故敬奉義章也)."는 識語가 이 책이 신라와 일본에 전해지는 상황을 반영하

한국에서는 혜균 본인과 그의 저술은 잊혀 졌지만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래되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일본에 전래된 자료들을 토대로 혜균과 그의 저술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일본학계의 연구에 자극받아 한국과 독일 연구자에 의해 재검토됨으로써 본래의 성격이 어느 정도나마 확인되게 되었다. 책의 찬술로부터 재발견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문헌이 밝혀줄 역사적 사실 역시 국제적인 성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론현의』만이 아니라 한국의 고대 불교문헌 중에는 국내에서는 逸失되고 일본에만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그들 중 일부는 본래의 성격이 망실되고 중국의 문헌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도 있다.105) 고대 한국과 일본의 밀접한 불교 교류를 고려할 때 비슷한 성격의 문헌은 앞으로도 더욱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들은 고대 한국의 불교사상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불교사상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고대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새로운 자료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학계의 보다 높은 관심과 연구가 요망되는 바이다.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興輪寺는 新羅의 대표적 사찰이고, 學問僧은 7세기를 전후한 시기 일본 불교계에서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識語는 658년 이전에 『사론현의』가 신라에 전해져 있었으며, 당시 신라 흥륜사에 유학하였던 일본 승려에 의하여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7세기 중엽 일본에서 國王을 '大皇帝'로 표현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識語를 신라에 유학하였던 일본 승려가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이 識語에 대하여는 추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5) 義相의 제자들이 스승의 강의를 기록한 『華嚴經問答』과 8세기 중엽 신라에서 찬술된 것으로 생각되는 『起信論一心二門大意』가 각기 중국 화엄종 조사인 法藏과 『大乘起信論』 번역 직후 서문을 쓴 智愷의 저술로 알려지고 있다.[金相鉉, 1996 <『錐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韓國學報』84 (一志社, 서울) 및 최연식, 2006 <신라불교 문헌으로서의 『起信論一心二門大意』> 『불교학연구』13 (불교학연구회, 서울) 참조]

◉大乘四論玄義記

初章中假義

일•러•두•기

1. 이 <初章中假義>의 교감본은 2006년 1월 일본 駒澤大學의 伊藤隆壽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寫本 및 사본을 옮겨 적은 筆記本의 복사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寫本 및 筆記本에 대해서는 橫超慧日 선생의 「新出資料·四論玄義の初章中假義」(印度學佛教學研究 7-1, 1958년) 및 伊藤隆壽 교수의 「三論教學における初章中假義(上)」(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2號, 1974년, 264쪽 및 註 6)의 설명 참조] 寫本과 筆記本복사본을 제공하고 이 교감본에 활용하도록 허락해준 伊藤隆壽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2. 필사본의 전면(우측면)을 a, 뒷면(좌측면)을 b로 표시하였다. 즉, 1a는 첫 번째 丈의 우측면, 1b는 첫 번째 丈의 좌측면이다.
3. 일부 한자는 편의상 異體字나 略字를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바꾸어 활자화하였다. (예: サ卄→菩薩, 為→爲, 即→卽, 既→旣 真→眞, 舉→擧, 関·閞→關, 咲→笑, 躰→體, 㝵→碍, 踈→疏, 尓→爾, 弥→彌, 无→無, 称·秤→稱, 応→應, 仏→應, 与→與, 尽→盡, 旧→舊, 号→號 등)
4. 行 사이에 추가로 적은 글자는 < > 안에 집어넣었다.
5.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大乘四論玄義記卷第一

均正 撰記

[1a] 初章中假義　初章中假義有八重　第一明初章　第二論中假　第三辨疎密　第四明橫竪 第五論單複 第六辨雙隻　第七明通別　第八夷諸法 第一明初章

夫初章者 摠攝經論始終大意 彈斥古今成〈毗地攝〉論等 有得之失 顯三〈四〉106)論無得大乘之得也 判得無得理內外殊也 若成論等師 見聞初章中假語 必不解〈意〉是何物語 致笑之也 吾聽成論玄義五十遍 論文四十餘遍 〈毗曇文義各四遍 攝論三遍 方聽無依無得〉 始聽大乘

初聞見初章中假語 往往大怪笑也 學之得意 眞可謂是入道之龍津 得理之眼目 及〈反〉觀初△〈△〉△107) 示章甫之無

[1b] 異 楚人不別玉石之不殊也 若明了初章 則二諦境智佛性二河感應等衆〈無相〉義 易可解也 釋初章自有廣略 略之者 若言 有 非有故有 有是不有有也 亦言 他有 有可有 有是有故有 今 有不可有 有是不有有也 廣者 若有是可有 無是可無 無是可無 則不由有故無 有是可有則不由無故有也 若有不可有 若無不可無 無不可無

106) 三<四> : 본래 三으로 쓴 것을 나중에 四로 수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107) △<△>△ : 판독미상[初-1] 橫超慧日은 '初底[辶+氏]'로 판독하였다.

由有故無 有不可有 由無故有也 若不由無故有 不由
有故無 不由有故無 無是自無 不由無故有 有是自有
也 若由無故有 由有故無 由有故無 無不自無 由無故有
有不自有也 若有是自有 無是自無 無是自無 無非有
[2a] 無 有是自有 有非無有也 若有非自有 無非自無 無非
自無 無是有無 有非自有 有是無有也 故有也108) 若有是
無有 無是有無 無是有無 無不109)無無 有是無有 有是不
有有也 此廣略語 若相對而辨 卽是廣初章 若他有 有
可有 有是有故有 今有不可有 有是不有有等 此是略
初章 就略語中 有複單 若約惣略語 卽是複語 具明性假
故是複也 單者直言〈有〉不可有 有是不有有 直約假邊 故
是單也 今亦問人 人不知何物語爲是初章 爲當是中
假 今廣略複單 並是初章中自有兩種也 問 此初章中
假語 出何經文證 自心作耶 答 華嚴經第十九 十地
[2b] 品歡喜地 解脫月菩薩請說十地文言 譬如〈諸文字 皆攝在初章 諸佛功德智 十
地爲根本 故一家相伝云〉所有經盡皆
入初章所攝 初章爲本 無有一字不入初章者 如是佛
子 十地者一切佛法之根本 菩薩具足行 是十地得一切
智慧〈別釋初章意 又〉大經文字品 迦葉問 云何如來說字根本 佛言初
說半字 以爲根本 持諸識記異論呪術文章諸陰界入
實法 凡夫之人 學是字本 然後能知 是法非法 以此元
初根本呪術文章 類此以爲初章 會成十地之名 此根
本卽是十四 十四110)音名 以阿字爲初 阿字義卽是不壞

108) 故有也 : 미상.
109) 不 : 是不?
110) 十四十四 : 사본에는 '十々四々'

不流無作 又大品經云 卌二字門 復阿字爲初 釋阿字
義卽是初不生 故名爲阿字 以阿爲初 故名爲一切言
[3a] 義之根本 出生方等言句 大小乘 無量無邊義 而終還
只是阿字者 阿字貫始終 所以菩薩句義 名爲無句義 無
句義是菩薩句義 如鳥飛空跡 不可尋 皆是無得無住之
語 故大品經 發軫初明 以不住法住 般若波羅蜜中 終
訖乎無所得 故龍樹釋名爲二法印 初卽不住 終乎無
得 故關中舊釋〈影嘆〉大品云 不住表其始 無得結其終也 且
有無兩字 攝之磬無不盡也 故今初章之義 只是不住
無得之語 其意抱含 故知初章義 義理孱然也 故阿字
爲根本 阿者只是無明 一切法無生 今明 有是不有有
無是不無無 不有有非有 不無無非無 此卽是入無生
[3b] 生之觀 卽是阿字 故得爲初章也 問 彼經言十四音爲
根本 卽是半字義 若爾初章是半字 應解小乘耶 答
若明初止〈心〉[111]初住 不明其出生具足 可是半字小乘 今成
中假 故具足半之與滿 大小兩乘 故八重之意 開釋大
小乘經宗也 一家作四對如前 他有 有可有 他無 無可
無 亦對他則應語今 乃至盡於[112]四句 皆言他言〈今〉也 於[113]以
他今相對明之 但諸師久後 恐人聞他作他解 聞今定
作今執 開今他兩片解 故不復名句之作也 直言 若有
有可有 若無無可無 若有不可有 若無不可無 乃至四
對 皆結作之也 今初章之說 本欲令入中也 何者 他有
[4a] 有自有 此有是有有 有則守其自性 無亦始[114]如斯 以其

---

111) 止<心> : 止로 적은 후 心으로 수정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됨.
112) 於 : 論?
113) 於 : 미상. 故?
114) 始 : 是?

住自性故則不轉 不轉故則不變 不變故則不達
不達故不通 不通故不得入中道也 今明 有不可有 有是不
有有 無不可無 無是不無無 不有有則不自 不無無亦
不自 以不自故則轉 轉故則變 變故達 達故則通 通故
則得入於中道 故言非有非無 入於中道 旣言從初章
入中者 亦從中 復出假 從非有非無之中 起而有而無
是假 此是初章中假語 卽是本末體用之說 對他無本
言爲一節也 他有是自有 則不從非有而有 無是自無
則不從非無而無 此有無則無本 無本故不正 不正故
[4b] 成自性也 今明 有不自有 有是非有之有 無不自無 無
是非無之無 非無非有卽爲本 有無卽爲末 非有非無
爲體 有無則爲用 以其本故正 正故則不自 不自則是
假也 問 作如此解 雖出成論一節而似同地論家 彼云
非無是法界體 而有而無是法界用 從體起用 此言恰
應齊 答 地論云 而有而無是法界用 有無是假者 爲當
有斯假有無爲是 無此假有無 彼義理然有 斯假有假
無 假有雖是實有 不妨是假有 如成論人云 三假有爲
世諦 不妨有此虛假之有也 今明不爾 反問 假有是不
有 旣言假有 那是有 若爾假有不有 旣言假 那是不有
[5a] 左右彈忤[115] 旣不得是有 不得是不有者 此是何物也 問
意難見也 答 只爲假有無 故是有無而非有非無也
問 猶不可解 旣言假有無 應是虛有無也 答 空有無
故是有無而非有無 故中論觀法品云 空生空滅 涅槃
論云 王宮生而不起 雙林滅而不無 大品經三慧品云

115) 忤 : 斥?

虛妄生故般若生 又如不行行不生生等也 問 前云體
用本末是何物語 答 本末是正敎語 卽是對耶[116]語 耶[117]是
卽虛妄 虛妄旣無根本故耶[118]語也 今明 本末卽是正敎
語 對耶[119]語明之 他有是有故有 有是自性 無亦然 有無
自性故所以是耶[120] 耶[121]故是虛妄不正 對斯[122]明正敎語也

[5b] 一家有時云 中者盡性也 假者釋佛經 中爲盡性者 他
明有是塊然之有 無則関虛之無 三有爲定是有 三無
爲定無 無不開[123]有 有不開[124]無 今〈若爾 豈非塊然耶〉責三有爲之 有不
得有
非復是〈有〉 責三無爲之 無得不[125]無 不復名無 有不得有 故有〈名〉非
有 無不得無 故無名非無 除有除無 不知何以名之 强
名爲中也 他云 以非有非無爲中 非有非無若爲名中
耶 今明 以非有非無爲中 明非有者除有 非無者除無
旣兩除假名爲中 此卽是盡性有性無 故假名爲中 所
以中名盡性也 假名釋經者 人疑經那說有無 爲釋此
疑 故言佛經說有無 此是而有而無 只曰是假有假無
[6a] 也 問 而有而無 爲前非有非無起 爲不 若前非有非無
起者 前非有非無是非〈性〉有無 而性有無起者 便從性起
假 此卽有得爲無得 作習因相生 山中舊說 有得非無

116) 耶 : 邪
117) 耶 : 邪
118) 耶 : 邪
119) 耶 : 邪
120) 耶 : 邪
121) 耶 : 邪
122) 斯 : 耶(邪)의 誤字?
123) 開 : 關?
124) 開 : 關?
125) 得不 : 不得?

得 習因只次第緣〈若〉有遠望相△[126] 習因不無此義也 若從
有得習因 起無得者 正是近義 則求山中舊說也 答 若
不前起 則爲掘頭起 復爲不可故 遠相△[127]〈起而〉 而非因緣起
也 有得無得碩永 豈得是習因有得起無得 故大品經
云 如佛昔未値燃燈佛前 値八百四千万億那由他諸
佛供養無空過者 而不得授記 後花嚴城內四衢道頭
五華散佛 卽得授記 故此兩善不相關 何得以有得爲
[6b] 無得作習因也 又而有而無 不關非有非無者 若爲得
起者 大師云 如椓起漂絮鐵鉤子椓之也 問 旣不由
起 卽掘頭起也 答 雖非近因而是遠因 以遠因故非掘頭
起 此中從來 山中舊作譬 因氷而倒 還因氷而起 准此
中用斯語 不得餘處用也 前云因非有非無 倒於有無
還因非有非無 起而有而〈無〉 如人因氷而倒 還按氷而起
也 而得遠因者 得次第緣增上緣 近因卽自分[128]因 習續
性同類相生 故近因也 次第與增上 義通三性 皆得明
之 如前惡心滅 次善心生等也 但近遠之意 若不識近
亦不識遠 遠近只是迷悟 若迷近亦迷遠 悟則近是遠
[7a] 近 遠是近遠 亦是相關 故異異不異 不異異也 問 須疷[129]
所以耶 答 須動執生疑 何者 正爲開中假 破除執 判理
內外得無得 故前須通漫作初章 搖動其迷執 令生疑
若其動執不定心 則因此得說中假 除淨也 問 所搖動
執生疑者 動何物〈生何疑〉耶 答 成實論等明 十一假十一實法
爲有 四句絶眞理爲無 故開善云 俗諦非有非無而是

126) △ : 판독미상[初-2].
127) △ : 판독미상[初-2].
128) 分 : 미상.
129) 疷 : 미상.

有也 眞諦非有非無而無也 如斯執鏗然 如柒柒難除
如拔木直拔 終不出 必須搖動 方乃得拔出 故須前說
不有有等句 動搖彼執 亦動彼執 即爲說中假 令生疑
因此 故重說中假 破其執除疑淨 故一家云 初章亦是
[7b] 開路義 如大王欲遊行 則前開路 必令淸淨 然後大王
方得出遊 今明義亦然 前破除壅塞 然後始得申摩訶
衍正義也 一家 有時破中假義人 謂破長干禪衆等爲
中假師 未必一向爾 只今時〈同〉聽者不解意 即作中假義
成中義 亦須破洗也 問 直破執除疑令淨 亦有餘意耶
答 此語是動執生疑 而復欲須開中假釋經教 故須說
中假也 初章之意 漸由得開中假 得開中假 則釋一切
經教也 問曰 不有有 不無無 是何言耶 答 若識中假 即
是中前假 正明爲假有假無也 若直約初章 一往論之
未有的當者 即是爲欲開中假之假有假無 未正是假
[8a] 有假無 通漫有無故也 問曰 既言初章 亦得言後章 以
不 答曰 不住之初 即貫前貫後 如阿字灌[130]通初後也
第二辨中假義 中假者 且前出成論等中假也 但彼
大小乘說不同 小乘明三中 眞俗合三中也 三假者 因
成相續相待假 如八不義中說也 大乘則 名受法三假
也 釋論卌一卷 有兩復次 初復次云 有人言色等法 是
名〈法〉波羅聶提 五衆和合故有衆生 根莖和合名樹 是名
〈受〉波羅聶提 用是名字取二法相 是名波羅聶提也 後復
次云 如微塵和合故有麤色 是法波羅聶提 是麤色和
合爲大名字生 名色有故有人名字生 是名受波羅聶

130) 灌 : 貫

[8b] 提 多名字邊 更有多字生 如梁椽瓦等名字邊 更有屋
名字生 枝葉名字邊 更有樹名字生 是名波羅聶提 行
者破名波羅聶提 到受波羅聶提 破〈受波〉羅聶提 到法波羅
聶提 破法波羅聶提 諸法實相中也 波羅聶提者 此云
假施設也 大[131]品經〈三假品〉云 名假施設 受假施設 法假施設也
仁王經菩薩教化品云 名集故有 受集故有 法集故有也
但解三假不同 一北方師云 受假者 攬含多法故名爲
受 受假名法聚集而成 故曰受假也 自體名法 法體虛
集 故言法假也 顯法曰名假 依法依想 假以施設故曰
名假也 二冶[132]城寺通法師云 非衆生數外法名爲法假
[9a] 衆生數內法名爲受假 名字通內外二法 無不有名字
是名爲〈名〉假也 以衆生數有領受之義 故是受 其體不實
故稱假 非衆生數外法直是外法 物無領受義 故是法
其體無實 故是假也 名不內外中間故是名假也 三慧
暢法師云 凡是因法爲法假 果法爲受假 因果有其名
字是名假 因法者 凡一切因 如梁椽爲因 舍爲果 受因
成故是受假 因果名字不實故是名假也 四招提琰法
師云 依第一復次 五陰是法假 人是受假 人法復有名
字 呼爲名假 五陰對人故是法 其體是虛而不實 故是
假 人受五陰所成故稱受 其體不實故是假 人法通有
[9b] 名字故云〈名〉假 此不內外中間故是假也 五開善〈依〉釋論有
人言後復次解三假義云 取細色成麤色 以爲法假 法
以自體爲義 旣其同類相成 似有自體故名爲法假 以
四塵成大 名爲受假 受以含受爲義 此假含受異其所成

131) 也大 : 寫本에는 大也로 도치되어 있다.
132) 冶 : 治의 誤字

故曰受假 以四大成根 二大成橘梨等名 爲名假 以名字爲義 旣以成假 重虛僞過甚 但有名字 名爲名假也 若言此爲互顯沒者 亦有此義 若言唯云此者 是則不然也 六報恩傍大乘 依仁王大品等經云 諸法皆賴名成 故言名假 諸法皆賴受得成 故言受假 諸法悉賴法成 故言法假 此亦何異 前三假 賴因續待三種成 故言
[10a] 三假也 若爾三假同體 所以然者 如一念色藉名方顯成 此則名假 無非賴心方有 故言受假 除此二力 所餘四緣力所成 皆名法假也 若爾所賴之名受法 法卽以四緣爲體 受則以通慮知爲體 名卽以十二部經爲體 是三假通八法也 雖曰名假 卽是苦假集假佛假等 雖言受假 卽心假 雖曰法假 卽是善假惡假等 乃至生習等假也 若是名受二假幷法假之多分 卽是前三假中待假 若是法假之二分 卽是前因續兩假也 還反此可知耳 故成實滅定品云 假名有二種 一因和合 二法和合 舊云因和合假 稱名受二假 法和合假 卽法假也 報
[10b] 恩云 二假隨一 一假具三假也 然此三名 自有通別 通論三假 皆名法假 謂一切法無非法故 但通中制別名心所成名 名假受假 故〈第〉[134]三通爲名也 名受二假成於法相 如世間好物 卽成好物也 此三假通諸法 故持地經云 色假名乃至涅槃 一切假名也 復生死涅槃 俱非假名 此則廢名求法 法體離名相 故持地經云 一切諸法離名自性也 兩意似是相食 而得意者不妨 何者以名名諸法 法隨名轉得 故悉假名 廢言求旨 離於語言 故

134) 第 : 미상. 衍文?

一切非假名也 今觀六家作三種假 雖種種明之 終不
離斷常 不得經論意也　第六家是大乘氣 而有虛假
[11a] 本無今有法 故不離斷常也 今第七無得大乘明義 無
名故假名 名是强名 强名卽是名假 無受故明受 但受
是强受 强受卽是受假 無法故辨法 法是强法 强法卽
是法假 三種假名 名名假 假名名受假 假名名法假
假名名名受法假[135] 畢竟求之 不可得 如求覓內身頭只見
有名字 不見有法 既無法 卽是無名 故經云是字不住
亦非不住 不內外中間 是則名受法畢竟淨也 問 解意
猶未可解 强名名名受法假 只見通語 强名名名三種
都不見聞 三假意耶 答 今謂通强名名中 開立久近 名
受法三假者 爲顯難易空 故開三種假 亦是爲簡除耶[136]
[11b] 正二門 故開說三假也 何者如十喩等法不久故易解
空 餘法久故難解空也 〈如釋論第六卷明之〉 有識之人 無非曰如十喩等法
非實有暫有 故不生貪見心 餘法無非言是有法 久故
生三毒心 故擧十喩 況餘異法 亦如十喩法 無所有 令
入空也 故釋論云 十喩是易解空 山等諸法是難解空
也 簡除耶[137]正者 一往明之 如耶[138]心見神我空花等 但名
受二假 故是耶[139]非正 境具三假 法是正境非耶[140]境也 一
往開立遠近具不具正耶[141]兩門 終歸不二乎 故仁王經

---

135) 三種假名 名名假 假名名受假 假名名法假名 假名名名受法假 : 사본에는 '三種假名々名假々名々受假々名々法假々名々名受法假'
136) 耶 : 邪
137) 耶 : 邪
138) 耶 : 邪
139) 耶 : 邪
140) 耶 : 邪
141) 耶 : 邪

云名集故有 受集故〈有〉 法集故有也 大品經云 名假所設
受假所設 法假所設 持地經云 色假名 涅槃假名也 復
[12a] 生死涅槃俱非假名 一切諸法離名自性也 雖說久不
久二假三假 而是假故空 空故假 無二也 故一家相傳
說初章 章者有三義 一是明義 雖開一切法而無有纖
豪之相也 二是押義 押領諸法 如甲是押義 甲領收也
三是收攝義 如序說段 序事收攝序章 正說段收攝正
說章也 故一往開中假 並收攝在初章也 故道理論之
初發心中 假發心中 即是初章 若爾卅心及十地等亦
是初章 亦是初章所收攝 而今就初地中 明初章收攝
前後諸地 前攝卅心與初發等 而約初地者 明不二義
顯 故據初地弁之 故華嚴經第十九卷 解脫月菩薩說長
[12b] 行與偈文云 譬如諸文字 皆攝在初章中也 若爾中假
中釋 他有是可有 他無是可無 無是可無 不由有故無
有是可有 不由無故有者 片[142]破地攝兩論宗 成毗二家
義 故所以如此者 彼家不識初章三義 落有所得 故今
明 有不可有等 具如卷初明也 故今重明 他地攝等四
家 不識初章三義故 故一家相傳 說中假者 他有是可
有 他無是可無 無是可無 不由有故無 有是可有 不由
無故有 今 有不可有 今 無不可無 無不可無 由有故無
有不可有 由無故有 非有非無也 他 不由有故無 不由
無故有 不由無故有 有是自有 不由有故無 無是自無
[13a] 也〈所以然者不解初章故〉 今 由有故無 無不自無 由無故有 有不自有 故非有
無也 他 有是自有 無是自無 無是自無 無非有無 有是

142) 片 : 斥?

自有　有非有無[143)]也〈故不得入中〉　今　有不自有　無不自無　無不自無　無
是有無　有不自有　有是無有也〈故非有非無〉　他　有非無有　無非有無
無非有無　無是無故無　有非無有　有是有故有也　今　有
是無有　無是有無　無是有無　無是有無　無是不無無　有
是無有　有是不有有　不有有故非有　不無無故非無　非
有非無爲中　而有而無爲假　假有不名有　假無不名無
故是不有有　不無無也　問　中假之名　出何經論耶　答
曰　大經中帙明　我爲衆生師　初無衆生師想　非師非弟
[13b] 子　是中道也　又言我常治衆生生死病　而無所破　非破
非不破　是名中道也　又迦葉卅二云　非內非外　亦內亦
外　是名中道也　又言非有非無　亦有亦無　是中道也　二
夜經說　從得道夜至泥洹夜　常說中道也　仁王經云　眞
諦俗諦　中道第一義諦也　中論四諦品云　諸法雖無生
而有二諦也　又品云　因緣所生法　我說卽是無　亦爲是
假名　卽是中道也　問　經云非有非無　亦有亦無　是〈名〉中道
何時作此分別言　是爲假　非爲中耶　二夜經并大經非
師非弟子　通漫不分明　仁王經亦三種說　何時中道假
耶　中論兩文　亦末[144)]的云中假也　答　經中明中者　是一
[14a] 種單明中道義　故有無非有無　明中假也　亦是一往明
中假相對　故作此言章　而實無有異相　只是釋成經意
明中卽是假也　仁王經明眞諦俗諦中道第一義諦者
眞俗旣非中道第一義諦　是中道者對中明假　眞俗有
無自是假　中道第一義自是中　則中假言章自復宛然
也　中論云　因緣法卽是假名　假名卽是中道　雖無異相

---

143) 有無 : 無有
144) 末 : 未

而不妨 即中義明假義 故有無是假 非有非無爲中 言
章分明 何時道異也 又云諸法雖無生 而有二諦 卽是
中假 無生是中 二諦是假 亦是義異而無異體也 又持
地云 有無方便 入非〈有非〉無 有無方便是假 非有非無是中
[14b] 也 問 何意明中假耶 答 中假意 亦是正釋經教 何故然
明佛赴緣 說有無之假 卽是教 教得詮理 故詮非有非
無中 爲理也 但緣執有無 住有無成病 故不知有無表
非有無理 故作此中假破病 卽得顯釋此經教表理也
問 不有有不無無 是何言耶 答 是假有無 何者佛說有
無假 本以顯非有非無理 而緣着名相成性 故破執除
病 顯釋佛教 故卽知佛說有無 是假有無也 問 何故不
有有是假 有有是性實耶 答 有名有 則不能轉 故還住
有 所以成自有 故有有成性實有也 今明 不有有〈爲〉有 有
則得轉爲不有 故有則不住 不住故是不有 有是不自
[15a] 不自所以是假也 問 不有有是假 有有是性實者 有有
與不有有 假實相待 還成假 何謂有有是性實耶 答 亦
須反責汝假實相待 悉令成假不許有實者 如成論因
成義爲假 但所成之假 假因之實法 則是實 何得因成
復是假耶 今謂因成假 有假有實者 何妨相待假有 假
有實須彈也 故自有皆假相待 故並是假而有假實相
待義 有假有實 此是理內望理外 遠乖相待 非因緣相
待義也 問 與彼假實相對 今明假實相對 此義應齊 答
一往相破故言相對 旣破竟復何處有〈實〉可對 今因緣空
無 並是假名也 問 若諸法 悉是假名 無有實可對者 此
[15b] 應獨自是假 無有可對故 若爾彌成性實 何謂是假耶
答 若有假可立 應如難 但今欲破性 故言假 何處有假

可論畢竟清淨 但假名爲假 如空中織羅 虛中織綾 何
處有成性實也 問 有無是假 爲當非假 何意 由有故無
是假 不由有故無 非假也 答 義有多途 但正意明之 明
有無 不關假與非假 但就兩緣論之 若能了達此有無
之意 相由故卽顯非有非無 是不住 不住故假名 假只
是不自無住耳 若不了者 則成有住有 無住無 故非假
成性也 問 三假等爲世諦 故得是假 只三假等卽體無
爲眞 眞俗相待復是假 故十二門論云 因世諦故得第
[16a] 一義諦 第一義諦得涅槃也 故一往論 二諦是相待假
至論眞諦 待不待並非 故絶亦絶 絶絶也 答 理而明之
成實論等不得稱假 何故爾 彼三假等爲世諦 世諦虛
假爲有 眞諦無相爲無 有無各〈存〉兩理異 故諸有爲有 諸
無爲無 不是 由有故無 由無故有 故不得是假也 問 世
諦有而卽體是無 卽是詺有爲無 何故言諸有爲有耶
答 須窮之 雖言世諦有 卽體是無 而終不詺假 擧體義
爲無 終是詺卽無處爲無有 亦詺緣假有處爲有 不詺
無處爲有 若爾豈非是定有無 有無性有無也 問 成論
等亦云 眞卽俗俗卽眞 故眞俗是假 非眞非俗是中 卽
[16b] 是中假義 何得言成性耶 答 汝眞卽俗俗卽眞 名爲假
此亦不成假 何者 若眞卽俗擧體是俗 不得俗處爲眞
俗卽眞亦然 若爾 此乃是各145)成性 〈爲〉何謂爲假 又非眞非
俗爲中者 若言 非眞約俗邊爲語故非眞 非俗者就眞
邊爲論故非俗 若爾此乃是兩非爲中 各就一邊爲中
也 此是附開善義也 若如莊嚴家義 涅槃出二諦故非

145) 各 : 名?

眞非俗爲中道者 復是別有中道之理 何開二諦中也
問 若出二諦外 別有中道涅槃者 此涅槃何地見 何或[146]
所鄣 誰得此中道涅槃耶 若相或[147]鄣於二諦 無知鄣別
事解 離此復何處或[148]鄣中道耶 旣無別或[149]鄣 卽是無所
[17a] 斷 旣無有或[150]可斷 卽無人得者 故彼義明中道不成 須
廣破也 今謂只名有處爲無 詺無處爲有 故是不有有
不無無爲假 只此假有非有 假無非無 詺此爲中 而畢
竟無所有 但爲緣假名說 實何所設耶 問 若如斯解 究
竟無所有者 何故前作中假 不有有不無無 是假 非有
非無是中也 答 具如前說 不有有不無無是動執生疑
動彼性執令生疑 然後爲說非有非無是中也 正欲開
經教之意 何故爾 只爲緣故作兩種語 而實無有兩種
可得也 問 若爾 亦得不有有不無無是中 非有非無是
假不 答 無方 爲語亦得之 又如大經是無所有爲宗 大
[17b] 品經是有所無爲宗 亦得也 又如有言無畢竟無爲假
有亦是中 此名字說 非有非無爲假等得也 但一方佛
說緣故非有等爲中 有爲假等也 故經言 我常行中道
爲衆生說有說無也 問 諸有爲無 何故相由耶 答 此正
是由 何者良由有 故得諸有爲無 諸無爲有 若爾豈非
由耶 問 初章明義 何故直以明之 不對他論也 若中假
則對他明今耶 答 初章明義 且未的指去取 猶是一往
通漫言 爲中假之由漸 故直以明義 不對他解也 中假

146) 或 : 惑
147) 或 : 惑
148) 或 : 惑
149) 或 : 惑
150) 或 : 惑

則正有所對 來去取捨對他明今也 問 何故兩過出不
有有前後若爲異耶 答 前則橫明之屬初章 後則竪辨
[18a] 屬中假 此義橫竪義中自出也 前〈四〉相對明中假四意之
中 前是所非 後是可取 前三是從假入中 是中前假後
從中出假 是中後故[151]假 第四還結成前假 故言不無無
等也 問 中前假中後假 如磬 假前中假後中 云何耶
答 亦得 只此非有無之中 此中卽是前假之後 後假之
前也 此義八不義中具說也 若約二諦中道者 則有階
級不同 若依此名目明之 以有無爲二諦 則此非有無
是二諦理中 從前假入中 從教悟理 則是從用表體 從
中出後假 則是從體起用 從理出教 若二諦之中 別更
開二中者 具如八不義中所說 假生假滅爲世諦〈假〉 非生
[18b] 非滅爲世諦中 假不生假不滅爲眞諦〈假〉 非不生非不滅
爲眞諦中 此是開有無眞俗爲中也 非有無卽是非眞
俗中也 初重明二諦理教 次明轉者 則摠此有無 皆世
諦〈假〉 非有無爲世諦中 故卽名此中爲世諦中 此前卽是
世諦 此後假名爲眞諦 從此假後復明中 卽是眞諦中
兩轉三轉 具如二諦中說 問 最初假前有中以不 有
者此中爲是世諦中不 若是者 則是因世諦中顯世諦
教也 答曰 若此初假前更明中 則是可有可生等病
破屬所除非開世諦中 故說假生滅 有無爲世諦教 破
性生滅有無 破處諸[152]爲中 卽還屬所除之病 從〈假〉生滅有
[19a] 無等 得非生滅有無 乃是世諦中也 問 頗有最初假
前中不 答 亦有無妨 何者如破外道性有無 故空此性

151) 故 : 前?
152) 諸 : 詺?

有無處名爲中 而此中未是假後之中 但就彼破性有
無故言中 於後佛爲然說假有無 始是正教 卽此教名
爲假故 前卽破性之中 假前中也 如十八空中明性空
初說性空 以破外道性有時方等 故明性空 未是教有
無後 辨性空爲俗諦中 故外人問曰 佛法中亦有時方
等不 論主云 隨俗故亦說有時方等 始名爲教 卽是假
空 以假有無時方等 始名爲俗諦性空 名爲中道 故前
明性空者 猶是假前也 問 以性空是十八空性空耶 答
[19b] 理外之性空 但擧十八空之性空 十八空有性有假兩
種 對因緣空明性通性也 今明假前中亦然 是故亦得
有最初假前中也 問 居士杜口 亦云淨亦淨絶 絶那
得開 云有無是假 非有非無是中 若是中並應是中 若
言是假悉是假 旣稱中卽是假也 答 理應如此 故經
云色不生乃至薩婆若不生 色空故乃至薩婆若空 色
不可思議故乃至薩婆若不可思議 故一切諸法並是
假 一切諸法悉是中 但諸佛菩薩 善巧方便 假名名開爲
中假 令悟入非中非假 故言有無是假 非有非無是中
但此中有二義 一是中當淨亦淨之中 有無是當二之
[20a] 假 雖開中假 無假異中 無中異假 亦假亦中 如開虛空
也 二是不二之中 是〈開中假兩義有無 則當假理而論之 中亦是假 但中〉美名 美
名强詺非中非假之絶絶
與淨淨之處也 問曰 若爾常途寄名爲中 何異耶 答
語似同而意大異 彼明名異於理 名是色法無常 理則
非色非無常 故借名寄說也 今謂 無名異於理 無理殊
於名 非名非理 但假名名 於無中名 故無能寄無理 故
無所寄處 如虛空開能所 無有二相也 廻諍論云 以聲

遮聲 至於無聲 問 有無稱假 非有無目爲中者 既言
非有無 卽廢有無 復稱中時 則廢假 以無假故復失中
何以得辨中假耶 答 有二義 一則辨中假 只爲顯非
[20b] 中假 故言中假 故言中假[153] 二明之中假 猶是疏義 復密
義中更密明中假 若有不有 只是非有爲有 有爲非有
只是有不有 中假相因待更不得異也 亦是只假卽是
中 只名假爲中 何處離假有中 故論云 亦爲假亦爲中
也 問 若論如此不異 則有無亦應然 何但於後耶 答
只爲〈緣〉執成病故成異 今悟則無異 所以非病非藥 後疏
密中廣明也 問 既言中假 亦得言假中不 答 亦得
之 而中假假中 此二言異者 若依語論之 爲便者應言
中假 若破病語則應假中也 言中假爲便者 中假是本
末語 中則爲本 假則爲末 從非有非無之本 起有無之
[21a] 用 有無末故言中假 於言方就義理爲便也 假中是破
病語者 人聞中則作中解 有此平等中道之理 爲破此
見 故言假名爲中 何曾有此中之可得 是故假中爲破
病也 問 地論師亦明中假 彼云非有非無爲中 而有
而無爲假 阿梨耶非有非無 此是眞中之眞 爲爲[154]法界
體 從法界體 起而有而無爲用 三藏攝論師 亦阿摩羅
爲體也 答 亦是被破 彼雖有無沒識與無垢識 洞遣
百非 而不得言無 如斯法終是前七八識滅除淨方得
乃顯於無沒與無垢 故終是二法 被破也 又地攝兩
論各辨八九識等 中假非有非無爲中 而有而無爲假
[21b] 解以不旣初斯心解 豈是成中假 汝非有非無爲中時

153) 故言中假 : 衍文?
154) 爲爲 : 爲之? 사본에는 '爲々'

爲當有此非有非無不 若有者 那得有前作有無義成
可許有非有非無 而有而無既不成 非有非無云何得
成 如論云 有無已無 中當云何有 若無者 汝名何物以
爲中那[155] 而有而無爲假者 有此而有而無不 故非有非
無 則兩去 則是斷 而有而無 兩來 只是常 此是斷常一[156]
見 何謂中假也 故一家舊云 兩去不名中 兩來亦不成
假 非有非無 則是兩除名爲去 而有而無 則兩取名爲
來 此只是去來斷常二見 非中假義也 中是何義 中是
實義 若爲實義 責有所得家 汝所謂者 並是虛妄 彼有
[22a] 無不立 即是無虛妄 無虛妄 即是實 若爾豈非是中實
也 問 若爲今彼有無不立耶 答 彼所見有無 皆是性
是偏 今責其有不得 彼有成非有 責無不得 彼無〈成〉非無
責彼有無成非有非無 既無有無 亦無非有非無 有無
非有非無皆眞 不知何以名之 强名爲中 即是實義也
假者何義 假是不自義 彼所計皆是成自義 今責彼自
〈即〉不得〈自〉即無自 無自只是不自 此即是假義也 但此中假
義 興皇大師辨中假亦無量 但要者或開三種中 有時
開四種中也 假亦然之 三種者 一者對偏中 二者盡偏
中 三者絶待中 四種 三如前 第四明成假中也 對偏中
[22b] 者 如內學禀佛二諦教 則空有成斷常見 迷僻於中 如
百論〈三〉外道中 亦如開善二諦義明三種等 有所得家中
故論主說 不生不滅中道 對破彼偏執 則爲說正中義
故言對偏明中也 盡偏中者 盡淨於偏 名之爲盡淨中也
何者 明非唯直辨中對而已 復須洗除此偏盡淨 乃得

155) 那 : 耶?
156) 一 : 二의 誤字. <逸文>[伊藤隆壽(1974), p.68]에는 二.

名中 故言盡偏明中也 絶待中者 亦名實相中也 不從
對偏爲名 亦不從盡淨目之 言語道斷心行處滅 四句
五句所不可得 强稱嘆立中名 以顯正法實相義也 又
中本對偏 偏病旣去 中亦不留 非偏非中 不知何以美
之 强名爲中 故名絶待中也 問 若絶中名爲中 亦應
[23a] 絶待名爲待耶 答 待不待絶不絶是一例 絶中無復中
名爲絶中 絶待無復待 名爲絶待也 成假中亦名接斷
中也 成假中者 絶本對不絶 不絶是假 所以第四明成
假中也 明中道實非有非無 因此非有非無 得起有無
以中成假 故名成假中也 佛於無名相中 假名相說 說
有無爲顯非有非無 非有非無是中 因此中起假也 接
斷中者 中偏旣去 謂絶斷作解沈空 故接起假名中 故
接斷中之[157] 此卽治病中也 又藏公云 論主破外道 外道
心無所安 成斷見求覔法 論主將佛二諦接斷 亦得接
斷二諦 是百論意也 中論直諍佛二諦 廻生滅心 向無
[23b] 所得心 故不別二諦來接故不名接斷 若生滅心去 無
所得心接 不無此意也 問 接斷中之中 是能接爲中
所接爲中耶 答 外人旣被破心無可安沈沒在空 佛
正教有無二諦能接之 二諦爲中亦得 又實相之中沒
在 從所沒爲中亦得 正意强名中也 問 四中之中 有
淺深不 答 正法中 望〈對〉徧[158]中與盡偏之中 幷盡與對者
一正法望二中 爲開二中者 卽無淺深也 若對斷常徧
假名 立爲中名 對徧中 卽此中能盡淨徧 故名盡偏中
偏旣去 中亦不留 非徧非中 强名爲中者 此中卽深 前

157) 之 : 也의 誤字. <逸文>[伊藤隆壽(1974), p.68]에는 也.
158) 徧 : 偏?

二中淺也 接斷中亦淺 又亦病非病也 成假中者 有二
[24a] 義 若正法體中 能立有無二諦假故成假中者 此中卽
深 若假名爲中者 卽淺也 實相中能所俱寂 卽是正法
中 若心沈沒卽病中也 假亦有三四種者 一者對性假
二者盡性假 三因緣假 〈四〉三如前 第四表理假 亦得云接
斷假 第五是二諦接[159]也 問 中是中 觀論是假者 何意 前
明中 次明觀 後明論 而不論觀中次第耶 答 所以前說
中者 中是十方諸佛之正道 衆聖共行 此道更無二趣
故華嚴經云 文殊法常爾 法王唯一法 一切無畏人 一
道出生死 更無異道 故前須漂[160]中也 問 若一切衆聖
共行一道 故無二者 經那云 三乘各道耶 答 道未曾
[24b] 是三 但隨緣說三耳 如大經云 觀中道者有三種 下智
觀者 得聲聞菩提 中智觀者 得緣覺菩提 上智觀者 得
佛無上菩提 此是同觀一中道 而得悟自有淺深 菩提
未曾是多種 亦如十地正返道 未曾有十 但約三義說
十地階差不同也 因此中實之道 發生菩薩正觀 正觀故
所以作論破迷申教 故三字次第意也 問 中以何爲
義 答 中以實爲義 亦言中以正爲義 以正釋中 以實釋
中也 問 如斯釋中出何典誥耶 答 略出三證 併以理
明之 何者 一者關中 二者論文 三者引證也 關中者 叡
法師序中論意云 以中爲名 照其實也 此是以實釋中
[25a] 中是實義也 問 照其實者 似釋觀耶 答 照是顯義
顯其〈實〉錄也 又肇法師作涅槃論云 如正觀論說 故以正
釋中 中是正義也 論文者 論觀法品云 諸法實相云何

---

159) 接 : 攝? <逸文>[伊藤隆壽(1974), p.69]에는 攝.
160) 漂 : 標?

入 答曰息我我所諸見 故得入實相 實相是中 故以實釋中 中是實義 又大論至難指云 如正觀論中說也 引證者 大經云無相之相乃名實相 如是無相亦名第一義空 亦名中道也 以理明之者 中是中實 故以實爲義也 問 何意名實也 答 對虛辨實 若作生滅斷常等解 卽是虛妄非實 今只了此生滅畢竟不生不滅不常不斷等名爲實也 問 只此生滅是實 生滅那忽是虛也 答 此
[25b] 生滅若實者 菩薩求應可得 而今求之不可得 了達無生滅者 豈非是虛妄也 今諸法實不生實不滅 故名實也

中名多種 或名正法 或言正性 或云實相 或名實際等具如諸經中所述 並是一正道中隨處異名說也 問 中觀論此三種 互得名不 答 並得互名 何者 只中名觀 亦只觀名中 只論名中 何者 三字皆得觀者 若對三觀義中是義相觀 觀是心行觀 論是名字觀也 亦得三中三論也 若以中之與觀相對 別是一種相發義 若觀與論相對者 此名如說而行義 說卽論觀行卽觀也 若論與中相對者 亦得言正說 正是中也 說是論 對耶[161]說也 亦
[26a] 得言實說 實是中 說〈是〉論對虛說相發也 言中觀相發者不生不滅之中 能發菩薩之觀 故名中發觀 觀發中者 顚倒之迷 謂是生滅 所以失此不生不滅之中 故菩薩以正觀求此生滅兩計 畢竟不可得 旣生滅不可得 故則顯不生不滅之中 名爲觀發中也 亦得言前是自行 後是化他行也 問 緣發於觀 觀發於緣 緣盡於觀 觀盡於緣此是何言耶 答 緣有二種 若能所之緣 此是境智 明境

161) 耶 : 邪

智相稱 因緣相發義也 若顚倒之緣 此緣亦發菩薩正觀
然此兩種緣發義 雖同而有疎密之殊 前是密論相發
緣 後是疎辨相發也 緣盡於觀 觀盡於緣者 此語應言
[26b] 菩薩正觀 能盡顚倒緣 故名緣盡於觀也 本有緣故有觀
緣旣盡 觀亦淨 故名觀盡於緣也 亦有相由明盡義也
境智相對 類可尋也矣 問 何者是中假中 中實中也 答
釋異者 若中實中者 是論所辨中也 中假中者 是經所
辨中也 中假中 前假後中 中實中 是前中後假也 何者
如經中先有無爲 表非有非無之中也 若是論意 洗斷
常二見 顯中實 令悟中實方便也 經中假名 是則因中
實中 方悟中假中也 若論宗 破斷常顯中實 卽是從經
入論 因中實識假名 卽是從論入經 何者其相如有經
故作論 明衆生執斷常有無 還從經中得今論 洗除如
[27a] 斯斷常見顯中實 令物從經中悟入論中之中實 故言
從經入論也 從論入經者 因論了悟論中之中實 方悟
經中之假名 從論入經也 一家云 從經入論 此名悟迷
從論入經 此名迷悟也 亦得因經作論 從經入論 因論
而識經中中假 從論入經也 又經中從中出假 故經佛
自云 我常行中道 爲衆生說有說無諦 卽是證中道竟
方爲衆生說有無二諦也 諸論從假入中 何者 佛爲物
說〈有無〉 而去聖人久遠 衆生迷假爲性 故論主等出世 破性
從假入中也 又論則折却偏耶162) 令悟中後識假 是從中
入假義 經則說假入中義 如前說故 地持云 有無方便
[27b] 入非有非無也 又中假假中異者 中假語則因緣次第

162) 耶 : 邪

也 何者 從體出用 從本出末 語中卽體本故 假則用末
故也 假中者破病語 何者 衆生執成性失因緣 故聖說
假破性 識假故破病語也 問 有得家云 相待故假 假故
相待 此二爲一爲異 答 大乘意大異 非是顚倒語 若相
待故假 此則有兩意 一者二而一義 有無兩成假故 二
者據有爲論明有 此一丈五尺 所以說於相待 但此長
不自長 待短故得長 短亦爾 而非無此丈尺應名也 若
言假故相待 此則亦有二義 一者一而二義 假一而有
二故 二者據無爲語明實 此無長短 但假名中說有長
[28a] 短明待 本是相須義 無自體爲宗 有此長短 何須相成
也 成實師說中有二種 一者三假明中 二者二諦明中
三假明中 三假明中[163] 具如八不二諦中說 二諦明中 亦
如二諦八不義中說 今重出 兩家說中 一云 俗諦中者
假有故非無 不任無故非無 非有非無 俗諦中道也 眞
諦中道者 眞無故非有 不任無故非無 非有非無 眞諦
中道也 二諦中者 非眞非俗也 若是定俗 則無有可空
若是定眞 則無緣會假有 今 俗不定故可空 眞不定眞
故 須〈復〉[164]有緣會有 故眞俗不定 爲二諦中道 二云 俗不卽
不離因果明中 眞不有不無明中 二諦不眞不俗明中
[28b] 也 今略破之 二諦明中者 二諦旣有二 中亦應二假也
假彼云 世諦三假收假盡 故眞諦非假 眞諦是假 還是
世諦也 今責 眞諦無可爲假 眞無物可非 故不得稱中
也 又眞諦雖非有無 而不妨眞諦理 故卽是有 故非中
道 無眞諦卽是斷見 故亦非中也 彼云 不定無 非定有

163) 三假明中 : 衍文
164) 須<復> : 須로 적은 것을 復로 수정한 것으로 생각됨. 혹은 復須를 적은 것일 수도 있다.

故明中也 今謂 不然 有箇眞理不定屬二 定者卽是有
故非中也 又汝云 二諦中非眞非俗 爲出二諦外 爲不
出 若中道出二諦外 開善義卽壞 若不出卽是二諦也
莊嚴乃云 佛果出二諦外 亦不云中道出 故非彼義宗
也 若非眞非俗 不出二諦者 猶是二諦 中道出何在也 故
[29a] 莊嚴義壞也 中道多種 但山中師 要者三種 一八不明
中 二二諦明中 三單複明中也 禪衆師 六種明中 三如
前 四對異明中 何者 有人言常無常異 對此明常無常
不異 明中也 五假名辨中 何者 則是有無 有不有 無不
無 明中也 六絶不絶明中也 興皇師 大建六年五月房
內 亦開六章 一破異明中 二成假不成假明中 三單複
明中 四體用明中 五一二明中 六絶不絶明中也 第
一盡異明中者 亦對他明之 只盡彼異法故明中 何者
是盡異法 人執有中有假 故責中不成 破假不立 無彼
中 無彼假 此中假畢竟盡淨 故目此爲中也 問 何故盡
[29b] 彼中假 答 爲其計中假並不成 成斷常 故經云 聲聞緣
覺不見第一空 故不行中道也 彼云不一只是異 不異
只是一 作斷常爲中道想 故須破也 故中論八不不一
不異明中也 問 旣云盡彼中假 中假畢竟淨 何物爲中
答 如大品經云 四邊悉斷 名爲洲 盡彼一異斷常等畢
竟淨 目此爲中 問 旣言盡中假 而中名何處生 答曰 如
言因氷而倒 因氷而起 盡彼中假斷常等 還因盡彼斷
常故有中假起也　第二成假不成假明中者 通而爲
語 一切法盡是假而通中制別 有切相成 有不切相成
也 何者切成 如因果長短假也 餘瓶衣等 非切成假也
[30a] 就切成中 自有相成 故假相盡故是中也 旣不切相成

故非假不相盡 故非中 何者 如因長有短 因短有長 故
是相成爲假 因長故短則非短 因短有長故非長 非長
非短故長短兩盡不二 而是中也 不切相成者 由甁故
衣猶是衣 因衣故甁猶是甁 故非假也 不得言由甁故
衣則非衣 由衣故甁則非甁 非衣非甁不二兩盡爲中
故 非是中也 然切相成假不出二種 一相成故是假 二
相盡故是假也 想〈相〉165)成者 如因長故短等也 相盡明假者
如因生死有涅槃 因有故無等 此是相△166)法故是假 如
是由生故有死相△167) 卽是假也 有性爲無 無性爲有 亦
[30b] 然 此卽前兩盡義異兩盡也 亦得明中 生死故非生 生
死故非死 非死非生爲中也 生死涅槃亦然 盡生死故
有涅槃 盡涅槃故有生死也 問 生死涅槃是兩果 云何
是假 如經言八聖道爲涅槃 五住或168)爲生死也 答 如他
定有兩異 故不得是待假 今謂 無生死 卽不得成涅槃
無涅槃 不得說生死 要由生死過患 故聖人假說涅槃
故是假也 故大經梵行品云 涅槃之性實非有也 因世
間故說涅槃 如人無子名爲有子 道等亦然 華嚴經云
涅槃不可說 說之卽有二也 肇師云 涅槃者 出處之方
便 △169)物之假名也 故生死涅槃 幷是假名 而復生死涅
[31a] 槃 復有相盡義 是假如二河相傾 生死河滿 涅槃河傾
故是假也　第三明單複明中道 具如八不義中說也

---

165) 想<相> : 想으로 적은 후 相으로 수정하였음
166) △ : 판독미상[初-3]. 내용상 應의 가능성이 있다.
167) △ : 판독미상[初-3-1]. 앞 행의 판독미상 글자와 같은 글자이다.
168) 或 : 惑
169) △ : 판독미상[初-4]. <涅槃無名論>에 해당 부분이 '出處之異號 應物之假名'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는 應의 異體로 생각된다.

但單複 所以有[170]此章來者 初一往盡異法明中也 復明
因緣 明中假 而因緣中假 自有轉勢無窮 有淺有深 有
單有複 如八不義說也 自有〈初門〉 三假三中 三假者 就因緣
二諦釋之 因緣空有爲俗 因緣有空爲眞 是初轉假也
第二明世諦何 但有是俗 空復是俗 若空若有 並是世
諦 非有非空 始是第一義也 又空有爲二 非空非有爲
不二 二與不二 並是世諦 故說非二非不二 爲第一義
也 三中者 初是空有非有 有空非空 非空非有 名爲初
[31b] 重中也 第二是 非有非空 非非空非非有 名爲第二中
也 第三是 非二非不二 非不二非非不二 是第三中也
初重卽是單 第二去是複 但第二是單複 第三重複也
所以明中者 有兩意 一者明佛說空有 此有表非有 此
無表非無 故佛說有無 卽是中義也 二者明外人聞佛
說空有 卽執爲性故成偏 今欲盡其所計有無徧執故
明非有無是中 餘二 不二 非不二 非非不二例也 第
四明體用者 以非有非無體 有無爲用 不同 常云別有
一體 今明只本爲體 何因明有 有無則言猶非有非無
故得有無 有無則有本也 非有非無則是中 有無有是
[32a] 假 中爲假本也 問 然體旣明中 用亦得辨中以不 答 有
也 如假有 不名有 不名不有 無亦然 卽是用中 非有非
無 卽是體中也 具如八不義中 不有有中說也 問 旣言
體中者 亦得言體用假不 答 一家云亦得不得 得如八
不義中說 不得何者 以體明不二極故不論假 而名爲
中 用論二無窮故是假也 問 用中體中云何異 答 有異

170) 有 : 내용상 在?

也 若言用中 此簡正假也 體中盡假也 如言假有 若是
有 是不有是不此[171]不成假 亦非體用 故今謂假有不名
有 不名不有 故此有方是假有 故大師恒云 假有 寧得
言是有 假言有 寧得言非有耶 故言簡假明中也 若是
[32b] 體中 則盡假有 明非有非無 故是中也 問 何故不簡假
有 言假有不有 假有非無也 答 直簡有 故明不有非不
有也 問 有假前中 假後中 何中爲體 中前假 中後假 何
假爲用 答 通得體用義 而今正取假前中 爲起用體 故假
後中 爲收用〈入〉體 何者 如非有非無 故明〈有〉無 此是假前中
爲起用體 若是有無非有非無 爲收用入體也 問 此假
前中 非有非無 爲非[172]何物有無耶 答 通得也 據本明之
諸法本來不曾是有〈無〉 故假說有無也 又若關接際爲論
自有性空因緣空 非性有無 故明非有無亦得 非因緣
有無 故明非有無也 若是中前假 爲收入假 如有無非
[33a] 有無也 中後假 爲出用假 如非有非無有無也 今更明
此 若言有無非有無 體用未分 但是壞△[173]義耳 明有無
旣壞 非有非無亦盡 故是無體無用 若是非有非無故
有無 此方是體用義明也 然此有無非有無 多〈有名〉目 體用
中假二不二 理教體不二用二 理不二敎二 中不二〈假二〉 用
二體不二 敎二理不二 假二中〈不二〉 今明此多名 並有所爲
若是中假 明諸法不自因緣之義 故說假也 以因緣 有
不自有 故所以不有 卽是中也 體用者 只是本末義 明
何因緣 得有有無 由非有無故有無 有無是方便隨緣

171) 此 : 無의 誤字.
172) 非 : 미상.
173) △ : 판독미상[初-5]. 徧?

之用也 理教者 明諸佛說法無非教義 但教必有所表
[33b] 故有理名也 二不二者 有無卽是二 非有非無爲不二
今明 以二從不二 相與爲不二 不二以約二 相與皆是
二 何者是〈二〉 如有非有 豈非是二耶 假有不有 由無故有
有 此無豈得異有 故有無不二也 但今正明 非有非無
爲不二者 以非有不異非無 非無不異非有 故非有無
如不二 有無方便辨用分別故明二也 今明 雖有多種
名目 然理教語通 以諸佛說法並是教門 欲有所表故
悉是理也 第五明二不二者 二不二 卽是通結上章
更開爲三別 一別序二不二 二通結二不二意 三料簡
他亦有二不二 故常言 眞卽俗俗卽眞 相〈卽〉義 是卽不二
[34a] 龍光意也 復云非眞非俗中道 是不二義 開善意也 今
謂不然 俗卽眞 爲有俗在 爲無〈俗〉乎 若有俗在 則應猶分
何謂是卽 若無復在 則失俗義 若爾 二諦二體兩理 便
壞也 若言非眞非俗中 是不二者 旣言非眞非俗 卽是
出眞俗外 眞俗亦壞也 彼救云 相侍[174]有無是二 非有非
無是不二也 亦無別理異眞也 破此意如後破也 今明
因緣假名 有無非有無 是二不二 非有有非無無 是不
二二 故一家舊語 非有非無 二不二 是中 不二二 是假
也 然作二不二 有多種 有中假門 有相卽門 有相待門
有說作門也 中假門者 假二 中不二也 相卽門者 如經
[34b] 云 色卽是空 空卽是色 離色無空 離空無色 是故相卽
不二義 卽不二不卽是二也 相待門者 如待有故無 未
待有時無有一無 未待無時無別一有 亦非是有 一有

---

174) 侍 : 待.

將以形無〈非〉有 一無將以待有 故只是 待有故無 待無故
有 有是空有 無是空無 故無有二相 是不二義也 問 旣
言相待 寧言不二耶 答 一家多勢 若是一種門 只是
相卽是不二 只因緣相待 只是一因緣義 故是不二也
而復相待 寧非是二耶 說作門者 說空作色 說色作空
只指空爲色 指色爲空 故是不二 旣言說空作色 寧非
二耶 具如二諦義中說也 二者言通結二不二意 非只
[35a] 通結此段 遍結上章 大明中不二假二也 今明 中亦是
二 假亦是不二 二不二無碍也 體用理教本末 亦然皆
通 何者明由二故不二 由不二故二 由二故不二 不二
豈獨是不二 故不二便是二 亦是猶[175]不二故二 二豈獨
在二耶 故亦還是不二耶 問 由不二故二 二不獨在
二 故二爲不二者 將非由不二故是二不耶 答 旣言
由不二故二 二非是二 則知不二 由二故不二 非不二便
是二耶 故相卽門說亦得言 只指二爲不二 指不二爲
二 故說二作不二 說不二作二 說二作不二 不二豈是
不二 說不二作二 二豈獨是二耶 故相卽門 只二是不
[35b] 二 只不二是二 故通是意 非是通方無碍 復是出入觀
門 故瓔珞經云 從假入空 是二諦觀 從空出假 是平等
觀 如成實義 只應云 從空出假 是二諦觀 從假入空 是
平等觀 今明無碍故隨意得也 明空若定空 從假入空
豈是二諦 今謂 二不二 故不二卽是二 故從假入空 是
二諦觀 假若定假 假〈從〉[176]空出假 豈是平等 今明 此是不二
二義 故二只是不二故 是平等觀也 故大經第五卷末

175) 猶 : 從? 혹은 由의 誤字?
176) 假<從> : 假로 적은 후 從으로 수정하였음.

云 善男子 如來或時說一爲三 說三爲一 如是之義 諸
佛菩薩境界 非是二乘所知也 又梵行初云 如來世尊有
大方便 無常說常 常說無常 說樂爲苦 說苦爲樂等 若
[36a] 爾是定苦樂等耶 第三科簡 今安事爲論 復有二爲
不二 不二爲二 如待二說不二 不二還成二 非二非不
二故說二 此二便〈不〉二也 有二人結中假共碩爭 一云 有
無非有無卽是中 而有而無卽是假也 一云 非有非無
有無不二 方是〈中〉也 然此說各有所以 彼云 若直言非有
非無者乃盡有 或未是中 今 若言 非有非無有無不〈二 方〉名
是中 以不二對二 故二是假也 彼云 只非有無是中 但
名有多[177]對 二自對不二 有無自對非有無 何用二 結有
無不二 結非有非無耶 今明 若欲員[178]結 應是不二 隨緣
方便說之 若直云 非有無 亦得也 此是一節意也 若言〈二是〉
[36b] 因緣 不二非是因緣者 不二是夷有無泯眞俗 故盡因
緣也 若是二中論因緣者 不二由二 故明因緣者 別是
一種意也 此不二猶是二 故非二非不二 方非是因[179]緣也
問 就因緣門明不二 假中門明不二 相卽相待說作
畢竟諍論不二 今寧言不二非因緣耶 答 若別而爲
論 二是待不二〈今論不二〉故 是絶待故 非因緣 若通而爲論 不二
因二論因緣 此別復是一途所說 不二因二 故不二猶
是二也 今言 不二非因緣者 別復是一種說絶 絶故明
不二也 如不二 若非是因緣 卽是自性 豈得不二耶 今
明因有故無 因無故有 有是無有 故得非有 無是有無

177) 多 : 미상.
178) 員 : 圓?
179) 筆記本에는 緣 앞에 因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寫本의 복사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37a] 故得非無 所以得因緣也 問 不二是中 二是假 可得
言不二是一以不 答 〈得〉不得 何者 如盡有無 辨非有無
盡二論不二 亦是盡一論不一 各有所主 故不二非一
也 而復有得義者 明不二强說一 一卽是待絶 故得也
問 不二是一者 不一亦可得是二以不 答 亦得亦
不得 得者相對辨之 不一是二 不二是一 如言不空是
有 不有空是[180]也 不得者 不二明一 便是轉深義 不一還
是二者 倒出故不得也 復有一二義 如假有不有 是一
二 假無不無 復是一二 故是二二一一[181]者 非有故說有
非無故說無 卽是一一也 二二者 就假爲論 一一卽是
[37b] 就絶待而明之也 問 旣言一一與二二者 便應得有
有與長長等耶 答 今明有有者 無蹤跡有有 故一一
與二二 並是方便敎門我[182] 一一由不一一故說 二二猶[183]
不二二故生也 若爾豈非是假名 故大經云 不聞聞等
四句五性 有因因與果果等 豈自性耶 又經中說不二
不同 有言 諸有有非道非果 不二是道是果 又△[184]云 諸
無無非道非果 不二方是道是果 故結此二不二不同
也 第六明絶不絶義 具如二諦義中說 今略明之 成
論等家云 眞諦無名 寄世諦故有名 名眞諦眞如實際
等 皆是寄世諦說也 世諦以名求得物 眞諦無名以名
[38a] 求眞 去眞彌遠 故眞諦言語道斷心行處滅也 復諸師
云 眞諦乃斷語言而復心行眞義故 以心是虛[185]通法故

---

180) 空是 : 是空?
181) 二二一一 : 寫本에는 二々一々
182) 我 : 義?
183) 猶 : 從? 혹은 由의 誤字?
184) △ : 판독미상[初-6]. 經?

也 然凡論二諦有絶名義 如眞無俗名〈俗〉絶眞名 故是互
無義也 復云世諦中絶名 如十六知見等絶名 有師云
非世諦攝也 通中制別 如長無短短無長 亦互絶也 今
經中直云 無名無相亦未見 名相是俗 無名相是眞 直
云不見菩薩及菩薩字 何時云 不見是眞 見俗耶 又眞諦無
名者 爲有此眞諦 無其名爲無 無此眞諦 言其無名 若
無 眞諦會[186]何物 若有 何無名名 若言眞亦是世諦說 會[187]
言知亦是世諦故說 若爾終無見眞成聖 會境改凡成
[38b] 聖 常是世諦故也 亦是二諦不得俱絶 亦不應相卽也
今明中假絶不絶 約二諦明之 自有絶不絶等四句 二
諦俱絶 二俱不絶 眞絶俗不絶 俗絶眞不絶 成論等唯
得一句 無有三句 以其二諦俱是理故 今明 二諦旣是
敎門 敎門多途 故隨緣有四句也 俱絶者 二諦俱是假
名不名二義 同入中義 故俱是假名 方便故也 俗絶眞
不絶者 俗體虛幻故 五眼所不見故 絶也 眞諦眞實聖
人所行故 是不絶也 眞絶 絶[188]語道斷心行處滅故也 俗
不絶者故 名相故也 此句似同他而與他亦異也 又作
俗絶者 大師每言 只一假有 斷言語絶心行也 問 前
[39a] 云五眼所淨故 是俗絶者 本論敎門 寧△[189]理外法耶
答 汝但見其理外諦 而不見理內復有諦義也 問 定〈空〉[190]
有不名有 有空不名空 此是何言耶 答 此破性語 亦

185) 虛 : 應?
186) 會 : 曾?
187) 會 : 曾?
188) 絶 : 言의 誤字? 寫本에는 '々'임.
189) △ : 판독미상[初-7]. 應? 承?
190) 定<空> : 定으로 적은 후 空으로 수정하였음.

是廢立名 亦是廢假語也 何者破性語者 空有不名有
空有不名無 空有不名有 卽是不名性有 此是除性有
也 空有不名無 則不名性無 除性無也 此語卽是破義
則已兼廢立義 而今復言是廢立者 空有不名〈有〉 卽是廢
於性有 空有不名不有 則是立於假有 故言廢立語也
廢假語者 有空不名有 此廢於假有 空有不名無 廢於
假無 眞俗旣爾 俗眞亦然 有無不名無 有無不名有 卽
[39b] 是破性無性有也 廢立者 有無不名無 則廢性無 有無
不名不無 卽是立假無也 廢假語者 有無不名無 有無
不名有 則是廢假無假有也 第三辨疏密 所言疏密
者 由中假而生也 但須知此起意〈者〉 作何意 此疏密之義
者 栖霞大朗法師 止觀詮法師 興皇朗師 三代三[191]論師
中 疏密語 橫竪疏密雙隻單複義宗 攝嶺西霞大朗法
師云 長安融法師注維摩經中云 師什法師云 若不識
橫竪疏密雙隻單複義 終不解大乘經意 故止觀詮師
云 大經云鬼非鬼非非鬼等 又如大品經相行品云 行
亦不受 非行亦不受 行不行亦不受 非行非非行亦不
[40a] 受 不受亦不受等文 卽是橫竪等四〈句〉 別文證成也 若爾
橫竪等四句 起自羅什法師所說 而融法師注釋維摩
詮釋不同 一云注初品 二云注第一卷 事與願違 注經
未盡過世也 故法師常嘆 融公神明云 如我神明一種
也 融師云什法師 所以作此四句意 有兩意 一法相轉
轉無窮開意也 二治病所悟不同 故開四句也 今足明
之 有所得家死在眞俗與虛實兩種二諦理中 故今彼

191) 三 : <逸文>[伊藤隆壽(1974), p.70]에는 四. 내용상 三이 맞음.

悟無所得無蹤跡無窮轉無碍之意 故對有所得明之
起自正192)觀法師 師所以作此語爲對他故作此語 亦是
△193)進故論此也 亦是並對緣隨情之說 須知其根本 然
[40b] 後合當之 如人欲作屋 須知此柱木爲栱枓樑椽等量
用懃足結架構之也 今義亦然 要須得其根本 然後結
明也 法師作此疏密之言 爲對他亦是△194)進者 他家所
明只是空有二見 彼謂三有爲定是有 三無爲定是無
有則是塊然之有 無則闃ホ195)之無 有是塊然之有 有則
自有 有不關無 無是闃爾之無 無則自空 空不關有 空
非有空 有不關空 有非空有 如斯名自定住 不得入非
空非有 名爲自性義也 故法師對此故 明空有是因緣
義 由空故有 亦由有故空 由空故有 此有則不自 由有
故空 此空亦不自 以空有不自故名爲假 人聞此語 卽
[41a] 作因緣空有解 空則非闃虛虛空 有乃非塊然之有 而
不妨 有是空有 空是有空 爲此見故 法師更△196)進之 明
由空故有 因有故有空 此語爲疏 若空不空 若有不有
此語爲密 此則漸進之義也 問 何意空有爲疏 不有有
不空空爲密耶 答 空有兩法相由 由空故說有 因有
故說空 此則爲疏 若不有有不無無 只於一法上更起
故爲密也 若成論等 明空有 不得入中 兩理定故也 今
大乘明義 疏密並得入空也 疏入中者 因空故有 有是
空有 因有故空 空是有空 有空非空 空有非有 非空非

---

192) 正 : 止?
193) △ : 판독미상[初-8]. 承?
194) △ : 판독미상[初-8과 같은 글자임].
195) ホ : 尔(=爾)를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된다.
196) △ : 판독미상[初-8과 같은 글자임].

有 名爲中 故得入中也 空亦得入中也 空亦得入中者
[41b] 空是不空之空 不空是之空[197]不空 不空空非空 空不空
非〈不〉空 非空非不空 故得入中也 有是不有之有 不有是
有之不有 不有有非有 有不有非不有 非有非不有 故
得入中也 前空有爲疏中假 此則爲橫論 兩法相望 若
空不空有不有爲密中假者 此則爲竪論 從空有 進至
不空不有也 須知此是就情對緣說也 問 疏密說旣言
空有爲疏 有不有空不空爲密 此語出經論不 答 並
是經論所載 經自云 有無非有非無也 自有言鬼非鬼
非鬼非非鬼等 義理自然 有此義也 此之義往往何△[198]
耶 第四論橫竪 所言橫竪者 亦是正釋中假 傍解初
[42a] 章 何以故然 初章語通漫一往 未有所的對也 中假則
的釋經敎 具有橫竪也 初章一往所屬橫 直作有無相
對 未明有不有 故橫也 今橫竪言章相者 若有無非有
無 則是疏中假義 亦是竪語也 有不有 非有非不有 密
中假義 亦是橫語 何故然 橫則是傍開 竪則合轉 故有
無合轉 明非有無 故是竪 有不有無不無 則就有中自
開不有 非開無 無中自開不無 非開有 故是橫也 問
有無是假 從假入中 假淺中深 而言竪者 有不有亦從
假入中 假淺中深 應是竪也 答 明淺深義乃皆有之
而義說有傍正 有無合轉故自是竪而深也 有不有 有
[42b] 兩義者 一往偏明之名爲橫 淺故不例也 若例者雙隻
俱表理 俱非偏者得也 二者如初章大意 直明有無 未
明非有無 故不得是竪 明不有有不無無 只是道 有是

197) 之空 : 空之의 도치임.
198) △ : 판독미상[初-9]. 擧?

不有而言有 無是不無而言無 還成有無義 不遵有開
不有 無開不無 復不進明 非有非不有 非無非不無 故
今言卽明義 故言橫也 又如言初章語 通漫未的 判深
淺去取 故所以不辨有橫竪義 而其義通入中假 非不
從中假 傍有橫竪也 問 何故作此橫竪之義 豈不繁
而無益耶 答 今橫竪義 只爲簡釋疏密 故須作此語
此語只釋成前疏密義也 第五明單複 一家云單複
[43a] 意 正簡疏密與判橫竪也 亦是是從中假而生 正意中
假 傍及初章也 何者 明竪義故是單卽是疏 橫義故是
複卽是密也 簡疏密橫竪 故正釋中假 有是從中假而
生也 言章何者 明有無非有無 是疏是竪義 故爲單也
有不有無不無 非有非不有 非無非不無 是密是橫義
故複也 何以故然 明有直單有對無 明無直單無對有
無中不更開 有中亦不更開 故是單也 非有無亦然 明
有不有 則有中更複開不有 明無不無 則無中更複開
不無 故是複 非有非不有 非無非不無 開也 問 有無
合明不開 故合單義 當是複義也 有不有旣開 開離故
[43b] 應是單 何得是複耶 答 未必是合束爲複 開離爲單
今此正意 以疏略語不重密義爲單 所以單遵有單遵
無也 非義亦爾 取其切細密語重隱處爲橫〈複〉[199] 故有中複
明不有 無中複明不無 非不義亦然也 問 此單複通
理內外 判[200]屬理內外 異耶 答 明此單複 未必分理內
外 若無所得 通達疏密 皆是理內 有所得不了 悉是理
外也 若欲分屬者 亦有此義也 問 旣有單複中假 辨

199) 橫<複> : 橫으로 적은 후 複으로 수정하였음.
200) 判 : 別

其出入不 答 具如八不義中說 今略四句明出入也
一者單假入單中 單中出單假 如因有無知非有無 從
非有無還出有無也 二者複假入複中 複中出複假 如
[44a] 因有不有無不無 得悟非有非不有非無非不無 從非
有非不有非無非不無 還識有不有無不無也 三者單
假入複中 複中出單假 故如菩薩觀有無 而知諸法非有
非不有非無非不無等 從此非有無 而還識有無也 四
者複假入單中 單中出複假 如觀有不有無不無 而知
非有非無 還從此非有無 而識有不有無不無也 問 如
此單複明出入 是因緣義不 答 是因緣單複出入 何
敎能通達無滯疏密無碍 故並是理內也 若不了 則皆
非也 亦得言對執故 單義是理內〈外〉[201]非因緣 複義是因緣
理內也 問 分內外亦有此義者 何得約此爲出入觀
[44b] 耶 答 此義卽是菩薩入則俱入二諦 出則出顚倒明之
也 問 亦有有無單義 是理外者 今二諦是理外 何得
出二諦乃爲顚倒 在二諦非顚倒耶 答 具如前說 此
眞俗 是眞不眞俗不俗之眞俗 故是理內 若兩去來之
眞俗欲成理外也 問 單語旣是單去單來 不得是正
中假者 複去複來 終是來去 何得中假耶 答 只爲對
疏明密 單義是疏 複義是密 此是一往疏 則成病 故爲
非 密是能治故是 若不治病 是如前兩種是更不須異
也 又初簡疏密明中假 去則非去〈來〉復非來 而是去復是
來 以此義故得是正中假 則破前疏義也 問 雖復單
[45a] 複 判其疏密 而疏義有無爲假 故是義是來 密義非有

201) 內<外> : 內로 적은 후 外로 수정하였음.

無爲中 故非義是去 去來非中故非義終是去 還是去
來明中也 答 只爲複是密故非義 則非去非來而是
來是去 非來之來非去之去 此去來更無爲異 故去來
稱中假 若異解成病故非 若了達不二〈是〉也 第六明雙
隻 所雙隻者 亦正釋中假 卽簡疏密橫竪單複等 而傍
通初章也 何者 有無非有無 雖言是疏竪單義而是霍[202)]
有不有無不無 非有非不有 非無非不無 雖言密橫複
義而是隻 何以故然 有無則約兩法相對明 故是雙 有
不有等一往一法上開有 開有不有故是隻也 問 有
[45b] 無旣兩法是雙 有不有無不無亦兩法重起 何故非雙
耶 答 不列[203)] 何者 有無必兩法上 只得結中假 故是雙
也 有不有等 只一法上開 卽結中假 不須對無 又對無
結者 則不啻雙乃重複而起 故一往名重複義爲隻 直
單兩法上爲雙也 問 兩法爲雙 相對可是因緣 一法
隻辨 便非因緣 何得是雙單語非正假 隻複爲中假耶
答 何止是兩法敵對爲因緣 正以重複細密爲因緣
前是疏 則疏因緣也 問 雙隻[204)]之言 出何經論耶 答
興皇大師方法 且前折之 讀經論遍未若未遍 更須廣
尋讀之 此是一往摧折意也 而須答者 經中無數 如有
[46a] 無去來卽是雙 〈不有〉有〈不〉來來[205)]聞不聞至不至等 卽是隻也
問 經雖有此語 亦不道是雙隻 何得名爲雙隻耶 答

202) 霍 : 미상. 雙?
203) 列 : 例
204) 筆記本에는 隻 옆의 줄 사이에 複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寫本의 복사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205) <不有>有<不> : 寫本에서는 有의 왼편에 不有, 오른편에 不을 적고 있음[初-10 참조]. 판독은 筆記本을 따랐다.

如鴛鴦等鳥 啼常無常等 雙不相離 即是雙 又如麒麟
獨一之行 即是隻 何意無也 問 經中直言有無不有
無等 何時雙隻耶 答 何得並令有文 擧一例諸[206)] 所以
經言一中解無量 無量中解一 展轉生非實 知者無所
畏也 此義若正諸[207)]義 則得有單複橫竪疏密並無妨故
當此後一科[208)]簡 即權疏等四意皆然 若初章中假 則有
出處如前 所餘至通別任運 經中無處不有也 但此四
意通申經論也 問 但有八意亦有餘不 答 經中後章
[46b] 無量 但八條爲初 今更略出一兩意條 △[209)]一切諸義 何
者 自有一一語 二二[210)]語 二一語 一二語 若爲是一一
語 雙假是故有爲 俗諦是一也 無爲眞諦復是一 單雙
兩一故是一一也 若爲是二二語 即是兩雙〈隻〉假是有與
不有是二 無與不無復是二 兩隻各細開成密二 故言
二二也 何者是一二語 即是雙〈隻〉中是 故明約有一法 令
起非本 應是一而爲細開非不有 遂成兩非 故一而是
二 所以一二也 從此語勢望前 則非但雙隻 如此單複
橫竪疏密 悉爾也 復次有雙單隻複隻複雙單 又雙複
隻單隻單雙複 又雙單雙複隻單隻複四句也 問 何
[47a] 故二一一二而成兩 而雙單隻複雙單[211)]隻複雙單爲一
句耶 答 此則異二一 一二則直約一雙及直約一隻
今〈各〉[212)]作一句 若雙單直〈隻〉[213)]複等 則跨約雙隻單複兩種合作

206) 諸 : 미상. 語?
207) 諸 : 語?
208) 科 : 料?
209) △ : 판독미상[初-11]. 顯?
210) 二二 : 寫本에는 '一一々'
211) 隻單 : 衍文? 寫本에는 '雙單隻々複々雙々單々'
212) 今<各> : 今으로 적은 것을 各으로 수정한 것으로 생각됨.

一句 故廣也 今明之 一者雙單隻〈複隻複〉雙單句者 雙單者 即
有無非有無 何以故然 以其是雙語而是單中假故也
隻複者 即有不有非不有 何以故然 以其是隻語而是
複中假故也 二者雙複隻單隻單雙複 即有不有非有非不
有 無不無非無非不無 何以故然 此實雙〈隻〉[214]複而具擧兩
隻 故是雙複也 隻單者 即是有非有 何以故然 明無有
非有無 實是雙單 今直擧雙中有之一隻 故是隻單也
[47b] 三者雙複雙單〈者 雙複 即有不有非有非不有 無不無非無非不無 雙單〉 即有無非
有無也 四者隻複隻單也隻
複者 即有不有非有非不有也 隻單者 有不有也 以其
是雙隻單複義 如前兩句釋也 將雙隻約單複既爾 復
約橫竪疏密亦然 自有雙疏隻密隻密雙疏 又雙密隻
疏隻疏雙密 又雙疏雙密 又隻疏隻密義例 還如前說 問
如此說爲是道理語 爲當是隨時語耶 答 如此說是
道理 亦是隨時 隨時而是道理 是道理是而隨時語 如大經是
究竟道理 而是隨時出處之號也 第七明通別之語
亦是正釋中假等也 而傍通初章 但自通別之名 最爲
廣 一切經論盡有此名目 而言通別者 不他爲義 通是
[48a] 對別明也 通別別通 故言通別也 今只名通爲別 名別
爲通 通即是別 別即是通 即顯非通非別也 何以故然
通而即有別 故通早[215]成別 語別無所別 別早[216]成通 故通
即別別即是通也 其相何者 還約前諸義 以有無疏密
橫竪雙單語明之 但任運通方 故言通別 有不有無不

---

213) 直<隻> : 直으로 적고 隻으로 수정하였음.
214) 雙<隻> : 雙으로 적고 隻으로 수정하였음.
215) 早 : 미상. 即?
216) 早 : 미상. 即?

無密橫隻語明之 以從有別開不有〈無〉別開不無 故言爲
別也 問 此通別義 與前雙隻等相成義 若爲異耶
答 還約此事相例 應是同 通則是雙單等義有所除 別
卽單複等義有所取 而有不例者 通別相成 如前更無
異相義也 而復雙隻有例 此相成義 亦得也 問 通別
[48b] 相待云何 答 亦有相奪 待爲別相待 餘則通待義 又
疏密橫竪來 約此通別者 有無通語爲通待 有不有別
語爲別待也 問 有無正是傾奪 應是別待 有不有無
不無 不約相傾奪 應是通待耶 答 須有此義 不始如
前 而今此中明意者 有無是通義疏義 故通待 有不有
等義 是別義密義 故是別待也 若用有無爲別 有不有
等爲通者 則破疏密義宗也 又有不有無不無 通爲諸
法之本 故言通待 有無寺[217]開末 故言別待者 得但非義
宗也 第八通簡平夷諸法 若言是是是是 是不開非
若言非是是非 不[218]開是 是非不開 是異非 有是是 是是
[49a] 不關 非異是 有是非 異是有是非 是非非是非異非有
是是是是非非是 今是非是是 今非非是非 以非非是
非 須是故成非 以是非是 是須非故成是 須非故成 是
離非無是是 須是故成 非離是無是非 離是無是非 是
非是是非 離非無是 是是是非是也 若是非非是 是是
自是 是是是故是 若非非是非 非是自非 非是非 故成
非也 此意破前 若是是非是 是是非自是 是是不是是
若非是是非 是非非自非 非是不非非也 成論等義宗
有境異於智 此境不關智 有智異於境 此智不關境 此

---

217) 寺 : 等의 誤字?
218) 不 : 非不?

境不關智 離智有別境 此智不關境 離境有別智 離智
[49b] 有別境 此境非智境 離境有別智 此智非境智也 今謂
無境異於智 待智故說境 無智異於境 待境故說智 待智
故說境 離智無別境 待境故說智 離境無別智 離智無
別境 此境是智境 離境無別智 此智是境智也 他境非
智境 此境是自境 許是境故 境智非境智 此智是自智
是智故智也 今謂境是智境 此境不自境 境是不境境 此
智是境智 此智不自智 智是不智智也 約因果明之 他
義宗 果不由因 因不由果 不由因〈故果〉此果是自果 不由果
故[219] 此因是自因也 今謂 由因故果 由果故因 由因故果
果不自果 由果故因 因不自因也 若不由因故果 此果
[50a] 非因果 不由果故因 此因非果因 因非果因 此因是因
因 果非因果 此果是果果 因因果果[220] 故理外因果也 今
謂 由因故果 果是因果 由果故因 因是果因 因是果因
此因不因因 果是因果 此果不果果也 生死涅槃能所
諸法類可尋也 此意重出者 正爲夷平諸法故爾 若不
解此意 終覔[221]無跡蹤義宗 所以擧諸法夷也

初章義一弓[222]

顯慶三年歲次戊午年十二月六日興輪寺学問僧
法安爲　大皇帝及內殿故敬奉義章也[223]

---

219) 故 : 내용상 뒤에 因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됨.
220) 此果是果果 因因果果 : 寫本에는 '此果是果々因々果々'임.
221) 覔 : 不見?
222) 弓 : 卷의 異體字.
223) 筆記本에는 본문 뒤에 攝泉堺威德山常樂寺라는 墨印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大乘四論玄義記

八不義

일·러·두·기

1. 이 <八不義>의 교감본은 일본 소장 필사본과 『大乘玄論』<八不義>를 비교대조한 三桐慈海 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三桐慈海, 1970 <慧均撰四論玄義八不義について(一)-大乘玄論八不義との比較對照->『佛敎學セミナー』12, 大谷大學佛敎學會, 京都)
2. 필사본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의 丈과 行은 大正藏의 『大乘玄論』<八不義>에 의거하였다. CBETA에서 제공하는 『大乘玄論』<八不義> 파일을 저본으로 사용하였지만, 일부 한자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로 바꾸었다. (예 : 眾→衆, 為→爲, 即→卽, 既→旣 真→眞, 擧→擧, 导→碍 등)
3. 일본 소장 필사본과 『大乘玄論』<八不義>의 내용을 대조하여 비교적 원본에 가깝게 본문을 재구성하고 양자의 차이를 注에 제시하였다.

T45n1853_p0025a16 ‖ 大乘三論玄義記卷第二[1)]

T45n1853_p0025a17 ‖

T45n1853_p0025a18 ‖ 均正撰記

T45n1853_p0025a19 ‖ 八不義有六重

T45n1853_p0025a20 ‖ 第一辨大意　第二明三種中道　第三論

T45n1853_p0025a21 ‖ 智慧中道　第四雜簡[2)]　第五論單複諸句

T45n1853_p0025a22 ‖ 第六簡[3)]不有有

T45n1853_p0025a23 ‖ 第一辨大意[4)] 所言[5)]八不者 是[6)]諸佛之中心 衆

T45n1853_p0025a24 ‖ 聖之行處也 故華嚴經第五弓云[7)] 文殊法常爾 一切

T45n1853_p0025a25 ‖ 無畏人 一道出生死 更無異趣也 即是論初

T45n1853_p0025a26 ‖ 八不 故竪貫衆經橫通諸論也 故瓔珞經[8)]云 不一

T45n1853_p0025a27 ‖ 亦不二 不常亦不斷 不來亦不去[9)] 不生亦不

T45n1853_p0025a28 ‖ 滅也 論初云 不生不滅 不常不斷 不一不異 不來不出也[10)]

又經中明百非 非之[11)]與不及無 三者[12)]亦得

T45n1853_p0025a29 ‖ 通目一法 亦不無其異 不得一向一種 後別

T45n1853_p0025b01 ‖ 釋[13)]之 異者如不有非有[14)]及與無有 不得不異

T45n1853_p0025b02 ‖ 義 如食無食 則未曾有食 若言不食 則非

---

1) 大乘三論玄義記卷第二 : 필사본에 의함. 大乘玄論에는 大乘玄論卷第二.
2) 簡 : 大乘玄論에는 問.
3) 簡 : 大乘玄論에는 明.
4) 大意 : 大乘玄論에는 大意者.
5) 所言 : 大乘玄論에는 없음.
6) 是 : 大乘玄論에는 蓋是.
7) 華嚴經第五弓云 : 大乘玄論에는 華嚴經云. 弓은 卷의 이체자.
8) 瓔珞經 : 大乘玄論에는 經.
9) 去 : 大乘玄論에는 出.
10) 論初云 不生不滅 不常不斷 不一不異 不來不出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11) 之 : 大乘玄論에는 없음.
12) 者 : 大乘玄論에는 名.
13) 釋 : 大乘玄論에는 明.
14) 非有 : 필사본에는 非.

T45n1853_p0025b03 ║ 是無食 故知有異也 雖異而爲洗諸法 卽明

T45n1853_p0025b04 ║ 三字不異 還是一意 以八不洗除 盡淨諸法

T45n1853_p0025b05 ║ 故經中具有百非 卽還是百[15]不百無等 故多

T45n1853_p0025b06 ║ 有所關義 所以竪入群經之深奧 橫通諸論

T45n1853_p0025b07 ║ 之廣大也 明經意[16]深處卽是八不 不則不於

T45n1853_p0025b08 ║ 一切法也 以不而明義 故知 其深奧也 如成實

T45n1853_p0025b09 ║ 論[17]等釋 雖言百非百不及與絶等 而有理存

T45n1853_p0025b10 ║ 焉 謂得還成失[18] 卽是小乘觀行有所得 不離

T45n1853_p0025b11 ║ 斷常心 非關經之深遠也 今明 以不而爲義

T45n1853_p0025b12 ║ 義卽該廣也 言竪者謂之縱 縱只是深 卽經

T45n1853_p0025b13 ║ 之深旨 如言非不無等 亦復不於無等 經之

T45n1853_p0025b14 ║ 深處也 橫通諸論者 橫只是廣闊之稱 亦爲

T45n1853_p0025b15 ║ 對治藥病 如有無相治等 悉是橫論 如言有

T45n1853_p0025b16 ║ 則[19]爲橫 不有爲竪 亦如絶爲橫 不絶爲竪 若

T45n1853_p0025b17 ║ 不絶爲橫 則非絶非不絶爲竪 以不義據初

T45n1853_p0025b18 ║ 如是深亦不[20]於不 何所而不不 如言爲橫不

T45n1853_p0025b19 ║ 言爲竪 橫竪亦不定 隨而望之 若有無斷常

T45n1853_p0025b20 ║ 相治爲橫 病息藥除故爲竪 以[21]隨處得論

T45n1853_p0025b21 ║ 而言八不竪入經深者 深義經也 橫通諸論

T45n1853_p0025b22 ║ 者 辨論破病用 經未始無橫 如三修八倒斷

T45n1853_p0025b23 ║ 常相破 論云[22]未始不明竪 如十二門論言 若使

---

15) 是百 : 필사본에는 百是.
16) 意 : 大乘玄論에는 之.
17) 成實論 : 大乘玄論에는 成論.
18) 失 : 필사본에는 失之.
19) 則 : 大乘玄論에는 卽.
20) 亦不 : 大乘玄論에는 不亦.
21) 以 : 大乘玄論에는 故以.
22) 云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25b24 ‖ 無有有[23] 云何當有無 有無旣已無 知有無者
T45n1853_p0025b25 ‖ 誰豈非遠竪義 故經明深竪不義 不義[24]不有
T45n1853_p0025b26 ‖ 有故 未始無橫 論辨而明藥病 藥病無而明
T45n1853_p0025b27 ‖ 不 未始無竪 不不一切 以不明義 豈不窮
T45n1853_p0025b28 ‖ 深 深義亦不 卽是菩薩觀行 若謂有此深遠
T45n1853_p0025b29 ‖ 卽是聲聞觀也 然不義 非止入經深 亦廣明
T45n1853_p0025c01 ‖ 衆行 行波若之因 會涅槃之果 悉[25]爲八不所
T45n1853_p0025c02 ‖ 不 不此深勝法 以不而爲深義[26] 深義亦不也
T45n1853_p0025c03 ‖ 但釋八不名者故如 不生者 諸論師言 此法
T45n1853_p0025c04 ‖ 不生 而不妨有種種釋生相也 今明 此不不
T45n1853_p0025c05 ‖ 於生 生本來不生 竪亘十方 橫通三世[27] 一切
T45n1853_p0025c06 ‖ 佛法皆同無非不生也 如成實論師云 眞諦理[28]
T45n1853_p0025c07 ‖ 名不生理境也 今大乘義 若有理如是生 無
T45n1853_p0025c08 ‖ 有一法是有而不生也 若言理[29]存焉是不
T45n1853_p0025c09 ‖ 生者 亦應有存焉非是有 如本有常住不生
T45n1853_p0025c10 ‖ 等 如是破求之 今明 諸法不生 不生故名無
T45n1853_p0025c11 ‖ 生 無生法忍旣爾 不生何得有滅之對生 生
T45n1853_p0025c12 ‖ 故方滅 旣不生亦復不滅也 以有無三時等
T45n1853_p0025c13 ‖ 撿求滅相不可得 如論破乳 不於乳時滅 亦
T45n1853_p0025c14 ‖ 不異時滅 具出彼論也
T45n1853_p0025c15 ‖ 第二明三種中道 成實論[30]師解八不不同 一云

---

23) 無有有 : 필사본에는 無有我.
24) 不義 : 필사본에는 없음.
25) 悉 : 大乘玄論에는 皆.
26) 義 : 필사본에는 爲.
27) 竪亘十方 橫通三世 : 大乘玄論에는 亘十方橫 通三世竪
28) 眞諦理 : 大乘玄論에는 眞理.
29) 理 : 大乘玄論에는 有理.
30) 成實論 : 大乘玄論에는 成論.

T45n1853_p0025c16 ‖ 八不並是眞諦中道 亦是眞諦也 二云不生

T45n1853_p0025c17 ‖ 不滅是中道 即是眞諦不有不無中道 餘六

T45n1853_p0025c18 ‖ 不是俗諦中道也 今謂不然 彼不解大乘論

T45n1853_p0025c19 ‖ 意 小乘義意判如此耳 今云 八不具三種中

T45n1853_p0025c20 ‖ 道 即是二諦也 但成實論[31]師解三種中道 一世

T45n1853_p0025c21 ‖ 諦論[32]中道 二眞諦論[33]中道 三眞俗合論中道也 世

T45n1853_p0025c22 ‖ 諦中道[34] 世諦不出三假故 依三假明中道

T45n1853_p0025c23 ‖ 一因成假不一不異明中道[35] 何者攬

T45n1853_p0025c24 ‖ 四微[36]爲一 是不一而一 四塵同成一假 不異

T45n1853_p0025c25 ‖ 而假實殊故異 故不一一不異異故[37] 不一

T45n1853_p0025c26 ‖ 不異 因成明中道也 二相續不常不斷明中

T45n1853_p0025c27 ‖ 道[38] 但相續假解[39]不同 一云補處明續假也 二云

T45n1853_p0025c28 ‖ 前玄[40]與後一明相[41]續假 如識心之終[42]想心之初

T45n1853_p0025c29 ‖ 當中央爲假也[43] 三龍光傳開善云 明續假 後起

T45n1853_p0026a01 ‖ 接前 前轉作後 即是生至共成假也 雖三師

T45n1853_p0026a02 ‖ 說不同 而相與續故不斷滅故不常 不斷不

T45n1853_p0026a03 ‖ 常明相續中道也 三相待假明中道 即是有

T45n1853_p0026a04 ‖ 開避相待 如色心等法 名爲通待 亦名[44]定待

---

31) 成實論 : 大乘玄論에는 成論.
32) 論 : 大乘玄論에는 없음.
33) 論 : 大乘玄論에는 없음.
34) 中道 : 大乘玄論에는 中道者.
35) 中道 : 大乘玄論에는 中道也.
36) 攬四微 : 大乘玄論에는 一柱攬四微.
37) 不一一不異異故 : 大乘玄論에는 不一一故 不異異故.
38) 道 : 필사본에는 也.
39) 解 : 大乘玄論에는 없음.
40) 玄 : 필사본에는 云.
41) 相 : 大乘玄論에는 없음.
42) 終 : 필사본에는 後.
43) 也 : 필사본에는 없음.

T45n1853_p0026a05 ‖ 也 如長短君臣父子等法 短不自短 形長故
T45n1853_p0026a06 ‖ 短 長不自長 形短故長 如此相奪待 乃至君
T45n1853_p0026a07 ‖ 臣父子等 名爲別待 亦名不定待也 通別雖
T45n1853_p0026a08 ‖ 殊 悉是相待假明中道 假而非眞 稱當於理
T45n1853_p0026a09 ‖ 故非虛 非眞非虛 通明世諦中道也 眞諦明[45]中
T45n1853_p0026a10 ‖ 道 無名無相 寄名相待 眞待眞無故 無表非
T45n1853_p0026a11 ‖ 無 亦復非有 非有非無名眞諦中道也 眞俗
T45n1853_p0026a12 ‖ 合明[46]中道者 如俗諦言有 有[47]非實有 眞諦名無
T45n1853_p0026a13 ‖ 無非定無 非有非無名爲兩合[48]中道也 梁武
T45n1853_p0026a14 ‖ 帝 勅開善寺藏法師令作義疏 法師講務無
T45n1853_p0026a15 ‖ 閑 諸學士共議 出安城寺開公安樂寺遠子
T45n1853_p0026a16 ‖ 令代法師作義疏十四弓[49] 此二人善能領語 精解外典
T45n1853_p0026a17 ‖ 聽兩[50]遍 成就十四卷爲一部 上簡法師 法師
T45n1853_p0026a18 ‖ 自手執疏讀一遍竟[51] 印可言之 亦得去送之 此
T45n1853_p0026a19 ‖ 疏云 二諦中道云何談物耶 以諸法起者未
T45n1853_p0026a20 ‖ 契法性也 旣未契故有有 則此有是妄有 以
T45n1853_p0026a21 ‖ 其空故是俗也 虛體則[52]無相 無相是[53]眞也 眞
T45n1853_p0026a22 ‖ 諦非有非無而無也 以其非妄有故 俗諦[54]雖非
T45n1853_p0026a23 ‖ 有非無而有也[55] 以其假有故[56] 與物擧體卽眞

---

44) 名 : 필사본에는 名明.
45) 明 : 大乘玄論에는 없음.
46) 明 : 大乘玄論에는 없음.
47) 有 : 필사본에는 없음.
48) 明 : 大乘玄論에는 없음.
49) 作義疏十四弓 : 大乘玄論에는 作疏.
50) 兩 : 大乘玄論에는 二.
51) 竟 : 大乘玄論에는 없음.
52) 則 : 大乘玄論에는 卽.
53) 是 : 大乘玄論에는 卽.
54) 諦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26a24 ║ 故非有 擧體卽俗故非無 則非有非無眞俗

T45n1853_p0026a25 ║ 一中道也 眞諦無相故非有非無 眞諦中道

T45n1853_p0026a26 ║ 也 俗諦是因假 卽因非則[57]果故非有 非不[58]作

T45n1853_p0026a27 ║ 果故非無 此非有非無俗諦中道也 龍光作

T45n1853_p0026a28 ║ 三種中道 與開善作三種中道 言方少異 綽

T45n1853_p0026a29 ║ 師有二體 藏師一體 而意趣是同 並是有所

T45n1853_p0026b01 ║ 得 終恐不離斷常 須一一破之[59] 先破俗諦

T45n1853_p0026b02 ║ 中道 如[60]因成中道 假名不一一 實法不異異

T45n1853_p0026b03 ║ 且問 不異異爲是二名詺二法 爲詺一法 若

T45n1853_p0026b04 ║ 謂汝四塵是異 異目四塵 四塵其實有異 何

T45n1853_p0026b05 ║ 得言不異異 不異之名 復可得安假上耶 汝

T45n1853_p0026b06 ║ 言 假名不一[61]一 名詺假不得目實 實名不一

T45n1853_p0026b07 ║ 只見兩名 名[62]二法 云何是中道 若二名 名二

T45n1853_p0026b08 ║ 法而名爲中道者[63] 總別二名 名二法 亦應是[64]中道

T45n1853_p0026b09 ║ 色心二名 名兩[65]法 亦應是中道也[66] 若言色心異

T45n1853_p0026b10 ║ 故不辨中道[67]者 如三聚成假 寧得假實明中道

T45n1853_p0026b11 ║ 耶 若言相成故名中[68]者 色心相因故亦得

55)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56) 故 : 大乘玄論에는 故也.
57) 則 : 大乘玄論에는 卽.
58) 不 : 필사본에는 無.
59) 破之 : 大乘玄論에는 破之也.
60) 如 : 大乘玄論에는 汝.
61) 不一 : 大乘玄論에는 不二.
62) 名 : 大乘玄論에는 詺.
63) 者 : 大乘玄論에는 없음.
64) 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65) 兩 : 大乘玄論에는 二.
66)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67) 道 : 大乘玄論에는 없음.
68) 中 : 大乘玄論에는 中道.

T45n1853_p0026b12 ‖ 論中也 又汝言不一不異爲中者 不一除四
T45n1853_p0026b13 ‖ 塵 不異除假名 除假除實 以何爲中 兩除則
T45n1853_p0026b14 ‖ 無物 不可名大虛爲中 故安中無所 故虛妄
T45n1853_p0026b15 ‖ 說也 破開善義 汝言有 卽此有是虛[69]妄有 旣言
T45n1853_p0026b16 ‖ 妄有有 箇[70]妄有法 那得是中道 妄有則顚倒
T45n1853_p0026b17 ‖ 之別名 故非中道也 又言 卽因非卽果故非
T45n1853_p0026b18 ‖ 有 非無作果故非無 此非有非無俗諦中道
T45n1853_p0026b19 ‖ 者 此是何物中道 可非似小兒戲耶 覩百草
T45n1853_p0026b20 ‖ 之中 非關佛法之中 正是外道義[71] 百論云
T45n1853_p0026b21 ‖ 迦毘羅弟子 誦僧佉經云 泥團非卽瓶故非
T45n1853_p0026b22 ‖ 有 非不[72]作瓶故非無 非有非無中道[73] 若爾豈
T45n1853_p0026b23 ‖ 非正是僧佉[74]義耶 次破相續中道 續假雖有
T45n1853_p0026b24 ‖ 三說 人所盛用 後起接前義也 問無常念念
T45n1853_p0026b25 ‖ 不住 豈得轉前作後 後起續前 令前不滅義
T45n1853_p0026b26 ‖ 彼答云 有爲法有二義 一念念滅不論續 二
T45n1853_p0026b27 ‖ 應滅而不滅論相續假也 今謂 不然 若言應
T45n1853_p0026b28 ‖ 滅而不滅者 亦應有[75]而不有 而諸法無非
T45n1853_p0026b29 ‖ 有新新生滅 如居士經云 卽生卽死卽老[76] 寧
T45n1853_p0026c01 ‖ 有應滅而不滅 擧體遂不滅者 復誰滅耶 若
T45n1853_p0026c02 ‖ 擧體滅者 復在誰[77]不滅耶 而滅者刹那念念

---

69) 虛 : 大乘玄論에는 없음.
70) 箇 : 필사본에는 筒.
71) 義 : 大乘玄論에는 義也.
72) 不 : 필사본에는 無.
73) 非有非無中道 : 大乘玄論에는 非有無爲中道.
74) 佉 : 필사본에는 伽.
75) 應有 : 大乘玄論에는 應應有.
76) 卽死卽老 : 大乘玄論에는 卽老卽死.
77) 在誰 : 大乘玄論에는 誰在.

T45n1853_p0026c03 ‖ 恒滅 不曾不滅 不滅者恒不滅 只見斷常兩行[78]

T45n1853_p0026c04 ‖ 片 何得中道 彼謂 一法有此滅不滅兩[79]義 故

T45n1853_p0026c05 ‖ 得明中道也 今謂 不然 一法有滅有不滅義

T45n1853_p0026c06 ‖ 者 滅義邊無有一法不滅 擧體消亡 何處有

T45n1853_p0026c07 ‖ 不滅義 辨相續假耶 又汝爲是一法名[80]爲中 爲

T45n1853_p0026c08 ‖ 是二名爲中 若二名爲中 二名詺何物 爲目

T45n1853_p0026c09 ‖ 二法 爲目一法 若二名目二法 只見兩名目二

T45n1853_p0026c10 ‖ 法[81] 何得是中耶[82] 若二名詺一法 只見一法上

T45n1853_p0026c11 ‖ 有兩名 如童子上眼目兩[83]名 寧得是中道耶

T45n1853_p0026c12 ‖ 汝言中[84]安何處 一法有滅不滅義 安一法上 一

T45n1853_p0026c13 ‖ 法是何物 是心是虛空 是心者 心是事有故

T45n1853_p0026c14 ‖ 非中也 應滅不滅 兩義復相違 故非中也 若

T45n1853_p0026c15 ‖ 一名名中者 如色一名名一色 亦應是中道

T45n1853_p0026c16 ‖ 如向無與向有兩[85]義上兩名目者 只見二名

T45n1853_p0026c17 ‖ 詺二義 不見中道 若兩除則無所 無所何爲

T45n1853_p0026c18 ‖ 中道[86]也 次破相待假明中 彼云 因成假爲體 相

T45n1853_p0026c19 ‖ 續爲用 相待爲法立名 若言假故不眞 不眞

T45n1853_p0026c20 ‖ 是虛 稱當於理不虛者 此假虛是當理 當理

T45n1853_p0026c21 ‖ 故不虛 何言[87]耶 若言外道說爲虛故不此

---

78) 行 : 大乘玄論에는 없음.
79) 兩 : 大乘玄論에는 二.
80) 名 : 大乘玄論에는 없음.
81) 兩名目二法 : 大乘玄論에는 兩名兩法.
82) 耶 : 필사본에는 없음.
83) 兩 : 大乘玄論에는 二.
84) 中 : 大乘玄論에는 없음.
85) 兩 : 大乘玄論에는 二.
86) 道 : 大乘玄論에는 없음.
87) 何 : 大乘玄論에는 以何.

T45n1853_p0026c22 ║ 虛者 他假不當稱理 汝假稱[88]當理之假虛 不虛

T45n1853_p0026c23 ║ 不眞安何處耶 又若約長短明中道[89] 亦不然

T45n1853_p0026c24 ║ 以五尺爲短一丈爲長 長自在[90]長 不在於短

T45n1853_p0026c25 ║ 短自在短 不[91]在於長 只見長短兩片 中名出

T45n1853_p0026c26 ║ 何處耶 若長自長 長則不須短者 亦應只用

T45n1853_p0026c27 ║ 長成於中[92] 若不爾者 二物共爲一長 二物共

T45n1853_p0026c28 ║ 長 定是誰長耶 又言不短不長不彼不此名

T45n1853_p0026c29 ║ 爲中者 此則成兩除 則無所 無所何名爲中

T45n1853_p0027a01 ║ 如是應廣破 如論品品悉破相待 自現於文

T45n1853_p0027a02 ║ 中 如燃可燃品中破也 次破眞諦中道 彼云

T45n1853_p0027a03 ║ 眞不生不滅無相無名 所以寄名名眞 無而

T45n1853_p0027a04 ║ 非無 有而非有 寄名名中道也 今云不然 若

T45n1853_p0027a05 ║ 言眞無名 寄名名眞爲中者 有能寄有所寄

T45n1853_p0027a06 ║ 以不 若有所寄卽有所名物 若無所寄非能

T45n1853_p0027a07 ║ 非所者 則無眞理 則同邪見也 若言眞是世

T45n1853_p0027a08 ║ 諦假名 寄名眞[93]者 世諦虛假 何者爲眞 眞

T45n1853_p0027a09 ║ 名爲實 世諦浮虛 何得名實 又眞諦絶名 何

T45n1853_p0027a10 ║ 勞須寄名 名若可寄 則不應絶 絶則不須[94]寄

T45n1853_p0027a11 ║ 也 又行人尋眞得眞 云[95]何名中道 若寄名[96]

T45n1853_p0027a12 ║ 眞 所寄之理[97]不可寄者 只不可寄是名 何

---

88) 稱 : 大乘玄論에는 없음.
89) 道 : 大乘玄論에는 者.
90) 自在 : 필사본에는 在.
91) 不 : 필사본에는 於不.
92) 中 : 필사본에는 用中.
93) 眞 : 大乘玄論에는 眞諦.
94) 須 : 필사본에는 復.
95) 云 : 大乘玄論에는 得云.
96) 寄名 : 大乘玄論에는 寄名名.

T45n1853_p0027a13 ║ 謂是無名也 若寄名詺眞 眞理無名無相者
T45n1853_p0027a14 ║ 亦不應言智卽[98]會眞 眞不被會故 亦無人會眞
T45n1853_p0027a15 ║ 斷結 若言實理可會者 亦應實理有名 若言
T45n1853_p0027a16 ║ 世諦有中 眞理無中不中 此乃是世諦中道
T45n1853_p0027a17 ║ 眞理無中 云何言眞諦中道 開善義 本言虛
T45n1853_p0027a18 ║ 體則無相無相是眞諦者 虛是俗理 無相是
T45n1853_p0027a19 ║ 眞理 旣有兩[99]理 卽是二物 云何是中道也 又眞
T45n1853_p0027a20 ║ 理非有非無而無也 此而無之無 非無爲無
T45n1853_p0027a21 ║ 旣言非無 那是無 若言對有之無 此無是偏
T45n1853_p0027a22 ║ 無 故非中也[100] 次破合二諦辨中道 彼言 世諦
T45n1853_p0027a23 ║ 言非無眞諦言非有 非有非無合明中道也
T45n1853_p0027a24 ║ 今謂不然 旣言兩捨 何名中道 又非無則是
T45n1853_p0027a25 ║ 有世諦 非有只是眞諦無 兩名兩處 兩名[101]兩
T45n1853_p0027a26 ║ 處不同 何得名中道耶 開善義 本云 擧體卽
T45n1853_p0027a27 ║ 眞故非有 擧體卽俗故非無 則非有非無眞
T45n1853_p0027a28 ║ 俗一中道也 今謂 亦[102]不然 旣言擧體卽眞 是[103]
T45n1853_p0027a29 ║ 無相無名 明[104]則失俗 復有何物而言相卽 非有
T45n1853_p0027b01 ║ 非無爲中道耶 故雖有三種說[105]中道 撿之無所
T45n1853_p0027b02 ║ 無當 故但有語言 非佛法中道也 次破地攝[106]論

---

97) 理 : 필사본에는 眞理.
98) 卽 : 大乘玄論에는 없음.
99) 兩 : 大乘玄論에는 二.
100) 也 : 필사본에는 없음.
101) 兩名 : 필사본에는 없음.
102) 謂亦 : 大乘玄論에는 云.
103) 是 : 大乘玄論에는 卽是.
104) 明 : 大乘玄論에는 없음.
105) 說 : 大乘玄論에는 없음.
106) 攝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27b03 ‖ 中道 彼云 阿梨耶識與阿摩羅識[107] 本來不生不滅 古今常
T45n1853_p0027b04 ‖ 定 非始非終 但違眞故起妄想 故彼云 六
T45n1853_p0027b05 ‖ 識熾惱[108] 隨覆梨耶等[109]名爲如來藏 後修十地之
T45n1853_p0027b06 ‖ 解 分分斷除妄想之[110]六識 六識旣盡 妄想之解
T45n1853_p0027b07 ‖ 亦除 顯眞成用名爲法身 譬如風起雲除 風
T45n1853_p0027b08 ‖ 息皎日獨朗 法身旣顯 有諸應能 所以不生
T45n1853_p0027b09 ‖ 現生 不滅現滅 不因不果 因果等諸用非一
T45n1853_p0027b10 ‖ 故經云 佛眞法身猶如虛空 應物現形如水
T45n1853_p0027b11 ‖ 中月也 今謂 不然 法身本有 爲何因可得 若
T45n1853_p0027b12 ‖ 爲因得則非本有 無因則同外道義 若言本
T45n1853_p0027b13 ‖ 有 何以名中道耶 又本來有此四句百非淸
T45n1853_p0027b14 ‖ 淨法 自應遣顚倒 那忽[111]爲煩惱[112]所覆 後修得
T45n1853_p0027b15 ‖ 十地之解 尙能遣煩惱 本來常定法身 不能
T45n1853_p0027b16 ‖ 遣之 飜成未之修解却惑 本旣[113]不能 未[114]亦不[115]
T45n1853_p0027b17 ‖ 能也 今眞諦三藏云 眞不除或有四義 一眞如若斷或 則失

世諦 二失凡聖過 三前有或後脩解方斷或 四所以所脩之解不圓足者 由有或故不圓滿 若眞如斷或 則有四種過失 故不斷或也 今謂 不然 汝旣有眞如用解却或者 解用亦本有 不令本有煩惱 如金石一時本有者 對人打治不關金用 那得名眞如用耶 亦是二見有所得也 只是不得云 違眞起妄用也[116] 大乘無所得義 約八不明三種中道

---

107) 與阿摩羅識 : 大乘玄論에는 없음.
108) 惱 : 필사본에는 惚.
109) 等 : 大乘玄論에는 없음.
110) 之 : 大乘玄論에는 없음.
111) 忽 : 大乘玄論에는 急.
112) 惱 : 필사본에는 惚.
113) 旣 : 大乘玄論에는 即.
114) 未 : 末.
115) 不 : 필사본에는 無.

T45n1853_p0027b18 ‖ 言方新舊不同 而意無異趣也 山中師[117]對寂

T45n1853_p0027b19 ‖ 正作之 語待不語不語待語[118] 語不語並是相

T45n1853_p0027b20 ‖ 待假名 故假語不名語 假不語不名不語 不

T45n1853_p0027b21 ‖ 名不語不爲無 不名語不爲有 卽是不有不

T45n1853_p0027b22 ‖ 無世諦中道 但相待假故 可有說生可無說

T45n1853_p0027b23 ‖ 滅 故以生滅合爲世諦也 眞諦亦然 假不語

T45n1853_p0027b24 ‖ 不名不語 假非不語不名非不語 不名非不

T45n1853_p0027b25 ‖ 語 不爲非[119]不無 不名不語 不爲非[120]不有 則是

T45n1853_p0027b26 ‖ 非不有非不無眞諦中道也 相待假故 可有

T45n1853_p0027b27 ‖ 說不滅 可無說不[121]生 卽是不生不滅故合爲

T45n1853_p0027b28 ‖ 眞諦也 二諦合明中道者 假語不名語 假不

T45n1853_p0027b29 ‖ 語不名不語 非語非不語 卽是非有非不有

T45n1853_p0027c01 ‖ 非無非不無 二諦合明中道也 生滅不生滅

T45n1853_p0027c02 ‖ 合明 類此可尋也 今山門意[122]明 必須對他故起 他有

T45n1853_p0027c03 ‖ 有可有 則有生可生 有滅可滅 有生可生 生

T45n1853_p0027c04 ‖ 是定生 有滅可滅 滅是定滅 生是定生 生

T45n1853_p0027c05 ‖ 在滅外 滅是定滅 滅在生外 生在滅外 生

T45n1853_p0027c06 ‖ 不待滅 滅在生外 滅不待生 生不待滅 生

T45n1853_p0027c07 ‖ 則獨存 滅不待生 滅則孤立 如斯生滅 悉[123]是

---

116) 眞諦三藏云 眞不除或有四義 一眞如若斷或 則失世諦 二失凡聖過 三前有或後脩解方斷或 四所以所脩之解不圓足者 由有或故不圓滿 若眞如斷或 則有四種過失 故不斷或也 今謂不然 汝旣有眞如用解却或者 解用亦本有 不令本有煩惱 如金石一時本有者 對人打治不關金用 那得名眞如用耶 亦是二見有所得也 只是不得云 違眞起妄用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117) 師 : 필사본에는 없음.

118) 不語待語 : 필사본에는 語不語.

119) 非 : 필사본에는 없음.

120) 非 : 필사본에는 없음.

121) 不 : 필사본에는 非.

122) 山門意 : 大乘玄論에는 없음.

123) 悉 : 大乘玄論에는 皆.

T45n1853_p0027c08 ‖ 自性 非因緣義宗也 今則不爾 無有可有 以

T45n1853_p0027c09 ‖ 空故有 無生可生 亦無滅可滅 但以世諦故

T45n1853_p0027c10 ‖ 假名說生滅 假生生非定生 假滅滅非定滅

T45n1853_p0027c11 ‖ 生非定生滅外無生 滅非定滅生外無滅 滅

T45n1853_p0027c12 ‖ 外無生由滅故生 生外無滅由生故滅 由滅

T45n1853_p0027c13 ‖ 故生 生不獨存 由生故滅 滅不孤立 此之生

T45n1853_p0027c14 ‖ 滅 悉[124]是因緣假名 因緣生生而不起 所以不

T45n1853_p0027c15 ‖ 生 因緣滅滅而不失 所以不滅 故不生不滅

T45n1853_p0027c16 ‖ 名爲世諦中道也 餘句例之可尋 不復具出

T45n1853_p0027c17 ‖ 也 次明 對世諦有生有[125]滅故 名眞諦不生不滅

T45n1853_p0027c18 ‖ 所以空有爲世諦假生假滅 有空爲眞諦假

T45n1853_p0027c19 ‖ 不生滅[126] 假不生滅[127] 非是[128]不生不滅 待

T45n1853_p0027c20 ‖ 世諦假生明眞諦假不生 待世諦假滅明眞諦假不滅[129] 世諦 假生假滅[130]

T45n1853_p0027c21 ‖ 既非生滅 眞諦假不生滅 卽[131]非不生滅 故假不生非不生 假不滅非不滅[132] 非

T45n1853_p0027c22 ‖ 不生非不滅爲[133]眞諦中道也 餘句[134]不例之可

T45n1853_p0027c23 ‖ 知也 次明二諦合明[135]中道者 有爲世諦 有生有

---

124) 悉 : 大乘玄論에는 皆.
125)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126) 假不生滅 : 大乘玄論에는 假不生假不滅.
127) 假不生滅 : 大乘玄論에는 此不生不滅.
128) 是 : 大乘玄論에는 自.
129) 待世諦假生明眞諦假不生 待世諦假滅明眞諦假不滅 : 大乘玄論에는 待世諦假生滅 明眞諦假不生滅.
130) 假生假滅 : 大乘玄論에는 假生滅.
131) 卽 : 大乘玄論에는 亦.
132) 假不生非不生 假不滅非不滅 : 大乘玄論에는 없음.
133) 爲 : 필사본에는 없음.
134) 句 : 필사본에는 없음.
135) 明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27c24 ‖ 滅 空爲眞諦 不生不滅 此不生滅 卽是生滅

T45n1853_p0027c25 ‖ 不生滅 此〈假〉生滅 卽是〈假〉不生滅生滅 不生滅生

T45n1853_p0027c26 ‖ 滅 是則[136]非生滅 生滅不生滅 是卽[137]非不生滅

T45n1853_p0027c27 ‖ 故非生滅非不生滅 是[138]二諦合明[139]中道也[140] 生

T45n1853_p0027c28 ‖ 滅旣爾 餘句應例可解也 又論釋不常不斷

T45n1853_p0027c29 ‖ 文言 有人不受不生不滅 而信不常不斷也

T45n1853_p0028a01 ‖ 成實論[141]師解[142]文云 以相續故常 念念生滅不自

T45n1853_p0028a02 ‖ 顧[143]爲斷 以見斷常故 所以不信不常不斷 須

T45n1853_p0028a03 ‖ 廣破 如前說也 論言 有人不受不生不滅 而

T45n1853_p0028a04 ‖ 信不常不斷者 一云 不受不生不滅者 卽是

T45n1853_p0028a05 ‖ 悟不生不滅 而於不常不斷等未悟故 言而

T45n1853_p0028a06 ‖ 信不常不斷 以見有常斷[144]故也 二云 長安影

T45n1853_p0028a07 ‖ 法師云 非是不信不常不斷 但自有人得悟

T45n1853_p0028a08 ‖ 不同 解心未遍 雖知諸法不生不滅 而未悟

T45n1853_p0028a09 ‖ 不常不斷 如前說也 今謂 諸法究竟不生 理

T45n1853_p0028a10 ‖ 自不滅 以不生故 何得有常 以無常故 何得

T45n1853_p0028a11 ‖ 有斷 若望論文後解爲勝 文言 雖聞不生不

T45n1853_p0028a12 ‖ 滅與不常不斷 猶謂四門成諸法故也 若例

T45n1853_p0028a13 ‖ 者 雖聞不生不滅 猶謂六門成諸法者未悟

T45n1853_p0028a14 ‖ 也 故大品經相行品云 行亦不受 不行亦不

---

136) 是則 : 필사본에는 없음.
137) 是卽 : 필사본에는 則.
138) 是 : 필사본에는 없음.
139) 明 : 필사본에는 없음.
140) 也 : 필사본에는 없음.
141) 論 : 大乘玄論에는 없음.
142) 解 : 大乘玄論에는 釋.
143) 顧 : 필사본에는 領.
144) 常斷 : 大乘玄論에는 斷常.

T45n1853_p0028a15 ‖ 受 行不行亦不受 非行非不行亦不受 不受
T45n1853_p0028a16 ‖ 亦不受也 又似如成論賢聖品云 知不作者
T45n1853_p0028a17 ‖ 不信作等 是名上人也 不常不斷者 若以有
T45n1853_p0028a18 ‖ 爲有 則常是實常 斷是實斷也 今以空故有
T45n1853_p0028a19 ‖ 常不名常 斷不名斷 世諦假名說有常有斷
T45n1853_p0028a20 ‖ 假常不可常 假斷不可斷 卽是不斷不常世
T45n1853_p0028a21 ‖ 諦中道也 不一不異者 然不一或可對二或[145]乃
T45n1853_p0028a22 ‖ 至百千等 而言對不異者 異一之外二三等
T45n1853_p0028a23 ‖ 悉是異 謂有一異也 但成論師解[146]假實 有一
T45n1853_p0028a24 ‖ 異義 若以有故有 卽是實一實[147]異 如前破也 亦
T45n1853_p0028a25 ‖ 如論說 若言有一[148] 不應爲諸法成 以不可[149]一故
T45n1853_p0028a26 ‖ 如手足等諸分成身 何得言異相 異相亦不
T45n1853_p0028a27 ‖ 可得 故論破云 若一者不應芽莖等別名[150] 若謂
T45n1853_p0028a28 ‖ 穀有可芽葉等別異者 等是異相 何不名樹
T45n1853_p0028a29 ‖ 等芽葉耶 故知不異 亦復不一故 諸法本來
T45n1853_p0028b01 ‖ 不生 何得有一異 但一是不一一 異是不異
T45n1853_p0028b02 ‖ 異 假一不可爲一 假異不可爲異 旣無一無
T45n1853_p0028b03 ‖ 異 卽是世諦中道也 不來不出者 旣言不來
T45n1853_p0028b04 ‖ 則應對不去 而言不出者 義有所兼 非止此
T45n1853_p0028b05 ‖ 八 則應有無量 不來則應對[151]有不去 不出應
T45n1853_p0028b06 ‖ 對有不入 此[152]是互擧耳 凡有二義 一者示有所

145) 或 : 大乘玄論에는 없음.
146) 解 : 大乘玄論에는 明.
147) 實 : 大乘玄論에는 없음.
148) 一 : 필사본에는 없음.
149) 可 : 大乘玄論에는 없음.
150) 名 : 大乘玄論에는 없음.
151) 對 : 필사본에는 없음.
152) 此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28b07║兼 非止有八事 二者雖異而內有所兼者 既

T45n1853_p0028b08║有不來則有不去 既有不出則有不入 不生

T45n1853_p0028b09║不滅不有不無等 一切諸法相攝門也 如外道與成實論等師[153)]

T45n1853_p0028b10║所計 或言從冥初來 微塵世

T45n1853_p0028b11║性等來 亦如[154)]初流來[155)]反去出離等 今大乘明

T45n1853_p0028b12║義 由出故去 出則[156)]是去 由入故來 入卽是

T45n1853_p0028b13║來 若有來去說作來去者 卽是[157)]實來實去 今明

T45n1853_p0028b14║以空來去故不名來去 以世諦假說來去 雖

T45n1853_p0028b15║來不可來 雖去不可去 故來無所從 去無所

T45n1853_p0028b16║至 故金剛波若經云 若言如來有來有去者

T45n1853_p0028b17║是人不解佛所說義 若言空故說來去 則來

T45n1853_p0028b18║無所從 去無所至 故言如來也 又[158)]淨名經云

T45n1853_p0028b19║對文殊言 不來相而來 不見相而見 文殊答

T45n1853_p0028b20║云 如居士言 來不更來 去不更去 若來有所

T45n1853_p0028b21║從 則來已更來 若去有所至 則去已更去 故

T45n1853_p0028b22║今來無所從 去無所至也 故論云 如蛇

T45n1853_p0028b23║出穴[159)]鳥來栖樹等 不見有如是等相 故知 無有

T45n1853_p0028b24║來出也 問 八不中 何故云不來不出是攝法

T45n1853_p0028b25║有所兼 而不生不滅等非耶 答 不生不滅等

T45n1853_p0028b26║亦是攝法 如不生則攝一切有生等皆盡 不

---

153) 外道與成實論等師 : 大乘玄論에는 成論與外道師等.
154) 如 : 필사본에는 없음.
155) 來 : 大乘玄論에는 水.
156) 則 : 大乘玄論에는 卽.
157) 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158) 又 : 大乘玄論에는 有.
159) 出穴 : 大乘玄論에는 從穴出.

T45n1853_p0028b27║滅則收一切滅無等 此兩[160]自足收攝悉盡 但
T45n1853_p0028b28║爲得悟者不同 雖聞不生不滅 而信不常不
T45n1853_p0028b29║斷 故須說不常不斷等[161] 欲令觀行周普故 今不
T45n1853_p0028c01║來不出亦然 而言攝法者 爲不來應對不去
T45n1853_p0028c02║出卽對入 來出旣不對故 以來攝去 出攝入
T45n1853_p0028c03║生滅旣對 對故不言攝 如不生外 如是不不
T45n1853_p0028c04║生 豈得不攝 須得此意釋之 可尋也 但明對
T45n1853_p0028c05║有兩[162]義 一者對治 如不淨觀治貪欲 慈悲治
T45n1853_p0028c06║瞋恚等 皆是相對治明對義 二者相對名味
T45n1853_p0028c07║敵對 如大經言 常樂觀察諸對治門 所謂苦
T45n1853_p0028c08║樂乃至恒不恒 恒應對不暫不恒 而不無賖
T45n1853_p0028c09║切亦是攝法意也 苦樂對義則切 止明二法
T45n1853_p0028c10║異外如是[163]不攝 若言苦不苦異 苦外如是不
T45n1853_p0028c11║苦 攝義則廣遠 如淨不淨 淨對穢等 一切例
T45n1853_p0028c12║然 皆有賖切意 可尋 不復[164]歷法辨也 作三
T45n1853_p0028c13║種中道相多種勢 意終是同 但方言異耳 今
T45n1853_p0028c14║兩[165]種方法作 如前所說也 問 何故世諦假生
T45n1853_p0028c15║假滅 眞諦假不生假不滅耶 答 有兩[166]種勢 一
T45n1853_p0028c16║者 世諦破性明性空 卽是假生假滅 眞諦破
T45n1853_p0028c17║假明因緣空故 卽是假不生假不滅也 問 世
T45n1853_p0028c18║諦破性明性空 性空爲世諦中道 應用性有
T45n1853_p0028c19║爲世諦 旣以假有爲世諦 則用假空爲中道

---

160) 兩 : 大乘玄論에는 二.
161) 等 : 大乘玄論에는 없음.
162) 兩 : 大乘玄論에는 二.
163) 是 : 필사본에는 없음.
164) 復 : 大乘玄論에는 須復.
165) 等 : 大乘玄論에는 없음.
166) 等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28c20 ‖ 也 答 今明 無別有性空 只諮假爲性空 從功

T45n1853_p0028c21 ‖ 用作名 誰能空此性 假能空此性 名假作性

T45n1853_p0028c22 ‖ 空 性空邊故卽是中道 假故卽名世諦也 二

T45n1853_p0028c23 ‖ 者 假生假滅 自是不生不滅中 假不生假不

T45n1853_p0028c24 ‖ 滅 自是非不生非不滅中 卽是表義理[167] 但橫

T45n1853_p0028c25 ‖ 兩相望 自是因緣義 則遣二執也 又攝嶺

T45n1853_p0028c26 ‖ 師云 假前明 中此[168]是體中 假後明中 此[169]是用中 中

T45n1853_p0028c27 ‖ 前明假是用假中 後明假是體假 故非有非

T45n1853_p0028c28 ‖ 無而有而無是體中 假有不名有 假無不名

T45n1853_p0028c29 ‖ 無 是[170]故非有非無是用中 非有非無而有而無

T45n1853_p0029a01 ‖ 是體假 假有不名有 假無不名無 是用假 故

T45n1853_p0029a02 ‖ 用中假悉[171]屬能表之敎 無假無中乃是所表

T45n1853_p0029a03 ‖ 之理也

T45n1853_p0029a04 ‖ 第三明智慧中道 所言二智中道者 二智是

T45n1853_p0029a05 ‖ 方便慧及〈與[172]〉實慧 亦具三種[173]中道也[174] 實方便 豈

T45n1853_p0029a06 ‖ 可言方便 豈可言非方便 方便實 豈可言實

T45n1853_p0029a07 ‖ 豈可言非[175]實 則是二慧合[176]明中道 實方便則

T45n1853_p0029a08 ‖ 非方便 方便實則非實 非實非方便 名爲二

T45n1853_p0029a09 ‖ 慧合明中道也 然非實非方便 名爲一正觀

T45n1853_p0029a10 ‖ 非眞非俗 名爲一正中 亦得是正境故 金光

---

167) 理 : 大乘玄論에는 없음.
168) 此 : 大乘玄論에는 없음.
169) 此 : 大乘玄論에는 없음.
170) 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171) 悉 : 大乘玄論에는 皆.
172) 與 : 大乘玄論에는 以.
173) 種 : 大乘玄論에는 없음.
174) 也 : 필사본에는 없음.
175) 非 : 大乘玄論에는 不.
176) 合 : 大乘玄論에는 各.

T45n1853_p0029a11 ‖ 明經云 遊於無量甚深法性也 但是境智 是
T45n1853_p0029a12 ‖ 則非智 既是智境 是則非境 非境非智[177] 眇然
T45n1853_p0029a13 ‖ 無際 前雖開智開境[178] 竟無所開 今雖泯境泯智[179] 未
T45n1853_p0029a14 ‖ 曾是合也[180] 若能如此演說 即能滅諸戲論故
T45n1853_p0029a15 ‖ 言[181]能說是因緣 善滅諸戲論[182] 是以[183]龍樹致敬也 問 何故
T45n1853_p0029a16 ‖ 不例二諦三種中道 假方便智非方便智 假
T45n1853_p0029a17 ‖ 實智非實智 非方便非實明中道 假非方便
T45n1853_p0029a18 ‖ 智非不方便智 假非實智非不實智 非不方
T45n1853_p0029a19 ‖ 便智[184]非不實智 合明中道等耶 答 亦得 但欲示
T45n1853_p0029a20 ‖ 多種勢耳 又明二智中道 然諦智非前非後
T45n1853_p0029a21 ‖ 亦非一時故 非諦非智 諦智因緣假名不二
T45n1853_p0029a22 ‖ 而二 故如來內智明審潛謀密照 外彰口吐
T45n1853_p0029a23 ‖ 名諦也 然諦非二 亦復不一諦 此二緣故言
T45n1853_p0029a24 ‖ 二諦[185]也 如二諦中說 而由智能諦所 而[186]尋此智何
T45n1853_p0029a25 ‖ 因而得 亦由悟諦故智生[187] 故諦能智所 能所因
T45n1853_p0029a26 ‖ 緣不一不二 乃至應波若此能所則通也 若
T45n1853_p0029a27 ‖ 佛自然人 則佛智是能諦是所 若弟子望此
T45n1853_p0029a28 ‖ 者 佛諦能論主智所 然[188]此能所復何定 智生

---

177) 非境非智 : 大乘玄論에는 非智非境.
178) 開智開境 : 大乘玄論에는 開境智.
179) 泯境泯智 : 大乘玄論에는 泯智境.
180) 也 : 필사본에는 없음.
181) 言 : 大乘玄論에는 亦有.
182) 善滅諸戲論 : 大乘玄論에는 없음.
183) 以 : 大乘玄論에는 故.
184) 智 : 大乘玄論에는 없음.
185) 諦 : 大乘玄論에는 없음.
186) 而 : 필사본에는 없음.
187) 生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29a29 ‖ 於境託諦 是[189]則境也 論主智能照 境是所照 但

T45n1853_p0029b01 ‖ 此諦則是論主所也 佛非因非果 而詺如來

T45n1853_p0029b02 ‖ 爲果 波若非因非果 而假名爲因 故假名所

T45n1853_p0029b03 ‖ 設差別不同 名[190]生忍法忍順忍違忍無生

T45n1853_p0029b04 ‖ 忍等 十地亦名[191]十忍 三十心亦名三十忍 卽

T45n1853_p0029b05 ‖ 是一無量 無量一等也 然前[192]二諦明中道 諦智

T45n1853_p0029b06 ‖ 因緣不一不二 亦非前非後 而爲前後[193]開因

T45n1853_p0029b07 ‖ 緣前後方便之教 若無因[194]內智明審外照根緣

T45n1853_p0029b08 ‖ 何能吐此諦 故智能諦所 但佛智不空 而已

T45n1853_p0029b09 ‖ 必申[195]諦故 發諦能智所 是論主 只悟諦能

T45n1853_p0029b10 ‖ 爲智所 智所見諦能 能所不一不異 二諦旣

T45n1853_p0029b11 ‖ 論中道 在智亦名中道 觸事悉得也[196] 但波若

T45n1853_p0029b12 ‖ 非因非果 非佛非菩薩 故假名佛菩薩 佛菩

T45n1853_p0029b13 ‖ 薩所行名爲因 名爲波若 菩薩佛所行名爲

T45n1853_p0029b14 ‖ 果 名爲薩波若 故無差別差別 說因爲十地

T45n1853_p0029b15 ‖ 始則歡喜 終乎法雲 五忍三十心非是竪論

T45n1853_p0029b16 ‖ 也 至論波若 非言可名 非能非所 至[197]第一義中

T45n1853_p0029b17 ‖ 行爲無學所行 諸佛能行 行亦不受 不行亦

T45n1853_p0029b18 ‖ 不受 行不行亦不受 非行非不行亦不受 不

T45n1853_p0029b19 ‖ 受亦不受 能說是因緣 正明二智中道 能說

---

188) 然 : 필사본에는 없음.
189) 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190) 名 : 大乘玄論에는 或名.
191) 亦名 : 필사본에는 名亦.
192) 前 : 大乘玄論에는 없음.
193) 後 : 大乘玄論에는 緣.
194) 因 : 大乘玄論에는 없음.
195) 申 : 大乘玄論에는 由.
196) 也 : 필사본에는 없음.
197) 至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29b20║是佛智 能說於因緣八不正教也 又言 是論
T45n1853_p0029b21║主禀佛正經生智 智所諦能 論主得悟生智
T45n1853_p0029b22║智能論所 能造論申經故 佛與論主 師弟相
T45n1853_p0029b23║成 其道無異 卽是入如來室坐如來座也 論
T45n1853_p0029b24║主歸敬 佛能說因緣正經 禀學得解 解由於
T45n1853_p0029b25║佛 今申經造論 故願加威[198]歸敬三寶 殊於外道 因緣之
T45n1853_p0029b26║經 經常無所從出也 諸說中第一者 如來雖
T45n1853_p0029b27║復種種說法 及[199]常合道 說小乘教未是了義之
T45n1853_p0029b28║言 乃是大乘之由漸也 八不顯了究竟之說
T45n1853_p0029b29║故 八不收束皆盡 諸佛同此一致故言第一
T45n1853_p0029c01║又佛弟子說 仙人說 諸天說 變[200]化人說 未是
T45n1853_p0029c02║第一 今佛說因緣教故云第一也 二智中道
T45n1853_p0029c03║由諦故智 二諦中道[201] 由智故諦 所以諦智智
T45n1853_p0029c04║諦 非諦非智 假名中道 佛意權實是因緣 如
T45n1853_p0029c05║前說 亦有人言 論主能說生下論 今亦不乖
T45n1853_p0029c06║此言 但今謂歎[202]佛智明審鑒達根緣 能吐此
T45n1853_p0029c07║二[203]諦之八不正教 明諸法因緣一道淸淨故
T45n1853_p0029c08║戲論門盡 故言盡言[204]爲論其意可明 故顯佛圓智
T45n1853_p0029c09║卽[205]能說誠諦之言故是智是諦 故龍樹學佛所
T45n1853_p0029c10║爲 智之未足故 沒其智諦之名也 若未應波
T45n1853_p0029c11║若以來[206] 應有所爲莫非戲論 若解敎體理 能

---

198) 故願加威 : 大乘玄論에는 없음.
199) 及 : 反?
200) 變 : 필사본에는 及.
201) 二諦中道 : 필사본에는 없음.
202) 歎 : 필사본에는 難.
203) 二 : 필사본에는 없음.
204) 盡言 : 大乘玄論에는 없음.
205) 卽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29c12 ‖ 滅於戲論 凡夫二乘心所行 無非戲論 理外
T45n1853_p0029c13 ‖ 行心 無非戲論 應須消減[207]損之 凡有三種相
T45n1853_p0029c14 ‖ 對 或時四種 一者善惡相對 惡是墮墜 乖理
T45n1853_p0029c15 ‖ 無有[208]出功 故十惡爲戲論 善是淸昇 扶理有出
T45n1853_p0029c16 ‖ 之義 故十善非是[209]戲論 成實論亦云 一等四執
T45n1853_p0029c17 ‖ 爲戲論也[210] 又言 三性中善惡非戲論 無記是戲
T45n1853_p0029c18 ‖ 論 何者善惡二性有果可記 故非戲論 無記
T45n1853_p0029c19 ‖ 沉淡 無得果之功故 名爲戲論也 今依華嚴
T45n1853_p0029c20 ‖ 經云 唯善非戲論 惡無記並是戲論 明惡亦
T45n1853_p0029c21 ‖ 能[211]得苦果 但非是趣向歸理得佛義故 名爲戲
T45n1853_p0029c22 ‖ 論唯善法能得佛果 故大經云 雖復疊華千
T45n1853_p0029c23 ‖ 斤 不如眞金一兩也 二者有相無相相對明
T45n1853_p0029c24 ‖ 之 亦言有漏無漏相對也 有相是分別故爲[212]
T45n1853_p0029c25 ‖ 戲論 無相無分別故非戲論 有相善還屬戲
T45n1853_p0029c26 ‖ 論 故大品經云 相善不動不出不爲乘也 故
T45n1853_p0029c27 ‖ 佛藏經云 爲人說有相法 是衆生惡知識 爲
T45n1853_p0029c28 ‖ 衆生說無相法 是衆生善知識 有相乖理 故
T45n1853_p0029c29 ‖ 經云 寧起五逆 一念不起有相心 經所以作
T45n1853_p0030a01 ‖ 此語者 明相心傷理大故所以重 實是兩罪
T45n1853_p0030a02 ‖ 盡重 而起五逆者 五逆[213]但損惱[214]身 而不妨心

---

206) 以來 : 필사본에는 없음.
207) 減 : 大乘玄論에는 滅.
208)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209) 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210)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211) 能 : 大乘玄論에는 없음.
212) 故爲 : 필사본에는 是.
213) 五逆 : 필사본에는 없음.
214) 惱 : 필사본에는 惚.

T45n1853_p0030a03 ║ 用 得近理義 有相心傷理故 無得近理義故

T45n1853_p0030a04 ║ 求相善比丘 則遠離於佛 所以相心現前 決[215]

T45n1853_p0030a05 ║ 無波若義也[216] 五逆事雖起 而不妨用心覓[217]理

T45n1853_p0030a06 ║ 義也 有漏卽有相 無漏卽[218]無相 有漏之善

T45n1853_p0030a07 ║ 但[219]得三有果報 未能出離[220]生死 正是不動不

T45n1853_p0030a08 ║ 出 故名戲論 無漏之法 破裂生死 故不名

T45n1853_p0030a09 ║ 戲論也 又[221]地攝成數等師 恐落求相善比丘

T45n1853_p0030a10 ║ 宗 彼〈師[222]〉聞之驚怖[223] 而於[224]聽大乘無所[225]得宗 人 見此

T45n1853_p0030a11 ║ 意耳 彼師徒無有覺知[226]此意也 三者一異相對

T45n1853_p0030a12 ║ 雖言有相是戲論無相非戲論 若見[227]有相異

T45n1853_p0030a13 ║ 無相 此卽[228]戲論 見相無相不異 乃名非戲論

T45n1853_p0030a14 ║ 乃至善惡生死涅槃解惑等並類然 故大經

T45n1853_p0030a15 ║ 云 明與無明 凡夫謂二 智者了達其性無二

T45n1853_p0030a16 ║ 也 故大品經三慧品云 諸有二者 名爲[229]有所得

T45n1853_p0030a17 ║ 無有二者 名無所得等[230]也 故[231]大經云 有所得者

---

215) 決 : 大乘玄論에는 定.
216) 也 : 필사본에는 없음.
217) 覓 : 大乘玄論에는 見.
218) 卽 : 大乘玄論에는 則是.
219) 但 : 大乘玄論에는 唯.
220) 離 : 필사본에는 없음.
221) 又 : 필사본에는 없음.
222) 師 : 大乘玄論에는 없음.
223) 怖 : 필사본에는 恠.
224) 於 : 大乘玄論에는 없음.
225) 所 : 필사본에는 없음.
226) 知 : 大乘玄論에는 없음.
227) 見 : 大乘玄論에는 是.
228) 此卽 : 大乘玄論에는 便是.
229) 爲 : 大乘玄論에는 없음.
230) 等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0a18 ‖ 無道無果 無所得者 有道有果也 〈四[232]〉若以異爲

T45n1853_p0030a19 ‖ 非 不二爲是 此則不識不二 還成戲論 復須

T45n1853_p0030a20 ‖ 遣之 無一無二故 有時就四法辨行四句 是

T45n1853_p0030a21 ‖ 戲論 不行四句 則非戲論也 故〈質論亦名反[233]〉反折論云 若

T45n1853_p0030a22 ‖ 言諸法有 是增益謗 若言諸法無 則[234]損減謗 若

T45n1853_p0030a23 ‖ 言諸法亦有亦無 則[235]相違謗 若言諸法非有

T45n1853_p0030a24 ‖ 非無 則[236]戲論謗 若言諸法非非有非非無 是

T45n1853_p0030a25 ‖ 無慚愧謗也 故思益經云 一切法邪[237] 一切法

T45n1853_p0030a26 ‖ 正[238]也 又大品經云 菩薩無方便 便[239]行色無常與常[240]

T45n1853_p0030a27 ‖ 等 並是戲論 故凡厥有所得行心[241] 於波若紛

T45n1853_p0030a28 ‖ 然乖則戲論師等[242]也 又思益經云 當來惡比丘有相說法破我正法 彼非我弟子 我非彼人師也[243] 故因緣門中一不可得 二

T45n1853_p0030a29 ‖ 亦不可得 亦一亦二 非一非二 非不一非不

T45n1853_p0030b01 ‖ 二 皆不可得也[244] 如〈相行品云[245]〉五句三昧 不與二乘菩薩[246]共廣

T45n1853_p0030b02 ‖ 大之用也 故四對此三 無出無離 何者諸有

---

231) 故 : 大乘玄論에는 又.
232) 四 : 大乘玄論에는 없음.
233) 質論亦名反 : 大乘玄論에는 없음.
234) 則 : 大乘玄論에는 없음.
235) 則 : 大乘玄論에는 是.
236) 則 : 大乘玄論에는 是.
237) 邪 : 필사본에는 正.
238) 正 : 필사본에는 邪.
239) 便 : 大乘玄論에는 없음.
240) 與常 : 大乘玄論에는 苦.
241) 行心 : 필사본에는 心行.
242) 等 : 大乘玄論에는 없음.
243) 又思益經云 當來惡比丘有相說法破我正法 彼非我弟子 我非彼人師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244) 也 : 필사본에는 없음.
245) 相行品云 : 大乘玄論에는 없음.
246) 菩薩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0b03 ‖ 所得 別有住處論其出處[247] 今謂 本自不住 今亦

T45n1853_p0030b04 ‖ 無出無住 無[248]出故〈並[249]〉非戲論 若言有戲論可滅

T45n1853_p0030b05 ‖ 是無戲論 亦是戲論 亦是戲論故[250]今明 八不

T45n1853_p0030b06 ‖ 不戲論 非止滅戲論 不戲論亦滅 滅者非是

T45n1853_p0030b07 ‖ 小乘斷德[251]之滅 此是大乘〈無所得[252]〉摩訶衍淨悟 諸佛[253]法

T45n1853_p0030b08 ‖ 本來不生 今亦不滅 畢竟淨名滅 故言善也

T45n1853_p0030b09 ‖ 故戲論無戲論 無戲論戲[254]論 因緣具足 方便假名不一

T45n1853_p0030b10 ‖ 不二一道平等 故經云 法本不燃 今則無滅〈滅〉[255]戲論之善 是善巧權行故名

T45n1853_p0030b11 ‖ 善 善者能也 問 戲論不戲論等皆滅 卽[256]前來

T45n1853_p0030b12 ‖ 所明 記無記乃至二不二善惡[257]等 望道悉非

T45n1853_p0030b13 ‖ 者 戲論旣非 不戲論亦是戲論也 答 應[258]須識之

T45n1853_p0030b14 ‖ 只八不不二善是非戲論 若是不二還成戲

T45n1853_p0030b15 ‖ 論 非謂不二不戲論 自非八不不者 則成[259]戲論

T45n1853_p0030b16 ‖ 不滅也[260] 何異絶絶絶不絶 卽無絶無不絶 豈

T45n1853_p0030b17 ‖ 可以言言絶不絶耶

---

247) 處 : 大乘玄論에는 없음.
248) 無 : 필사본에는 不.
249) 並 : 大乘玄論에는 없음.
250) 亦是戲論故 : 필사본에는 없음.
251) 德 : 필사본에는 得.
252) 無所得 : 大乘玄論에는 없음.
253) 佛 : 大乘玄論에는 없음.
254) 無戲論戲 : 大乘玄論에는 없음.
255) 故經云法本不燃 今則無滅<滅> : 大乘玄論에는 없음.
256) 卽 : 필사본에는 없음.
257) 惡 : 필사본에는 없음.
258) 應 : 大乘玄論에는 없음.
259) 成 : 大乘玄論에는 없음.
260) 也 : 필사본에는 없음.

T45n1853_p0030b18 ‖ 第四雜問難 問 八不明中假二諦 自心所作

T45n1853_p0030b19 ‖ 有出處耶 答 有文有理 文則八不 處處經論

T45n1853_p0030b20 ‖ 散出 但菩薩瓔珞本業經下卷云 二諦義者

T45n1853_p0030b21 ‖ 不一亦不二 不常亦不斷 不來亦不去 不生

T45n1853_p0030b22 ‖ 亦不滅也 又大經二十五師子吼〈菩薩[261]〉品云 十二

T45n1853_p0030b23 ‖ 因緣不生不滅不常亦不斷不一不[262]二不來不

T45n1853_p0030b24 ‖ 去非因非果也[263] 與中論次第小[264]異 而意同也 理

T45n1853_p0030b25 ‖ 則二諦是教 故假生假滅等是世諦 假不生

T45n1853_p0030b26 ‖ 假不滅是眞諦 故具明中假義也 問 八不是

T45n1853_p0030b27 ‖ 不生不滅等 教假[265]不生假[266]不滅 爲理不生不滅之

T45n1853_p0030b28 ‖ 不生不滅等耶 答 具含兩不生不滅等 但理

T45n1853_p0030b29 ‖ 爲正 教則傍也 問 何以知之 答 彼經中列[267]八

T45n1853_p0030c01 ‖ 不竟云 而二[268]相卽聖智無二 故是諸佛菩薩智

T45n1853_p0030c02 ‖ 母也 大經云 涅槃之體 非有非[269]無 非[270]亦有亦無

T45n1853_p0030c03 ‖ 也 大品經相行品 身子白[271]佛 諸法實相云何

T45n1853_p0030c04 ‖ 有 佛云 諸法無所有如是有 如是有[272]無所有

T45n1853_p0030c05 ‖ 是事不知 名爲無明也 中論序大意云 聞不

T45n1853_p0030c06 ‖ 生不滅畢竟空便失二諦也 又四諦品云 諸

---

261) 菩薩 : 大乘玄論에는 없음.
262) 不 : 필사본에는 非.
263)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264) 小 : 필사본에는 少.
265) 假 : 大乘玄論에는 없음.
266) 假 : 大乘玄論에는 없음.
267) 列 : 大乘玄論에는 烈.
268) 二 : 大乘玄論에는 없음.
269) 非 : 大乘玄論에는 없음.
270) 非 : 필사본에는 없음.
271) 白 : 필사본에는 自.
272) 有 : 필사본에는 없음.

T45n1853_p0030c07 ‖ 法雖無生而有二諦也[273] 故知 具含中假 而中

T45n1853_p0030c08 ‖ 爲正宗 二諦爲傍 具如二諦義[274]中說也 問 八不

T45n1853_p0030c09 ‖ 是佛說者 龍樹造中論時 卽引經中八不 安

T45n1853_p0030c10 ‖ 論初爲非 答 不可定判 或是[275]賓伽據[276]經中安處

T45n1853_p0030c11 ‖ 或可 龍樹引經中八[277]不序無畏論初 故[278]注論

T45n1853_p0030c12 ‖ 者 安中論序意初也 而應非是釋論中八不

T45n1853_p0030c13 ‖ 牽安處 故[279]大論中 至難處卽指中論 爲正觀論[280]

T45n1853_p0030c14 ‖ 如正觀論中說 故知 釋論與[281]中論後造也 又亦

T45n1853_p0030c15 ‖ 可 青目於千年中出世注中論 或可 引釋論

T45n1853_p0030c16 ‖ 中八不 安處中論序意也 問 釋論中指正觀

T45n1853_p0030c17 ‖ 論者 何必是中論耶 答 中論觀法品云 正觀

T45n1853_p0030c18 ‖ 論之稱 故知 中論是正觀論也 故相傳云 中

T45n1853_p0030c19 ‖ 論是釋論之骨髓體[282]也 問 八不八非八無是一

T45n1853_p0030c20 ‖ 是異 答 亦可一亦可異 是一眼目異名[283]也 異

T45n1853_p0030c21 ‖ 者八不中爲正 故八不無對 非等有對故異

T45n1853_p0030c22 ‖ 也 問 八不中不生不滅 得云[284]兩不 爲不得耶

T45n1853_p0030c23 ‖ 答 旣云不生不滅 那非兩不也 問 不生復不

T45n1853_p0030c24 ‖ 滅兩過道於[285]不 所以言兩不者 不生復不滅

---

273) 也 : 필사본에는 없음.
274) 義 : 大乘玄論에는 없음.
275) 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276) 據 : 大乘玄論에는 引.
277) 中八 : 필사본에는 八中.
278) 故 : 필사본에는 有.
279) 故 : 大乘玄論에는 없음.
280) 爲正觀論 : 필사본에는 없음.
281) 與 : 大乘玄論에는 없음.
282) 體 : 大乘玄論에는 없음.
283) 名 : 필사본에는 없음.
284) 云 : 필사본에는 是.

T45n1853_p0030c25 ‖ 兩過遵不 故得論兩不 不滅不生故應是兩

T45n1853_p0030c26 ‖ 中也 答 若[286]雙除生滅 始是正中也 問 若雙除生

T45n1853_p0030c27 ‖ 滅方是一[287]正中者 亦應生滅雙除 唯是一不不

T45n1853_p0030c28 ‖ 答 不生復不滅 雙不於生滅 所以一中也 問

T45n1853_p0030c29 ‖ 若雙除故一正中者 亦應雙除二諦 故一正

T45n1853_p0031a01 ‖ 中則無三種中也 答 實是一道正中 爲除病

T45n1853_p0031a02 ‖ 故辨三種中 亦除執故 兩不二中並得義也

T45n1853_p0031a03 ‖ 問 假生不生假滅不滅 不生不滅名爲世諦

T45n1853_p0031a04 ‖ 中 假不生非不生假不滅非不滅 非不生非

T45n1853_p0031a05 ‖ 不滅名爲眞諦中道者 世諦不生不滅中 與

T45n1853_p0031a06 ‖ 眞諦假不生假不滅 若爲異耶 答 安假簡異

T45n1853_p0031a07 ‖ 中不生等故則殊也 問 假不假寧異耶 答 對

T45n1853_p0031a08 ‖ 假生假滅 明假不生假不滅 此假生假[288]不生等 悉[289]

T45n1853_p0031a09 ‖ 是不二中道之用 除假生假滅與假不生假不

T45n1853_p0031a10 ‖ 滅等 不生非不生不滅非不滅 方是正中也

T45n1853_p0031a11 ‖ 故假不生假不滅 如假生假滅 悉是假 亦

T45n1853_p0031a12 ‖ 是用 亦是末也 不生不滅中 如非不生非不

T45n1853_p0031a13 ‖ 滅中 皆是中 亦是體 亦是本也 雖體用與中

T45n1853_p0031a14 ‖ 假等開 而無蹤跡 非體非用非中非假 强名

T45n1853_p0031a15 ‖ 體用中假等也 問 中論四諦品云 因緣所生

T45n1853_p0031a16 ‖ 法 我說卽是無 亦名爲[290]假名 亦是中道義[291] 是三

---

285) 道於 : 大乘玄論에는 遵所.
286) 若 : 大乘玄論에는 없음.
287) 一 : 大乘玄論에는 없음.
288) 生假 : 大乘玄論에는 없음.
289) 悉 : 大乘玄論에는 皆.
290) 亦名爲 : 大乘玄論에는 亦是.
291) 義 : 大乘玄論에는 則.

T45n1853_p0031a17 ‖ 義云何耶 答 釋[292]此偈亦是[293]多種勢 今一種意釋之

T45n1853_p0031a18 ‖ 此一偈有三句 則[294]勝八不 八不正是一中道

T45n1853_p0031a19 ‖ 句 言因緣所生者 是因緣所生之生滅法 此

T45n1853_p0031a20 ‖ 所生之生滅 旣從因緣而生 故無可以[295]爲生 無

T45n1853_p0031a21 ‖ 可[296]爲滅 只是空生空滅 所生旣是[297]空 能生此生

T45n1853_p0031a22 ‖ 滅之因緣亦空 能生所生旣並無故 言我說

T45n1853_p0031a23 ‖ 卽是無也 故中論觀法品云 生時空生 滅時

T45n1853_p0031a24 ‖ 空滅也 涅槃論云 王宮生 生而不起 雙林[298]滅

T45n1853_p0031a25 ‖ 滅而不無也 亦名爲[299]假名者 卽是第三[300]句 以假

T45n1853_p0031a26 ‖ 故有能生之因緣 以假故有所生之生滅 假

T45n1853_p0031a27 ‖ 生不名生 假滅不名滅也 以假生滅不名生

T45n1853_p0031a28 ‖ 滅 故卽是第三句不生不滅中道 故云亦是

T45n1853_p0031a29 ‖ 中道義也 大乘論明義有二種法門 一云[301]義

T45n1853_p0031b01 ‖ 次也[302] 二謂[303]根緣次也 義次者 必須前後相生始

T45n1853_p0031b02 ‖ 終次第也 根緣者 有病[304]卽除[305] 有緣卽爲[306]說 不必

T45n1853_p0031b03 ‖ 須前後相生也 明因緣義則總 若識因緣者

T45n1853_p0031b04 ‖ 名爲佛法 若[307]不識因緣則非佛法 故中論四諦

---

292) 釋 : 大乘玄論에는 明.
293) 亦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294) 則 : 大乘玄論에는 卽.
295) 以 : 大乘玄論에는 없음.
296) 以 : 大乘玄論에는 없음.
297) 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298) 林 : 필사본에는 樹.
299) 亦名爲 : 大乘玄論에는 亦是.
300) 三 : 필사본에는 二.
301) 云 : 필사본에는 隨.
302)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303) 謂 : 필사본에는 隨.
304) 病 : 大乘玄論에는 疾.
305) 除 : 大乘玄論에는 治.
306) 爲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1b05║品云 若見因緣則見佛與法也 今破外因緣
T45n1853_p0031b06║則總破衆病 申佛因緣則總申佛教也 故因
T45n1853_p0031b07║緣初[308]在論初題[309]也 問 二諦亦總收衆教 此中論既
T45n1853_p0031b08║言二諦爲宗者 若學教之者[310]正迷二諦 何不
T45n1853_p0031b09║題破二諦品耶 答 亦得不得 得者 外人聞不
T45n1853_p0031b10║生不滅畢竟空 便失二諦 故[311]欲申佛[312]二諦故造論
T45n1853_p0031b11║又迷佛[313]二諦 故生諍論 爲此造論 亦得二諦
T45n1853_p0031b12║在初題品[314]也 不得者 二諦語局 因緣則通 以二
T45n1853_p0031b13║諦但是二非不二 二[315]但是教而非理 若是二與不二 教之
T45n1853_p0031b14║與理[316] 並是因緣義則總也 問 因緣
T45n1853_p0031b15║既總 何故不以因緣爲宗 答 二諦爲宗 豈離
T45n1853_p0031b16║因緣 但諸佛說法常依二諦 今正與外人共
T45n1853_p0031b17║諍佛二諦 故以二諦爲宗也 又[317]青目序品意
T45n1853_p0031b18║云 因緣卽是八不 八不卽是因緣 八不旣貫
T45n1853_p0031b19║論初 因緣亦標論首也 問 何以知八不卽是
T45n1853_p0031b20║因緣耶 答 偈及長行並[318]有文證 偈言者[319]能說是
T45n1853_p0031b21║因緣 卽能說八不因緣 長行云 說因緣相 所
T45n1853_p0031b22║謂不生不滅等也 問 八不是因緣 若[320]破因緣

---

307) 若 : 大乘玄論에는 없음.
308) 初 : 大乘玄論에는 없음.
309) 題 : 大乘玄論에는 없음.
310) 者 : 大乘玄論에는 流.
311) 故 : 大乘玄論에는 없음.
312) 佛 : 大乘玄論에는 없음.
313) 佛 : 필사본에는 없음.
314) 初題品 : 論初.
315) 二 : 大乘玄論에는 없음.
316) 二與不二教之與理 : 大乘玄論에는 教之與理二與不二.
317) 又 : 필사본에는 없음.
318) 並 : 필사본에는 없음.
319) 者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1b23 ║ 卽破八不 若申八不卽應申因緣耶[321] 答 若體
T45n1853_p0031b24 ║ 因緣卽是八不 無假須破 但外人不識因緣
T45n1853_p0031b25 ║ 卽是八不 其[322]八不自是眞諦 因緣自是世諦 彼
T45n1853_p0031b26 ║ 解因緣僻故[323] 所以破因緣品也 問 龍樹爲稱
T45n1853_p0031b27 ║ 佛敎申爲不稱敎申 若稱敎申者 佛前說小乘[324]
T45n1853_p0031b28 ║ 後說大乘[325] 今何故前明大後唱[326]小 若不稱敎申
T45n1853_p0031b29 ║ 卽是顚倒也 答 有四義 一龍樹稱佛本意申
T45n1853_p0031c01 ║ 佛敎也 所以者何 諸佛出世爲一大事因緣
T45n1853_p0031c02 ║ 故 說[327]一乘一[328]道 但爲淺鈍之[329]緣 故[330]曲爲小敎
今申
T45n1853_p0031c03 ║ 佛本意故 前申大也 二欲明中百兩論互[331]相
T45n1853_p0031c04 ║ 開避 百論則[332]前淺後深 中論則[333]前深後淺也 三佛
T45n1853_p0031c05 ║ 自前說小後說[334]大 中論自說大乘實也[335]不欲釋[336]
T45n1853_p0031c06 ║ 小 但爲外人不堪學大乘觀行故 龍樹[337]更爲
T45n1853_p0031c07 ║ 說小乘也 四欲示小乘從大乘中[338]出 是故前大

---

320) 若 : 필사본에는 없음.
321) 耶 : 필사본에는 也.
322) 其 : 大乘玄論에는 없음.
323) 故 : 필사본에는 없음.
324) 乘 : 大乘玄論에는 없음.
325) 乘 : 大乘玄論에는 없음.
326) 唱 : 大乘玄論에는 說.
327) 說 : 大乘玄論에는 謂.
328) 一 : 大乘玄論에는 없음.
329) 鈍之 : 필사본에는 之鈍.
330) 故 : 大乘玄論에는 없음.
331) 互 : 필사본에는 없음.
332) 則 : 大乘玄論에는 없음.
333) 則 : 大乘玄論에는 없음.
334) 說 : 大乘玄論에는 明.
335)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336) 釋 : 大乘玄論에는 說.
337) 龍樹 : 大乘玄論에는 論主.

T45n1853_p0031c08 ‖ 後小也 問 因緣語通 故生與不生皆是因緣

T45n1853_p0031c09 ‖ 八不但是不生 云何言因緣卽是八不也 答

T45n1853_p0031c10 ‖ 八不不生 此是因緣不生 故不生卽得生也

T45n1853_p0031c11 ‖ 故中論云 如經中說 若見因緣卽名見法也[339] 見

T45n1853_p0031c12 ‖ 法卽見佛也 若不見因緣 卽不見法 不見法

T45n1853_p0031c13 ‖ 亦[340]不見佛也 此是借因緣破不因緣 借不因緣破因緣[341] 也 故大

T45n1853_p0031c14 ‖ 經云 是諸外道 無有一法不從因緣生 佛性

T45n1853_p0031c15 ‖ 不爾 不從緣[342]生故 是借不因緣破因緣也 問

T45n1853_p0031c16 ‖ 佛性旣非因緣 是無因以不 答 亦得 故云涅

T45n1853_p0031c17 ‖ 槃無因而體是果 然佛性非因亦非是[343]果也 故

T45n1853_p0031c18 ‖ 中論具有兩[344]義 如破無因等外道計故 說十

T45n1853_p0031c19 ‖ 二因緣 此是借因破無因 又文中破四緣生

T45n1853_p0031c20 ‖ 故是借非因緣破因緣 至論正法 未曾是因

T45n1853_p0031c21 ‖ 緣非[345]因緣也 問 能說是因緣善滅諸戱論 與

T45n1853_p0031c22 ‖ 因緣所生法 兩[346]處因緣 是因緣[347]是同[348]是異 答

T45n1853_p0031c23 ‖ 旣云兩處 寧得是同 復是假名因緣 那得異

T45n1853_p0031c24 ‖ 而意同也 今大乘明因緣義 因者如依因習

T45n1853_p0031c25 ‖ 因生因等 並是說緣爲因 若如四緣等 皆是

---

338) 中 : 大乘玄論에는 없음.
339)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340) 亦 : 大乘玄論에는 卽.
341) 借不因緣破因緣 : 大乘玄論에는 없음.
342) 緣 : 大乘玄論에는 因.
343) 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344) 兩 : 大乘玄論에는 二.
345) 非 : 大乘玄論에는 及不.
346) 兩 : 大乘玄論에는 二.
347) 是因緣 : 필사본에는 없음.
348) 同 : 필사본에는 同異.

T45n1853_p0031c26║說因爲緣 若緣緣於因 因卽是緣 緣義爲因義349)

T45n1853_p0031c27║若因因於緣 緣義亦因350) 故因緣義通 而言八

T45n1853_p0031c28║不不生不滅等爲因緣〈義351)〉 但因緣義 無差別差

T45n1853_p0031c29║別開爲三義 一者當體得因緣名 只八不是

T45n1853_p0032a01║因緣故 何者352)因不生故不滅 不滅故不生 卽353)

T45n1853_p0032a02║八不是因緣 只八不不生等 是言說故無非

T45n1853_p0032a03║因緣故 云當相是因緣 名八不爲因緣354)佛八

T45n1853_p0032a04║不不一切故也 二者八不是因緣本故名因

T45n1853_p0032a05║緣 則因緣空壞因緣故 八不非因緣 旣八355)不

T45n1853_p0032a06║不一切不生不滅等 亦不因緣與不不因緣

T45n1853_p0032a07║豈得當體是因緣 是故因緣本也 三者破因

T45n1853_p0032a08║緣已得名 如毘曇辨六因等明諸法等也 今

T45n1853_p0032a09║明 八不不一切 辨無因緣法 破外道因緣義

T45n1853_p0032a10║故名因緣 然備有此三義 遂得悟不同 抑沒

T45n1853_p0032a11║不無淺深之異 而具有三義 名觀因緣品也

T45n1853_p0032a12║問〈能〉體說〈是〉356)因緣者 唯障邪說是戲論 邪觀亦是

T45n1853_p0032a13║戲論 答 有通有不通 何者 二而不二通 不二

T45n1853_p0032a14║而二則357)別也358) 問 若通者 邪觀亦是邪說不 答 旣未

T45n1853_p0032a15║邪言 云何是邪說 問 若未邪言未是邪說者

---

349) 義 : 大乘玄論에는 없음.
350) 因 : 필사본에는 緣.
351) 義 : 大乘玄論에는 없음.
352) 何者 : 필사본에는 者何.
353) 卽 : 大乘玄論에는 則.
354) 緣 : 필사본에는 없음.
355) 八 : 필사본에는 없음.
356) <能>體說<是> : 大乘玄論에는 能說.
357) 則 : 大乘玄論에는 없음.
358)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2a16 ‖ 亦未戲言未是戲論也 答 戲論是借譬之名

T45n1853_p0032a17 ‖ 故名[359]邪觀 於道無所尅[360]獲 如小兒戲論爲耳

T45n1853_p0032a18 ‖ 問 未邪說 已是戲論者 未正說〈論[361]〉 已是二諦是[362]
正說[363]經

T45n1853_p0032a19 ‖ 也 答 亦如前 無差別差別卽不得 差別無差

T45n1853_p0032a20 ‖ 別明之亦有之[364] 故[365]大經云 迦葉佛時 非無此經

T45n1853_p0032a21 ‖ 但不說耳 問 以不戲論止戲論 亦以戲論止

T45n1853_p0032a22 ‖ 戲論不 答 亦通得也 問 若以戲論止戲論[366]令

T45n1853_p0032a23 ‖ 不戲論 亦應以不戲論止不[367]戲論令成戲論

T45n1853_p0032a24 ‖ 反決也 答 兩途旣皆言止有[368]故 相與令息 故有[369]戲

T45n1853_p0032a25 ‖ 論止戲論 尙令不戲論 豈況不戲論止不[370]戲

T45n1853_p0032a26 ‖ 論 而令成戲論耶 問 旣以戲論止戲論 卽以

T45n1853_p0032a27 ‖ 言止言 答 得 自有以不聲遮聲 自有以聲遮

T45n1853_p0032a28 ‖ 聲也 問 若以言止言 亦應以[371]楔[372]出楔[373] 以病治病

T45n1853_p0032a29 ‖ 卽應以長待長也 答 相待論相成 就相顯發

T45n1853_p0032b01 ‖ 爲論 止治令有所去離有[374]故 此義卽通 所以不

---

359) 故名 : 필사본에는 없음.
360) 尅 : 大乘玄論에는 剋.
361) <論> : 大乘玄論에는 없음.
362) 二諦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363) 說 : 필사본에는 없음.
364) 明之亦有之 : 大乘玄論에는 亦有明之.
365) 故 : 필사본에는 없음.
366) 止戲論 : 필사본에는 없음.
367) 不 : 필사본에는 없음.
368)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369)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370) 不 : 필사본에는 없음.
371) 以 : 大乘玄論에는 없음.
372) 楔 : 大乘玄論에는 [扌+屑].
373) 楔 : 大乘玄論에는 [扌+屑].
374)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2b02 ‖ 例也 問 上云 常無常等四句並戲論者 四句
T45n1853_p0032b03 ‖ 悉非[375)]戲論不 答 有所得四句並是戲論 無所得
T45n1853_p0032b04 ‖ 方便說四句 悉非戲論 亦[376)]是正說 問 無所得
T45n1853_p0032b05 ‖ 四句非戲論者 亦應無所得顚倒非戲論也
T45n1853_p0032b06 ‖ 答 無所得假名說四句則便 假安顚倒則不
T45n1853_p0032b07 ‖ 便 何故爾 以衆生多顚倒少不顚倒故 若任
T45n1853_p0032b08 ‖ 而論之 正善具成就 演說四顚倒卽例[377)]也 問
T45n1853_p0032b09 ‖ 若爲[378)]有所得四句悉[379)]是戲論 無所得四句並非
T45n1853_p0032b10 ‖ 戲論耶 答 一往相對論 有[380)]常是戲論 無常非戲
T45n1853_p0032b11 ‖ 論 又無常是戲論 常非戲論 復常無常俱是
T45n1853_p0032b12 ‖ 戲論 非常非無常非戲論 總括始終明之 凡
T45n1853_p0032b13 ‖ 論相心四句 成有所得並是戲論 就後方便
T45n1853_p0032b14 ‖ 皆非戲論也 故反折論云五[381)]謗也
T45n1853_p0032b15 ‖ 第五辨單複中假義有三意 第一明單義論單
T45n1853_p0032b16 ‖ 複 第二論[382)]複義論單複 第三辨二諦單複義
T45n1853_p0032b17 ‖ 就初有兩 第一正明單複 第二論互得相出[383)]入
T45n1853_p0032b18 ‖ 也 今先正論單複中假義 若偏說假有不說
T45n1853_p0032b19 ‖ 無 是單假也 偏說假無不說有 亦是單假 偏
T45n1853_p0032b20 ‖ 說一非有 是單中 偏說一非無 亦是單中 雙
T45n1853_p0032b21 ‖ 說假有假無 是複假 雙論[384)]非有非無 是複中

---

375) 非 : 大乘玄論에는 없음.
376) 亦 : 필사본에는 없음.
377) 例 : 大乘玄論에는 倒.
378) 爲 : 大乘玄論에는 없음.
379) 悉 : 大乘玄論에는 皆.
380)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381) 五 : 大乘玄論에는 없음.
382) 論 : 大乘玄論에는 明.
383) 出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2b22 ║ 也 問 何意明單複句耶 答 凡有兩[385]義 一者一往

T45n1853_p0032b23 ║ 爲利根人說單假 爲鈍根人說複假 正言[386]利根人

T45n1853_p0032b24 ║ 者 聞一修行十 若聞說假有 卽[387]悟解假無 乃

T45n1853_p0032b25 ║ 至聞說非有 卽[388]解非無 所以不勞具明兩[389]

T45n1853_p0032b26 ║ 義也[390] 爲鈍根人隨言得解 若不具說 不能懸

T45n1853_p0032b27 ║ 悟故[391] 所以雙明兩[392]義也 二者爲鈍根人說單

T45n1853_p0032b28 ║ 假 爲利根人說複假 以鈍根人不堪圓教 所

T45n1853_p0032b29 ║ 以故[393]單義破其偏[394]執 若利根人堪人[395]聞圓旨 所

T45n1853_p0032c01 ║ 以爲[396]說複假[397]義 便能領持也 次明互得相入出

T45n1853_p0032c02 ║ 有八句 第一從單假入單中 或言假有不名

T45n1853_p0032c03 ║ 有 從有入非有 無亦然也 第二明從單中出

T45n1853_p0032c04 ║ 單假 或言非有假說有 非無假說無也 第三

T45n1853_p0032c05 ║ 明從複假入複中 假有不名有 假無不名無

T45n1853_p0032c06 ║ 卽[398]是有無入[399]非有非無 無亦然也 第四明從

T45n1853_p0032c07 ║ 複中出複假 明非有非無說有無 非無非有

T45n1853_p0032c08 ║ 說無有也 第五明從單假入複中 或言 有入

---

384) 論 : 大乘玄論에는 說.
385) 兩 : 大乘玄論에는 二.
386) 正言 : 大乘玄論에는 없음.
387) 卽 : 大乘玄論에는 則.
388) 卽 : 大乘玄論에는 則.
389) 兩 : 大乘玄論에는 有二.
390) 也 : 필사본에는 없음.
391) 故 : 필사본에는 없음.
392) 兩 : 大乘玄論에는 二.
393) 故 : 大乘玄論에는 說.
394) 偏 : 大乘玄論에는 病.
395) 人 : 大乘玄論에는 없음.
396) 爲 : 大乘玄論에는 없음.
397) 假 : 필사본에는 없음.
398) 卽 : 大乘玄論에는 則.
399) 有無入 : 필사본에는 없음.

T45n1853_p0032c09 ‖ 非有非無 無入非無非有也 第六明從複中
T45n1853_p0032c10 ‖ 出單假 或言 非有非無假說有 非無非有假
T45n1853_p0032c11 ‖ 說無也 第七明從複假入單中 有無卽[400]非有
T45n1853_p0032c12 ‖ 無有卽[401]非無也 第八明從單中出複假 非有
T45n1853_p0032c13 ‖ 假說有不有 非無假說無不無也 次釋所以
T45n1853_p0032c14 ‖ 然者有二義 一者破衆生執實之病 隨計隨[402]遣
T45n1853_p0032c15 ‖ 所以遂成多句也 二者明大士觀行 融通自
T45n1853_p0032c16 ‖ 在無有滯碍 故地持云 從有無方便 入非有
T45n1853_p0032c17 ‖ 非無也 華嚴經云 或東方入正受三昧等 不
T45n1853_p0032c18 ‖ 復具出 又[403]大品經云 或散心中起入滅盡定
T45n1853_p0032c19 ‖ 滅盡定起入散心中 卽[404]是廻轉總持入出無
T45n1853_p0032c20 ‖ 碍方便也 第二就複義論單複 複[405]有兩[406] 初正
T45n1853_p0032c21 ‖ 明單複 後明出入義 初正明單複中假 假有
T45n1853_p0032c22 ‖ 是世諦 假無是眞諦 此是單假 非有非無是
T45n1853_p0032c23 ‖ 中道也[407] 此是單中 假有假無爲二是俗諦複
T45n1853_p0032c24 ‖ 假[408] 非有非無不二是俗諦複中 二不二是眞
T45n1853_p0032c25 ‖ 諦[409] 是複假 非二非不二是中道 此是複中 正
T45n1853_p0032c26 ‖ 言非二非不二 盡有無非有非無 所以是[410]中
T45n1853_p0032c27 ‖ 也 次釋[411]其所以有此[412]義 一往爲言 單中單假

---

400) 卽 : 大乘玄論에는 則.
401) 卽 : 大乘玄論에는 則.
402) 隨 : 大乘玄論에는 없음.
403) 又 :필사본에는 없음.
404) 卽 : 大乘玄論에는 則.
405) 複 : 필사본에는 없음.
406) 兩 : 大乘玄論에는 二.
407) 也 : 필사본에는 없음.
408) 複假 : 필사본에는 없음.
409) 複中二不二是眞諦 : 필사본에는 없음.
410) 是 : 大乘玄論에는 正.

T45n1853_p0032c28 ‖ 明義則淺 複中複假明義則深也[413] 所以然

T45n1853_p0032c29 ‖ 者 單之義明二諦[414] 至複義時 還成[415]俗諦 單家之中

T45n1853_p0033a01 ‖ 道 至複義時 還成眞諦 單家之中道 正遣[416]有無二[417]

T45n1853_p0033a02 ‖ 未能遣[418]不二 複家之中道 遣[419]二復遣[420]不二也

T45n1853_p0033a03 ‖ 二者單明義則勝 複明義飜劣 所以然者 複

T45n1853_p0033a04 ‖ 假之有無 猶是單假之有義 複假之非有非

T45n1853_p0033a05 ‖ 無 猶是前單假之無義也[421] 又[422]複中之非二非

T45n1853_p0033a06 ‖ 不二 猶是前單中之非有非無義也 但前直言

T45n1853_p0033a07 ‖ 有 便攝得有無 止言無 便攝得非有非無 止

T45n1853_p0033a08 ‖ 言非有非無 便攝得非二非不二 言略意廣 所

T45n1853_p0033a09 ‖ 以爲勝 複家中假 言廣意略 所以爲劣也 後

T45n1853_p0033a10 ‖ 明互得相出入有八句也 第一從單假入單

T45n1853_p0033a11 ‖ 中 假有不名有 假無不名無 入非有非無中

T45n1853_p0033a12 ‖ 道也 第二從單中出單假 非有假說有爲俗

T45n1853_p0033a13 ‖ 非無假說無爲眞也 第三明[423]從複假入複中 假二

T45n1853_p0033a14 ‖ 不名二 假不二不名不二 入[424]非二非不二中道

T45n1853_p0033a15 ‖ 也 第四從複中出複假 非二假說二爲俗 非

---

411) 釋 : 大乘玄論에는 明.
412) 此 : 大乘玄論에는 二.
413) 也 : 필사본에는 없음.
414) 之義明二諦 : 大乘玄論에는 義之二諦.
415) 成 : 大乘玄論에는 없음.
416) 正遣 : 大乘玄論에는 止.
417) 二 : 大乘玄論에는 없음.
418) 遣 : 大乘玄論에는 盡.
419) 遣 : 大乘玄論에는 盡.
420) 遣 : 大乘玄論에는 盡.
421) 也 : 필사본에는 없음.
422) 又 : 필사본에는 없음.
423) 明 : 大乘玄論에는 없음.
424) 入 : 필사본에는 없음.

T45n1853_p0033a16 ‖ 不二假說不二爲眞也 第五從單假入複中 假
T45n1853_p0033a17 ‖ 有不名二 假無不名不二 從假有無入非二非
T45n1853_p0033a18 ‖ 不二中道也 第六從複中出單假 非二假說
T45n1853_p0033a19 ‖ 有爲俗 非不二假說無爲眞也 第七從複假
T45n1853_p0033a20 ‖ 入單中 假二不名有 假不二不名無 從二不二
T45n1853_p0033a21 ‖ 入非有非無也 第八從單中出複假 非有假
T45n1853_p0033a22 ‖ 說二爲俗 非無假說不二爲眞也 第三就二
T45n1853_p0033a23 ‖ 諦論單複 復有二 一正明單複[425]義 二論出入
T45n1853_p0033a24 ‖ 義 正明復有兩 一者俗單複也[426] 二者眞單複也
T45n1853_p0033a25 ‖ 假有是俗諦[427]單 假無是眞諦[428]單也 複假者 假有假
T45n1853_p0033a26 ‖ 不有是俗諦複假[429] 假無假不無是眞諦複假[430] 非有
T45n1853_p0033a27 ‖ 爲中道也[431] 此[432]是俗諦單中 非無爲中道 此[433]是眞諦單
T45n1853_p0033a28 ‖ 中 非有非不有 是俗諦複中 非無非不無 是
T45n1853_p0033a29 ‖ 眞諦複中也 第二互明[434]出入有三 一明俗 二
T45n1853_p0033b01 ‖ 明眞 三明交絡 先約世諦明有八句也[435] 第一從
T45n1853_p0033b02 ‖ 俗諦單假 入俗諦單中 假有不名有 卽是[436]從有
T45n1853_p0033b03 ‖ 入非有也 第二從俗諦單中 出俗諦[437]單假 非
T45n1853_p0033b04 ‖ 有假[438]說爲有也 第三從俗諦[439]複假 入俗諦[440]複中 假有

425) 單複 : 필사본에는 없음.
426)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427) 諦 : 大乘玄論에는 없음.
428) 諦 : 大乘玄論에는 없음.
429) 假 : 大乘玄論에는 없음.
430) 假 : 大乘玄論에는 없음.
431)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432) 此 : 大乘玄論에는 없음.
433) 此 : 大乘玄論에는 없음.
434) 互明 : 大乘玄論에는 明互.
435)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436) 是 : 大乘玄論에는 없음.
437) 諦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3b05 ‖ 假不有 非有非不有也 第四從俗諦複中 出

T45n1853_p0033b06 ‖ 俗諦複假 云非有非不有假說有不[441]有也 第

T45n1853_p0033b07 ‖ 五從俗諦單假 入複中 假有非有 假有[442]非

T45n1853_p0033b08 ‖ 不有也 第六從俗諦複中 出單假 非有非不

T45n1853_p0033b09 ‖ 有說爲一假有也 第七從俗諦複假 入單中

T45n1853_p0033b10 ‖ 假有不有入於非有也 第八從俗諦單中 出複

T45n1853_p0033b11 ‖ 假 非有假說有不有也 第二就眞諦辨亦有

T45n1853_p0033b12 ‖ 八句 第一從眞諦單假 入單中 假無不名無

T45n1853_p0033b13 ‖ 也 第二從眞諦單中 出單假 非無假說無也

T45n1853_p0033b14 ‖ 第三從眞諦複假 入複中 云假無假不無 非

T45n1853_p0033b15 ‖ 無非不無也 第四從眞諦複中 出複假 云非

T45n1853_p0033b16 ‖ 無非不無 假說無不無也 第五已[443]從眞諦單假

T45n1853_p0033b17 ‖ 入複中 假無非無 假無[444]非不無也 第六從眞

T45n1853_p0033b18 ‖ 諦複中 出單假 云非無非不無假說爲無也

T45n1853_p0033b19 ‖ 第七從眞諦複假 入單中 云假無假[445]不無入一

T45n1853_p0033b20 ‖ 非無也 第八從眞諦單中 出複假 云非無假

T45n1853_p0033b21 ‖ 說無不無也 第三約二諦交絡明出入 有十

T45n1853_p0033b22 ‖ 二句 第一從俗諦單假 入眞諦單中 云假有

T45n1853_p0033b23 ‖ 不名無 壞有入非無也 第二從眞諦單中 出

T45n1853_p0033b24 ‖ 俗諦單假 云非無不乖有 非無假說有也 第

T45n1853_p0033b25 ‖ 三從眞諦單假 入俗諦單中 云假無不名有

---

438) 非有假 : 大乘玄論에는 假非有.
439) 諦 : 大乘玄論에는 없음.
440) 諦 : 大乘玄論에는 없음.
441) 不 : 大乘玄論에는 非.
442) 假有 : 필사본에는 없음.
443) 已 : 大乘玄論에는 없음.
444) 假無 : 필사본에는 없음.
445) 假 : 필사본에는 없음.

T45n1853_p0033b26║壞無入非有也 第四從俗諦單中 出眞諦單

T45n1853_p0033b27║假 云非有不乖無 非有假說無也 第五從俗

T45n1853_p0033b28║諦[446]複假 入眞諦[447]複中 云假有假[448]不有入非無非不

T45n1853_p0033b29║無也 第六從眞諦[449]複中 出俗諦[450]複假 云非無

T45n1853_p0033c01║非不無假說有不有也 第七從眞諦[451]複假 入

T45n1853_p0033c02║俗諦[452]複中 云假無假不無 非有非不有也 第

T45n1853_p0033c03║八從俗諦[453]複中 出眞諦[454]複假 云非有非不有

T45n1853_p0033c04║假說無不無也[455] 第九從眞諦[456]單假 入俗諦[457]複中

T45n1853_p0033c05║云假無不名有 亦不名不有 卽是非有非不

T45n1853_p0033c06║有也 第十從俗諦[458]複中 出眞諦[459]單假 云非有

T45n1853_p0033c07║非不[460]有假說有[461]爲無也 第十一從俗諦[462]單假 入

T45n1853_p0033c08║眞諦[463]複中 云[464]假有不名無 亦不名不無 則是

T45n1853_p0033c09║非無非不無也 第十二從眞諦[465]複中 出俗諦[466]

---

446)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47)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48) 假 : 大乘玄論에는 없음.
449)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50)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51)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52)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53)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54)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55) 也 : 大乘玄論에는 없음.
456)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57)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58)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59)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60) 非不 : 筆寫本에는 不非.
461)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462)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63)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64) 云 : 필사본에는 없음.
465) 諦 : 필사본에는 없음.
466) 諦 : 필사본에는 없음.

T45n1853_p0033c10 ‖ 單假 云非無非不無假說無[467])爲有也

T45n1853_p0033c11 ‖ 第六料簡不有有也[468]) 若了單複諸句 則解不

T45n1853_p0033c12 ‖ 有有義 若不了單複 不有有亦難解 故須廣

T45n1853_p0033c13 ‖ 辨也 不有有義相對而解釋有十六意也 第一不有有者 明其道非有非無而結爲有 故言不有有[469]) 此意望兩大經宗明之 一經無所有爲

T45n1853_p0033c14 ‖ 宗 故經[470])云 正法寶城善有 一經有所無爲宗

T45n1853_p0033c15 ‖ 故經云 以不住法住般若波羅蜜不二[471]) 故大品經[472])第三卷相行品末[473]) 身子白佛云[474]) 諸法

T45n1853_p0033c16 ‖ 實相云何有[475]) 佛言 諸法無所有 如是有如是無

T45n1853_p0033c17 ‖ 所有 是事不知名爲之[476])無明也 不有有義[477])相對

T45n1853_p0033c18 ‖ 而解釋 有十六意也 第一不有有[478])者 明其道

T45n1853_p0033c19 ‖ 非有非無 而結爲有 故言不有有也 然此[479])只結

T45n1853_p0033c20 ‖ 正道爲有 不論其用 體無二相故 若結爲有

T45n1853_p0033c21 ‖ 不得結爲無 結爲無不得結爲有 此是結獨

T45n1853_p0033c22 ‖ 義 只道非有復非無 非是有而結爲有故 言

T45n1853_p0033c23 ‖ 不有有也 約不無無類然也 第二不有有 就

---

467) 無 : 大乘玄論에는 없음.
468) 也 : 필사본에는 없음.
469) 不有有義相對而解釋有十六意也 第一不有有者 明其道非有非無而結爲有故言不有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470) 經 : 필사본에는 없음.
471) 故經云以不住法住般若波羅蜜不二 : 大乘玄論에는 없음.
472) 經 : 大乘玄論에는 없음.
473) 末 : 大乘玄論에는 云.
474) 云 : 필사본에는 없음.
475)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476) 之 : 大乘玄論에는 없음.
477) 義 : 大乘玄論에는 若.
478) 有 : 필사본에는 없음.
479) 此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3c24 ║ 假上明之 三[480]假有是不有有也[481] 他假有是有
T45n1853_p0033c25 ║ 故有[482] 今假有是不有有也 第三不有有者 道
T45n1853_p0033c26 ║ 非有非無 而側出有一用 故言不有有 然道
T45n1853_p0033c27 ║ 非有非無 而起用應雙起 而但起一用有[483] 故言
T45n1853_p0033c28 ║ 側出也 不無無亦然也 第四不有有者 明用
T45n1853_p0033c29 ║ 假有非是有 故言不有 結用歸體 體是有故
T45n1853_p0034a01 ║ 今言不有有也[484] 此異前約體上言不有有 亦
T45n1853_p0034a02 ║ 異第三體不有[485]是有而起一有[486]用 此但以不
T45n1853_p0034a03 ║ 特名用 用不是有而體是有故 言不有有也
T45n1853_p0034a04 ║ 不無無類也[487] 第五不有有者 爲破有執故 執
T45n1853_p0034a05 ║ 者謂有是有 不知不有爲有故 今破者 明有
T45n1853_p0034a06 ║ 非有[488]故有乃是不有有 此故[489]是以有破有 但能
T45n1853_p0034a07 ║ 破是不有有 所破是有有也 約不無無亦[490]類也
T45n1853_p0034a08 ║ 第六不有有者 爲破無執 執者[491]執法是無 今以不
T45n1853_p0034a09 ║ 有[492]破之 若以有有破無 此乃是敵義 故執
T45n1853_p0034a10 ║ 不去 今以不有有破無 無而得去 故言不有
T45n1853_p0034a11 ║ 有也 不無無亦爾也 第七不[493]有有者 破一切

---

480) 三 : 필사본에는 없음.
481) 也 : 필사본에는 없음.
482) 故有 : 필사본에는 有故.
483)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484) 也 : 필사본에는 없음.
485) 有 : 필사본에는 없음.
486) 一有 : 필사본에는 없음.
487) 也 : 大乘玄論에는 之.
488) 有 : 필사본에는 有有.
489) 故 : 大乘玄論에는 없음.
490) 亦 : 大乘玄論에는 없음.
491) 執者 : 大乘玄論에는 없음.
492) 有 : 大乘玄論에는 有有.
493) 不 : 필사본에는 없음.

T45n1853_p0034a12 ‖ 有 若有有若不有有 悉[494]以不特不之 故言不
T45n1853_p0034a13 ‖ 有 而起一切有用 若有有若不有有爲用故
T45n1853_p0034a14 ‖ 合言不有有也[495] 不無無亦類也 以不特不一
T45n1853_p0034a15 ‖ 切無故言不無 而起一切無爲用故 合言[496]不無
T45n1853_p0034a16 ‖ 無也 第八不有有者 重進明義 明不有則不
T45n1853_p0034a17 ‖ 一切有一切無 合空有[497]故言不有 而起一切有
T45n1853_p0034a18 ‖ 一切無爲用故 合言不有有 不無無亦然[498]也
T45n1853_p0034a19 ‖ 不無以不[499]於一切有無故言不無 而起一切
T45n1853_p0034a20 ‖ 有一切[500]無 故言不無無 然起一切有無用 此用應
T45n1853_p0034a21 ‖ 是有 何得言是無 然今望本爲言 此有無起
T45n1853_p0034a22 ‖ 不有無故此有無 故是無也 又從他所起皆
T45n1853_p0034a23 ‖ 無體故是無也 第九不有有者 橫門明義 明有不
T45n1853_p0034a24 ‖ 自有[501] 以無爲有故言不有有 然以無爲有
T45n1853_p0034a25 ‖ 故 是以不有爲有 故言不有有 有而以[502]不無無亦類
T45n1853_p0034a26 ‖ 之[503] 以有爲無故言不無無也 第十不有有者
T45n1853_p0034a27 ‖ 只以不特不此有有之有[504]故言不有有 異前合
T45n1853_p0034a28 ‖ 用不有有破有有 亦異前以不特不於[505]一切有合
T45n1853_p0034a29 ‖ 無 以起一切有無故言不有有 今但單用一

494) 悉 : 大乘玄論에는 皆.
495) 也 : 필사본에는 없음.
496) 言 : 大乘玄論에는 없음.
497)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498) 然 : 大乘玄論에는 爾.
499) 不 : 필사본에는 不不.
500) 一切 : 大乘玄論에는 없음.
501) 明有不自有 : 大乘玄論에는 義不有自.
502) 有而以 : 大乘玄論에는 없음.
503) 之 : 大乘玄論에는 也.
504)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505) 持不於 : 大乘玄論에는 特.

T45n1853_p0034b01 ‖ 不特 不此有有之執 令盡而不令起故言不
T45n1853_p0034b02 ‖ 有有也 不無無亦然[506] 第十一不有有者 合
T45n1853_p0034b03 ‖ 明具八意 何者爲八意 一不有有屬非有 一
T45n1853_p0034b04 ‖ 不有有屬非無 一不有有屬非亦有亦無 一
T45n1853_p0034b05 ‖ 不有有屬非非有非非無 一不有有屬有 一
T45n1853_p0034b06 ‖ 不有有屬無 一不有有屬亦有亦無 一不有
T45n1853_p0034b07 ‖ 有屬非有非無 何者初言不有有 豈可是有
T45n1853_p0034b08 ‖ 非是有故屬非有也 第二不有有不是無故
T45n1853_p0034b09 ‖ 屬非無 第三不有有旣不是有無故 不屬亦
T45n1853_p0034b10 ‖ 有亦無 故言屬非亦有亦無 第四不有有不
T45n1853_p0034b11 ‖ 屬非有無 故言屬非非有非非無 然不有有
T45n1853_p0034b12 ‖ 乃[507]當屬有無二句 豈是非有無 故言非非有
T45n1853_p0034b13 ‖ 非非無也 第五明[508]不有有屬有者 以不有爲有
T45n1853_p0034b14 ‖ 豈不是有耶 第六明[509]不有有屬無者 只以不有
T45n1853_p0034b15 ‖ 爲有 此望本故是無也 第七不有有屬亦有
T45n1853_p0034b16 ‖ 亦無者 旣雙明不有有 豈不是亦有亦無耶
T45n1853_p0034b17 ‖ 第八不有有屬非有非無者 不有有不名有
T45n1853_p0034b18 ‖ 不有有不名無 故名非有非無 故此一第十[510]章門
T45n1853_p0034b19 ‖ 中合明八意 正爲八意相次第故 〈今合前八意爲一不有有〉[511]
不煩離明
T45n1853_p0034b20 ‖ 而前明[512]十章不可合說 故離辨也 不無無亦如
T45n1853_p0034b21 ‖ 是也 第十二明不有有兼用者 不有有故離

---

506) 然 : 大乘玄論에는 爾也.
507) 乃 : 大乘玄論에는 廼.
508) 明 : 大乘玄論에는 없음.
509) 明 : 大乘玄論에는 없음.
510) 第十 : 大乘玄論에는 없음.
511) <今合前八意爲一不有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512) 明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4b22 ‖ 斷過 何者 若不有不有[513]不復有可量[514]是斷 而今不有
T45n1853_p0034b23 ‖ 有故離斷過 亦離常過者 若以有爲有可是
T45n1853_p0034b24 ‖ 常過 而今以[515]不有爲有 故離常過 如是一異
T45n1853_p0034b25 ‖ 有無是非卽離等過 皆勉也 不無無亦爾也
T45n1853_p0034b26 ‖ 第十三不有有若[516]攝諸法者 不有有攝得因
T45n1853_p0034b27 ‖ 果得[517]一切法等故 言不有有也 不無無亦類此[518]
T45n1853_p0034b28 ‖ 也 第十四不有有類諸法者 不有有旣具上
T45n1853_p0034b29 ‖ 十意八意及相益相攝等 不因因不果果 如
T45n1853_p0034c01 ‖ 是不常常不生生等 雖<唯>[519]一法皆具上意 故可
T45n1853_p0034c02 ‖ 謂 是一中解無量 無量中解一 如是展轉生
T45n1853_p0034c03 ‖ 非實知[520]者 卽[521]無所畏也 第十五不有有得失
T45n1853_p0034c04 ‖ 意者 如經試問答 〈若〉[522]言諸法不有有則[523]爲得 則[524]
T45n1853_p0034c05 ‖ 具五義 一得不二義 二得不自假名義 三得
T45n1853_p0034c06 ‖ 相待義 四得無所得空義 五得中道義也 若
T45n1853_p0034c07 ‖ 答者言諸法是有爲有者 卽失五義故 不有
T45n1853_p0034c08 ‖ 有判道非道義也 不無無亦類也 第十六不
T45n1853_p0034c09 ‖ 有有離門明義者 向合言不有有 今有時復
T45n1853_p0034c10 ‖ 須單言不有 有時應須單言有也 今此中單
T45n1853_p0034c11 ‖ 言不有者 此爲欲明有義 何者 我以不不此

---

513) 不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514) 量 : 大乘玄論에는 없음.
515) 以 : 大乘玄論에는 只.
516) 若 : 필사본에는 없음.
517) 果得 : 大乘玄論에는 得果.
518) 類此 : 大乘玄論에는 然.
519) <唯> : 大乘玄論에는 없음.
520) 知 : 大乘玄論에는 智.
521) 卽 : 필사본에는 없음.
522) <若> : 大乘玄論에는 없음.
523) 則 : 大乘玄論에는 卽.
524) 則 : 大乘玄論에는 卽.

T45n1853_p0034c12 ‖ 有 不以不此無故 不有得是有也 若以不不

T45n1853_p0034c13 ‖ 於可[525]無 量是令無[526] 而今如世人 以莊嚴具 莊嚴於人 不可此人爲非人 以莊嚴具莊嚴人 人猶名之 故今以不持莊嚴有而有[527] 以不不有故 只不有是

T45n1853_p0034c14 ‖ 有[528] 事如小乘明義 色卽[529]是好 不可此色非好

T45n1853_p0034c15 ‖ 也 故得不有是有義 得此義故 聞破不畏 得

T45n1853_p0034c16 ‖ 訶不瞋等也 次得言有反成破有義 何者 我

T45n1853_p0034c17 ‖ 本破有故言有 如世人不耐惡而言惡 此惡

T45n1853_p0034c18 ‖ 之言 豈不令除此惡 今有亦然 我不耐此有

T45n1853_p0034c19 ‖ 故言有 豈不破此耶[530] 又直言有 不說有因緣

T45n1853_p0034c20 ‖ 故 是破有義 單言無亦然 次〈此〉[531]單言〈言〉[532]有卽[533] 是中

T45n1853_p0034c21 ‖ 道 不得言非有[534]方是中道也 何者 直言有 此

T45n1853_p0034c22 ‖ 非是非有亦〈非〉[535]是有[536] 此有旣非是[537]有 復非

T45n1853_p0034c23 ‖ 非有 豈不[538]是中道乎 又有上有[539]自有是非 我直

T45n1853_p0034c24 ‖ 言有不言其是 復不言非 故〈言〉[540]此有則[541]離是非

---

525) 可 : 大乘玄論에는 없음.
526) 量是令無 : 大乘玄論에는 可令是無.
527) 如世人以莊嚴具莊嚴於人 不可此人爲非人 以莊嚴具莊嚴人 人猶名之 故今以不持莊嚴有而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528) 有 : 필사본에는 없음.
529) 卽 : 필사본에는 없음.
530) 耶 : 필사본에는 有.
531) <此> : 大乘玄論에는 없음.
532) <言> : 大乘玄論에는 없음.
533) 卽 : 大乘玄論에는 則,
534) 非有 : 大乘玄論에는 非有.
535) <非> : 大乘玄論에는 없음.
536) 有 : 大乘玄論에는 有有.
537) 是 : 大乘玄論에는 是是
538) 不 : 大乘玄論에는 非.
539) 有 : 大乘玄論에는 없음.

T45n1853_p0034c25 ‖ 故是中道 若有雖離是非 而有此有[542]故非中
T45n1853_p0034c26 ‖ 道者 汝中道雖離有無而有此中故得是中
T45n1853_p0034c27 ‖ 道者 何妨我有離是非故得是中道耶 且自
T45n1853_p0034c28 ‖ 我直言有亦不言有此有 知無此有故言是
T45n1853_p0034c29 ‖ 中道 單無亦然 次單明有具足一切諸法 何
T45n1853_p0035a01 ‖ 者 此有是無所有故 若有所無則[543]失一切法
T45n1853_p0035a02 ‖ 今是無所有名有 故具足一切法也 單言無
T45n1853_p0035a03 ‖ 亦然 但是無所得故言無 此無豈不具足一
T45n1853_p0035a04 ‖ 切法耶 次釋性空意者 然有無所以得有諸
T45n1853_p0035a05 ‖ 法 意無碍者正由有性空故爾 今須釋性空
T45n1853_p0035a06 ‖ 亦是多意 但辨八意也[544] 一者明本性是空 但
T45n1853_p0035a07 ‖ 遇緣故有 有止還本性 故言性空也 二者明
T45n1853_p0035a08 ‖ 本性是空 而是末[545]假有 如是意故性空也 三
T45n1853_p0035a09 ‖ 者本性常空 無有不空時故言性空也 四者
T45n1853_p0035a10 ‖ 明只因緣諸法是空故 言性空也 五者破性
T45n1853_p0035a11 ‖ 有得此空故 言性空也 六者破無性法 此法
T45n1853_p0035a12 ‖ 明止空有性故 言性空也 七者明無所有法
T45n1853_p0035a13 ‖ 性是空故 言性空也 八者有所無法性空故
T45n1853_p0035a14 ‖ 言性空也 今略明八意異相 而大意無異 但
T45n1853_p0035a15 ‖ 是一性空 如是諸法性空隨義便用 用一則[546]
T45n1853_p0035a16 ‖ 度[547]之須得意 如空中織羅紋[548]也 性空既爾 畢

---

540) <言> : 大乘玄論에는 없음.
541) 則 : 大乘玄論에는 卽.
542) 有 : 필사본에는 없음.
543) 則 : 大乘玄論에는 卽.
544) 也 : 필사본에는 없음.
545) 是末 : 大乘玄論에는 末是.
546) 則 : 大乘玄論에는 卽.
547) 度 : 필사본에는 癈.

T45n1853_p0035a17 ‖ 竟空[549]亦爾[550] 次明因性空辨得失待不待義也[551] 失

T45n1853_p0035a18 ‖ 此性空故失 失[552]不待得 得性空故爲得 得卽

T45n1853_p0035a19 ‖ 待失 何者正爲得失反故 失旣失得 故失不

T45n1853_p0035a20 ‖ 待得 得者得於失 故得待失 此分際義也 第

T45n1853_p0035a21 ‖ 一須得意 最急事也[553] 如中道絶假故不待假

T45n1853_p0035a22 ‖ 假不絶故假待中也 次辨歛開[554]意 然得失由

T45n1853_p0035a23 ‖ 歛開故須釋也 但歛開自有橫竪 判自有兩[555]

T45n1853_p0035a24 ‖ 望取之[556] 橫開爲能 竪卽歛 菩薩習行諸行

T45n1853_p0035a25 ‖ 望道卽是自行是歛 若望衆生 卽是化他亦

T45n1853_p0035a26 ‖ 是能 但不[557]化他時 是化他 只自行卽是化他

T45n1853_p0035a27 ‖ 如是不有有 有病藥相治去留成壞[558]理內外

T45n1853_p0035a28 ‖ 有得無得反順等種種用 不可具列也[559] 大意

T45n1853_p0035a29 ‖ 如斯[560]也 問 旣有不有有多種勢者 有不有亦

T45n1853_p0035b01 ‖ 多種勢不 答 亦得 假有還結有不有也 又假

T45n1853_p0035b02 ‖ 有不有表理結體[561]也 餘例可尋之[562]也

T45n1853_p0035b03 ‖ 大乘玄義八不卷第二[563]

---

548) 紋 : 필사본에는 없음.
549) 空 : 大乘玄論에는 없음.
550) 爾 : 大乘玄論에는 然.
551) 也 : 필사본에는 없음.
552) 失 : 필사본에는 없음.
553) 也 : 필사본에는 없음.
554) 歛開 : 필사본에는 開歛.
555) 兩 : 大乘玄論에는 二.
556) 之 : 大乘玄論에는 也.
557) 但不 : 필사본에는 不但.
558) 壞 : 필사본에는 懷.
559) 也 : 필사본에는 없음.
560) 斯 : 大乘玄論에는 此.
561) 體 : 필사본에는 能.
562) 之 : 大乘玄論에는 없음.
563) 大乘玄義八不卷第二 : 필사본에 의함. 大乘玄論에는 大乘玄論卷第二(終).

◉大乘四論玄義記

二諦義

일•러•두•기

1. 이 <二諦義>의 교감본은 2종의 필사본 (京都大學소장본과 龍谷大學소장본)과 續藏經本을 비교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2. 세 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비교적 원본에 가깝게 본문을 재구성하고 각 본의 차이를 注에 제시하였다. (京)은 京都大學소장본, (龍)은 龍谷大學소장본, (續)은 續藏經本을 가리킨다.

3. 丈과 行은 필사본에 의거하였다. 필사본의 전면(우측면)을 a, 뒷면(좌측면)을 b로 표시하였다. 즉, 1a는 첫 번째 丈의 우측면, 1b는 첫 번째 丈의 좌측면이다. 대조를 위하여 續藏經本의 페이지와 시작 부분도 아울러 표시하였다.

4. 일부 한자는 편의상 異體字나 略字를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바꾸어 활자화하였다. (예 : ⺾卅→菩薩, 為→爲, 即→卽, 既→旣 真→眞, 擧→擧, 関·閞→關, 咲→笑, 躰→體, 导→碍, 踈→疏, 尔→爾, 弥→彌, 无→無, 称·秤→稱, 応→應, 仏→應, 与→與, 尽→盡, 旧→舊, 号→號 등)

5. 行 사이에 추가로 적은 글자는 < > 안에 집어넣었다.

6.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續36下 大乘三論玄義記卷第五[1)]

[1a] 二諦[2)]義有十重 第一明大意 第二明釋名 第三論立名
第四明有無 第五辨觀行[3)] 第六論相卽 第七明體相
第八辨絶名 第九明攝法 第十明同異

第一明大意 二諦者 實是非前非後 復非一時 豈有
重數 但對破開善寺十重 故無差別差別 十重釋之
解二諦大意 置[4)]師辭不同 略有五家 有所得成實論
小乘師 第一光宅寺雲法師云 二諦者 乃是聖敎之
幽宗 靈智之淵府也 〈第〉二莊嚴寺旻法師云 二諦者 蓋
是却惑之勝境 入道之要津也 第三開善寺藏法師
[1b] 云 二諦者 蓋是法性之旨歸 一眞不二之極理也 第
四宗[5)]國北多寶寺 廣州大亮法師云 二諦者 蓋是言
敎之通詮 相待之假稱 非[6)]窮宗之實目[7)]也 第五攝嶺
西霞寺無所得三論大意[8)]大師詮法師云 二諦者 蓋
是表理之極說 文言之妙敎 體非有無 有無不乖[9)]於
體 理非一二 一二不違於理之[10)] 今依大師說 所言眞
37上 俗二諦[11)]者 卽是有無 有無共顯一道 佛隨緣說 |有無
二敎 貫於衆經 華嚴經有十重二諦十種四諦等 菩薩

---

1) 大乘三論玄義記卷第五 : 필사본들에 의함. (續)은 大乘四論玄義記卷第五.
2) 諦 : (京)에는 論.
3) 觀行 : 본문에서는 第五 단락의 주제가 中道로 되어 있다.
4) 置 : 諸의 誤字?
5) 宗 : 宋의 誤字.
6) 非 : 能?
7) 目 : (續)에는 因.
8) 意 : 필사본들에는 師로 적은 것을 意로 수정하였음.
9) 乖 : (續)에는 永, 필사본들은 永과 비슷한 글자[諦-1]이지만, 내용상 乖로 판독됨.
10) 之 : 也의 誤字?
11) 諦 : (京)에는 論.

瓔珞本業經十卷云 世諦有故不空 眞諦空故不有
以有於凡是有故不空 以無於聖是空故不有 有卽
[2a] 是世諦 無卽是眞諦 所以隨二緣 故說於二諦 大經
中文殊問云 世諦之中有第一義諦不 第一義中有
世諦不 如其有者[12] 卽是一諦 如其無者 將非如來虛
妄說耶 佛答云 世諦者 卽是第一義諦 但有善方便
隨順衆生 說有二諦 所以明眞俗二諦者 欲有所表
故 有表不有 表無[13]不無 所以非有非無 是所表之道
有無二諦 是能表之敎 敎能表理 理能應敎 敎理〈相〉稱
故名如是 故經云 一切有無法 了達非有非無 不著[14]
不二法 〈以〉無一二故 華嚴經云 諸佛聖主道 微妙甚難
解 非思量境界 唯智者行處 此明無所得二諦 非二
[2b] 乘凡夫境界 乃是佛菩薩行處 雖非凡夫二乘境界 而
亦可得聖凡境界 雖言是佛菩薩行處 而非有所得佛
菩薩行處 故大經云 有所得者 名爲無明 無所得者 名
37下 爲智慧 乃至有所得者是二乘 無所得者是大乘 有
所得者 名爲卄五有 無所得者 是大涅槃 有所得者
無道無果 無所得者 有道有果也 大品三慧品云 諸
有二者 名爲有所得 無有二者 名爲無所得 何等爲
二 所謂眼色爲二 若言眼爲能見 便成異於色 色爲
所見 必殊於眼等 卽名爲有所得也 若成論家義 有
亦是有 無亦是無 故以三□[15]有爲俗 卽物之無爲眞

12) 者 : 필사본들에는 此로 적은 것을 者로 수정하였음.
13) 表無 : 내용상 無表의 착오로 생각됨.
14) 著 : (京)에는 善.
15) □ : 빈칸임.

[3a] 此有無旣住有無處 故無所表 旣[16]無所表 卽[17]無理應
教 教無此[18]表理 教卽[19]無能詮理 不能詮理 卽[20]非理教
理不應教 卽[21]非教理 非教理故卽[22]無理 非理教故卽[23]
非教 故以世間法者 有字無義也 今則有無二教 表
非有非無之道 非有非無之道 故有有無二教 故經
云 出間法者 有字有義也 山門義 與成論等師 常有
異義 成論等云 境智是二 各不相關 境自稱空有二
諦 智自是權實二智 智自生自滅 境無生滅 一往大
判如之 若復細而論之 境智並有生滅無生滅 何者
彼明眞諦境無生滅 俗諦境生滅 因中智有生滅 果
[3b] 上智則無生滅也 如斯之義 非唯是有所得 亦復不
能所緣之義 故淨名訶云 莫以生滅心行說於實相
38上 法 今寧得以生滅行心緣於實相境也 今謂 境智不
二 相因故有境智 如同虛空 虛空是無生無滅 智亦
無生無滅 故華嚴經云 諸佛妙境界 其如虛空 此明
境同虛空 大品經三慧品云 虛空生故般若生 等空
品云 般若空等 明此智同虛空 非直無生無滅同於
虛空 生滅亦同虛空 以虛空無生無滅 而有生滅之
用 境智亦無生無滅 而有生滅之用 以其有同虛空
故 以虛空之有爲俗諦 無同虛空故 以虛空之無爲

---

16)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것을 旣로 수정하였음.
17)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것을 卽으로 수정하였음.
18) 此 : 미상. 所의 誤字?
19) 卽 : 필사본들에서는 則으로 적은 것을 卽으로 수정하였음.
20)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고 앞에 °표시를 하였음.
21)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고 앞에 °표시를 하였음.
22)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고 앞에 °표시를 하였음.
23)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고 앞에 °표시를 하였음.

[4a] 眞諦 亦以有同虛空故 虛空之有爲權 無同虛空故
虛空之無爲實 有無旣[24]通境智 生滅亦通境智 但此
生滅亦同虛空 故以虛空生滅爲境智生滅 故大品
經云 如虛空生故般若生 此意欲明 虛空以無生爲
生 般若以無生爲生 故十地經云 地行如虛空 彼文
先解境同虛空 不生[25]不滅 出過三界 後擧地行 始明
地行亦如是 不生不滅 出過三界 山門意 境智並不
生不滅 與數論等永異也 如數論等云 若有表有 無
表無者 此卽各有相 有相故有所得 有所得則名爲
理外 若有表不有 無表不無 非有非無 名爲無相 旣[26]
[4b] 38上 有表不有 故無有有相 無表不無 故無無相 以無有
有無相 故名無所得 無所得者 卽名理內也 了義不
了義者 若有表不有 無表不無 則名爲了義 若有表
有 無表無者 則名不了義 亦有是有 無是無者 則名
爲秘藏 有表不有 無表不無者 則名開秘 開秘則名
了義 秘藏卽[27]名不了義 不了義者則名爲半字 了義
者名爲滿字 滿字名曰大乘 半字名曰小乘 以小乘
不了義故 名爲有所得 了義故名爲無所得 故有無
二諦 凡聖佛菩薩共行 而有得有失 若有是有 無是無
者 則名爲失 若有表不有 無表不無 則名爲得 以了
[5a] 有表不有故 則名爲聖 □[28]有是有故 名爲凡夫 所以
道未曾二 但約得失兩明 故成凡聖 乃至有生死涅

---

24)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것을 旣로 수정하였음.
25) 生 : 필사본들에는 滅로 적은 후 生으로 수정하였음.
26)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것을 旣로 수정하였음.
27)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것을 卽으로 수정하였음.
28) □ : 빈칸임.

槃之異 故大品經云 方等亦名甘露 亦名毒藥 服消
則爲藥 不消卽爲毒 一藥未曾甘毒 但爲有方便無
方便兩緣 故成毒藥甘露之殊耳 問 數論師等亦
云 二諦之境是凡聖共行 今時亦言凡聖共行 與彼
云何異 答 彼云八法世諦境無異 但凡夫取相故
著 聖人從眞觀出 被道無漏心行故不著 爲異 今明
39上 凡夫[29]則言有可有無可無 聖人知[30]有非有 知無非無
故異彼也 問 若聖人有無表非有非無 凡夫有無
[5b] 只表於有無者 凡聖頓乖[31] 理敎殊別 寧言二諦是凡
聖共行耶 答 二諦名雖同 而意大異 凡夫有則表
有 無則表無 聖人有則表不有 無則表不無 故在名
雖同 而隨凡聖兩人有無異 凡夫既有表有 有不得
轉爲不有 有[32]既不得轉爲不有 凡亦不得轉爲聖 聖
人人[33]有既表於不有 無既表於不無 故有得轉爲不
有 凡得轉爲聖人 凡人有既是有 故煩惱卽[34]是煩惱
不得爲無煩惱 今聖人說有表不有 卽煩惱轉爲不
煩惱 故雖有煩惱 如無煩惱 而煩惱性本自不有 無
所有故 假名無明 所以有得轉爲非有也 問 說有
[6a] 無爲表非有非無 令衆生因有無之敎 悟非有非無
之正道者 何意不直說 非有非無中道 令其得悟 而
說有無 令人於有無成病耶 乃似故欲令衆生煩惱

---

29) 夫 : 필사본들에는 聖으로 적은 것을 夫로 수정하였음.
30) 知 : 필사본들에는 智.
31) 乖 : (續)과 (京)에는 永.
32) 有 : (續)에는 今이지만 필사본들에는 有임.
33) 人 : (續)에는 없음. 필사본들에는 々. 卽의 誤字?
34)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因緣住理外人[35]地獄也 答 衆生顚倒 或[36]心不可頓
悟 以漸法門化之 但衆生聞[37]有著有 聞無滯無 則爲
說非有非無 則便不受化 故佛與衆生同源 不捨[38]僧[39]
39下 那故 聖人慈悲方便甫化 譬如長者脫珍御服 著垢
膩衣 同子糞作 卽是隨緣 假令聖人方便甫同衆生
故世間說有 我亦說有 世間說無 我亦說無 後則就
求其有無相不可得 令其悟此有無非有非無 則是
[6b] 有無非有無 非有無有無也 問 若以有無 表非有
非無 令得悟非有非無之中道時 有無兩敎癈去不
若悟理敎癈 敎癈故理亦應癈 若悟非有非無時 有
無敎不癈 故從非有非無之理 起有無[40]二敎者 與舊
折俗入眞 從眞出俗 及地論息妄還眞 從眞起用 有
何異耶 答 彼師等 所執有眞俗二境 故折俗入眞
復從眞出俗 息妄亦然 今明有不有 爲破有病 明無
不無 爲破無病 有無兩病若除 復有何二敎之可得
旣無二敎可得 復有何非有非無之理可會耶 故非
有非無 亦非非有非非無 故有無非有非無 泯然無
[7a] 際 故居士經云 不離文字 說解脫義也 大品經云 是
字不住 亦非不住 是字無所有故 問 若然 只見破
外人有無敎 言非有非無 那得云是佛二諦敎 以表
非有非無之道耶 答 只敎令其識 有是非有 無是

35) 人 : 내용상 入의 誤字임.
36) 或 : 惑.
37) 聞 : 필사본들은 聞 옆에 於일 수 있다고 적고 있음.
38) 捨 : (續)에는 於.
39) 僧 : 미상. 剎의 誤字?
40) 起有無 : (續)에는 有起無로 도치되어 있음.

非無 卽是破 復是敎 又一切諸法本若是有 可表非
40上 有時 或得或失 而今本來不有 而假名說爲有 只有
本不有 不有假名說有 故大品經云 善吉不壞假名
說實相義 不動實相 而說假名 故於有無心動搖也
問 本藉有無二敎 得悟非有非無之道 今若有無
非有非無俱盡者 寧非墮於耶[41]見[42]耶 答 本爲謂有
[7b] 無可有無 故明有表非有 無表非無 以有無之敎 表
非有非無之道 今若無有無二病 復用二敎何爲 旣[43]
不論敎 復有何非有非無之理可得 故理敎有無非
有非無 本性淸淨 但顚倒衆生 所怖畏處 故百論云
畏處何[44]染也 問 若理敎俱盡淨者 何須說二諦敎
耶 答[45] 具如前[46]說 治衆生病故須說[47] 但言方[48]爲說[49]言
有 不住有言空[50] 不住有說[51]有 不住空說[52]空 詺空爲有
詺有爲空 此有不有有 此空不空空 空有爲世諦 有
空爲眞諦也 故大品經云 開[53]宗以不住法 住[54]般若波
羅蜜中 大經第五卷末[55]云 善男子 如來或時說一爲

41) 耶 : 邪.
42) 見 : (京)에는 是.
43)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44) 何 : (京)에는 阿.
45) 答 : (京)에는 合.
46) 前 : (京)에는 斷.
47) 說 : (京)에는 法.
48) 方 : (京)에는 万
49) 說 : (京)에는 假.
50) 空 : (京)에는 迦.
51) 說 : (京)에는 記.
52) 說 : (京)에는 記.
53) 開 : (京)에는 明.
54) 住 : (京)에는 仕.
55) 末 : (京)에는 平.

[8a] 三 說三爲一 又梵行品云 如來世尊有大方便 無常
說常 常說無常 說樂爲苦 說苦爲樂 我淨等一切法
類爾也 又德王云 永斷卄五有 故得名淨 淨則是涅
40下 槃 〈亦如是涅槃〉得名有 而是涅槃實非是有 諸佛如來隨俗故說
〈涅槃是有 如世人非父言父 非母言母 涅槃亦爾 隨俗故說〉言諸佛有大涅槃也 華
嚴經云 一無量 無量一 一多[56]
多一等
第二釋名 所言二諦者 謂眞諦亦名第一義諦 俗
諦亦名世諦也 按字釋名 眞以實爲義 則有之無體
無虛僞故 稱爲眞諦[57] 第一義理極莫過 謂[58]之第一 旨趣實
爾故稱義 俗者以虛僞爲義 有非性實 賴衆緣成 無
[8b] 自故稱俗也 世者以有隔別 名相不同 故曰世 問
此釋名以成論何異 答 名雖同 其意大異 若以義
釋名 有三種勢 一橫論顯發 二竪論表理 三當體釋
名 所言橫論顯發者 欲顯俗是眞爲義 眞是俗爲義
何故俗是眞[59]爲義[60]者 欲顯眞是俗家〈之〉所以 故言眞是
俗爲義 欲顯俗是[61]眞家之所以 故言俗是眞爲義 故
大經梵行品云 欲令衆[62]生深識世諦 是故如來宣說
第一義諦 欲令衆生深識第一義諦 是故如來宣說
世諦 爲此義故 言橫論顯發也 竪論[63]表〈理〉者[64] 眞是不眞

56) 一多 : (續)에는 多一임.
57) 諦 : 필사본들에는 없음.
58) 謂 :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謂의 草書體로 수정하였음.
59) 眞 : (京)에는 直.
60) 義 : (京)에는 歲.
61) 是 : (京)에는 還.
62) 衆 : (京)에는 家.
63) 論 : (京)에는 諦.
64) 者 : (京)에는 없음. 빈칸으로 되어 있음.

41上 爲義 俗是[65]不俗爲義 故居士經云 五受陰洞達空|是

[9a] 苦義 諸法畢竟[66]不生不滅 是無常義 此則是以非苦
釋苦 不無常明無常也 大經聖行品云 知苦非苦 苦
聖諦 知[67]集非集 集聖諦等 故言竪論表理也 當體釋
名 中是實爲義等釋也 亦得言當體從他爲義 苦[68]謂[69]
空故爲俗 實故爲眞 隔別故名世 理極稱第一 則是
當體釋名 若謂俗人所知名俗 眞智所知名眞 世人
所知名世 第[70]一智所知名第一 須他爲名也 所以明
眞俗意者 爲表非眞非俗 卽是名表於無名 無名之
道 有何不名 所以有無之名 本於無名 無名而名故
名爲有無 有名俗諦 無名眞諦 眞以實爲義 俗以浮

[9b] 虛爲義 此名是義名 義是名義 卽是一名無量名 無量
名一名 故有一名無量義 一義無量名 無量名無
量義 一名一義 俗亦名世 眞亦名第一義 世[71]是伐[72]謝
爲義 第一莫過爲旨 故眞俗是虛實相待 世與第一
從褒貶爲名也 通稱諦者 成論師云 有三家 一光宅
云 言教爲諦 理本自實 說有耶[73]有正[74] 正[75]言中理無有
乖[76]謬 爲之審諦 耶[77]說乖[78]宗 呼爲不諦 諦與不諦 關[79]近

---

65) 是 : (京)에는 長.
66) 竟 : (京)에는 龍의 略字.
67) 知 : 필사본들에는 智.
68) 苦 : 若의 誤字.
69) 謂 : (續)에는 隨, 필사본들에는 謂의 草書體임. 謂와 隨의 草書體가 비슷하여서 혼동한 것으로 생각됨.
70) 第 : 필사본들에는 尊으로 적은 후 第로 수정하였음.
71) 世 : (京)에는 也.
72) 伐 : 代?
73) 耶 : 내용상 邪임.
74) 正 : 필사본들에는 政.
75) 正 : 필사본들에는 政.

41下 者之言 在理不異 俱稱實也 二莊嚴云 如四諦 知是
諦 引大經四諦品云 佛告[80]迦葉 所言苦[81]者 不名苦聖
諦 何以故 若言苦[82]是苦[83]聖諦者 一切畜生及地獄衆
[10a] 生 應有苦聖諦 又言凡夫有苦無諦 聲聞緣覺有苦
有諦 復結云 是名知苦非苦 名苦聖諦 是則凡夫但
有苦境 而無苦智 故云無諦 二乘有照苦之智 故言
有諦 若爾知能尋求稱境 故知爲諦 三龍光傳開善
云 實名在理 諦有三義 實義釋諦 此卽[84]在理 審當釋
諦 從言教爲目 推審釋諦 推審就解 解能推於理 雖
有三種稱 而在理爲正宗 審有此理故稱諦 今謂不
然 彼有教境行三法異故 各執不同 大乘義望之 並
是有所得二見之說 第一師境智旣非諦 豈有能
說之文 得是諦耶 文言何所詮而得諦耶 第二師
[10b] 解智爲諦者 所觀之境 旣非諦 豈有能觀之智 得是
諦耶 第三師境爲諦者 大經已破 故不用也 今大
乘明義 無二爲二說 一往亦得言以教爲諦 而實大
異三師說 前雖言以教爲諦 而經明諦名目 理教得
諦名 若言教當體諦 而文是詮理 文不自表 又異於
境行 故大異也 今謂 理乃是非諦 教正是諦 但諦名
42上 不自待非諦而得 就敎中爲言 境與智並是教 亦悉

---

76) 乖 : (續)에는 永.
77) 耶 : 내용상 邪임.
78) 乖 : (續)에는 永.
79) 關 : (京)에는 開.
80) 告 : (續)에는 造.
81) 苦 : 필사본들에는 若.
82) 苦 : 필사본들에는 若.
83) 苦 : 필사본들에는 若.
84)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得是諦 後兩家境智 悉自是理非敎 今明境智並是
敎 理卽非境非智非敎 故異於三說也 問 山門宗
理說非有非無 敎乃是有無者 理異於敎 敎理相乖[85]
[11a] 何得名諦 此卽[86]非諦也 答 有二意 一今釋諦名 本
以不諦爲義 所以雖言有[87]無爲詮 非有非無方自得
故是諦也 二亦不必須道 諦是不諦 直置有無詮 非
有非無自是諦義 何者 若有無不詮 非有非無可是
非諦 今有無不乖[88]非有非無 非有非無亦不乖[89]有無
所以相表故得諦也 今明無有此能 亦無此所 乃至
人法等 但假名因緣 故名能所 能所則通亦長 故一
切諸法 不出於能所 因果卽短亦別 若非能無以成
所 非所無以成能 故能必待所 所必帶能 但世間受
名有便不便 或在能爲便 所則不便 或在所爲便 能
[11b] 則不便 乃至能所合論則便 單能所則不便 何者 如
體[90]中能爲便所爲便者 如〈好〉精美食宜在所 能所合爲
便者 如水洗物非淨故物淨 能所俱名爲淨也 今明
通名諦者 諦以審當義 但一家釋諦有二義 一說有
42下 無二敎當於理故審當 二當機緣故審當 則片[91]二乘
凡夫無理可當 無機照也 若如百論云 眞俗相待故
二諦皆實 所以眞待於俗 世待於第一 故百論云 如
棕[92]待棗爲大 待苽爲小 二俱爲實 今諸法於凡謂[93]實

85) 乖 : 필사본들에는 永.
86)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87) 有 : (續)에는 有가 하나 더 있지만 내용상 衍文임.
88) 乖 : 필사본들에는 永.
89) 乖 : 필사본들에는 永.
90) 體 : 필사본들에는 射.
91) 片 : 斥?

有 於定[94]謂[95]無 故名爲諦 如凡愚小兒看所作約事爲
實有 於彼便爲諦 幻師知其實無所有 亦是爲諦 諸
[12a] 法亦然 凡隨[96]爲實 於凡爲諦 聖知有非有 知無非無
有無畢竟 無所有 於聖爲諦 故諦待不諦 實待不實
眞〈待於不眞 不〉眞名爲俗 俗待於不俗 不俗名爲眞 故凡眞則聖
俗 聖眞卽凡俗 俗名眞俗 眞名俗眞 俗眞非眞 眞俗
非俗〈故非眞非俗〉名爲中道第一義諦 通釋於敎二諦意也 問
他旣約虛實釋二諦 今亦就虛實明二諦 與他何異
答 彼明虛實 而虛實並安二諦理 如鼈鼻論虛實
二諦 今明虛實迭伐[97]明虛實二諦 如棕[98]待棗[99]爲大 此
則爲實 望芨爲小 則便不實 諸法於凡是爲有 卽[100]名[101]
爲實 於聖不有 則名不實也 問 他家虛實並安 可
[12b] 論相待 今山門虛實迭伐[102]者 應無相待 答 彼虛實
43上 並論 如鼈鼻故 不得明相待 兩法性實自有 |何須論
相成 長短等並類然 今明無名[103]無相中 虛實迭伐[104]相
由成立 方復是相待義彰 如棕[105]於棗爲大名實 望芨
爲小則名虛 棕[106]實不當大小 相因成大小 一切諸法

---

92) 棕 : (續)에는 奈.
93) 謂 : 필사본에서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고 있음.
94) 定 : 내용상 聖의 誤字?
95) 謂 : 필사본에서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고 있음.
96) 隨 : 謂?
97) 伐 : 代의 誤字.
98) 棕 : (續)에는 奈.
99) 棗 : 필사본들에는 未.
100) 卽 : 필사본들에서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101) 名 : 필사본들에는 便.
102) 伐 : 代의 誤字.
103) 名 : 필사본들에서는 相으로 적은 후 名으로 수정하였음.
104) 伐 : 代의 誤字.
105) 棕 : (續)에는 奈.

於凡謂[107]有 故名爲實 聖知有不有 故名爲虛也 問
若然 唯應有一諦 寧言二諦相待 答 理實應然 故
大經云 世諦者則第一義諦 但隨順衆生故說二諦
也 問 如彼經者 只成一諦 寧言二諦相待耶 答
實論無兩一 但於凡聖二人 故說二諦 二諦有何失
[13a] 耶 如凡夫謂諸法實有 則名爲世諦 於聖人不有 不
有於凡名不諦 於聖則名諦 有旣轉爲不有 故凡轉
爲成聖 故有二諦 若如彼義 有不作無 無不轉爲有
性實不改 故失一無量無量一 展轉生無碍解脫法
門義也 問 若言於凡是實名爲世諦 次悟不實名
爲眞諦者 唯見約凡聖二人辨二諦 眞俗二諦相待
在何耶 答 約二人 則是相待 人法悉相待故也 十
二門論云 因世諦得第一義 第一義諦得涅槃 則是
因〈俗悟眞 因〉眞悟非眞非俗中道第一義諦 中道第一義諦則
43下 是涅槃 故言因第一義諦得涅槃也 又釋純陀疑問
[13b] 論云 二諦是相待也 問 若然 唯是一諦 何一諦
答 於凡是實 卽[108]是凡一諦 次於聖是實 卽是聖一諦
次轉悟非眞非俗 則是中道第一義諦也 問 於諦
敎諦〈何諦〉正宗 答 各有正宗 百論[109]於諦爲正宗 敎諦則[110]
傍 中論敎諦爲正宗 於諦卽傍也 問 若然 百論應
是性 中論應是假 百論應是當 中論可是無當 若使
兩論皆是無當 兩論皆是假 則應兩論並是敎諦 寧

106) 棕 : (續)에는 奈.
107) 謂 : (續)에는 隨,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108) 卽 : 필사본들에는 則.
109) 論 : (續)과 (龍)에는 說, (京)에는 說을 論으로 수정하였음.
110) 則 : (續)에는 卽.

言一教一於一假一性耶 答 若望論主邊 恒是教
恒是無當 恒假 是就[111]緣明之 有迷有悟 故有教有於
有無當有 當有假有性也 問 若然 中論可是因緣
[14a] 知 百論應是非因緣智 答 亦約論主 悉是因緣 就
緣有[112]因緣不因緣 大判如此耳 問 於兩諦皆表不
答 得有此義 問 若爲是於表耶 答 遠望爲論
變[113]有不有及無〈不無〉 得有於表義 問 變有無非有無 正
是教表 何關[114]於表 復次當執有無時是於 若爾當執
有[115]無時表耶 若當執有無時不表 變故方表 故知有
表不表 有諦不諦也 答 得如前說 當相如問 但通
別爲異耳 問 中論四諦品云 佛依二諦說法 若俗
44上 諦於俗俗諦 眞諦於眞眞諦 爲二於諦者 此兩於諦
並是病迷不 答 悉是病迷 問 若爲是病迷 答
[14b] 並乖[116]道 道未曾有無 作性實有無解故 有無悉乖[117]道
故是病迷也 問 若言皆是病迷者 並應是俗是凡
耶 答 望道爲論 亦得悉是凡是俗也 問 若望道爲
語 亦得言是凡是俗者 亦得應有俗二名 答 望道
論之 皆是俗而於俗中 自有眞俗也 問 若於俗中
自相望有眞俗者 亦望道 道自有眞俗耶 答 不例[118]
於中道[119]不二 故不論二 於俗中開淺深故得二也

---

111) 假是就 : (京)에는 옆에 작은 글자로 적혀있음.
112) 有 : (續)에는 假.
113) 變 : 미상
114) 關 : (京)에는 開.
115) 有 : (續)에는 非.
116) 乖 : 필사본들에는 永.
117) 乖 : 필사본들에는 永.
118) 例 : (京)에는 別.
119) 中道 : 내용상 道中의 도치로 생각됨.

問 二諦並破性不 答 亦得明二於諦 不論敎諦也
問 若此中不論敎諦者 何故前云 佛依二諦說法耶
答 二諦語通故爾 問 若二諦通者 外人不迷於
[15a] 諦 何故明迷諦耶 答 今明二諦者 出外人二心敎
故兩雙迷 旣迷敎諦故 於迷爲於諦也 問 若得言
並迷二諦 亦應並迷有無 而識有不識無者 識於不
識敎耶 答 不例 今兩雙失有無明之 問意執一不
執一 故不列之 前云有無兩雙失者 不識有亦不識
無 若識有卽識無也 第三立名 所言立名者 如來
44下 隨機設敎 其名無量 |故如眞如實際無生絶[120]離鈍[121]淨
平等涅槃 無相無作無願 第一義空也 俗諦名者 世
事物有差別陰界入等也 但經論所盛說徧明之 各
有二種 雖明二種 唯成一種二 何者 眞與俗是一種
[15b] 二 世與第一復一種二也 眞是眞實爲義 俗是浮虛
爲義 第一莫過爲義 世是隔別名相代謝不同 曰世
義 此四種諦通表於道 而有相兼之義 何者 世諦須
從第一義爲名 第一義須從世受稱 眞待俗爲目 俗
因眞爲名 而眞俗義通 世第一則別 何者 眞俗通明
方便有無二敎 故通 世與第一 於眞俗上 褒貶之義
故別名也 眞貞實近道 故名爲第一 俗浮虛遠道 故
名爲世 第一附眞 故當褒名 世附於俗 故受貶名 所
以世與第一 還是褒貶於眞俗故 唯成眞俗一種二
也 故眞俗爲表非眞非俗之道 道尙非眞非俗 豈是
[16a] 第一與世耶 若欲隨緣作名有無量 隨世與第一 虛

---

120) 絶 : (續)에는 施.
121) 鈍 : 미상. 純의 誤字?

實眞俗有無等名 但一種敎門 指假名說 眞俗相資

不如他三假有爲俗 無相理爲眞 眞俗二理 鼈鼻竝

安 殊別無有相資義也 今山門義 因俗故眞 卽是俗

45上 資於[122]眞 因眞故俗 卽[123]是眞資於俗 以俗資眞故 得轉凡

爲聖 以眞資俗故 得改聖爲凡 旣資俗故 眞則非眞

所以名爲俗眞 旣資眞故 俗則非俗 所以名爲眞俗

眞俗非俗 俗眞非眞 非眞非俗 共顯法實 旣改凡爲[124]

聖卽[125]非聖 所以名爲凡聖 改聖爲凡卽非凡 所以名

爲聖凡 聖凡則非凡 凡聖則非聖 非凡非聖[126] 共顯法實

[16b] 則是中道一實諦也 故竺道生[127]法師云 物須因緣無

自性故非有 須因緣起故非無 非有非無 共明法實

實故名眞 不謬故稱諦 乖[128]眞故名俗 不實故非諦 是

故虛實相待 眞俗名生也 前所明四名 依般若經 只

是有無二諦 世與俗 是有名 眞與第一 是無名 但此

有無 並是因緣假 假有不名有 只是非有 假無不名

無 只是非無 非有非無則有無 有無只一非有非無

而四名只是有無二諦 有無二諦[129]只是一非有非無

中道 於非有非無 立無爲眞 於非無非有 立有爲俗

此則有無 屬能表之敎 非有非無 屬所表之理 是則

[17a] 無名相中假名說 須中出假也 問 若然 與有所得

---

122) 於 : 필사본들에는 결락되어 있음.

123)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124) 爲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125)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126) 聖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127) 生 : 필사본들에는 性.

128) 乖 : 필사본들에는 永.

129) 有無二諦 有無二諦 : (續)에는 有無有無二諦二諦.

以成論師 體用別 能所之異 復何殊耶 答 大異 彼明
45下 體用別 能所殊 今明|體用能所不二 只指體爲用
指用爲體 能所亦爾 若然豈同從來有此法 然後立
名等義耶 成論師等舊云 俗體有此體皃[130] 故稱爲相
眞理則無故曰無相 俗不勉[131]名相故稱爲有 眞絶名
相故名爲無 而尋二諦之理皆絶名 絶名不同 眞理
無可名之相 名無能名之功故絶名也 俗有[132]絶名 通
有五家 一本無名故絶 二無定名故絶 三互絶故絶
四則[133]眞故絶 五賓[134]眞故絶也 問 眞俗二諦 皆假爲
[17b] 立名 何故常言眞絶名耶 答 解不同 一仙師云 世
諦之名 與所名[135]法 有不一異義 故俗不絶名 將眞覔
眞 去眞彌遠 故眞絶名也 二云 當相論 俗本無名及
定一名 而非無可詺假故不絶名 眞無可詺之體 故
絶名 三報恩師云 眞一向絶名 俗不絶[136]名 所以然者
△[137]名取得俗 故俗不絶名 △[138]名取不可得眞 故絶名
此三說 雖言方有異 義不殊也 還就俗中 復有絶不
絶 何者 如有爲法 應名有 隨名去來故 有爲法 不絶
於名 無爲法不逐名動轉去來 故絶名也 還約有爲
法中 有是名字者 爲不絶名 若爾衆生及心無作等
[18a] 非是名字法故 爲絶名也 又成|論師等云 有寄名不
46上

---

130) 皃 : 貌의 이체자. 필사본들에는 皀.
131) 勉 : 免의 의미임.
132) 有 : (續)에는 有有.
133) 則 : 卽
134) 賓 : 필사본들에는 [諦-2] 冥?
135) 名 : 필사본들에는 名 옆에 '證イ'라는 夾註가 붙어 있음.
136) 絶 : (續)에는 施.
137) △ : (續)에는 承,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諦-3].
138) △ : (續)에는 承,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諦-3]. 판독미상.

寄名 但以字約他曰寄 若爾 一往眞俗分門 言方不
同 一云 眞無名故寄 俗有名故不寄也 二云 眞名寄
俗名不寄名 所以然者 眞空非名 俗有有名 故有寄
不寄 若爾 非止是寄眞名在俗 亦是寄眞在俗 所以
然者 眞不眞故眞在俗也 亦有人言 不以眞寄俗 但
以眞名寄在俗中也 問 若然 眞非名耶 答 眞非
名也 問 若爾 眞非字耶 答[139]眞非字也 問 若爾
苦樂非名不 汝若苦樂是名者 眞何不名 若爾 眞亦
得寄也 還就俗中 復有寄與不寄 若約八法之中 七
[18b] 法寄名 色法不寄名 所以然者 一切法名皆是色故
也 若還就色中 凡有十五種色 若此一化門三色有
寄不寄 若是十二色一問[140]是寄名十二色不詮辨故
三色有寄有不寄 何者 三色之中各說三色 此則不
寄 若隨一色之中說三色 則兩色是寄 故言三色有
寄不寄也 約三色中 還自說三色 復有寄不寄 若黑
色還說黑者 此則非寄 若就黑色中 說靑黃等色是
寄也 四聲五音冷煖等觸類[141]然也 又彼師等云 眞一
46下 向是借名 俗不借名 所以然者 眞無名無相故 就俗
借眞以目眞 故說無生爲眞也 若爾 如實際等詺皆
[19a] 是借也 又俗中亦有互[142]借名 如因中說果 果中說因
如斯之類 悉是借名 如黑者說白 白者說黑 短者說
長 長者說短等 並是借名也 今謂 如佛藏經云 以無

---

139) 答 : (續)에는 若.
140) 問 : 미상. 同?
141) 類 : (續)에는 凝.
142) 互 : (續)에는 牙.

名相中爲名相說 如經言 無爲法中 而有差別 並有
此義 而不如彼 存法多種相說 今意望彼 彼皆是有
所得斷常 理外心相顚倒也 一家意 說眞爲俗 說俗
爲眞 說境爲智 說智爲境 說黑爲白 說白爲黑等 如
空中織[143]羅 虛[144]中織[145]絞[146]等 無有蹤跡 故大品經句義品
云 如鳥飛空 跡不可尋 又云 無句義爲菩薩句義等
也 般若經云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147]
[19b] 見如來也 第四有無 自有兩 第一明奢論有無
第二明切[148]論有無 第一明奢論有無 成論等師云 一
切諸法 雖曠而無邊 深而無底 以有無往收 罄無不
盡 有則四有爲 無則四無爲 四有爲法者 謂色心無
作衆生也 色或有十四種 或十五種 並有形方 故
47上 有質碍 質碍故如|爲釋摩男[149]說 色當體惚懷[150] 如癰如
瘡如病等 故須厭離也 心者能緣爲義 能緣爲體 無
作者 數論解不同 數云色入所攝故 彼云十種隨[151]色
無〈作無〉敎假色也 成論云 無作非色非心法 明其一作已
復更作 非身口動心作而常生 故言無作也 衆生者
[20a] 數論解不同 數云 衆生無別用 但有名字 如黑中說[152]
白等也 成論師云 三聚法共成一假用也 四無爲者

143) 織 : (續)과 (京)에는 識, (龍)에는 織.
144) 虛 : <逸文>[伊藤隆壽(1974), p.72]에는 空.
145) 織 : (續)에는 識. 내용상
146) 絞 : 紋의 誤字? <逸文>[伊藤隆壽(1974), p.72]에는 紋.
147) 則 : (續)에는 卽.
148) 切 : (續)에는 功.
149) 男 : 미상. (京)에는 男.
150) 惚懷 : (續)에는 惱壞.
151) 隨 :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152) 說 : (續)에는 兌. 兌는 說의 약자임.

謂虛空非數緣數緣妙有也 虛空無爲 數論家解不
同 數云無爲虛空 謂大虛[153]也 有爲虛空 井穴門向空
色入所攝也 成論師云 虛空一向無爲法 井穴門向
等並是有爲[154]法色入所攝也 今謂 如中論說 虛空非
有亦非無也 非數緣無爲 亦數論不同 毗曇云 未來
緣差爲非數緣 成論師云 同數者 舊五方便以解所
得爲[155]非數緣也 數緣無爲 又數論解不同 數云眞慧
數治道所得善有法 爲數緣無爲 論云眞解所得無
[20b] 爲 爲數緣無爲也 妙有無爲者 毗曇義正申[156]小乘宗
故 未[157]及妙有常住 論云統解大乘 故妙有常住無爲
也 數云三無爲並本有各體各得 得繫屬行人 數緣
47下 無爲 是善有|法 二無爲 是無記非善也 成論師云 三
無爲爲一體 一虛空無爲爲體 無爲實不當善惡緣
由不無善惡 虛空通本始 二無爲但始有也 亦不明
得繩[158]不相應行法也 今大乘明義 所名[159]顚倒 欲拔出
虛妄衆生 隨緣說 從多名之 亦可有此義 語同而意
大異 但大意[160]爲無爲是因緣義 是有爲無爲 無爲有
爲 離有爲無別無爲 離無爲無別有爲 故大品三假
[21a] 品云 離有爲無無爲 中論常結云 因有爲說無爲等
也 有爲無爲 不曾一異 有爲空有爲 無爲空無爲 空

153) 虛 : 필사본들에는 空으로 적은 후 虛로 수정하였음.
154) 爲 : (續)에는 異.
155) 爲 : (續)에는 以.
156) 申 : (京)에는 中.
157) 未 : (續)에는 末.
158) 繩 : 필사본들에는 '本紙安傍'이라는 세주가 붙어 있음.
159) 名 : (續)에는 明.
160) 意 : (續)에는 異.

有爲故生而非有 空無爲故 滅而非無也 成論師有
得家義 生死是有爲 涅槃是無爲 從多爲論 世諦是
有爲 眞諦是無爲 此則離有爲有無爲 離無爲有有
爲 如斯義意 並是二見有所得 不離斷常心也 今無
所得義 生死涅槃 俱[161]是有爲 非生死非涅槃 乃名無
爲 眞之與俗並是有爲 非眞〈非〉俗乃名無爲 故大品經
序品云 到有爲無爲彼岸 又法稱品云 有爲法者 謂[162]
有漏無漏 乃至世間出世間 無爲法者 不生不滅 非
[21b] 世間非出世間也 中論涅槃品云 有無是有爲也 又
48上 往往云 有爲空故 無爲亦空也 十二門論 有果無果
門末云 有爲空故 無爲亦空也 問 無漏出世間 自
通有爲生死與無爲涅槃 寧得此經證耶 答 彼宗
涅槃生死有爲無爲 爲異法別體 故勉[163]三相 或爲無
爲涅槃有三相 或有爲有漏 作如此心者 並有所得
斷常心 今明無別生死涅槃有爲無爲異 只悟生死
涅槃爲無爲 畢竟不起無蹤跡 名爲無爲 故若生死
若涅槃 則名世諦 非生死非涅槃 乃名眞諦 眞俗有
無 有是無有 無是有無 故假有以明非有 假無以明
[22a] 非無 若一而二 其文有似而不同 若苟欲令其同 卽[164]
不異而無同 若苟欲令其異 則無同而不異 故今果
有 其所以不有而明有 亦果無 其所以不無而明無
不如數論師等義 有不關無 無不關有 今明無無可

161) 俱 : (續)에는 但.
162) 謂 :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163) 勉 : 내용상 免의 誤字임.
164)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고 앞에 °을 표시하였음.

異有 無有可異無 故借有以明無 借無以顯有 故眞
俗之名 寄有無明之 故大品經云 非有爲非無爲 有
爲無爲 皆不可得 所以要因有故說無爲 要因無故
說有爲 數論地論等義 有爲無爲異此 則離有爲有
無爲 離無爲有有爲 既離無爲有有爲 故則是離無
48下 相有有相 既離|無爲有有爲 故卽是離有相有無相[165]
[22b] 離無相有有相 今大乘明義 因緣義 離有爲不得說
無爲 離無爲不得說有爲 故以有爲無爲 爲世諦 非
有爲非無爲 名爲第一義諦 故世諦則有成有得 第
一義諦則無成無得 所以成得是無得 是〈無得〉是成得 無
得之僞號有成得 成得之眞號爲無得 〈故得〉而無得僞號
故 假而非無 無得而得眞號故 實而非有 故非僞非
眞 供[166]顯法實也 第二切辨有無 數論地論等義 彼[167]
云一刹那明之 因緣合故諸法有 因緣離故諸法無
云刹那者 此云急促 是時節之名 明時與法俱 法與
時俱 明一刹那時中 法合則有 一刹那時中 法離壞
[23a] 則無 此是卽[168]法沙[169]門義 彼見因緣合故是有 見因緣
離故是無 所以彼見無 異有之無 見有 離無之有 有
作有解 無作無解也 此中廣解析[170]法觀義 而二觀中
廣釋也 今大乘明義 有無是因緣義辨也 假無故有
假有故無 假有故無 得以有待無 假無故有 得以無

---

165) 離有相有無相 : 내용상 이 부분은 衍文임.
166) 供 : 필사본들에는 俗으로 적은 후 供으로 수정하였음. 供은 共의 誤字?
167) 彼 : (京)에는 假.
168) 卽 : 필사본들에는 則.
169) 沙 : 妙?
170) 析 : (續)에는 折.

待有 以無待有故 得無爲有 以有待無故 得有爲無
49上 也 數論等義 有無旣異 故則不〈得〉以無爲有 亦不得以
有爲無 亦離合有離 異離[171]有合 彼雖云不合 不合卽[172]
是離 彼雖云不離 不離則是合 合不得名離 離不得
爲合 今明 旣以有爲無 以無爲有 故以合爲離 以離
[23b] 爲合 旣以有爲無 豈得離[173]有有無 旣以無爲有 豈得
離[174]無有有 乃至旣以合爲離 豈異合有離[175] 又以離[176]爲
合 豈得離離有合 旣不得異離[177]有合 豈得卽離[178]有合
乃至旣不得離有有無 豈得卽[179]有有無 卽故有無[180]合
離[181] 不得是一 亦不得是異 故合離[182]不得各行 亦合離[183]
不得合行 但明假名故云離 旣假云其離 豈眞俗有
異哉 亦假名言合 豈眞俗有合哉 故假一異合離 共
顯正法實也 問 詺有爲有 詺無爲無 復有何妨 而
言有爲無 言無爲有耶 答 得意無二 爲言迷得 但
有所得家言 有爲世諦 有此虛假理 無爲眞諦 有此
[24a] 無名無相理 遂成拔[184] 故今欲拔此病 展轉抖捒 乍離
乍合 今[185]彼心無蹤跡 顯於正法 故復此說也 第五

---

171) 異離 : (續)에는 異離가 두 번 중복되어 있음.
172) 卽 : 필사본들에는 則.
173)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174)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175)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176) 離 : (續)에는 雖,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내용상 離임.
177)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78)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79) 卽 : 필사본들에는 則.
180) 有無 : 필사본들에는 無有로 적은 후 도치 표시를 하였음.
181)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82)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83)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84) 拔 : 내용상 病의 誤字로 생각됨.

明中道 解中道義 略據有三家 一者外道辨中道

49下 如百論云 迦毗羅弟子 誦僧伽經云 泥團非瓶非不

瓶者 泥團異於瓶 故非瓶 而不離[186]於泥[187]團有瓶 故非

不瓶 故言非瓶非非瓶 名爲中道 亦得泥團不則瓶

故非有 不離[188]泥團有瓶故非無 非有非無 名爲中道

同開善俗諦中道 則因非果故非有 非無作果故非

無 此非有非無 俗諦中道也 優樓伽弟子 誦衛世師

經云 聲非大非小 如順大質所出 故言大聲 順小質

[24b] 所出 故言小聲也 勒沙婆弟子 誦尼健經云 光非明

非闇也 二者成實論師 解中道略據有[189]三家 一△秨[190]

定法師云 八法爲中道 於八法家 有無用爲二諦 如

鳥身爲中道 兩翅爲二諦故 二諦一中道爲體也 何

者 彼云通是中用通非中 別是中事別非中 何者 有

無是通於諸法而用 故而非中 色心等是中而別事

故非中 所以非通非別 平正是中道也 問 平正是

中 平正何物耶 答 色心等是平正 問 若色心等

八法是平正者 色心等八法是中道耶 答 擧法明

之 色心等八法是中 故前云別〈是中 而切[191]論之非中 故前云別〉事非中也 至

論八法

[25a] 家平正通義是中 如正因佛性義也 問 色心等八

50上 法家平正是中者 平正是色等家用 若然 中用 色心

---

185) 今 : 令?

186)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87) 泥 : (京)에는 死.

188)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89) 者 : (京)에는 有.

190) △秨 : 판독미상[諦-4].

191) 切 : (續)에는 功. 내용상 切이 맞음.

等八法是體 豈非倒耶 答 非倒 似如毗曇義 色心

等是 若空無常無我用 而此用爲理 以色心等爲體

而用此體名爲事也 問 行人心會平正時 却或[192]用

有 無用時除或[193] 答 會有無之時斷或[194] 問 若爾體

龢成不反[195]用也 答 法相如磬如心是體 而體上解

用能斷或[196] 若然豈言用勝體弱耶 故此義宗 中道有

別鄣[197] 白馬報恩法師並傳此說也 二龍光云 二諦二

體故 論十號品云 佛不說世諦爲第一義諦 不說第

[25b] 一義諦〈爲世諦〉 論旣云二諦理 寧非二體也 故法師云 約兩

理明二中 合而論之 一中也 三開善云 假自無體 故

生而非有 俗卽[198]是眞 無體故可假 眞則是俗 眞則是

俗 離[199]無無有 俗則是眞 離[200]有無無 故眞俗不二 不二

而二 二則不二 不二而二 二諦理明 二則不二 是一

中道也 諸學士法師 傳述開善意 二諦一中道爲體

而明二諦者 對世諦 開立爲眞諦 故爲眞俗二諦 故

龍樹 觀性門第八[201] 十二門論云 因世諦得說

第一義諦 若不因世諦 卽[202]不得說第一義諦文[203] 卽是待

---

192) 或 : 惑.
193) 或 : 惑.
194) 或 : 惑.
195) 反 : 變.
196) 或 : 惑.
197) 鄣 : (續)에는 彰.
198) 卽 : 필사본(龍)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19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0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01) 觀性門第八 : (京)과 (龍)에는 각기 '卄丁左'와 '卄二丁左'라는 細注가 추가되어 있으며, (京)에는 좌측에 '已下傍註入是處'라는 夾註가 적혀 있음. 본래 十二門論 부분에 붙인 傍註가 후대 필사 과정에서 본문으로 혼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202) 卽 : (龍)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203) 文 : (京)에서는 앞에 °를 표시하고, 글씨 사이에 줄을 그었음. 삭제한 글자로 생각됨.

50下 假義 至論第一義空 何曾是有無 何曾是待不待 絶
[26a] 待絶絶 故言語道斷 心行處滅 是淨亦淨 則是一眞
中道 如虛空因長短故 虛空有長短 至論虛空 何曾
是長短 今亦相由說故二諦 至論何曾是兩 故一眞
中道也 故開善意 慧受會一眞中道時遣或[204] 雖言契[205]
中時却或[206] 而眞則中道 故亦得[207]會眞諦斷或[208] 故中道
無別境無別彰[209] 還是眞空之鄣[210]亦可別鄣[211]也 此三師
五說 義望大乘意 並是有所得斷常心行 自是顚倒
豈能遣或[212]也 第一家 平正是中道 旣言中道不能
却或[213] 復此中道何爲 經云 中道第一[214]義諦 寧言平正
是耶 第二家 大經自明 聲聞緣覺但見空 不見不
[26b] 空 所以不行於中道 不見不空故[215]不行中道 故不見
佛性 若爾豈有兩理二體 若合而明之爲中道者 兩
理終是二片 云何一中道 〈一中道〉安何處 安眞上 爲安俗上
安眞上非中道 目俗上亦非中道 合則如上非也 又
假自無體故生而非有者 生是有是無 若言是有 有
自有故不得言生者[216] 若言是無 無法本[217]不起故非生 生

---

204) 或 : 惑.
205) 契 : (京)에는 결락되어 있고, 해당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음.
206) 或 : (續)에는 成.
207) 亦得 : 필사본들에는 得亦으로 적은 후 도치 표시를 하였음.
208) 或 : (續)에는 成.
209) 彰 : 내용상 鄣의 誤字임.
210) 鄣 : (續)에는 彰.
211) 鄣 : (續)에는 彰.
212) 或 : (續)에는 成이지만 필사본들에는 或임. 내용상 惑이 맞음.
213) 或 : (續)에는 成이지만 필사본들에는 或임. 내용상 惑이 맞음.
214) 第一 : (龍)에는 旣言이라고 적은 후 第一로 수정하고 있음. 앞 행의 中道旣言과 혼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15) 不見不空故 : 필사본들에는 이 글자들 앞에 °가 표시되어 있음. 삭제할 글자들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體故可假亦然 眞卽是俗 離[218]無無有者 兩理不相離[219]
51上 離無無有 卽是之是離[220]無無有耶 若言兩理明之 終
是相離[221]也 若則是之是者 照眞是照俗 照俗是照眞
若異則是二照兩境 終是二片物 寧言一中耶 故菩薩
[27a] 瓔珞本業經第二卷集散品 敬首菩薩問佛云 二諦法
性 爲一爲二 爲有爲無 第一義諦復云何 佛答云 隨[222]
有諦無諦中道第一義諦 一切諸佛菩薩智母 乃至法
亦是諸佛菩薩智母 所以者 諸佛菩薩須法生故 佛子二
諦者 世諦有故不空 眞諦空故不有 二諦常爾 故不
一 聖照空故不二 有佛無佛 法界不變〈故〉不空 第一無
二故不有 有佛無佛法界一相 故不一 諸法常淸淨
故不二 佛還爲凡夫說故不空 無無故不有 空實故
不一 本際不生故不二 不壞假名說諸法相也 是二
理者 豈是中道耶 第三家 不二而二 二諦理明 旣云
[27b] 兩理明 寧復言一中道耶 若一中道理 雖無名無相
洞遣百非 而不得云無此理 若無此則是撥無耶[223]見
有此理故 智契會時 隔凡成聖 於是不勉[224]有所得心
也 妙勝定經 佛自云 我昔作多聞士[225]時 共文殊諍有
無二諦 文殊言有 我言無也 因[226]此諍論故 而不能定

216) 者 : 필사본들에는 결락되어 있음.
217) 本 : (京)에는 體, (龍)에는 體로 적은 후 本으로 수정하고 있음.
218)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1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2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21)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22) 隨 :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223) 耶 : 내용상 邪.
224) 勉 : 내용상 免의 誤字임.
225) 士 : (京)에는 七.

51下 二諦有無 死墮三惡道 復服熱鐵丸 逕無量劫 從地
獄出 値[227]迦葉佛 爲我解說有無二諦 佛言一切法皆
無性 〈汝言有無〉是義不然 何以故 若一切萬法 皆悉空寂[228] 此二
諦者 亦有亦無 汝今解者 但解文字義 不解深義 若
爾 豈言兩理二體侈[229]一理一體也 今明中道義 有兩
[28a] 意 一論得失大意 二正明中道也 明得失大意者 涅
槃經云 佛性中道 遠離二邊 而說眞法 大品經云 諸
法實性 不生不滅 不增不減[230] 中論云 因緣
所生法 我說卽是無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 其文
甚多 今略擧之 欲明諸法非有非無 聖人於假名中
道說有無 衆生不解意 多生執著 聞有言定有 有卽
是常見 聞無言定無 無卽[231]是斷見 乃至六十二見 因
此而生 失於中道 亦復迷於假用 大經言 聲聞緣覺
但見於空 不見不空 不行中道 不行中道 故不見佛
性 此文證失中道 又言我於一時 與彌勒菩薩共論世
[28b] 諦 五百聲聞了然不解 世諦近事尙自不解 眞諦深
遠豈能[232]識之 則證迷假名也 若〈迷〉中或[233]假 卽[234]有五失 一
失諸法不二成二義 二失諸法假名成性實 三失諸
52上 法相待成自性 四失諸法皆空成性有 五失中道成
邊見 若人久脩方便了非有非無之道 六識所行處

---

226) 因 : (續)에는 同. 내용상 因이 맞음.
227) 値 : (京)에는 位.
228) 寂 : (京)에는 家, 필사본(龍)에는 家로 적은 후 寂으로 수정하였음.
229) 侈 : 미상.
230) 卽 : 필사본들에는 뒤에 '第四十四丁'을 적은 후 삭제하였음.
231)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32) 能 : (續)에는 此이지만 필사본들에는 能의 草書體임.
233) 或 : 惑.
234)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知有是不有 無是不無 非有非無 二不二 始是至道
故大經云 智者見空及與不空 行中道見佛性 旣解
中識假 還有五得對前失 一解諸法不二也 二知諸
法假名也 三解諸法相待也 四悟諸法皆空 五見於
中道也 山門義卽是無所得觀行 小是大小 如百論
[29a] 所明 大小乘觀行 此是正法 非大非小故 假名相待
明於大小也 若非大非小 而大而小者 此則是竪論
之[235] 若待小故大 待大故小 此卽[236]是橫論 所以大名小
大 小名大小 亦待有故無 因無故有 有名生在於無
名 無名生在於有名 是故有無名爲無有也 以無有
名爲世諦 有無名爲眞諦 此二諦假名有無 而衆生
顚倒於不有有 作有有解 旣謂[237]有是有 卽[238]見色是色
乃至見心是心 旣見色有色 心則爲〈色〉心 諸有所傳[239] 若
正著有顚倒時 不可化也 但著有勞役 後時厭苦欲
求出離時 佛乃爾〈云〉 有本不有 其始得悟不有 得[240]離[241]心
色有等一重轉也 次復隨諸法無有 卽[242]成斷[243]見故 二
[29b] 52下 乘著空 凡夫滯有 今[244]更爲說空不空 彼乃得悟一色
乃至一香 須本已來 非有非無 悟中道正觀 今約觀
悟宜作觀名不名中道也 次非有非無而假名無有

235) 之 : 也?
236)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37) 謂 : (續)에는 隨.
238)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39) 傳 : 필사본들에는 亻변임. 待?
240) 悟不有得 : (京)에는 '已下安傍'이라는 夾註가 붙어 있음.
241)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42)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43) 斷 : (京)에는 所.
244) 今 : 필사본들에는 슈임.

名爲世諦 明假有不有不名有 假有不名不有 只明
世諦假有 非有非不有 備截斷常二見 名爲世諦觀
也 次因世諦故名眞諦 因假有故眞諦名假無 假無
不名無 假無不名不無 故眞[245]諦假無觀 亦備截斷常
兩見 假名眞諦 眞諦旣爾 乃至假名佛性涅槃等類
然 却截故名中道 中道約法 則有無量 然中道尙不
[30a] 可一 豈可有多 而[246]今約法明中道 明一切諸法假名
類 此旣明眞俗觀 物隨[247]應有二諦中道觀 今明俗□[248]
眞 尙自非眞非不眞 眞俗尙非俗非不俗 眞俗尙無 豈
有二諦中道可得 故非眞非俗 故實無三觀義 故
大品經平等品云 諸法平等相 一切聖人 皆不能行
不能到 故仁王經菩薩敎化品云 世佛出世前 無名字
無義名 無體相 無三界名字善惡六道等 但佛出世
爲衆生故 說三界六道等 若爾何處有二諦理天然
耶 第六二諦相卽 二諦相卽 備出衆經 如大經第
53上 十二卷 佛答文殊云 世諦者 卽第一義諦 大品經奉
[30b] 鉢品云 色卽是空 空卽是色 餘經相卽義可尋之[249] 若
言眞卽俗 俗卽眞者 此是奢論 若言色[250]〈卽是空 空卽是〉色 此卽[251]
是切論 雖復奢切 同辨相卽義 但成論師解相卽有
兩種 一云二諦異體而同處 故名相卽 二云一體故
言相卽 卽是卽是之卽也 故開善云 假自無體 生而

---

245) 眞 : (京)에는 須.
246) 而 : (續)에는 師.
247) 隨 :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248) □ : 필사본들에는 俗 다음에 한 칸의 빈칸을 두고 거기에 세로 줄(丨)을 그었음.
249) 之 : (續)에는 次. 내용상 之가 맞음.
250) 色 : 필사본들에는 色 뒤에 是를 적었다가 삭제하였음.
251)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非[252]有 俗卽[253]眞 無體故可假 眞卽是俗也 今謂[254]不然
二諦旣言一體 七地已還 寧有出入觀耶 八地已上
寧有二諦可竝觀耶 又若爲因緣生者 卽是相卽 若
不須因生 卽[255]不相卽 若順虛妄因生 則有相卽 若爲
眞實因所辨 則[256]不相卽 如莊嚴家云 涅槃妙有 出二
[31a] 諦外 此妙有不卽於無 虛空不爲業因所得 常爾具
遍故 不卽於有也 開善等云 佛果二諦所攝 猶是續[257]
待二假成 故得云相卽 今謂[258]不然 兩因所成法 寧得
非因所成 同[259]體相卽耶 又俗卽眞 若猶有俗者 俗便
出眞外 那[260]得卽眞 若卽眞 與眞不異者 寧復得强分
別有俗 若强分別眞爲俗者 便以空分別色 色分別
53下 空 若然豈不乖[261]經耶 今隨[262] 假名名有 此是不有之有
故名爲俗諦也 假名名無 此是不無之無 故爲眞諦
也 有旣是不有之有 故非是離[263]無之有 無旣是不無
之無 故非是離[264]有之無 無旣非是離[265]有之無 故無有
[31b] 外之無 有旣非異無之有 故無無外之有[266] 無無外有

252) 非 : 필사본들에는 앞에 而를 적은 후 삭제하였음.
253) 卽 : (龍)에는 而.
254) 謂 : (龍)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255)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56) 則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57) 續 : (續)에는 讀이지만 필사본들에는 續임. 내용상 續이 맞음.
258) 謂 : 필사본(龍)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259) 同 : (續)에는 因.
260) 那 : (京)에는 耶.
261) 乖 : 필사본들에는 永임.
262) 隨 : 필사본들에는 隨 앞에 °를 표시하였음. 내용상 謂로 생각됨.
263)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64)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65)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66) 無無外之有 : 필사본들에는 無々外々九임.

有則是離[267]無有 無有外無 無則是離[268]有無 無旣離[269]有
無 無卽有 亦無無 離[270]無旣無 有卽無 亦無有 故非無
非有 非眞非俗 而明眞俗 俗是眞俗 眞是俗眞 故無
卽於有 非是雖[271]無之有故 有卽於無 旣非離有之無
故 名爲有無 非是雖[272]無之有故 名爲無有 若無非有
卽[273]是離[274]有之無 若有非無 卽是離[275]無之有 如三假之
有 卽[276]是離[277]無之有 虛空等無 卽是異有之無也 今謂[278]
有旣是不有之有故 有卽是無 無旣是不無之無故
無卽是有也 若他有 異無之有 異有之無[279] 異有之無
[32a] 故用有分別無 是異無之有 故用無分別有 無旣是
離有無故 無名但生在於無 有旣是異無之有故 有
名生在於有 有無二名 旣其不通 眞俗兩體 豈得相
卽[280]耶 故眞俗名一用一 則不論相卽[281] 名異用異 亦不
54上 論卽也 今大乘無所得義 一而[282]異故 所以論卽 ⌈異一
而[283]故 所以論則[284] 若一而有異 二諦一體二用 則不論

---

267)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68)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6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7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71) 雖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내용상 離임.
272) 雖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내용상 離임.
273)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74)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75)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76)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77)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78) 謂 :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79) 無 : (京)에는 品.
280) 卽 : 필사본들에는 則.
281) 卽 : 필사본들에는 則.
282) 一而 : 필사본들에는 而一로 적은 후 순서를 바꾸었음.
283) 異一而 : 내용상 異而一임.

則[285] 若有異而一 如二用一體 亦不論卽 何者 體一一
無卽義 二用理異 亦〈無〉有卽義也 今謂[286] 名一而用異故
卽 用一而名異故卽 此是名用用名 一異相卽也 若
有可有 有不卽空 空若可空 空不卽有 此則空有名
[32b] 用俱異 今明相卽者 須洗前[287]令盡淨 然後可說之 若
色與空相卽義彰 餘法類可尋 何者 言色非色故 色
非色之空色 空非空故空非空之色空 故空色可相
卽也 有不有故有 有可卽空 空是不空空 空可卽有
可卽有故 名爲空有 有可卽空故 名爲有空者 有空
故異有無空 空有故 異空[288]無有[289] 若有非空有 有不
卽空 空不有空 空不卽有 空不卽有[290] 則不得辨相卽
有不卽空 亦無有相卽 故空有旣異 則無相卽義也
成論師等云 因緣卽體不可得 名爲眞 眞卽俗 俗卽
眞 離[291]眞無俗 離[292]俗無眞也 今謂[293]不然 汝眞卽是俗者
則失眞 俗卽是眞 則失俗 眞俗互[294]相失者 復有何俗
[33a] 可卽也 又無相爲眞 有相爲俗者 今問汝有非空有
54下 有則離[295]空 空非有空 空則離[296]有 空旣離[297]有 有出空|外

---

284) 則 : 卽.
285) 則 : 卽.
286) 謂 :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87) 前 : 미상.
288) 空 : 필사본들에는 뒤에 有를 적었다가 지웠음.
289) 無有 : 필사본들에는 有無임.
290) 空不卽有 空不卽有 : (續)에는 空不卽有 不卽有, 필사본들에는 々空不々卽々有々. 본래 空々不々卽々有(=空不卽有 空不卽有)를 잘못 적은 것으로 생각됨.
291)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92) 離 : 필사본들에는 雖.
293) 謂 : (龍)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294) 互 : (續)에는 牙.
295)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96)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有旣離[298]空 有出空外 有出空外 云何相卽 若不出外

者 七地已還 何勞出入觀耶 有無旣異 故不得相卽

也 今無所得義 空不自空 故名爲有空 有不自有 故

名[299]爲空有 旣是空有故離[300]空無有 空是有空故離[301]有

無空 離[302]有無空故 有卽是空 離[303]空無有故 空卽是有

故言色卽是空 空卽是色 離[304]色無空[305] 離[306]空無色也 舊

釋淨名經大品經 色則是空 非色滅空 色性自空 云

[33b] 色卽體是空 非是壞色得空 明此色本性卽於空 如

色是好 而好非色屬法塵 今謂不然 色卽是空 如色

塵法塵者 燒色等時 法塵應不燒 若二並被燒者 據

此爲例 若色空二者 一燒一不當燒不燒 又二種悉

是色故也 今明 此經文直是正義 色卽是空 非色滅

空〈者 此色是空〉色 空是色空 色空故色性自是空 空色故空性自

是色 名爲空色 空與色 非一非異 非有非無 假名開

爲空色 故名空爲色 目色爲空 故色卽是空 空卽是

色 非色滅爲空 故色性自空也 問 俗卽眞者 如車

輪轉時 眞亦被轉不 答 舊云俗車時 眞不當轉不[307]

[34a] 55上 轉也 問 若然者 不明相卽 旣言相卽 是則應被轉

---

297)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98)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99) 名 : (續)에는 爲.
30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301)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302)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303)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304)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305) 無空 : 필사본들에는 空無로 적은 후 도치 표시를 하였음.
306)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307) 不 : (京)에는 本.

一轉〈一不轉〉 卽不卽是也 又如色等 本有今無時 眞空亦始
有之 若眞空本有者 此空何所空 亦不相卽是 若言
眞空不當本始者 亦不當卽不卽 理不理 諦不諦等
寄諸[308]諦等本始相卽者 寄等言 前本空有色等 始後
有故 不相卽等也 今謂[309]空 色空[310]眞空不相妨 故無碍
也 第七辨體相 所言二諦體 師說不同 具如五
重中道中說也 今更明之 一云 二諦以有爲體 空是
其義 所以然者 緣有故空 豈非就有上論空 空以有
爲其體 有以空爲義用 故居士經云 五受陰洞達空
[34b] 是苦義也 今謂[311]不然 若言以有爲體 則應以[312]有爲理
若有[313]是理空則非理 亦應有是諦 無非無諦也 二云
二諦以空爲體 有是義用 故大品經淨名經等 空爲
諸法本也 今亦不然 亦類破之 亦有無旣[314]異 常無常
異 寧得爲體也 三 二諦各有體 有以有爲體 空以空
爲體 今隨[315]不然 各有二諦體 則成兩理別異 不應相
卽 而今經中言 色卽是空 空卽是色 那得有兩體也
四 二諦共一體 隨兩義取 若將有來約 則以有爲體
55下 若將無來約 則以無爲體也 今謂[316]不同 若言一理隨
兩義約者 爲是一理而兩義約 爲是兩理而兩義約
[35a] 若是一理則成一諦 若有二理則應兩體也 五 二諦

308) 諸 : 필사본들에는 借.
309) 謂 : (龍)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310) 空 : (續)에는 없음. 필사본들에는 옆에 '安傍'이라는 夾註가 있음.
311) 謂 : 필사본들에는 隨.
312) 以 : 필사본들에는 似.
313) 有 : (續)에는 不.
314) 旣 : (龍)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15) 隨 : 내용상 謂의 誤字임.
316) 謂 : 필사본들에는 隨.

中道爲體 有無爲義 今謂[317]不然 爲當合此中道之體
而有有無兩用 爲當離[318]此中道 而有有無兩用 若合
此中道 唯應有一用 不應二用 若離[319]此中道爲兩用
者 中道旣被離[320] 卽[321]非復中道 故二諦自有二體 何得
同以一中道爲體 雖有五解 終在四句 第一卽是有
句爲體 第二解卽以無句爲體 第三[322]解第四解 是半
有半無 是第三句亦無爲體 第五解是以非有非無
是第四句爲體 今明二諦體豈是以四句往求得也
今大乘明義 二諦體 此是假爲作名 如坘羅波夷 實
[35b] 不食油 强名食油 今明假名二諦體亦然也 關[323]河相
傳明二諦方便者 本爲顯一道故耳 若不爲顯一道
則[324]無所論也 華嚴經云 如難陀龍王 以憐愍衆生故
從大海出 雨於大雨 今佛世尊亦然 從慈悲大海出
雨大法法雨者 卽是二[325]諦敎門 能諦爲諦也 若常途
師等所說 有是有故有 有還表有 無是無故 無還表
56上 無 無還表無 故無名在於無 有還表有 故有〈名〉唯在於
有 此有無旣自還表有無 故有無則不能表道 不能
表道故 則不名理敎 今時明無別二諦體 二諦體 經
中無別說 而今須辨者 爲他明二諦體故 今對彼論
[36a] 也 今謂[326] 二諦名 是假名名 無得物之功 亦假名體 名體

317) 謂 : 필사본들에는 随로 적은 후 °를 표시하였음.
318)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离(=離)로 수정하였음.
31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를 표시하였음.
32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를 표시하였음.
321) 卽 : (龍)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322) 三 : (京)에는 二.
323) 關 : (京)에는 開.
324) 則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325) 二 : (京)에는 一.

無應名實 故非名非體 但由用故明體假 因體故
辨用 假名名有 假名名無 假名名無 名爲有無 假名
名有故名無有 無有非有 有無非無 非有非無 假名
爲體 乃〈明〉有無假名爲用 欲以表非眞非俗 非眞非俗
强假名爲體 可得有耶 故因緣有無敎 乃表非有非
無之道 所以說有爲表非有 說無爲表非無 故有無
兩敎門 表非有非無之道也 若因有無 得悟非有非
無道者 則有無二敎 眇然無蹤跡 假名〈爲〉理 或名中
道 乃至正觀等種種名 豈復別非有非無理 爲二諦
[36b] 體也 爲因有無 悟非〈有非〉無 則名爲中道正觀 中論辨中
觀者 卽是明有無 顯非有非無正觀 故名爲正觀 故
名爲正觀 約此正觀 明昧等三[327]種勢 假名說爲十地
56下 勝劣等 若始破斷常 卽名爲初地 若斷常畢竟|不起
名正觀 觀若淨乃名第十地也 今明有無二敎 表非
有非無之理 故得言二諦一體 舊師等有無旣是二
故不得辨一體也 故今明二諦以不二爲體 二諦是
有無 不二是非有非無[328] 但二非二故二 此二是不二
二故 是二諦不二之用 不二非不二故[329]不二 此
不二 是二不二故 不二是二諦之體 此卽是體 亦言
[37a] 理 亦言中 亦言本也 用亦言敎 亦言假 亦言未[330] 各有
所對 所以立名 名[331]是則體 非有爲有體體[332] 非無爲無體

326) 謂 : 필사본들에는 言.
327) 三 : (京)에는 二.
328) 無 : (續)에는 每임.
329) 二故 : 필사본들에는 二故를 한 번 더 적은 후 삭제하였음.
330) 未 : 末.
331) 名 : 필사본들에는 없음.
332) 體 : 내용상 衍文으로 생각됨.

將二來約體亦言兩體 以非有爲一體 非無爲一體
若將一體來望用亦言一用 同是假名用也 問 何
文證二諦是敎耶 答 十二門論觀性門云 因世諦
得說第一義諦 若不因世諦 則不得說第一義諦 若
不得說第一義諦 則不得涅槃 又云 欲知世諦 則知
第一義諦 知第一義諦 則知世諦也 又云 諸佛因緣
法 名爲甚深 第一諦是因緣法 故知二諦是敎也 又
四諦品云 諸法雖無生 而有二諦 又經云 如來常行
[37b] 中道 爲衆生說有也 問 二諦中道爲體 出經論耶
答 菩薩瓔珞本業經下卷云 二諦義者 不一亦不二
57上 不常亦不斷 不來亦不去 不生亦不滅 而二相卽 聖
知無二故 是諸佛菩薩知母也 又大經云 涅槃之體 非
有非無 亦有亦無 故今明不但二諦以中道爲體 涅
槃佛性等 悉以中道爲體 中論靑目序云 末世衆生
聞不生不滅畢竟空 便失二諦 故知論主悟解不生
不滅 卽具二諦 又論四諦品云 諸法雖無生 而有二
諦也 肇師論云 當其未有則非有非無 非有非無而
爲有無之體 立一切法 是則[333]二諦相待得名 非相待
[38a] 得體 名是有無故 可論相待 體非有無 所以不論相
待也 今據三文爲證 一淨名經云 法無有[334]比 無相待
故 法無屬因 不在緣故 此卽是明中道法也 二大經
云 譬如大空 不因小空名爲大空 涅槃亦爾 不因小
相名爲大相 卽是名體 爲大涅槃也 三中論燃可燃
品云 若法因待成 是法還成待 此還據用 今則無因

333) 則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334) 無有 : 필사본들에는 有無로 적은 후 도치 표시를 하였음.

待 亦無所成法 此據體也 雖復一往大判如斯 若更
論其義 復有四句 第一用有待有不待者 復有四句
一者 二則論具待 不二則不待 如色空爲二 論其待
57下 色空不二 不論其待 論其相卽 沒其待義 二者 還就
[38b] 二中 復有待不待義 若作有無兩名 則是相待 若作
色空兩名 則不相待 何者 正言有必因無 無必待有
若作色名未必因空 亦可因心等法 作空名未必因
色 亦可因心等也 三者 若言空待不空 此卽是待 若
言空待於有 則飜成不待 所以爾者 正言相待假名
一切法上 皆得於待 若必以有待空者 一切法上未
必盡有 別名相對 如常我瓶衣等名 則無別對 若作
空待不空 有待不有 卽無法而不得者 常則待於不
常 乃至衣不衣也 四者 若言空待成空之不空 此卽
是待 若直云空待不空 此卽非待 故自有未必相待
[39a] 者 如言衣待不衣 何必是成衣之非衣 今道相成者
方得相待 所以加之成字 此字方得足言也 此四種
皆是明 用中有待不相待 若中道體非二不二 空不
空 所以非待非不待也 第二階云 用中有待有不待
相與并是待中也 體中非待非不待 相與并不待 所
以爾者 用中待旣待不待 不待還是待 待不待相與
成大待 體中旣非待非不待 卽無待之[335]不待 無不待
58上 之[336]待 體相與成大不待也 第三階云 將用來[337]望體 體
用皆是待 將體來望用 用體皆不待 所以爾者 旣論

335) 之 : 필사본들에는 앞의 글자와 같은 표시[々].
336) 之 : 필사본들에는 앞의 글자와 같은 표시[々].
337) 來 : (續)에는 未.

[39b] 其待[338] 待不可自待 必須待於體 體用悉是待 體旣言
不待 卽不待於用 用雖言是待 此待竟待誰 所以用
體皆不待也 第四階云 雖復體用悉是待 待名終在
用 雖復體用悉不待 不待終在體 所以爾者 恒將用
義來約體 所以言體待 體何曾是待 故待名終在用
恒將體義約用 故言不待 用何曾不待 所以不待終
在體也 問 若眞[339]俗無二體者 寧得出入觀耶 答
我正觀 非有非無道者 則名入觀 若在斷常心不作
觀者 名出觀 十地經云 愛佛功德 不名無煩惱者 至
七地也 若無差別爲差別 約語嘿動靜 爲出入觀者
從初發心至[340]佛 辨出入觀也 問 他有二諦者 可有
[40a] 並觀 汝無二諦理 寧得並觀耶 答 我約二緣並觀
有無二教 故名爲並 又今大乘明義 非眞無以明俗
非俗無以明眞 故名說俗已辨眞 說眞已明俗 故了
俗卽悟眞 了眞卽明俗 故可名並觀 俗是眞俗 眞是
俗眞 故如成論等宗 眞俗旣異 了眞知終不解俗 悟
俗知終不解眞 眞俗旣不相關[341] 何有並觀義也 此悟
58下 非有非|無道者 復有何並與不並也 問 說有令悟
非有 說無令悟非無 非有非無之道 復無有無者 與
梁武天子義 夢虎[342]空華 至覺則無虎[343]義何異 何者 彼
明生死以還 唯是大夢 故見〈有〉森羅萬像 若得佛時□[344]

338) 待 : (京)에는 時.
339) 眞 : (京)에는 其.
340) 至 : (續)에는 經.
341) 關 : (京)에는 開.
342) 虎 : (續)에는 虛.
343) 虎 : (續)에는 虛.
344) 필사본들에는 한 칸의 빈칸이 있음.

[40b] 譬如大覺 則不復見有一切諸法 汝今說俗諦 於凡
是有 若得聖時 了此有畢竟不有 卽名爲第一義諦
者 與彼何異耶 又山門義凡本謂有 聖本謂無 今凡
悟有表不有 聖悟無表不無 名爲中道第一義諦 則
畢竟無復有無者 此與彼悟第一義諦 無復有世諦何
異耶 答 舊解不同 或云 雖得第一義 猶不失世
諦 但世諦是假 無復有實 如鼠婁[345]栗也 或云 有無二
諦 擧體論類 如安苽 擧體出擧體沒 後廣明諸師說
也 今大乘義二諦 似語而意不同 超然逈出其外 何
者 梁武云 金剛心以下有虛妄病 故有世諦諸法 以
[41a] 得佛時 則唯眞而無俗 今謂不然 若得佛果 唯眞無
俗者 流來之初 但俗無眞耶 若至佛唯眞 眞諦非果
寧得萬行感耶 若佛果唯空 空無應照之能 則化道
斷[346]也 今明 凡謂實有 比[347]得聖已 卽悟有畢竟不有 此
59上 處如同 而亦不失假有 故異彼也 問 若爾彼亦說
有何異耶 答 彼明 假名有是有 今謂 假有不有 何
得類耶 只此諸語 則簡異諸家也 今明本爲凡謂有
故說不〈有〉 爲聖謂無故說不無 如凡不了爲[348]夢 得聖爲
覺 比悟有不復有 亦悟無非是無 故因有無 得非有
非無 非凡非聖 非夢非覺之道 乃識有無方便之教 [41a]
[41b] 故 不同他釋也 問 若欲令衆生悟非有非無之道
故說有無者 何故非直說非有非無之道 而方便說

345) 婁 : (京)에는 毒.
346) 斷 : (續)에는 所.
347) 比 : (續)에는 此, (京)에는 比, (龍)에는 此로 적은 후 比로 수정하였음.
348) 爲 : (續)에는 無.

有無耶 答 前釋名中 已有此問 今更說之 前釋名
不定 今明體不定 故來意各異也 何者 明聖人說教
緣由及具不具 何者 明凡本謂有是有 及聖人謂諸
法是無 今且同其說有無 次令其悟 有非是有 有而
是無 悟無不是 無而是有 無而是有故非有 有而是
無故非無 始可得悟 非有非無之道也 問 他有三
種中道應是三諦 今眞俗表非眞非俗道者 亦應三
諦耶 答 三種中道如八不義中說 但彼有眞俗二
[42a] 諦理 復有非眞非俗中道理 義論有三諦 今明眞俗
是教 以表非眞非俗之道 無別二諦理 豈有三理 又
59下 二教稱諦時 理猶未諦 此所表理受諦名時 二教諦
名癈已 何事三諦 而隨緣說 亦得三諦 故菩薩瓔珞本
業經下卷[349]云 慧有三緣 一照有諦 二照無諦 三照中
道第一義也 問 世間樂小法者 鈍根之人 好問
大乘二諦 與開善何異耶 答 此是無識人也 未入大
乘甘露法門 苟執其非 只言是也 如私△[350]格[351]官解 若
悟大乘味 還嗤昔聵也 開善二諦理是天然境 今明
二諦是教 彼宗二諦是理 一者[352]相 一無相 一名生 一
[42b] 亦無生 今謂[353]兩俱生 兩俱不生 一生一無生 一無生
一生 四句 彼義二諦是一說一不說 今意二諦亦得
四句說不說也 彼義眞無名 俗有名 今謂俱名等四
句也 彼宗二諦一是假 一不假 今明俱是假也 彼宗

349) 卷 : 필사본들에는 局인데, 卷의 이체자의 誤字로 생각됨.
350) △ : 판독미상[諦-5]. (京)에는 十.
351) 格 : (京)에는 俗.
352) 者 : 有?
353) 謂 : 필사본(龍)에는 隨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二諦是理 今謂[354]二[355]諦是事 彼義二諦 一借名 一不借名 二諦 一寄名 一不寄名 今明當體名也 彼宗聖智契眞境時 至忘而彌存 故只得心生苦 不得稱眞理生惱用 能逼所逼知不智異 故彼論云 聖人入滅盡定 蹔息勞務也 今謂[356] 能所俱寂 非能非所 故經云 知苦非苦 名苦聖諦等 何處彌存性二也 彼宗眞理是

[43a] 60上 眞 虛通理是俗 兩理定處死 故 |今謂[357] 說眞爲俗 說俗爲眞 說境爲智 說智爲境 彼宗有此無名無相理 若無此理 卽是撥無邪[358]見 決[359]不得稱無有無生理 如言樹[360]上有神 而不得定莖枝葉處有 今謂 因事故明理何處有如彼理 若爾言同開善二諦者 豈非無識人乎哉 又開善等衆師異口同說 至理是非有非無 今大乘明義 非有無是理 若理是非有無 卽有理之可理 今明非有無是理 則無理之可理 若有理之可理理是理故理也 故云無理之可理 是理非理之理 若理是理故 理則有理異非理 有非理異理也 今明 理

[43b] 是不理理 無非理異理 無理異非理 若有理異非理非理異理 則非有不關有 非無不關無也 今謂 無理異非理 非理異理 非有卽是有 非無卽是無也

第八辨絶名

---

354) 謂 :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355) 二 : (續)에는 一.
356) 謂 : 필사본들에는 隨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357) 謂 : 필사본들에는 隨.
358) 邪 : 필사본들에는 耶.
359) 決 : 필사본들에는 沒.
360) 樹 : (龍)에는 揄으로 적은 후 樹로 수정하였음.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五[361]

顯慶三年歲次戌[362]午年十二月六日興輪寺學問

僧法安爲　大皇帝及內殿故敬[363]奉義章也

361)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五 : 필사본들에는 없음.

362) 戌 : 戊의 誤字임.

363) 敬 : (京)에는 破.

◉大乘四論玄義記

感應義

일•러•두•기

1. 이 <感應義>의 교감본은 2종의 필사본 (京都大學소장본과 龍谷大學소장본)과 續藏經本을 비교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2. 세 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비교적 원본에 가깝게 본문을 재구성하고 각 본의 차이를 注에 제시하였다. (京)은 京都大學소장본, (龍)은 龍谷大學소장본, (續)은 續藏經本을 가리킨다.
3. 丈과 行은 필사본에 의거하였다. 필사본의 전면(우측면)을 a, 뒷면(좌측면)을 b로 표시하였다. 즉, 1a는 첫 번째 丈의 우측면, 1b는 첫 번째 丈의 좌측면이다. 대조를 위하여 續藏經本의 페이지와 시작 부분도 아울러 표시하였다.
4. 일부 한자는 편의상 異體字나 略字를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바꾸어 활자화하였다. (예 : サ卄→菩薩, 為→爲, 即→卽, 既→旣 真→眞, 擧→擧, 関·閞→關, 咲→笑, 躰→體, 导→碍, 踈→疏, 尔→爾, 弥→彌, 无→無, 称·秤→稱, 応→應, 仏→應, 与→與, 尽→盡, 旧→舊, 号→號 등)
5. 行 사이에 추가로 적은 글자는 < > 안에 집어넣었다.
6.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1a] 續60下 [1]感應義有四重 第一大意 第二釋名 第三明體相
第四廣簡

第一大意 夫感應義者 正談衆生與佛 有相會通相關之義 正是興顯佛法爲宗也 故至人雖絶名相 而機動必赴 隨其所宜 麤妙之色 無盡[2]之形 不以寂[3]絶失於應化 亦[4]不以滅迹△[5]於法身也 故涅槃經四相品云 我已久住是大涅槃 種種示現神通變化 如首楞嚴[6]經中廣說 斯則[7]久證涅槃 方垂無盡[8]之化 故眞應兩明 方顯中道正法也 故肇師云 非[9]本無[10]以垂迹〈非迹無以顯本 本迹[11]〉雖殊不思議一也 而經云 感應之名不同 阿惟越致

[1b] 遮經上卷 舍利弗及阿難[12]問佛所見光明等 此何感應也 餘經或單道感 或單道應 華嚴[13]第五十卷云 無心於彼此 而非[14]應一切 金光明經云 佛眞身猶如虛空[15] 應物現形 如水中月也 瑞應經云 吉祥感徵 亦不

---

1) (續)에는 제일 첫 줄에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六'이라는 卷次가 있지만 필사본들에는 卷次가 없음. 필사본들의 표제는 (京)은 '大乘四論玄義記卷六', (龍)은 '四論玄義'임.
2) 無盡 : 필사본들에는 此然으로 적은 후 無盡으로 수정하였음.
3) 寂 : 필사본들에는 易으로 적은 후 寂으로 수정하였음.
4) 亦 : 필사본들에는 思로 적은 후 亦으로 수정하였음.
5) △ : 판독미상[感-1]. 虧?
6) 嚴 : 필사본들에는 發로 적은 후 嚴으로 수정하였음.
7) 則 : 필사본들에는 欠. 則의 이체자를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됨.
8) 無盡 : 필사본들에는 然於로 적은 후 無盡으로 수정하였음.
9) 非 : 필사본들에는 劣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0) 無 : 필사본들에는 此로 적은 후 無로 수정하였음.
11) 本迹 : (京)에는 本迹을 두 번 적고 있음.
12) 難 : 필사본들에는 粉으로 적은 후 難으로 수정하였음.
13) 嚴 : 필사본들에는 發로 적은 후 嚴으로 수정하였음.
14)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能의 誤字로 생각됨.
15) 虛空 : 필사본들에는 應只로 적은 후 虛空으로 수정하였음.

言應 但徵[16]只是應義 徵[17]卽是徵[18]兆也 若感應宗致說

61上 二乘賢聖爲物良[19]田 而小乘[但[20]]意求自廣 非[21]爲含[22]識

含識求道 必附舟航 舟航之大 唯在菩薩[23]〈菩薩〉多諸善巧

隨機濟度 故種種垂應生於勝善 菩薩[24]成佛垂迹殊

勝 故能垂丈六等 故大經四相品云 垂涅槃船入生

死 納耶須陀羅 生羅睺羅 能建大事 卽是入生死 雙

[2a] 林捨化 而歸依無[25]失 爲明斯意 故開感應義也 不同

常途雖遣百非而存爲眞應二身 今明兩身 非百非

所遣 亦非百是〈所是〉 因緣假名二身也 但感應有三雙 一

通別感應 二相應感應不相應感應 三理事感應也

言通別感應中 通感應者[26] 不有衆生而已 有衆生必

有佛 不有佛而已 有佛必有衆生 必因佛故有衆生

必因衆生故有佛 無[27]佛卽[28]無衆生 無衆生卽無佛 何

以故 有病卽[29]有藥 有衆生必有佛 若無[30]衆生則無[31]佛

佛何意出世 爲有衆生故出世 是故無應則無有感

16) 徵 : (京)에는 [山+王].
17) 徵 : (京)에는 [山+王].
18) 徵 : (京)에는 [山+王].
19) 良 : (京)에는 哀.
20) 但 : (續)에는 俱.
21) 非 : 필사본들에는 飛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22) 含 : 필사본들에는 會로 적은 후 含으로 수정하였음.
23) 菩薩 : 필사본들에는 'ㅂ卄(=菩薩)薩'로 적고 있음.
24) 菩薩 : 필사본들에는 'ㅂ卄(=菩薩)薩'로 적고 있음.
25) 無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無로 수정하였음.
26) 者 : 필사본들에는 此로 적은 후 者로 수정하였음.
27) 無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無로 수정하였음.
28) 卽 : 필사본들에는 昌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29) 卽 : 필사본들에는 欠(=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30) 無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無로 수정하였음.
31) 無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無로 수정하였음.

亦復不知若箇衆生前感佛 亦未知若箇佛前應衆
[2b] 生 是故言通感應 無[32]的所屬也 復有通感應義 何者
前旣[33]道 由佛故有[34]衆生 亦得言由衆生故有佛 若無[35]
衆生則佛不出世 是故言由衆生故[36]有佛 旣[37]有兩互[38]
61下 相由 則有兩互[39]相感應 前言佛應衆生 今亦得道衆
生應佛 亦復不知若箇衆生前應佛 若爲[40]佛前感衆
生故 是通漫故 通感應義 取何物通感應 取前通感
應義 佛是應 衆生是感也 問 若言衆生應佛 佛感
衆生 互[41]相感應者 若爾衆生是感 佛是應 此義可解
然佛是非[42]感 衆生是應者 應有三難 一難者 旣[43]有衆
生來應佛 佛應有苦羅[44] 故須衆生來應救之 佛旣[45]無
[3a] 罪苦 何須衆生應之 若有罪苦 則自有縛 那能[46]解他
縛也 答 有二義 一者 道何必赴難感應 若佛應衆
生 則是赴難救苦感應 若言衆生來應佛 非[47]謂赴難
救苦 如大經第一云 佛欲入涅槃 放光召有緣衆生

32) 無 : (京)에는 此.
33) 旣 : (龍)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4) 有 : (京)에는 布.
35) 無 : (京)에는 此.
36) 故 : 필사본들에는 有로 적은 후 故로 수정하였음.
37)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8) 互 : (續)에는 牙. 필사본들에는 弟로 적은 후 互로 수정하였음.
39) 互 : (續)에는 牙.
40) 爲 : 箇.
41) 互 : (續)에는 牙.
42)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能의 誤字?
43)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44) 苦羅 : 미상. 내용상 苦罪의 誤字?
45)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46)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47) 非 : 필사본들에는 飛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佛卽是感衆生 衆〈生〉卽來應佛 如斯感應 非[48]是赴苦難
之感應也 二者 答後難 佛有縛[49]何能[50]解[51]彼縛耶 此是
對治悉檀度衆生 佛非[52]縛非不縛 非[53]縛非[54]不縛 而有
時作縛 度衆生故 如大論第九卷云 我受九種非[55]報
也 耆婆針佛頭 亦如成論 我受五陰身 如受熱鐵丸
須臾[56]不可堪忍也 〈如〉斯等皆是佛有苦 此是爲緣 故言
[3b] 有縛 於〈緣是縛〉 然佛不曾縛 無縛作縛 如無[57]名相作名相 令
62上 衆生識無[58]名相也 亦有時於緣道不縛 然佛不曾是
不縛 何以故 佛若有縛 可言不縛 不曾有縛 云何有
不縛也 二難者 衆生應佛 卽衆生作佛 若衆生不作
佛[59] 衆生不應佛也[60] 答 亦有此義無方 假答難無碍
也 若常途義云 悉達太子王宮生 此卽衆生作佛也
今謂 此是佛作衆生 故王宮生 若佛作衆生 示同衆
生 那得道衆生作佛 衆生示同佛 佛則八十種好 衆
生亦應八十種好十八不共法也 衆生作佛者 卽是
佛出城 四門外不識老病人等 車匿示言是沙門等
[4a] 此是衆生作佛也 三難者 若衆生應佛者 雖衆生具

---

48)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49) 縛 : (京)에는 傳.
50)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51) 解 : 필사본들에는 德으로 적은 후 解로 수정하였음.
52) 非 : 필사본들에는 飛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53)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54)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55) 非 : 필사본들에는 飛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56) 臾 : 필사본들에는 申.
57) 無 : (京)에는 此.
58) 無 : (京)에는 此.
59) 佛 : (京)에는 결락되어 있음.
60) 也 : 필사본들에는 也 다음에 한 칸의 빈칸을 두고 거기에 세로줄(｜)을 그었음.

足一切智十八不共法 佛應不具一切智 既[61]不具一
切智 何謂是佛 衆生應是常住得常住涅槃 佛應是
苦空無常生死也 答 亦是有例之 若成論等義 決[62]
定不得 今則無[63]碍 佛非[64]常非[65]無常 而[66]常而[67]無常 佛
非[68]具智非不具智 而[69]具智而[70]不具智 故釋論云 我坐
道場時 智慧不可得 空拳誑小兒 已度於一切 此是
佛無智 言衆生智[71]者[72] 釋論云 菩薩令得一切種智 佛
在王宮生 雙樹滅 此是佛無[73]常生死苦空 佛遍入六
62下 道生死受身也 又如瑞應經云 不識城門外老病人
[4b] 三年乳哺不語 此等並是佛無智慧 不如車匿智慧
佛是無常無智慧 卽體[74]此是常無常智慧愚痴 此是
涅槃生死 言衆生智者 如上云 車匿既[75]是佛所師 故
云衆生具智慧 既具智慧故 亦得言卽是涅槃 此是
愚癡智慧 乃至生死涅槃 然佛若愚若智並爲智 衆
生若愚若智皆是愚 當緣之愚智 非[76]是愚非[77]是智也

---

61) 既 : 필사본들에는 說.
62) 決 : 필사본들에는 沒.
63) 無 : (京)에는 此.
64) 非 : 필사본들에는 飛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65) 非 : (京)에는 非 뒤에 興이 있음. (龍)에는 非 뒤에 한 글자를 적은 후 지웠음.
66) 而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
67) 而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
68) 非 : 필사본들에는 飛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69) 而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
70) 而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
71) 言衆生智 : (續)에는 없음. (龍)에는 글자들 앞에 ° 표시를 하였음.
72) 者 : 필사본들에는 此로 적은 후 者로 수정하였음.
73) 無 : (京)에는 此.
74) 卽體 : 필사본들에는 글자들 앞에 ° 표시를 하였음.
75)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76) 非 : 필사본들에는 飛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77) 非 : 필사본들에는 飛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言別感應者 衆生本有還源之性 故能排惡以脩善
業 脩善惡藉勝緣 開示正道 令物禀教 必得還源 內
因外緣 唯此爲大 故脩善然[78]感極聖 〈極聖〉垂應成妙善也
但爲緣不同 若應生善者 佛則的應之 餘衆生則不
[5a] 見之 如王舍城有十二億家 四億家不聞不見佛 四
億家聞而不見 四億家亦聞亦見 此則別應 若作善
有緣者[79] 佛則應則度 若無[80]緣之者[81] 佛則不應不度之
問 有緣脩善 其自然得度 何用以爲緣 若衆生無
緣 佛則不應者 何謂佛大慈悲 周普無緣衆生 皆應
六道四生八苦中 不敎救者 復亦[82]皆[83]四弘誓願 若爾
何謂佛耶 答 如斯義 如大論廣明之 喻如風搖菓
63上 樹 熟者前墮 生者則不墮也 亦如城東老姥 左右化
之不得也 非佛無慈悲也 言相應不相應感應者 若
善因與善果相應 惡因與惡果相應也 不就此明之
[5b] 今明 相應感應 能感所感 能應所應 並與法相相應
何以故 衆生所應 此衆生達法相 體解深義 與薩婆
若相應 所行所學 皆與法相相應 佛亦通達法相 此
是能應所應 皆與法相相應 故相應感應也 言不相
應者 顚倒衆生 迷於正道 故不與法相相應 唯佛法
相相應 衆生顚倒故 沈滯在諸廿五有中 而佛大
慈悲念 衆生不知諸法空 不知自身空 而橫計有我

---

78) 然 : 能?
79) 者 : 필사본들에는 此로 적은 후 者로 수정하였음.
80) 無 : (京)에는 此.
81) 者 : 필사본들에는 此로 적은 후 者로 수정하였음.
82) 亦 : 필사본들에는 [感-2]로 적은 후 亦으로 수정하였음. 乖의 誤字로 생각됨.
83) 皆 : 背의 誤字로 생각됨.

我所見 起煩惱故 佛慈念此等衆生 故來應之也
問 旣[84]與佛同知諸法 與薩婆若相應 此則是佛 何須
佛來應化也 答 如太子猶依天子 諸大菩薩[85]具
[6a] 知諸相 而猶依佛 是故須應之也 問 大品經三慧
品云 佛五眼所不見 云何道佛來應之 旣[86]應
卽是應見也 答 此義具四句 一感而不應 二應而不感 三
亦應亦感 四不感不應 如後別釋 但今化顚倒衆生
佛隨顚倒應亦得應也 旣[87]言衆生倒佛隨倒 隨其緣
63下 實非倒也 佛五眼所不見者[88] 破衆生相 但非彼所見
故言不見 隨其見故亦得見 不見見不應應故 法華[89]
經云 我以佛眼觀見六道衆生 貧窮無福慧 但非彼
所見也 言理事感應者 理感應則父子天性相關 故
不得相離 離父無[90]子 離子無[91]父也 佛與衆生 亦同共
[6b] 一源 同在淸淨大源中 但衆生橫起倒 成六道別實
故佛大悲愍衆生 入生死拔也 故感應義 是相關爲
宗 佛所以得與衆生得論感應者 一切衆生旣與佛
道源是同 必有可反本義 故非[92]感 佛以衆生同根本
故 衆生有佛性 衆生有性故 衆生能感佛 衆生皆是
佛子 故佛應衆生 乃是感應 必是性類相關 佛與衆
生氣類 衆生是佛氣類故 此是佛衆生 此是衆生佛

---

84)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85) 菩薩 : 필사본들에는 菩薩 뒤에 같은 글자를 표시하는 々를 적은 후 그 앞에 °를 표시하였음.
86) 旣 : 필사본들에는 說임.
87)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88) 者 : 필사본들에는 北으로 적은 후 者로 수정하였음.
89) 華 : 필사본들에는 花. 이하의 法華經의 경우도 이와 같음.
90) 無 : (京)에는 此.
91) 無 : (京)에는 此.
92)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임.

是佛衆生故 衆生感佛 是衆生佛故[93]佛應此衆
生 是衆生佛故 佛是衆生父 是佛衆生故 衆生是佛
子 是爲父子 △[94]時便得付家業 若是路人天性不相
[7a] 關者 豈得可付家業那[95] 今明衆生與佛亦爾 道源是
同 一切衆生不出法性 性類相關 故得論相感 此一
節語 對他大乘也 事感應者[96] 衆生旣在六道中 顚倒
64上 隨類 無知反歸 受種種身 佛卽[97]其隨受種 種身 或作
牛王餓鬼 或作鵞王像等 佛如斯等事 來應衆生 具
如觀音經普門示現卅三身 如此權反[98]是隨情 如長
者脫珍御服 執持糞[99]器 來應窮子也 此三雙感應
義 攝感應罄無[100]不盡 問 三雙六隻 明感應 一切衆
生 悉皆有此感應義不 答 一往論之 一切衆生通
有之 若再往別而爲語 卽有兩雙 屬別感應 理與[101]通
[7b] 感應 還屬通感應也 問 此三雙感應爲是一 爲當
異[102]耶 答 若成論與地論等義 事異理 理異事 相應
異[103]不相應 不相應異相應 通卽[104]異別 別異通 如斯等
義 並是二見 斷常之執 是戱論也 今謂 理不異事 事

---

93) 佛故 : 필사본들에는 佛故를 한번 더 적은 후 지웠음.
94) △ : (續)에는 渡,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感-3]. 뒤의 第四廣料簡의 동일한 내용과 비교할 때 後로 생각됨.
95) 那 : 耶의 誤字?
96) 者 : 필사본들에는 此로 적은 후 者로 수정하였음.
97)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98) 反 : 變.
99) 糞 : 필사본들에는 番共으로 적은 후 糞으로 수정하였음.
100) 無 : (京)에는 此.
101) 與 : (續)에는 興.
102) 異 : 필사본들에는 乘으로 적은 후 異로 수정하였음.
103) 異 : 필사본들에는 乘으로 적은 후 異로 수정하였음.
104)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不異理 〈此理〉是事理 此[105]事是理事 丈六千尺 此卽[106]指理爲
事 指事爲理 如指丈六釋迦卽是法身 只此法身應
身 法應不二 亦復不一也 相應不相應 亦不[107]異 亦復
不一 無有相應異不相應 無有不相應異相應 只相[108]
應是不相應 只不相應是相應 不一不異 通別不二
此別是通別 此通是別通 通不異別 別不異通 通別
[8a] 不二不一也 此是因[109]緣[110]僞[111]名中道正法 若爲緣說亦
64下 得是一是異也 若導理事是異 理者不生不滅 不可
取不可持 若道事生滅 六道受身猿猴鹿馬等也 相
應不相應亦然 若道不相應 卽是顚倒忘相 愚迷衆
生 若相應者 卽是不顚倒 與薩婆若相應 分別相應
不相應相△[112]也 通別亦爾 通則普感不的簡擇 有善
因則應 無善根則不應 皆悉應之 若論別應者 有緣
則應 無[113]緣則〈卽〉不應[114] 此則通別爲二也 此則爲緣說異 亦[115]
得爲緣說一 理事是一 卽事〈是〉理 卽理是事 卽相應是
不相應 卽不相應是相應 通卽是別 別卽是通 此則
[8b] 爲緣故說 此一是不一一 此異是不異異 隨緣一非
是一 隨緣異不是異 亦不是不一 亦不是不異也 言

---

105) 此 : 필사본들에는 是로 적은 후 此로 수정하였음.
106) 卽 : (續)에는 則,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107) 不 : 필사본들에는 裏으로 적은 후 不로 수정하였음.
108) 相 : (京)에는 결락되어 있음.
109) 因 : 필사본들에는 同.
110) 緣 : (續)에는 福이지만 필사본들에는 福으로 적은 후 緣으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緣이 맞음.
111) 僞 : 내용상 假의 誤字임.
112) △ : (續)에는 非, 필사본들에는 [感-2]. 乖로 생각됨.
113) 無 : (京)에는 此.
114) 無緣則<卽>不應 : 필사본들에는 無則不應으로 적은 후 無緣<卽>不應으로 수정하였음.
115) 亦 : 필사본들에는 之임.

其一異者 此則不異異 言異一者 是不一一也 問

於緣邊 解〈不一一不異異 於說者邊 解不一一不異異耶 答 於〉緣邊則不知是

假[116]名因緣 其只作一一解

異異解 不知是不一一不異異 若是聖人說邊 了知

是不一一不異異也 第二釋名 開善感應義云 所

以名感者 懸相扣召爲義也 應者逗適無[117]差 以爲義

也 爲感之功[118] 在於衆生 爲應之能 必在聖人也 此釋

65上 亦非[119] 但不離[120]斷常二|見之徒 何者 佛聖在於金剛心

後 衆生則在于生死 彼此二義 故二見之徒也 大乘

[9a] 明義 感應應感 言方雖爾 須得其意 感本感於應 無

應義感[121]則不成 應本應於感 無感應義則不成 必由

應方感 故道此是〈應感此是〉感應也 故言感是應義 應是感義

感不自感 由應故感 應不自應 由感故應 若無有應

卽不得言感 若無有[122]感 卽不得道應 何異無生則不

得道滅 無滅則不得言生 旣言應藉感起 感藉應起

此是互[123]相由 故得互[124]爲義 是故言 感是應義 應是感

義也 山中舊說 感應者 非感無以說應 非應無以說

感 感[125]應親切相成 其由天性父子義也 唯得[126]佛菩薩說感

---

116) 假 : (續)에는 僞이지만 필사본들에는 假임. 내용상 假가 맞음.
117) 無 : (京)에는 此.
118) 功 : 필사본들에는 切.
119)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然이 맞는 것으로 생각됨.
120) 離 : (龍)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121) 義感 : 感義?
122) 無有 : (續)에는 此無이지만 필사본들에는 無有임. 내용상 無有가 맞음.
123) 互 : (續)에는 牙.
124) 互 : (續)에는 牙.
125) 感 : 필사본들에는 결락되어 있음.
126) 得 : 필사본들에는 以로 적은 후 得으로 수정하였음.

應 凡夫衆生但慈悲化被 非相應〈感〉應 欲疎論亦得 亦
[9b] 是一宗致也 亦得感是不感義 不感是感義 應是不
應義 〈不應〉是應義 何意如斯者 橫竪釋義故爾 此釋名一
切皆盡也 理論之如此等 是正釋名義 若隨緣就情
釋名字義則〈不〉然 感是何爲義 感是感召爲義 應是何
爲義 應是應容爲義 此感召復何爲義 感召是感義
65下 此應容復何爲義 應容是應義 類如成論等釋識 識
是了別義 只了別是識 心是能緣爲義 只能緣是心
也 第三辨體 問 成實論等師言 第一釋大意 第
二釋名 第三出體 第四簡科 與彼何異耶 答 語言
雖同 其[127]意大異 實錄語言亦不同 但一往明之言同
[10a] 也 他家義宗 有字可名 此是名名 非謂無名名 有體
可體 此是體體 非謂無體體 此〈名〉體皆不可得 如虛空
故經云 是字不住亦非不住文字相 得解脫也 故今
三種四節明義 虛架就情 割折虛空[128] 虛空非丈尺 丈
尺約虛 故道虛空有丈尺 實非虛空有丈尺等 諸法
三節四重等亦復如磬 諸法自無有 何處有名體 但
僞[129]名名 體如虛空 手畫虛空 故大品經句義品云 無
句義爲句義 猶如鳥飛虛空虛空之鳥跡 菩薩[130]句義
亦復如是也 實錄是名體義等 並是諸佛菩薩所設
之 但二乘凡夫得此名體義 各[131]執不同 著名成相 諸
[10b] 佛聖人 還取其所執諸法 示之無所有 故大品經三

127) 其 : 필사본들에는 共.
128) 空 : 필사본들에는 只로 적은 후 空으로 수정하였음.
129) 僞 : 필사본들에는 梅로 적은 후 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假의 誤字로 생각됨.
130) 菩薩 : 필사본들에는 サ卄(菩薩)薩.
131) 各 : (續)에는 名.

慧品云 凡夫著名取相 聞苦著〈苦〉相 乃至聞空無相無
作 著空無相無作 諸佛弟子 不著名 不隨相 又頂王
66上 三昧經云 迷名生法癡 解名滅法癡 又天王問經云
是名字一法 非[132]覆一切法也 釋法[133]亦云 但用差病而
已 不可分別 藥是葱等草 但用病差也 有昔諸師 釋
體相不同 第一大亮法師云 惡機也 〈惡〉非[134]感佛 何者惡
將欲滅時 爾時能感聖 聖人應之 卽非[135]滅 聖人知其
惡可滅 卽便應之 卽是惡能感也 如病須藥 衆生起
煩惱諸惡病 是故須佛來應 由有惡故所以感佛也
[11a] 第二師云 善能[136]感佛 我脩無量善根功德所感佛 如
今時衆生脩諸善根 未來得値彌勒等也 第三靈味
師云 法性理是機也[137] 此理通有諸法故 得言法性與
善惡俱感佛 惡將滅善將生 爾時能感佛 爲其惡將
正〈滅 善將正〉[138]生 爾時能[139]見佛 故佛便應之 單善不能[140]感 單惡亦
不能感 單法性亦不能[141]感 必須具善〈惡法性三種〉方能感 何以故
佛有二種濟衆生 一者慈能與樂 二者悲能[142]拔苦者
卽是救其難[143]卽滅惡也 慈能[144]與樂 是故增善根 令其

---

132) 非 : (續)에는 然,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133) 法 : 論?
134)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135)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136)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37) 也 : 필사본들에는 之.
138) 正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13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40)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41)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42)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43) 難 : 필사본들에는 惡으로 적은 후 難으로 수정하였음.
144)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快樂 卽由法性之卽[145]滅惡生善故 善惡等三俱感 故
世王罪將欲滅善將生 是感佛也 第二家難第一家
[11b] 66下 云 汝言惡感[146]佛 闡提猶如枯木 雖遇甘雨 不能生牙[147]
又法華經第三卷藥喻品云 無根之樹 雖有雨潤 終[148]
不能[149]生菓 又犯四重 如斷多羅樹頭 更復不生 亦如
黑瘡 不復更論須治 如大經言 阿闍世病[150] 醫拱手 畢
死之人 醫不非[151]治 犯惡之人 亦復如是 雖有諸佛 不
能[152]救濟 猶如枯木不能生牙[153] 是惡不能感佛也 第一
家復難第二家 汝若言善能感者 衆生若有病 可用
佛救 彼旣無病 何須佛救 衆生無縛 何須解[154] 旣無縛
不得有解 亦不得無緣有教 教之本敎緣 無緣[155]無教
藥必治病 無病無藥也 第三家難第二家第一家 汝
[12a] 等若言用單善惡各感則不然 如車一輪則不行 如
鳥一翅不能[156]飛行 是故善感亦非 惡感亦非 必須善
惡俱能[157]感 如車有兩輪則任[158]載也 前三師[159] 雖各各執
不同 而未的約三世而明之 第四家云 用過[160]去善感

145) 卽 : 미상.
146) 云汝言惡感 : 필사본들에는 佛聖人惡滅로 적은 후 云汝言惡感으로 수정하였음.
147) 牙 : 芽
148) 終 : 필사본들에는 極으로 적은 후 終으로 수정하였음.
14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50) 病 : (京)에는 王이고 (龍)에는 王으로 적은 후 病으로 수정하였음.
151)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임.
152)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53) 牙 : 芽.
154) 解 : 필사본들에는 佛임.
155) 緣 : 필사본들에는 福으로 적은 후 緣으로 수정하였음.
156)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5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58) 任 : 필사본들에는 住로 적은 후 任으로 수정하였음.
159) 師 : 필사본들에는 阿로 적은 후 師로 수정하였음.

何以故 卽由遇[161]去宿習善根故 今得値佛 故法華經
云 我等宿福慶 今得値世尊 此猶是久植多積方得
値[162]佛也 第五師云 用現在善感 何以故 感應是因緣
義 現在有善 能扣聖 聖人便應之 故經云 卽命是醫
67上 此卽是現在卽能[163]感義 故夫人經云 卽生是念時 佛
於空中現也 第六莊嚴家云 但[164]用過去現在善感佛
[12b] 也 第七師云通取三世善備 方能感 必須過去善作
習因 現在善爲緣 發未來善復有可生之義 必須此
三種具足 聖人能乃應 故言通取三世善感也 故夫
人經云 我久安立〈汝〉 先世已開覺 今復攝取 如此解
似開善解而不異也 第八開善師云 公[165]自手[166]書出感
應義道 若大而言之 三世善皆有感義 何者 以衆生
過去善能[167]爲習因之力 此習因有生後種類之能 捉
現在已生善 亦有習因力 能發生於未來善 若就習
因相生力 三世善皆言能感佛義 何者 三世旣有習
因力 聖人出世 本爲生物 未來善 卽是欲遂衆生習
[13a] 因之用 若爾三世善皆有感義也 但的論感體 唯收
未來善爲義 何以故 以未來善是應生之理 須聖人
爲其作緣 若無聖人爲緣者[168] 此善則不生 或此善任[169]

---

160) 過 : 필사본들에는 遇.
161) 遇 : 내용상 過의 誤字임.
162) 値 : (京)에는 位.
163)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64) 但 : 내용상 俱임.
165) 公 : (京)에는 欠.
166) 手 : 필사본들에는 午임.
16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68) 者 : 필사본들에는 北으로 적은 후 者로 수정하였음.
169) 任 : 필사본들에는 住로 적은 후 任으로 수정하였음.

置[170]亦生 生不熾盛 要須聖人爲作緣生 則力用增强
是故聖人出應 爲作生善之緣 若爾卽正談能[171]感之
體 是當生善也 若用已生善爲感體者 理則不可 何
67下 者 聖人出世 應此善 欲何所作 本以衆生善有可生
之理 須聖人爲緣 是故出應 此過去善已生 聖應何
益耶 若言爲欲增長此善 故出應者 所增長者 猶在
未來 是則爲猶用未來當生善 爲感正體也 正以與
[13b] 未來善有可生之理 須聖人爲作生緣 此善雖未有
而聖人已能[172]懸見 此善有可生之義了然 故名聖人
知機 機者取際會機微之義 問 第一家 若言惡能
感佛者 一切起惡衆生 何故不見佛也 又若言惡能[173]
感者 瑠璃誅[174]釋種七萬二千[175] 死決定業故 佛那不來
救 寧不感佛 故知惡不感佛也 亦是惡能感 多起惡
則感佛 諸菩薩唯脩習善 無有惡 則不見佛 難第二家
善能感佛 衆生旣有善根 自能[176]得道 何用佛爲 如無
病何用藥爲[177] 善何必感佛 自有人雖[178]種善 若不種見
佛因緣 終不能[179]得見佛 如鈂扶盧梵志在山中學道
[14a] 十二年 求佛應之 或云七年 或云五載 不見佛 如參
高[180]不得相見 若爾善何必感佛也 難第三家 善惡俱

170) 置 : 내용상 宜의 誤字로 생각됨.
171)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72) 能 : 필사본들에는 有.
173)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74) 誅 : (續)에는 珠이지만 필사본들에는 誅임. 내용상 誅가 맞음.
175) 필사본들에는 '七万二千' 옆에 '或言九千九百九十万'이라는 협주가 적혀 있음.
176)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77) 藥爲 : 필사본들에는 阿師.
178) 雖 : (京)은 판독 미상.
17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感者 一切衆生皆有善惡 寧不感佛 在六道受苦 而
佛不來應 故知善惡未必[181]感 且如前惡善 各感不立
68上 共感自難解也 難第四家 過去善感者 過去是已謝
滅法 無復善用 何得感佛 有善用感 則不名過去也
難第五家 現在善感佛者[182] 如開善難 已有現在善 來
應何所以 若言爲欲增長此善 故出應者 所增長者
猶在未來 是則猶用未來當生 爲感正體也 難第六
家 用過去與現在善感佛者[183] 如前難兩家難也 難第
[14b] 七家 用三世善具方能感者 如論破三時責善根 已
生生 未生生 生時生 又爲四句生 自生 他生 共生 無
因生等破也 復有師云 用惡爲感因 用善爲感緣 有
因有緣 方得感佛 非是正用善惡感佛 此亦例前難
破也 第八家開善云 雖有多句惡者 約[184]論體唯收未
來善爲義 何以故 未來若有應生之理 須聖人爲其
作緣 若無佛爲緣者 此善卽[185]不生 或此善任宜亦生
生不熾盛 必須聖人爲作緣生 則力用增强 是故聖
人出應 爲作生善之緣 若爾卽正談 能[186]感之體是當
生善也 今謂不然 汝言未來善 若有應生之理 是有
[15a] 是無 若言是有者 四有中何有收耶 又已有收有故
不應更起 若爾起復起 生復生 則無窮過 若言是無
68下 此〈無〉於三無爲中 何無爲所收 無法是常故 不應作有

---

180) 高 : 내용상 商의 誤字임.
181) 必 : (續)에는 心.
182) 者 : 필사본들에는 北.
183) 者 : (京)에는 北.
184) 約 : 필사본들에는 的.
185) 卽 : 필사본들에는 師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186)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法也 既有無所不攝 指何法爲當生理 而能[187]感佛 汝未來善未起 應[188]同菟角之無有 何物感佛耶 且前八家九家所執 並是有所得見心作義 終不離斷常見 故中論成壞品云 若有所受 皆墮斷常也 故仁王經云 若有若無 但生衆生憶念也 又云大王見境見知見說者 例相凡夫 非聖人 故論中三時責破 自他等四句生亦破 大經亦破云 非自非他之所作 亦非無

[15b] 因〈共因〉作也 今大乘明感應義 則不然 不用前八九家明應感體也 應感者 且更序往大意也 感應義者 可謂心生於有心 像出於有像 但衆生心水若淨 菩提顯〈影〉便現其中 心水濁便不見佛 心水淨便見佛 而此佛不從外來 亦復不內出 但心淨因緣故便見佛事 如鏡淨 像非是外來 亦非內出 但[189]此像與鏡非一 亦復非異 若言鏡與像一 有鏡便應有像 不俟須淨 若言異 此是鏡像 復豈得異耶 是故此像 非內出非外來非一亦復非異 鏡淨因故像現 鏡[190]淨譬於感 像現譬於應也 感應大意如此 得此大意 即開[191]本迹義 此兩

[16a] 69上 科必須相隨 亦開[192]理內外義 或復理外感理〈內等 開此大有所得 開[193]前八九家感應義 此並是理〉外義 雖[194]皆破之 而亦得取 是故一家有破有取義 興皇[195]大師

---

18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88) 應 : 필사본들에는 虛.

189) 出但 : 필사본들에는 但出로 적은 후 순서를 바꾸는 표시를 하였음.

190) 像現鏡 : 필사본들에는 便鏡現.

191) 開 : (續)에는 關.

192) 開 : (續)에는 關.

193) 開 : (續)에는 關.

194) 雖 : (續)에는 餘.

195) 皇 : 필사본들에는 王으로 적은 후 '皇乎'라고 夾註하였음.

卽破取卽治護 治護破取 猶是一意耳 言治護者 只
治護令耶[196]義令正義也 一家意 無感無應 是感應義
何故 然求衆生畢竟空不可得 旣無衆生 誰有善惡
是故無感 旣無感卽無能[197]應 是故無感無應 始是好[198]
假名感應義也 今謂 約情明感應義 如前父子天性
相關 不得相離 衆生佛同源皆淸淨故 而衆生流入
六道 起諸顚倒煩惱事 而佛如大悲牛不捨犢子 故
常理應義 應衆生義 理應感應衆生此爲正因也 若
[16b] 言善惡等此是緣因 是故理應爲感應正體 善惡爲
用緣 感而非感正體 就緣應感中 通爲言三世善並
爲感 別則當生善 爲緣應宗也 問 理應正法爲體
者 理感復何爲體 答 亦有此義 正法非凡非〈聖〉 而將
聖表 爲聖正法 擧凡明之 爲凡正法 故還是正法爲
理感 何者凡背正法 流浪六道 故聖應之 令得正法
若爾聖意正爲正法 故正法理感體得也 故大經云
69下 一切衆生壽命歸如來壽命中 譬云八大河歸入大
海 十八不共法中果地欲無滅 又似如正法 非因非
果 而兩望正因正果 一正法義開因果 但非感應正
[17a] 宗也 若道法身者[199] 則非眞非應 若道眞應 則屬應身
何以故 若眞若應 並是名相事故也 若道法身是應
空 是非虛空 亦屬應身 若言法身 非空非不空 不有
非不有 非[200]生非不生也 若道法身 寂滅是不寂滅 是屬

---

196) 耶 : 내용상 邪임.
19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198) 始是好 : 미상.
199) 者 : (京)에는 北.
200) 非 : 필사본들에는 없음.

應也 若言法身 百是所不是 百非所不非也 若就情

語 卽非眞非應 非[201]爲眞身 若眞若應 非[202]爲應身 非眞非

應 則有理感 卽有理應 若眞若應 則是事應事感 此

眞應異他家 他〈家〉眞身只是應身義 若眞若應 皆屬應

身 非眞非應 皆屬眞 亦得言非眞非應悉是應 非非

眞非非應 皆爲眞身 如斯無窮轉也 問 爲卽善惡

[17b] 感 爲離[203]善惡感耶 答 不卽不離 不卽善惡 不離善

惡感也 問 惡是任運顚倒起故 如山[204]崩 若水東流 衆

生那得此善根能感佛 又定善感爲定惡感耶 答

旣作惡如崩 爲善如登[205] 又諸佛菩薩 知此衆生顚倒

源未[206] 故同類愍想善細細歸本源也 通而爲語 善惡

70上 皆非[207]感佛 故大論云 聖人出世 非無因緣 若善將生

而惡將滅 滅惡生善 爾時聖應 故知通感 若別而明

之 惡法凡有兩義 但[208]爲[209]感緣 一與法身非其同類 善

惡隔故 二將滅向無 無無[210]正用 爲此[211]兩義 但[212]爲感緣

若論善法 則備二能 一與法身同類 同類相關故得

[18a] 相感 如銅山崩而鐘[213]鈴應也 二將生之善向有 有力

201)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202)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203)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204) 山 : 필사본들에는 없음.
205) 如登 : (續)에는 如騰登, 필사본들에는 騰登으로 적은 후 騰을 如로 수정하고 있음.
206) 未 : 미상.
207)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能의 誤字?
208) 但 : 俱의 誤字?
209) 爲 : 필사본들에는 得.
210) 無 : 필사본들에는 'イ ニ有傍'이라는 夾註가 있음.
211) 此 : (續)에는 無.
212) 但 : 俱?
213) 鐘 : 필사본들에는 鍾.

用彰故 爲此兩義所以正感宗 問 亦得云善惡各
自感佛不相關不 答 論[214]師云 理而論之難知 若就
事而明之 必須相帶 何者 如流來衆生唯惡 不能[215]見
聖 知單惡不感 又如登極聖 不須見聖 故知單善不
感佛 問 若然佛應不見應佛 彼答 非機感見 但
境界通故得見也 今大乘不爾 有善必有惡 因緣義
故 得有相化 又同源故得見也 問 汝初流來衆生
無善 終不見聖耶 答云 用當生善感故得見 今謂不
然 汝當有善都無 云何由此見耶 又有所得善 非其
[18b] 類故 佛不正應此善也 問 有漏〈無漏〉善 並能感聖不
答 開善云 並能感凡聖得見佛故 故假空前但有漏
善 感感見聖 爾時生有漏善 七地已還有漏無漏善
70下 感 感聖 得具生兩善 八地已上|但無漏善感 感見聖
故 生無漏善 念念入法流也 今謂[216] 發心十信已上 生
無漏善 而不妨有有漏善 問 十信前一向有漏善
不 答 如偏行六度菩薩 與二乘人亦得假無漏善
也 問 金剛心見佛應便以佛感耶 答 現[217]佛爲緣
生當佛故[218]也 問 若言善惡緣同俱感佛 惡則顚倒
善亦應是顚倒不 答 必有衆生而已 有此善惡衆
[19a] 生 自然有此善惡 於[219]兒愛婦之善 如毗曇家 生得善[220]
義也 若有生得善 便得此身 則得此善 亦是顚倒 隨

---

214) 論 : (續)에는 有.
215)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216) 謂 :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217) 現 : (京)에는 理.
218) 佛故 : (續)에는 故佛.
219) 於 : 필사본들에는 拎. 怜의 誤字로 생각됨.
220) 善 : (京)에는 答.

有衆生處 則有善惡 如衆生出生 則業知飮食貪婬
欲瞋恚 無人敎者自然有 衆生出而有善惡 不關遇
緣起 亦復遇善惡緣起 善惡出生 自有善惡 惡旣是
顚倒 善亦是顚倒也 問 一切衆生出生時 皆有此
善惡 何故不倂感佛 而有感不感者 衆生應有此善
惡者〈有無善惡者〉 那惚倂有善惡也 答 感語卽通 應語卽別 諸
佛觀緣 應卽利益 諸佛卽應 若應無利益 卽不應 如
衆生不宜見佛卽不住 如淨名經 須彌入芥子 有緣
[19b] 之者卽見 無緣之者不見 是故佛應衆生亦類也 有
71上 緣卽應 無緣不應也 其雖俱善惡 若過[221]⌈佛則脩善轉
多 惡則少 若不遇佛 造惡則多 善則少也
第四廣料簡 問 機是何物耶 答 成實[222]論等師 皆
云 以善爲機 所以能感 所以然者 佛是善聚 衆生有
一念之當善 此性類相關 賓[223]招於大聖 是故佛卽應
之 故開善感應義云 當生善爲感正體 正以未來善
有可生之理 此善雖未有 而聖人已能懸見此善有
可生之義 故名聖人知機 機者 取際會機微之義也
故引周易言 機者動之微 吉之先現也 又言知機者
[20a] 其[224]神乎 法師明言 書中此言 闇著於理 吉者[225]則善也
先現者 善[226]事雖未萌[227] 而有必然之理 以顯現故 言吉
之先現也 必然之理妙絶難知 而聖人能豫察 豫察

---

221) 過 : 내용상 遇의 誤字임.
222) 實 : 필사본들에는 寅.
223) 賓 : (續)에는 賔. 冥?
224) 其 : (京)에는 具.
225) 者 : (京)에는 北.
226) 善 : (京)에는 害.
227) 萌 : (續)에는 荫.

必然 故言知機者其神乎 動之微者 不可言已動而
微也 但以必動之理微妙 故言動之微也 故有解者
言 理而未228)形 豈229)非應有之理先現耶 今大乘意不然
必然之理有何異相 若纖豪有異相異於無者 可言
必然之理 既無有者 何謂必然之理 聖所照境 如前
破也 今謂 緣正感應 緣感是善惡用也 但緣感應 聖
71下 應|善惡感是傍 理應正體也 機是何義者 機是須宜
[20b] 義 須佛身宜 或須菩薩230)身宜 或須辟支佛身宜 或須
聲聞身宜 如觀音經 須世231)三身 但須佛不須餘身 如
須跋陀羅 須阿難身 不須佛身等 今聖人知所須身
故現卅232)三身 各爲不同也 知此所須之須 所宜之宜
微妙 故言機者微也 如知脉須冷熱藥等 亦如言須
而非假233)等四句也 問 須是機者 此須是當善將生
之須 爲當欲滅惡之須 爲欲心中生善之須耶 答
通義三須並是 別卽宜據當生善須也 故從來 一云
機以234)宜爲義 地持經云 機以機關235)爲義也 問 傍感何
以得知善惡體耶 答 大論龍樹云 聖人不以無因
[21a] 緣出世 若有衆生 罪將滅福將生 爾時聖人則出 既
言福將生 豈非就當生善與應滅惡爲傍感體也 又
大經云 若有衆生 性戾自具須人敎訶 然後調伏者

---

228) 未 : (京)에는 永.
229) 豈 : (龍)에는 望으로 적은 후 豈로 수정함.
230) 菩薩 : (續)에는 菩薩二十이지만 필사본들에는 サ卄(=菩薩)卄임. 菩薩을 약자로 적는 과정에서 卄을 한 차례 더 적었고, 이를 (續)에서 二十으로 판독한 것으로 생각됨.
231) 世 : 卅의 誤字.
232) 卅 : (龍)에는 世로 적은 후 卅으로 수정하였음.
233) 假 : (續)에는 倒, (京)에는 僞, (龍)에는 假.
234) 以 : (續)에는 爲.
235) 關 : (京)에는 開.

聖人爾時爲此人故 常隨住之 爲作調伏因緣 若爾
寧非爲生未來善故應以衆生耶 問 經中亦言多
種善根故 生生世世 不離[236]見佛 若爾寧非佛應已生
善耶 答 此意猶是習因用 非正宗也 又如現在斷
72上 善成闡提 此人現在必不生善 而聖人爲現 此人[237]
見佛者 豈非爲生當生[238]善作因緣耶 又如成
實論師云 流來衆生滅聖 有何已生而感聖 故知未
[21b] 來善爲便 此擧非顯是也 又如七八地上菩薩[239]不
曾起惡 復成就煩惱 於道不妨而佛來應 此菩薩[240]
等者 寧非爲生善應之情 故知雖以善惡爲緣感 而
應生善正宗也 問 若未來善有緣感者 同開善義
答 語[241]雖同 意[242]大異[243] 彼謂 有當生之理 定在未來 今謂
只名字假所設 如書虛空 名字亦如虛空也 無[244]差別
差別中 應生善爲便也 問 凡聖相背[245] 昇沈永隔 寧
得相感耶 答 所以得與法身通者 實是法身妙絶
出塵垢之上 諸衆生凡品卽處[246]重恨之下 則事而言
清濁有殊 而所以得與法身相通者 如前佛與衆生
[22a] 同源不二爲本 有衆生已則有佛 有佛已卽有衆生

---

236) 離 : 필사본들에는 雖.
237) 爲現此人 : 필사본들에는 爲現此人을 중복하여 쓴 후 뒤의 것을 지우는 표시를 하였음.
238) 生 : (京)에는 王.
239) 薩 : 필사본들에는 薩을 중복하여 쓴 후 뒤의 것을 지우는 표시를 하였음.
240) 薩 : 필사본들에는 薩을 중복하여 쓴 후 뒤의 것을 지우는 표시를 하였음.
241) 語 : (京)에는 謂.
242) 意 : (龍)에는 異로 적은 후 意로 수정하였음.
243) 異 : (龍)에는 意로 적은 후 異로 수정하였음.
244) 無 : (續)에는 此, 필사본들에는 無.
245) 背 : (京)에는 皆.
246) 處 : (龍)에는 度로 적은 후 處로 수정하였음.

故得與聖相召也 又如來往昔初發心 求佛道之時
行慈悲心 廣發四弘誓願 若我得佛時 必當救拔一
切衆生 今得成佛 則體無異 或與萬物通同無有隔
碍 而今衆生在於衆苦 理應救拔 衆生既有善應生
72下 而要須聖人爲作緣 此將滅之惡 與應生之善 仰關[247]
大聖 大聖有慈悲本願 與此應生善無隔碍 故相通
感應也 問 當生善爲緣感體 一切衆生應生善悉
爲感不 答 開善云 未必皆[248]感 何者 若未來善 若廻
向三有 於佛果紆回者 此善雖未來發 而聖人不爲
[22b] 生此善故出也 又未來善應生 若直任置[249]生則熾盛
若聖人爲出生則微弱者 聖人亦不爲此出 故不得
云 未來善悉[250]爲感應體也 今大乘明義 彼家三有善
與向菩提善 普是理外善 聖人亦爲出 亦不爲出 何
者 若漸欲拔如楇[251]出楇亦爲出也 若任置[252]生則熾盛
聖人爲作緣微劣 故是不出 復有因微弱而悟道熾
盛 何必悟道則不出也 雖爾聖人出應 正爲無所得
廻向三有善 與向菩提[253]善故出故 理外具一切善
理內亦具一切善故 彼[254]若受生三有善 並是無得善
聖人正爲此故出也 故思益經第二卷分別品云 一
[23a] 切法正 一切法耶[255]也 故華[256]嚴經云 菩薩[257]遠離三界

---

247) 關 : (續)에는 開, 필사본들에는 關.
248) 皆 : (京)에는 智.
249) 置 : 미상. 宜?
250) 悉 : (京)에는 迷.
251) 楇 : 미상. 필사본들에는 [衤*屑]. 楔의 異體字로 생각됨.
252) 置 : 미상. 宜?
253) 菩提 : 필사본들에는 菩薩提로 적었다가 薩을 삭제함.
254) 彼 : (續)에는 波.
255) 耶 : 내용상 邪.

而莊嚴三界 大經云 彌勒菩薩 在第四天名勝命

色 並勝餘天也 問 廻向三有鄣道善 得作一乘感

73上 佛果不 若得作者 何意不爲感體耶 答 開善等云

廻向三有善 得爲一乘體 感我當成佛果 此善非則

感聖乃有乖[258] 終得作佛果故入一乘義 何者惡資生

出世善根 此之善力則非[259]通法身 故入一乘體 廻向

三有善 旣順生死 與法身隔 故聖人不應此善出也

今謂不然 如大品經明 有得理外善 莫問三有與菩

〈提並〉非正應 故非正感體 無得理內善 不同[260]三有與菩提

[23b] 皆是正應 故是正感體也 此意△[261]舊定言 三有善非

感佛善也 通論感應 有情無情等四句 一者無情感

有情 二者〈有〉情感無情 三者無情感無情 四者有情感

有情也 何者 無情感有情者 如名山美水必致勝人

也 有情感無情者 如寡婦坐長城頹 寡婦哭深水開

中也 如虎嘯長風起 人叫[262]谷嚮應也 無情感[263]

無情者 如銅山崩鍾鈴應也 此終取其類相關 鐘[264]鈴

已是銅故應 鐵石等終不應也 若有情感有情者 正

是感應宗 如積善之家至人必應也 問 理內外得無得[265]

異 若爲得相感 如方蓋應圓底[266] 豈得相稱

---

256) 華 : 필사본들에는 花. 이하의 華嚴經의 경우도 이와 같음.
257) 薩 : 필사본들에는 薩을 하나 더 적었다가 지웠음.
258) 乖 : 필사본들에는 卒.
259)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能의 誤字?
260) 同 : 필사본들에는 同으로 적은 후 向으로 수정하였음. 同은 問의 誤字로 생각됨.
261) △ : (續)에는 厈,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感-4].
262) 叫 : (龍)에는 明으로 적었다가 叫로 수정하였음.
263) 無情感 : 필사본들에는 無情感을 중복하여 적은 후 뒤의 것을 삭제하였음.
264) 鐘 : 필사본들에는 鍾.
265) 無得 : 필사본들에는 無得을 중복하여 적은 후 뒤의 것을 삭제하였음.

[24a] 耶 答 今以方感圓 令方者圓 以無所得應有所得
73下 令有得作無所得 則是有得感無得也 通而明之 有
多種四句 第一明感應四句 一應而不感 二感而不
應 三亦應亦感 四不應〈不〉感也 此四句異第二四句者
今明初兩句 初一往不感應[267]而後必感應 第二
四句初兩句始終無感應明之 〈故成〉兩四句異也 應而不
感者 諸佛菩薩出現於世 而一切衆生生善而衆生
不生善根 如[268]須拔陀羅等也 感而不應者 一切衆生
欲見佛菩薩而不値見 又如鈂扶盧梵志等 亦如理
外感理內 此何必相應應耶 後兩句[269]可尋也 第二明
[24b] 應現四句者 一應而不現 二現[270]而不應 三亦應
亦現 亦[271]四不應不現也 應而不現者 如聞佛菩薩出
現而不見 亦[272]未生無得善根也 如城中四億人 城
東老〈姥〉也 現而不應者 如見佛菩薩 不爲其故 而不生
善根也 後二句可知之 第三明應分四句者 一應而
不分 二分而不應 三亦應亦分 四不應不分也 應而
不分者 逢佛菩薩 不生無得善根分 亦不見神力 一
中解無量等義也 又如佛菩薩一身以應物 何必分
身應也 分而不應者 不見佛菩薩而生無所得微善
74上 分 亦解一〈中〉解無量等義與亦解分身義 亦可分身而
[25a] 不應彼也 後兩句可尋之也 第四明應變四句者 一

266) 底 : (續)과 필사본들에는 [疒+氐]이지만 내용상 底의 이체자임.
267) 不感應 : 필사본들에는 不應不感應으로 적은 후 중간의 應不을 삭제하였음.
268) 如 : (續)에는 故.
269) 句 : 필사본들에는 問의 약자체의 형태.
270) 二現 : 필사본들에는 二現을 중복하여 적은 후 앞의 것을 삭제하였음.
271) 亦 : 衍文임. (京)에는 '恐衍'이라는 夾註가 있음.
272) 亦 : 필사본들에는 亦을 하나 더 적었다가 지움.

應而不變 二變而不應 三亦應亦變 四不應不變也
應而不變者 如諸佛菩薩直以本身應物 何必變身
應也 變而不應者 如初地等身轉爲二地等身也 此
亦是變事 何必是應 如水涕變爲蚯蚓可是應耶 後
二句可類尋之也 第五明變分四句者 一變而不分
二分而不變 三亦變亦分 四不分不變也 變[273]而不分
者 如佛一身應猿猴鹿馬 隨作一身 則是變而不分
作多身也 分而不變者 如分作釋迦身 以應衆生 而
終[274]是釋迦佛 不變爲異道身 故是分不變 事如分身
[25b] 作無[275]量釋迦佛受純陀供等也 亦分亦變不分不變
可知也 第六明本迹多少四句者 一本多迹少 二本
少迹多 三本迹俱多 四本迹俱少也 言本多迹少者 如
十方世界無量百千〈本〉身 只共同起一迹身也 言迹多
本少者 如釋迦一本身 迹身則無量遍滿洹沙世界
故 法華經云 有分身千釋迦 釋論卅五云 十方世界
淨穢土遍滿中 皆是釋迦等也 言本迹俱多者 本迹
74下 兩身|周滿恒沙世界也 言本迹俱少者 一本身起於
一迹身也 第七應感多少四句者 一少感而應多 二
多感而少應 三少應而小感 四多應而多感也 少感
[26a] 而多應者 如一人脩行 能感十方諸佛也 多感而少
應者 如衆人同感 一佛出世 利益無盡衆生也 後兩
句可知之也 第八明利益少多四句也 一應多益少
二應少益多兩[276] 三俱多 四俱少也 應多而益少者 今

273) 變 : 필사본들에는 亦으로 적었다가 変(=變)으로 수정하였음.
274) 終 : (續)에는 於.
275) 無 : (續)과 (京)에는 此, (龍)에는 無.

略擧一事 如[277]栴檀德王佛 起無量[278]應佛 應長壽童子 而彼但得初果 未能[279]得深悟 亦如無量[280]劫化一衆生 或得發心等也 應少而益多者 如或一化一菩薩 應之而彼多有所悟 或發心乃至得初心或二心等也 後二句可尋也 第九明久近 亦名長短四句者 一本久迹近 二迹久本近 三本迹俱久 四本迹俱近也

[26b] 言本久迹近者 本身住世 無量[281]千萬劫[282] 迹則暫起而滅度故[283]近 依一解 如迦葉佛本身久 迹〈身〉留住七日不久也 言本近迹久者[284] 如須扇多佛本身出世不久見衆生 無一乘之緣 速入涅槃 則留化佛住世半劫 則迹久也 言本迹俱久者 如西方淨土 如蓮華[285]藏

75上 |世界等 諸佛本身住世 無量[286]不可惻[287] 壽無窮盡 迹身壽命亦無窮盡本身同等也 言本迹俱不久者 如釋迦本身八十年 迹身亦然 本去世 迹亦隨去 卽是穢土中佛也 第十明麤妙感應四句者 一應妙而感麤 二應麤而感妙 三俱麤 四俱妙也 應妙而而[288]感麤者

[27a] 如丈六善客[289] 但生天人世間善也 應麤而感妙者 如

---

276) 兩 : 衍文임.
277) 如 : 필사본들에는 加.
278) 量 : (京)에는 星으로 적은 후 量으로 수정하였음.
27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280) 量 : 필사본들에는 星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81) 量 : 필사본들에는 星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82) 劫 : (京)에는 起, (龍)에는 起로 적은 후 劫으로 수정하였음.
283) 故 : (續)에는 如, 필사본들에는 故임. 필사본을 따름.
284) 久者 : 필사본들에는 久者를 중복하여 적은 후 뒤의 것을 삭제하였음.
285) 華 : 필사본들에는 華.
286) 量 : 필사본들에는 星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287) 惻 : 測임.
288) 而而 : 而 하나는 衍文임.
289) 客 : 容의 誤字?

現猿猴鹿馬等形 而非[290]爲生三乘善根 能爲三尺瞿
師[291]羅之身 能[292]生無漏之解也 後二句可知之也 第十
一明麤妙四句 亦名優劣四句者 一本妙迹麤 二迹
妙本麤 三本迹俱〈妙 四本迹俱〉麤也 言本妙迹麤者 諸佛妙本常
住微妙寂滅 若起迹 無常相好麤影[293] 則易得見 或可
丈六 或見猿猴鹿馬事也 言迹妙本麤者 下地菩薩
或初心菩薩 則能化作佛以八相成道 遍入六道 應
衆生 若論本只是初心菩薩 此極麤 隨而能[294]作微妙
法身相好端嚴也 亦如魔王已能[295]爲優婆掘多化作
[27b] 佛身 卽卅二相八十種好 目連在〈左〉 阿難在右 釋梵等
衆前後導從 優婆掘多不覺爲作禮 此亦是本麤迹
75下 妙也 又如龍能化作|人身 入佛法出家 是善慧龍王
子 其乞食前得 還房而眠 後伴還 則見是龍子驚怖
龍眠亦覺 還復是人也 亦如野狐等 悉非[296]作人也 言
本迹俱妙者 本迹微妙相好光明智慧勝 本迹具四
德常住嶷然 眞智寂然也 言本迹俱麤者 本身亦入
六道受身 此義卽彼地本迹義 他本一向是常是具
四德〈迹無常不具四德〉本不入得六道 迹能[297]入六道 故今迹無常無我
若[298]空 本身亦無常無我若[299]空 四句並通 何者如舊義

290)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能의 誤字로 생각됨.
291) 師 : 필사본들에는 何로 적은 후 師로 수정하였음.
292)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293) 影 : 필사본들에는 顯.
294)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295)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296)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能의 誤字로 생각됨.
29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298) 若 : 苦의 誤字임.
299) 若 : 苦의 誤字임.

[28a] 有二法故不得通 今明點空假名名義故 無往不通
故中論涅槃品云 因無常說常 故常亦是有爲 如斯
義 永異成實論等義宗也 第十二明動不動四句 亦
名常無常四句也 一本不動迹則動 二迹不動本卽
動 三本迹俱動 四本迹俱不動 言本不動迹動者 如
法身是垂[300]迹動也 言跡不動本動者 如須扇多佛 留
化佛常在世間 本身滅度無常也 又如迹身留在不
動 而本身[301]隨入六道等也 言俱動者 兩身隨[302]緣行化
言二身俱不動者 本迹常在故 不動 兩佛空身故無
所動也 問 一感應亦應得四句不 答 欲亦作亦
[28b] 76上 得也 第十三說不〈說〉四句者 一本不說迹說 二本說迹
不[303]說 故論云 應化非眞佛 亦非說法者
也 三本迹俱說 四本迹俱不說 如俗說眞不說 俗不
說眞說 眞俗俱說 眞俗俱不說也 問 有應少善多
不 答 有如釋迦 止[304]現一身 生無量[305]善 或應多善少
如栴檀德王佛 爲長壽童子 現無量眷屬 但生初果
善也 第十四明圓[306]偏感應四句 一圓感徧應者 一切
善根扶理利他 無[307]得善故 不問大小 悉皆能[308]感
佛所作一念善 皆能[309]感一切佛 從初發心乃至金剛

---

300) 垂 : (龍)에는 乘으로 적은 후 垂로 수정하였음.
301) 身 : (續)에는 師.
302) 隨 : (續)에는 墮.
303) 필사본들에는 不 앞에 '說 二本說迹'을 중복하여 적은 후 삭제 표시를 하였음.
304) 止 : (續)에는 佛이지만 (京)에는 山, (龍)에는 止의 초서체임. 내용상 止가 맞다고 생각됨.
305) 量 : (龍)에는 星으로 적은 후 量으로 수정하였음.
306) 圓 : 필사본들에는 員.
307) 無 : 필사본들에는 無 뒤에 感一을 적은 후 삭제하였음.
308)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0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心以來 並能通感一切佛 而未必盡見一切佛 或但
[29a] 見釋迦一佛 或復但見彌勒一佛等 而始終盡見諸
佛義也 二偏感圓應者 如一人但願見一彌勒 而一
切十方諸佛皆應也 行者雖欲一佛 而諸佛四弘誓
願無隔 故悉應知之也 三偏感〈偏〉應者 如彼只願一釋
迦 還只見釋迦佛也 四圓感圓應者 如三業一切善
根 能感十方諸佛也 此四句語雖同舊途說 無差別
差別明之 亦得用也 問 約竪論之 正法定是圓應
76下 亦是偏應耶 答曰 望緣|應明之 爲圓應 亦得言偏
應 一道卽是偏 比[310]多爲徧 如對偏爲中 而言圓爲[311]
宗者 正法不二故 圓應故 華嚴經云 文殊一道出生
[29b] 死 更無異趣 若爾正法不二一道 無在不在 遍滿圓〈應故 大經如來性品云 中
道佛性 猶如虛空月 取圓滿〉
無徧也 然就他家 明感應宗 佛出衆[312]累之表外 衆生
則在於顚倒 此則凡聖分隔 衆生與佛 頓永玄絶 有
兩神明有際故也 彼云 衆生有善扣大聖 佛便從金
剛後心 入生死應衆生 如此府仰豈非二見之徒也
今明 還就彼語治護 令得正感應義也 彼意不得根
本 所以落於二見中也 今明感應此是相關[313]義 佛所
以得與衆生得論感應者 一切衆生與佛 道源是同
但衆生虛妄顚倒故 成六道 雖成六道而其根本是
同 故必有可反本之義 故能感佛 以衆生與佛根本

310) 比 : (續)에는 比此, 필사본들에는 此로 적은 후 比로 수정하였음.
311) 爲 : 필사본들에는 爲 다음에 빈칸을 두고 세로 줄(丨)을 적었음.
312) 衆 : (續)에는 家.
313) 關 : (京)에는 開.

[30a] 是同故 衆生有佛性 衆生有佛性故 衆生〈能感佛 以衆生〉皆是其子
故 佛應衆生 是感應必是相類相關[314] 佛與衆生氣類
衆生是佛氣類 是故此是佛衆生 此是衆生佛 是佛
衆生故 衆生感佛 是衆生佛故佛應此衆生 是衆生
77上 佛故|佛是衆生父 是佛衆生故 衆生是佛子 是爲父
子 故後時便得付家業 若是路人天性不相關者 豈
可付與家業耶 今明衆生與佛亦爾 道源是同 一切
衆生不出佛性 性類相關 故得相感也 此一節對他
異也 問 有待有明空 有不待有明空者 亦得言有
相待明感應 有不相待明感應不 答 具有之 何者
[30b] 理感應 則不待明感應 緣感應是待感應也 如空有
是相須 非空非有非相須 故大經云 不因小空 名爲
大空也 問 感應具論疎密[315]不 答 約宗[316]途明之 不
例 感應相待相須義論[317] 必由感故應 因應故感也 疏
密[318]乃通能所 而亦論佛作敎被緣 本令緣得悟 故悟
不悟并[319]在緣 不在乎佛也 若通例疏密且[320]通感應能
所也 問 感應具論疏密者 爲當得就感上明疏密
約[321]應上釋疎蜜耶 答 具通感應 能化所化 如佛
作敎被緣令悟 悟則亦應且[322]通能所 故悟不悟但在
稟敎之緣 亦疎密但在感也 問 就空有釋感應

---

314) 關 : (京)에는 開.
315) 密 : 필사본들에는 容으로 적은 후 密로 수정하였음.
316) 宗 : 常?
317) 論 : 필사본들에는 切.
318) 密 : 필사본들에는 容으로 적은 후 密로 수정하였음.
319) 并 : 필사본들에는 開.
320) 且 : 필사본들에는 亘.
321) 約 :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約으로 수정하였음.
322) 且 : 필사본들에는 亘.

[31a] 應不 答 感應非空有 亦得是有非空 又亦得約空
有也 問 因[323]緣空論感應 空因緣論感應 答 就因
77下 緣空則感應非感應 空因緣非感應感應也 今時明
員[324]偏義 卽開横竪義 俱通四句 自有竪通横別 或復
横通而竪別 或復横竪俱通 或復横竪俱別 論此員[325]
徧感應 卽關[326]竪横通別 今合釋員[327]偏通別感應者 前
須得其根本員[328]正無差別大意 次後方得論差別感
意[329]等也 今言根本員[330]正大意者 明十方諸佛 共同一
法身 亦是十方諸佛同一應用 十方諸佛應用不同
亦十方諸佛法身不同 此義具如淨土科中廣明兩
[31b] 本迹也 非但佛如此 菩薩衆生亦然 就一切菩薩亦
同一法身 一切衆生同一佛性 卽是同一法身義也
今先須如此混通之意 次論其[331]差別 差別者 則開横
竪等四句 或復通感別應 乃至別感通應也 今先論
通感者 明一切衆生悉與佛 道源[332]是同 無不應反本
者 是故悉皆感佛 如斯義無隔此 卽是通感應 通者
諸佛法身 皆悉應物 恒爾未嘗暫廢[333] 無有一佛法身
但應此衆生而不應彼 應義無隔 是故應義亦通 此

---

323) (京)에는 具.
324) 員 : 圓.
325) 員 : 圓.
326) 關 : 필사본들에는 開.
327) 員 : 圓.
328) 員 : 圓.
329) 意 : 내용상 應의 誤字로 생각됨.
330) 員 : 圓.
331) 其 : 필사본들에는 具.
332) 源 : (續)에는 原.
333) 廢 : (續)에는 癈.

卽是感應俱通 然此中言感通有二種 一通者 一切
78上 衆生 無不反本 一切衆生幷感佛故言通 二只一衆
[32a] 生通感諸佛 故言通 應亦然 一者一切諸佛皆應 此
是通義 應通無隔 二者一佛通應一切衆生 故言應
通也 次明感通而應別 就此通中 復有別 別中復有
通義 今擧事來顯 如千萬人營一佛 此卽是感通而
其人人心所祈各[334]異 彼見釋迦 此見彌勒 雖復同爲
一業 感義乃通 而得應各不同 卽是應別 然此得是
應通而感別 約彼人人各所祈不同 卽是感別 同爲
一業 故招通應 故應通感別 是故雖言感通 而卽有
感別義 雖言應通 卽有應別義 然此通是就橫爲語
然通別復有多種 自有橫通而竪別 自有竪通而橫
[32b] 別 然橫[335]通而竪別 此只是橫感通 而竪應別 竪通而
橫別者 只是竪應通 而橫感別 言橫通而竪別者 如
人具行一切萬行 但願見佛 或願見一發心菩薩等
願見一十地菩薩 後佛菩薩隨願一人應之 此卽是橫感
通而竪應別也 問 同造萬行 感乃當是橫感通 而
佛菩薩隨願一人應故竪別者 何故一人是別 復何故
言是竪別耶 答 初發菩薩乃十地 乃至佛 此階位是
78下 自同 若並應 卽是竪通 而今竪位中佛菩薩一人應故
言竪別也 問 旣言唯得見一佛 求一菩薩應 是別感
那言通耶 答 言通者 一人通脩萬行 行皆共感故
[33a] 言通 一人異件[336]人故別者 亦得但一人萬行中 一佛

334) 各 : (續)에는 名.
335) 橫 : (續)에는 構.
336) 件 : 필사본(龍)에는 俸으로 적은 후 件으로 수정하였음.

或一菩薩應故言別也 次釋竪通而橫別者 此只是竪
應通 橫感別也 自有一行通得見諸佛菩薩聖人 如持
或氣[337]業通願見初發心菩薩乃至佛等也 次後則登位
諸聖人初發心菩薩乃至佛 皆應有[338] 此卽竪應通而橫
感別故 道竪通橫別 此感中雖有通別 此皆是橫論
之[339] 是[340]故感邊論橫通 或論橫別 應皆論竪故論竪
通竪別 然應邊亦應具論橫通別 今直作一
種勢語耳 雖言竪通橫別橫通竪別等 此實是竪應
通橫感別 亦是橫感通竪應別 此則是竪 就感論橫
[33b] 通別 應中論竪通別 然就感中 復應論竪通別 應中
復應論橫通別也 今旣釋感中 橫通別 准例此則 應
中橫通別 亦可知 旣〈釋〉應中竪通別 則准例此 感中竪
通別亦可知 不復具出也 問 前言通感而別應者
79上 如多人共爲一會業者 此意乃是感別 何者 彼等旣
人人心願不同 祈各[341]異 還復如彼所祈而應者 此豈
非別感應耶 答 今謂[342]不然 據[343]彼所造業同 故言感
通 而隨其各欲見 不同而應之故 是應別也 問 感
應義 爲當作心方能[344]感 爲不作心能[345]感耶 應亦爾 聖
人作心方能[346]應 爲不作心能[347]應耶 答 古來解不同

---

337) 氣 : 필사본(京)에서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미상.
338) 有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미상.
339) 之 : 也?
340) 필사본들에는 橫論之是를 중복하여 적은 후 뒤의 것을 삭제하였음.
341) 各 : (續)에는 名.
342) 謂 :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343) 據 : (續)에는 渡.
344)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45)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46)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4a] 一生〈法[348]〉師云 照緣而應必在智 此言應必在智 此卽是
作心而應也 今時諸論師並同此說也 二安肇[349]二師
與搖法師云 聖人無心而應 應不必在智乎 此[350]兩
教碩相反 今一家傳 同後說 故華嚴經第五十卷云
無心於彼此 而應一切也 無量義經云 聖人識滅意
忘也 往往大乘經論 並據云 譬如[351]幻化事故也 理
而論之 若心意識[352]不滅 終落二見中故 中論成[353]壞品
云 若有所受 則墮斷常見也 但照緣者 不必在智 如
數論師 定有此心法 直是任[354]照不無所知 如幻化人
照境 故言任[355]照緣也 不在智者 亦是智而無知 不如
[34b] 木石無知也 然怜怜世諦[356]中 有此心法 用心知者亦
多妨 如當生善 感當生義△[357] 未有寧得非[358]作心方能[359]
79下 感耶 過去久習善根已滅 今能感聖 豈能[360]得章[361]作心
感耶 現在心能作祈求 復已有知故能[362]感體也 今時
釋感應意 具如前說 但約緣感 遠明之 亦得作心義

---

34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48) 法 : (京)에는 云.
349) 肇 : 필사본(京)에는 聲.
350) 此 : 필사본들에는 此를 한 번 더 적었다가 지웠음.
351) 如 다음에 (龍)은 約을 적었다가 지웠고, (京)은 한 칸의 빈칸을 두었음.
352) 識 : (續)에는 □.
353) 成 : (京)에는 咸.
354) 任 : 假의 誤字로 생각됨.
355) 任 : 假의 誤字로 생각됨.
356) 諦 : 필사본들에는 帝.
357) △ : 판독 미상. [耳*布]. 필사본들에는 耶로 적은 후 [耳*布]로 수정하였음.
358)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能의 誤字?
35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60)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61) 章 : 當의 誤字?
362)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何者 若就事釋感者 必須遠前方便 作心祈請至誠
方能[363)]感聖 雖爾作意祈求者 作意能[364)]所無所也 故經
云 觀於諸法 不生不滅 諸佛現前也 若就理明之 一
切衆生與佛 道源是同 悉當反本 天性相關 任運自
感 佛何必須作必[365)]耶 應中亦然 就聖人方便應物 卽
[35a] 爲作心 雖爾不如二乘凡夫有相 故聖人無心於彼此
而能[366)]應一切 是故如谷[367)]嚮 鏡中像應也 但釋應
不同 莊嚴云 應法起 開善云 不起 如法身義中釋也
問 感應義 爲當理外感理內 爲當理外感理外耶
答 具有四句 一理外感理內 二理內感理外 三理
內感理內 四理外感理外也 理外感理內者 有二種
一者 如今博[368)]地凡夫 但知須衣覓食之人 此感佛者
此只是遠感 佛亦但遠應物 何故言遠應者 此衆生
去道旣遠 未能[369)]得 卽[370)]令其悟道 是故未與出世之法
且與其世間之樂 或復令其勉[371)]難離苦[372)]等事 譬如盲
[35b] 80上 人雖|不見日月 而恒蒙日月之利益 若無日月則不
能得有衣食事 今具縛凡夫亦爾 雖盲無知 目去道
遠 而恒爲諸佛菩薩遠利益 所謂與其世間樂也 二
者 約有得無得交接 明之正宗也 如前是傍義 如此

363)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64)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65) 必 : 心의 誤字?
366)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67) 谷 : 필사본들에는 谷 다음에 빈칸을 두고 세로 줄(|)을 넣었음.
368) 博 : 필사본들에는 傳.
36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70) 得卽 : 필사본들에는 두 글자 앞에 °를 표시하였음.
371) 勉 : 免의 誤字임.
372) 苦 : (龍)에는 若으로 적은 후 苦로 수정하였음.

遠感等義 並未是感應正宗 如後則釋也 理內感理
外者 如佛感得衆生 衆生皆是佛之所感 此衆生是
應佛 如大經召聲聞中[373)]聲而來等也 理內感理內者
此卽是應感義 生於相應善根也 理外感理外者 欲
是四句耳 寧非感應義也 今言感應宗本意有二種
一者 凡入聖者 相應不相應[374)]感應者 取第一句爲正
[36a] 宗 何者理外人將欲悟而未悟者 此人能[375)]感佛 佛正
應此人 所以然者 將欲悟故能[376)]感聖 佛卽應之 故彼
便得悟 設不應之則必不悟 是故佛正應此 將欲悟
人故 亦轉成理內卽爲例 是故今論感應 正取接際
人 此正意感之本也 二者 相應感應者 理內入理內
此是切相成因緣感應也 此意不可失也 若論理外
感理外 理內感理外兩句 則是傍義也 一家感應意
只爲衆生與佛 道源是同故 得論感應 此處永
80下 異於他家也 問 若言衆生與佛 道源同故感應者 一切
衆生旣與佛 道源同故 一切衆生並應感佛 那忽有
[36b] 感不感佛者 若一切衆生 有感佛 有不感佛者 當知
衆生與佛 有同源 有不同源也 若是他家義 不論源
同事 故感應義 衆生有善者 則能感 何故然 善是淸
昇扶理故 有善者則能[377)]感 無善者則不感 自可解 今
家 同源故能感 則不可解也 答 一切衆生 雖與佛
源同 而復藉緣方能感 若無緣則不非[378)]感 故大經迦

373) 聞中 : 필사본들에는 두 글자 앞에 °를 표시하였음.
374) 相應 : 필사본들에는 두 글자 앞에 °를 표시하였음.
375)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76)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7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葉與師子吼 並作此難 若一切衆生有佛性 自應感佛
何用修道 佛答[379] 如洹河中七人 雖并具足手 而有
習浮 有不習浮 故出沒不同 今明 雖與同源 而必須
藉緣故致感也 問 必須緣者 何者是緣耶 答 惡
[37a] 必可滅 善則必可生 此則是緣 若有此緣 則能感佛
以衆生并未具此緣 故有感不感也 問 若一切衆
生悉佛同源者 一切衆生悉應惡[380]可滅 善應可
生 無有衆生 惡不可滅善不可生者 若然則衆生悉
應具此緣 便應並能感佛 還著前難也 又旣道源同
81上 者 便應任運惡自滅 善自可生 不笱[381]應也 答 實是
一切衆生 惡悉可滅 善皆應可生 但[382]不無奢切近遠
者近[383] 今惡則可滅善則可生 是時能感 此則是將悟
之時 聖卽應 卽便能[384]悟 正是滅惡生善 正是接際之
時 已如前釋也 遠者 當來惡有可滅義 善有可生義
[37b] 此則當來方應也 若不爲悟則未必應之 惡方滅善
方生時 未必一向應之也 如闡提 亦有怜兒婦之善
何必是聖人應之方生也 大乘明義 必是無所得善
能爲菩提因者 此善必須聖應方生 不應則不生 亦
是必能鄣道之大惡 必須應方滅 不應則不滅 若顯
爾小小之惡 彼或能息 此亦未必須應也 問 聖人
應者 必是菩提因者耶 答 如五戒十善亦是應生

378) 非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能의 誤字로 생각됨.
379) 答 : (龍)에는 若으로 적은 후 答으로 수정하였음.
380) 應惡 : 필사본들에는 두 글자를 중복한 후 뒤의 것을 삭제하였음.
381) 笱 : 필사본들에는 머리 부분이 竹이 아니라 炏임. 苟의 의미임.
382) 但 : (續)에는 俱.
383) 者近 : 近者의 도치임. (京)에는 者에 '傍'이라는 夾註가 있음.
384)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者 而前善[385]道者 感應宗致明也 問 理內外相望滅
應得有傍正不 答 有之 何者理外因感理內 亦具
傍正 理內感理外 亦具傍正 理內感理內 亦具傍正
[38a] 理外感理外 亦具傍正也 今言傍正者 取其生解悟
爲正 感菩薩佛義爲傍也 一切衆生悉有佛性 故悉應
81下 令正悟故爲正也 望感佛菩薩爲傍 雖然今山門宗有
所得不得作 無所得習因 而道源同故 會當反本 是
故得有得轉作無所得義 故得有傍正之說 問 前
云有緣無緣者 引大經中河中七人 有習浮有不習
浮明之 猶未[386]解 等是同源衆生 何意有前習浮 有不
習者耶 又有緣者 衆生曾以衣服飮食 奉供菩薩者 如
此名爲有緣 無如此名爲無緣耶 答 理而明之 實
未知何意 有緣感 無緣不感 有緣方應 無緣不應耶
[38b] 世間大地 尙不道道[387] 我能[388]載不能[389]載 日月亦不偏照
此不照彼 況於佛菩薩有彼此耶 而凡所作一念善 卽
扶理虛通 并能扣一切佛菩薩 是故能感一切佛菩薩 豈
當有一佛菩薩而與我無緣者也 應亦佛菩薩慈悲並赴
一切衆生 豈當有與我無緣不應哉乎 且衆生與諸
佛菩薩 道源是同 並應反本 寧得言有緣無緣也 一家
意 先須得此通意 然別[390]意明之 〈不〉無有緣無緣義 若
菩薩初造發心時 供養三世十方諸佛 願度一切衆生

385) 善 : 필사본(京)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386) 猶未 : (續)에는 未猶.
387) 道 : 衍文?
388)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8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90) 然別 : 然과 別 사이에 (京)에는 한 칸을 비웠고, (龍)에는 別자를 적은 후 지웠음.

願學一切諸法 並通一切諸佛 悉有緣無緣者 但行
之時 不能[391]得通遍 或經遊爾許世界 供養若干佛 教
[39a] 化爾計[392]衆生 其餘諸佛未得供養 其餘衆生未得敎
82上 化 此取所供養佛 詺作菩薩有緣 亦隨所曾供養佛 隨
所敎化衆生等 名爲於佛菩薩有緣 於佛菩薩有緣 諸
佛菩薩悉來應也 亦於菩薩有緣衆生 菩薩應此〈衆生 是故經云 菩薩成佛時隨
所調伏衆生 於菩薩有緣衆〉[393]生 悉來生
其國等 然此豈[394]得定有之緣無緣 但衆生有受化者
未受化者 已受化者 心水淨故 得見菩薩 便名有緣 未
受化者 心水未淨 故不見菩薩 便名爲無緣[395]也 問 佛
來應衆生 令悟道者 外草等亦得道 來應衆生不 亦
得化草木等不 答 此問意者 猶未得開合之意也
今不二而二 開爲境智 智中未悟者爲衆生 已悟
[39b] 者爲佛 悟之緣爲境 作三種開故 已悟佛來應 未解衆
生令悟 故佛來化衆生 所迷悟之境 未曾迷悟 那作
佛來應 復寧得是感那[396] 若無方僞僞[397]名詺之 亦有此
義 又諸法不二 卽是空義 亦得是佛 而感應宗卽非
也 問 遺法中經像 關[398]感應不 答 論師有三說 一
云 是傳應 能應本雖滅 而傳應尙存也 二云 猶是感
82下 應於昔感餘勢 今日[399]猶存也 三云 此直[400]是以福善力

---

391)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392) 計 : 許의 誤字?
393) 衆生是故經云菩薩成佛時隨所調伏衆生 於菩薩有緣衆 : 이 부분은 (京)에는 별도의 종이에 적어서 윗부분 여백에 붙였고, (龍)에는 윗부분 여백에 적어두었음.
394) 豈 : (續)에는 室, 필사본들에는 豈의 이체자[山/王]. 필사본을 따름.
395) 緣 : 필사본들에는 福으로 적은 후 緣으로 수정하였음.
396) 那 : 耶의 誤字?
397) 僞僞 : 僞는 假의 誤字. 僞 중 하나는 衍文?
398) 關 : (京)에는 開.

生値於時 此非關[401]感應義也 今大乘明義 言方並有
前三釋 但須得意 非如彼義理有此義也 問 感應
義是因果不 答 亦得不得義也 得者凡感聖應 爲
[40a] 通增上緣因果義得 但有二種因果 或因前果後 復
果前因後義也 不得者 約生習明之 果來酬因 此永
屬彼人 不失感應 則暫來訓其感 令其脩善不永屬
其也 問 佛菩薩爲作緣生彼善者 爲生習報善不
答 通爲生二種也 問 若通爲生者 何意非兩耶
答 佛菩薩雖具二種因果 而於他衆生爲作緣義 并屬
通增上緣用故非也 若生習義宗 約自前後明之故
非也 問 報習兩因 悉有感力相與是善能出昇故 答
無差別差別明之 報因但爲感緣別脩習 復後招生
果故 習因別脩習 旣其出昇有正感用 但此兩因復
[40b] 有各傍正 何者 習因正感當果 傍能感應用 報因正
感生果 傍感依報也 問 習因習果悉感耶 答 通
論之亦得此義 而不二而二論之 因是正感於果 非
正感應[402] 但習果應生起時 假聖應緣發 所以得起故
83上 習果爲正感 乃至金剛|心當起善 此是習果作緣 由
因感此義 最後切論之 但以義感不辨因果 如但以
善爲因不論報習因果 亦如解故 能斷[403]亦不論因果
何以故然 望前卽是果 望後卽是因故 問 上言感
緣何者 答 如身等三業善是感緣 以應生善法正[404]

---

399) 日 : 필사본들에는 曰.
400) 直 : (續)에는 宣,
401) 關 : (續)에는 開.
402) 應 : 필사본들에는 應 옆에 '用イ'라고 하였음.
403) 斷 : 所의 誤字?

爲機感也 問 感應亦通三聚空有耶 答 大乘明

[41a] 義 無差別明差別 故並通也 如感通三業皆感 應則

六塵悉應 空有色心並應也 色心並應者 色通內外

內外色皆應 則心通於善惡解或[405] 言內外色皆應者

內色應者 或丈六千尺 或人天六道等身也 外色應

者 如作地水火風樹木藥等也 〈心應者〉 心通善惡解惑[406]並應

也 空有應者 有應者[407] 如前三聚等也 空應如[408]空爲佛

事等也 只以空爲有 〈只以有〉爲空故 只以有處能令空以應

物 只以空爲有[409]能令有以應物也 又以有爲空應物者

者[410]如人在囚獄 墻壁枷鏁甚自牢嚴 無由得去 而觀

音力 能令豁然 無復墻壁等者 此即是有爲空 空爲

[41b] 有等者 且非有爲有 何意不得空爲有等 即如逈絶

83下 無人處 觀音力 能令宛然有城邑人物一切皆滿也

數論有得大乘家 有筒[411]有無筒[412]無 有無二法故不得

論如斯義無 今明義無二法 點空爲義故無往不得

但間中開合用與有〈便不〉便不無[413]强弱也 大乘明義如此

處求[414]異他家 第一須得此意也 他家明形聲兩種應

物 聲應〈義〉則能[415]令得悟解 形應義則能[416]令生善 何者 聞

404) 正 : (續)에는 生.
405) 或 : 惑의 의미임.
406) 惑 : 필사본들에는 或.
407) 有應者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408) 空應如 : (續)에는 空應如가 중복되어 있음.
409) 有 : 필사본들에는 없음.
410) 者 : (京)에는 삭제하였음.
411) 筒 : 箇의 誤字.
412) 筒 : 箇의 誤字.
413) 不無 : 필사본들에는 無不로 적은 후 도치 표시를 하였음.
414) 求 : 永의 誤字.
415)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說法能[417]令得悟解 見佛色身等形 但能[418]生善法 今謂亦通 聞說法旣得悟解 見形亦能得[419]悟解 見形旣生善 聲應何容不能生善 故今明雖通能亦無不[420]强弱

[42a] 聞說法得悟義則强 見形得悟義則弱也 問 何故須聖應耶 答 他云無不皆言 爲欲滅惡而生善 是故聖人應物也 今明此乃當然 而頗有出 應令滅善解而生惡或[421]者 不[422]者亦有此義 如非[423]善非惡能善能惡等也 問 始信終大謗者 應之不 始不信而終信復應不 始終俱信 始終俱不信 應不[424]

答 並有之 如善星初入佛法 誦得十二部經 乃至得禪定 而後大生誹謗 成闡提 乃至入阿鼻 然佛亦應[425]之 初謗後信者 如十仙外

[42b] 道逐六城應之 初後俱信可解 初後俱不信 佛亦應

84上 之 如經言 今雖無益 作後世因緣 故須應之 問 自有隱信而顯不信 自有顯信而隱不信不 答 有之有人佛在世時不信 而佛滅後方生信 自有人佛在世時大信 而佛滅後不復生信 隱顯俱信可知 上三句並應之 第四句隱顯俱不信者 亦應不應 應者爲

---

416)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41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418)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非로 수정하였음.
419) 得 : 필사본들에는 物.
420) 無不 : 不無?
421) 或 : 惑의 의미임.
422) 不 : 미상.
423) 非 : (續)에는 없음.
424) 필사본들에는 뒤에 '答並有之如善星初入佛法誦得十二部經乃至得禪定而終信復應不始終俱信應不'을 적은 후 삭제하였음. 필사 후 중복된 것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됨.
425) 應 : (續)에는 然.

後世因緣有此義 不作因緣者不應也 問 衆生感
佛 得有損佛義益佛義不 佛應衆生 得[426]損衆生義
益衆生義不 答 亦有此義 何者 諸佛本是逍遙物
外 獨出三界 絶有無之表 超眞俗之外 名相之所不
[43a] 能[427]名 形像之所不能[428]惻[429] 身非量與無量 智非邊與無
邊 形非相好與非相好 身非丈尺所能[430]量也 但爲衆
生故 作丈六之身 受九種罪報 爲穢土衆生 取色身
智慧 王宮生 別婦出家 踰城學道 漫踰山谷不擇山
林 六年苦[431]行 成佛之後 蹉乞食隱其福德智慧神力
淨土 作如此事 并是損佛義 又如長者 脫珍御服 著
弊壞衣 執持糞器 身同衆生 作爲如此事 豈非損佛義
九種罪報者 〈一[432]〉孫陀梨謗佛 二旃[433]遮婆羅女帶搾作
84下 腹 三提婆達多推山拶[434]佛傷足大指 四迸木|刺[435]佛脚
五毗留璃太子興兵煞諸釋子 于時佛頭痛 六受
[43b] 阿祇達多婆羅門請而食馬麥 七冷風動故背痛 八
六年苦行 九入婆羅門聚落 乞食不得 空鉢還也 言
益佛者 佛與菩薩在因時 行四弘誓願 願度一切衆生
若一切衆生不成佛 我終不取正覺 若無衆生能感
菩薩則不增菩薩行 亦不得滿本願 若無衆生起惡煩 菩薩

---

426) 得 다음에 (京)은 한 글자의 빈칸을 두었고, (龍)은 損을 적었다 지웠음.
42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28)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29) 惻 : 測의 誤字임.
430)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31) 苦 : 필사본들에는 若.
432) 一 : 필사본들에는 者와 孫 사이에 '一脫乎'라는 夾註가 있음.
433) 旃 : (續)에는 稱.
434) 拶 : 필사본들에는 窄.
435) 刺 : (續)에는 刺.

那得增長菩薩忍辱度 而436)得諸行成就 若無破戒諸惡
那得顯釋持戒品人也 故菩薩若見衆生來惱437)打拍 我
卽作是念 此衆生欲增長我功德 衆生來惱不瞋 可
謂滅惡忍辱成就 若不煩 菩薩何事知菩薩精進 何事應
起瞋 得堪任事 故淨名經云 雖在五欲 而禪行是可
[44a] 謂438)齊有 何以故 此五欲來煩菩薩 菩薩則不生著 在六塵
境 能439)不爲六塵所染 此事是齊有 是爲菩薩所行 故此
土是脩善一日 當他方百千曰440) 再脩曰441)復倍 是何故
然 他方無有惡故 不增進菩薩行 是故道諸惡衆生感
佛故 令佛增長滿願 如金數數練治 轉更442)明淨 故釋
論云 如猪揩摩金山 轉益明淨 若衆生謗佛起惡 向
85上 菩薩等不瞋不憙生忍知 更轉益增菩薩諸行 若爲八風
所動轉 此菩薩還是凡夫衆生 不名菩薩也 問 佛在益
中住 損中住 答 佛不在益中 亦不在損中 何以故
若作住損益之中 則爲損益所轉 亦不損益外也 他
[44b] 家云 佛不在損中 而佛在益中 佛不在惡中 佛在善
中 佛不在亂中 佛在靜443)中也 今明佛非靜444)非亂 能445)靜446)
能447)亂 佛非善非惡 能448)善能449)惡 非有非無 能450)有能451)無中

---

436) 而 : (龍)에는 者, (京)에는 者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437) 惱 : 필사본들에는 煩.
438) 謂 : (京)에는 說.
43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40) 曰 : 日.
441) 曰 : 日.
442) 更 : (京)에는 事.
443) 靜 : 필사본들에는 聲으로 적은 후 靜으로 수정하였음.
444) 靜 : 필사본들에는 聲으로 적은 후 °를 표시하였음.
445)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46) 靜 : 필사본들에는 聲.
447)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行 非眞非俗 〈能眞〉能[452]俗中行 非增非損非利衰 能[453]爲增損
利衰中行也 佛應〈衆〉生有損益者 就心則爲兩 一者世
間損益 二者出世間損益也 言世間損益者 佛在世
應衆生 開道衆生 令遠離罪脩善福 說三歸五戒 衆
生從佛悟解 依佛敎而脩行 卽得生[454]人[455]天中 得勝
妙果報 此是益衆生也 言損衆生者 若佛不在世 不
造寺塔[456]等 則無經像亦無所謗毁 旣佛出世 衆生卽
[45a] 造寺塔造經像等 衆生或因汙慢佛殿塔寺 或剎佛
像 或偸經反賣 或謗諸佛 不生信受 如此等事 皆因
有佛出世 起如是罪 並令衆生墮三途義 此是損
85下 衆生義 問 若爾者 衆生起惡多者 如大品|經第九云
閻浮提人 信般若者少 不信者多 若爾一切衆生起
謗不敬信 並令悮墮惡[457]道 有敬信三寶者 少不足言
此益小不[458]無以[459]補損 如得功德天 復直黑闇女
此是無益 何用佛道耶 答 有二義 一者 若佛不在世間 如
犢子失母必死 不△[460]衆生無明黑闇中行 如群盲
臨坑 如盲入刺林 難可得出 今佛爲導衆盲 皆悉引

---

448)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49)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50)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51)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52)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53) 能 :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454) 生 : 필사본들에는 聖으로 적은 후 °를 표시하였음.
455) 人 다음에 (京)에는 한 글자의 빈칸을 두었고, (龍)에는 中을 적은 후 지웠음.
456) 塔 : (續)에는 造.
457) 堊 : (京)에는 遯.
458) 不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459) 以 : (續)에는 없음.
460) △ : (續)에는 於,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感-5]. 내용 및 형태상 猶로 생각됨.

[45b] 其從大路而行 如闇得燈 貧人得寶 如盲得眼 如鳥
得翅 此益衆生事大 無量[461]洹河沙世界衆生 皆因佛
出世 得悟道 無有悞衆生墮地獄者 是故佛出世三
惡道損感[462] 增益天人衆也 二者 非佛悞入地獄 但衆
生癡起謗毁聖人 若從佛敎 則不復招此等罪也 如
父母敎兒子 汝無作偸 無作刦 其〈亦〉出路卽犯宮[463]法 傳
之都市 此罪豈關父母興[464]耶 衆生亦爾 不從佛經 而
自造罪 得入地獄 何關佛與其[465]罪令入地獄 是故佛
非咎也 問 若言不因佛法墮地獄者 卽不爾 釋論
十七卷云 一比丘得四禪 謂[466]是阿羅漢 臨死見於中
[46a] 陰相成 卽起謗佛言 佛張我 我常聞佛說得阿羅漢
86上 果 不復受生 今那見中陰相成 因爾起謗 卽墮泥犁
地獄 又大品經云 若謗般若人 從一大地獄 至一大
地獄也 救疾經云 三人犯觸三寶 金剛密迹唾面卽
生瘡 若著屐入寺舍 則生馬蹄國 若唾佛殿地 卽[467]生
蚰蜒中 此皆因佛出 悞衆生 致如此罪入地獄 此卽
佛損衆生 何處有益衆生也 答 此須一往反折 如
無佛處衆生起邪見 罪網捕魚如海邊兒 及作諸罪
人 其不因佛起罪 應不墮地獄 其實墮者 何關謗佛
般若 故入地獄耶 又釋論第七卷云 勝意憙根兩菩薩
[46b] 一人行十二頭陀 一人體達 大乘三毒卽是道也 行

461) 量 : (龍)에는 星으로 적은 후 量으로 수정하였음.
462) 感 : 減임.
463) 宮 : 官?
464) 興 : 與?
465) 其 : (京)에는 具.
466) 謂 : (龍)에는 得으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467) 卽 : 필사본들에는 則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頭陀者 起謗大乘不信 則墮地獄 復還聞法故出地
獄得成佛 何故然468)得 與聖人共論法相 雖起誹謗 終
爲利益也 如今成論等 與三論 雖有是非 而後終因
此得解脫 故大集經 我滅後 當有諸弟子 雖共鬪諍
不損法相 何以故 其終論是佛法 不論俗事鹽貴米
賤事故也 如鬱鉢羅比丘尼 往昔因破戒故入地獄
〈復還因此 得出地獄〉 卽得三明六通大阿羅漢也 一往雖道佛是損衆生
86下 終令利益 是故終須佛出世也 言出世間|有損有益
者 佛令衆生脩善學道 能體達諸法淸淨 無依無得
[47a] 畢竟空故 能損顚倒也 卽增益六波羅蜜469)一切萬行
損之又有470)損之 終至於無損益 故六度如虛空增故
是爲出世間增損衆生也 此等並是各論正道 除世471)
間增損除出世增損 二際皆空 無二不二 雙捨 乃是
正道也

大乘三論感應義第四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六472)

顯慶三年歲次戊午年十二月六日興輪寺學問
僧法安爲 大皇帝及內殿故敬奉義章也

---

468) 然 : 能?
469) 蜜 : (龍)에는 容으로 적은 후 密로 수정하였음.
470) 又有 : (續)에는 有로 적은 후 옆에 又를 적고 있음.
471) 世 : (京)에는 也.
472)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六 : 필사본들에는 없음.

◉大乘四論玄義記

斷伏義・金剛心義

일•러•두•기

1. 이 <斷伏義·金剛心義>의 교감본은 2종의 필사본 (京都大學소장본과 龍谷大學소장본)과 續藏經本을 비교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2. 세 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비교적 원본에 가깝게 본문을 재구성하고 각 본의 차이를 注에 제시하였다. (京)은 京都大學소장본, (龍)은 龍谷大學소장본, (續)은 續藏經本을 가리킨다.
3. 丈과 行은 필사본에 의거하였다. 필사본의 전면(우측면)을 a, 뒷면(좌측면)을 b로 표시하였다. 즉, 1a는 첫 번째 丈의 우측면, 1b는 첫 번째 丈의 좌측면이다. 대조를 위하여 續藏經本의 페이지와 시작 부분도 아울러 표시하였다.
4. 일부 한자는 편의상 異體字나 略字를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바꾸어 활자화하였다. (예 : サ卄→菩薩, 為→爲, 即→卽, 既→旣 真→眞, 擧→擧, 関·開→關, 咲→笑, 躰→體, 㝵→碍, 踈→疏, 尓→爾, 弥→彌, 无→無, 称·秤→稱, 応→應, 仏→應, 与→與, 尽→盡, 旧→舊, 号→號 등)
5. 行 사이에 추가로 적은 글자는 < > 안에 집어넣었다.
6.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1a] 續3上 [1]第二明斷伏義 有兩 一明斷伏 二論雜問答

第一明斷伏有三 一明斷伏 二論脩行 三辨得失

第一明斷伏義 略如夢覺義中釋也 今約地明之 十地義 成實論師 推與莊嚴家也 周齊二國 盛明十地義 此義從來雖盛明之 復後時菩提勒那兩三藏來 飜十地論 功用由歸[2]兩師也 今成實論 釋十地斷伏義不同 一莊嚴家云 所伏之或[3] 略有四種 一者見諦或[4] 二者思惟 三者習氣 四者[5]無知也 於此四惑 分爲十品 見諦[6]或[7]爲三 謂上中下品 從多爲言 以上品生地獄 中品招畜生 下品墮[8]鬼神 如論說也 以思惟爲
[1b] 三品 卽繫三界 欲愛住地以爲上品 色愛住地以爲中品 有愛住地以爲下品也 此三界思惟繫地 必[9]異不同也 見諦配於[10]三塗 是從多說之也 習氣是見思之餘殘 故不須分別 合爲一分也 無明住地 其力最强 能鄣深行 斷之最久 且約事相 分爲三別 謂色塵
3下 無知 以爲上品 心難無知 以爲中品 集起無知 以爲下品 誠[11]論三無知 互[12]有麤細 今以從多遂[13]事故 如向

---

1) (續)에는 제일 앞줄에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二'의 卷次가 있지만 필사본들에는 없음. 필사본들의 表題는 (京)이 大乘四論玄義記 卷二, (龍)이 '四論玄義'임.
2) 歸 : (續)에는 없음. 필사본들에는 歸 옆에 '安傍'이라고 적고 있음.
3) 或 : 내용상 惑임.
4) 或 : 내용상 惑임.
5) 者 : (京)에는 有.
6) 諦 : (續)에는 論.
7) 或 : 내용상 惑임.
8) 墮 : (京)에는 隨.
9) 必 : (京)에는 心.
10) 配於 : 필사본들에는 配拾, (續)의 본문에는 [币*巳]於, 頭註에는 配於. 내용상 配於가 맞음.
11) 誠 : 미상.
12) 互 : (續)에는 牙. 互의 異體字의 誤讀임.
13) 遂 : (京)에는 逐.

說也 於四分中 開爲十品 亦十階伏之 第一地前前
十心伏見諦上品 第二中十心伏見諦中品 第三後
十心伏見諦下品 第四初地伏欲界思惟 第五二地
[2a] 伏色界思惟 第六三地伏無色界思惟 第七四地能
伏餘習氣 第八五地伏色塵無知 第九六地伏心難
無知 第十七地伏集起無知也 所以必論 於地前伏
見諦惑盡者 從凡成聖 此事良難 見諦違聖道 若伏
此惑已 句[14]可入聖位 如其未邊[15] 不容得道也 斷道亦
十階 初地斷見諦上品 二地斷見諦中品 三地斷見
諦下品 四地斷欲界思惟 五地斷色界思惟 六地斷
無色思惟 七地斷習氣 八地斷色塵無知 九地斷心
難無知 十地斷集起無知 引[16]大亮師釋生生中云 三
住見諦盡 四住欲界思惟盡也 開善等云 六地之末
[2b] 必與羅漢齊功 故無色結盡 如瓔珞經意也 又卽知
五地色界思惟盡也 莊嚴家云 十住論云 初地見惑
盡者 此意正言能斷見諦 不言都盡也 如須陀洹得
4上 見諦盡必至涅槃 以譬初地得生佛家 故生觀[17]喜[18] 少
分爲喻 不言初地見諦都盡也 如十住論中 亦以初
地已斷三界思惟 可[19]令初地思惟都盡耶 故知言斷〈見〉[20]
諦縛而未盡也 又云別相與無知有別故 習氣必麤
無知必細[21] 麤則先除 細則後斷 八地已上 正斷無知

14) 句 : 내용상 方의 誤字로 생각됨.
15) 邊 : 내용상 遏의 誤字로 생각됨.
16) 引 : 내용상 則의 誤字로 생각됨.
17) 觀 : 내용상 歡의 誤字로 생각됨.
18) 喜 : (京)에는 善.
19) 可 : 내용상 何의 誤字로 생각됨.
20) <見> : (續)에는 없음.

則知習氣於七地中盡也 故彼云 從初地至七地 則
能伏能斷者 初地斷欲界見諦 兼伏欲界思惟 二地
[3a] 正斷色界見諦 兼伏色界思惟 三地正斷無色界見
諦 兼伏無色界思惟 四地正斷欲愛住地 卽玄[22]伏三
界外無明恒沙上煩惱 五地正斷色愛住地 充伏色
塵無知 六地正斷有愛住地 卽充伏心難無知 七地
正斷習氣 卽充伏色心集起也 從初地至七地 亦斷
亦伏 從八地已上 只斷而不伏 餘句可尋也 二少莊
嚴龍光傳開善義 或云三地斷見惑盡 或云初地斷
見惑盡 而多用初地盡 故開善門[23]徒[24]報恩等 依瓔珞
經云 初地菩薩斷見諦惑故 十地論亦云 初地見諦惑
盡也 二地菩薩斷人中煩惱 三地菩薩斷天上煩惱 四地
[3b] 菩薩斷三禪已下煩惱 五地菩薩斷三空已下煩惱 六地
4下 菩薩斷非想[25]非非想[26]煩惱 故五住惑中 後四住地惑 亦
蘊在其中 是舊意 彼云四住惑與見思惑 無別異體[27]
大小兩乘名爲異耳 枳[28]薗寺檣法師義宗 五住地惑
並是總癡惑也 又古舊相傳 取瓔珞經意 羅漢與六
地齊功也 七地已上 義家云 恒沙上煩惱等五種 習
氣九品 無知總癡九品 含在中也 若卅心菩薩 伏相惑
煩惱 亦得言斷 報因力與鄣解力習因力滅也 故大

21) 細 : (京)에는 紬.
22) 玄 : 내용상 充의 誤讀으로 생각됨.
23) 門 : (續)에는 問, 필사본들에는 問으로 적고 옆에 '恐門'이라고 적었음.
24) 徒 : (續)에는 從.
25) 想 : (續)에는 相.
26) 想 : (續)에는 相.
27) 體 : 필사본들에는 草書의 글자로 적은 후 옆에 '恐體'라고 적었음.
28) 枳 : (續)에는 枳.

經迦葉品云 住忍法時 斷無量三惡道報 當知不從
智緣而滅也 又伏義解不同 一[29]云如積[30]伏也 二云如魚
[4a] 鱗伏也 三報恩云 必須品品各各相𧃷伏也 初地菩薩
斷見惑而不伏 而望思惟惑 亦伏義也 二地菩薩已上
至十地菩薩已下 亦伏亦斷 金剛心菩薩伏而不斷 佛果
斷而不伏也 若解與惑相對辨者 六地已下如前說
也 但四住地惑 見諦惑 三界思惟惑 依五九品無知
者 四九品三種各各一除道△[31]也 於七地已上所斷
伏惑 亦有三種性不同 一總癡無明住地九品 二無
知九品 三習氣九品 此三種性一除道所斷伏也 洹
沙上色塵等五種 卽是無明無知習氣性收之 所以
5上 只立三種性 若名目論之四種也 若斷伏者 七地斷
[4b] 恒沙上煩惱 則伏色塵無知 八地正斷色塵無知 則
伏心難無知 九地正斷心難無知 則伏集起無知 十
地正斷集起無知 則伏無始無明也 餘二種蘊在其
中也 問 習氣是見思之餘氣 安得與無明住地無
知齊輕重耶 彼答 有漏凡夫所起尙輕 三乘聖人所
起習餘氣 安得重耶 在其中也[32] 問 如十住論 初地已
斷三界思惟 安言二三地已去始斷耶 答 如云因
滅故果忘 以因收果遠義明之 非品扶[33]相𧃷也 大乘
明義 斷伏數種 勢自有人 於凡夫時 無量劫 心樂經

29) 一 : 필사본들에는 없음.
30) 積 : 필사본들에는 {卄/積}.
31) △ : 판독미상{斷-1}.
32) 在其中也 : 필사본에는 옆에 '已下安傍'이라고 적고 있음. 내용상 3행 앞에 있는 在其中也를 중복하여 쓴 것으로 생각됨.
33) 品扶 : 뒤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品秩의 誤讀으로 생각됨.

學 無所得大乘人 或於假位中 無數劫中 學無所得
[5a] 人 一人中觀心意洗卽是 如經云 一念相應慧 斷無
量煩惱及習 若爾何只斷三界思惟耶 今大乘意望
彼兩種斷伏 亦是傍經論中語說之 而彼心意存故
終不離斷常宗 故被破也 故大乘明義 或一種櫳[34]廢[35]
根緣 或樂多功德根緣 開之 得言 發心十住明伏 初
地已上斷也 若無量劫學無所得利根之緣 未必須
兩種開之 故如菩薩頭陀云 最上利根者 不出生死 亦
5下 不入涅槃 又經云 我成|佛時 無三寶名字等也 又依
經論中 對除明義 亦有兩種 一功德門明之 如施伏
慳 乃至 定伏亂也 二者就智慧門明之 正見伏耶[36]見
[5b] 乃至 觀因緣能伏癡等 不二而二 約假上假名說之
也 又約功德門 伏枝條 不伏根本相惑也 就觀門 習
學空無所有 則能伏根本 枝條自忘之 是無名相假
名說也 又一往分門明義 習空慧能伏相惑 此則必
次第 從重至輕 無有中間不次第 如十地義 從淺至
深也 而約有中別知及諸功德行 此則造心行各起
更互[37]深淺 如施行已深 定行則[38]淺等也 或可觀理則
深 觀事猶淺也 別行門戶 旣不同故 更互[39]同起 亦可
於行自有階級淺深 從下至中至上也 故大論云 有
上中下 下下 下中 下上 中下 中中 中上 上下 上中 上

---

34) 櫳 : 필사본들에는 櫳, (續)에는 {巾*龍}.
35) 廢 : (續)에는 戾.
36) 耶 : 邪.
37) 互 : (續)에는 牙.
38) 則 : (京)에는 見.
39) 互 : (續)에는 牙.

[6a] 上也 又如大經云 拔木與浣衣譬等也 經云 從散心
入初禪 從初禪入二禪 乃至入滅定 從滅定出非想
定 非想定出非用處定 如是次第下出散心 如是次
第入出也 又經論云 從散心入二禪 從二禪 入第四
禪 如是間次超入滅定 出定亦如是 間次超出滅定
6上 復有順逆超出入種種|行 定行旣如斯多種者 餘諸
行類亦然也 雖不二而二 開之無量門 如空中書也
無有蹤迹 但假名名字耳 無空行異於有行 無有行
異於空行 無入別出 無出別入 無超異順[40]異超等 不
同地攝兩論成毗二家等 有定處所也 利根者 遇一
[6b] 華[41]一草一色一香一光明 卽能斷伏無量煩惱 聞飯
香亦悟無生也 故華嚴經云 一中解無量 無量中解
一 如是展轉生 非亦實智者 無所畏也 何必須次第
門與超順門等耶 又必須善智識境智等 然△[42]境智
萬法無有二相 如有不有 無不無 畢竟淸淨 卽是斷
伏義 於此中 畢竟淸淨 名爲斷義 於中昧者 名爲伏
也 故大品經云 一念相應慧 斷無量煩惱及習也 無
得大乘 斷伏義者 切[43]而明之 反觀自心 心非心 畢竟
淸淨 四句五句不可得 有何煩惱係屬於心 何有心
能係煩惱 故無量義經云 心意識已也 故大品經相〈行品云 行亦不受 不行亦
不受 行不行〉
[7a] 亦不受 非行非不行亦不受 不受亦不受也 三慧品

40) 順 : 속장경 및 필사본들에는 順이 하나뿐이지만 내용상 順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
41) 華 : 필사본들에는 花.
42) △ : (續)에는 改, 필사본은 판독미상[斷-2]. 彼?
43) 切 : (續)에는 功, 필사본들에는 切. 내용상 切이 맞음.

亦云 若心心數法不行 故行般若波羅蜜 又品云 如
6下 是須菩提 菩薩摩訶薩 行般若波羅蜜 如佛所化人行
也 菩薩頭陀經云 照明菩薩問心王菩薩云 觀煩惱性內度
脫衆生 其相可解 外法云何 心王菩薩答 內外法[44]不異
雖彼[45]不異 要先觀內 一煩惱淨 衆多亦淨 何以故爾
內是外之根本 衆聖之源 得斯妙法 法[46]度衆生 衆生
無盡 佛身無盡 衆生無邊 佛身亦無邊[47] 衆生性卽是虛
空性 虛空性卽是佛性也 又彼經云 心爲毒虫 大乘法
杖 鞭於心毒虫 內外淸淨也 華嚴經云 無心於彼此
[7b] 而能應[48]一切 往往 經云 無心意也 維摩經云 譬如幻
化人 爲幻化人說法 當違是意而爲說法也 中論成
壞品云 若有所受法 皆[49]是斷常也 又一切大乘經 常
云 擧幻化人說法之意 顯於聖人無心也 地攝與成
毗四家義宗 一向不得如幻化人行行 何以故爾 彼
地攝論等 含意識與阿梨耶識 成論等含六識故 不
同幻化人說法也 一家意 一往麁論 現起解 斷成就
或[50] 若切[51]而論之 現起觀 斷現起心 此心四句盡淨 卽
亡[52]現起心 卽成就或[53]隨亡[54]也 不同有所得家等 煩惱

44) 法 : (京)에는 云.
45) 彼 :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3]. <佛性義> [21b]에 인용된 경문에 의하면 復임.
46) 法 : 미상. 필사본들에는 위와 같은 글자를 의미하는 부호[斷-4]이지만 형태상 卽의 초서체의 誤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47) 邊 : 필사본들에는 없음.
48) 應 : (續)에는 充,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斷-5]으로 적고 옆에 充이라고 하였음.
49) 皆 : 필사본들에는 吐. 皆의 초서체의 誤讀임.
50) 或 : 내용상 惑이 맞음.
51) 切 : (續)에는 功, 필사본들에는 切. 내용상 切이 맞음.
52) 亡 : (續)과 (京)에는 已, (龍)에는 亡. 내용상 亡이 맞음.
53) 或 : 내용상 惑이 맞음.
54) 亡 : (續)과 (京)에는 已, (龍)에는 亡. 내용상 亡이 맞음.

雖去 而有淨心體△[55]在至佛也 故彼師等 引夫人經

[8a] 7上 云 不思議空[56]智慧 斷一切煩惱藏 此文證 唯空[57]解斷

惑也 今大乘宗一往論之 亦有此義 而要論之者 空

有兩境智雙盡淨[58] 名爲空智 斷一切煩惱藏也 故一

家宗 假伏中斷 中伏假斷 中假俱斷 中假俱伏 亦得

言 有解伏空解斷 有解斷空解伏 空有俱斷 空有俱

伏 至而論之 假空有斷伏 中卽△[59]斷△[60]伏 何故爾 解

惑相除 正是假故 而前論四句者 一往開中假明[61]也

問 前云 若利根者 一華[62]一草等 亦得是斷伏者 十信

卅心等 亦得言名斷耶 答 二而不二明之 如經云

初發心菩薩等三世諸佛者 發心亦得言斷伏 卅心亦

[8b] 同斷伏 初地已上皆然也 但初發心者 從凡以來 始〈向〉

入畢竟不二心 名爲發心也 伏心者 折有不有 折無

不無 屈折動轉 無所平於有無等相 名爲伏心也 斷

心者 逈[63]出有無等盡淨 離四句百非 名爲斷也 此意

正歆[64]相除 兩相相望 故就假明也 若爾 向入不二名

爲發心 屈折平相 而未明不都淨者 名爲伏心 永淨

---

55) △ : (續)에는 [亻*丂],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6]. 형태 및 내용으로 보아 猶 혹은 傳으로 생각됨.

56) 空 : (續)과 필사본들 모두 판독미상[斷-7]이지만 『勝鬘經』원문과 대조할 때 空임.

57) 空 : (續)과 필사본들 모두 판독미상[斷-7]. 내용상 空임.

58) 空有兩境智雙盡淨 : 내용상 空有兩盡 境智雙淨의 錯簡?

59) △ : (續)에는 乖,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8]. 필사본들의 형태나 내용으로 보아 能으로 생각된다.

60) △ : (續)에는 恒,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9]. 필사본들의 형태나 내용으로 보아 能으로 생각된다.

61) 明 : (續)에는 相.

62) 華 : 필사본들에는 花.

63) 逈 : (京)에는 適.

64) 歆 : 미상.

者 名爲斷心也 故一家云 一往大意 斷伏雖如此 而[65]
經論中有 四種名目 解惑相番 相對論之 如正使見
7下 諦[66]與思惟二種 麤煩惱惑 於假[67]十信斷竟[68] 從中發心
已上 至六地已下 斷見思與[69]習氣煩惱惑也 從七地
[9a] 已上 至第十地已下 斷二種無知惑也 故瓔珞經云
六地菩薩 卽非想想慧煩惱 又第七地 經論多云 遠離
三界 故言遠行地 所以如此者 見思有二種 一正使
見思 二習氣見思惑也 論師云 習氣 別無知 總癡無
知 三種 品帙[70]齊輕 故一除道所除 今[71]論不然 寧得無
知同習氣輕耶 如身子等惡口與忽忽無知同品耶
問 開善等諸師 約世法與苦[72]忍 道種終心與初地
初心 解惑相並不相並 解不同 一開善舊相傳云 解
生惑滅一時而同 言解生故惑滅 不得言惑滅故解
生也 此解最儜 汝 見諦上品惑 必在世法心邊 苦[73]忍
[9b] 明解心邊 終不帶上品惑 那得言 解生時是上品惑
滅時[74] 同時釋耶 又汝言惑滅之語 目無目有 終是目
有是惑有 向消[75]無時 不得與明解同時 如源品無明
是佛斤[76]斷無明 此元[77]品無明 只得言金剛心斤[78]帶 不

65) 而 : (續)에는 없음.
66) 諦 : (續)에는 論, 필사본들에 諦. 내용상 諦가 맞음.
67) 假 : (續)에는 任. 假의 異體字의 誤讀임.
68) 竟 : (續)에는 意.
69) 與 : (續)에는 家. 與의 약자의 誤讀임.
70) 帙 : 秩? 필사본들에는 佚.
71) 今 : (龍)에는 슈으로 적은 후 今으로 수정하였음.
72) 苦 : (續)과 (京)에는 若, (龍)에는 苦. 내용상 苦가 맞음.
73) 苦 : (續)과 (京)에는 若, (龍)에는 苦. 내용상 苦가 맞음.
74) 時 : (續)에는 明, 필사본들에는 時. 내용상 時가 맞음.
75) 消 : (續)에는 誚.
76) 斤 : 내용과 형태로 볼 때 所의 異體字로 생각됨.

得言是佛心斤[79]帶 金剛心是前念 佛心是後[80]念 那得
同時 故解生時是惑滅時 此釋太無所以也 此義既
8上 然 △△[81]最後[82]望初地 類此責之也 二報恩云 解生與
惑滅 決定不得同時 只得言惑滅故解生 若爾 惑滅
當世法時 解生當次念苦忍時 故引釋論云 福將生
時罪滅也 又[83]正類因滅故果生等也 此師於彼△[84]宗
[10a] 大勝前解 而終不離卽 常有斤[85]同 汝解未有時 寧得
惑滅於前耶 若爾此惑卽不須除道 亦非相對除 什[86]
難則無量也 今謂 具如前說 如成論師云 同時不同
時忘法了悟 畢竟非時非不時 名爲斷伏 何處解與
惑有兩計[87] 明同時不同時也 問 若然者 都不論同
時與前後時耶 答 不二而二 開之有二 一依釋論云
福△[88]將[89]生時罪滅者[90] 名字同惑滅故解生 義理應然
也 二由解起故惑滅 若解不生 惑則不滅故也 雖爾

---

77) 元 : (續)에는 無.
78) 斤 : 내용과 형태로 볼 때 所의 異體字로 생각됨.
79) 斤 : 내용과 형태로 볼 때 所의 異體字로 생각됨.
80) 後 : (京)에는 以, (龍)에는 판독미상, (續)에는 後. 내용상 後가 맞음.
81) △△ : (續)에는 爲[禾+色]이지만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10]. 내용상 爲[禾+色]로 읽기 힘들다.
82) 後 : 필사본들에는 改와 비슷하게 적은 후 後로 수정하였음.
83) 又 : (京)에는 人.
84) △ : 판독미상[斷-11]. 글자의 형태와 내용으로 보아 義의 이체자로 생각됨. (京)에는 棄.
85) 斤 : 내용과 형태로 볼 때 所의 異體字로 생각됨.
86) 什 : 필사본의 형태와 내용으로 볼 때 計의 異體字로 생각됨.
87) 兩計 : (續)에는 南斗, (京)에는 南計什, (龍)에는 南山什으로 한 후 什을 計로 수정하였다. 필사본들의 경우 두 글자가 들어갈 공간에 세 글자를 적고 있는데, 두 번째 글자는 세 번째 글자를 해독하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글자의 형태와 내용으로 보아 兩計의 誤字로 생각된다.
88) △ : (續)에는 充, (龍)에는 판독미상[斷-12], (京)에는 花. 내용으로 보아 德의 異體字의 誤讀으로 생각됨.
89) △ : 필사본들에는 怦. 將의 誤讀으로 생각됨.
90) 者 : 필사본들에는 그 옆에 '如金剛心滅'을 삽입하고 있다.

若解惑於却蒙[91] 於無名相中假名相說 就假用明之
又成論等 有△[92]同宗 以解斷[93]惑 必是現起前解 卽[94]成
[10b] 就惑[95] 今則現起解 斷現起惑[96] 亦同言現起解 除成就
惑義也 若悟中時 非解非惑 而亦得言非解非惑 了
悟非解非惑故 名爲中卽[97]者 亦有此[98]義也 問 前云
中假皆斷等四句相違耶 答 彼四句明者 爲彈斥[99]
8下 常途[100]一向云 眞斷假不斷故爾 若不二而二開者 從
淺入深 一往相斷伏 就假明之 若通而明之 四句如
前也 此義後金剛心中具釋之也 又[101]論師開善云 於
五方便與卅心中 緣境前後釋[102]不同 法師在東山時
釋云 並緣虛假理也 中出陽洲[103]時云 緣眞不稱緣 近
臨死時定云 是緣虛假[104]理 何以故 故[105]論四無碍智品
[11a] 云 外人問何者近法位世諦知 論主□[106]答云 望煗頂
法中是也[107] 又論三三昧品云 共分脩者 脩[108]定脩慧 是

---

91) 於却蒙 : 미상.
92) △ : (續)에는 門,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13]. 見?
93) 斷 : (續)에는 卽, 필사본들에는 卽으로 적은 후 斷으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斷이 맞음.
94) 卽 : 필사본들에는 斷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95) 惑 : (京)에는 恐.
96) 惑 : (續)과 (龍)에는 或, (京)에는 惑. 내용상 惑이 맞음.
97) 卽 : (龍)에서는 斷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98) 此 : (京)에는 起.
99) 斥 : (續)에는 片. 斥의 異體字의 誤讀임.
100) 途 : (京)에는 造.
101) 又 : (京)에는 人.
102) 釋 : (京)에는 教.
103) 陽洲 : 揚州의 誤字임.
104) 假 : (京)에는 便.
105) 故 : 미상.
106) □ : 필사본들에는 한 칸을 비워놓았음.
107) 『成實論』 卷16 四無碍品第一百九十五 "問曰 有近法位世智 何者是耶 答曰 是煖等法中能破假名智 是智以世俗見諦故曰世智 近聖道故名近法位."(大正藏32, 368b)
108) 脩 : (龍)에는 備.

世間三昧 世在煖頂法中是也 聖正三昧者 入法位

卽是苦[109]忍已上是也[110] 故知五方便與卅心 並緣虛假[111]

理境也 虛假理卽是世諦故也 彼宗 若緣眞境 出緣

虛假理解 進不斷 退不伏 何者 被導心行故也 若緣

虛假理者 則伏亦得言斷 如報因業互[112]滅故也 今大

乘明義 具如前釋 於眞俗 並得斷伏 非眞非俗 亦得

言斷伏 若畢竟[113]淨者 有何斷伏耶 於假名方便開 則

無往不得說也 論師等舊云 世諦析[114]法觀 以有解入

[11b] 空 若得空解現前 名爲眞法觀 則名爲空解 若以空

出有 名爲世諦觀 卽名爲有解 向者若無空解導有

9上 解 有解卽觸境生着 |若從空出有 空解導不令着境

知世諦三假七灾[115]虛假[116]故 卽不生着 析[117]俗入眞 卽是

有解資空解 從空出有 卽是空解導有解 空解卽是

實[118]慧 有解卽是方便慧 彼宗有解終異於空解 空解

終異於有解 有方便無實慧 此方便亦被縛 有實[119]無

方便 此空亦被縛 如是縛 若爾豈是能斷伏耶 今謂

須依經 先以定動 然後慧拔 因緣假名伏 假名因緣

斷 故先以假破性 次因緣破假[120] 如此卽是根本淸淨

---

109) 苦 : (續)과 (京)에는 若, (龍)에는 苦.

110) 『成實論』 권12 四無碍品第一百五十七 "共分修者 若修定亦修慧 是世間三昧 在煖等法中 聖正三昧者 若入法位能證滅諦 則名聖正"(大正藏32, 335a)

111) 假 : (續)에는 任. 假의 異體字의 誤讀임.

112) 互 : (續)에는 牙. 互의 異體字의 誤讀임.

113) 竟 : (續)과 필사본들에는 意이지만 내용상 竟의 誤字임.

114) 析 : (續)과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斷-14]이지만 형태와 내용으로 보아 析으로 생각됨.

115) 灾 : 내용상 實의 誤字임.

116) 假 : (續)에는 任. 假의 異體字의 誤讀임.

117) 析 : (續)에는 排, 필사본들은 판독 미상[斷-15]. 형태와 내용으로 보아 析으로 생각됨.

118) 實 : (續)에는 空, 필사본들에는 灾. 내용상 實의 誤字임.

119) 實 : (續)에는 空, 필사본들에는 灾. 내용상 實의 誤字임.

[12a] 卽須中假度之 空是有空 有是空有 生是滅生 滅是
生滅 若如此者 捶盪動轉 則名爲伏道 空非空空 有
非有有 生滅非滅 滅生非生 非〈生非〉[121]滅 非空非有 此卽是
斷惑取初入道之方法也 又一家作十鄣者 初地斷
凡夫我相鄣 二地斷衆生身耶[122]△[123]鄣 三地斷無明暗
相鄣 四地斷解法慢鄣 五地斷[124]身淨我慢鄣 六地斷
微煩惱鄣 七地斷微細集鄣 八地斷除無相有行鄣
九地斷不能利益一切衆生鄣 十地斷一切諸法不
自在鄣也 十地對十鄣明之 斷卄[125]無明者 初地斷凡
夫我相鄣 卽斷二種無明 一者鄣一切法無明 二者
[12b] 潤三惡道無明也 問 何意初地菩薩 斷除凡夫我相
9下 鄣耶 答 若是道種終心菩薩 猶有習氣[126] 卽離[127]二種我
見 亦名生法二我也 問 生法二空 同論師意耶
答 大異 大乘明義 二諦並是生空 何者 二諦並[128]是假
故 若法空者 卽是中道正法爲法空也 若登初地 卽
能除麁習 卽離[129]我見 得眞生法二[130]空 故言除凡夫習
我相鄣 入眞聖位也 一往明之 初地斷二種無明 除

---

120) 假 : (續)에는 任, 假의 異體字의 誤讀임.
121) <生非> : (續)에는 없음.
122) 耶 : 내용상 取의 誤字로 생각됨.
123) △ : (續)에는 門,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16]. <逸文>[伊藤隆壽(1974), p.72]에는 行.
124) 斷 : 필사본들에는 斷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逸文>[伊藤隆壽(1974), p.74]에는 斷.
125) 卄 : (京)에는 兀.
126) 氣 : 필사본들에는 炁.
127) 離 : (續)에는 雖,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고 왼쪽에 ° 표시함. 離를 잘못 쓴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128) 並 : (京)에는 莊.
12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쓰고 왼쪽에 ° 표시를 하고 있다.
130) 二 : (京)에는 一.

凡夫我相鄣 而初地斷伏 實是無量 何正[131]斷二種無
明 除凡夫我相鄣 此是編[132]擧一方爲語耳 問 初地
何意斷凡夫我相鄣耶 答 地前得道種終心 所以
[13a] 猒生死欣樂涅槃 捨生死之過 更求出離[133]之樂 良〈由〉[134]計有
我氣故爾 爲[135]我氣故 脩禪等諸行 安我置好處 猶我
相氣故 名爲凡夫我也 明初地則斷 卽離[136]我見 得空
無我眞觀 卽名爲眞聖位也 他家云 有此空無我理
可會之境 今則不爾 向者未悟[137] 猶言有[138]我 今[139]悟不見
外其所見云我 故言無我 何得別無我理可會耶 見[140]
卽向見有我 名之爲惑 今悟我無我 此卽爲伏 卽是
斷 只名伏爲斷 何處更別斷伏可得耶 約位明之 道
10上 種終心 未離[141]五怖畏 只猶計我氣未洗盡 故有怖畏
今初地旣得眞空無我慧 不見有我可得 故離[142]五怖
[13b] 畏[143] 名眞菩薩也 問 前明十鄣 出何經論耳[144] 答 出相
續解脫經云 斷卄二愚心也 初地斷二愚 乃至十地
斷卄愚 一地斷二愚 卽唯爲十障也 冣後兩愚卽等

---

131) 正 : 내용상 止의 誤字임.
132) 編 : 偏?
133)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되어 있음.
134) <由> : (續)에는 없음.
135) 爲 : (續)에는 無.
136)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37) 悟 : (京)에는 語.
138) 有 : (京)에는 右.
139) 今 : 필사본들에는 个. 今의 異體字로 생각됨.
140) 見 : (龍)에는 是. 내용상 見이 맞음.
141)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42) 離 : 필사본들에는 雖.
143) 五怖畏 : 필사본들에는 우측에 '一法畏 二死畏 三惡道畏 四大衆畏 五惡名聞畏'의 細注가 추가되어 있음.
144) 耳 : 耶?

學[145]地所斷 故經云 廿二愚凡 十地能過也 廿二愚者
一衆生及法計者愚 二惡趣煩惱愚[146] 三微細犯戒愚
四種業[147]愚 五欲愛愚 六滿足聞持愚 七正受愛愚 八
法愛愚 九向[148]生死背思惟愚 十向涅槃背思惟愚 十一
諸行生愚 十二諸行相愚 十三微細相愚 十四方便[149]
思惟愚 十五微發愚 十六相自在愚 十七無量陀羅
尼無量字句上上知慧愚 十八樂說自在愚 十九神
[14a] 通愚 廿微細秘密愚 廿一爾炎正受微細愚 廿二鄣
閇[150]愚也[151] 問 論師云 五方便與卅心等解所含相惑
故緣眞不稱 今大乘亦同此說不 答 並不同也 今
只出諸師說不同也 一南澗云 非想九品相惑 入似
解體也 而非想第九品相 是界外煩惱故 世第一法
相 是界外無漏所斷也 今謂 此意非小義宗 若爾第
10下 一法解體 無有|被△|[152]義也 二莊嚴云 見諦上品相惑
旣被伏故 以第二品已上相惑 並得入似解體義也
三法雲報恩龍光 傳開善義云 非相九品相惑 與五

145) 學 : 내용상 覺의 誤字임.
146) 愚 : (京)에는 爲.
147) 業 : 판독미상[斷-17]이지만 경전의 내용상 業임.
148) 向 : (京)에는 兩.
149) 便 : (京)에는 須.
150) 閇 : 경전의 내용상 碍임.
151) 『相續解脫地波羅蜜了義經』"觀世音白佛言 世尊 此諸地有幾種愚幾種所治過 佛告觀世音 有二十二種愚 十一種所治過 初地衆生 及法計著愚 惡趣煩惱愚 彼卽所治過 第二地微細犯戒行愚 種種業趣愚 彼卽所治過 第三地欲愛愚 滿足聞持愚 彼卽所治過 第四地正受愛愚 及法愛愚 彼卽所治過 第五地一向生死向背思惟愚 一向涅槃向背思惟愚 彼卽所治過 第六地現前觀察諸行生愚 多行相愚 彼卽所治過 第七地微細相行愚 一向無相思惟方便行愚 彼卽所治過 第八地無相無開發愚 相自在愚 彼卽所治過 第九地無量說法無量法字句上上智慧 樂說總持自在愚 樂說自在愚 彼卽所治過 第十地大神通愚 入微細秘密愚 彼卽所治過 佛地一切爾焰微細正受愚 障礙愚 彼卽所治過 觀世音 是名二十二愚十一種所治過 於彼諸地建立 不與無上菩提相應"(大正藏16, 715b)
152) △ : (續)에는 㲈,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18]. 染?

方便卅心 似解體相惑齊 若爾世[153]間第一法 解體相
[14b] 惑 與非相第九品相惑恰齊 何者 非想[154]第九品相惑
是起相之始 第一法相 是相盡之終 始則從輕向重
終卽從重向輕 故二處齊也 小乘明義 旣始[155]此 雖彼
大乘明義[156] 解惑類此皆然也 今大乘明義卽不然 無惑
入解 無解含惑 但假名名字開爲解惑 惑解因緣也
若未淨了悟 爲含惑 畢竟了悟時 名爲勉[157]相惑 何處
別有解體 而含相惑體 故不稱緣耶 今無得宗明之〈彼智〉
慧等 並是無明 故須洗除也 第二論脩行 脩行
門 成實論師釋不同 莊嚴聞脩功德 有十重 卅心中
初十心脩初地功德 於中十心 脩二地功德 後於[158]十
[15a] 心脩三地功德 於初地中 脩四地功德 於二地中 脩
五地功德 三地中脩六地功德 於四地中脩七地功德
於五地中脩八地功德 於六地中脩九地功德 於
11上 七地中脩十地功德也 此是|約階級 略言次第 然之
亦不全 如之何者 正以空解爲成地之要 所脩功德
未必次二行相隨故 如地前已脩十二門禪 三地後
脩此法 則成無定定門 如之餘行類亦然也 今謂 未
必然之 如八九十三地中 何不脩功德耶 若言念念
空有並觀者 卽是脩功德智慧 何必言五六七三地
中 脩八九十功德配之耶 開善門徒云 空有兩行齊

---

153) 世 : (續)에는 無. 誤字임.
154) 想 : 필사본들에는 相.
155) 始 : 如의 誤字임.
156) 義 : 필사본들에는 없음.
157) 勉 : 免.
158) 後於 : 於後의 잘못으로 생각됨.

[15b] 進 只有有行長一品 所以金剛心菩薩 有中萬行等佛
未有空智一品 故名爲等覺佛也 問 初地菩薩卅心
所伏惑斷却者 何得[159]二行只長一品行 答 彼云小
乘不了教明義 於十五心中不出觀 彼大乘明義 初
功[160]品品中 出觀脩萬行故 終長一品而已也 但須深
功德資發初地空慧故 其所脩品品多深也 今大乘
明義 具有四句 有解多與深而空解小[161]與淺 空解多
與深而有解小與淺 有解具有多小淺深 空解無多
小深淺也 如一中解無量 無[162]量中解一 但一中解無
量等 約[163]有行空行開者也 但一往宗途明之 有行多
[16a] 功德資發空行也 若約多根性論之 如單複中假 出
11下 入無定也 開善云 空行長深一品 故無明住地佛菩
提智行斷 如夫人經中說也 問 定行同慧行者 小
乘聲聞慧有三 定亦例不 答 此△[164]例 今且依論
師云 有[165]三種聲聞 一△[166]聲聞 此卽△[167]定慧 二義〈聲〉聞 此
卽義定慧 三名字聲聞 卽名字定[168]慧 故聲聞人有得
八[169]定慧 有不得八[170]定有[171]也

---

159) 得 : (續)에는 德.
160) 功 : 一切의 誤字?
161) 小 : (續)에는 上.
162) 無 : (續)에는 量.
163) 필사본들에는 約 오른쪽에 '約有行開者'라는 細注가 적혀 있음.
164)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5와 같음]. 亦?
165) 有 : (續)에는 者. 有가 맞음.
166)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5와 같음]. 實?
167)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充으로 적고 앞에 °를 붙였음[斷-19]. 實?
168) 定 : (續)에는 결락.
169) 八 : 入.
170) 八 : 入.
171) 有 : 慧의 誤字?

第三明得失義有二 一明得失 二說並觀不並觀 第一得失有二義 一明內外凡 二說三退 且前論階級位虛[172]所定 然彼論得失也 階位諸說不同 若欲見十地 本業經與持地經 明十地義 寂
[16b] 分明 又十地經與十住經 本業瓔珞經 仁王經等 悉辨十地也 具如大意中一一引竟[173] 今更明出也 護國仁王經第三品云 地前習種性 性種性 道種性也 瓔珞經云 初十心爲習種性 中十心爲性種性 後十心道種性也 又此經云 乃至有六種性 何者 習種性 性種性 道種性 聖種性 等覺性 妙覺性 前三性是地前位三也 後三性是初地已去是也 持地經 地前有二種住 一種性住 二解行住 又明種性云 略有二種 一者性種性 二者習種性也 諸法師取文意云 從具縛凡夫以去 自能殊勝者 名性種性 性不改故名爲性
[17a] 12上 習解已成不改爲惡 名爲性種性也 若脩行所得名爲習種性 亦不言兩性高下也 又持地經 分[174]解行以爲三忍 謂下忍爲初十心 中忍爲中十心 上忍後十心也 又云解行住是初發心 未同淨心地 淨心地卽是歡[175]喜地也 論師分位如此也 今謂 初發心心有中假三種發心 一者二諦觀中明之 卽是無所得徧行六度菩薩發心也 二者具中假觀爲發心也 三者通五十心爲發心也 故言解行住 是發心 但釋初發心未得淨心地 有兩義 一是初發心 具中假[176] 爲淨心地

172) 虛 : 내용상 處의 誤字로 생각됨.
173) 竟 : (續)에는 意.
174) 經 分 : (京)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있음.
175) 歡 : (續)에는 觀.
176) 假 : (續)에는 任, 假의 이체자의 誤讀임.

二是卅心未得初地歡[177]喜 故言未同淨心地也 如持
[17b] 地經云 二種之解行位 則別名五十心 爲解行者 卽
通三位也 問 內外凡夫位何者 答 地攝兩論成
毗二家 釋不同 一云 初六心已下爲外凡夫位 從七
心已上爲內凡夫位 故瓔珞經本業兩經爲證 二經
同云 身子[178]於第六心中退爲小乘 至七心便不退 故
退爲外 不退爲內也 二云 初十心爲外凡夫 中十心
已上爲內凡夫位 故菩薩斷結經云 有十二賢聖人 云
中十心爲性行人 後十心名爲解行人 以十地爲十
12下 人 合二人爲十二賢人 經說不數初十心人 故知猶
是外凡夫位也 三諸論師等多云 卅心並是內凡夫
[18a] 位 類小乘五便[179]內凡夫位也 故持經中 卌二賢聖人
云 初十心爲習種性 中十心爲性種性 後十心爲道
種性 又十地足前卅心 金剛心爲等覺地 佛地爲妙
覺 故卌二也 又所以知卅心是初地前者 大論第二
卷云 卅心並是地前方便位也 又此位中 已能厚習
善根 脩諸善行 善習助道法 供養諸佛 習諸淸白法
爲善知識行護 具如斯法位 無容退轉 故知是內凡
夫位也 又四依中一衣[180]故 是內凡夫位 十信發心位
是外凡夫也 今大乘明義 山中舊云 從十信發[181]心已
是內凡夫菩薩位 其已能八相成道 爲天[182]人作師 故大

177) 歡 : (續)에는 觀.
178) 子 : (京)에는 与.
179) 五便 : (續)의 頭註에서는 五方便 중 方이 탈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180) 衣 : 依.
181) 發 : (續)에는 反. 發의 약자의 誤讀임.
182) 天 : (京)에는 夫.

[18b] 經△[183]迦葉最後卷七言偈云 發心畢竟二不別 如是
二心先心難 自未得度先度他 是故我禮初發心 發
心已爲天人師 勝出聲聞及緣覺 如是發心通[184]三界
故亦是初依人也 大品三慧品亦云 從初發心行彼[185]
若 此經豈非從初發心行彼[186]若也 問 小乘五方便是
13上 內凡夫 具如成實論中說 大小相|准[187]望 △[188]如彼師說
耳 答 不例 小乘中引不了敎 寧得相准望耶 小乘
中一生得道者可准望 大乘亦得一生得道耶 今大
乘意 十信位中已能八相成道 已證正法波若 寧得
猶稱外凡夫耶 今一家意中 十信前如偏行六度菩薩
[19a] 未得正法波若 唯得二彼無行[189]得用波若 爲內凡夫
如無行同二乘人 亦是無所得 契內二乘 故大品經
大如品云 有六十菩薩 於五百佛所 行六波羅蜜等 具
行萬行 而無方便故 實際作證 故不得入菩薩位 亦如
勸學品明 有菩薩摩訶薩 無量劫行六波羅蜜 而不入
菩薩位 亦不入聲聞位 此等並是彼十信位人等也
問 若爾兩品明菩薩 無行[190]得菩薩耶 答 亦非無所得菩薩
今列[191]意者 彼菩薩位 至二諦空中准望論之 亦是有所
得故 從是外凡夫位故被破 如地攝等四家菩薩也 今

---

183) △ : (續)에는 及.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20]. 後?
184) 通 : 『涅槃經』 원문에는 過임. (“發心畢竟二不別　如是二心先心難　自未得度先度他　是故我禮初發心　初發已爲人天師　勝出聲聞及緣覺　如是發心過三界” 大正藏12, 590a)
185) 彼 : 波의 誤字임.
186) 彼 : 波의 誤字임.
187) 准 : (京)에는 唯.
188)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21]. 亦?
189) 行 : 所의 誤字로 생각됨.
190) 行 : 所의 誤字로 생각됨.
191) 列 : 引?

謂 就十信前 未得二諦假[192]空無所有 爲外凡夫位 得
[19b] 二諦假空有所無無所得 爲內凡夫位也 故大師云
未得彼[193]空 有所得行行 如地攝四家人 若廻心値無
所得善相[194]識 專學無所[195]得行行 如入無所[196]得者 卽是
13下 外凡夫入內凡也 又以此外凡 行無所得 得入十信
無所得位 雖得入十信 由前無便[197]方便行行故 雖入
正位 而猶有明昧 故開爲十地 若未得二諦假[198]空時
無量劫行無所得人一人彼[199]十信位無量劫行行 利
根者 卽便頓斷衆惑洗盡義 故經云 不在涅槃 不在生
死 亦不由妙覺[200]等覺入菩薩 又經云 一念相應慧 斷無
量煩惱及習也 經意亦是初發菩薩也 第二論三種
[20a] 退 有兩 一明三種退 二論墮頂義 所言三種退義者 釋三退位 次
第亦不同 招提云 位退行念退也 今謂 行位念三退
也 又釋 位退者 釋不同 一云 地前第六心已下退 爲[201]
聲聞或退爲凡夫也 故彼云 卅心中 第六心 猶有三
塗業 牽生之業未盡故 墮三惡道 連羈不絶 若第七
心只有報果[202] 無復牽生業 勉[203]三塗之業也 二云 第六
心已下 但退爲二乘 不退作凡夫 報恩所說也 三白

192) 假 : (京)에는 似.
193) 彼 : 필사본들에는 彼 앞에 ° 표시를 하였음. 假?
194) 相 : 내용상 知의 誤字로 생각됨.
195) 所 : 필사본들에는 行.
196) 所 : 필사본들에는 行.
197) 便 : 衍文으로 생각됨.
198) 假 : (續)에는 任, 假의 이체자의 誤讀임.
199) 彼 : 필사본들에는 彼 앞에 ° 표시를 하였음.
200) 覺 : 필사본들에는 學.
201) 爲 : (續)에는 位.
202) 報果 : 필사본들에는 果報라고 쓴 후 옆에 도치 표시를 하였다.
203) 勉 : 免.

琰法師云 舍利弗於第六住退者 十住斷結經第七
品身子自說云 我[204]曩昔在坏[205]器時 或從一[206]住至五住[207]
復還退墮 而在初地 復從初住到六住 如是經歷六
[20b] 十劫中 竟不能到不退轉地 今取此文 身子於六住
14上 退 非六心退 此謂六地以爲六住 开[208]文正明 七地爲
不退忍故也 今謂不然 彼師等定執 經中心與住及
地三名 安處所故 一師或安下位中 一師復安上位
中 故作此說 終是着名隨相耳 諸佛及弟子 不着名
不隨相也 經中或卅心位中作住地名說 或安初地
已上等說 故或上或下 須得通途意也 故一家舊判
十信發心中 前第六心已下 退爲二乘也 故瓔珞本
業經云 淨目天子法才王子舍利弗 不能入七信者
正是十信發心位說了 何以知之 十住斷結云 身子
[21a] 自稱云 我昔在坏器時也 今謂 十信前得二諦空位
中退也 本業經云 退入外道 起大耶[209]見 及作五逆等
豈非初發心前具縛凡夫 菩薩汎明之也 若得中假十
信位 與卅心菩薩 及初地已上 更造大耶[210]見等 無有是
處 初發心菩薩已能八相成道 爲二乘作師 豈更起大
耶[211]見等 但一家舊云 初地菩薩生在佛家 不離[212]諸佛 豈
更造五逆等耶 且約今△[213]明之 如彌勒菩薩 是初發心

---

204) 我 : (續)에는 或.
205) 坏 : 壞의 약자임.
206) 一 : (京)에는 二.
207) 住 : (續)에는 位.
208) 开 : 其의 異體字?
209) 耶 : 邪.
210) 耶 : 邪.
211) 耶 : 邪.
212)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쓰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菩薩 而爲阿羅漢等之所禮敬 豈更起五逆耶[214]見等耶
14下 問 若爾十信位中 如彼經說是下劣凡夫耶 答
從來學有所得凡夫 遇大乘法門 悟無所得正道 而
[21b] 猶暫時起有所得心 名爲起大耶[215]見等 故經云 寧起
五逆四重等罪 而不能起有所得心之類[216]也 今謂 十
信前 開作十信明之 不開發心十信 如仁王經云 卅
心中 初十心爲十信也 毗曇家云 調達得煗法已退
大耶[217]見等 論師釋不同 一云 五方便中 有此義 終是
數氣 二云 五方便前 蹹行觀中起五逆四重等罪也
問 此菩薩退爲凡夫耶 答 大乘明義 或可暫時起
更還正道 此菩薩異法有故 終不爲凡夫也 問 三退
配於三位 其[218]相何耶 答 不二而二明之 行退娓[219]假[220]
初發心位中 第六心已下 一家舊云 中發心中前第
[22a] 六心發心已下 位退 亦於第六發心已下 亦娓[221]之 念
退者 卽七地初忍已下娓之也 故經云七地菩薩愛佛
地功德 不名無煩惱也 問 三退退相何耶 答 行
退者 已伏煩惱種類 更暫起 名爲行退也 位退者 退
起作二乘位心 名爲位退也 念退者 七地初忍菩薩 所
未斷煩惱來現前 名爲念退 若爾七地初忍已下有
15上 此義 中忍已上則無也 問 行退何[222]因緣故退 答 如

---

213) △ : (續)에는 政,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斷-22].
214) 耶 : 邪.
215) 耶 : 邪.
216) 類 : (續)에는 斷.
217) 耶 : 邪.
218) 其 : (續)에는 其, (龍)에는 开, (京)에는 菩薩의 약자(サ卄).
219) 娓 : (續)에는 觀, 필사본들에는 娓. 미상.
220) 假 : (續)과 (龍)에는 假, (京)에는 似. 미상.
221) 娓 : 미상.

經中說 有四事故退 一者 久習放逸 煩惱因緣利故
退也 二者 久植愚癡之業 親近有所得惡知識 故退
也 此二事 師云有所得學問等也 若造十惡等事 不
[22b] 足及言也 三 事見王等多生怨家讎△[223] 故所以退也
四者 資財不具足故退也 如大經 迦葉問佛 若利根
者 何故不現般涅槃 佛答爲不具足故 所以不般涅槃 若
爾爲多有闕少 故所以退也 位退者 如瓔珞經云 大
士退也 大士所以退者 行菩薩行時 天帝釋見菩薩行行
有眞實堅固[224]以不識之 一時化作婆羅門來乞眼 行
菩薩者 不逆一切衆生意故 卽排眼童子與之 婆羅門
亦得眼童子 卽擲之脚蹋破之 法財王子卽念言 汝
旣無所用者 何意就我乞眼 得眼卽蹋破之 復[225]何益
眼是導行之主 衆生難化 卽起退心 我不復行菩薩道
[23a] 我退作二乘自調自度也 若至七心 卽△[226]不退也 念
退者 如十地經云 七地菩薩愛佛地功德 不名無煩惱
也 花嚴亦云 三界煩惱盡故 不名有煩惱 愛佛地功
德故 不名無煩惱 故念退也 今正取未斷煩惱來現
15下 前 名爲念退也 問 此菩薩行已深 何意起此念耶
答 論師說不同 一開善門徒云 引接名字明之有二
乘 故經云 有三種意生身 何者空解萬行相資 乃同
二乘人 不脩萬行 云何得空解斷三界惑出界外耶

---

222) 何 : (續)에는 行.
223) △ : 판독미상[斷-23]. 咎?
224) 固 : (續)에는 因.
225) 復 : (續)의 본문에는 改, 頭註에서는 復으로 추정.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24]. 내용과 형태로 보아 復의 약자로 생각됨.
226)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5와 같음]. 竟?

又此菩薩雖斷正使已盡 始出界內 未得空有並觀 鈍
根菩薩 有時起愛佛地功德 或時樂沒[227]空時也 二者有
[23b] 實行二乘家 卽是莊嚴等門徒云 不唯鈍根 無方便
菩薩愛佛地功德 亦是聲聞等二乘斷三界正使盡 往
生反[228]易生死時 聞佛無量功德 卽生愛佛地功德 又
此菩薩正就有行明之 初地至第六地 猶有退轉 以正
使未盡 萬行難精故 從來所脩之法 或有已得勝品
而須申[229]退勝品 名爲墮[230]頂也 或復入空無相無作等
生法 名爲着空也 報恩亦同此說 故華嚴經云 七地
菩薩者 寂不脩萬行 故諸佛來摩頭勸發 種種敎化 汝
未得無量法門卅二相八十種好 發起萬行 又楞伽
經亦云 七地菩薩着空故 十方諸佛七過來摩頂 勸發
[24a] 萬行 同前經文[231] 釋論第十卷云 七住菩薩觀 諸法空無
16上 所有不生不滅 如是觀已 一切世界中 心不着 欲放
捨六波羅蜜 入於涅槃 爾時十方諸佛 放大光明 照菩薩
身 以手摩頭 語菩薩言 汝勿生此心 汝億[232]本願 欲度一
切衆生 汝未得卅二相八十種好也 又夫人經亦云
無漏業爲因 無明爲緣 能生聲聞辟支佛三種意生
身故 定有實行二乘人 若無實行人者 七地菩薩無容
無卅二相八十種好 復[233]着空寂 不脩萬行 始欲捨六
波羅蜜入於涅槃也 若如開善云 實無二乘者 而諸經

---

227) 沒 : (京)에는 波.
228) 反 : 變의 의미임.
229) 申 : (京)에는 中.
230) 墮 : (京)에는 隨.
231) 文 : (京)에는 又.
232) 億 : 憶의 誤字임.
233) 復 : (續)에는 改, 필사본들은 판독 미상. 내용과 형태상 復의 약자로 생각됨.

說者 皆是跡中爲物引接故 此釋不成語也 眞諦三
[24b] 藏自恠[234]責開善云 彼國中無有人言 無實二乘者 汝
自輙言 無有實行二乘 故三藏師引夫人經云 三種
意生身 卽是聲聞意 辟支佛意 菩薩意 生於反[235]易生死
中 今謂 通而爲語 亦有二乘 亦無二乘也 言有者 佛
隨緣方便 彼[236]名字開三乘 故有之 故經云 除佛方便
說也 言無者 無如四家說 七地中會三乘故 一家云
具四句也 問 如斯三經一論等 著寂菩薩等 若爲通
釋了 答 大乘無所得義通云 如地攝兩論成毗二
家 有所得無方便菩薩 難復[237]廻心入正道 而由前無方
16下 便行行故 至七地時 |猶見思惑習故着寂 不如法行
[25a] 行 故諸佛來發起 汝等未得眞卅二相八十種好 若
小小分卅二相八十種好 如初正八相成道卅二
相八十種好並有之也 問 中十心中 自有頓斷煩
惱 不由等覺妙覺究竟涅槃者 七地已下菩薩等 寧得有
着寂[238]不脩萬行 爲諸佛來種種發起 頓如此差降耶
答 正是前時有方便無方便行行 故頓[239]如斯[240] 利[241]與[242]
鈍差別 如釋迦文 久已成佛 無有一切煩惱 而尙受
九報 今煩惱未盡菩薩中 自有着空 而不着空何疑了[243]

---

234) 恠 : (續)에는 性. 내용상 恠(=怪)가 맞음.
235) 反 : (續)에는 變. 反은 變의 의미임.
236) 彼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고 있음. 故? 於?
237) 復 : (續)에는 改이지만 필사본들의 글씨로 보아 復의 약자로 생각됨.
238) 寂 : (京)에는 家.
239) 頓 : (續)에는 須.
240) 斯 : (京)에는 前.
241) 利 : (續)에는 則.
242) 與 : 필사본들에는 子.
243) 了 : 耶?

問 釋迦文久已成佛 而爲一切衆生 方便受九種
報耶[244] 得相例了[245] 答 久已得種覺 猶尙爲物九報者
[25b] 煩惱未△[246]菩薩自有 由有方便無方便行行故 上七地
下有汎[247]空不汎[248]空 何須疑之 無方便地攝等諸家 好
有此疑也 故手[249]德楞伽藏[250]經云 一一地中 逕百千大
劫 方本一地之行 軟根不在其[251]數 故知初地已上 並
有利鈍 鈍者卽是前[252]無方便行行 故至七地 自有沈[253]
空着寂故 諸佛來發起也 問 如眞諦三藏云 與諸
論師釋六地與七地中 爲二國中間也 答 今大乘
17上 義 不同彼說 今謂假|十信與中十信 中間爲二國中
間 難可過度 卽是分段與反易 兩種生死爲中間故
一家擧譬言 有南北二國中間 如大江五十里中間
[26a] 復有淸江與監察故 難可通度 正意假[254]十信中 雖斷
正使盡 而轉入中十信爲難 亦是正使雖煩惱而爲
習氣故 萬行難精 故從來所脩之行 或時勝品而須
申退失 劣品名爲墮[255]頂義 或復[256]入空無相作等生法
心 名爲着寂等 如前說也 若從凡夫[257]來依偏[258]學無所

---

244) 耶 : 取의 誤字?
245) 了 : 耶.
246)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25]. 竟?
247) 汎 : 미상. (續)의 頭註에서는 沈으로 추정.
248) 汎 : 미상. (續)의 頭註에서는 沈으로 추정.
249) 手 : 摩의 誤字임.
250) 藏 : (續)에는 [氵*居], 藏의 異體字로 생각됨. 필사본들에는 居.
251) 其 : 필사본들에는 开.
252) 前 : 필사본들에는 與로 적은 후 '前乎'라는 세주를 붙였음.
253) 沈 : 필사본들에는 況.
254) 假 : (續)에는 任. 假의 이체자의 誤讀임.
255) 墮 : (京)에는 隨.
256) 復 : (續)에는 改이지만 필사본들의 글씨로 보아 復의 약자로 생각됨.
257) 夫 : (京)에는 丈.

得者 一入假十信時 復進得中十信 卽成種覺有限
故得中十信已上 至七地亦無有着寂沈空者也 故
大經云 八萬劫到 六萬劫到 四萬劫到 二萬劫到 十
千劫到 如此等人 並是利根者也 鈍根經無量劫 方
成一位[259]行也 亦有人言 多經論云 七地着寂 是三乘
[26b] 共十地中七地 非菩薩獨十地中七地 又言餘經論言
之 或可是如彼說 而華嚴[260]經語 豈是三乘地意 彼經
未明二乘事 云何是耶 但華嚴[261]經中 雖未說二乘事
而理中明十地相 唯望斷正使盡 出反[262]易生死中 受
生二乘事義 故△[263]而明之 經兩意不相違背也 亦是
17下 解脫月菩薩請說二乘法故 △[264]有二乘 但彼經來意 亦
未盡也 三今[265]說釋迦教 對舍那教明之 釋迦具有但
不但教也 舍那所說教不但教也 舍那教中 直明普[266]
諸微塵世界大小緣事 如釋迦說西方事 非是舍那
緣事也 故金剛藏菩薩爲解脫月菩薩說法文言 此中不
[27a] 宜聞二乘法 所以不說小乘教 卽[267]解脫菩薩請金剛藏
菩薩云 此中亦△[268]有堪聞小法有利益者 爲說之 而文
不見[269]說 故一家相傳云 雖請說 而不說故 無有但教[270]

258) 偏 : 필사본들에는 傭.
259) 位 : (續)에는 任.
260) 嚴 : 필사본들에는 教.
261) 嚴 : 필사본들에는 教.
262) 反 : 變.
263) △ : (續)에는 記.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26].
264)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充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斷-19와 같음].
265) 今 : (續)에는 今, (京)에는 チ, (龍)에는 个.
266) 普 : (續)에는 並.
267) 卽 : (續)에는 教,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27]. 내용과 형태상 卽의 異體字로 생각됨.
268)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充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 實?
269) 見 : 具?

亦無二乘 何勞說也 而觀世音菩薩授記經云 釋迦佛
光明至時 三乘人同光來事者 一家判云 廻小入大
二乘有二義 一實是菩薩 仍歸本名爲二乘 如法花經
云 已授記三乘 從本爲名聲聞也 二無所得二乘 亦
不妨但 無有攝地兩論成毗二家二家[271]但者[272]也 彼經
與論等云 七地菩薩着寂等故 諸佛來摩頂發起[273]事 四
家定執安置高下 故須更料[274]簡之 今割空差[275]別明之
[27b] 故 開合散[276]束 不相妨意故 七地着寂 且初發心着寂
寂且初發心着寂 卽是七地着寂 初發心明了 卽是
18上 七地明了 七地淨了 卽是初發心淨了也 故華嚴經
云 一微塵世界 卽是無量微塵世界 無量微塵世界
卽是一塵世界 一多多一等也 如支[277]楞伽經云 初地
卽是第十地 第十地卽是初地 初地卽是第八地 第
八地卽是初地等也 而經論中 偏約第七地 明着寂
等故 諸佛來發起者 開不二而二論之 第七地是斷
四住〈地〉習氣盡 出七地入八地等事 故經論中多約七
地釋之 此釋意 地攝等四家二見難受信 若得大乘
[28a] 無所得意者 任運義理說之[278] 問 三退位定有高下
耶 答 不異而異明之 亦得高下 異而不異論之 初
行退卽是復念退 復念退卽是初行退 位退亦然也

---

270) 敎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271) 二家 : 衍文으로 생각됨.
272) 者 : 有?
273) 起 : 필사본들에는 記.
274) 料 : 필사본들에는 科.
275) 差 : (續)에는 着.
276) 散 : (京)에는 敬.
277) 支 : 미상. 摩?
278) 之 : (續)에는 也.

三位 開善云 從凡至聖 階位高下 略分爲三也 一具
縛凡夫位 二善惡供位 三性地位也 此三位並是初
地之與[279]凡聖成分別耶[280]正也 從凡學[281]聖[282]未登初地 約
發菩提[283]心 略有三階級 初二是凡夫位 後一是似聖
似聖有爲內凡夫 前具縛供位名爲外凡夫 於外凡
夫中 復有二也 一有見衆生已立 而未有一念勝善
心 名爲一位[284]也 二有善惡供[285]位 此位之人 雖復△△[286]
[28b] 要有歸期 故從具位之供[287]位 性地者旣入正定 卽是
18下 高△[288]善根 已不復[289]退斷善根也 今大乘明位 不同前
說也 就無所得善根位[290]中分之 自從未[291]曾得起向無
所得善根已還 名爲具縛凡夫位也 自從是大經〈念向無所得善根已上名 爲善惡共位也 卽是大經〉云
從值凞連河沙佛 未滿一沙已還 階位之末 此中人
法悉名爲共位不定聚 亦是暫出還沒位 以耶[292]正善
惡爲體也 若曾值一凞連訶沙佛所 發菩提心 名爲
性地也 故經云得十六分中 一中道分△[293]方是發菩

---

279) 與 : 필사본들에는 前으로 적은 후 이를 與로 수정하고 있음.
280) 耶 : 邪.
281) 學 : (續)에는 與, 필사본들에는 寫의 약자로 적은 후 '恐學'이라는 세주를 붙였음.
282) 從凡學聖 : (續)에는 從凡聖與. 내용상 從凡學聖이 맞는 것으로 생각됨.
283) 提 : (續)에는 薩.
284) 位 : (續)에는 立.
285) 供 : 共?
286) △△ : 판독미상[斷-28]. 내용과 형태상 沈淪으로 생각됨.
287) 供 : 共?
288) △ : 판독미상[斷-29]. 昇?
289) 復 : (續)에는 改이지만 필사본들의 글씨로 볼 때 復의 誤讀으로 생각됨.
290) 位 : (續)에는 假. 내용상 位가 맞음.
291) 未 : (京)에는 永.
292) 耶 : 邪.
293) △ : 판독미상[斷-30]. 後?

提心位 如五種菩提心中說也 具縛位 流轉無際 無
有出期 故具縛也 所以共位者 凡有兩共 一者下同
[29a] 具縛 二者上同性地 所以然者 行位雖有高下 値緣
卽諦法還成具縛[294]也 不失念時 乃學[295]卅心 十地方便
故 與性地同也 故大經云 譬如有人出家剃髮 雖未
受沙彌戒已墮[296]女[297] 若有發心始學[298]此經 雖未階位十
地已墮十住[299]安中 故知與性地共也 故知還同 具縛
位[300]者 菩薩戒經云 性地菩薩 始能不謗法斷善根 故知共
位人備稱具縛也 此人名爲信根菩薩 亦名假名菩薩 所
19上 以言[301]假名者 非唯道心未是似 解亦復[302]迹立 今曰菩薩
是非假立也 大品經亦云 輕毛菩薩 譬[303]爲名 解行未深
多生退轉 有似毛之隨風東西也 大經迦葉品云 菩薩
[29b] 有二也 一者假名 二者實義 此目假名 與本業經名
目同 故言名字 卽是輕毛不定 故名字說之耳 分[304]別
耶[305]正善惡者 若具縛唯耶[306]無正 若性[307]地 但正不耶[308] 共
位者 耶[309]正兼有 善惡具行也 高下昇沈者 具縛之位

---

294) 縛 : (續)에는 緣.
295) 學 : (續)에는 吁. 필사본들에는 吁를 적고 옆에 '恐學'이라는 세주를 붙였음.
296) 墮 : 필사본들에는 隨.
297) 女 : 미상.
298) 學 : (續)에는 吁. 필사본들에는 吁를 적고 옆에 '恐學'이라는 세주를 붙였음.
299) 住 : (續)에는 假.
300) 位 : (續)에는 假.
301) 所以言 : (續)에는 所言以.
302) 復 : (續)에는 改,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31]. 復?
303) 譬 :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32].
304) 分 : 필사본들에는 汾.
305) 耶 : 邪.
306) 耶 : 邪.
307) 性 : 필사본들에는 怯.
308) 耶 : 邪.

唯是沈沒鄙下 流轉無際不出也 性地者 旣入正定
則能高昇 善根已立 不復[310]退斷善根也 共位者 可上
可下 亦昇亦沈 暫出還沒 故不定△[311]也 大品經莊嚴
品云 畢定衆中 干[312]慧[313]地不取安故 起△△[314]故 不定位
也 問 性是卅心中明之 寧同於發心中明耶 答
多[315]二義 一是發心當體是性地 二是從卅心向下△[316]
[30a] 十信 亦是性地也 問 性是何義 向卅心十信明耶
答 性是不改義 而有二種 一者解假性 二者解中
道故 發心以上明地性也 依大經 有洹河七種人中
初三種人卽是三位人也 一常沒人 二蹔出還沒人
三住人也 常沒人者 起耶[317]見一闡提等 趣向有所得
19下 皆以重惡自沈沒 不能出生死 故言常|沒也 蹔出還
沒人者 若遇大乘善知識 發菩提心 故出生死 求生
信心正見脩善 若經生 若遇有所得惡知識 還起耶[318]
見 斷善根故 還復沒 或昇或沈 故言暫出沈人也 此
兩人 必是出家人也 住人者 安立無所得善根[319] 是第
[30b] 三人 如師子吼品云 小乘四念處燸法人 依迦葉品
小異 如佛性義中說也 無所得善根已立 永[320]不復斷善

---

309) 耶 : 邪.
310) 復 : (續)에는 改이지만 필사본들에는 復의 이체자임.
311) △ : [穴/取]. 趣의 異體字?
312) 干 : (龍)에는 于.
313) 慧 : 필사본들에는 惠.
314) △△ : (續)에는 期望,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33].
315) 多 : 有?
316) △ : [扌*攵]. 미상.
317) 耶 : 邪.
318) 耶 : 邪.
319) 根 : (續)에는 提, 필사본들에는 椳. 내용상 根이 맞음.
320) 永 : (續)에는 求.

根 不退起耶[321]見等 名爲住理人也 又大經云 三種
病人者 卽此三人也 何者 解不同 一云 初具縛凡夫
者 不可除必死人爲具縛耶[322]定位也 遇退[323]醫得差 不
遇卽不差者 共位不定人也 斷自差人卽是性地人
也 二云 若未立信根 名爲必死不差人 爲初人也 若
初發心 至第六心 差不差[324]病人也 第七心以上自差
人 不如前說也 又諸經論中有三種名 一耶[325]定聚 二
不定聚 三正定聚也 解此三聚位 開善云 耶[326]定者 起
[31a] 耶[327]見 失正理 遇或[328]之名 亦言耶[329]定 起心定執劃計也
不定者 或正或遇善知識 信三寶四諦因果 信善現
前 卽是正見 正見未善安 還復失忘 遇緣謗法斷善
20上 根故 復生耶[330]見 故不定也 正定者 信根已立 習善安
立 不謗正見 不斷善根 故名爲正定也 其[331]位亦同前
具縛等三位也 今大乘明之 亦同具縛等中三位說
也 通稱聚者 有二義 一聚集義 二類義 亦是同義 同
類而聚集 如方以類聚也 凡△[332]有所得耶[333]心之位 是
類者悉入耶[334]聚中也 不定正定 亦然之 又具縛共性

---

321) 耶 : 邪.
322) 耶 : 邪.
323) 退 : 良의 誤字임.
324) 差 : 필사본들에는 若.
325) 耶 : 邪.
326) 耶 : 邪.
327) 耶 : 邪.
328) 或 : 내용상 惑임.
329) 耶 : 邪.
330) 耶 : 邪.
331) 其 : 필사본들에는 开.
332) △ : 판독미상[斷-34].
333) 耶 : 邪.
334) 耶 : 邪.

三位 此別名者 具者備有 有所得鄙劣故 以鄙法所
[31b] 成也[335] 夫者 是行者通稱 若凡等庸劣所成 卽是庸夫
也 共位者 善惡相兼 未決之名 若化緣善 其位未立
善性成故也 耶[336]正亦猶未決定 雜一切善惡故 共在
一位中也 性者 不改故名性 習性已成 不改爲惡 信
根安〈立〉 能生諸善 故言地也 通稱位者 分尊卑高下 各
自處也 作如斯明者 大都得無得大判之 若細論之[337]
如前釋也 地攝兩論成毗二家 一切善惡 無非具縛
並是理外故 若學無所得心想 依諦向不二者 亦是
共位也 十信位中釋不同 一山家舊云 中十信中 前
六心已下 亦同言共位 從七心已上性位也 二云假
[32a] 十信中 前六心已下共位 第七[338]心已上性位也 又山
20下 家從多 約菩薩位中隨名分位之 略|有三階 一者七心
上名爲入不退法 二初地已上名法位 亦言阿鞞跋
致 至此處卽生在佛家 如前引經論釋初地文中說
也 三者七地名爲法位 亦言阿鞞跋致位也 發趣品
明 七地名爲等定慧地也 故大論云 前三地慧多定
小 後三地定多慧小 不能入菩薩位 七地已上定慧均
等 漸[339]得種智 名爲等定慧地 此意亦是敎門明之 菩薩
初發心 萬行但[340]進 至七地方等二門耶 又須知之 小
乘廿七賢聖位 今大乘明之 撮合爲十信位 故廿七

335) 鄙劣故 … 成也 : 필사본들에는 오른쪽에 '五住煩惱等而不善無所咸小也 縛者未脫之名 纏結患累'라는 俠注가 있음.
336) 耶 : 邪.
337) 若細論之 : (京)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음.
338) 七 : (續)에는 六이지만 필사본들에는 七임. 내용상 七이 맞음.
339) 漸 : (京)에는 斷.
340) 但 : 俱의 誤字?

[32b] 薀 在菩薩[341]十信中也 第二墮頂△[342]義 所言墮頂者
大品經勸學品云 菩薩摩訶薩 不以方便行六波羅蜜
入空無相無作三昧 不墮聲聞辟支佛地 亦不入菩薩
位 是名菩薩法生 故墮頂也 此經文意說不同 △[343]法師
云 六住中空心爲頂 有心爲墮 以六地終心正由空
解故 出離二乘也 岌法師云 七住空心爲頂 有心爲
墮也 七地之始 永離[344]二乘故 六地以還 未勉[345]二乘故
言墮 故釋論云 從忍無生忍中間名爲頂 故六地以
下從忍 七地已上是無生忍也 通法師 六地冣極爲
21上 頂 未登爲墮|也 尙禪師云 卅心極處爲頂 登頂卽入
[33a] 初地菩薩位故 大品第三卷勸學品云 不以方便行六
波羅蜜 旣言不以方便行六波羅蜜者 未得眞解故
無方便猶存著 所以不得入初地 又不墮二乘地者
二乘獨善[346]爲境 今大士久行六波羅蜜 欲求[347]作佛 不
墮二乘 但滯著心故不得登初地眞位故 法生故 墮
頂者 此習解未熟 未稱無生 於一切法猶起著心 故
言法生也 若深廣心稱獨成菩薩位 永[348]不退二乘也 招
提云 七地無生法 卽爲頂 是六地之上 決定入七地
之心 以起取著之名爲法愛 于時不能至頂故 必不
爲二乘進退無授故名墮也 今謂 釋論第卌九卷 直

341) 菩薩 : (續)에는 其, (京)에는 菩薩의 略字(サ卄), (龍)에는 开.
342) △ : 판독미상[斷-35].
343) △ : 판독미상[斷-36]. 馮?
344)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345) 勉 : 免.
346) 善 : (京)에는 答.
347) 求 : (續)에는 來.
348) 永 : (續)에는 來.

[33b] 云頂空 從忍無生忍之間 地前爲從忍 初地已上爲
無生忍也 今觀經論意 起有欲心爲墮 無欲心爲頂
故經云 菩薩不方便行六波羅蜜 入空無相無作等故
法生故 墮頂也 若爾 菩薩方便行波羅蜜 迴出凡夫二
〈乘〉有所得菩薩相情之外 名爲頂 非方便行六波羅蜜故
法生墮頂 如地攝等四家菩薩等也 若爲位論之 前三
21下 退卽是墮 非前三退卽是頂也 故大品經[差]別品云[349]
得無所有 已見一切法空 四諦所攝法皆[350]空 若是[351]觀
是時 便入菩薩位中 是爲菩薩位 性地中不從墮頂 用是
墮頂故 聲聞辟支佛地也 而諸法師多用六地心終
[34a] 爲頂 或言七心初爲頂 約位明頂者 觀經文意 應是
六地終心爲頂也 大△[352]而論之 八地以上無生寂[353]滅
忍 入法流水 無功用心 無復[354]有念 故無念退也 釋論
云 登第八地 第六地中增退中云 六住退得無生也
第八九位入法流也 第二明並觀不並觀 釋並
照不並照 具如二智說也 今略出之 而說者不同 一
云 八地已上始能並照 七地已下未能並也 二云 六
地已下悉未並照 始入七地已上皆並照也 三〈云〉 中忍
已下未能並照 七地上忍已去一向並照也 四招提
云 三階明之 一六地已下一向不並照 二八地已上
[34b] 一向能竝照 三七地或竝不竝 澤[355]於七地 以爲三階

349) 원문은 다음과 같다. "得無所有法已見一切法空 四聖諦所攝四聖諦所不攝法皆空 若如是是時便入菩薩位中 是爲菩薩住性地中不從頂墮 用是頂墮故墮聲聞辟支佛地" (大正藏8, 412b-c)

350) 皆 : 필사본들에는 吐.

351) 是 : 원문에는 如是. (續)에는 見.

352) △ : 판독미상[斷-37].

353) 寂 : (京)에는 家.

354) 復 : (續)에는 改.

一下忍力微弱〈竭〉力即竝照 二中忍漸勝 竝照轉多 三
終心一向能並照 仍入八地位大寂[356]也 五開善云七
地中三忍 下忍失念 亦不並照 中忍不失念 亦未並
22上 上忍得並照 八|地任運行也 六寶亮法師云 初地
〈已上〉已能並照 地攝[357]師亦同此說 故彼師云 取仁王經意
云 初地並照 八地已上任運自成 美其勝同名耳 今
大乘明義 初發心中十心[358]菩薩 已能八相成道 即能並
照 如仁王經說意 復必須識 徧圓橫竪之意[359] 旣能並
照 無故[360]入空出有異時 但爲化緣 宜現入定出定入
[35a] 觀出觀等也 若爾 非直眞俗並照 亦就俗中法法並
照 就眞中如十八空等並照 一中解無量 無量中解
一 如是橫竪總別 無不滿足也 琰公云 七地菩薩 定[361]有
並照者 終心一向能並 正是斷習氣極品明心與有
知並也 下忍並者 必是溫故 空心與有知共竝 斷或[362]
之心 不能與有知竝也 中忍之心 自能屢竝 應多是
溫故 空心有知 得並 斷或[363]之心小能爾也 正以什公
〈肇公〉等 多七地自[364]動而寂故 今推斥七地爲三階之辨也
開善意亦略同此意 但上忍明之也 今謂 多種之說
並是正入發心〈向入發心〉觀行未調利時 學方法得有如此義

---

355) 澤 : 필사본들에는 沢. 미상.
356) 寂 : (京)에는 家.
357) 攝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358) 心 : 필사본들에는 信.
359) 意 : (續)에는 立. 필사본의 형태로 볼 때 意로 생각됨.
360) 故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고 있음. 後?
361) 定 : 空의 誤字?
362) 或 : 내용상 惑임.
363) 或 : 내용상 惑임.
364) 自 : 필사본들에는 [斷-27]과 같은 글자를 적은 후 옆에 自를 적었음. 卽?

[35b] 已入正位時 任[365]行亦有也 但什肇兩師 多偏約正使

22下 盡明之 大意同今說也 又彼師云 反[366]照七地上忍悉

羅[367]反[368]照 初地已去至七地中忍 亦得反照 但不恒反

照也 大勢並照義類之 從淺至深 反照之力 轉增進

也 於初地已去至七地中忍 卽[369]罷[370]反照 我是某地 已

得爾許法門 無若干[371]煩惱也 六地已下不能自[372]於空

心知入[373]其[374]地 至若干品 七地已上 則能知如向空有

並照也 今謂 亦如並[375]照 初發心菩薩已能反照等也 成

論師解 並照鄣不同 一云別有無知鄣也 二云無別

鄣 但有緣由之鄣 良由或[376]多知弱 故不能照 或[377]小

[36a] 知强 故能照 直是多智竝生 更[378]無別照 故無別鄣也

今謂 未必一向爾 若不二而二論之 一智照多境 多

智照一境 多智照多境 一智照一境 境發智亦爾 照

義旣多種 鄣義亦應有別者也 反照智 解亦不同 一

開善云 照靑之智 還此靑智[379]反照 照靑解也 二龍光

365) 任 : 假의 誤字?
366) 反 : (續)에는 發.
367) 羅 : 能?
368) 反 : (續)에는 發.
369) 卽 : (續)에는 乃. 필사본들에는 [斷-27]과 같은 글자임. 형태와 내용으로 볼 때 卽으로 생각됨.
370) 罷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고 있음. 能의 誤字로 생각됨.
371) 干 : (京)에는 千.
372) 自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고 있음. 卽의 誤字로 생각됨.
373) 入 : (龍)에서는 人으로 적은 후 入으로 수정하였음.
374) 其 : 某의 誤字?
375) 並 : (續)에는 없음.
376) 或 : 내용상 惑임.
377) 或 : 내용상 惑임.
378) 更 : (續)에는 便. 내용상 更이 맞음.
379) 還此靑智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云 別有智智 但自反身反照 如是無窮反照也 若爾
一知知青 還以此知此知[380] 如開善者 鄣亦說有別無
別不同境別 故有別鄣 還以青智反照 故無別[381]鄣也
龍光云有別鄣也 今明不二而二明之 並得兩說 但
名字同意異也 論師云 小乘之人 有高位利根者 有
[36b] 中則得照|一切 空心不能與有知並也 中乘人 於
23上 有中並照遍 故空心亦可能與有智並照 如大論云
或[382]侵習氣 與七地下忍相似也 反照亦可 如論云 凡
夫總相自緣名爲反照 如定行[383]自反緣住得 如菩薩別
反照則無也 今謂 初發心菩薩並有之 若菩薩二乘亦菩薩
一種也 如成論師所明 三乘別異 善根人於[384]波[385]義論
之 如彼說而已 今大乘宗望彼有所論都無之也
第二雜簡 問 何者功德智慧莊嚴耶 答 且弁[386]功德
與智慧兩門 不二而二明之 依大品經第一卷序品
擧萬行與萬德境智等勸學文意 依一種開八段意
[37a] 攝法無不盡 㝡後結云 欲得功德如是者 當學波若
波若波羅蜜者 正法 波若爲本 所開三乘觀 與三果
并境智等 爲功德也 正法波若之實 非功德智慧等
而擧末用目之 亦得言功德智慧等 所開六度等[387]爲
功德 就功德中 開爲第六度爲智慧 五度爲功德 并

380) 此知 : 필사본들에는 々々.
381) 別 : (續)에는 없음.
382) 或 : 惑?
383) 行 : (京)에는 圻.
384) 於 : (續)에는 捨.
385) 波 : 彼.
386) 弁 : (續)에는 弃, (京)에는 弁, (龍)에는 解라고 적은 후 弁으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弁(辨)이 맞음.
387) 等 : (續)에는 없음. 필사본들에는 ホ.

造境生爲智慧 如善靜爲功德等 並得之也 又大經
第廿五云慧莊嚴者 從一地乃到十地者 或可擧正
23下 法明之 或可擧第六度說之 福德莊嚴者 謂檀波羅
蜜乃至波若非波若波羅蜜者 擧假[388]明之 今謂 福慧
慧福 因緣語耳 而六行中分之 前五度是福 第六度
[37b] 爲慧 又第六中分 有分爲福 空爲慧 故經云波若非
波若波羅蜜 如前也 問 若爲是大莊嚴與大莊嚴
發趣耶 答 釋論三空文云 大莊嚴發趣大莊嚴乘
於大乘也 又云 菩薩行檀波羅蜜乃至波若波羅蜜 能
捨內外財物 而行猶存有吾我 所以未得生空 直名
爲大莊嚴也 若菩薩行檀波羅蜜 罷[389]捨內外所有 無有
吾我之心 卽得生空 名爲發趣大乘也 復次菩薩行檀
波羅蜜 乃至波若波羅蜜 罷[390]捨內外 忘三事 畢竟淨
具足生法二空 故名爲乘於大乘也 釋論第五十卷
云 初地至三地 慧多定小 未能深攝心故 四五六地
[38a] 定多慧小 以是故不得入菩薩位 今生空法空定慧等
故 能安隱行菩薩道 從跋致地 漸漸得一切種智地也
論師釋此意〈言〉 定慧 以正觀空理理靜爲定 有中分別
知爲慧 如成論止觀品云 分別陰界等心爲觀 會眞
我之心爲止 立名各取一義也 又就此一說 分爲四
24上 階 一初三地照空心小 照有心多 二四五六三地照
空心多 照有心少 三七一地兩勢齊 而猶互[391]起也 四

---

388) 假 : (續)에는 任, 假의 약자의 誤讀임.
389) 罷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고 있음. 能의 誤字?
390) 罷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고 있음. 能의 誤字?
391) 互 : (續)에는 牙, 互의 이체자의 誤讀임.

八九十三地 兩智必並照 念念寂392)滅 所以然者 見諦
之或393) 品數本少 非394)止可略 比395)欲界思惟而先在卅心
今中已伏竟396)故 今就眞觀斷之 不煩多力故 初三397)地
[38b] 在眞觀心少也 脩行之意 本爲濟物 既已成聖 無容398)
獨善故 多出空觀 權智度399)人 致令有心 心起甚段400)也
此言小多 是依前401)實402)說 非與奪之意也 四五六地仍
前以來 多起有智 資此入空 空心長久 以四地所斷
是欲界思惟等 於見諦或403) 品轉細細 故難斷 愛著人
天 彌難捨雖404) 五地所斷 是色界思惟 有四禪繫縛 於
諸禪定 易起味心 兼以轉細 彌更難遣 六地所斷 是
無色界思惟 有四空轉縛 此或轉細 〈起〉味心彌多 故斷
或405)心多多須數數入觀 謂爲多也 有心小者 四地脩
道品 五地習五明 六地論觀因緣 此則有中觀行 亦
[39a] 殊不小 不客406)高位 泏407)有反小 前408)三正皆此三地 空觀

---

392) 寂 : (京)에는 家.
393) 或 : 惑.
394) 非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能의 誤字로 생각됨.
395) 比 : (續)에는 此.
396) 竟 : (續)에는 意.
397) 三 : (京)에는 二.
398) 容 : (續)에는 客.
399) 度 : (續)에는 恐度. 필사본들에는 变으로 적은 후 '恐度'라는 협주를 붙였음. (續)은 협주를 본문으로 읽은 것으로 생각됨.
400) 段 : 필사본들에는 段으로 적은 후 數로 수정하였음.
401) 前 : 필사본들에는 前을 事로 수정하고 있음.
402) 實 : (續)에는 空.
403) 或 : 惑.
404) 雖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고 있음. 내용상 離의 誤字임.
405) 或 : 惑.
406) 客 : 내용상 容의 誤字임.
407) 泏 : (京)에는 出. 미상.
408) 前 : 미상. 則?

心小 有行必多 今則空觀心多 謂有心稍少耳 實[409]緣[410]

24下 六地隣於七地 七地空有稍均 謂之定慧平等 六|地

未能相及 故存小多之稱 然實[411]六地以前 猶亦多須

泏[412]有也 例如大經第廿八云 十住菩薩智慧力多 三昧

力少 聲聞緣覺三昧力多 智慧力少 故不見佛性 此

義應[413]言 十住菩薩受法王位 兩[414]復爲衆生雨甘[415]露法雨

常有分別故智 用則多任刀[416]者 空未餘求進 故言定

少 此皆義言之 非是定說 今於六地以前 多小之義

亦△[417]爾也 二乘分內 但念脩空 於菩薩神力心不喜樂

[39b] 如法華經中說 義言定多智用少也 七地之終 脩習

萬行 大段已脩 故云七地定慧均平也 七地所斷之

或[418] 或[419]品與見諦思惟正等故 斷此細惑 空慧轉多 備

脩萬行 必具足故 有中福慧 甚亦倍多 空有二行俱

多 而大略相類 故云等也 七地之終所脩[420]略具 次入

八地 念念常寂 八地文云 皆乘船入海 爲譬船中所

須 事事已足 故任[421]力待時自去 九地已去功德亦然

也 今謂 無爲法中 而有差別 亦有此義 而未必一向

---

409) 實 : (續)에는 空.
410) 緣 : (續)과 (龍)에는 錄, (京)에는 緣. 내용상 緣이 맞음.
411) 實 : (續)에는 空.
412) 泏 : 미상.
413) 應 : (續)에는 意. 내용상 應이 맞음.
414) 兩 : 而의 誤字?
415) 甘 : 필사본들에는 耳.
416) 任刀 : 미상. 假力의 誤字?
417)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에는 充으로 적은 후 앞에 °를 표시하였음([斷-19]). 지운 글자로 생각됨.
418) 或 : 내용상 惑임.
419) 或 : 내용상 惑임.
420) 脩 : (續)에는 備.
421) 任 : 假의 誤字?

如此理而論之 菩薩一證中道 必脩萬行俱進 如仁王
經云422) 初地一念具足 八萬四千般若波羅蜜 載爲摩
[40a] 25上 訶衍 卽423)滅爲金剛 亦言定 亦言一切行 如是廣424)讚波
若波羅蜜中說也 大論云 定慧者 隨義 一往論之 何
者 依瓔珞經云 欲界見思惟習或425) 前三地菩薩斷 上二
界見思習或426) 後三地菩薩斷 故定慧各有二義 前三地
慧多定小者 一者 隨所化衆生處 菩薩於見思惟習之
地 定淺小難用 故言定少 而有中分別 行易而多 故
言慧多 如干427)慧428)地也 二者 汎論初入道 必入空爲△429)
亦是道與俗反故平於諸法爲正道 專者430)此心故言
慧多定少也 後431)三地有二義 一者 色無色432)處衆生 多
者433)靜心 亦是定深而易用故 菩薩隨开者434) 定爲意故言
[40b] 定多 而有中分別等小故 言慧小也 二者 菩薩因諸禪
定發435)諸神通 行十二門禪等 故言定多慧小也 故須
假436)諸廣之 又不唯隨所化明之 菩薩自行明昧多小 亦

4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是卽初地一念心 具足八萬四千般若波羅蜜 卽載名摩訶衍 卽滅爲金剛 亦名定 亦名一切行 如光讚般若波羅蜜中說" (大正藏8, 826a)
423) 卽 : (續)에는 乃.
424) 廣 : 光의 誤字?
425) 或 : 惑.
426) 或 : 惑.
427) 干 : (續)에는 于.
428) 慧 : 필사본들에는 惠.
429) △ : 판독미상[斷-38]. 端?
430) 者 : 有의 誤字?
431) 後 : 필사본들에는 故로 적은 후 後로 수정하였음.
432) 色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433) 者 : 有의 誤字?
434) 开者 : 미상.
435) 發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436) 假 : 미상.

得大論說也 又古舊云 人[437]地已上斷或[438]不同 一△△[439]
兩[440]法師傳述 舊云 八地已上念念斷或[441] 亦不須諸佛
來開化 何以故 念念入法不出觀 寧同被開道耶 而
經云 諸佛來摩頂勸發起者 聞是迹中爲物故耳 二
云 止同言空有並觀 △[442]無出入觀 故言念念寂滅常
25下 居法流水耳 八地已上去|佛劫數甚多 猶[443]須感佛 而
俱得 開化不容 都無所待 念念進行也 故漸備經云
[41a] 第十住菩薩 猶須承佛威光 得百萬三昧 故知猶夜[444]化
無容念念自斷或[445]進行也 今謂 八地以去 亦須諸佛
開化 旣是未淨之地 無容一向不須開道也 故經云
初地不知二地境界 乃至第十地不至[446]如來擧足下
足[447]也 亦是大頓悟家云 至第十地 始見無生 小頓悟
家云 至七地始見無生也 又七地菩薩 諸佛來摩頂勸
發者 至第八地不容 一向頓不須待也 經云 念念常
寂者 如經云 不起滅定而現諸威儀 心意識亡 幻化
無心 於彼此而能應一切 名爲常寂 何時導有心神
常在觀不出觀 名爲常寂 若七地已下有心神體 出
[41b] 入觀耶 理而論之 初發心時 已平於諸法 心意識等

---

437) 人 : 八의 誤字임.
438) 或 : 내용상 惑임.
439) △△ : (續)에는 糸次.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斷-39].
440) 兩 : (續)에는 南.
441) 或 : 내용상 惑임.
442) △ : (續)에는 寂,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斷-40]. 미상. 則?
443) 猶 : 필사본들에는 옆에 '行イ'라고 적고 있음.
444) 夜 : 敎의 誤字?
445) 或 : 내용상 惑임.
446) 至 : 知의 誤字?
447) 足 : 필사본들에는 乞.

如虛空幻化人 無心於彼此 此是彼非 而約動爲散
爲出 嘿而爲靜爲入 於幻化人 動靜無二也 菩薩一證
正法者 動靜卽[448]是用也 住大涅槃建立大事也 故經
云 初發心畢竟二不別也 而經云 八地已上 常寂入
法流 七地已下 有出入觀等者 欲濟物故 習氣△[449]淨
26上 故 割折空差別明也 諸菩薩 非靜非動 能靜能動 非出
非入 而能出能入也 故雖開之 無纖豪之別 具如前
說也 又論師云 於十地中 利鈍分判三品明也 一初
地至六地 灼然有利鈍如二乘也 二七地亦有利鈍
[42a] 而轉微相比不堪懸絶 心有二種也 三八地已上說
不同 一云 學功已備 念念自斷或[450] 故無復[451]鈍 唯利一
品而已 二云 七地學功備者 此是大數言耳 然實[452]得
此法時 猶有偏觀 故有遲速 八地已去 無容念念斷
或[453]故 則捨一念 猶有多少之或[454] 此人數十刹那溫故
未進斷或[455] 故品段[456]亦無定也 若七地之終 功行始弁
故 八地以去 遲束[457]必不懸絶 而則異於七地 所以開
三階者 彼師云 六地以前 猶斷正使 所脩福慧 未央
成滿 故此彼神道[458]異故 有無量遲速心不等也 七地

448) 卽 : (京)에는 々.
449)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斷-25와 같음]. 竟? 亦?
450) 或 : 惑.
451) 復 : (續)에는 改. 내용과 형태상 復으로 생각됨.
452) 實 : (續)에는 空.
453) 或 : 惑.
454) 或 : 惑.
455) 或 : 惑.
456) 段 : 필사본들에는 段으로 적은 후 數로 수정하였음.
457) 束 : 速.
458) 道 : 通의 誤字?

正使已盡 唯斷習氣 備脩萬行 大段[459]粗周 故遲束[460]之

[42b] 相就咸也 八地餘習已斷 止斷無知 常無出觀 故利

鈍相微也 龍光云 七地已去或斷二性 或三性煩惱

而習性不同 故微微有遲疾行也 又就遲疾 雙約定

慧 有三階明之 一者 六地已下因[461]定發慧 或以淺定

26下 發深慧 或|定發淺慧 如二乘所宜不定也 若大士之

行 六度俱脩 不同與二乘正爲空解 故得深慧者 定

則心深也 开[462]餘諸度類之 而开[463]力多能 能於淺定發

深慧也 二者 七地菩薩 於師子奮迅 逆順超越 故能從

滅盡定入散心 散心直能入滅盡定 此是溫[464]故之慧

於定門利者 力能如是 若是斷或[465]之心 多用勝定 入

[43a] 於深慧 滅定解不同 一云 空解義枰滅定 能從神通

說法動轉事心 能斯靜也 二云 是滅定 以此定起說

法等也 三者 八地已上 常以深定 與深慧共俱 亂心

久盡 故定慧俱進 但遂慧言之 故成遲疾也 四等諸

度其[466]鄣亦已文[467]亡 當其[468]分限〈階〉 品品齊進 亦逐慧品言

之 以成遲疾也 今大乘明之 不二而二 開差別明之

悟心有明昧論之 兼有諸[469]說故 彌勒尊者 摩[470]德勒伽

---

459) 段 : 필사본들에는 段으로 적은 후 數로 수정하였음.

460) 束 : 速.

461) 因 : (續)에는 同.

462) 开 : 其?

463) 开 : 其?

464) 溫 : (龍)에는 過.

465) 或 : 내용상 惑임.

466) 其 : 필사본들에는 开.

467) 文 : 久의 誤字?

468) 其 : 필사본들에는 开.

469) 諸 : (續)에는 論.

470) 摩 : 필사본들에는 庄.

藏經中言 如是於一一地中 逕百千大劫 有成一地

之行 軟根不者[471]开[472]段[473] 故知初地已上一一地 並有利

鈍也 經言 並有諸說而空[474]△[475]不同 如前說也 〈又〉如偈中

[43b] 言 諸地行相入脩習 出法門五種法 釋云 相分如初

地 爲閻菩提[476]王 乃至第十地爲摩醯首羅天王 又相

27上 者 以相別爲義[477] 能標別於諸地也 入分者 以進入義

進入地體 卽是下忍初入其[478]地也 行分者 是趣地之

因 卅心爲初地之行分 從二地以去 各有因也 脩習

分者 研脩爲義 自[479]是中忍 脩習地體 增明滿足 出分

者 出離[480]爲義 卽是是[481]上忍 一地滿足 高勝顯出也 通

稱分者 亦以別爲義 五種旣殊別 故卽[482]爲分 亦名五

門 門能通義也 論師云 大品所明十地 與地經所說

十地異也 何者 大品經明義 是三界內事不了 未說

[44a] 高位 菩薩所斷 是恒沙之煩惱 是無邊集諦 又未說十

地爲常住之因 如此比類 如居士經 並是不了地經

今大乘明義卽不然 龍樹菩薩 於大論自明言 波若法

華等經 是顯現教 法花經云 秘蜜教 大師云 大經亦

例 云亦是秘蜜教 △[483]得闇心言不了經 如涅槃義中所

---

471) 者 : 有의 誤字?

472) 开 : 其?

473) 段 : 필사본들에는 段으로 적은 후 數로 수정하였음.

474) 空 : 實?

475) △ : (續)에는 寂, 필사본들에는 [斷-40]과 비슷한 글자. 則?

476) 閻菩提 : 필사본들에는 閻卄提. 閻菩提(=閻浮提)의 이체자로 생각됨.

477) 義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斷-41], 옆에 '恐義'라고 적고 있음.

478) 其 : (龍)에는 开, (京)에는 サ卄.

479) 自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卽으로 생각됨.

48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하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481) 是是 : 是 하나는 衍文으로 생각된다.

482) 卽 : 필사본들에는 名.

破也 諸師作如此言 依泥梨品明之 恐是無間之因
也 又大論第卌九云 引十地名竟云 如十住論中說
此十住論 傳云 是龍樹[484]論別有十住論 非天親十住
論也 今一家傳云 大品經發趣品所說十地 與地經
27下 所明十地一種 但說之方法 少少異 宗致意[485]無異也
[44b] 及大品經第一云十地 十地斷結經十地 菩薩本業瓔
珞經十地等 大乘經所明十地一種 究竟大乘十地
也 但間中或隱 改[486]說方法異 無爲高下了不了義也
問 受生者 凡有三種 若因結業生 名爲生身 若以
願他愛結業生者 名爲願身 若知△[487]機而現身生者
名△[488]身 此事云何 答 釋不同 一論師等云 十地中
前二地 於三惡道及三界人天 具三身 第三一地於
三惡道 但兩[489]生 無有結業生 因已盡故 於三界人天
具三身義 第四地上忍 於欲界但一應身 更無有兩[490]
身 於上二界 具三身也 尋中下忍 意可知之 五地上
[45a] 忍 於二界但一應身也 於上一界得有三身 中下兩
忍 尋之可知 六地上忍 於三界中但一應身 又依身
不定 於三界外 則具三身 中下兩忍 尋之可知 七地
以上 於三界中但一應身 於三界外具三界[491] 於下△[492]

483) △ : (續)에는 宇,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42]. 寧?
484) 樹 : 필사본들에는 揃이라고 하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485) 意 : 竟?
486) 改 : 復의 誤字로 생각됨.
487)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5와 같은 글자]. 應?
488)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5와 같은 글자]. 應?
489) 兩 : (續)에는 판독 미상. 형태상 兩으로 생각됨.
490) 兩 : (續)에는 판독 미상. 형태상 兩으로 생각됨.
491) 界 : 身의 誤字?
492) △ : 판독미상[斷-43]. 消?

咸[493]之 二云 無有以願他愛△[494]生[495] 則逐結△[496]不爾 但
應生身故兩[497]生也 而約地生多小者 依瓔珞〈經〉云 初地
斷見諦煩惱 二地斷人中[498]煩惱 三地斷天上煩惱 四
28上 地斷三禪以下煩惱 五地斷三寶以下煩惱 六地斷
非相非非相煩惱者 例前可知 七地以上金剛心以
下斷恒沙等煩惱 亦是可尋也 三今大乘明 如大經
[45b] 迦葉品 住忍法時 斷無量三惡道報 當知不從知緣
而滅者 五善根已斷三惡道報故 今任[499]十信中 無有
於三惡道結業生義 亦是無有人天中結業生身 此
擧三學果明之 自此已去 逐所斷或[500] 有生身無生身
尋之可解 又中七信已上 依經斷見思兩習氣[501]或[502]與
無知或[503] 判可知之 但三生身逐結業生 與應生可知
之 但以願他愛結[504]生身意[505] 必須業與願共方得受生
身 無有但願力生義 何者 何菩薩不願度一切衆生 而
不得並被化者 唯有願而不得並受化者 彼衆生若
無有自結業者 不蒙被化 若少有結業者 則被化入
[46a] 道也 問 諸地菩薩作王云何 答 依仁王波若經云

---

493) 咸 : 減의 誤字?
494) △ : 판독미상[斷-44]. 結?
495) 生 : 필사본들에는 뒤에 같은 글자 표시(々)가 더 있음.
496) △ : 판독미상[斷-45]. 業?
497) 兩 : (續)에는 판독 미상. 형태상 兩으로 생각됨.
498) 中 : 필사본들에는 才임.
499) 任 : 假의 異體字의 誤讀임.
500) 或 : 내용상 惑임.
501) 氣 : 필사본들에는 炁.
502) 或 : 내용상 惑임.
503) 或 : 내용상 惑임.
504) 結 : (續)에는 狹.
505) 意 : (續)에는 應.

初地作四天王 二地作忉利天王 三地作炎摩天王

四地作兜率陀天王 五地作化樂天王 六地作他化

自在天王 七地作初禪梵王 八地作二禪天王 九地

作三禪天王 十地作四大靜王也 諸師云 前三王通

28下 關三身生 後七王但一應身也 問 十地有色無無[506]

云何耳[507] 答 解不同 一云 六地已下有色相 或[508]因未

盡故 七地以上無色相 或[509]因盡故 二云 七地以下有

色 有習氣[510]因故 八地以上無色 習氣[511]盡故 三云 十地

並有色 由或[512]因故 常住佛無色 或[513]因盡故 四云 至佛

[46b] 有妙色 例如至佛妙心判此已現法身 論師多曰第

三師說 今大乘明義 約彼名之 至佛有色 並是彼故

也 若約中論之 非色非心等也 問 十七地何[514]者

答 眞諦[515]三藏師 如牽[516]十七經 證有九訠[517]義 彼

論云 九品心故有第九訠[518] 而此間不出此經 故難信

而开[519]名目義 一名善心地 謂布施持戒等善心地 二

者聞慧地 三者思慧地 四者脩慧地 此四種是欲界

善心地 此三慧於三界分之段[520] 與論釋不同 段[521]明 欲

---

506) 無 : 色의 誤字임.
507) 耳 : 耶의 誤字?
508) 或 : 惑.
509) 或 : 惑.
510) 氣 : 필사본들에는 炁.
511) 氣 : 필사본들에는 炁.
512) 或 : 惑.
513) 或 : 惑.
514) 何 : (續)에는 行.
515) 諦 : 필사본들에는 '恐脫諦字'. 세주의 내용이 본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516) 牽 : 미상.
517) 訠 : 識의 誤字로 생각됨.
518) 訠 : 識의 誤字로 생각됨.
519) 开 : 其의 異體字?

界有聞思兩慧 色界有思[522]脩二慧 無色界但脩慧也

論意欲色二界具有三慧 無色界唯有脩慧 故彼論

[47a] 三慧品云 欲界色界一切也 無色界中唯有脩慧也

五者有心定地 謂四禪四無色定 六者無相定心地

謂無想定△[523]說滅盡定 三地是凡夫定善心地故 七

者聲聞地 八者緣覺地 九者十信地 十者十住地 十

29上 一者|十行地 十二者捨小乘廻向大乘地 十三者大

乘十廻向地 十四者十地 十五者佛地 如來相[524]慧功

德 十六者有餘涅槃地 十七者無餘涅槃也[525] 二涅槃是斷德

也 今謂 非有餘非無餘 亦非智斷 强名無餘涅槃也

料[526]簡第三明時節劫數 經中成明三劫 一十里

石或言卌[527]里方石 用六欲天衣 人間日月三年一下

[47b] 拂石盡 石[528]爲一小劫也 六十里石 梵天衣六殊重 三

年一下拂石[529]盡 若[530]爲中劫也 然彼天無日月 以寶珠[531]

光明 取开[532]明珠[533] 以辨歲數也 八十里石 淨居天衣無

餘兩重 亦三年一下拂方石盡 若[534]爲一大劫 亦無日

---

520) 叚 : (龍)에는 叚으로 적은 후 數로 수정하였음. <逸文>[伊藤隆壽(1974), p.74]에는 數.

521) 叚 : 필사본들에는 叚 앞에 ° 표시를 하였음. 數의 誤字라는 의미로 생각됨. <逸文>[伊藤隆壽(1974), p.74]에는 數.

522) 思 : 필사본들에는 中임.

523) △ : (續)에는 心,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46]. <逸文>[伊藤隆壽(1974), p.74]에는 不.

524) 相 : <逸文>에는 智.

525) 也 : <逸文>에는 地.

526) 料 : 필사본들에는 科.

527) 卌 : (京)에는 卅.

528) 石 : 名의 誤字임.

529) 石 : 필사본들에는 名임.

530) 若 : 名의 誤字임.

531) 珠 : 필사본들에는 殊임.

532) 开 : 其의 이체자?

533) 珠 : 필사본들에는 殊임.

月 取玸鏡光明 有易曉脫[535] 以內數歲月也 然劫數亦
不定 或言八千里八萬里方石 若[536]爲一大劫 下一千
一萬里石故自是大劫也 又華嚴經阿僧祇品云 略
攝开[537]要數明千萬爲一億 爲一那由他 千萬爲一億
爲一那由他[538] 千萬億那由他爲一加那 千萬億加那
爲一頻婆 千萬億頻婆爲一阿僧祇 僧祇[539]此云不可
[48a] 得 不可說不可量也 諸法師云 前萬里石 若[540]爲大劫
29下 卽是一阿僧祇也 今明此大劫 約地位辨行行久近
經數之少多者 從十信發心供養熙連河沙佛一劫
得到中十信 以中十信二劫 到習種性之初 從習種
性經三劫行 得慧性種性 性種性故經四劫 得到道
種性 道種性經五劫 得到初地 初地經六劫 得到二
地 二地經七劫 得到三地 三地經八劫 得到四地 四
地經九劫 得到五地 五地經十劫 得到六地 六地經
十一劫 得到七地 七地經十二劫 得到八地 八地經
十三劫 得到九地 九地經萬劫 得到十地 十地經百
[48b] 劫 學佛威儀 得到佛地也 出本業瓔珞經 作如此都
合一萬一千八百四十劫行行 方得到佛地也 若如二
乘人 八萬劫乃到十千劫行行 到中十信位也 依仁
王經 判地前到佛中間劫數 大准望相似 後結掫始
終 經無量劫 但從十地 到金剛心到佛 此與本業經

534) 若 : 名의 誤字임.
535) 脫 : 晩의 誤字임.
536) 若 : 名의 誤字임.
537) 开 : 其의 이체자?
538) 爲一那由他 千萬爲一億爲一那由他 : 千(萬)億爲 一那由他를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됨.
539) 僧祇 : 阿僧祇의 阿가 결락되어 있음.
540) 若 : 名의 誤字임.

不△[541]倍校言 若爲釋者 諸法師云 本業經據大劫爲
明也 仁王經取中劫爲暗[542] 故兩經文文不相妨也 又
依摩德[543]楞伽藏經云 於一一地中 經百千大劫 方[544]成
一地之門 不數軟根者也 若[545]爾時節卽不事[546]定也

30上 金剛心義 有四重 第一明大意 第二釋名 第三出體 第四科[547]簡第一大意

[49a] 經論所明金剛心者 乃是借譬之名 以況事理二種
也 何者 一是以況於窮學之地等覺[548]也 二是以況於
不二之道也 所以此兩意者 開橫竪之宗致 卽是具
中假 方得稱金剛 非中假則非金剛也 金剛有多義
要略有堅有利二能也 一者 金剛妙寶體有堅故 衆
物所不能傷也 二者 能有利故 所擬皆破 物無不破
也 金正法遠離[549]一切趣不趣也 故況之爲堅[550] 洞遣是
非 故譬之無不破 爲利也 又等覺之地 衆累斯盡 故
言無不破 故言利 衆或[551]所不能侵 爲堅 故言金剛心
如金剛妙寶 用利體堅也 第二釋名 金剛心者
[49b] 堅利爲義 正法道 百非所不非 百是所不是 故言堅
實爲義 所擬無不破 言利爲義 亦是十地上忍勝身
菩薩 所擬無不破故 堅利爲義也 心者有二意 一者正

541) △ : 판독미상[斷-47]. 啻?
542) 暗 : 明?
543) 摩德 : (續)에는 莊嚴. 필사본들의 글씨는 명확하지 않지만 (43a)의 摩德楞伽藏經을 고려할 때 摩德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544) 方 : 필사본들에는 ㅊ으로 적은 후 옆에 '恐方'이라고 적었음.
545) 若 : (續)에는 着. 필사본들에는 着으로 적은 후 '恐若'이라고 세주를 붙였음.
546) 事 : 필사본들에는 앞에 °을 표시하고 있음. 能의 誤字?
547) 科 : 料의 誤字.
548) 覺 : (續)에는 學.
54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하고 앞에 °를 표시하고 있음.
550) 堅 : 필사본들에는 竪.
551) 或 : 惑.

道爲心 故大經云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也 二者
欲脩心法 更非遠物 心是迷悟之主故 衆生神明研
脩 悟此心非心 入理之門爲心 又得果之心 故稱金
30下 剛心也 第三明出體 金剛心有二種 一者正法爲
體 二者橫而爲論之 終學之地 照斯圓 萬累都盡 空
有兩解爲體 兩用之中 亦得言常解爲主也 若言望
堅[552]正道 則二法並是假用非體 問 金剛心體位云
[50a] 何 答 解不同 一云窮學地 窮學地又說不同 一云
窮學望結望故 名爲金剛體位言 約作用極邊 受金
剛體位名 故如金剛寶瓶 卽足無缺也 三建初云 通
因果爲金剛體 彼意取波若經云 引燃燈佛所〈實[553]所〉得 此
證因前 以爲金剛 從彼經後[554]文云 於燃燈佛所 無所
得菩提 此證果前 爲金剛位也 彼師等定因果處所
故作此說 今謂 不二而二論之 聖大論波[555]若 非二乘
法 又非佛法者者[556] 因名爲波若者 果若[557]爲薩[558]婆若者
因爲波若 果爲薩波若[559] 若望大經斥[560]昔日三照爲涅槃
者 波若通果地 若論正法 波若如大火聚者 非因非
[50b] 果也 金剛心正約因 爲金剛心也 第四料[561]簡 問
前云金剛心者 拔闍羅薩埵而金剛有多義 要略有

---

552) 堅 : (續)에는 豎.
553) 實 : (續)에는 空.
554) 後 : (續)에는 故.
555) 波 : 필사본들에는 被.
556) 者 : 衍文?
557) 若 : 名의 誤字임.
558) 薩 : (續)에는 菩薩. 필사본에는 サ, 薩의 약자임.
559) 薩波若 : (續)에는 菩薩若이지만 필사본에는 サ波若임. サ는 薩의 약자임.
560) 斥 : (續)에는 片.
561) 料 : 필사본들에는 科.

能何者多義耳 答 世間金剛者 淸淨爲義 無有穢
31上 濁故 二者窮勝爲義 諸寶中勝故 三者難惻[562]爲義 一
切世間無能本價故 四者難得爲義 如世間金剛 貧
人所不能得故 五者有勢爲義 如轉於[563]聖王金輪寶
飛行自在 有大力勢故 六者不定爲義 金剛若置諸
色中 隨色變無定故 七者主爲義 如轉輪王金輪寶
爲衆寶之主 一切諸寶悉皆隨從也 八者能集爲義
如世間金剛若得者 一切寶物自在聚集教[564] 九者莊
[51a] 嚴莊教[565]爲義 如金剛能莊教[566] 佛者法身首也 如此九
種義 譬於金剛三昧之用 具如大經德王第六功德
中說也 問 世間金剛 唯山羊角與龜甲二種 能傷
損者 今橫堅二金剛 亦有非金剛義不 答 世間金剛
有兩種能傷損 餘一切物莫能傷損者 亦有二義 一
者漏[567]若 餘物無傷損義 二者窮學 金剛心 一切煩惱
不能累爲譬 唯生滅沒 況於二種物 今正法之道 遠
離[568]一切故 又諸有所得顚倒 於正觀中洗盡 故得稱
爲金剛也 成實論釋 能斷所斷不同 一云 能所盡 皆
就相續假中論之 實法中則無也 所以知然 一念之
[51b] 起或[569] 則自謝 後更不續故 是空無一等 云何△[570]有能
31下 爲累耶 故要須是相續不斷 能有△[571]鄣之用 以此義

562) 惻 : 내용상 測의 誤字로 생각됨.
563) 於 : 내용상 輪의 誤字로 생각됨.
564) 教 : 故의 誤字?
565) 莊教 : 莊嚴의 誤字로 생각됨. 莊嚴을 중복하여 적은 것임.
566) 莊教 : 莊嚴의 誤字로 생각됨.
567) 漏 : (續)에는 偏. 미상.
568) 離 : 필사본들에는 雖임.
569) 或 : 내용상 惑임.
570) △ : (續)에는 決, 필사본들은 판독미상[金-1]. 復?

推故 所斷之或[572] 要是相續道中明也 能斷之智[573]亦是
就相續明也 實法則無△[574]有能滅之力也 二云 解或[575]
眞理相違之法起 則於或[576]之治爲 豈得言一違一不
違耶 所斷之或[577] 本觸[578]成就 不名假明之 龍光傳開善
義 成就長假無智[579] 有念念謝滅 故不約實法論也 三
報[580]恩傳建無[581]云 按假談實能斷之解 假實俱能所斷
之或[582] 但假無實也 刀[583]斷草木不例 何者刀斷木等 是
色法故 能斷所斷 假實俱 又云 刀斷木等旣無成就
[52a] 故 約假明之 實法自在故 不假論能斷所斷也 解斷
之或[584] 但成就無有 念念生滅 唯有流動無常也 今大
乘明義則不然 如十地大意中說 檢[585]責我我所 了悟
不得我與乘[586]所 爾時理外客[587]煩惱盡[588] 得名爲斷伏也
不如成實論等假實解實 分汾云[589]相斷伏也 問[590] 大品

---

571) △ : 판독미상. [目*闇].
572) 或 : 내용상 惑임.
573) 智 : 필사본들에는 仅.
574) △ : (續)에는 決, 필사본들은 판독미상[金-1]. 復?
575) 或 : 내용상 惑임.
576) 或 : 내용상 惑임.
577) 或 : 내용상 惑임.
578) 觸 : 필사본들에는 觸으로 적은 후 約으로 수정하였음.
579) 智 : 필사본들에는 仅.
580) 報 : 필사본들에는 釋.
581) 建無 : 필사본들에는 建无. 建元의 誤字로 생각됨.
582) 或 : 내용상 惑임.
583) 刀 : (京)에는 力.
584) 或 : 내용상 惑임.
585) 檢 : (續)에는 撿.
586) 乘 : 내용상 我의 誤字임.
587) 客 : (續)에는 容.
588) 盡 : (續)에는 尙.
589) 云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金-2].
590) 問 : 필사본들에는 同.

經差別品云 菩薩斷無碍道行 佛於解脫道行 兩行何

相耶 答 不二而二明之 金心爲因 佛地爲果 因無

碍 果爲解脫 △[591]得名 論師不得[592] 一南澗仙解云 擧義

則無碍與解脫 擧因果別 金剛心當體是無碍 佛果

32上 當體是解脫 何者 金心伏源品或[593] 或[594]體無 △[595]有牽[596]習

[52b] 果力 與郭解力釋因力 直是是成就 或[597]體在旣失三

力 於解牽習果 無△[598]有碍故 無碍義顯 故目金心爲

無碍 旣有或[599]體 故不足稱解脫 解脫義不郭也 旣不

碍於金心 金心習因牽起佛果 斷此彼伏源品或[600] 逌

然無碍故 解脫義顯 名爲解脫也 二龍光綽師傳述

開善義云 無碍解脫兩道 並是果地當體名 何者 佛果

斷或[601]故 或[602]不碍於解 名爲無碍 解體逌然無累 名

爲解脫 △[603]由解脫故無碍 不由無碍故解脫 解脫勝

於無碍 無碍劣於解脫 故解脫在果 無碍在因 何者

如被縛故有碍 則不得云有碍故被縛 故解脫故無

[53a] 碍也 大乘宗明之 就假橫論之 如仙師釋 於名字中

明之亦好 而彼處所被落無所得中大乘意 只了此

---

591) △ : (續)에는 而.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金-3].
592) 得 : 同의 誤字?
593) 或 : 惑.
594) 或 : 惑.
595) △ : (續)에는 決, 필사본들은 판독미상[金-1]. 復?
596) 牽 : 미상
597) 或 : 내용상 惑임.
598) △ : (續)에는 決, 필사본들은 판독미상[金-1]과 비슷한 글자]. 復?
599) 或 : 내용상 惑임.
600) 或 : 내용상 惑임.
601) 或 : 내용상 惑임.
602) 或 : 내용상 惑임.
603) △ : (續)에는 帀,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金-3].

有無心 畢竟盡得名爲解脫者 此有無心爲被縛 若
爾不起有無心體名 名無碍道 畢竟盡解 名爲解脫
道 義開爲有 故經中不二而二云 菩薩無碍△[604]行 佛爲
解脫中行 此是因果義 由因故[605]果 由果故因 因是果
因 果是因果 故無因實[606]於果 無果實[607]於因 故無名相
32下 中 開兩△[608]故無處所也 又如假故 中無假實 中無中
實 假所論云 亦假亦中 二△[609]亦然之 問 無碍解脫
有傍正不 答 不二而二 對境明之 兩種悉正 若開
[53b] 論之 劫或[610]解脫爲正 無碍爲傍 若言於正[611]行無有有
所得 脫有所得 名爲無碍 名爲解脫者 則無有傍正
若從假入中 假爲伏 亦是無碍△[612] 是菩薩△[613] △[614]者 正觀
中名爲斷 亦是解脫道 是佛道故 大品經第[615]十[616]三卷
一念品云 無所得 卽是道 卽是果 卽是阿耨多羅三
藐三菩提故 菩薩頭經[617]云 窮上利物[618]菩薩 初發心時便成
正覺 不由次第 等覺妙覺 前念爲因 後念爲果 金剛
聖體 種知現前 涅槃中究竟果也 問 佛果所斷或[619]

---

604) △ : (續)의 본문에는 爲, 頭註에서는 道로 추정.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金-4].
605) 故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606) 實 : 異의 誤字?
607) 實 : 異의 誤字?
608) △ : (續)의 본문에는 爲, 頭註에서는 道로 추정.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金-5].
609) △ : (續)의 본문에는 爲, 頭註에서는 道로 추정.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金-5].
610) 劫或 : 미상.
611) 正 : 一切의 誤字?
612) △ : (續)의 본문에는 爲, 頭註에서는 道로 추정.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金-5].
613) △ : (續)의 본문에는 爲, 頭註에서는 道로 추정.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金-5].
614) △ : 판독미상[金-6].
615) 第 : (續)에는 판독미상.
616) 十 : 一念品은 제23권이므로 卄의 誤字로 생각됨.
617) 菩薩頭經 : 菩薩頭陀經
618) 物 : 根의 誤字.

滅時 卽是佛△[620]時 若爾是或[621]滅時解生時不 答 成

論師解不同 如十地義中說 一云解△[622]時當佛果 所

[54a] 斷或[623]滅當金心時 佛果與金心不問[624] 云何言解生時

是或[625]滅時耶 金心[626]或[627]△[628]別佛 而金心已積伏或[629] 或[630]無

旣三中不鄣 金心牽習果 習果起或[631]體自逍亡 逍亡

時終當金心時不至佛 此義於十地義中已破竟也

二龍光述開善云 解生時 是或[632]滅時 如苦忍時解生

33上 時 是或[633]滅時 何者 若[634]忍邊成就 或[635]體向無 苦忍向有

向有向無 非前後故 故言一時也 佛果斷源[636]品惑者

此一處斷伏 不同餘處 何者 此源品無明成終係於

金心無明體 終不數[637]佛果 而言菩提智斷 無始或[638]體

者 如果起故因滅 若不應起者 因則不滅 由果應起

[54b] 故因滅也 問 若應起果 能斷金心惑 此則應未有

---

619) 或 : 惑.
620) △ : 판독미상[金-7]. 起?
621) 或 : 惑.
622) △ : 판독미상[金-7]. 起?
623) 或 : 惑.
624) 問 : 내용상 同의 誤字로 생각됨.
625) 或 : 惑.
626) 心 : (續)에는 必. 내용상 心이 맞음.
627) 或 : 惑.
628) △ : (續)에는 充, 필사본들은 판독미상[斷-5]. 亦? 竟?
629) 或 : 惑.
630) 或 : 惑.
631) 或 : 惑.
632) 或 : 惑.
633) 或 : 惑.
634) 若 : 苦?
635) 或 : 惑.
636) 源 : 필사본들에는 오른쪽에 '深乎', 왼쪽에 '深本帋'라고 細注를 붙였음.
637) 數 : (續)에는 假, (京)에는 段, (龍)에는 段으로 적은 후 數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數로 생각됨.
638) 或 : 惑.

安[639]得未有解體能斷金心之已有或[640]耶 答 由果應

向有故 金心邊或[641]滅 若佛果不向有 金心成就或[642]終

無有滅 由當佛果向有解故[643] 或[644]逍亡 故推正與佛果

羅[645]斷源品無明 此源品或[646] 雖係於[647]金心 金心非其治

道 故推佛果也 今大乘明義 不同兩說 或[648]體本來不

生 今亦無滅 解亦然 善言或[649]滅解生 解生或[650]滅 作此

動念心卽是顚倒 豈能隔凡成聖耶[651] 但假名開爲解

或[652]相[653]治 而言方明之 如大論說 福將生惡滅者 得言

或[654]滅解生 而常解是所或[655] 故或[656]滅無所失 解生亦無

[55a] 所起 畢竟無迹 名爲斷伏也 而△[657]位明之 △[658]旣云菩薩

無碍道行 解脫道行 故金心斷惑也 問 經云金心

所有相前[659] 如常[660]中月 所有煩惱 如烟微鄣 故智金心

---

639) 安 : (續)에는 寂.
640) 或 : 惑.
641) 或 : 惑.
642) 或 : 惑.
643) 故 : (續)에는 向.
644) 或 : 惑.
645) 羅 : 미상. 能?
646) 或 : 惑.
647) 於 : 필사본들에는 者. 着?
648) 或 : 惑.
649) 或 : 惑.
650) 或 : 惑.
651) 耶 : (續)에는 聖.
652) 或 : 惑.
653) 相 : (續)에는 明.
654) 或 : 惑.
655) 或 : 惑.
656) 或 : 惑.
657) △ : (續)에는 觸.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金-8]. 約?
658) △ : 판독미상[金-9].
659) 相前 : (57a)에 인용된 '十住斷結經'의 내용과 비교할 때 智惠의 誤字로 생각됨.
660) 常 : 내용상 空의 誤字로 생각됨.

33下 或[661]未盡也 答 此經意 金心菩薩所逍[662]盡煩惱 如烟|微

鄣 或[663]不至佛故也 問 金心菩薩 定有兩解 並不及佛

耶 答 論師常一往論之 有解齊佛 出解則不及佛

一品 故金剛心等覺佛 若羅[664]而論之 有解亦有明昧

何者 金心雖得卌吾[665]品數[666] 金心猶及或[667]體故有解 昧

於佛地 佛地無或[668]故明也 問[669] 金心及[670]解與佛△[671]解等

者 二地無淺深耶 答 釋不同 一南澗仙師云 境上

[55b] 有淺深之義 故妙覺等覺兩智有淺義 等覺但伏不

斷 便羅[672]窮顯段[673]得與佛一等 而淺深之處 旣難智故

要除或[674] 方得覩深處 又帶無常故 唯佛窮也 答 彼

舊云 或[675]是一品 而於境上 自有難易故也 二龍常[676]師

云 約有解明之 一往論之 無難易 淺深一等故 言等

覺佛 或[677]體有兩力 一或[678]體能[679]鄣於解 二或[680]體罷[681]障用

---

661) 或 : 내용상 惑임.
662) 逍 : 消?
663) 或 : 惑.
664) 羅 : (續)에는 能, 필사본들에는 羅. 離의 誤字?
665) 吾 : 五의 誤字?
666) 數 : (續)에는 판독 미상. 필사본들에는 數로 수정하였음.
667) 或 : 惑.
668) 或 : 惑.
669) 問 : 필사본들에는 同.
670) 及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671) △ : (續)에는 道,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斷-52].
672) 羅 : 미상. 能?
673) 段 : 필사본들에는 數로 수정하였음.
674) 或 : 惑.
675) 或 : 惑.
676) 常 : 光?
677) 或 : 惑.
678) 或 : 惑.
679) 能 : 필사본들에는 罷로 적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680) 或 : 惑.
681) 罷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能의 誤字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됨.

用既[682]被伏 無既[683]鄣解之用力[684]牽果之用 如死人無所能爲 或[685]望於解傍緣 故或體雖有[686]而不能令解△[687] 解既偏照了無二 但無常故 不及爲昧 又常無常殊耳

今大乘明義 無二而二 假名名字 開爲淺深 勝劣明

[56a] 明 得有多種勢也 因有三義 一因滿 二元無明向無三果釋 具足三義 故昧也 果亦有三義 一果滿 二無

34上 或[688]體 三極果 故明也 何以故知之 經云 後身菩薩 但見終 不見始 亦故[689]身菩薩小見故 又瓔珞經云 金剛心菩薩百劫者 學佛威儀 故知昧佛也 若無上多義 卽應佛等而逐緣昧也 問 此金心菩薩明解 那得生耶 答論云 要以由金剛前心了明解 未能[690]除或[691] 由映潤故得生金剛心令有也 問 伊[692]既此一品或[693]生 伊[694]得起時 那忽反能[695]伏除耶 答 得有如此者 良由伊[696]積此前心明力 雖說[697]爲伊[698]所生 要由前既[699]解力 後微微增

682) 既 : (京)에는 境.
683) 既 : 미상.
684) 力 : 미상. 與의 誤字?
685) 或 : 내용상 惑임.
686) 有 : 필사본들에는 者.
687) △ : 판독 미상. [日*闇]
688) 或 : 내용상 惑임.
689) 故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後의 誤字?
690) 能 : 필사본들에는 罷로 적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691) 或 : 내용상 惑임.
692) 伊 : 미상.
693) 或 : 내용상 惑임.
694) 伊 : 미상.
695) 能 : 필사본들에는 罷로 적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696) 伊 : 미상.
697) 說 : (續)에는 既, 필사본들에는 既로 적은 후 說로 수정하였음. 說이 맞음.
698) 伊 : 미상
699) 既 : 필사본들에서는 앞에 °를 표시하고 있음.

[56b] 勝 所以還復能[700]有除力也 無異△[701]從木生 還復能[702]有
燒木之用 以此義惟[703]解 由或[704]有而復能除也 大乘明
義 金心之前 細有所得 潤起金心 金心有所得心盡
者 金剛心解向有 或[705]向無 故假名名字開之 無不如
斯種種義 但意永異 論師等說 今雖言由或[706]有之不
有有 除而不除除 並是若方便 又論師釋金心斷或[707]
盡不盡 古今諸法師 相傳不同 莊嚴等師傳述 金剛
心斷或[708]盡 但傳無常義 異於佛 彼義宗 佛若二諦之
外源品無明 是或[709]因所得故 金心所斷故 何者 或[710]因
34下 卽空是眞諦 金剛心體源品或[711] 名爲斷或[712] 佛是至|有
[57a] 有眞有出二諦外 故不斷也 故菩薩瓔珞本業經釋義
品云 金剛心菩薩登大山頂 入百千三昧 集佛威儀用
坐處 其知見亦常無常 一切境智 當知如佛 名爲學
佛也 而經中云 佛菩提智斷者 覺佛菩提斷也
問 若金剛菩薩斷或[713]盡 佛無異者 何經云如佛名爲學[714]

---

700) 能 : 필사본들에는 罷로 적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701) △ : (續)의 본문에는 況, 頭註에서는 火로 추정. 필사본들에는 판독 미상. 내용상 火로 생각됨.
702) 能 : 필사본들에는 罷로 적고 앞에 °를 표시하였음.
703) 惟 : 내용상 推의 誤字로 생각됨.
704) 或 : 惑.
705) 或 : 惑.
706) 或 : 惑.
707) 或 : 惑.
708) 或 : 惑.
709) 或 : 惑.
710) 或 : 惑.
711) 或 : 惑.
712) 或 : 惑.
713) 或 : 惑.
714) 學 : (續)에는 覺.

佛 則應言是佛也 又金剛心彼映潤起以不 答 斷
或[715]盡則無或[716] 映潤起若是△[717]映潤 則斷或[718]未盡之 大
乘宗 如夫人經云 佛菩提智所斷 故是金心已斷或[719]
盡 佛則無所斷也 而十住斷結經云 金剛心菩薩智慧
如定中日[720] 所有煩惱 如烟微鄣 此則所斷或[721] 如烟微
[57b] 鄣 非猶有或[722]如烟微鄣也 二開善等諸師傳述 金心
斷或[723]未盡 唯佛菩提方盡 故大品經差別品云 菩薩無
碍道中行 諸佛解脫中行 解脫於或[724] 卽是斷或[725] 故斷
結經云 諸佛解脫道中行 是斷或[726]也 亦如夫人經等
所說也 又[727]道理明之 解惑相對 理應然也 又難云 若
金心斷惑盡 卽應是佛 何故猶是因 今何故然無 旣
有惑累故也 莊嚴家難金剛心解未足猶有體存 故
35上 則應爲集諦 佛苦無常等耶 開善義答 或感[728]應佛苦
等 但被伏故 無復能爲故[729] 大明至苦果等不來也 卽
是因果不遂義 故彼家義 從七地中忍已上 有惑因
[58a] 無果 因果不隨義也 又大乘明義 念念感[730]果有成就

---

715) 或 : 惑.
716) 或 : 惑.
717) △ : 판독미상[金-10]. 能?
718) 或 : 惑.
719) 或 : 惑.
720) 定中日 : 空中月의 오자임.
721) 或 : 惑.
722) 或 : 惑.
723) 或 : 惑.
724) 或 : 惑.
725) 或 : 惑.
726) 或 : 惑.
727) 又 : (續)에는 亦.
728) 感 : (續)에는 惑.
729) 故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因緣差不感[731] 亦得因果不隨義也 問 若金剛心斷
或[732]不盡 何得名金剛耶 答 解不同 仙公〈云〉 雖金剛或[733]
未盡 而衆或[734]所不累故 稱金剛也 又彼云 金剛[735]心罷[736]伏
斷 非一念力 如刀斫續假用也 龍光傳開善義 只□[737]
一念自是假則能伏斷也 仙公義假不當前後 綽公
義假當於後 各執不同也 問 金剛不可破壞者 此
心不及佛[738]得言△△[739]由窮微或[740] 豈非微或[741]使令然身
既使其△[742] 則有損亦瘵義 則非金剛也 答 金剛心
解體內是明解非暗 乃是小明而不及佛員[743]明 故相
[58b] 待言暗 不同凡夫相或入體中也 問 解體是解非
或[744]者 在忍歡[745]喜等門應名之 金剛體無或[746]故也 答
通乘得有此義 但約位分別者 其體不可破 而能破
或[747]盡 一種已滿 唯在金心 獨受金剛名也 大乘義就
橫疎論了 並同有了 但得同意 如空中鳥跡明義故

---

730) 感 : (續)에는 惑.
731) 感 : (續)에는 惑.
732) 或 : 惑.
733) 或 : 惑.
734) 或 : 惑.
735) 剛 : 필사본들에는 결락되어 있음.
736) 罷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能?
737) □ : 필사본들에는 뒤에 한 칸의 빈칸이 있고 세로 줄(丨)을 그었음.
738) 佛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739) △△ : (續)에는 暗[日*闇], 필사본들에는 [日*闇]을 두 번 중복하였음. 판독 미상.
740) 或 : 惑.
741) 或 : 惑.
742) △ : 판독미상. [日*闇]
743) 員 : 圓의 의미임. (續)에는 眞.
744) 或 : 惑.
745) 歡 : 필사본들에는 勸.
746) 或 : 惑.
747) 或 : 惑.

水[748]異彼有所同[749]義 大乘明義 解或[750]相治 假上明之 故
35下 一家宗云 金剛心 正論相治 佛則逌然無果也 故大
品經第五卷發趣品㝡末云 菩薩摩訶薩行六波羅
蜜 四念處 乃至十八不共法 一切種智具足滿斷煩惱
及習住十地 當知如佛也 而今兩佛異者有四 一因
[59a] 滿果滿異也 二小見多見異 三常無常[751]異 四解或[752]並不
並異 有四義故 有明昧異 如前說 而經云等覺者 等
見與等滿故等 而實不等也 問 就勝者爲談 佛是
金剛體 怪[753]諸法盡 更無餘故也 答 義實爾 故大經
第三卷金剛身品明 佛是金剛 但尋此品意 唯取其
常不可破壞義 爲金剛 不論罷[754]切[755]以顯彼滿足無用
也 問 窮學是金剛 其旣有無常 寧譬金剛耳[756] 答
無差別差別明之 實是後心 方是眞金剛 但隨分明
無非金剛也 亦得當體分有之[757]亦得言 問 金剛更
名耶 答 要有四名 一名金剛心如前 二金剛三昧
[59b] 三金剛身 四金剛慧 亦同[758]當體 分有身亦得言 前兩
從因緣 遠因於心 近緣於定 後二體用也 身卽是體
名 慧是屬用名也 問 大經出幾名 答 有五名 一

---

748) 水 : 내용상 永의 誤字임.
749) 同 : 得?
750) 或 : 惑.
751) 常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752) 或 : 내용상 惑임.
753) 怪 : 미상.
754) 罷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能?
755) 切 : (續)에는 功.
756) 耳 : 내용상 耶의 誤字로 생각됨.
757) 之 : 身?
758) 同 : 得?

名首楞嚴 此言曾[759]伏 亦言究竟 亦言健定 亦名脩治
36上 也 二者金剛 譬於堅利 三名波若 亦得名當體 名亦
約智慧也 四名師子吼 譬於無畏說 五名佛性 亦得
言當體 亦得言因果也 彼經意隨用得有無量名
問 彼跋闍羅 此言金剛 金剛定是何物 答 成[760]言是
勝金 成[761]言是利鐵也 問 此金剛心金 與金堅之金
金身品金 金光明之金 若爲同異 答 不同不異 一
[60a] 往彈之 而亦得言金光之金 與金剛身品之金 並就
果地法身明之 故大經答云 金剛身因果 明法身常
住 不可破壞 猶如金剛 明護法爲因 能得此法身果
擧果辨因也 金光明之金 譬法身 明懺悔施食不然
等所得 但總別異也 金堅之金 有二義 一正法明之
一約因中明之 果則薩婆若 故金剛心之金 約等覺
論也 金堅之金 雖云薩婆若明明之 是因而因中擧
於下地也 若言摩訶婆若 亦非涅槃意 亦通果地也
十地金剛心義竟

[60b] 顯慶三年歲次戊午年十二月六日興輪寺學問
僧法安爲　大皇及內殿故敬奉義章也[762]

759) 曾 : 壞?
760) 成 : 或의 誤字?
761) 成 : 或의 誤字?
762) (續)에는 누락되어 있음.

◉ 大乘四論玄義記

佛性義 上

일•러•두•기

1. 이 <佛性義(上)>의 교감본은 2종의 필사본 (京都大學소장본과 龍谷大學소장본)과 續藏經本을 비교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2. 세 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비교적 원본에 가깝게 본문을 재구성하고 각 본의 차이를 注에 제시하였다. (京)은 京都大學소장본, (龍)은 龍谷大學소장본, (續)은 續藏經本을 가리킨다.
3. 丈과 行은 필사본에 의거하였다. 필사본의 전면(우측면)을 a, 뒷면(좌측면)을 b로 표시하였다. 즉, 1a는 첫 번째 丈의 우측면, 1b는 첫 번째 丈의 좌측면이다. 대조를 위하여 續藏經本의 페이지와 시작 부분도 아울러 표시하였다.
4. 일부 한자는 편의상 異體字나 略字를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바꾸어 활자화하였다. (예 : サ卄→菩薩, 為→爲, 即→卽, 既→旣 真→眞, 舉→擧, 関·開→關, 咲→笑, 躰→體, 㝵→碍, 踈→疏, 尓→爾, 弥→彌, 无→無, 称·秤→稱, 応→應, 仏→應, 与→與, 尽→盡, 旧→舊, 号→號 등)
5. 行 사이에 추가로 적은 글자는 < > 안에 집어넣었다.
6. 결락된 글자는 ㅁ로,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1a] 1)佛性義 有四重 第一明大意 第二論釋名

第三辨體相 第四廣料簡

第一明大意者 興皇大師云 必須語無2)依無3)得□□

續 87上 |所住爲宗 故大品□□□□□4)發初云 以不住法住 般若波羅蜜中故 關中僧叡法師大品疏中云5) 啓彰 玄門 以不住爲始 以無得爲終 故若有一豪6)可得 並須破洗 何以故 若留一微豪 則非無得宗致故 大經云 佛性者 非有非無 非因非果 非內非外 非常非斷等 離四句絶百非 雖然爾 復得言凡一切衆生皆有佛性 而亦得言無 言有之興7)無 約得失之情 分之爲

[1b] □ 卽是有所得無所得也 故大經梵行品云 有所得者 生死卄五有 無所得者 名大涅槃也 經旣言 有所得者名爲生死 故無有佛性 無所得者名爲涅槃 故有中道佛性 更無別物也 但失之者 佛性爲生死卄五有 得之者 生死卄五有爲佛性 故失者卽是理外 得者卽是理內 故一家義宗 顚倒不顚倒 無豪末差別 故大經如來性品云 猶如甘露 亦如毒藥 或有服爲甘露長生 或有服毒藥傷命而早夭 仁王經云 菩薩未成佛時 菩提8)爲煩惱 成佛已時 煩惱爲菩提 中

---

1) (續)에는 제일 앞 줄에'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七'의 卷次가 있지만 필사본들에는 없음. 필사본들의 表題는 (京)이 大乘四論玄義記 卷七, (龍)이 '四論玄義'임.

2) 無 : 필사본들에는 元. 无의 誤寫로 생각됨.

3) 無 : 필사본들에는 元. 无의 誤寫로 생각됨.

4) 5칸의 빈칸이 있음. 뒤에 인용되고 있는 '以不住法住 般若波羅蜜中'의 구절은 『摩訶般若婆羅蜜經』卷1의 序品에 나오고 있다.(大正藏8, 218c · 219a)

5) 云 : (京)에는 去.

6) 豪 : 필사본들에는 [++/豪]임. 이하 같음.

7) 興 : 與의 誤字임.

8) 菩提 : 필사본들에는 'ㅐ+提'로 적혀 있음. 본래 菩薩의 略字體인 'ㅐ+'을 '菩'의 異體字로

論涅槃品云 涅槃實際[9]興[10]世間際 無豪釐差別 如斯
[2a] 87下 多文 卽是理內外意也 故言理外衆生 無有 佛性 而
此顚倒衆生 復有入理還源之義 故亦得言有佛性
故經云 凡有心者 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也 故
仁王經受持品云 大王是波若波羅蜜 是諸佛菩薩
一切衆生 心識之神本也 若然者 豈非<還>源本淨義也
問 五時 波若者 第二時敎等經 云何引此 證佛性義
答 彼自作五時四時等 非經論意 今依經中半滿敎
意 辨之也 問 何因[11]緣說於佛性 答 大論云 諸佛
不以無因緣及小因緣而說說[12] 必有因緣說 今如法
華經云 爲大事因緣故出現於世 大事者 所謂開佛
[2b] 知見 乃至欲令衆生入佛知見道故說 今佛性亦然
知見卽是佛性也 問 佛性何法而名佛性耶
答 大師云 三世諸佛以此爲性 故名佛性 卽是三世
十方諸佛之源本 十方三世諸佛 由此而成佛 故言
源本 欲令[13]一切衆生 因悟佛性皆成佛 故說佛性也
無差別中差別 說佛性 藏公開爲八種 故說於佛性
何者 一爲對昔三乘性故說佛性 昔三乘性者 謂菩
薩[14]辟支聲聞 皆有此三性 此三藏敎中意也 今爲破
如此等計故 明唯有一佛性 無二乘 以是因緣故 說
88上 佛性也 二者 爲對保自守之源故 說佛性也[15]

사용한 것으로, 이하의 菩提와 菩薩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다수 보이고 있음.
9) 際 : (京)에는 除.
10) 興 : 與의 誤字임.
11) 因 : (京)에는 同.
12) 說說 : 필사본들에는 說々. 說之의 誤字?
13) 欲令 : 필사본들에는 令欲.
14) 菩薩 : 필사본들에는 ‘サ卄(=菩薩)薩’로 적혀 있음.

[3a] 明二乘四知究竟[16] 自言是
極 守自而住 不復進求佛果 今爲破此等計 故云汝
等皆有佛性 悉當作佛 云何守於小乘不了義經意
所以說於佛性也 三者 爲發菩提心衆生故 云汝當
皆作佛有佛性 若能發心行 必得成佛 若無佛性 何
能發心脩行成佛 猶如乳有酪性 攢搖成酪 若無酪
性 攢搖終不得成酪 今亦爾 衆生皆有佛[17]性 發心脩
行 卽得成佛 爲是義故 說佛性也 四者 爲下劣衆生
說於佛性 汝等皆有佛性 當得作佛 莫生下劣之心
應生尊勝之心 主導之心 爲此等事故 說於佛性也
[3b] 五者 爲憍慢自高 卑他之人故 說於佛性 自言己勝
言他鄙劣 故說佛性 明一切衆生皆有佛性 皆當作
佛 佛性無有高下 云何得尊卑耶 六者 爲好作罪衆
生故說 汝是一切衆生同源 寧得相煞 卽是煞害者
說於佛性 汝若煞者 便煞佛等 一切衆生皆佛性 當
作佛故 說於佛性也 七者 小乘人一闡提 斷於善根
畢竟無得佛理 如言大經本未至時 嚴觀等法師 皆
88下 云 一闡提無佛性 爲破如此等計故 說於佛性也 八
者 爲三脩比丘 封執無常 脩三法印 定謂有爲法無
常 一切法無我 唯涅槃寂滅 爲破此執 故說佛性 明
[4a] 諸法何曾有我及無我義耶 爲破我故 說一切法無
我 其通計皆言無我 爲破無我故 說有佛性我[18] 卽是
有我破無我 乃識佛性眞我 故經言 空者生死 不空

---

15) 필사본들에는 也 뒤에 '二者爲對保自守之源故說佛性'이 중복되어 있음.
16) 竟 : (京)에는 意.
17) 佛 : (京)에는 休.
18) 我 : (京)에는 爾.

者大涅槃 爲破此等計故 說於中道佛性義也 今謂
大意亦不出前八種說 而今依大經云 五名中波若
與佛性 眼目[19]異名 并大論說 波若意開佛性 有十意
也 一者 爲究竟至菩薩行故說 二者 爲十方諸佛諸
母故說 三者 爲大小兩乘異故說 四者 爲破三乘三
性別故說 五者 爲二乘求[20]究竟四智 不復進求尊勝
道故說 六者 爲分別生法二身供養故說 七者 爲破
[4b] 二邊令住中道故說 八者 爲破一闡提不成佛故說
九者 爲二乘令信正法故說 十者 成就萬行故說佛[21]
性也 問 卽此顚倒衆生 有佛性不 答 旣言顚倒
衆生故無也 如此義大異 地攝兩論與成毗二家 彼
宗八識七識 卽有眞如性故 飜攝論等崑崙三藏法
89上 師明言 眞如性於八識煩惱中有 而不爲煩惱所染
亦非智慧所淨 自性淸淨故 非淨非不淨 體旣無染
不須智慧所淨 故名非淨 非非淨者 斷除虛妄 體方[22]
顯現 故曰非非淨 卽自性淸淨心也 彼論三種佛性
中 自性住佛 始[23]從凡夫 乃至金心 所有淨識 未離煩
[5a] 惱 於煩惱中住 若爾豈非或[24]識中有眞如性也 論師
眞諦卽或[25]下有可類攝[26]也 但此間攝論師偸誦三論
義疏意 安置彼義中 輕毛之人信從之 非吳魯師意

19) 目 : 필사본들에는 日.
20) 求 : (續)에는 永.
21) 佛 : (京)에는 師.
22) 方 : (京)에는 分.
23) 始 : (續)에는 如.
24) 或 : 惑.
25) 或 : 惑.
26) 攝 : 필사본들에는 옆에 '勝乎然乎'라는 細注가 붙어 있음.

所謂是章甫安編髮文身頭戴也 問 卽此衆生無
佛性者 涅槃論云 云何[27]衆生是佛耶 答 正是此意
若約道明之 卽此衆生畢竟不可得 故言衆生是佛
故彼論云 非衆生內有佛 亦非外有佛 亦非非有 非
非無也 此意卽是假亦中 若言顚倒衆生 那得已者
耶 故言無佛性 非如虛妄或[28]中有眞如性者[29] 此眞如
虛妄等不能染也 第二釋名 諸法師 釋名不同 今
[5b] 且前明得名不同 古舊一言佛與性 並在因[30]中之目
一切衆生有靈知覺性 得佛無改 簡異木[31]石等無性
故大經云 一切衆生皆有佛性也 二龍光法師云 佛
89下 之與性 在當果地 所以然者 佛名覺了 因無其義故
性本不改 佛卽嶷然 故受性稱 因中無常 故性義不
定[32] 而今因中 並稱佛性者 皆從果爲名 論師取彼師
意云 欲示果之二種 必是心因所得 亦斥小乘與外
物虛妄等也 此意後簡之 三開善知藏法師云 果地
是佛非性 因中是性非佛也 所以然者 佛名覺了 常
住爲宗 因無其義 故果但是佛也 性者不改爲宗 因
[6a] 中得佛之理 此無改易 故是性義也 果不感果無有
其非因則非至果故 因但是性 而今果亦名性 是從
因爲名 因亦稱佛 是從果受稱 所以兩相從者 欲示[33]
因果之理必然 相開[34]有在[35] 卽斥昔日敎與木石虛空

27) 云何 : 필사본들에는 何云.
28) 或 : 惑.
29) 者 : 필사본들에는 有.
30) 因 : 필사본들에는 同.
31) 木 : (龍)에는 不.
32) 定 : 필사본들에는 足.
33) 示 : 필사본들에는 亦.

等也 第四家今大乘無所得義則不勝[36] 何得分派緣
種種釋 終不離斷常二心有所得也 經自說 佛性非
有非無 非內非外 非因非果非等 至論佛性非在非
不在 無所的當 一道淸淨 無在無不在 雖無在無不
在 而假名說在不在 無在則不在因果己性 無不在
遍在因果己[37]性 如天女問舍利弗 汝身色相 今何所
[6b] 在 舍利弗曰 身色相 無在無不在 天女曰 善[38]哉[39] 無
90上 在無不在 佛所說也 若具足言之 無在不在 無在無
不在 具足中假也 故今佛性 非因[40]說爲因 非果說爲
果 故在因名爲佛性 在果名爲涅槃 故佛性法性法
界眞如等 並是一物 種種名不同[41] 亦名佛性如來性
三寶性 故言佛法僧三寶性 無上第一尊 至論佛性
皆非而無所當 雖非因果 而能爲因果之本 不唯爲
因果作本 亦爲一切淸[42]法作本也 此卽不當當佛果
而名爲因者 則非佛性爲因性也 不當當涅槃而名
爲果者 卽非涅槃爲果性也 故雖非因而爲因本 故
[7a] 佛性非因亦爲二因 佛性非果能爲果本 故非果爲
二因 佛性非果能爲果本故 非果爲二果 此卽二果
二因是因果果因 以非因非果爲本 本故爲正因也
用故爲傍 傍以因正爲名 正以因傍得稱 然待傍爲

---

34) 開 : 關?
35) 在 : 無?
36) 勝 : 然?
37) 己 : 필사본들에는 옆에 '五イ'라는 夾註가 적혀있음.
38) 善 : 필사본들에는 義善.
39) 哉 : (京)에는 故, (龍)에는 故로 적은 후 哉로 수정하였음.
40) 因 : 필사본들에는 同.
41) 同 : 필사본들에는 因.
42) 淸 : 諸의 誤字?

正 此未是好正 能無傍無正 乃名爲正 此正不可復
言 言正則屬傍 言體卽屬用 故佛性一道淸淨無二
無二而爲二 故有因果果因 相待得名 但此相待有
橫竪不同 有三種釋名 一者表裡[43]釋名 卽是竪而論
之 因以不因爲義 果以不果爲義 佛以不佛爲義 性
90下 以不性爲義 卽名爲義 卽名爲義[44] 卽義爲名 此是竪
[7b] 表釋名 故居士經云 五受陰洞達[45]空無所起 是苦義
不生不滅無常義 本以生滅爲無常 而無生滅爲無
常義 卽是表裡[46]釋名也 二者開[47]發釋名 卽是佛以法
義 法以佛義 橫而明也 如因以待果得名 果以待因
得名 故因則非因因 果則非果果 故假名說因果 假
因說果 須果說因 若有因可因 因是自因 何須於果
有果可果 果是自果 何須於因也 今謂 假故無自義
因他無自體 故假名所待因果非因果 待假因果非
因果 假名方便因緣待說相因 無自性故無法
無法則無所有 無所有 所以相因而說 一切法無二無所
[8a] 有義故 因得以果爲名 卽以果爲義 果得以因爲名
以因爲義 故大經云 欲令衆生深識[48]世諦故 說第一
義 欲令衆生深識第一義故 說世諦也 則名義亦然
也 此則自他釋名開[49]發義也 三者當體釋名 佛是覺
了爲義也 今明性亦有三種勢例 佛可知也 性以不

---

43) 裡 : 필사본들에는 理.
44) 卽名爲義 : (續)에는 卽名爲義가 없음. 衍文?
45) 達 : (京)에는 遠.
46) 裡 : 필사본들에는 理.
47) 開 : 關?
48) 深識 : (京)에는 得說.
49) 開 : 關?

性爲義 不性則苞一切法 皆無性空無所有 淸淨隨
緣 假名說不性爲性 隨緣所明欲辨何性 論佛性但
91上 假名佛爲性 故名爲佛性 故佛性法界法性 只論一
道更無[50]別法 故性以不性爲義 不性以性爲義 則達
此不性性 性爲不性 則達非性非不性 了此性不性
[8b] 則此人有佛性 不了則無佛性 故云凡有心者 皆有
佛性 何得以卽時不了 語衆生等皆有佛性正因耶
次約經開五種佛性釋名 師說不同 開善智藏法師
云 正是專當不偏義 衆生神明與如來種智 雖復大
小之殊 而同是慮智 性相感召 故謂名正因 正感佛
果 對緣因爲名 非傍助義 緣因者 緣由爲義 雖有正
因 不脩萬行 終不能得果 由藉萬善脩行 故得佛果
對正因爲緣名 亦名境界 如草木[51]虛空等 其不能[52]了
出佛果 但爲觀智所緣 爲心作境 故名境界也 了因
者 照了爲義 萬善之類 顯出佛果 故名了因 如燃照
[9a] 物 譬其對境明了也 果者以酬因爲義 果果者 謂從
果生果 故名果果也 今謂 三種意如前 正是遠離爲
義 故華嚴經性起品云 正法遠離一切趣不趣也 大
品經無生品云 何等波若波羅蜜 答云 遠離故 名般
若波羅蜜 何等法遠離 遠離陰界入等 乃至一切法
91下 內空外空等也 正是中實爲義 如正觀論也 亦得不
偏釋也 因者 本義由義也 故經言 無住爲本 般若非[53]
生一切法等也 緣因者 亦得如舊釋名得也 了因者

---

50) 無 : (龍)에는 此로 적은 후 無로 수정하였음.
51) 木 : (京)에는 不.
52) 能 : 필사본들에는 然.
53) 非 : 能의 誤字.

了因者[54] 了不二爲義 亦如常釋得也 果與果果 亦類
釋得 雖爾意永異諸師也 至論佛性 佛窮四句百非
[9b] 故佛也 性是正義 正是實義 窮正實性也 第三論
體相 佛性體[55]相 故舊師執解 有三家不同 涅槃宗
體要是佛性義也 一道生法師執云 當有爲佛性體
法師意一切衆生卽云[56]無有佛性 而當必淨悟 悟時
離四句百非 非三世攝 〈而〉約未悟衆生 望四句百非 爲
當果也 二曇此[57]遠法師執云 本有中道眞如爲佛性
體也 三於生遠之間執云 得佛之理爲佛性 是望法
師義也 於三師宗本中 末[58]執不同 略有十家 第一白
馬愛法師 執生公義云 當果爲正因 則簡異木石無
當果義 無明初念不有而已 有心則有當果性 故脩
[10a] 萬行尅果 故當果爲正因體 此師終取成論意釋 生
師意未必爾 法師旣非凡人 五事證知故也 非[59]法師
92上 亦有同此說 正言顯卽是果 隱卽爲因 只是一物[60]轉
側以爲因[61]果也 第二靈根令正 執望師義云 一切衆
生本有得佛之理 爲正因體 卽是因中得佛之理 理
常也故 兩文爲證 一者師子吼品云 佛性者十二因
緣名爲佛性 何以故 一切諸佛以此爲性 此明正因
性 而言諸佛以此爲性 故證知因中有得佛之理也

---

54) 了因者 : 중복된 衍文임.
55) 體 : (續)에는 禮.
56) 云 : 필사본들에는 曰.
57) 此 : 無의 誤字.
58) 末 : (續)에는 未.
59) 非 : 미상.
60) 物 : (續)에는 切.
61) 因 : (續)에는 同.

二者亦師〈子〉吼菩薩問言 若一切衆生已有佛[62]性 何用
脩道 佛答 佛與佛性 雖無差別 而諸衆生 悉未具足
[10b] 此正自有性 而無佛故 言未具足 亦簡異木石等無
性也 此性也[63] 此兩師異者 愛公約玄[64]常任果明之 令
正約卽因中得佛之理常也 第三靈味小亮法師云
眞俗共成衆生眞如性理 爲正因體 何者 不有心而
已 有心則有眞如性上生故 平正眞如正因爲體 苦
無常爲俗諦 卽空爲眞諦 此之眞俗 於平正眞如上
用故 眞如出二諦外 若外物者 雖卽眞如 而非心識
故 生已斷滅也 第四梁武蕭天子義 心有不失之性
眞神爲正因體 已在身內 則異於木石等非心性物
此意 因中已有〈眞〉神性故 能得眞佛果 故大經如來性
[11a] 92下 品初云 我者卽是如來藏義 一切衆生有佛性 卽是
我義 卽於木石等爲異 亦出二諦外 亦是小亮氣也
第五中寺小安法師云 心上有窴[65]轉[66]不朽[67]之義 爲正
因體 此意神識有窴[68]傳用 如心有異變相至佛 亦簡
異木石等 一其日[69]而已 亦出二諦也 第六光宅雲法
師云 心有避苦求樂性義 爲正因體 如解背[70]或[71]之性
向菩提性 亦簡異木石等無性也 故夫人經云 衆生

---

62) 佛 : (京)에는 師.
63) 此性也 : 衍文으로 생각됨.
64) 玄 : 미상.
65) 窴 : (續)에는 [穴/具]. 내용상 冥으로 생각됨.
66) 轉 : 傳의 誤字임.
67) 朽 : (續)에는 [扌*弓].
68) 窴 : (續)에는 [穴/具]. 내용상 冥으로 생각됨.
69) 一其日 : 미상. 無性?
70) 背 : (續)에는 皆.
71) 或 : 惑.

若不猒苦 則不求涅槃 義釋云 以此心有皆生死之
性 爲衆生之善本[72] 故所以爲正因 亦是出二諦外 又
于時用師亮師義云 心有眞如性爲正體也 梁武等
[11b] 三師義宗 諸師云 只一心神 各[73]執一義 爲分三實[74]之
也 第七河西〈道〉朗法師末莊嚴旻法師 招提白琰公等
云 衆生爲正因體 何者 衆生之用 總御心法 衆生之
義 言其處處受生 令說御心之主 能成大覺 大覺因
中 生生流轉 心獲湛然 故謂衆生爲正因 是得佛之
本 故大經師子吼品云 正因者謂諸衆生也 亦執出
二諦外也 第八定林柔法師義 開善知藏師所用 通
而爲語 假實皆是正因 故大經迦葉品云 不卽六法
93上 不離六法 別則心識爲正因體 |故大經師子吼品云
凡有心者 皆得三菩提 故法師云 窮惡闡提 亦有反
[12a] 本之理 如草木無情一化便罪 無有終得之理 衆生
心識相續不斷 終成大聖 今形[75]彼無識 故言衆生有
佛性也 故迦葉品亦云 非佛性者 墻壁瓦石無情 則
簡草木等 此意有心識靈知 能[76]感得三菩提果果 則
俱二諦也 第九地論師云 第八無沒識爲正因體 第
十攝論師云 第九無垢識爲正因體 故彼兩師云 從[77]
凡至佛 同以自性清淨心 爲正因佛性體 故彼云 自
性住佛性 引出佛性 得果佛性也 此引出得果兩性

---

72) 本 : (京)에는 不.
73) 各 : (續)에는 名.
74) 實 : (續)에는 寶.
75) 形 : 미상. 取의 誤字?
76) 能 : 필사본들에는 非임.
77) 從 : (京)에는 後.

彼師解不同 一云三性並是正因性 一云自性住[78]是
正因性 餘二性非 何者 果與果果兩性 是得果性 引
[12b] 出性 卽是十二因緣所生法 觀知了因性 自性住 是
非因非果 佛性正因性也 地〈論〉師[79]云 分別而言之 有
三種 一是理性 二是體性 三是緣起性 隱時爲理性
顯時爲體性 用時爲緣起性也 地攝兩論義玄[80]同 昔
時曇無遠師義也 今謂 此十師等說 並自心依經卜[81]
度 可謂 如大經云 競投瓦礫 謬傳羊角之刀[82] 如師子
93下 吼中△△[83] 故須一一破之 問 十家亦引經 汝亦據
經 何獨汝是他非耶 答 此事如世娘婢二子 諍父
家業爲 豈相類也 又今家禀[84]南〈天〉竺學摩訶衍龍樹之
風 彼依△△[85] 學小乘訶梨之論 又地攝兩論 學有得
[13a] 大乘師宗 已是懸絶 汝學成論[86]與地攝論 我學三論
我論初命章 十二門論云 今當略解摩訶衍 中論初
亦云 如摩訶般若波羅蜜中說 汝論初命章云 何故
造此論 我欲正論三藏中實義 若爾豈懸絶 故法華經
安樂行品云 莫親近三藏學者 又大品邊學品云
十地爲戲論乃至一切戲論故 彼義宗無〈沒〉識爲解或[87]

78) 住 : 필사본들에는 從임.
79) 師 : 필사본들에는 師로 적은 후 何로 수정하고 있음.
80) 玄 : 미상. 卽?
81) 卜 : (龍)에는 卜, (京)에는 세로 줄(|), (續)에는 없음. 본래 卜을 (京)이 빈칸을 의미하는 세로 줄(|)로 판독하고, (續)은 이를 따른 것으로 생각됨.
82) 刀 : 필사본들에는 力.
83) △△ : 판독미상[佛-1].
84) 禀 : (續)에는 稟.
85) △△ : 판독미상[佛-2].
86) 論 : (續)에는 訖.
87) 或 : 惑의 의미임.

之本 至金心 無沒盡顯無垢 豈非二見之徒 故經言
諸有二者有所得 亦是從竇[88]生覺 同外道義 何者 無
沒無明上脩習十地解起 豈非從竇[89]生覺[90]義也 是故
師徒異 敎門亦異 豈得相比耶 故大經云 亦名甘露
[13b] 亦名毒藥也 今明兩[91]種彈佛性 豈開心非心 乃至八
九識亦然 故今非心不心 是故得辨心不心並是佛
性 今若明佛性無所而不非 如大經下文云 非有非
無 非有爲非無爲 非常非無常 乃至非斷非不斷 是
94上 故佛性 非非所不非 是是所不是 是非亦不非 非是
亦不是 百非所不非 百是所不是 橫絶百非 竪絶四
句 橫絶百非[92]者 如前說 佛性非有非無 非常非無
常 非心非色 如是一切皆非 如此皆非 何但於百非
乃至百千萬非 乃至無量非也 竪絶四句者 如言佛
性 非心非不心 非亦心非心 非非心非非不心 如是
[14a] 四句並絶 一切皆非 百非乃至千萬非 無量旣非 卽
召無量是 前旣百非 乃至萬不[93]非無量非 一切皆非
者 今論是卽百是萬是 乃至一切皆是 若善若惡 若
色若心 一切皆是佛性 如大經下文明 煩惱是佛性
色亦是佛性 如釋空空云 是是非是是名爲空空 非
則[94]並非 是則雙取 是故是是非是是皆是空空 是是
非是是 而是是非是非 非非非 而非非不非也 第一

88) 竇 : (續)에는 [穴/具]. 내용상 冥으로 생각됨.
89) 竇 : (續)에는 [穴/具]. 내용상 冥으로 생각됨.
90) 覺 : (續)에는 學.
91) 兩 : (續)에는 西.
92) 非 : 필사본들에는 非 다음에 教를 적은 후 °를 표시하였음.
93) 不 : 衍文으로 생각됨.
94) 則 : (龍)에는 卽으로 적은 후 則으로 수정하였음.

家第二家 當果理與得佛理 爲正因體者 今三義破
之 一有[95]無責之 如破三世也 此兩理 爲是有 爲是無
理若是有 異於無者 理則應生 已異於無 卽是已有
[14b] 故 屬現在理 若是無 無則無理也 又爲是已理爲理
未理爲理 理時爲理 已理爲理者 卽應已生爲生 已
94下 生不應更生 亦不得已理爲理 若未理則無理 理時
則此理是事也 又此理是空 爲離空耶 卽是空空則
無理 離空則無理也 第三家 眞俗平正 眞如性爲正
因體者 如二諦中破 色性是空[96] 初念始明正因 此正
因卽始生 眞則有初 若未有衆生時 復誰作正因 若
言初念衆生 生於眞如上者 如空中生萬物 萬物寧
得虛空爲體 如器中有物也 此師最儜也 第四家似
外道義也 旣言眞神性爲正因體 已在身內 異於木
[15a] 石等 豈非是神我 邊[97]在卄四法中耶 第五小安師云
卽心有冥[98]傳不朽[99]之用 爲正因故 眞如性爲正因體
又云同照[100]提義也 第六光宅云 心有眞如性故 有避
苦求樂用眞性 爲正因體 今雖意同第三家 無明初
念始有 眞如性亦〈應[101]〉始有 旣始有云何心滅 而眞如性
脫心有爲 出在常住性 若爾不開[102]心法 若然豈是正
因體 又云避苦求樂性 亦是開善氣[103]類也 第七家召[104]

---

95) 有 : (續)에는 者.
96) 色性是空 : 필사본들에는 옆에 '無明初念衆生'이라는 夾註가 있음.
97) 邊 : 遍?
98) 冥 : 필사본들에는 資.
99) 朽 : (續)에는 [扌*弓].
100) 照 : 내용상 招의 誤字임.
101) 應 : (續)에는 없음.
102) 開 : 關?
103) 氣 : (續)에는 無一, 필사본(京)에는 亦一, 필사본(龍)에는 炁(=氣)로 적은 후 亦一로 수정하였

提等云 衆生是正因體者 經中已破 如波若經說 若
有我相衆生相 卽非菩薩 又如金光明經云[105] 善女當
觀 何處有人[106]衆生 本性空寂 無明故有 若爾豈非以
[15b] 95上 無明 所謂[107]見衆生 而爲正|因佛性耶 若以衆生爲正
因性者 見衆生卽見佛性耶 若御心之主 非[108]成大覺
故言衆生爲正因 是得佛之本者 衆生本是處處生
故名衆生 三聚等成 故衆生是因成假 因假極至三
聚等成 所得佛果非處處生 又非因成假 因果不相
稱當 云何得正因名 終是助[109]因非正因體也 又衆生
不當知與不知 寧得以覺知佛作正因耶 又文云 衆
生佛性住五陰中 若害五陰 名爲煞生 衆生可煞 佛
性便應可煞可斷 衆生旣無常 佛性亦無常也 又文
云 佛性非陰非衆生 故佛性非開[110]衆生 寧得以衆生
[16a] 爲佛性 故知佛性非衆生 非不衆生 是故衆生不是
佛性 問 若然 河西那云衆生是佛性 答 法師意
恐如涅槃論云 衆生是佛性也 第九十兩家執正因
差前諸師 而不離斷常過 亦是因中有果過 隱隱有
箇理 如俗卽有眞諦理氣過 亦是二諦中破之 地攝
兩家 妄與眞一 妄與眞異 二俱有過 若一 妄覆眞 令
眞隱名藏者 眞亦應覆妄 眞應常顯名法身 若妄與

음. 본래 炁이었던 것을 후대의 필사본들에서 无(=無)一 혹은 亦一로 판독하였다고 생각됨.

104) 召 : 招의 誤字.

105) "善女當觀 諸法如是 何處有人 及以衆生 本性空寂 無明故有" (『金光明經』권8, 大正藏16, 380a)

106) 人 : 경전의 내용과 비교할 때 及이 결락되어 있음.

107) 所謂 : 미상.

108) 非 : 能의 誤字?

109) 助 : (續)에는 卽. 필사본을 따름.

110) 開 : 關의 誤字?

眞異 則各體二義 故墮二見 亦是於一家 虛實二諦
95下 僞[111]上明之卽涉 故中論十二門論云 有爲空故 無爲
亦空也 故彼地攝兩論意 金心以下是有爲 無垢識
[16b] 是無爲 故虛實兩識 故被破也 第八家開善述 用定
林寺柔法師義 心爲正因體者 今依論七句檢[112]責 心
爲正因 爲生爲不生 若生爲正因 如論破生 自生 他
生 共生 無因生 三時求生 已生 未生 生時生 此七句
求生不可得 何有此心識 爲正因佛性耶 大經師子
吼第二云 約五陰明之 色非佛性 識非佛性 如是五
陰一一並非佛性 又云心非佛性 何以故 心是無常
佛性常恒無變故 又華嚴經云 佛性者 非心識之所
識 亦非境界也 又金剛波若經云 佛說諸心 皆爲非
心 如是諸經並云 心非佛性 云何定說心法爲正因
[17a] 耶 又經云 不卽六法 六法旣非佛性 不離六法 何得
用六法是佛性 六法旣是佛性者 何以故六法非卽
六法則非卽 亦無用故 今明非卽六法 六法旣非 不
離六法 六法亦非 則卽離皆非佛性也 今觀此十說
皆有體之可體 於今所說 畢竟無此義 今時無所得
意 求此有所得十說 可得可明佛性體相 求之旣不
96上 可得 不知以何爲體相 故經云 當觀諸法 何處有人
反[113]衆生 本性空寂 無明故有也 又大品經三慧品云
佛言 吾以五眼 尙不見衆生 豈況菩提可得 而無目[114]
衆生 而欲得菩提 今雖言卽目[115]所見爲世諦 卽不可

111) 僞 : 미상. 假의 誤字?
112) 檢 : (續)에는 撿.
113) 反 : 及의 誤字.
114) 目 : (續)에는 因.

[17b] 得爲眞諦 故彼所明 皆是二義故無正 何得爲正因
耶 問 前十師說 並爲護過 故被破者 今時此間 寶
熹淵師祇洹雲公 作眞如爲正因性 復云何耶 答
一往觀述彼師義宗 似落治域[116]素法師義宗 并莊嚴
義 及地論無一[117]而非正宗 亦是彼師不識 大乘論中
因中有果無果等被破 故私心卜著[118]作義 不足及破
限 如躭羅△△[119]利等人 非禮樂所被也 今大乘明義
正以中道爲正因體 故正因佛性是正法 故經云 正
法正道本不二也 從來所說皆是二義 何者 空有生
死涅槃凡聖等 一切〈法〉無非是二也 大品經三慧品云
[18a] 諸有二者 有所得 無有二者 無所得也 大品經廿二
卷邊學品云 有二相者 無有檀波羅蜜 乃至般若波
羅蜜 無有道 無有果 乃至無有順忍 何況見色相 乃
至一切種智相 若無脩道 云何得須陀洹 乃至阿羅
96下 |漢果 辟支佛道 阿耨多羅三藐三菩提 斷煩惱及習
也 又一切法二 皆是有法 有法便有生死起 不得離
生老病死憂悲苦惱也 問 無有二者 定是無所得
耶 答 大品經第十一卷照明品云 若菩薩作是念
波若波羅蜜 無所有 如虛空 不堅固 是菩薩 遠離般
若波羅蜜 若爾 若有所念卽非 如中論云 若有所受
[18b] 卽墮斷常也 大經第十五梵行品云 無所得者 名爲
大乘 菩薩不住諸法 故得名大乘 是故菩薩 名爲無

115) 目 : (續)에는 因. (京)에는 自.
116) 域 : 城의 誤字임.
117) 無一 : 炁(=氣)의 誤讀임.
118) 著 : 필사본들에는 着.
119) △△ : 판독미상[佛-3].

所得也 有所得者 名爲聲聞辟支佛道 菩薩永[120]斷二乘之道 故得佛道 是故名爲無所得也 故義家云 有所得者 無道無果 無所得者 有道有果故 若爾尋此十說義宗 無非二義 豈是得正因佛性耶 故十說畢竟有無所故 有所得者 於今皆無 故畢竟空盡 淨一切法 是淨亦淨 盡亦盡 故今中道爲正因體 中道體淸淨 而明佛性體者 無體爲體 故大品經第十二卷嘆淨品云 是一切法性 亦是無性 是無性卽是性 不
[19a] 起不滅故 佛無體爲體 卽是以淨悟爲體 故中道正
97上 法 爲正因佛性體也 問 更何文證 答 文甚多 大經第二卷末 亦得明佛性 如瑠璃寶珠 正譬中道 佛性亦可譬明緣果也 又如來性品亦擧譬行 明中道佛性 佛性性[121]實非隱顯 約迷悟明隱顯 失者成隱 得者顯 亦是緣正兩性傍正論也 一體三寶 明中道佛性 非三一故有三一 此兩意明佛性意 猶未足是 若廣明中道佛性 如下文 如經云 明與無明 愚者謂二智者了達 知其無二 無二之性 卽是實性 乃至隱之與顯 愚者謂二 智者了達 知其無二 無二之性 卽是
[19b] 實性 三之與一 愚者爲二 智者了達 知其無[122]二 無二之性 卽實性 如是廣明中道佛性也 又迦葉品文 佛呵迦葉 汝今何故失意作如此問 我先不說中道爲佛性耶 又師子吼文 凡有六問 初問云 何爲佛性 佛答 佛性者卽是第一義空 又云何言空者 不見空與

120) 永 : (續)에는 求. 필사본에도 求에 가까운 글자임. 내용상 永의 오자로 생각됨.
121) 性 : 衍文?
122) 無 : (龍)에는 元.

不空 聲聞緣覺但見於空 不見不空 故不行中道 故
不見佛性 智者見空與不空 行中道故 見於佛性 下
文結言 第一義空 卽是佛性 佛性卽是中道也 又佛
答第一問言 汝問以何義故名爲佛性者 佛性謂阿[123]
97下 耨多羅三藐三菩提中道|種子 下文結言 如是中道
[20a] 名爲佛性 又下文云 佛性者 非內非外 又云非因非
果 名爲佛性 非因非果故常恒無反 其文甚多 皆以
中道爲佛性也 若如前十家所執 並須破之 如上所
說 今則皆是佛性 卽是就理假用 明佛性義 故經言
正因者 謂諸衆生 此意者 衆生實是緣因性 但約能[124]
御所御明之 衆生是能御故名爲正因 如對偏明中
實非正中 非偏非中 乃名爲正中 非耶[125]非正 方是正
中 今衆生亦爾 能御故名正因 實論非能御非所御
乃名爲正因性 亦可如涅槃論 衆生是佛也 又經云
凡有心者 皆當成佛者 亦是理假用明之 是故假中
[20b] 亦是佛性 卽是正因之體 中假 亦是佛性 卽是正因
之用也 今以悟爲體 故佛名爲覺 對此明法名不覺
之稱 至論佛性非覺非不覺 乃名爲正法體 故一家
言 只指法性 爲三寶 待不覺言覺[126] 待覺言不覺 待不
覺言覺 以覺爲佛寶 待覺言不覺 以不覺爲法寶 覺
與不覺不二故同 同是僧寶 若爾 豈得復有一圓眞
體 而說爲三[127] 此一不復是一 故無一 此三不復是三

123) 阿 : 필사본들에는 何.
124) 能 : 필사본들에는 非.
125) 耶 : 邪.
126) 覺 : 필사본들에는 言으로 적은 후 覺으로 수정하였음.
127) 三 : (京)에는 正.

98上 故無三 故强名三一一三 無三無一 以覺爲佛 故言
佛卽是如來性也 前言盡淨 是淨亦淨 無所覺體亦
無無 皆名爲覺者 亦覺此無所覺 名爲佛性 故未有
[21a] 此覺 則無佛性 故言凡有心者 有佛性 性爲有也 又
木石外物等 本來淸淨 未曾病故 不言有佛性 唯有
有[128]心者 亦如對偏明中 唯心是能起顚[129]倒妄情 橫謂
心此心〈橫謂〉[130]還能悟不二淸淨 故就有心者 得菩提 至悟
時 無內外相 故言佛性者 非內非外 非因非果等 一
切得淨也 又亦得言 破外道木石等有情 故約情明
之 凡有心者也 又斥[131]破一闡提不成佛 故言凡有心
者有佛性成菩提 非石[132]壁瓦礫等也 故勸令自覺悟
心 若悟心本來淸淨名爲佛性 爾時不曾有柱[133]木等
法殊別 但約知不知明差別故 菩薩頭陀經云 照明
[21b] 菩薩 問心王菩薩云 觀煩惱性內度脫衆生 其相可
解 外法何 心王菩薩答云 內外法不異 雖復不異 要
先觀內 一煩惱淨 衆多法淨 何以故爾 內是外之根
衆生聖之源 得斯妙法 法度衆生 衆生無盡 佛身無
盡 衆生無邊 佛身無邊 衆生性卽是虛空 虛空卽是
98下 佛性也 故一家明之 佛性體以悟爲體 此悟悟一切
皆非而悟 是觀解心卽是內法 若爾何得言佛性非
內非外者 觀解是內 此△[134]非△[135] 故非內法 亦非外法

---

128) 有有 : 有 하나는 衍文으로 생각됨.
129) 顚 : 필사본들에는 巓.
130) <橫謂> : (續)에는 없음.
131) 斥 : (續)에는 片.
132) 石 : (京)에는 名.
133) 柱 : (續)에는 拄.
134) △ : 판독미상[佛-4].

故悟時不見內外生死涅槃凡聖有無解惑[136]二法 故
菩薩行般若時 一切皆非行 故心心數法不行爲行
[22a] 波若 波若卽是佛性 所以佛性法性法界如如 亦是
正道 更無二別也 第四廣料簡 有八 一辨宗途
二明證中道爲佛性體 三論尋經佛性名 四明
本始有義 五辨內外有無 六論見不見佛性
第七料簡 第八會敎[137]
第一辨宗途 三論一家 得辨涅槃義宗 故德王文 亦
可是具論佛性 而師子吼文正意乃顯 亦得言方具
足也 問 第二卷純陀品 正開宗辨常 可非涅槃義
耶 哀嘆品 明圓伊三點 豈非論涅槃耶 第三卷金剛
[22b] 身品 遣百非 非涅槃佛性耶 第四卷明顯納妃生子
等 皆是涅槃義 何意非涅槃義 又如來性品明佛性
佛性亦是中道 如來三轉明佛性 最後以中道結成
辨如來性 豈非是明佛性 而師子吼文方顯明佛性
具足 此文明涅槃義 恃[138]是於汝義便 故作此說也
99上 答 ⌈不然[139] 未悉經之大宗 故作此語也 前多文雖明涅
槃佛性 而來意各異 直是答問意 未是正釋涅槃佛
性等義 若玄悟之人 於乃足之 而文意宗途猶是未
足 彼問云何作善業果[140] 佛答由佛性故 能作善業 次
問云何諸菩薩非[141]見難見性 佛答明菩薩髣髴見 宣

135) △ : 판독미상[佛-4].
136)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37) 필사본들에는 다음에 한 줄을 띠우고 있음.
138) 恃 : 特의 誤字?
139) 然 : 필사본들에는 勝.
140) 果 : 필사본들에는 °표시를 하였음.
141) 非 : 能의 誤字?

[23a] 是答問而已 未是正解佛性義答言 玄悟之者[142)]亦得
此是了教 若論言方宗致 未具足也 下師子吼之明
義 正明體用有六問 一問言何名佛性 二問以何義
名佛性 三問何故復名常樂我淨 四問一切衆生何
故不見 五問菩薩住以何法故不了了見佛性 佛何
法故了了見 六問佛以何眼而得了了見 菩薩以何
眼見故不了了見耶 故如此解釋名義 乃是具[143)]足故
一家相傳云 △[144)]佛性師子吼文方具足也 純陀品舊
雖云開宗常辨 文意片[145)]破三脩比丘故辨常 非正宗
也 故大論釋大品如化品云 爲新發意菩薩 說涅槃
[23b] 是眞實善妙有也 此大經後迦葉品 亦云爲假名菩
薩 說常樂我淨 聞佛涅槃 謂空脩行故爲說四法 此
言合釋意也 前哀嘆品明三點四德涅槃義 而斥破
99下 昔|日無法涅槃意故來 何者 明三點涅槃 直是秘藏
義 對昔不具足明 今方具足明 昔解脫非究竟 今具
足解脫故 又此解脫無般若故也 今時明脩三點四
德究竟具足故來意也 故復嬰兒行品云 常樂我淨
亦是嬰兒行 菩薩二乘亦是嬰兒行 一切衆生亦如
是也 第三卷金剛身品 遣百非來意 酬前問 問云何
得及 復以何因緣得等 故意來 非正明中道[146)]佛性 亦
[24a] 是假上百非爲△[147)]也 故下文云 佛告迦葉 如來身者

---

142) 者 : (京)에는 若.
143) 具 : 필사본들에는 員.
144) △ : 판독미상[佛-4].
145) 片 : 斥의 誤字.
146) 道 : (續)에는 直.
147) △ : 판독미상[佛-5]. 絶?

是常住身 不可壞身 金剛之身等 卽是法身也 迦葉
問如佛所說 如是等身 我悉不見 唯見無常破壞身
等 何以故 如來今當入涅槃故 佛則擧百非答之 故
爲答問意故來也 第四卷雖明住涅槃能建大義 此
亦是答云何開微密等問云 三密中身密開秘藏義
昔所作並是涅槃方便用 未是正解涅槃義 故下文
佛嘆云 汝今欲盡如是大乘大涅槃海 汝復値我能
善解故 未是正解涅槃義也 問 師子吼品明佛性
爲第八卷明佛性幷師子吼明中道 如來性品亦明
[24b] 中道 若爲異 答 他家未見有釋之 今謂異也 故△[148]
100上 釋之 第八卷爲答作善業問也 明於佛性故始復非[149]
作善業 若不見佛性作善業 不成善業 此是空脩梵
行 如小般若經明 値八百四千萬億諸佛 悉承事無
空過者 猶是空脩梵行 至見燃燈佛散五華[150] 始得無
生忍 復行立可名是菩薩行 今答迦葉問意 亦能[151]見
佛性故非[152]作善業[153]也 次問意作善業猶[154]如佛者 云何
得見此難見之性 若爲作善業得見此難見性耶 卽
次答難見性 佛性力故得見 如彼文說 今師子吼文
中明佛性 正佛性體用因緣正義也 若迦葉品正明
[25a] 佛性 巧[155]方便用 如廿七賢聖等 又能滅惡生善 復非

---

148) △ : (續)에는 變. 필사본들은 판독미상[佛-6]. 내용상 廣으로 생각됨.
149) 非 : 能?
150) 華 : 필사본들에는 花.
151) 能 : (續)에는 勝이지만 필사본들에는 草書體의 能임.
152) 非 : 能?
153) 業 : 필사본들에는 葉.
154) 猶 : 필사본들에는 於로 적은 후 猶로 수정하였음.
155) 巧 : (續)에는 乃.

有善惡妙用 如善星調達羅睺阿難等人也 故一家
相傳云 師子吼品 正明平正中道義 經名涅槃 而具[156)]
論佛性 佛性卽是涅槃義 旣辨佛性 應云佛性品 而
從能[157)]論之人爲名 故言師子吼品也 故涅槃一部有
四大士 言論涅槃佛性正道 若爲異者 一家相傳云
初迦葉正論 因果常無常義 若德王正論 涅槃體用
常無常義 師子吼正論 佛性緣正[158)]
兩性常無常
[25b] 100下 義 下陳女[159)]卽論 生死涅槃常無常義 「故彼經云 捨無
常色 獲得常住之色 受想行識 亦復如是也 雖復具
辨常無常義 而常無常不同 雖復明因果佛性等 而
常無常不同 而用顯正道 更無異也 然純陀 雖〈復〉[160)]因戲[161)]
供爲開秘之端 及興[162)]文殊[163)]言論 而正意但明片[164)]倒更
相倒寫治病 明涅槃佛性正意未足 但爲開涅槃佛
性之緣由方便 卽是開路義也 今謂 五大士開說 涅
槃一部五種之異也 純陀興[165)]文殊[166)]共爲一大士 因獻
供爲開密[167)]之端 卽是因供 約有爲無爲常無常 倒寫

156) 具 : (京)에는 見.
157) 能 : 필사본들에는 非.
158) 필사본들에는 이 뒤에 '道 若爲異者 一家相傳云 初迦葉正論因果常無常義 若德王正論涅槃體用常無常義 師子吼正論佛性緣正'를 중복하여 적은 후 삭제하였음.
159) 女 : 내용상 如의 誤字임.
160) 復 : (續)에는 없음.
161) 戲 : 내용상 獻의 誤字임.
162) 興 : 與.
163) 殊 : 필사본들에는 珠.
164) 片 : 斥의 誤字.
165) 興 : 與.
166) 殊 : 필사본들에는 珠.
167) 密 : 필사본들에는 蜜.

更相治病 略開涅槃門 迦葉因問答 約常無常 廣開
[26a] 涅槃 德王約體用 明常無常方便脩成門 師子吼約不
思議中道佛性緣正常無常門 陳如約生死涅槃耶[168]
正不二常無常門也 大經疏中具說之 大經明百非
有三一[169]處說 一者金剛身品明法身 離四句百非一
切皆非 而假法身上論百非正意 望正法爲傍也 二
者第十九卷德王品明 離四句百非 亦是假上百非
爲正 正法爲傍也 三者師子吼品 明佛性 離四句百
非 正就中道正法法身涅槃佛性 同明正道不二 不
101上 二而二 故非因而因 因有二 一境界因 卽是二諦 二
了因 卽是觀智 觀智卽是般若 般若卽是二智 非果
[26b] 而果 果有別總 總而名別 爲菩提果 別而用總 涅槃
爲果果 此四明傍 傍而非傍 所以爲[170]正 故正因非因
非果 則應非體非不體而爲體者 以佛性義爲體 以
何爲佛性義 以佛性體爲義 此爲一密[171]也 而經言佛
性者 阿耨多羅三藐三菩提中道種子者 卽明中道
爲佛性種子 種子爲中道佛性 何者 如方便說空 以
有爲種子 說有 以空爲種子 今不二中道爲佛性 則
以中道爲佛性種子 故中非佛非[172]性 稱〈中道種子〉[173]爲佛性 故以
中道爲佛性種子 故說中道以爲佛性 故佛性爲中
道種子 說佛性以中道 故佛性爲中道種子 境智智

168) 耶 : 邪.
169) 一 : 衍文?
170) 爲 : 필사본들에는 而.
171) 密 : (續)과 (龍)에는 蜜.
172) 非 : (續)에는 없음.
173) <中道種子> : (續)에는 爲佛性 옆에 中道種子를 夾註로 적고 있음.

[27a] 境 緣正正緣 非如是等 皆得種子 處處說如假名義
也 又如非有非無 而稱佛果爲妙有 則此有以非有
非無爲種子 又非有非無而無 此無以非有非無爲
種子 有無旣爾 則非因非果 而因而果 則因果以非
因非果爲種子 故佛性或爲二因本 或[174]爲菩提涅槃
本 故今欲識佛性 則須識境智 達境智 則了佛性 唯
101下 佛性爲二因二果爲本也 但立佛性少多不同 古來
河西朗法師壹法師云 立四種 一正目[175] 二緣因 三果
性 四果[176]果性 莊嚴法師等又同此說也 二治
城索[177]法師 亦立四種性 而興[178]前異 謂三因一果 三因
[27b] 者 一正因 二緣因 三境界因也 一果者 卽是三因所
得一果也 以因有境智差別故 開爲三也 果唯一相
故但爲一也 其文證者 引下答師子吼問 因開爲三
果唯一故有四性 若引師子吼文中 因興[179]因因者 此
自別[180]明十二因緣 有資發義 非是制性之少多 此文
別立果果者 則依此文 亦別立有因因是其異義 其
體卽了因者 我亦果果是異義者 其體卽果性也 三
制旨義有六種佛性 謂三果二果 及興[181]本有佛性正
因也 五性可明 而別有本性者 正因也 引如來性品
云 我者卽是如來藏義 一切衆生有此佛性 卽是我

---

174) 或 : (續)에는 成.
175) 目 : 因의 誤字임.
176) 果 : 필사본들에는 뒤에 '性四果'를 중복하여 적은 후 삭제하였음.
177) 索 : 素의 誤字임.
178) 興 : 與의 誤字임.
179) 興 : 與의 誤字임.
180) 別 : (續)에는 引.
181) 興 : 與의 誤字임.

[28a] 義故 立有六種佛性也 四云立五種性 一正因 二了
因 三緣因 四果 五果果性 諸師多同此說也 五開善
云 廣論因果 共有四名 各有四名也 共有四名者 一
因 二因因 三果 四果果也 各有四名者 因四者 一正
102上 因 二緣因 三了因 四境界因也 果四者 一三菩提 二
涅槃 三第一義空 四智慧也 直名因者 謂十二因緣
因緣之體 唯觀智作因無所有 更因故單受因名也
因因者 謂觀智心 是了因體 以因前境 復爲三菩提
因故 受重因稱也 果者以三菩提 衆因所得 前來有
果 宜單受果名也 果果者 謂大涅槃 此是斷德 不由
[28b] 斷得智 而由智故斷 卽涅槃義 是果果果[182] 故重名果
果也 因有四者 三是經有之 境界之[183]有 相傳師說 何
者 尋因義 唯應緣正二種 而今因性乃有四者 緣因
義 則廣觀智境者 束爲緣因 此之緣因故是緣緣之
義 故境界因名 經文無也 直是先輩諸師釋緣因 謂
諸法體義 爲心作境界緣 了非境界 異緣因也 正因
者 謂心 是覺知 非[184]招大覺 炁[185]類無差 至當無偏故 名
爲正因也 緣因者 善及衆義助發正因 傍相緣由 故
曰緣因 若因無二則招果不成 故緣正二種明其必
用 若[186]果無二則智斷不圓 便非超果表 無足可慕 故
[29a] 明三菩提顯智周滿 次提涅槃滅累都盡 故因果各
二 以明理勝可得 故開佛之性略有四 謂因與[187]果 各

---

182) 果果果 : 필사본들에는 果々果. 果之果의 誤字로 생각됨.
183) 之 : 필사본들에는 也로 적은 후 之로 수정하였음.
184) 非 : 能의 誤字?
185) 炁 : (續)에는 氣.
186) 若 : (續)과 (龍)에는 苦.

102下 有其二 因二者 一正因 二緣因 果二者 一智 二斷也
此是智藏法師 自手[188]書佛性義作此說也 問 何故
因中而名正緣 不作因[189]輿[190]因因名說 及論於果 便言
果輿[191]果果 不作正果緣果說耶 答 龍光傳開善釋
通論盡得 故大經師子吼文云 佛性者 有因有因因
有果有果果 而今不作此立名 爲有便不便 心識望
於種智 是因炁[192]類 正相感[193]召 故宜立受正名 萬善但
是相緣由而已 故受緣名 及論[194]果體 並是正酬前因
[29b] 故不得言正果緣果 但立智斷兩德 體雖一時 義其
前後 要是由智故〈斷〉 不由〈斷〉故智 所以智受果 斷稱果果
其義便也 三義取捨者 若便因中 以神明爲正因 善
爲了因 所以緣爲境界者 對而爲語 果上亦得有三
果 佛地神明 此爲正果 果地之善 此爲了果 果上有
生心之義 卽境界果 而今因立三 果地不然者 開善
釋云 因中神明是得佛之本 故宜立爲正因 而必藉
萬善方現 故須立善爲了因 善心由境發 故復立境
界 乃至果中三義非要 所以然者 心通因果未足爲
103上 德 果地不須了出 又果[195]之境義 非學者所求 故並不
[30a] 分立 但就善中 不出智慧涅槃 以智慧故無明永滅
涅槃極果 故生死報已 旣果中要不出斯兩 故卽立

187) 輿 : 與의 誤字임.
188) 手 : 필사본들에는 午.
189) 因 : 필사본들에는 同.
190) 輿 : 與의 誤字임.
191) 輿 : 與의 誤字임.
192) 炁 : (續)에는 無, 필사본들에는 炁로 적은 후 無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炁(=氣)가 맞음.
193) 感 : (續)에는 滅.
194) 論 : (續)에는 證.
195) 又果 : 필사본들에는 두 글자 앞에 °를 표시하였음.

爲二性 以智爲果 涅槃爲果果也 又不例者 在因之
時 先有於心 後方習善 故前善心已是正因 後善方
爲了因 若論果地起之時 卽心卽善[196] 無善心後善之
義故 不可分爲兩果也 問 旣不立果上之境 爲境
界果 今此義定屬何性 若便屬境界因 則了因所不
照 云何是境界 若言屬果性 則果中復無其名也
答 開善云 屬果無嫌 以因中智不知[197] 不可是境界因
攝 而佛果之知 此能反照 卽境是智 宜屬果性也
[30b] 名之與奪[198]者 前言心是正因 善是了因 然無心不得
佛果 無善亦不得佛 而今心名正因者 心爲得佛之
本 善爲得佛之末 所以然者 昔時有心未起於善 然
得佛之理 其義爲足 非是待後起善方此理生 故兩
法相比 心宜名正因也 又無心果不生 無善果不起
而今善名了因者 有二義 一者以了因之能 本是斷
或[199]顯果 心非別慧 無斷惑之功 善知非[200]斷 故宜名了
103下 因也 二者了因爲用 本是始起 而了昔有法 若[201]論神
明 興[202]佛理本來俱有 何所論了 故復起善法得言了
昔神明也 且神明卽是了因還用 後經師子吼文言
[31a] 若乳中有酪□是了因 若是了因復何須了也 境界
因名者 從了因而立 所以然者 正因之心 不明習學
故無勞說境 了因旣明脩習 必託境而生 故境界名

196) 善 : 필사본들에는 是로 적은 후 善으로 수정하였음.
197) 知 : 필사본들에는 智.
198) 與奪 : (續)에는 興奢.
199) 或 : 惑의 誤字임.
200) 非 : 能의 誤字로 생각됨.
201) 若 : (京)에는 答.
202) 興 : 與의 誤字.

從了因而立 果興[203]果果 卽是智斷 △[204]義有前後 故設[205]
此二名 自此[206]所亂也 今謂 此師亦是一往好 但不離[207]
斷常心 何者 多因多果 並是體義俱有處所故 成有
所得 雖然而無所得義 橫論欲作此說亦得 但未必
就智斷明明 約總別方圓論之 不無此說 斷德蘊在
其中也 今謂 開佛性只應二性也 一正二緣 非因果
名爲正 是因果卽是緣 是故緣正兩性也 但就緣性
[31b] 更開立因果 就正因卽成三也 復緣因中更開因與
因因 緣果中更開果與果果 此則緣中有四 足正因
則成五性 然緣中雖有四句 開於緣正 以因果爲緣
成因果之名 則定也 因中不得安果名 果中不得安
因名 是故雖無差別 而因中開 但作因興[208]因因 果中
104上 開 但作果與果果之目 此是因緣方假明故也 今明
一往正法佛性 是正因性 若至論明之 佛性不當因
果 而能起因果用 故非因非果 爲正法佛性而非[209]生
徧用 徧用故有因布[210]果 非因而因 因布[211]二 謂因興[212]因
因 非果而果 果有二種 謂果興[213]果果 非因而因 因有
[32a] 二種 謂因是卽境界 因因卽是觀智也 非果而果 果

---

203) 興 : 與의 誤字.
204) △ : 판독미상[佛-7]. 旣로 생각됨. 필사본들에는 우측에 '旣乎說乎'라는 夾註가 있음.
205) 設 : (續)에는 說.
206) 此 : 無의 誤字?
207) 離 : 필사본들에는 雖.
208) 興 : 與.
209) 非 : 能?
210) 布 : 有의 誤字.
211) 布 : 有의 誤字.
212) 興 : 與.
213) 興 : 與의 誤字.

有二種 果興[214]果果 果卽是菩提 果果卽是大涅槃 兩
因爲傍 二果爲傍 是[215]傍而正 正故非因非果也 故華
嚴經云 十方諸如來 因共一法身 卽是正法法身也
又經寶王如來性起品 實慧如來性起品[216]云 佛性非
爲因果體 卽是佛性非因非果 而能爲因果等用也
大師于時直云 非因非果爲正性正法 佛性若非因
非果 結[217]爲正因 則將因怗[218]正 謂爲正因也 問 非因
非果結[219]爲心[220]因 亦應非果非因結[221]爲正果 便應有六
種佛性 何止[222]五佛性耶 答 通論因果有五種 正因
[32b] 對傍明五種性 正果對傍亦〈應〉有五 故明因必對果爲
傍 明果必對因亦爲傍 傍正得有五 而今爲五[223]
104下 種佛性者 明佛性本不二 正道正法無二故 所以爲
一 故開傍正爲二有因果 果有二果 因有二因 故傍
因傍果 因布[224]因因 果有果果 爲四 四爲傍 傍而爲正
則非因非果 不被開故 唯是一故 成五佛性 又非因
非果 所以爲因者[225] 結[226]獨無二故而建立用[227]故 得以正
因而不得更明於果 又佛性明珠一道淸淨 無有二

---

214) 興 : 與의 誤字.
215) 是 : 필사본들에는 果.
216) 實慧如來性起品 : 衍文임.
217) 結 : 詺?
218) 怗 : 미상.
219) 結 : 詺?
220) 心 : 내용상 正의 誤字로 생각됨.
221) 結 : 詺?
222) 止 : (續)에는 心.
223) 五 : 필사본들에는 五와 種 사이에 두 칸의 빈칸을 두고 세로 줄 (|)을 긋고 있음.
224) 布 : 有의 이체자의 誤讀임.
225) 者 : (續)에는 此.
226) 結 : 詺?
227) 用 : (續)에는 因.

故 在因爲因 在果爲果 今正因不明正果 正因本不
對果故 何者 正因正果無別法 故大品三慧品云 波[228)]
[33a] 若波羅蜜 無色無形〈無〉對一相 所謂無相也 而性怗[229)]爲
正 故非因非果 所以爲正因 故明佛性 不明性佛 故
唯一不二也 又兩望明之 得有因果義 而同是一道
無有二故 唯五非六 若開緣因境界因 得爲六性 而
合明故五也 故一家言方 開性五種佛性者 若論根
本 但有緣正兩性 卽是中假緣正者 只是傍正相對
明之 正性者 正法之異因 正道之別名 正法未曾因
之興[230)]果 未曾眞之與俗 而於無名相中假名說 非因
果中 開於因果 因則緣因 果則緣果 卽成三性 一緣
因[231)]性 二緣果性 三非因非果正性 若爾本是一正性
[33b] 105上 開爲緣正兩性 開爲三性 興[232)]四性五性 合|則五成四
四成三 三成二 二成一 一成爲無也 問 一性無量
性與五性何異 答 異也 一性無量性 是則差別無
差別語 亦可一性無差別語 無量性差別語也 五性
則無差別〈差別〉語也 問 五性中正性因怗[233)]名正因 果怗[234)]
名正果 應有七種六種 若言正因果無別體故 成五
性者 亦應言正果 不應爲正因 若不爾者 則成七六
種也 答 亦得正果 而今立正因 不明正果者 正明
從涅槃船入生死 無性[235)]立一切法義明之 故正因不

---

228) 波 : (續)에는 彼.
229) 怗 : 미상. (續)에는 帖.
230) 興 : 與의 誤字.
231) 因 : (續)에는 同.
232) 興 : 與의 誤字.
233) 怗 : 미상.
234) 怗 : 미상.

正果也 故正性非因非果 因怗[236]△[237]名正因 則無果亦

[34a] 無因 故非因果 若果名怗[238]△[239]名正果 則此因亦無果

故非因果 唯有五性 無七六性也 問 可得言正性

中 有正因此[240]正果 有正果無正因者 緣性中 有緣因

無緣果 有緣果無緣因 若緣因對緣果 則正因對正

果 遂成七六性 若正因此[241]正果 緣因無緣果[242] 不對 唯

有三種性 若對則有六七性也 答 非並難 如前說

正性只是强假名 諂正法正道正性正因果等無量

名 猶如大經卅一卷云 天主隨義作名十一 一名[243]帝

105下 釋[244] 二名憍尸迦 三名婆嗟婆 此云爲好嚴餝色心好

莊嚴好功德智眞嚴餝也[245] 四富蘭陀 此云爲調伏諸

[34b] 根也 五佉婆 此云身無勝也 六因陀羅 此云光明具

足也 七千眼 實是二眼 但釋不同 一云共修羅戰時

能[246]作千眼 令怖修羅也 二云[247]天主能[248]於一時中作[249]一

千事 如千眼見 八舍脂 夫從婦作名 舍脂此爲悅可

言也 九金剛者 有二義 一云形體堅固 如金剛 二云

---

235) 性 : (京)에는 往, (龍)에는 [亻*生].
236) 怗 : (續)에는 帖.
237) △ : 판독미상[佛-8]. 結? 諂?
238) 怗 : (續)에는 帖.
239) △ : 판독미상[佛-8]. 結? 諂?
240) 此 : 내용상 無의 誤字로 생각됨.
241) 此 : 내용상 無의 誤字임.
242) 果 : (京)에는 集.
243) 名 : (京)에는 君.
244) 釋 : (京)에는 料.
245) 也 : 필사본들에는 者
246) 能 : 필사본들에는 非.
247) 二云 : (續)에는 云二.
248) 能 : 필사본들에는 非.
249) 作 : 필사본들에는 非.

手執金剛杵也 十寶頂 智慧之衆寶之上故寶頂 十
一寶幢 內有智慧之寶 非[250]有所建立義也 又如涅槃
一名隨義無量也 今開五性者 取異名之正因名 足
緣性中[251]四種 爲五性四性差別 差別名故不得如帝
釋多名也 問 正性非因果 結爲正因 因名起何處
[35a] 結名果 果名起何處 答 明正性非因非果 非對非
不[252]對 百非不能非 百是不能是 是非所不是非也
緣性不得例 緣性有淺深差別義故 有因果相對起
正因假令對 則無對爲對 如眞俗相因起 眞如對虛
妄相由也 佛性隱卽名如來藏 顯則名法身 如此名[253]
隱名爲正因 顯名爲正果 此則迷悟也 望理外明之
106上 如此義 緣正二因 並隱悉顯 非正因緣因宗也 今論
緣正二義 如中假體用 並△[254]理內明也 須知正法建
立 緣因緣果義名爲正因 若緣因緣果則名爲緣果
又此緣果能表正因義 則正因義說正果 只此一正
[35b] 法 能建義是正因 所表義是正果 一正法兩望明之
復緣因緣果 望正因而立 卽是緣果 此緣果復能表
正因義 名爲緣因也 就緣〈因緣〉果自相望 萬行能辨萬果
義 亦是緣因 萬德酬萬行義 亦是緣果義 但正因正
果緣因緣果 竪論是正宗 萬行萬德相望 是傍義非
正宗 但欲成四句 故正因隱時名爲正因 顯時名爲
正果 一正法兩義分之 亦有此義 而緣因因果開兩

---

250) 非 :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251) 中 : (京)에는 十.
252) (龍)에는 不과 對 사이에 글자를 적었다 지웠고, (京)에는 빈칸을 두었음.
253) 名 : 필사본들에는 °를 표시하였음. 衍文?
254) △ : 판독미상[佛-9]. 형태와 내용상 就로 생각됨.

法二義論之 正因因果一法一體 兩望明之 故唯立
五性 不開六性也 緣因果興[255]正因果 如中假體用能
所一列 若四性的[256] 約假上開之 故不例 隱顯義 望理
[36a] 外爲宗明也 望理外者 緣正兩因果 並有隱顯也 但
藏有二義 一是隱未顯爲義 二是苞含蘊爲藏也
第二明證中道爲佛性體 問 前出體中 據大經四
文證中道爲體 爲一意 爲異耶 答 通論不異 細而
106下 論之 不無體用殊別 何者 前兩後一 正明佛性用 中
間一文 正明佛性體 所以然哀嘆品意失瑠璃珠譬
正況失佛性 故云乘船遊失瑠璃沒深水中 是時人
入水覓是寶珠 競[257]提瓦礫等 歡喜持出 乃知不眞 是
時大衆見珠在水下 時有智人 以巧方便 安徐[258]入水
卽便得珠 此明得失義 以三脩比丘所脩三品爲觀
[36b] 有所得 動於心水故 失中道正觀圓珠佛性 而謂爲
得 以失道謂是[259]道也 時有智人 卽是菩薩正觀 不動
心水 得佛性珠 以四句無可爲動者 故云不動心水
得圓珠也 故佛性卽是衆生心水 得失爲二 故經云
菩薩未得菩提時 菩提爲煩惱 菩薩得菩提時 煩惱
爲菩提 此得失亦是隱顯 佛性之體 此亦緣有得失
至論佛性不關得失 雖然此文終時 正欲辨得失義
此亦不異如來性品 如來性品亦爾 諸譬正論隱顯
義 故經云 其餘力士 角力相撲 是額上珠尋沒膚中

255) 興 : 與의 誤字.
256) 的 : 明?
257) 競 : (續)에는 [(立立)/見].
258) 徐 : (龍)에는 俆, (京)에는 侌.
259) 是 : 得?

不自覺知是珠所在 此卽是失時 明醫執鏡照面 珠
[37a] 於鏡中明了顯現 乃至以雪山甘藥爲譬 是藥眞味
停留在山 隨其流處有種種味 以心水淸淨故 得於
107上 佛性|眞味 故此眞味在不二正觀之心 但失人種種
謂爲佛性 故使佛性上味不得知 故知前十家所明佛
性 豈非是謂情所見說 故有諸味不同也 此品答
云何作善業大佛 今當說問 以因佛性作善業則爲
佛因 而失佛性行善故非佛因 若爾流出義則失佛
性 故流轉六道非作因 得眞味則入內佛性不流出
方能作善業爲佛因 此品正論佛性得失義成 以斥
三脩比丘所行 失於正道謂爲260)道 故以醉人譬 譬於
[37b] 比丘也 又訶云 未求大乘法食來 爲大乘除諸結使
心猶未染大乘正法 卽是付例故說 至論佛性淸淨
稱圓珠也 師子吼品 正論佛性體 如後廣釋也 迦葉
品明佛性用 卽是善惡用也 如調達善星惡用 羅睺
阿難善用 故廣明善惡 善惡人有佛性 佛性非善惡
故 能善惡二用也 然實論 明用四處文同辨用 論體
四處皆明體 一往從多明之作之分也 然261)哀歎品 舊
云琉璃珠譬 譬於常住果 故言此珠是常住果珠也
今謂 正明佛性之常無常 有方便用無方便得失義
故今謂 此珠非常非無常 非因非果 中道珠也 而今
[38a] 衆生|深識常無常用 故文言以珠力故水皆澄淨 卽
107下 是以珠制常無常也 如來性品 作善業 乃善反262)惡用

260) 謂爲 : 필사본들에는 故以.
261) 然 : (續)에는 勝. 필사본들에는 然의 草書體.
262) 善反 : 필사본들에는 두 글자에 °를 표시하였음. 反은 及의 誤字?

也 亦是擧珠爲譬云 其人眉間有金剛珠 旣在眉之
中間 卽譬中道 又言此珠在水如虛空月 形[263]端正 譬
中道 此徧虛空 亦是非有非無 故得云譬中道兩捨
也 問 旣言非常非無常 經文何故言是常耶 答
只爲體非常非無常 所以識常無常 此常是非常 此
無常是非無常 乃至無苦無樂 乃名大樂也 正意由
佛性力故 得作善業故 答上云何作善業問也 師子
吼品正明佛性體之非因非果也 迦葉品明能〈作〉善惡
[38b] 業用 而明佛性之力 故能生善根 故文言闡提斷善
根 遂得還生善根 卽是由佛性力故也 故一家相傳
云 從多約經時之 涅槃上帙 正斥昔明義爲宗 未得
任[264]道論佛性 中下兩帙 正明佛性也 師子吼品第卄
五卷 具明佛性禮[265] 答師子吼問云 汝問云爲何佛性
者 善男子佛性名第一義空 空名爲智慧 所言空者
不見空與不空 智者見空興[266]不空 廣歷諸法 明空不
空我無我等 斥[267]二乘人 二乘人但見空不見不空 故
108上 不行中道 無中道故 不見佛性[268] 此卽二乘不見佛性 佛
性卽於此人是無佛性也 以無所得知人 見空〈是〉不
[39a] 空 不空是空故 行中道 行中道故 卽見佛性也 但解
第一義空 名智慧義 開善云 第一義空 則佛果之時
興[269]法性實[270]一 故大經大衆問品偈言[271] 若非[272]計[273]三寶 常

---

263) 形 : 取?
264) 任 : 필사본(京)에는 住.
265) 禮 : 體의 誤字.
266) 興 : 與의 誤字.
267) 斥 : (續)에는 行.
268) 性 : (京)에는 住.
269) 興 : 與의 誤字.

住同眞諦[274]也 下地諸智 但非[275]會不賔[276] 如來非[277]會非[278]賔

如從境爲名目 言第一義空也 言智慧者 明此則眞

不同草木 雖復卽眞而至忘彌存 故言智慧也 此師

終是二見之徒 故作此說 智不智作不作異[279] 故落被

見也 今云第一義空 名爲智慧者 此無所得空 卽智

爲空 卽空爲智 卽是亦假亦假[280]亦中義也 故所言空

者 不見空興[281]不空 則此明空是非空非不空 而有空

[39b] 不空用故 智人達此空不空 是非空非不空 得有空

不空用 我無我等皆然 二乘不了 故不見空不空 對

此爲言 亦應云不見智興[282]不智 則非空不空 爲第一

義空 則非智不智故 爲第一義智故 以空爲智 何得

是智 以智爲空 何得爲空 故非空非智爲第一義空

爲佛性 爲中道第一義空爲佛性 耶[283]中道爲佛性種

108下 子 |卽種子爲中道也 智者則不動一切[284]者 不見空與不

空以爲智者 又旣言見空與不空 卽得言以不見空

與不空 卽非空非不空 而有空不空用 故以非空非

---

270) 賔 : 冥?

271) 賔 : 冥?

272) 非 : 能의 誤字임.

273) 計 : 필사본들에는 對.

274) 『涅槃經』一切大衆所問品 "若能計三寶 常住同眞諦 此則是諸佛 最上之誓願" (大正藏12, 425a)

275) 非 :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276) 賔 : 冥?

277) 非 :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278) 非 :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279) 異 : (續)에는 實.

280) 亦假 : 衍文으로 생각됨.

281) 興 : 與의 誤字.

282) 興 : 與의 誤字.

283) 耶 : 미상. 卽의 誤字로 생각됨.

284) 動一切 : (續)에는 動切, 필사본들에는 勳切인데 '動一切'의 誤讀으로 생각된다.

不空 故非[285]見空不空 而空以空[286]不空不空空故 有非

[40a] 空非不空 因非〈空非〉故[287]不空故 非[288]見空不空 假名我無我

等也 諸佛[289]亦然[290] 以佛性爲本 故法界法性眞如般若

涅槃辨分因果等也 故經明正法 體非不有用 明[291]非

不有體 而必須得意逐義强分 故有所屬 故有不二

而二也 言又會[292]佛性涅槃法身 此不異 故經中說此

三種 以明百非 百非卽是中道不二之體 但此體[293]非

禮[294] 故體乃是用 故體所以百是之[295]用 此用非用 故用

乃體故用也 開善云 經言阿耨多羅三藐三菩提 此

土飜云 無上正遍知道 此興[296]智慧辨義是一 故大經

言 智者見空興[297]不空 至如遍知 亦有亦無悉了 但擧

[40b] 智慧對第一義空 爲明智體 本來無相 說無上正遍

知 以對涅槃 爲讚智功圓極 除[298]累都盡 顯智斷二德

爲飜生死之要 然實[299]云 果中諸德 悉名爲佛性 故經

109上 言如來藏者 卽我義也 今謂 橫論相對明義名字|中

亦有此義 但斷德爲大涅槃者 太涉 如涅槃義中說

---

285) 非 :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286) 以空 : 필사본들에는 두 글자에 °를 표시하였다. 衍文으로 생각된다.
287) 故 : 衍文.
288) 非 : 내용상 能의 誤字로 생각됨.
289) 佛 : 필사본들에는 '法イ'라고 夾註를 붙여 法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290) 然 : 필사본들에는 勝.
291) 明 : 用의 誤字로 생각됨.
292) 會 : (續)에는 念.
293) 體 : 필사본들에는 禮.
294) 禮 : 體의 誤字.
295) 之 : (續)에는 文.
296) 興 : 與의 誤字.
297) 興 : 與의 誤字.
298) 除 : (續)에는 餘.
299) 實 : (續)에는 賓.

也 又一家約經相待門 明車輪三世車輪四句也 大
經從初至德王已還 通論一切衆生悉有佛性 而未
明其少多 至師子吼品 明佛性有兩種四句[300] 初四句
云 因興[301]因因 果與果果也 次四句云 是因非果 是果
非因 亦因亦果 非因非果也 師子吼品云 十二因緣
[41a] 是因亦因因 是果亦果果 無論二因五果三因二果
牙[302]相生 故是車輪 無明當體是因 而[303]生行因 故言因
因 識是果而說[304]行果生 故識是果果 故言彼無明體
亦因亦因因 識亦果亦果果 生緣老死 老死緣生亦
然 故是知現在五果 只如未來生老死 欲知過去二
因 只如現在愛取有 故因能生果 果已復是遠因爲
車輪故 無明爲因 而非[305]生行因 故無明得因因名 行是
無明果 非[306]生識果故得果果名 於識果中有爲因 得
生老果 於生老[307]死更爲因 此是車輪 名則觀智生菩
提 菩提生涅槃爲果果 則於涅槃果果 更應有因 卽
[41b] 十二因緣 十二因緣生觀智 觀智生菩提 則車輪此[308]
109下 始終義也 佛性亦有因有因因 有果有果果 因者 所謂十
二因緣也 因因者 所謂十二因緣所生觀智也 果者
所謂三菩提也 果果者 無上大涅槃也 今十二因緣
爲境界因 此明八不爲因緣故 十二因緣義不生不

300) 句 : (京)에는 白.
301) 興 : 與의 誤字.
302) 牙 : 互의 誤字.
303) 而 : 필사본들에는 非. 能의 誤字?
304) 說 : 旣의 誤字로 생각됨.
305) 非 : (續)에는 生. 能의 誤字로 생각됨.
306) 非 : (續)에는 而. 能의 誤字로 생각됨.
307) 老 : (續)에는 死.
308) 此 : 無의 誤字임.

滅不常不斷不一不異不來不出 具中論說 菩薩坐道
場時 觀十二因緣不生不滅如虛空 此爲境界因性
能生觀智 觀智從境界因生爲因因 隨從境界因生
爲果 而望菩提 爲了因 出菩提果故言因 菩提爲觀
智所生爲果 菩提果上說大涅槃 涅槃爲果果 此四
[42a] 句車輪 未明正因 又次經云四句者 是因非果 如佛
性 是果非因 如大涅槃 亦因亦果 如十二因緣所生
觀智 是三句未正明正因也 第一句境界因性也 第
二句明果果性也 第三句明觀智者解不同[309] 一云是
了因性 了因從前因生 是復能生爲菩提果 還是因
故 言亦因亦果也 二今謂 亦因是了因 亦果是果性
因果雖殊 而同是智慧故 又攝性盡故也 第四句云
非因非果 名爲佛性者 正因性也 若爾因則境界性
因因則是觀智 雖有兩性並是因門 果則菩提智性
110上 果果卽是大涅槃 揔[310]億[311]或可是斷德 雖有二性 並是
[42b] 果門也 因中判境智 果中判智斷也 開善云因果更
非異法 若本有是常果 非始造非終成 故非生非滅
此常果爲本有 而於[312]必得故在因中說 說因爲果 果
在因中 故衆生佛性住五陰中 而無別一法 通[313]因果
卽是因望果 果在因中 但彼[314]執因中定無 故說本有
破定執有 故說因中無也 如衆生佛性 非有非無 亦

---

309) 同 : (續)에는 因.
310) 揔 : (續)에는 [扌*怱].
311) 億 : 미상. 德의 誤字?
312) 於 : 미상. 終의 誤字?
313) 通 : (續)과 (京)에는 道.
314) 彼 : 내용상 破의 誤字임.

無別性 非因非果亦爾 何者 〈在〉因說佛 非已是佛 在果
說有 非始是有 則因中已說佛性 故涅槃之體本自
有之 非適今也 如初德王說也 今大乘意 非因非果
佛性者 此始明正性 足前三句 成四句 爲五種佛性
[43a] 也 非因非果者 非因非向者 境界興[315]觀[316]智兩因也 非
果非向者 菩提興[317]涅槃兩果也 此論正法不當因果
明因取正 名爲正因[318] 明果取正 名爲正果 論佛性正
不當因果 論佛性體 則第一義空 名爲[319]智慧 所言空
者 不見空興[320]不空 智者見空興[321]不空 廣歷諸法我無
我等 用此片[322]二乘有所得 但見空不見不空 不行中
道 故不見佛性 則智[323]佛性 何但不當因果 而爲因果
110下 本 亦不當空不空 而能爲空不空本 故能起空不空
乃至不當我無我 能爲我無我等用作本也 問 何
故就正因[324]明中道 不約餘四 明中道耶 答 通而論
[43b] 之皆有之 故一家明義 用中興[325]體中也 而四是中道
用 用則用正爲體 故四是非正中也 前云是果非因
如大涅槃 此據始終爲論 復言涅槃爲因 此據無始
終義 果還復爲因 始終無始終 並是中道之用 假名

315) 興 : 與.
316) 觀 : 필사본들에는 歡.
317) 興 : 與.
318) 因 : (續)에는 同.
319) 爲 : 필사본들에는 芍.
320) 興 : 與.
321) 興 : 與.
322) 片 : 斥.
323) 智 : 知.
324) 因 : (續)에는 同.
325) 興 : 與.

中道義也 問 大經云 十二因緣不斷不常 乃至不因
不果 是何性 答 亦可是正因性也 問 正因非因果
而怗[326]爲正因者 緣性可得言怙[327]爲因果耶 答 是因
果 何須沾[328]之 正立假體故 問 若緣性不須怗[329] 正因
可怗[330]者 正因是中 緣因非中 若緣正俱是中者 緣正
俱怗[331] 答 望理外性實者 亦有此義 俱[332]理內中立中
[44a] 假 假則是因果 中則非因果 强怗[333]爲正因正果也 問
正因[334]非因非果 怗[335]爲因果者 緣因是因是果 亦應怗[336]
爲非因非果 若緣因是因果故 不得怗非因非果者
正因非因果 亦不得怗[337]爲因果也 答 從淺向深 故
不例 若無方通義 亦有此義 但從假[338]入中 不例也
111上 第三尋推佛性名

顯慶三年歲次戊午十二月六日興輪寺學問僧
法安爲大皇帝及內殿故敬奉義章也[339]

---

326) 怗 : (續)에는 帖, 필사본들에는 怗. 詀?
327) 怙 : (京)에는 語. 詀?
328) 沾 : 미상.
329) 怗 : 미상.
330) 怗 : 미상.
331) 怗 : 미상.
332) 俱 : 필사본들에는 但.
333) 怗 : 미상.
334) 因 : (續)에는 同.
335) 怗 : 미상.
336) 怗 : 미상.
337) 怗 : 미상.
338) 假 : 필사본들에는 僞.
339) (續)에는 뒤에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七'의 卷次가 있음.

◉大乘四論玄義記

佛性義

下

일•러•두•기

1. 이 <佛性義(下)>의 교감본은 2종의 필사본 (京都大學소장본과 龍谷大學소장본)과 續藏經本을 비교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2. 세 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비교적 원본에 가깝게 본문을 재구성하고 각 본의 차이를 注에 제시하였다. (京)은 京都大學소장본, (龍)은 龍谷大學소장본, (續)은 續藏經本을 가리킨다.
3. 丈과 行은 필사본에 의거하였다. 필사본의 전면(우측면)을 a, 뒷면(좌측면)을 b로 표시하였다. 즉, 1a는 첫 번째 丈의 우측면, 1b는 첫 번째 丈의 좌측면이다. 대조를 위하여 續藏經本의 페이지와 시작 부분도 아울러 표시하였다.
4. 일부 한자는 편의상 異體字나 略字를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바꾸어 활자화하였다. (예 : サ卄→菩薩, 為→爲, 即→卽, 既→旣 真→眞, 擧→擧, 関·開→關, 咲→笑, 躰→體, 导→碍, 踈→疏, 尒→爾, 弥→彌, 无→無, 称·秤→稱, 応→應, 仏→應, 与→與, 尽→盡, 旧→舊, 号→號 등)
5. 行 사이에 추가로 적은 글자는 < > 안에 집어넣었다.
6. 결락된 글자는 ㅁ로,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1a] [1]經說佛性不同 大經師子吼品云 首楞嚴三昧 有五
種名 一首楞嚴三昧 二般若波羅蜜 三金剛三昧 四
師子吼三昧 五佛性 隨所在處處得名 如一三昧得
種種名禪 名四禪根 名定力 名定覺 名定正定等也
又聖行品云 如來卽是虛空佛性 虛空佛性卽是如
來 此三法 四句不可得 不生不滅 不靑不黃等故也
尋□□□□旣云 佛性如虛空者 涅槃般若 皆如虛
空 不如成實論等師云 大虛之空理有此空世諦法
都似外道所計五是常 卽是百論所破也 今謂 虛空
離四句百非 故中論六種品云 虛空非有亦非無等

[1b] 111下 □離[2]四句爲虛空 空只如空故 空有並離四句 所以
經云 形遍十方而不動 言滿十方而無所說 故淨名
杜口義 非是不口 不言名爲杜口也 故大經云 若知
如來常不說法 是菩薩具足多聞也 哀嘆品 如來性
品 德王品 師子吼品 迦葉等品 所明[3]佛性 具如前說
華[4]嚴經寶王如來性起品云 從寶王如來性起 諸佛
如來以此爲性 非因非果 而非[5]起因果等 又初發心
品云 菩薩初發心不斷三世諸佛性也 七卷[6]金光明
經云 眞實說如來性如來藏也 夫人經云 如來藏爲
生死作依持建立 卽是佛性也 第四明本有始[7]有

1) (續)에는 제일 앞 줄에'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八'의 卷次가 있지만 필사본들에는 없음. 필사본들은 <佛性義(上)>과 한 책으로 편집되어 있음.
2) 離 : (續)에는 難. 필사본들에는 離 앞에 한 글자의 빈칸을 두었음.
3) 明 : (京)에는 用.
4) 華 : 필사본들에는 花.
5) 非 : 能?
6) 卷 : (續)에는 局. 卷의 이체자의 誤讀임.
7) 始 : 필사본들에는 妃.

[2a] 義 諸師說不同 一云本有佛性 則無生無滅故本
來是常 非[8]始造 非終成也 故經云 本自有之 非適今
也 力士額珠 菩薩[9]中七寶 闇室瓶瓮已有 經文甚多 故
衆生身已有佛性也 但解本有兩家 一云 本有於當
謂衆生本來必有 當成佛之理 非今始有成佛之義
成實論師宗也 二云 本有藏識心性之體也 但客塵
煩惱隱覆此心 不顯不照 若除煩惱 本有之心顯了
112上 照用 爾時名佛 不以成佛時方⌈名佛性 正以本有藏
心 今顯成佛 其本性不改不失 故名常住佛性也 故
彼云息忘顯眞 正是地攝等論所執也 此說大經第
[2b] 卅三迦葉品中 佛已破之云 若有人言 一切衆生定
佛性常樂我淨 不作不生 煩惱因緣故不可見 當知
是人謗佛法僧也 又大品經第十一隨喜品 問彌
勒菩薩云 未來有當果脩行得 汝所念得此果不 菩薩答云
不得也 二始[10]有義 開善果體生不生義云 尋佛性本
有必得義故本有 而本時是未得 得時是始得 實是
生義 生故續金剛 是衆生不斷成佛 成佛得涅槃 理
實皎然 若佛性不生 是實已本有 實[11]已本有 無續金
剛義 金剛若滅 實便斷竟 誰成佛 誰得涅槃 故云佛
性雖無 不同菟角 何以故 菟角雖以善巧方便 不可
[3a] 得生 佛性可生也 又小本云 佛性從妙因生 及施戒
等卅七品 作不生生因也 斯則文理顯然 義實應爾

8) 非 : (續)에는 井.
9) 菩薩 : 필사본들에는 サ卄(=菩薩). 내용상 井의 誤讀으로 생각됨.
10) 始 : (續)에는 [女*弓], 필사본들에는 妃.
11) 實 : (續)에는 義.

而經深諱 生者復有二義 不得是生 但[12] 此之不生 不
傷向生耳 二義者 一以當果性是理本應有故 佛體
理極 爾時佛是理本有非始有 故非生也 二體理時
112下 無生死 故生死非理本有 所以虛妄流轉萬[13]化所遷[14]
正以由有佛性義故 有生死相 因果亦言 由因有果
是緣由佛性耳 亦以生死中生生便是動 以其體有
初中後 生住滅異 果佛果常 法無初中後 旣體無中
後 待誰爲始曰生耶 是故帶衆生語可言 本未得今
[3b] 始得以爲生 生故續金剛成佛如上 但據佛體語 是
二種無義不生故是常 佛自皆然矣 此是開善法師
明言也 後諸師復云 佛果生者 是帶因明義 以因時
無果 因謝果生 故爲生 言不生者 是廢因明果 此之
果體與法性寘[15]一 法性不生 此果寧生 故言不生也
今謂不然 理體本有故非始生者 理體本有異於無
不 若言異則已生故非始有 若言不異則無無法不
起 如前破也 又言果體與法性寘[16]一者 則失世諦寂
儜也 今謂 佛性何關[17]本始 佛性 經旣言 非因非果非
內非外 則非本非始 經復云 本自有之者 無所得
[4a] 義 洗淨彼之本始義 空架本始義 本始亦不定 或以
般若爲本 涅槃爲始 或以涅槃爲本 波若爲始 或以
佛性爲因爲本 涅槃爲果爲始 此義如新故義 初念

---

12) 但 : (續)에는 俱.
13) 萬 : (京)에는 方.
14) 遷 : (京)에는 還.
15) 寘 : (續)에는 [穴/具]. 冥?
16) 寘 : (續)에는 [穴/具]. 冥?
17) 關 : (京)에는 開.

113上 爲新 次念爲故 因次念故說初念 次念爲新 初念爲
故 又初念先起久故 是〈故〉第二念始起爲新 又初念新
第二念亦新 則初後亦新 故大經德王云 諸法新新
生滅 又初念爲故 第二念亦故 則初故後亦故 故論
云是故初故後亦故 故淨名經云 是故比丘 汝今卽
生卽老也 故新故遍通始終初後 本有始有亦通初
後 故新新故無定 以其無定故 所以無新無故 故大
[4b] 經云 上者名新 士者云故 諸佛世尊體大涅槃無新
無故[18] 涅槃無新無故 無本無始 體大涅槃無本無始
則體佛性 何得有本始 故佛性非因非果 非內非外
非本非始 而經說有本始者 二文 此是無本無始 假
名說本始 故不失本始二用 何者 今以對生死辨涅
槃 初流來始起爲始則爲新 佛果在後爲故 此是初
新後故 今又佛果在後 始起爲新 無明始起以爲故
是則向者無明在初起爲新 今稱爲故 向者佛果在
後起爲故 今稱爲訢[19] 故無定 所以相因而說新故 或
初故後新 或初新〈後〉故 亦初故後亦故 終是無新無故
[5a] 所以說新故也 若無明說新 佛果涅槃卽說故 若說
113下 涅槃爲新 卽流來無明說故 今故爲本 以新爲始[20] 若
說無明爲始有 則說涅槃爲本有 若說生死爲本有
則說涅槃爲始有 故大經偈說 本有今無 本無今有
三世有法 無有是處 釋偈者 本有〈者〉 本有無量煩惱 今

18) 『涅槃經』梵行品 "上士者名爲上座 無上士者名無上座 三世諸佛更無過者 是故號佛爲無上士 上者名新 士者名故 諸佛世尊體大涅槃無新無故 是故號佛爲無上士" (大正藏12, 469a, 711c)

19) 訢 : 新의 誤字로 생각됨.

20) 始 : (續)에는 妃.

無者 今無大涅槃 言本無者 本無煩惱 今有者 今有大
涅槃 是則若說煩惱爲無 則說涅槃爲有 若說煩惱
爲有 則說涅槃爲無 然此有無 本非有非無 故言三
世有法無有是處 則本始是二方便說無定 故大經
德王云 或說涅槃爲本有 如井[21]中七寶貧女寶藏 或
[5b] 說涅槃涅槃[22]爲始有 故小本云 涅槃妙因生 此本始
始本起自不二 非本非始 方便待說本始始本 不如
成實論說 正因爲本有 了因爲始有 此論正因 種種
釋不同 如十家 此皆是謂所見 非經之意也 今謂 本
始正是涅槃用是涅槃 本始始本 如常無常苦樂我
無我淨不淨定不定等 此是智[23]人所見 非二乘凡夫
所知 爲兩用不相離[24] 二鳥相遊 而經牙[25]說 生死是二
故有始終 涅槃不二故無始終 本始故體大涅槃 無
新無故 無本無始 而說本始不同 以生死對涅槃明
114上 也 又諸師明之[26] 般若爲因 涅槃爲果 因果明本始新
[6a] 故義 般若非本非始而爲〈始〉 涅槃非本始而爲本 此一
往爲言 二往則本始始本互通 何者 未應般若 則不
得涅槃 應般若則得涅槃 則見般若爲始 如初念爲
新 既應般若故得涅槃 則見涅槃在後爲故 如第二
念爲故 然涅槃今始得 爾時前未得 此始有爲新 般
若前時久有 此爲故 故爲本有 新爲始有 則見初新

21) 井 : (京)에는 艹卄(=菩薩)
22) 涅槃 : 뒤의 涅槃은 衍文?
23) 智 : 필사본들에는 知.
24) 離 : 필사본들에는 雖.
25) 牙 : 互의 誤字.
26) 之 : 필사본들에는 '云乎'라는 夾註가 있음.

後亦新 初故後亦故 故新〈旣〉無定 則本始亦無定也 般
若爲本有 則涅槃爲始有 涅槃爲本有 波若爲始有
則無本無始 說本說始 何異非常非無常爲常 有常
有無常爲無常 故經明 本有故常 始有故無常 此明
[6b] 習應用義 非本非始 說本說始 如非常非無常 說常
說無常 此二鳥用義也 第五論內外有無 先明
理內理外義 次論約內外佛性有無無27) 成論師不說
理內理外 但依彼論云內凡外凡夫也 今謂 理外行
心爲外道 理內行心爲內道 以扶理者爲理內行心
乖28)理者爲理外行心 然理內外義 無的所出 而攝嶺師
114下 恒導理內外義 經中有所得無所得語多也 故大經
梵行文中 十雙明有所得無所得 分大乘非大乘義
分生死涅槃不同 廣歷諸法 明如29)彼經說也 今明理
內外者 須深識理內外義 若識此義 則識佛性內外
[7a] 有無 若不明理內外義 則於佛性有無不了 故今欲
明佛性有無故 先分內外不同 今明大經第卄五卷
云 道有二種 一內道 二外道 外道者名爲無常 內道
者名爲常 又云菩提有二種 一常 二無常 二乘菩提
名爲無常 諸佛菩提名爲常 解脫亦然 二乘解脫名
爲無常 諸佛如來解脫名爲常 此三句 據道分理內
外也 問 諸論師明道諦 是常是無常 若言是無常
則同外道 若言道是所行 菩提非30)行 故分內外者 則

27) 無無 : 뒤의 無는 衍文?
28) 乖 : (京)에는 乘.
29) 如 : (續)에는 知.
30) 非 : 能?

不然 諸佛如來所有道菩提解脫 本是淸淨不生不
滅故常 外道生滅故無常 故二乘菩提解脫皆無常
[7b] 則同外道故 二乘菩提解脫爲理外 諸佛菩薩菩提
解脫爲理內 理內爲內道也 諸論師明道諦義 不問[31)]
大小二乘道諦與十地 並是無常也 今謂 大乘說波
若無漏法本 不生不滅 故心心數不行 以其本不生
115上 不滅故 所以不行 故不生不滅爲眞波若 此爲眞道
菩提 何但所行是不生不滅 非[32)]行亦不生不滅 解脫
亦然 本來淸淨不生不滅不有不無 此爲眞解脫 卽
是理內 何但此三 不生不滅 一切萬法 並不生不滅
故知有生滅無常有依〈有〉得 悉爲理外 無生滅無依無
得爲理內也 故經云 第一義名爲道 亦名菩提 亦名
[8a] 涅槃 更無有[33)]異 同一實諦爲第一義 不異而異 故亦
得道卽所〈行〉 菩提指人 人是能〈行〉 故菩提智目 人爲覺者
覺者行道得涅槃 涅槃是所得 此亦得理內理外異
也 次明佛性有無者 此明內外論佛性得有[34)]四句也
一理外人法無佛性 理外衆生 五眼所不見 故旣無
無衆生故無佛性 故經云 有所者卄五有生死也 有
人問[35)]云 理外衆生有佛性此[36)]佛性者 此不成問 何者
炎水從河海來 東海西南非[37)]等海 若言炎本無水 何
所責來處者 理外本無衆生 何得問有佛性無佛性

---

31) 問 : 필사본들에는 間.
32) 非 : 能?
33) 有 : (續)에는 없음.
34) 有 : (續)과 (龍)에는 布. 有의 誤讀임.
35) 問 : 필사본들에는 間.
36) 此 : 내용상 無의 誤字로 생각됨.
37) 非 : 北?

亦如問石女何時有子問答耶[38] 今謂 理外無有一法
[8b] 故無有佛性 此則對理外無 故說理內爲有 理內旣
有 卽是假名幻化衆生 〈因〉緣衆生故有佛性也 亦得何
115下 但是衆生數有佛性 〈依報草木等亦有佛性〉 如花嚴經云 善財童子 禮彌勒
樓觀 得爾許法門三昧 無量壽經云 寶樹說法 蓮花
世界海水寶樹 皆能說法 故亦得云有佛性 是波若
用故 此是一往相對明義耳 二往爲言 理內無佛性
理外有佛性 何者 如波若經云 菩薩有我相人相衆
生相 卽非菩薩 則洗淨一切盡淨 名爲理內 理內淨
淨 無衆生等諸法[39] 故無佛性也 理外[40]情謂有衆生緣
此謂情故言有佛性 向者外無 故云內有也 本論盡
[9a] 淨外爲內 外旣無內何得有 故內亦無 而說外有〈者〉 逐
情爲有 然謂情[41]有 竟何所有 則理內旣[42]無 理外亦不
有 卽理內外 皆無佛性 是眞[43]故佛性非內非外 向者
云 外無內有 內無外有 皆互相捨明義 破洗外故 云
外無內有 又洗內故 言內無外有 悉是有 所以至論
佛性非有非無 非內非外 則內外有無皆捨 故內旣
無 外何得有 一切皆洗 所以外無 五眼所不見故 所
以外有 隨情故說[44] 所以內無 正觀不見故 所以內有
假名說故 至論佛性非內非外有無 故大經卅二云
116上 若言佛性定在內外 皆名謗佛法僧 若便內外說[45]謗

---

38) 耶 : (續)과 (龍)에는 那, (京)에는 耶.
39) 法 : (續)에는 없음.
40) 外 : (京)에는 결락. 한 글자의 빈칸을 두었음.
41) 情 : (續)에는 없음.
42) 旣 : 필사본들에는 '洗カ'라는 夾註를 붙였음.
43) 眞 : (龍)에는 °를 표시하였음.
44) 故說 : 說故?

[9b] 佛法僧 則定依報 定正報 亦謗佛法僧 若爾 經云 正
報有佛性 而佛性非正報 亦得言依報有佛性 而佛
性非依報故 今謂 佛性不定四句故 佛性非有非無
非內非外 亦非依非正 而誰能如此悟解者 唯心是
能悟能迷之主故 經云 衆生等有佛性 非衆生則非
也 如前出體中具說之 亦得言度空衆生不度空草
木等 故度幻夢衆生 衆生有佛性 不論草木[46] 草木[47]無
無佛性故 今旣以衆生得悟爲佛性 則悟時豈見有
內外異 故知佛性非內非外 而約情爲內外 故內有
外無也 如乳生酪 破[48]乳中有酪[49]無酪 言非內非外 則
[10a] 乳無酪性 此則乳不生酪 而不生生者 得言酪從乳
生 故言酪從乳生 不說水生 故水無酪 所以乳爲酪
因 水則非因 佛性亦然 於內外求之 則不見佛性 佛
性非內外 而衆生心識 非如此語解 故言非衆生數
斯本來淨 故不非[50]如此觀解 唯言凡有心〈者 得〉三菩提 衆
生有佛性也 然佛性非有非無 則雖有無內外四句
而得言所歸中道爲佛性 但此中非復是中 强名爲
116下 中 故說中道爲佛性 故佛訶迦葉 非有無內外問 云
何失意作如是問耶 我不說中道爲佛性耶 然而佛
性雖非有非無非內外 而說有爲內 故言衆生佛性
[10b] 住五陰中 有時說外爲法性 理論之 佛性法性 非但

---

45) 說 : 필사본들에는 洗. 旣의 誤讀으로 생각됨.
46) 木 : (京)에는 不.
47) 木 : (京)에는 不.
48) 破 : 彼의 誤字로 생각됨.
49) 酪 : (京)에는 略.
50) 非 : 미상. 能의 誤字?

在內 亦遍於外 故至論 佛性法性 本非有非內外 故
大經云 聲聞緣覺 但見於空不見不空 不見不空故
不行道 不行道故不見佛性 見一切空 不見不空 不
行中道 見一切有 不見不有 亦不行中道 故不見佛
性 故前說佛性有佛性無 皆非佛性 故經云 佛性非
內外有無 而說有須識不有 說無須識不無 則此有
此無 未始非佛性 何者 不有衆生而已 有衆生則有
佛性 不有佛性而已 有佛性卽有衆生 卽衆生之有
如佛性之有 佛性之有 如衆生之有 故衆生如佛性
[11a] 佛性如衆生 無可有異則無可爲同 而衆生佛性非
有無 佛性衆生是有是無 故隨其流處 有種種味 而
是藥眞味 停留在山 猶如滿月 旣云不有衆生而已
有衆生卽有佛性 不有佛性而已 有佛性卽有衆生
而復云隨其流處有種種味者 今明 佛性得云有衆
117上 生 亦得言衆生無佛性 何者 佛性有衆生 佛性爲衆
生依持建立故 又衆生無佛性 以衆生失佛性故 衆
生有佛性 佛性無衆生 以衆生依佛性故 衆生有佛
性 佛性無衆生 何者 五眼不見衆生 故言無 是則衆
生無佛性[51] 明失故 佛性無衆生 五眼不見衆生 衆生
[11b] 有佛性 衆生依佛生故 佛性有衆生 佛性持衆生故
至論佛性非有非無 非見非不見 非依非不依 本來
淸淨故 涅槃論云 衆生內有佛性非蜜[52] 外有佛性亦
非蜜[53] 亦有亦無非蜜[54] 非非有非非無 亦非蜜[55] 衆生是

---

51) 性 : (京)에는 生.
52) 蜜 : 密.
53) 蜜 : 密.

佛是蜜[56]也 今謂 如前說四句 衆生無佛性 佛性無衆
生 此是同無也 衆生有佛性 佛性有衆生 此是同有
也 雖開有無而不卽不離 故大經明 佛性法身涅槃
三種不異 故同離[57]四句絕百非 以百非爲中道 則以
對治爲明 假名百非爲體 故非時無所而不非 所以
佛性雖[58]四句百非 法身涅槃皆然 是時有是有不是
[12a] 此以非爲是相待門說 故有是不是 以二非結爲正
性 兩是結爲假名衆生 故云是則有是不是 然雖云
是非 未始爲一 未始爲異 故雖云非時無所不非 此
117下 非若可非 則爲非非之所非 雖是 此是可是 則爲是
是所是 若爲非非之所非 此則害是 若爲是是之所
是 此則害非 今以無非之可非故 此非不害是 無是
之所是 此是不害非 以是不[59]害非故 雖是須識非 非
不害是故 雖非須識是 是不害非故 雖以兩非以爲
佛性 而須識兩是爲衆生 雖以兩是爲衆生 須識兩
非爲佛性 故此衆生佛性 佛性衆生 此是無所可爲
[12b] 是 此非無所可爲非 故佛性無是〈無〉非也 第六明見
佛性不見佛性 簡見不見義者 尋佛性是諸佛中
道之性 非諸聲聞緣覺所知 因中諸菩薩爾[60]未證知
唯佛能洞了故 是難見之性 所以甚深 是諸佛境界
也 今無差別差別 約知見性開三位明之 一佛眼了了

54) 蜜 : 密.
55) 蜜 : 密.
56) 蜜 : 密.
57) 離 : 필사본들에는 雖.
58) 雖 : 離의 誤字.
59) 不 : 필사본들에는 非.
60) 爾 : 필사본들에는 尒. 亦의 誤字?

見 二十地菩薩少分慧見 三九地已還名爲聞見 亦
名信見 則未了也 此意師子吼品說也 若作差別無
差別明之 初發菩薩已少分見 亦可了了見 此義非
地攝有所得大乘 與成論師等行處 亦是其所迷沒
義也 具如十地義中說 大經如來性品云 十地菩薩
[13a] 非[61]見難見性 九地已下明未見 則是未與慧見之名
118上 故品云譬說見不具[62]明了 譬如蒙朧不見道路也 又
師子吼品云 十二因緣正因性 如來見始見終 十地
菩薩 見終不見始 又迦葉品云 十地菩薩唯見自身
成佛 不見一切衆生成佛 故不明了 所以少分見 又
云 十地菩薩 見法無性 得見佛性 九地菩薩 見法有
性 不見佛性也 通釋多經文 龍光傳開善云 如來性
品 明十地菩薩難見非[63]見 九地已下明未見 則是未
與慧見之名 以其去佛尙當遠故 何者 佛地果興[64]果
果 是智斷具足 一體圓明 衆惑[65]皆盡 爾乃如來證得
[13b] 三菩提[66] 證大涅槃故 明證見 則得果成故 佛了了分
明 亦名佛眼 非[67]見佛性 而一切衆生有正因 必得此
果 則佛眼悉見明了 乃至未來衆生 得佛之理 則見
一切衆生得佛 一切照境周也 十地菩薩[68]智隣佛地
而猶未明了 未及佛果圓明 除惑[69]猶在 所以少分慧

---

61) 非 : 能의 誤字.
62) 具 : 필사본들에는 見.
63) 非 : 能의 誤字.
64) 興 : 與.
65) 惑 : 필사본들에는 或.
66) 菩提 : 필사본들에는 サ提.
67) 非 : 能의 誤字.
68) 菩薩 : 필사본들에는 サ薩.
69) 惑 : 필사본들에는 或.

見也 今大乘明義 不二[70]而二 明橫辨總別明之 亦有
此義 而意大異[71] 非但無性實高下 亦無安置處所 故
大實[72]也 迦葉品云 十地菩薩唯見自身成佛 不見一
118下 切衆生成佛 故不明了 所以言少分見 亦如師子吼
品說十因緣 爲正爲境 如來見始見終 十地菩薩見
[14a] 終不見始 故未明了 故少分見 故如來性品云 不明
了 譬如蒙朧見道路也 迦葉品云 十地菩薩 見法無
性 得見佛性 九地菩薩 見法有性 不見佛性 何者 彼
家有三說 一云佛妙有 若非[73]知[74]一切法皆空者 乃
得見終[75]妙有 妙有卽無性 非但知空 知空之妙有 乃
見佛性 九地菩薩 未能知佛果卽空 知空未足 故與
見法有性之名 則未非[76]見佛性果也 二云佛性卽第
一義空 此卽法性無性 非[77]備達[78]一切法空 佛窴[79]同無
生性 故得見之 九地未見一切法空 亦未知佛果空
故不見佛性也 三云合用兩釋 並有其義也 而下論
[14b] 初發心亦信見[80] 信[81]見未成 未與信見名 若性地信在
而解行未立 解[82]行地後卄心是信解[83] 而此初地 亦未

---

70) 二 : (京)에는 三.
71) 異 : 필사본들에는 實.
72) 實 : 異의 誤字.
73) 非 : 能?
74) 知 : (續)에는 智.
75) 終 : (續)에는 修.
76) 非 : 能?
77) 非 : 能?
78) 達 : (京)에는 違.
79) 窴 : (續)에는 [穴/具]. 冥?
80) 信見 : (續)에는 信과 見 사이에 '心'이 있음.
81) 信 : (續)에는 없음.
82) 解 : 필사본들에는 °를 표시하였음.
83) 解 : 필사본들에는 °를 표시하였음.

眞成 眞成四句信是眞解[84] 乃信見聞見名也 今謂 並
不同三說 有依有得故 若無依無得 無差別差別 假
名橫之 亦有此義 經意正是中道佛性 竪明之也
問 佛眼見則了者 獅子吼品亦云 十地菩薩爲眼見
119上 亦應是了了見耶 答 佛眼是果故則非[85]了見 以十地
對九地 卽十地爲眼見 九地聞見 若以十地對佛 佛
眼見十地聞見 是相形奪[86]爲明之也 而如來性品尙
說 九地未見慧 是未隣佛故 不與慧見 而信解是聞
[15a] 見也 如來性品明 難見非[87]見 唯有十地 所以不說聞
見 故九地以還皆未見也 師子吼品通論之 別則分
別說也 問 大經云十地菩薩 得首楞三昧 則了了
見 云何少分見 答[88] 總[89]說十地未見 見亦未了 經中
或可竪明了了見 或是首楞嚴三昧 明隣佛果 當分
明了 故了了見定也 故迦葉品云 四千二百首楞[90]嚴
三昧 卽佛地之智德 則是佛了了見[91] 窮學菩薩 得此
定故 照少分與佛同 所以其少分了了 大經卅二[92]卷
云 十地菩薩 得首楞嚴三昧三[93]千法門 是故了了自
知 當得阿耨三菩提 不見一切衆得阿耨三菩提 以
[15b] 此義故說 十地菩薩少分見佛性 未得了了 此[94]得首

---

84) 解 : 필사본들에는 °를 표시하였음.
85) 非 : 能의 誤字?
86) 奪 : (續)에는 集, 필사본들에는 [大/集]. 내용상 奪로 생각됨.
87) 非 : 能의 誤字.
88) 答 : (續)에는 若.
89) 總 : 필사본들에는 想.
90) 楞 : (續)에는 嚴.
91) 見 : 필사본들에는 身.
92) 二 : 필사본들에는 三.
93) 三 : (京)에는 二.

嚴定者 猶未了了也 若論明昧 窮學未明 佛果乃了
了 故本業經云 金剛心爲等學[95]地 粗得佛地法 是分
外解輿[96]等名 其實未等佛名 妙覺地則冣深妙 但窮
119下 亦得金剛三昧故說等也 若一切惑[97]盡鄣離 離[98]盡
乃等 而金剛心三昧本性淸淨 故經云 金剛心所有
智慧 如空中月 所有煩惱 如烟微鄣 故知猶有惑[99]鄣
佛果性便令不顯現 餘一輕品故 未得明淨了 若觀
圓惑[100]盡乃成佛 成佛見佛性 得無[101]上菩提 橫竪並[102]得
故 亦是假入中也 故師子吼品第卄[103]六卷云 明持戒
[16a] 生不悔心 乃至得解脫 得大涅槃 大涅槃常樂我淨
不生不滅 乃見佛性也 今無差別差別明義 初地見
始不見終 後身十地菩薩見終不見始 佛則見始見
終 若就正法明之 非初非後 非見始見終 有四句也
義次第論之 初地始悟佛性 故見始不見終 十地定
盡淨 故見終不見始 此約明昧觀行明也 雖然[104]無初
異[105]於後 無後異[106]於初 但平心昧明故 有見有不見 若
差別無差別義 初地見始 卽是十地見始 十地見終

---

94) 此 : 無의 誤字?
95) 學 : 覺의 誤字.
96) 輿 : 與의 誤字.
97) 惑 : 필사본들에는 或.
98) 離離 : 필사본들에는 雖雖.
99)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00)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01) 無 : (續)에는 此. 필사본들에는 此로 적은 후 無로 수정하였음.
102) 並 : (續)에는 亦.
103) 卄 : (京)에는 七.
104) 然 : (續)에는 念.
105) 異 : 필사본들에는 實.
106) 異 : 필사본들에는 實.

卽是初地見終 又[107]初地不見終 卽是十地不見終 十地不見始 卽是初地不見始 佛地見始見終 卽是初
[16b] 地與十地見始見終 三種見與不見等 卽是正法 非初非後 故論云 亦假亦中也 又云慧眼見不明了 佛
120上 眼見得明了 又住十住則不明了 無所住則得明了 有因果故 見不明了 無因果行卽得明了了 此皆無差別假名差別示[108]不同 至佛性非內非外非有非無則不了非不了 畢竟淸淨也 諸師云 十地菩薩 斷無明定[109]盡 近故見終 無始無明 去我遠故 不見始 今不知此是佛性始終爲無明而 云近遠耶 若見佛性始終 則不應言源品無明或[110]是終近 無明初起爲遠耶若言我斷或[111]盡應 故見佛性者 則是十地終心 斷無
[17a] 明始或[112]者 則是佛性始近 佛性終遠 何得返[113]言終近始遠耶 又言十地伏惑[114]以同故見終 無明源品鄣佛性故 不見始者 終亦應不見也 又若言十地見佛性終 自身佛性爲近 不見始 則不見他[115]身佛性爲遠 自身何故言終 他身何故言始耶 佛圓滿故始終悉[116]見 今則不然 佛性淸淨無始無終 故初發心畢竟不二別[117]初後同[118]見 何者 佛性與法性 則一道淸淨不二 不

107) 又 : (續)에는 有.
108) 示 :(京)에는 未.
109) 定 : (續)에는 空.
110) 或 : 惑의 誤字.
111) 或 : 惑의 誤字.
112) 或 : 惑의 誤字.
113) 返 : 필사본들에는 反.
114)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15) 他 : (京)에는 地.
116) 悉 : (續)에는 非.

二而二 故佛性非因爲因 非果爲果 以非因爲因故
開因爲十地 淺深不同 初地不知二地法門 乃至十
地不知佛擧足下足 故花嚴經云 如鳥於空則不遍
[17b] 今所說法如大地一塵 見十地不同 第十地在終故
120下
言見佛性之終不見始 正意平心深[119]故盡始之 他不
切不與見名也 初地在始故見始不見終 佛果不
二 道無淺深不同 故言始終悉見也 十地終心破無
明之始 故金剛始治源品之惑[120] 初地始破無明之終
卽見諦故 卅二賢聖第十一地名爲等覺地 中道第
一義山頂 破無明父[121]母故 此地爲金剛心 始得源品
無明破[122]伏 二乘不斷此〈無〉明 故云四住地 不究竟也 今
明不二正觀 破此心故 是究竟盡淨源本之始故 新
見佛性之終故也 諸佛體性 無初無後 無新無故 所
[18a] 以然者 初後後初 始終同見也 第七雜料簡 問 經
云一切衆生悉有佛住 今四性五性 有幾性 問意
因與因因 果與果果 四性 爲共幾性 答[123] 數論師興[124]
地攝 不見料簡 唯河西道朗師云 從有識已上論 至
九地已還 但有因性 若至十地 有因因性 至佛有果
與果果性 問 佛地正遍知道 爲菩提智性 衆類永盡
大涅槃斷德性 此事可[125]爾 云何知從有識至九地爲

---

117) 別 : 則의 誤字?
118) 同 : (京)에는 伺.
119) 深 : (京)에는 源으로 적은 후 '果乎'라는 夾註를 붙였고, (龍)에는 源으로 적은 후 '深乎'라는 夾註를 붙였음.
120)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21) 父 : (京)에는 文.
122) 破 : 필사본들에는 被.
123) 答 : (續)에는 若.
124) 興 : 與의 誤字.

因性 十地因與因因性 彼文答云 凡引三文經故證
121上 識知 一者云九地菩薩聞見 十地菩薩眼見 以聞見
故 照觀義不顯故[126] 與其境界性 以眼見故 與其觀照
[18b] 性 二者云九地菩薩不見始終 十地菩薩不見〈始見〉終 故
與境界性 十地見終 故與其觀智性[127] 三者云九地菩
薩一切法無常樂我淨見 非一切亦爾 十地菩薩見
一切法無常樂我淨 於非一切法分見常樂我淨 以
九地菩薩不見非一切法常樂我淨故 唯與[128]境界性
以十地菩薩非一切法分見常我淨故 與觀照智性
也 問 朗師說同不 答 何[129]西[130]師觀[131]對識[132]師緐經 不
可不信承 但無差別差別中 約觀道明昧 復何妨有
此意 故夫人經云 有漏業爲因 四取爲緣 而生三有
無漏業爲因 無明住地爲緣 而生聲聞辟支佛三種
[19a] 意生身大力菩薩也 而大經云 亦因亦果 十二因緣
所生法者 通果地也 問 九地等但因者 唯有境無
智 十地有智無境 答 只十二因緣境卽是智 何[133]者
所觀卽境 能[134]觀卽智 不斷不常 相續感佛卽是因性
也 又約明昧有異[135] 何者 以觀明昧故 卽是智境觀昧[136]

---

125) 可 : (續)에는 何.
126) 照觀義不顯故 : 필사본들에는 이 글자들 앞에 °를 표시하였음.
127) 二者云九地菩薩不見始終 十地菩薩不見始見終 故與境界性 十地見終 故與其觀智性 : 二者云九地菩薩不見始終 故與境界性 十地菩薩不見始見終 故與其觀智性의 착간으로 생각됨.
128) 與 : (續)에는 餘.
129) 何 : 河의 誤字로 생각됨.
130) 西 : (續)에는 兩.
131) 觀 : 親의 誤字로 생각됨.
132) 識 : 필사본들에는 載.
133) 何 : (京)에는 阿.
134) 能 : (續)에는 與. 필사본을 따름.
135) 異 : 필사본들에는 實.

明卽是境智 更無差別有兩法也 次明五種佛性多
121下 少 相傳[137]解云 通約有身識衆生 不出善惡所攝 無不
盡也 今就斷善根與善根人明之 善卽善根人 惡卽
闡提 約此兩人 辨有無四句 善根人有 闡提人無 俱
有無 乃至俱無也 善根人有 一云有善境界 無惡境
[19b] 界 二云有了因性也 闡提無有惡境界 無善境界 十
二因緣通[138]善惡故也 二人俱有者 俱有正因性 明二
人俱有心識 相續不斷 並得感佛 故俱有正因性也
二人俱無者 俱無果與果果性 此兩性 唯佛地有也
若是緣因性 唯善根人有 一闡提無也 興皇大師 有
時云 假名差別亦得 但如彼所解則非也 河西云前
兩句無異[139] 二人俱有無記性 俱無俱無[140]果與果果性
也 二人俱有無記性 如經云 善法惡法 無記法性 並
是佛性故也 又經云 善五陰[141] 不善五陰[142] 無記五陰 界
入等亦然 善根人有善五陰 無不善五陰 闡提人有
[20a] 不善五陰 無善五陰 無記五陰 通善惡故 二人俱有
無記性也 無記得佛性者 明闡提有心識 相續不斷
得作佛 善根人善心得菩提故 言兩人俱有也 經中
明四句 並是如來隨自意語 釋佛性有無等四句 隨
122上 自意語 卽隨緣說 一語爲二語 二語爲七語 七語還
卷一語 舒[143]還七語[144]等 卽是如華嚴德王等意 一句爲

---

136) 昧 : 필사본들에는 味.
137) 傳 : (京)에는 得.
138) 通 : (續)과 (京)에는 道
139) 異 : 필사본들에는 實.
140) 俱無 : 衍文?
141) 陰 : (續)에는 隱.
142) 陰 : (續)에는 隱.

無量句 無量句爲一句 一句若定一句 則不得爲無
量句 無量若定無量 無量卽不得爲一句 以無量句
一句故 所以一句爲無量句 以一句無量句故 所以
無量句爲一句 今亦然 一語爲無量語 無量語爲一
[20b] 語 無量語者 初一語爲一 一爲四 四語爲七 諸一語
者 卽是如來佛性爲一語也 一語爲二語者 卽是佛
性有無 有卽無所有 無卽有所無 無所有 有一切功
德 有所無 無一切累 故經云 是名如來佛性有無 一
闡提人亦復如是 一闡提亦復如是者 闡提亦有兩
種 有所無無所有 反前 無所有 有一切累用 有所無
無一功德也 二語爲四語者 卽是善根人有 闡提人
無 四句 四句爲七語者 卽是涅槃河中七種衆生 從
初常沒 訖至第七度彼岸人 而河中七人 師子吼品云
一常沒人 二暫出還沒人 三五方便人 四四果人
[21a] 五辟支佛 六菩薩 七佛也 後迦葉品云 初兩人如前
三念處煗法人也 四從頂法已上初果人也 五從斯
122下 陀含果與向那含人也 六那含果人 七阿羅漢辟支
佛菩薩佛四人也 此種經自云 或一作七 或七作一
也 七語爲一語者 雖有七種 只是一佛性 善根人及
闡提人 有無四句 第一常沒 卽是闡提人 從二至七
卽是善根人 雖有四句 還成有無二句 二句還成佛
性一句也 故言一語無量語 無量〈語一〉語 華嚴經亦云 一中
解無量 無量中解一 如是轉轉生 非實智者 無所畏
也 上雖出四句未釋之 今次第釋之 此亦多名種勢

143) 舒 : (續)에는 [金*予]. 舒의 誤讀으로 생각됨.
144) 七語還卷一語 舒還七語 : '七語還卷一語 一語還舒七語'의 착간으로 생각됨.

[21b] 今直一種勢釋之 雖有四句 只是有無兩句 第一釋
云 或有佛性 闡提人有 善根人無者 明闡提人有
有惡佛性 善根人無 無惡佛性 善根人有 有善佛性 闡
提人無 無善佛性 二人俱有者 闡提有惡佛性 善根
有善佛性 二人俱無者 闡提人無善佛性 善根無惡
佛性也 二者 約理內外得無得 論四句有無 明有所
得者 卽是理外闡提人 何者 若決定有所得 破於無
所得善 有所得善未是善故 無所得善方是善也 故
有所得卽是理外闡提人也 言闡提有善根[145]人無者
闡提有 有所得理外佛性 善根人無 無有所得理外
[22a] 123上 佛性 善根有闡提人無者 善根人有 有無所得理內
佛性 闡提人無 無無所得理內佛性也 二人俱有者
闡提有 有所得佛性 善根人無 無有所得佛性 二人
俱無者 闡提人無 無所得性 善根人無 無有所得性
也 三者 合就理內明有無四句 佛性凡有三人相對
卽是後迦葉品明 佛性非善非惡而善惡爲佛性方
便用 明如來非善非惡 兩兒二弟爲善惡方便 用二
兒兩弟爲善惡方便者 善星調達是惡中之極惡 羅
喉[146]羅阿難是善中之最善 以此善惡方便 顯如來非
善惡也 開爲四句者 經文云 或有佛性 闡提人有者
[22b] 則是善星有惡佛性 佛性之惡故言惡佛性 善根人
無者 無善星惡佛性 善根人有者 卽是羅云有善佛
性 佛性善故言善佛性 闡提人無有羅云方便善佛
性 二人俱有者 善星[147]有善惡佛性 羅云有惡善佛性

145) 根 : 필사본들에는 提.
146) 喉 : 睺.

善星善惡非善惡而已 有惡卽有善 羅云惡善非有
善而已 有善卽有惡 則二人各有善惡 故言二人俱
有也 二人俱無者 善星之惡 此惡善惡 羅云之善 此
善惡善 惡善非善 善惡非惡 非善非〈惡〉 唯在於佛 故言二
123下 人俱無也 次更就理內外 釋有無四句佛性 初句云
或有佛性 闡提人有善根[148]人無者 言闡提人有 此是
[23a] 理內無所得闡提 故有佛性 善根人無者 此是理外
有所得善根 故無佛性 擧證猶如勝意與憙根 憙根
則形無定方 行無常准 或入[149]酒肆家 乍遊婬舍 勝意
則形有定方 行有常准 威儀淸肅 持戒脩善 來往寺
舍 時入邑堂故 憙根則有 勝意則無故 各據一邊 故
言闡提人有善根人無也 第二句云 或有佛性 善根
人有闡提人無者 善根人有 此理內無所得善根 故
有佛性 闡提人無者 此是理外有所得善根 故闡提
人無佛性 二人俱有者 俱是理內方便善惡佛性 非
善非惡 善惡[150]並是佛性方便用 故言二人俱有也 二
[23b] 人俱無者 俱是理外無方便善惡 故言二人俱無也
又更一種勢論之 第一句言 或有佛性 闡提有善根
無者 此就抑引門說 抑善根引闡提 何者 明善根人
持戒行善 好見他過惡 謂是斯下之人無有佛性 如
此見者 則美己惡人 爲有此見故 說闡提人有善根
人無也 明闡提今雖作惡 若一發心 則趣佛道 猶如

147) 星 : (京)에는 皇.
148) 善根 : (續)에는 佛性.
149) 入 : (續)에는 人.
150) 惡 : (續)에는 없음.

124上 快馬一擲千步也 故言闡提人有善根人無也 第二
句云 或有佛性 善根人有闡提人無者 此就誡勸兩
門說 勸善誡[151]惡 何者 若能一念 低頭擧手合掌 則皆
成佛道 若謗[152]法作惡 則輪廻三趣無成佛期 故言善
[24a] 根人有闡提人無 二人俱有者 此就平等門說 一切
衆生悉有佛性 故經言凡有心者 皆得三菩薩[153]也 二
人俱無者 此就因果門中說 雖有善惡 皆是因中 未
有果性 故言皆無 故經云 以當得故名之爲有 望未
來故言無 前句明當得有 故二人俱有 今句卽未有
故二人俱無[154]也 問 五性中 何者正是佛性 答 論師
等舊云 五性中的取菩[155]提果性是佛 餘四非也 何者
佛以覺爲義故 果性是正是佛性 因性是境界[156]故非
佛性 涅槃是斷德故 亦非佛性 故今的取菩提果智
爲正佛性也 今謂 差別無差別義明之 無非佛性 故
[24b] 大經四相品云 或說三爲一 或說一爲三 又如說常
爲無常 說無常爲常等 亦如一爲無量 無量爲一等
義 又正因性中 開立四性 將四性還表正覺[157] 四性悉
是涅槃體用 故五性並是佛性 若二門明義 亦如彼
124下 說 不無去取也 問 五種佛性得爲一性不 答 亦得
五性爲一性 何者 如亦假亦中故 又今明一五五一
義故 若一非五一 一不得成五 若五非一五 五亦不

151) 誡 : (續)에는 戒.
152) 謗 : 필사본들에는 傍.
153) 薩 : 내용상 提의 誤字임.
154) 無 : (續)에는 此.
155) 菩 : 필사본들에는 善.
156) 界 : (續)에는 思.
157) 覺 : 필사본들에는 道.

得爲一 良由一是五一 一得成五 五是一五 五得爲
一 此則因緣明之 又竪論之 如大經師子吼品云 若
不一二 云何知非一非二 又仁王經二諦品云 若菩
[25a] 薩見衆生 見一見二 卽不見一不見二 一二者 第一
義諦也 則例云 若不說非一非二 云何識一二等也
又如經云 一多多一 若非一多 一多[158]不得成一 只爲
一多故 一多成於多一 多一成於一多 如斯無窮也
故經開五種性 因與因因 果與果果 非因非果等 卽
是四一一四佛性故 舒一爲五 卷五爲一 無舒卷方
便 舒乎[159]法界 卷則泯無蹤跡 雖開未曾舒 雖合未曾
卷 本自不舒 今亦未曾卷 舒之不曾有 卷之未曾無
也 問 乳有酪性 衆生有佛性 得例不 答 亦得是
例義 故乳是正因 醪燸爲緣因 卽以經云 正因者謂
[25b] 衆生 緣因者謂六波羅蜜 此亦得合齊義也 問
衆生是正因 六波羅蜜是緣因 緣正旣並名佛性者
125上 醪燸及乳 緣正皆得名酪性不 答 亦得是例義
問 乳是因 酪是果 何得言乳名酪性耶 答 此是因
戴果名 亦得果戴因名 如爲百論云 食金見書 卽見
好其[160]手也 又得言因緣故得之也 問 若爲十二因
緣爲五性 答 取其能發生觀智 取[161]是境界性 取其
能觀義 名觀智性 觀行明淨 爲菩提智性 斷常二見
畢竟永盡 爲涅槃果果性 卽此十二因緣 未曾是因

158) 多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지운 것으로 생각됨.
159) 乎 : (續)에는 手.
160) 好其 : 其好?
161) 取 : 卽의 誤字?

果 卽是正性也 問 開五性 明因與因因 果與果果
[26a] 因中開境智 果中開智斷 亦可爾 總別亦得言因中
開智斷等 果中開境智不 答 牙[162]得 因中旣開境智
果中亦得開境智 果中旣[163]開智斷 總別因中亦得開
智斷 何者 若是因中十二因緣 是所觀之境 卽名爲
境 能發生歡[164]智卽是智 此因中境智 果中境智者 菩
提智照涅槃境 涅槃卽是所照 菩提智卽能照 故涅
槃卽是境 如五分法身中解脫知見 解脫知見[165]者 卽
知見解脫 解脫所照 知見卽能照 解脫只是涅槃也
故果中亦得名境智 因中亦名智斷者 明了十二因
緣 不生不滅 得無生正觀 卽名爲智 斷常煩惱畢竟
[26b] 125下 不生 卽名爲斷 故因亦名智斷 而經中 因中開境智
果地名智斷者 此無階級[166]無淺[167]深 爲衆生假名方便
作階級淺深說 何者 明菩薩禀十二因緣不生不滅
教 發生智慧 十二因緣教 卽轉名爲境 如中論云 爲
久習行大乘者 說十二因緣相 所謂不生不滅也 而
今從正法 建立四性 體用並得說五性 正以境智開
佛性 故初明境智也 如此明不生不滅觀了 能得菩
提故 第三有菩提智性 旣得菩提 則一切斷常畢竟
淨故 第四有涅槃果果性 如此四種性 並是因是果
是境是智 至論正性[168] 未曾因果境智 非因非果非智

162) 牙 : 互의 誤字.
163) 旣 : (續)에는 施.
164) 歡 : 觀의 誤字.
165) 解脫知見解脫知見 : (續)에는 解脫解脫知見知見.
166) 級 : 필사본들에는 汲.
167) 淺 : 필사본들에는 涉.
168) 性 : (續)에는 往.

[27a] 非斷 故名正性 雖非因果境智爲緣 方便假名說也
問 佛性三世非三世義 何者 答[169] 佛性三世非三
世義 約佛及十地已下 作兩種位明之 若是佛 佛性
有三世有非三世義 卽是本有今無偈也 若是十地
已[170]下 唯有三世無有非三世義 如來性中 復有具三
世不具三世 何者 若果地起佛性 具三世非三世 若
因佛性 唯有三世無非三世 故經云 如來佛性 因則
三世 果則不爾 或是三世 或非三世 言果具三世非
126上 三世|者 就本迹兩身明之 辨本迹故是三世 迹本故
非三世 常無常故無三世三世 無常常故三世無三
[27b] 世 然如來佛性 未曾無常與常 而能常能無常 未曾
是三世不三世 而能三世能非三世 故果佛性或是
三世 或非三世 經偈云 本有今無 本無今有 此卽是
無三世三世故 三世有法無有是處 卽是三世非三
世故 言因佛性但是三世者 約常無常判因果明之
因是無常故是三世 卽是本有今無上半偈也 次明
十地已下至初地已上 並是三世無非三世者 如經
云 因亦三世 果亦三世 因果俱無常故 並是三世也
次明十地有兩文不同 前云後身菩薩現在未來 後
文又云後身菩薩 因亦三世果亦三世 何者 釋云以
[28a] 少見故 故言現在 而見未具足 轉身方具足見 故言
未來也 因果三世者 就位判之 十地是無常位故 何
者 前念爲過去 現念現在 後念爲未來 此是並無常
故皆是三世也 次釋大經卅[171]卷云 佛性少多 約四

169) 答 : (續)에는 若.
170) 已 : (京)에는 三.

位明之 一如來佛性有七種佛性 二十地九地有六
種佛性 三八地六地有五種佛性 四五地至初地亦
126下 有五種佛性 而善不善實[172]也 言如來有七種佛性者
謂四德並眞實善三義 然佛性具足萬德 而今略擧
四德三種要也 問 此七佛性 與德王中 如來八種涅
槃何異 答 七名是同 唯有盡相有[173]異耳 何者 涅槃
[28b] 正明無果故有盡相也 十地九地 有六種佛性 無有
我樂 唯常淨眞實善少見 然十地九地 雖同有六種
六種不同 十地少見九地可見 此則有異 言少見者
明十地現在少見佛性 可見者 九地現在不見 而未
來有可見之義 故異也 問 十地九地 旣有常淨 云
何不與其我樂 答 一云 此之常淨非四德中常淨[174]
何以知之 若是四德常淨者 云何復言 因果三世非
三世 故知非四德中常淨 此言常淨者 常者見菩薩常
用二慧化[175]物 無有一念休廢 故言常 若佛常則常住
之常 淨者 當分無煩惱故言淨 若佛果則結業並盡
[29a] 故稱淨 又眼見淨慧眼見淨故異也 問 旣與其當
分常淨 何不與其當分我樂 答 藏云通而明之 皆
得 此文互擧一邊也 又責 等牙[176]擧 何意不我樂 答
藏云俱不勉[177]難故也 而今此中無有我樂者 其猶有
127上 無常識謝 三苦之中猶爲行苦所逼 故無我樂也 二

171) 卅 : 필사본들에는 卅二.
172) 實 : 異의 誤字로 생각됨.
173) 有 : (續)에는 大.
174) 淨 : 필사본들에는 行.
175) 化 : 필사본들에는 仕.
176) 牙 : 互.
177) 勉 : 免.

云未必爾 如九地雖不免三相 而見聞分故 九地聞
常故立常 又十地等中不立我樂兩德者 三相是法
體之患 猶含三相 故不立我德 旣含三相故 未足立
樂德 故無樂 如淨德 十地下當分無生觀盡淨用故
立淨德也 亦未必是二慧常用故 常亦有此義 而未
[29b] 必一向耳 八地至初地 雖同五種佛性 而兩位不同
八地至六地 同有五性 唯闕於[178]常 餘五同九地 眞實
淨善可見 不能常用二慧化物 故無有常也 五地至
初地 亦有五性 而與八地異 八六地直善 若五地已
下有善不善 何者 六地菩薩 名爲現前地 以斷三界
正便思[179]惟盡 般若常現前故 唯有善 若五地下三界
思惟便未盡 般若不[180]常在前 故有善有不善也 問
五性緣因緣果中 有闊挾長短不 答 無差別差別
明之 有也 前辨緣因 有因與因因 緣因亦有通別 通
而爲語 若行若境 悉是緣由義 並是緣因 別而爲語
[30a] 別收衆行 以爲了因性 是因因 但收境界 以爲緣因
性 了因性通而爲語 萬善皆是了因性 故經云 低頭
127下 擧手 皆已成佛道 就別而語 唯觀智性 不取善靜 觀
智對境明故取之 問 五乘有取不取耶 答 論師
云 五乘之善中 但取菩薩大乘之善 不取餘四 所以
然者 人天兩乘 是報因善一報便盡 豈了出於佛 聲
聞緣覺二乘 乃是習因理而爲語 亦終至等覺 但今
據敎明之 此善但斯[181]結盡 應是泥洹 不階種智 故非

178) 於 : (續)에는 猶.
179) 思 : (京)에는 惡.
180) 不 : (續)에는 下.

了因體 今明有所得五乘善 並非了因性 無所得善
並是了因性 但不無傍正 理而論之 無所得五乘善
[30b] 並是般若方便 故經言漏盡阿羅漢 信解般若 故如
經云 低頭擧手已成佛道意也 若果與果果者 開善
云果性 正取菩提智 若果果性 正取大涅槃 涅槃卽
是斷德 卽智體無累 此體歸乎衆德 故謂大涅槃也
今謂 總別別總爲果果 斷德偏故 明闊狹者 若約因
性明之 龍光傳開善云 三因性中 若緣因中境界因
性最長廣 始自流來 終至佛果 皆是心所緣 是長義
若空若有 若眞若俗 悉爲境界 是廣義 若是了因 最
短最狹 初流時未經起善 此無了因 卽是下不通流
128上 來 上不至佛果 雖復相續道|中作解脫道斷義 而今
[31a] 論是果沒其因義 但取無碍道智 以爲了因 是卽上
不談佛果 旣上下並非 故其最短 言其狹者 二諦中
但是俗諦 有爲無爲 則非但是有爲也 有爲三聚 但
取心與無作 不取於色 四心之中 少乘爲語 但取行
心 大乘則通四心 三性之中 但是善法 以此而尋最
短也 正因之性 比此兩因 並各[182]處中 始自無明初念
復是正因 但終至金心 不通佛果 下卽長於了因 上
則短於境界 故長短處中也 通論則取兩聚 別語唯
是心法 又通於四心 亦亘於三性 若比[183]於了因 了因
但是行是善 此義爲廣 形[184]境界不聚[185]眞諦無爲 此義

181) 斯 : 斷?
182) 各 : (續)에는 名.
183) 比 : (續)에는 此.
184) 形 : 取?
185) 聚 : 取?

[31b] 卽夾也 今大乘明義 無有如彼說長短闊夾義 而無
差別差別辨之 有橫竪異之 橫論通義 則無非是緣
因與了因 何者 相由悉顯〈果與〉果果 無非緣義故 若別而
論之 緣因則長而復闊 了因則對境心行明之 則夾
而短 若竪義論表顯正道義者 因若[186]果與境智 無非
是了因與緣因也 若對境明之 了因則夾與短 果與
果果亦復爾 正性則不當闊狹長短 若義說有者 少
128下 多有便不便也 三因與兩果體同異者 龍光傳開善
義 有同有異 就因中明之 有時同體 有時異體 言異
體者 又復不同 有境界異於正因緣因 無有正因緣
[32a] 因異於境界 其事何者 如虛空眞諦以爲境界 此境
界非是二因 故有境界異於二因 若論心是正因 萬
善爲緣因 兩因體自異 而可爲緣因 則是境界故 無
別兩因異於境界性也 言同體者 正因緣因 旣恒卽
可 緣因則恒與境界同體故 就正緣兩因 復有時同
異 何者 若初流來爲正因 亦前三心與惡無記行爲
正因 此則但是正因 不與緣因共體 若卽取善性行
心 此亦正因 卽緣因同體也 果與果果 體恒是一 但
擧其兩義 以爲二性也 今明義則不爾 亦無如其所
執義 若不二而二明之 假名說二因兩果卽正因 故
[32b] 論云亦假亦中也 若不兩而二論之 體與用開故 亦
言異 若二因兩果相望 有同有有[187]異 二果相卽故同
也 旣假名分爲兩果 寧得同 故亦同亦異 又旣開兩
因 何得同 而境智無復異相 何得異耶 亦是亦同亦

186) 因若 : 若因?
187) 有 : 衍文?

異也 而假名說爲兩因異 若爾境界則通有心無法

129上 心 了因則對境明之 但有心明之故異也 開二果者

開善等云 果性是智 卽習因家[188]果 果〈果〉[189] 卽是斷 卽功能

之果 言果性是習因果者 明果正體本是智慧 因中

旣有於智 能脩習證果 故果性是習因果也 問 前

云三因中無習因 而寧今言果性便云習因果耶

[33a] 答 前雖無習因之名 若論其體 了因卽是習因故

前明了因有兩用 一者斷惑[190]用 二者得果之功 若論

習因 取其得果之義 不明斷惑[191]之功也 果果是果功

能果者 智能斷惑[192]故得涅槃 所以斷惑[193]之功故[194]言是

功能果也 問 卽智能斷 智旣習果 斷云何非耶

答 若合體爲論 亦得說習果 但因中有智 故所明習

果 因中未有涅槃 故斷非習果也 此意涅槃義中具

釋也 今謂 不二而二明之 亦有如斯義 但一家相傳

總別別總 爲涅槃 則意[195]永異也 又二果攝諸德者 開

善云 明佛果之中有萬德 而二果收攝諸德 不出二

[33b] 釋 一云作兩義往取 若便萬德 有顯於智義 卽屬果

性 若便萬德 有顯涅槃義 則屬果果 兩義牽之 二云

明佛果之上 不出有無兩德 凡是有義 悉爲果性所

129下 攝 一切無義 皆爲果果所收 法師多用此說也 今謂

---

188) 家 : (續)에는 果. 家는 与(=與)의 誤字로 생각됨.
189) 果果<果> : (續)에는 果之果. 필사본의 果々果를 果之果로 誤讀한 것으로 생각됨.
190)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91)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92)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93)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94) 故 : (續)에는 없음.
195) 意 : (續)에는 異.

不然 既不用斷德爲涅槃故 諸德並是果性收之 因
不唯取一智行 諸行出果義 並是了因所顯之果 理
是諸德果性收之 但徧擧一智德明之 實論總別兩
德 悉屬正法涅槃體用故也 問 佛果無義 不出子
果兩累 涅槃旣通無子果兩縛 復有何無義而爲果
果所攝耶 答 論196)師釋不同 一云 習因功用圓智將
[34a] 境約智 故諸智不同 如長短約虛空 虛空有長短異
若言諸智有異者 則數量法無常法 南磵師用之 二
云 果地實有諸智 雖有兩智 並是常法 開善龍光多
用此說 如十地義中說 若爾 一云諸智無義屬果果
性 二197)云屬果性 今謂不然 別家198)總故 屬果果 總家199)別
屬果性 若實 論200)無義 解或201)相却202)義 智之功能而無累
義 法身正無累 何者 一切或203)等 本係屬心法 心法是
法身所收 故雖爾並屬正法涅槃 亦是本末故也 又
果性與果果性義屬人者 開善等云 二果同屬一人
卽204)是佛人 問 佛本名覺 果性是智 此可受佛名 果
[34b] 果性是斷 此非智性 寧得亦名爲佛 答205) 開善等解
130上 不同 一云 果性是智 故宜名佛 果果性雖斷德 而其
是智 今以義從206)體 故亦名爲佛 二云 佛雖備衆德 不

---

196) 論 : (續)에는 於.
197) 二 : (續)에는 云.
198) 家 : 미상. 爲?
199) 家 : 미상. 爲?
200) 論 : (續)에는 於.
201) 惑 : 필사본들에는 或.
202) 却 : (續)에는 劫.
203) 惑 : 필사본들에는 或.
204) 卽 : (續)에는 師.
205) 答 : (續)에는 若.

出智斷 今明佛體 謂爲覺者 此是人名 但略以智目
人 不以斷目207)人 故理論智斷 並屬於佛也 今謂不然
佛人者 卽覺者 人法爲別 涅槃爲總 屬果性也 若目
涅槃爲佛人等者 卽屬果果性 此總別兩並是正法
涅槃用故 亦屬體 涅槃若假上相屬者 如無累也 說
二果意者 直正法果 此義自足 又直云金心後一果
亦自足 而今明二果者 正欲奪208)二乘 欲表正法 所以
[35a] 然者 二乘所執 謂有智斷兩德謂究竟 今奪209)彼智斷
並未是滿足 故說佛體有智斷二果 令物慕果 而脩
因倒寫也 問 又明二果所屬者 佛果有眞應兩身
此二果爲屬何身 答 龍光傳開善云 但屬正法身
正是因之所趣 丈六應身乃是法身垂迹 不明二果
故 問 如三寶明義 一體三寶 自就法身 明別體三
寶 此就應身 今二果何不例 答 開善云 三寶兩義
若便其知210)歸反本 則宜指法身 若欲免卽施脩行 則
宜指應身 今明二果本是爲因所趣 若得妙果 則應
130下 現自能 |故唯屬法身也 問 若二果唯指法身 得法
[35b] 身時 自然應現 不假說應爲果者 亦應得一體時 自
能應現三寶 亦不假說異體三寶也 答 綽師述藏
師云 應身三寶 爲依物歸依說應身 二果則無所爲
且別體三寶 佛是應身 法是應說 僧本學人 不開佛
今明二果 無有別義 故非例也 今明義不然 二果亦

---

206) 從 : (京)에는 徒.
207) 目 : 필사본들에는 因.
208) 奪 : 필사본들에는 [大/集].
209) 奪 : 필사본들에는 [大/集].
210) 知 : (續)에는 如.

得言屬法身 亦得言屬應身 何者 眞應兩身 並屬正
法身故 故肇師云 非本無以垂迹 非迹無以顯本 本
迹[211]雖殊 不思議一也 而今兩教起意者 外道計自身
有常故 如來出世破云 身知盡滅 方是涅槃 此意猶
是未究 而二乘計爲至極 如來復說三點四德 始是
[36a] 涅槃 至[212]論涅槃 非有非無 正法涅槃故 昔涅槃只是
無累 非明菩提智 今對明之 非唯有智 亦是大無涅
槃 故存果與果果 故得言二果 屬法身 不屬應身 若
至論應身 亦有二果 即智辨兩果 問 若爾 旣得論
二果 亦得已明常耶 答 一家明義 因無常故明常
因常故明無常 實是非常非無常 故論云 因無常故
明常 故常與無常 並是有爲也 今明一體與三體亦
131上 爾 並是因緣假用 |非一體與別體 而能三能佛能法
能僧 若爾亦得相開 亦得不相開[213]也 問 正因感果
用云何 答 龍光云 正因之用 通於假實 及論得果
[36b] 必賴假名 所以然者 凡是心識便有得佛之理 豈[214]是
剎那而無其義 實法旣有相續理然故 正因用通於
假實 及論得佛必是以果續因 故賴假名 故夫人經
云 生死者依如來藏 故知若假若實 悉是正因 般若
經亦云 非初心得菩提 不離初心 非後心得菩提 不
離後心 非初非後 此就實法爲論 不離[215]初後心 此是
假名爲言也 今謂 正因無有 如無義猶尙非正因 强

---

211) 迹 : (續)에는 亦.
212) 至 : (續)에는 經.
213) 開 : 필사본들에는 關.
214) 豈 : (續)에는 出.
215) 離 : 필사본들에는 雖.

假名正因 何處有如是其說義 今言假實等 並緣因
明之 了因用者 龍光傳開善等義 若便斷或[216]之用 則
分分中有 若便出果之用 此是始終方有 所以然者
[37a] 初地解起 已稍遣或[217] 故斷或[218]之功 分分中有 從初習
解乃至金剛 佛果方現 故出果之功 始終方有 然論
斷或[219]雖分分有功 然要就相續 方有其用 以實法中
無斷或[220]義也 出果之功德 是始終方有 則理是假名
131下 也 問 如[221]解有多[222]種功用 自有斷結之功 有賴相續
照境之用 實法中有 今何不了因斷惑[223] 乃[224]賴相續出
果之能 實法有耶 彼答云非例 出果之功 令昔隱者
今顯故 此用是相續照境之能 非是令不可照者而
今照 以天下境界常自可照故 此用是實法也 境界
因用乃實法自有 今若[225]以境約智 亦得兩說 若約[226]斷
[37b] 或[227]之用 亦得言分分有用 若約出果之能 亦得言始
終有用也 今大乘明義則不然 了因有兩義 一竪論
了於不二亦得 約地分之 分分亦得 此了因故 橫論
出果者 亦得通假實兩道 若爾兩用通假實 大乘明
義 假實實假故 又續故斷 斷續[228]續斷 雖爾大乘經中

---

216) 或 : 惑.
217) 或 : 惑.
218) 或 : 惑.
219) 或 : 惑.
220) 或 : 惑.
221) 如 : (續)에는 始.
222) 多 : (續)에는 受.
223) 惑 : 필사본들에는 或.
224) 乃 : (京)에는 了.
225) 若 : (續)에는 苦.
226) 約 : (京)에는 爲.
227) 或 : 惑.

似用補處相續 而理內因緣明義 並有兩意也 又昔
隱今顯 昔[229]不照今照 齊義也 問 三因兩果性增長
不增長云何 答 龍光述開善云 若果與果果兩性
體極 理無增長也 了因萬善 本是脩習之法 理可增
長 此衆師共說 若是境界因 有生長者 不生長者 若
[38a] 六行爲緣因 理是生長義 若正因長不長 師說不同
132上 一云 因正[230]無有增長 所以然者 明流|來初一念神命
明爲佛正因 其義已是 云何更增長耶 如更增長 則
前時應未足故 不可如阿脩羅大神明亦不大 如塵
少虫神明亦不出[231]也 二云 正因可長 所以然者 正因
之體 有了因用 本以了因於正因 了因旣長 正因寧[232]
得不長 若便正因不長 則了因無用也 問 若正因
逐了因長者 亦應正因逐了因斷 答 不例 斷或[233]之
用 正就了因 正[234]因直是神明故 不談其斷功能 而所
以長者 以其體上有[235]了因用 了了故長 是爲了因能
[38b] 斷故長 正因被了故長也[236] 例如彼若能導故忘 五度
被導[237]故忘 不得責其五度若忘 則應能導也 又問
正因了因 旣其並長 其各[238]有習因不耶 答 習因爲

228) 斷續 : (續)에는 續斷.
229) 昔 : (續)에는 著.
230) 因正 : 正因의 잘못.
231) 出 : 내용상 小의 誤字로 생각됨.
232) 寧 : (京)에는 擊.
233) 或 : 惑의 誤字.
234) 正 : 필사본들에는 無로 적은 후 正으로 수정하였음.
235) 有 : (續)에는 者.
236) 也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佛-10].
237) 導 : (續)에는 道.
238) 各 : (續)에는 名.

語說[239]體上之用 則但是了因 正因直以知性不語體
上異能故 無別習因 是爲立正因 前云不長義者 正
爲正因 無別習因義故 第二云長義有二說不同 一
云 正因亦有習因 而但平品相生無長品生習因義
二云 無習因 而言增長者 正謂其體上有習因用 用
長故令其體亦逐長也 問 正因無增長者 初念寧
得漸漸點耶 答 只爲心轉點故 心强△[240]弱 逐得生
[39a] 132下 執相 汝心心不增者 總△[241] 復非是知性 云何令心法
稍强分別前境故難解也 今明正因 百非所不非 百
是所不是[242] 云何言增長與不增長論之 二因兩果 於無差
別差別之 亦有長不長等義 但語同意異 無有長異
於不長 不長異於長 假名方便得說長不長 卽是無
長不長 非無長非長 畢竟淨也 問 五種佛性有幾
生有幾不生 答 龍光云開善義 五性之中境界緣
因 通生不生義也 若約萬行論 緣了兩因 無常之法
故生也 果性生不生者 大經自有兩文 一文言不生
卽是金剛身品云 非始造 非終成 及下師子吼品云
[39b] 佛性如虛空 非三世攝 寧得生 二文言生 卽是小本
中云 從妙因生 及施戒等卅七品作不生生因 又大
本言佛性雖有 不同虛空 佛性雖無 不同菟角 雖以
百方便 不能令生佛性可生也 此兩文似如相反而
實各[243]據 所以然者 言其生者 是帶因明義 以因時無

---

239) 說 : 旣의 誤字?
240) △ : (續)에는 瘀, (京)에는 微, (龍)에는 판독미상[佛-11]. 體?
241) △ : (續)에는 癈,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佛-11].
242) 不是 : 필사본들에는 없음.
243) 各 :(續)에는 名.

果 因謝果生 故謂爲生 言不生者 是癈因明果 此[244]之
果體 與法性賔[245]一 法性不生 此果寧得生 故言不生
133上 也 今謂 正因百非 云何生不生 是淨[246]亦不淨 餘二因
兩果 並得生亦得不生 何者 旣言假果 寧不生 無生
可生 何曾有生也 故經云 或言生 或不生 生是不生
[40a] 不生生也 問 三因二果性 有前後次第不 答 論
師云 三因各前 二果在後 何者 先因後果 道理應然
三因之中 境界緣因本是有之 有佛無佛 性相常住
此應在前 衆生流來 始有正因 而今不然 先說正因
者 此逐義有[247]親疎 何者 衆生神明 方作種覺 此義則
親 所以義家[248]先說 而衆生雖有得佛理 若不脩行 終
不非[249]得 故次明了因 了因之生 必託境界 故次說緣
因 二果之中 體乃一時 義有前後 故果性爲前 果果
在後也 今謂不然 緣正三因二果 非前非後 亦復非
一時 但無差別差別說從本出末者 從正因出緣因
[40b] 緣果入正因 就緣因緣果中 從緣因出緣果 若境界
相發 亦從境發智 雖然有緣有正 有正卽有緣 緣因
緣果境智果性果果性亦復然 又欲伏不二而二明
三[250] 如常途師說亦得也 第八會教 所以會教者
133下 如今時所說 不應有所會 何者 經論文不同 與義不
相稱 云何可會 又諸義論 或以論就經 或用經會論

244) 此 : 필사본들에는 無라고 적은 후 '此カ'라는 夾註를 붙였음.
245) 賔 : 冥?
246) 淨 : (續)에는 淨 뒤에 生이 있음.
247) 有 : (續)에는 者.
248) 家 : (續)에는 宜.
249) 非 : 能의 誤字.
250) 三 : 之의 誤字?

種種不同 今時依文說法 任自是道理 何須會耶 而
今會者 正有前來所說十師 解佛性不同 各有所報[251]
亦引經文 而今明中道爲佛性故 第一義空 名爲佛
性 所言空者 不見空與不空 非空非不空 爲中道第
[41a] 一義空 爲正因佛性也 他亦言正因者 謂心是也 或
言正因者 謂諸衆生 緣因者 六波羅蜜 又云佛性者
不卽六法 不離六法 凡有心者 皆得三菩提 如此等
並出經文 各有所執不同 前師等自謂 此說是 今時
自以中道第一義爲正 別是一說 餘則非是 爲此義
故 次解釋之 今時無別一說 何者 雖一往反十師所
說 彼以衆生等爲佛性 今明非衆生等爲佛性 乃至
眞諦爲佛性 今非眞諦等爲佛性 故經[252]云 佛說一切
衆生卽非衆生 佛說一切諸法卽非諸法 凡夫自見
有衆生 言是衆生 自隨所見 謂言是佛 見非衆生爲
[41b] 衆生 則非六法爲六法 非心爲心 此等無一法而非
正因 何異 第一義空不見空與不空 不空爲正因 則
134上 不見衆生不衆生 而說衆生 故不衆生卽正[253]因 心識
等亦然 若直論[254]十說 自爲正因 故以道望 無一爲是
善方便望之 十說無一爲非故 故未解中道之前 雖
有諸說 則皆非佛性義 若以正道望 則雖種種異不
同 皆是佛性 爲此故望聖人 反常合道 故思益經云
一切法正 一切法耶[255]也 又淨名訶斥[256]須菩提云 耶[257]見

251) 報 : 執?
252) 經 : (京)에는 往, (龍)에는 經, (續)에는 往經.
253) 正 : (續)에는 없음.
254) 論 : (續)에는 於.
255) 耶 : 邪.

六[258]師是汝大師 汝師若隨 汝亦應隨 經意 若見汝是持戒 外道非者 則是二見人 則不得此食 若爾但正

[42a] 而不邪[259] 則不成正因緣 但邪[260]而不正 亦不成因緣 耶[261]正正耶[262] 相因緣 始得平等爲正 以此而言十說雖不同 如大經卄淨[263]論 若得方便 無非佛性正道 但諸法師 各[264]有所見 自成不同 是爲於於實[265] 故成十說不同去道遠之 今十方三世佛道 何曾不同 但爲一道 種種方便不同故 或示爲王 或爲眷屬 助顯於王 王則無有二 如一寶種種說不同 若爾則明佛性 善有惡無 惡有善無 善要[266]二人同有 二人同[267]無 若不明善惡有無 何以得知 此有非有 無非無 惡非惡 善非善 以爲正性 故前十說 以非爲是 故無一說而非正性者

[42b] 134下 也 不如諸師 爲非爲是 ⌈故非正性也 此是佛隨自意說 衆生不得一向作解 故訶迦葉 汝何故失意作此問[268] 我不說中道爲佛性耶 而諸師不以道望 故失意也 又大經卅二云 洹河中七衆生 廣釋後云 大經中從一闡提 上至諸佛 雖有異名 然不離[269]佛性水 故七

256) 斥 : 필사본들에는 片.
257) 耶 : 邪.
258) 六 : (京)에는 大.
259) 邪 : 필사본들에는 耶.
260) 邪 : 필사본들에는 耶.
261) 耶 : 邪.
262) 耶 : 邪.
263) 淨 : 諍의 誤字?
264) 各 : (續)에는 名.
265) 於於實 : 論論異의 誤字?
266) 要 : 惡의 誤字.
267) 同 : (續)에는 因.
268) 問 : (續)에는 同.
269) 離 : (龍)에는 雖.

種衆生 有善不善法方便道解脫次第 若因若果 悉
是佛性 故佛性望一切法 無非正道 悉爲佛性 次云
佛性者 非是一法 非是十法 非是百[270]法 非是千法萬
法 佛未得菩提時 一切善不善無記法 悉非佛性 則
前明一[271]非 一切法[272]皆非 故一法十法至百法萬法一切
[43a] 皆非 明非爲是 則一切皆是 所以列[273]善不善無記等
諸法皆是 故佛性非而爲是 以是而爲非 此明如來
隨自意 隨自意語 則是無碍[274]之說 不得一向作解 如
是會敎 何但釋迦一敎門得 如此則十方三世諸佛
所說亦得 收同時則 是於法性 無可爲二也 若是非
時[275]則 間如不容物 故天雨無私 終不潤於枯木 二乘
行於別異善根 終不入於佛性水 非但報因 習因亦
然 論師云 二乘等所行 皆入一乘 此義卽不然 經自
135上 自[276]二乘不行 第一義空 故不行中道 故不見佛性 凡
夫不解世諦 二乘不解眞諦 此則二乘凡夫 不行二
[43b] 諦境 二諦以佛性爲本 旣不行二諦 豈行佛性耶 故
非但未會[277]時不取 會時亦究竟不入 何者 經云 汝等
所行是菩薩道 此人行菩薩道 方入一乘 旣不行菩
薩道 云何得入一乘 且法華[278]論云 汝等所行是菩薩
道者 並是性地菩薩行故 無所得 汝等行也 又不見

---

270) 百 : (續)에는 有.
271) 一 : 필사본들에는 없음.
272) 法 : (續)에는 없음.
273) 列 : 一切의 誤讀?
274) 碍 : 필사본들에는 碍.
275) 時 : (龍)에는 時.
276) 自 : 言의 誤字?
277) 會 : (續)에는 曾.
278) 華 : 필사본들에는 花.

第一義空 寧得行菩薩道也 問 中道爲佛性者 則昔小教中已明中道 則已明佛性 何者 如梵王請佛說法 佛爲梵王法[279]云 善男子破諸法 非不能破 非破不破 是名中道 若昔教中已明中道 若爾初教中已明佛性也 答 兩種意釋之 一答此問 須反質答 汝

[44a] 或以衆生爲佛性 或以心爲佛性等 若爾初教已明衆生與識等 則應初教中已明佛性 若便昔教明衆生心等 而未明佛性 至[280]今始說衆生等爲佛性者 我亦昔雖明中道 而未明中道卽是佛性 今時始明中道是佛性也 二答此問 昔日說中道 是眞俗二諦教明之 俗非中道眞是 是破假明中則淺 故聲聞等所

135下 行中 非正法中也 故經三獸度河譬之 又行亦不受不行亦不受 乃至非行非不行亦不受 不受亦不受不與二乘共也 又大論釋累教品云 須菩提所得空如毛穴之空 菩薩空如十方空也 相傳云 如成實論

[44b] 師 眞諦淺空 釋大乘正法空 及地攝等兩有得大乘論師 虛空實二諦 釋無得正法 豈此人得去不[281] 非唯大罪故 亦是非佛弟子故 如此師等 並失經論宗致彼言百非洞遣 應是一種 故亂眞法寶 百非外道亦有 如百論三外道所說 毗曇亦事理論之 亦明百非成實眞諦中百非 攝論三無性中 亦論百非 而意大異 唯廣習遍智之者 簡別之是非也 故吳魯兩國大德常云 有二種破佛之正法 一藉聰明不熟[282]學廣問

279) 法 : 說의 誤字?
280) 至 : (京)에는 全.
281) 去不 : 미상. 法乎의 誤字?

大小經論 漫融通用 故失經論旨趣 故名爲破法人

也 二雖熟聽聞一部論旨 而不廣習餘論 故一論意

[45a] 致 通釋諸論意 復是滅佛法人也 後學諸人 故須愼[283]

之愼[284]之也[285]

顯慶三年歲次戊午十二月六日興輪[286]寺學問僧

法安爲 大皇帝及內殿故敬奉義章也

282) 熟 : (續)에는 就.

283) 愼 : (京)에는 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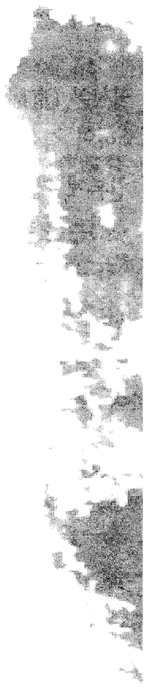
284) 愼 : (京)에는 煩.

285) (續)에는 행을 바꾸어서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八'의 卷次가 있지만 필사본들에는 없음.

286) 輪 : (續)에는 福.

◉大乘四論玄義記

二智義



일•러•두•기

1. 이 <二智義>의 교감본은 2종의 필사본 (京都大學소장본과 龍谷大學소장본)과 續藏經本을 비교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2. 세 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비교적 원본에 가깝게 본문을 재구성하고 각 본의 차이를 注에 제시하였다. (京)은 京都大學소장본, (龍)은 龍谷大學소장본, (續)은 續藏經本을 가리킨다.
3. 丈과 行은 필사본에 의거하였다. 필사본의 전면(우측면)을 a, 뒷면(좌측면)을 b로 표시하였다. 즉, 1a는 첫 번째 丈의 우측면, 1b는 첫 번째 丈의 좌측면이다. 대조를 위하여 續藏經本의 페이지와 시작 부분도 아울러 표시하였다.
4. 일부 한자는 편의상 異體字나 略字를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바꾸어 활자화하였다. (예 : サ卄→菩薩, 為→爲, 即→卽, 既→旣 真→眞, 擧→擧, 関·閞→關, 咲→笑, 躰→體, 㝵→碍, 踈→疏, 尓→爾, 弥→彌, 无→無, 称·秤→稱, 応→應, 仏→應, 与→與, 尽→盡, 旧→舊, 号→號 등)
5. 行 사이에 추가로 적은 글자는 < > 안에 집어넣었다.
6. 결락된 글자는 ㅁ로,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1a] 1)二智義 有四重 第一大意 第二論釋名 第三出體
續136上 第四辨料簡

尋經論意 言般若無知2) 而無所不知 至人無得而無所不得 智卽窮微之鑒 而無照功之 神卽應會之用而無所不照3) 不可言有 名照但4)絶 不可言無 是故垂二智斯在也5) 所言二智者 蓋是應物之假名 相待之稱也 問6) 般若無知無所不知者 無知卽應不照 無不知7)卽應是照 云何二言不稱耶 答 地攝兩論成毗二家釋云 眞諦眞如義 卽無所知 俗諦虛妄邊 卽有所知也 分兩片釋之 此意終是二見之氣釋也 今大
[1b] 乘明義 望彼家境智興8)心識 正是毒虫 故必須破洗地攝成毗四家境智心識 方顯無迹境智等 大乘之凡9)行於10)世故 至人能智境界 而絶無造行於境 故言無知 而如幻11)人無所不知知12) 故言無所不知 只是無知爲知 只是知爲無知 無知非如彼知 知非如彼所知 今言知無知 無毫13)末異也 因知故無知 由無知故
136下 知 知無知因緣假名 如空中長短無二相也 亦得言

1) (續)에는 제일 앞 줄에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九'의 卷次가 있지만 필사본들에는 없음. 필사본들의 표제는 (京)이 大乘四論玄義記卷九, (龍)이 四論玄義임.
2) 知 : (續)에는 智.
3) 照 : 필사본들에는 能.
4) 但 : 俱의 誤字.
5) 『肇論』<般若無知論> (大正藏45, 153c) "然則 智有窮幽之鑒 而無知焉 神有應會之用 而無慮焉" 참조.
6) 問 : 필사본들에는 得.
7) 知 : (續)에는 智.
8) 興 : 與의 誤字.
9) 凡 : 미상. 風의 誤字?
10) 於 : (續)에는 捨.
11) 幻 : 필사본들에는 劝.
12) 知 : 衍文?
13) 毫 : 필사본들에는 [++/豪].

眞諦眞如義不見 故無無所不[14]知 世諦虛妄見 故言
無知也 雖對破之 而經論正意如前也 故山中舊云
至妄而彌存妄 存妄存存[15]則無所不知 如幻人知妄
[2a] 則心識絶慮 如[16]幻人無心識故無知也 如斯無所得
意 非學無得之凡人不知何言也 故經云大乘法杖
梗心毒虫令死 著心虫死 內外淸淨 而要須從內淨
得外淸淨也 問曰 前云般若無智無所不知 是何
般若 體與[17]用耶 答[18] 約體興[19]用明之 亦得 而今意正
約用 般若無智而知之 非正般若也 故大師云 經論
明有無者 有不可言[20]有 非有非不有 無不能言無 非無
非不無 以非有非不有 而無所不有 以非無非不無
無所不無也 故佛性非因非果 非因而因 因有二因
一境界因 二緣因 非果而果 果有二種 一果 卽[21]菩提
[2b] 二果果 卽大般涅槃[22] 今不論二果 但明二因 一境界
因 二緣因 故緣因則二智 境界因卽二諦 二諦二智
以佛性爲本 但有二也 一是因本 二是本因 因本卽
正因佛性 爲二因之本 本因說是境界因興[23]緣因 緣
137上 因卽是二智 境界卽二諦 故二諦二智 以二因爲本
故言尋本諦智之本 本於佛性 得了二諦二智 了達

---

14) 不 : 필사본들에는 非.
15) 存妄存妄存存 : 필사본들에는 存々妄々存々(=存妄存存妄存)임.
16) 如 : (續)에는 知.
17) 與 : 필사본들에는 興.
18) 答 : (續)에는 若.
19) 興 : 與의 誤字.
20) 言 : 필사본들에는 없음.
21) 卽 : 필사본들에는 三.
22) 槃 : 필사본들에는 般.
23) 興 : 與의 誤字.

二諦二智 得了於佛性 但昔敎未顯 故未明五種佛
性 今敎已顯 故明五種佛性 故始得說其本 明二諦
二智 本是二因 二因爲本 然境智悉有其本 自有就
用明本 自有就體明本 二諦以境界[24)]因爲本 二智以
[3a] 緣因爲本 此就用明本 二因以正因佛性爲本 就體
明本 正因非因非果爲本 是卽般若也 空有二諦二
智 以佛性爲本 故言二因爲境智本 就二用相因卽
互爲本 今於佛性爲諦智本 了諦智爲本 則明了佛
性 故明二諦二智 爲開佛性 明佛性 爲開二諦二智
故言本也 所以尋本 說二諦二智體 地攝等四家所
行也 故大經云 所言空不見空興[25)]不空 不見不空故
不行中道 旣不行中道 故不見佛性 不見佛性故 亦
應云不見二諦二智 故大品經卄四卷四攝品云 佛
告須菩提 凡夫實不知世諦 不知第一義 不知中道
[3b] 不知分別道果 云何當有諸道不等也 故地攝成毗
等目所見世諦 興[26)]觀智所證眞如眞諦 卽是有所得
137下 二諦二智 非今所明 無所得二諦二智 佛菩薩所行故
尋二智本 本於佛性 何佛性爲本也 問 二智旣言
佛性爲本 二諦亦應爾 何意二諦不明尋本 而二智
中說本耶 答 不二而二詮之 亦應同以佛性爲本
而不卽明二諦者 二諦是佛所說敎門 敎門稱於衆
生根緣爲諦 衆生悟解爲智 而解之智 於何悟解 悟解
佛性不二正法故 於二智中明於異[27)]本也

24) 界 : 필사본들에는 不.
25) 興 : 與.
26) 興 : 與.
27) 異 : 미상. 其?

第二釋名 所言二智者 一者方便實智 二者實方
[4a] 便智也 如八不義中釋 實以審諦爲義 法實審諦 無
所有 無所說 故方便以善巧爲義 亦得言方便以實
爲義 實以方便爲義 亦言方便不方便爲義 實不實
爲義也 又經論出異名非一 或名權智 亦名善權智
亦合名行權方便智 亦名世諦智 或名俗諦智等 或
名眞智 或合名眞實智 亦名如實智 亦名如如[28)]智 鈍[29)]
實際法性等也 但釋權義 解不同 有四家 一云 權是
變謀 善巧之善故 反常合道也 二云 權假之義 卽隨
境名智 世俗與應現非實也 三云 權時權宜暫示之
名 是化導接引巧恒名也 四云 權是從譬之名 如世
[4b] 138上 權衡稱物 量其輕重 權是錘也 則權以詮[30)]量義 衡者
以平爲義 今但取權 以譬化物之智 能詮[31)]量機宜 稱
於化道 善得其時宜也 風俗通書取傳[32)]易明之 權者
鈴[33)]也 如國語書第九云 衡横諸法攝云 稱輿[34)]衡是平
義 今皆是釋權 權義多種 隨時通變 鈴[35)]量時宜 悉是
其義 但擧譬爲名也 通稱智者 亦有三勢 一智達了
爲義 亦是決了義 大品經金剛品云 決了義 大論卄
三卷云 決定智無所疑[36)] 故名爲智 亦得言智慧解智
等義 二權以智[37)]爲義 權以智爲義[38)] 亦得言智以愚爲

---

28) 如 : 필사본들에는 之. 같은 글자를 표시하는 々의 誤讀으로 생각됨.
29) 鈍 : 미상.
30) 詮 : 銓의 誤字?
31) 詮 : 銓의 誤字?
32) 傳 : (京)에는 傅.
33) 鈴 : 銓의 誤字?
34) 輿 : 與의 誤字.
35) 鈴 : 銓의 誤字?
36) 疑 : 필사본들에는 終으로 적은 후 疑로 수정하였음.

義 愚[39]以智爲義 三智以不知爲義 權以不權爲義 地
[5a] 攝兩論 引地持論云 離增上慢智名如實智 有五義
一對妄明實智 何者 知如來藏眞實法 名實智 知於
妄想情所起法名妄智 二對假明實 何者 知第一義
眞諦法 名爲實智 知於世諦名法 名假智 三對相明
實 何者 知知[40]一實性 名實智 知於二諦有無法相 名
相智 四對教明實 何者 證窮法性 名實 尋言教始學
名教智 五對權明實 何者 知於一乘眞實 名實智 了
知三乘權化 名方便智也 方便智者 汎解經論 有四
138下 種 一進[41]趣方便 如[42]見道前方便等 進趣向與不與果
爲由 故曰方便 與果相對明之也 二施造方便 如十
[5b] 波羅蜜中 方便波羅蜜 於脩行善爲之 故言方便也
此義十波羅蜜中說也 三聚成方便者 諸法同體 巧
相集成 故曰方便 云何巧成 彼云 一眞心中 曠備法
界恒沙佛法 是諸佛法 以同體故 今謂 無住本能生
一切法也 四權巧方便 實無此事 權巧施之 故曰方
便 於中分別有三種 一是身巧 謂作猨猴鹿馬等化
事 二是口巧方便 實無三乘 隨緣化說之 三是意巧
方便 慧起前身口二種巧化度 如法華經云 尋念過
去佛所行方便力故 我今所得道亦應說三乘 如是
等也 今謂 無差別說差別 並有五種 四種卽是般若
[6a] 能生一切法義 但如彼所解 必破洗除假名所設 卽

---

37) 智 : 필사본들에는 故.
38) 權以智爲義 : 衍文 혹은 智以權爲義의 誤謬?
39) 愚 : (續)에는 是.
40) 知 : 於의 誤字?
41) 進 : (續)에는 通.
42) 如 : (續)에는 知.

是開空中織羅等並得也 第三明體相 二智體至
論正法中道爲體 約用明之 照俗方爲方便智體 照
眞如爲實知體 如地攝家 阿梨耶識 爲二智體 若成
論等心爲二智體 今隨如大意中說 不二爲體 約用
139上 明之 實方便知爲體 方便|實智爲體也 第四辨廣
料簡有三 第一雜料簡 第二論須彌入芥子 第
三明斷伏 第一雜料簡 興皇大師云 此境智義 最[43]
難解 凡有心者 無不云心行於境 此心爲妄俗 定有
此法得佛之因故 此心法雖卽空 而心法是妄俗 異
[6b] 於虛空等法也 今約三人顯其重病 餘者可知也 一
者 坐禪人所計 必有能緣之心所守之境 及與捉光
明 或如星 或如初月 此爲正定體見 如此執計 恐是
刹利神黃色 婆羅門神赤色 毗舍神色白 首陀神色
黑 無異故 此見不可卽故 不得今無所得境智義 二
者 行道持戒人 亦云必有能行所行之道 此見不可
息而行故 亦不能得今[44]無迹義 三者 地攝成毗論師
等解義人 各有求了之心 及所了之義等 如是等見
人無勉[45] 無勉[46]者故 終不能得解無所得義也 師云境
智能所之[47]見偏遍而具曠 若人法等多而爲一種 此
[7a] 見爲狹亦短 上三見難息故 一家漸[48]捨明二智者 卽
是初章對他而辨之 他境智能所性成 此境卽非智
139下 境 此智卽|非境智 故落有所得 今知是境 只境名知

43) 最 : 필사본들에는 冣.
44) 今 : (續)에는 없음.
45) 勉 : 免.
46) 勉 : 免.
47) 之 : (續)에는 立.
48) 漸 : (京)에는 斬.

化[49]知非境 是知故知 境非知 是境故境 今是知境故
是不境而境 亦是境知故 是不知而知 以不境境卽
非境 不知知卽非知 所以非境非知 而境而智 此是
漸捨語 非關境知義 何者 以非境非智 二去卽是斷
而境而智 兩來卽是常 以非境非智 兩盡豈非斷 而
境而知 無所從而有 豈非常耶 答[50]非境非智 一義故
名中 而境而智 二義故名假 名爲當有一不二開爲
[7b] 二 云何不二而明二耶 又不二故一 一豈是中耶 答[51]
一是中 二亦應中也 旣不一故二 二寧稱假耶 若二
是假 一亦應是假 故令辨非偏 故假名中 故名中假
也 若作智境境智初章義者 大師云 此猶是掘頭無
首尾 雖然比於有所得家屋[52]智之境 猶有萬倍[53]之勝
也 故令辨境智者 了二與不二義 何者 明境智義卽
是辨於能所 所以明境智能所者 一正爲欲開發佛
性義 二爲欲顯於正道 云何能所開發佛性 明佛性
非因非果 非有非無 非境非智 非能所 名曰正性 正
性非因果 而開爲因果 開因能所名爲境智 卽是因
[8a] 與因因 開|果卽是果與果果大般涅槃 依開善宗卽
140上 是知斷 若依舊總別義 卽是果與果果[54]也
若了前大意中之意 不須廣說 但恐未解 故更明之
今開因能所者 以十二因緣境 能生觀照 名爲佛性

49) 化 : 他의 誤字?
50) 答 : 若의 誤字.
51) 答 : 若의 誤字.
52) 屋 : 미상. 離?
53) 倍 : (京)에는 信.
54) 필사본들에는 이 뒤에 '大般涅槃 依開善宗卽是知斷 若依舊總別義 卽是果與果果'가 중복되어 있음.

卽是名境界佛性 觀十二因緣智 名爲佛性 卽是爲
觀智 故言十二因緣猶如葫瓜[55] 能發熱病復能除也
然此能所 不可言其一 不可言其異 以離緣境無別
觀智 離觀智亦無別因緣 亦十二因緣 能緣義卽是
智 能發義卽是境 所以十二因緣 亦是因 亦是因因
[8b] 亦是能發 亦是所發也 言境智能所是相開[56]發義者
明境名因智起發 若無智者 卽境名不發 由智故境
名發 智名亦因境乃發 若無境者 智名卽不發 以因
緣故境智俱發 智名因境乃生 若無境卽智名不生
亦境名從智乃生 故境智因緣 二名俱生 旣境名因
智發故 智能名爲境所 境能名爲智所 能所相開[57]發
若有異智[58]之頑境 何關[59]智發 若有異境之智 何關[60]境
發 以是性義 各自成故也 今明 因境得開智 因智得
發境 若不因[61]智 豈得發境 故今就二望爲釋 以智爲能
140下 照 境爲所照 境爲|能發 智爲所發 此所卽[62]能故 能
[9a] 照只是照於所能 所發只是發於能所故 境所名智
能 智所名爲境能 故境智俱能所 以境能爲智所 故
說智及知處 皆名爲般若 以智能是境所 故說境及
境處 皆得名爲境 旣說境及境處 皆名爲境故 故說
境及境處 皆名爲爾炎 旣境能爲智所 故非境 亦智

55) 瓜 : 필사본들에는 [艹/瓜].
56) 開 : 關?
57) 開 : 關?
58) 智 : 필사본들에는 諸.
59) 關 : (京)에는 開.
60) 關 : 필사본들에는 開.
61) 因 : (續)에는 同.
62) 所卽 : (續)에는 所卽, 필사본들에는 所々. 卽을 々으로 誤讀한 것으로 생각됨.

能爲境所 故非智 非境非智 而境而智 旣非境而境
故名非境境 非智而智 故名不智智 不智智故 不有
而有 不境境故 亦不有而有 有而不有 不有而有 故
名無所有 有而不有故 名有所無也 故經云 說智及
智處 皆名爲般若者 地攝等四家云 說智及智處 皆
[9b] 名爲般若 從智得名也 此亦難解 若言境從智得名
者 境非情非智法 智亦應非情非靈智法 又境不生
滅者 智亦應非生滅 又境無階級 智亦應無階級也
今謂不然 有二義 一者般若境 般若智 般若教 故並
得般若 如五種佛性義也 二者如前 卽智能爲境所
也 又說境及境處 皆名爲爾炎者 是卽境爲智所故
所以能是所能 所是能所 是卽中先假 名爲待絶義
141上 所言待絶者 諸法本來無有絶與待義 而爲衆生故
立諸法假名相待 故言待絶 是卽中先假也 非能非
所能所者 是卽中後假 故卽是絶待義也 非能非所
[10a] 能所 是所非所 是能非能 故非能非所能所 卽中後
假 卽是絶待義 所言絶待者 雖爲衆生故 立諸法假
名相待 此能所實非能所 以能非能 以所非所故 絶
於向者相待 故言絶待也 問 諸法假名相待 爲衆生
故開立此義可解 此絶待義爲 誰故明之 答 亦爲
衆生故 開相待義與絶待 何以故 衆生但解 由能故
所 由所故能 而不解非能非所 卽不解絶待義 卽未
具足義 故開絶待義 卽是破病意 若但識相待 不識
絶待義者 非但不識絶待義 亦復不識相待義 所以
待而有不待義 不待而有待義也 大師云 如非常非
[10b] 無常 而常而無常 是二鳥雙遊 不相捨離 卽是其義

故今非能非所 是絶待義 亦是非能非所 雙遊相待
義也 如地攝等四家 境智旣異 不得但名波若 及但
名爾炎也[63] 如此之見 須畢竟淨之 如大品經云 色畢
141下 竟淨 乃至薩婆若亦畢竟淨 一切法究竟畢淨 故因
緣境智名方得生也 一家舊云 此境智 猶如新故 故
借新故事釋成也 何者 實論卽非本始 此新無故 而
因新故故 因故故新 因故故新 故名爲新 因新故故
新名爲故 新名爲故 卽新故俱故 故名爲新 卽一切
皆[64]新也 若更復明 分新故者 卽得以新新名新 故故
[11a] 名故 旣得新新名新 亦得新新名故 旣得故故名故
亦得故故名新 此卽是因緣顯發 新故名新 故新名
故 名故[65] 新名故亦復名新新 故名新亦復名故故 以
新故 故名故新 故新[66]爲新故 故故新也 一家相傳云
如前云 能所義長 而因[67]果等義卽短也 問 若能所
義長者 因果義等亦應長 若因果義短者 能所亦應
短 答 因果義宗祖[68] 但是相感相酬一義 故[69]且狹且短
而能所義卽無所不通 如非因果爲能 則有所成因
果 亦因果爲能成 非因果爲所 故因果義故能而不
所也 今明境所因能智 故名爲所能 智所能因境能
[11b] 所 故名爲能所 能所旣言二種俱能 亦二種俱所 二
142上 種俱所故所而不能[70] 故能〈所〉 二種俱能故 能而不所 能

---

63) 也 : (續)에는 없음.
64) 皆 : (續)에는 없음.
65) 名故 : 필사본들에는 色故. 衍文으로 생각됨.
66) 故新 故新 : (續)에는 故故新新. 필사본들에는 故々新々.
67) 因 : (續)에는 果.
68) 祖 : 필사본들에는 없음.
69) 故 : (續)에는 所.

而不所故所能 能所非所 所能非能 故非所非能 强
名之爲實智也 又樹葉等並說苦空無常等 豈非是
智慧 又幻化人等能說種種法 得常非是能智故 一
家義宗 境智並通也 問 樹木等說法 幻化說法[71] 非
有心法 寧得智慧通耶 答 他宗境智有異 有心無
心異 二見故作此疑耳 今明 一無量 無量一 卽是散[72]
束開合故 亦得一亦得異 故通於〈智〉慧也 一家辨能所[73]
復所能故名不所能 不所能者 卽是不能能 此卽是
[12a] 絶待能 故實智名能而不所 此方便亦非實方便 故
亦能而不所等 亦無能無所 名爲實諦 亦無能所 名
世諦 所以一家辨三種二諦 正如此意 旣能而不所
復非能非所者 此能非所能 此所亦如此 故明此境
智能所等但[74]絶也 地攝兩論成毗二家 亦有諦智 須
辨同異 今辨諦智之名 與他四家雖同 意永異 何者
彼有二諦理與會理之二智 今無此二諦〈理〉及二智之
可有 故不同之 而[75]等有諦智者 名字中亦得同而異[76]
也 今無如彼諦智故 無可論[77]同 旣無可論同 復有何
142下 可論異也 旣[78]無可論同|異 故餘一切法無可論同 旣
[12b] 無可論同 復有何可論[79]異也 今求[80]其異無之可異 求

---

70) 能 : (續)에는 없음.
71) 法 : (京)에는 云.
72) 散 : (京)에는 敬.
73) 所 : 필사본들에는 非.
74) 但 : 俱의 誤字?
75) 而 : 필사본들에는 而로 적은 후 了로 수정하였음.
76) 異 : 필사본들에는 實.
77) 論 : 필사본들에는 詮.
78) 異也旣 : 필사본들에는 實諦智.
79) 論 : 필사본들에는 詮.
80) 求 : (續)에는 永.

其同不成 卽無同之可同 故智同出同者 同二諦未
曾同 令我若爲同異出異者 異二諦未曾異 異義旣
不成 令我何所異也 若言卽道理同異 汝同異義得
成者 可論令我與汝同 令我與汝異 汝同異旣不成
令我何所同異 辨二智亦類然也 今明 無同之可同
之[81] 無異之可異 責汝諦智旣不成 有何同異也 又汝
二諦體一體異 一異旣不成 故無[82]二諦 二諦無故亦無
諦智 故不須論諦智同異也 今明二諦 是佛菩薩所行
方便隨緣故說 如華嚴等經所辨也 大經又云 世諦
[13a] 卽第一義諦 但隨順衆生說有二諦耳 十二門論亦
云 因世諦故得第一義諦 因第一義諦故得涅槃 以
方便隨順說二諦者 明凡夫隨業所感卽世諦 今隨
彼而說 故說非第一義 第一義中無說無言 故如二
諦中說之也 今明二諦是因緣義 不可得其異 豈可
論其一 不如龍光宗執二體 開善等言一體 今是第
一義世諦 世諦第一義 卽是說不說 不說說 不[83]說不
143上 說 不可二不可一 ⌈不如他云 眞異於俗 不說異說也
故一家云 如王宮生 卽是第一義世諦 後捨俗出家
卽是世諦第一義 故從初得道夜 終至涅槃夜 凡有
[13b] 所說 無非二諦因緣 故云常說中道也 大師云 如涅
槃經辨三行 謂苦行 樂行 不苦不[84]樂行 不苦不樂行者
卽是佛菩薩所行之道 不上不下 名爲常行中道 中道
是第一義諦 佛菩薩能行中道故 得第一義諦 了第一

81) 之 : 亦의 誤字?
82) 無 : 필사본들에는 없음.
83) 不 : (京)에는 木. ホ(=等)의 誤字로 생각됨.
84) 不 : (續)에는 없음.

義故 方得行世諦 以了不二故 方能了二 旣了二諦
故能發生二智 二乘旣不行中道 故不得第一義諦
不得第一義諦故 亦不識世諦 所以不二智 云何識
境智 故言二乘不識境智 故亦不得境智之名 凡夫
故自無 故經云 二乘不見不空 故不行中道 故不得
第一義空也 今明佛菩薩方便所行二諦如斯 故不同
[14a] 四家 有二諦二理等異不異等也 二乘旣不行二諦
故無二智 無二智故無有般若 而成論師云 二乘與
菩薩俱會第一義 但有中種種行行異者 斯卽乖[85]經 亦
不識經中義也 問 權智與方便智 是一是異 答[86]
143下 通而爲謂一 何者 無非方便並是假名故 若無差別
差別卽異 故一家判實方便智 卽長而廣 權得[87]短而
狹 若從王[88]宮生〈至〉雙林一化 始終名爲方便智 於方便
中 抽取一枝 用一時 暫示[89]轉變種種異事 如芥子貯
須彌 室芭覆像等 姪女酒肆等事[90] 此是卽權用 用竟
卽癈 故短而狹 故名權智也 故大師開三種二智 一
[14b] 有實方便有權方便 二有方便實有權實 三有方便
權有實權 六種二知[91]也 問 若[92]爲是實方便 復云何
權方便耶 答 師云 實方便 如向長而廣 卽是實方
便 亦是權方便 是聲聞方便也 權方便者 卽是向於

---

85) 乖 : (京)에는 乘.
86) 答 : (續)에는 若.
87) 得 : 卽의 誤字?
88) 王 : (京)에는 之.
89) 示 : 필사본들에는 尒(=爾).
90) 事 : (續)에는 없음.
91) 知 : (續)에는 故.
92) 若 : 필사본들에는 答으로 적은 후 '若乎'라는 夾註를 붙였음.

長廣方便中 抽一枝權用 此皆是權示[93]一方便用 此
方便卽短 亦得言如前權實 並是菩薩作方便 故言權
方便也 故是實方便 此卽廣長 權方便短狹也 問 若
爲是方便權實耶 答 卽如王宮 雖生不起 雙林滅
而無失 此卽無始無終 無生無滅 法相常爾 卽是方
便實 此亦長廣也 權實者 如二乘人斷煩惱所得智
[15a] 慧 卽是權實 何以故 二乘人斷煩惱所得智慧 實未
是實智 但權時詺[94]其所得爲實 故名爲權實 亦卽是
144上 實權 何以故 詺[95]此爲實卽是 權 作此說者 豈非實權
耶 只此二乘人所有方便 亦卽是權方便 權時詺[96]之
爲方便也 又只佛今斷煩惱所有智慧 亦是權實也
何以故爾 佛本來離四句百非 而爲衆生脩證得故
所得智慧詺[97]爲實智 此亦是權詺其實知 故是權實
也 問 何者實權 及方便權耶 答 方便權卽是向權
方便 還是向方便中 抽一權用 卽是方便權也 實權
者 卽是向權實 還是實智中 抽一斷除用 如佛斷煩
[15b] 惱所有智 此是實智中 抽一權用 故名爲實權也
問 可得言詮實慧一用 只就方便慧中有權實不
答 亦具 如向方便權中 權爾[98]暫用卽是權 只此權卽
非權 豈非實 此權實並就方便中有也 何以故 向辨
實慧 只王宮生不生 乃至雙林滅卽非滅 卽是實慧
何妨權非權 卽是實慧耶 大師或時開二種二智 一

93) 示 : 필사본들에는 尒(=爾).
94) 詺 : (續)에는 落.
95) 詺 : (續)에는 落.
96) 詺 : (續)에는 落.
97) 詺 : (續)에는 落.
98) 爾 : 필사본들에는 尒. 示의 誤字?

者是實方便二慧 二者權實二智也 若實慧與方便
慧 卽就大品經意 若權[99]實二智 是就淨名經意 大品
經是平道用故 正辨實慧與方便慧 淨名經爲一時
爲時衆故 當時善巧之用 種種無所不爲 以是義故
[16a] 144下 淨|名經正辨權實二智也 故法師結會云 所言權實
者名[100]聲聞 若智若斷 皆是菩薩無生法忍故 聲聞無別
有實智 並是權[101]化 故言權[102]實也 所言方便實者 是當體
得名也 權實者背上△[103]得名 非當體得名也 實方便
與權[104]方便者 理實是菩薩方便也 若權方便是聲開[105]方
便亦得 是背上得名也 故實方便者是菩薩實方便慧
故言實方便也 權方便者亦如上權實 並是菩薩權作
方便 故言權方便也 方便權與實權者 並是菩薩方便
權與實權[106]也 所言方便權者 此卽是菩薩方便慧上善
巧之用 如維摩經所辨 菩薩種種無所不爲 故言方便
[16b] 權也 所言實者 卽是於眞實上更起用 故言實權 亦
是背[107]上用也 若方便權者 是實方便眞上善巧之用
故方便謂實長 權則短也 若實權者 是卽對實知明[108]
權智 故諸經云權實二智也 又有四種二眞[109] 何者 一
方便實眞 二實方便眞 此兩句卽是體也 三實權 四

99) 權 : 필사본들에는 捨.
100) 名 : (京)에는 若, (龍)에는 若으로 적은 후 名으로 수정하였음.
101) 權 : 필사본들에는 捨.
102) 權 : 필사본들에는 없음.
103) △ : 판독미상[智-1]. 望?
104) 權 : 필사본들에는 捨.
105) 開 : 聞의 誤字.
106) 權 : 필사본들에는 捨.
107) 背 : (續)에는 없음.
108) 明 : (京)에는 開.
109) 眞 : 慧?

方便權 此二句是用也 所言實方便與方便實是體
者 菩薩一化始終並是菩薩方便 故言方便 對用故名爲
145上 體也 所言實[110]權[111]與方便權是用者 於方便眞上更起
之用 於實眞上更起之用 故言是用也 方便眞上更
起權用 是菩薩知也 於實眞上更起權用者 是聲聞知
[17a] 也 菩薩於實眞上 權作二乘之用 故言實權也 此亦如
前實權也 論師宗有 漸頓徧三種敎不同 今就漸敎
有四時與五時敎 辨二智義 白琰師云 鹿苑即前說
人天之敎 此時未正轉法輪 置與不取 起自鹿苑迄
于雙林[112] 旣有四時法輪 故就此明二智也 一實智 二
權智也 第一時先小乘二智 若依毗曇宗會四實理
以爲實智 俗諦之解及等智等 皆爲權智也 論意明
之 能照眞空 以爲實智 照四諦理 一切俗境 皆爲權
智 對境說智 理應如之 立二智之說 不必一向[113] 對境
立敎多種 如以能照功[114]爲實智 化物之功皆爲權智
[17b] 等也 開善五時意祖[115]同耳 第二時說大乘二智 取賔[116]
心眞境 以爲實智 涉有化人爲權智 並淨名思益首
楞嚴等經 略同與五時般若爲宗也 開善意 以照眞
爲實智 照俗爲權智 與俗中[117]化物說法應變神通 皆
爲權智攝 故權智有多種也 第三時說同歸[118]敎 二智

---

110) 實 : (續)에는 寶.
111) 權 : 필사본들에는 捨.
112) 林 : (京)에는 體.
113) 向 : (續)에는 同. 필사본을 따름.
114) 功 : (京)에는 切.
115) 祖 : 相의 誤字?
116) 賔 : 冥?
117) 中 : (續)에는 十.
118) 歸 : 필사본들에는 [身*反]으로 적고, 옆에 '恐皈(=歸)'라고 細注를 붙였음.

145下 謂智 歸一以爲實智 分別說三 以爲權智 又照壽量
長以爲實智 照諸應身能權智也 開善云 以照空爲
實 照有是權智 本是定林寺柔[119]法師義 後諸法師云
褒貶教 以備鑒空有一切智 爲〈實〉眞 轉變化物示現多
方 皆爲權 何者 初教[120]多說有 般若教多明空 二乘捨
[18a] 有沈空 不能備[121]習種智 故守住小道 菩薩具照萬境 則
爲實智 與能化度變現不測 故並有權實 備明兩[122]智
也 第四時說圓極二智 照極[123]果以爲實智 照生死諸
法 若俗若眞 皆爲權智 又以照本爲實智 照迹爲權
智也 開善第四法華同歸教 若依此宗 照一乘之理
本來是一 今則無二無三智 一因得一果 是實智 照
方便接引 說三乘差別 三因得三果 爲權智 若於佛
果分權實者 照壽命長遠無量 爲實智 應迹神通之
力脩短之異 爲權 何者 彼經言 開方便門示眞〈實〉相也
天[124]人經亦說意 聲聞辟支佛〈者〉是佛方便 於今望昔 則
[18b] 昔說三是今一之方便 今一是昔三之實相 則就一
乘三乘 開爲權實也 與一乘之果歸於佛地 佛地過
於昔教 壽不可盡 於此復爲實 應脩[125]短 皆是神通力
146上 如是悉是權 此正宗小教中所說 如實智境之實 說
法轉境之權 能通有之也 第五時教 開善云常住究
竟教 亦名一體三寶教 故云大經宗 常住一體三寶

---

119) 柔 : (續)에는 榮.
120) 教 : (續)에는 數.
121) 備 : (續)에는 脩.
122) 兩 : (續)에는 而.
123) 極 : (續)에는 없음.
124) 天 : 夫의 誤字.
125) 脩 : 필사본들에는 備.

佛性宗致也 故亦兩義 得權實二智也 一就佛果 以
對因之 照常住果 是一實諦 知因中未眞虛僞不停
爲權智 二就本迹得權實 佛果妙本智 此爲實 應迹
不現智 此爲權 與常住果取正智爲宗 若敎中所說
[19a] 義 通有諸餘義 而權實分者 觀空爲實 照有名權 以
應現說法變動之 皆是權也 第二[126]就頓敎明權實者
開善等云 華嚴梵網經等是頓之敎 是實與自備有
權實二智也 問 頓敎具有二智者 爲當取五時二
智 偏取大經極敎二智耶 答 彼云 涅槃明果大滅
度爲宗 厝除無常病故 次第漸漸深 至果爲極 卽佛
果本地爲實智 因中生死應迹爲權 若頓之敎備明
因果 因則十地等萬行 果則涅槃是常 於一敎中備
有諸權實 可同四時大乘 但自有不同初敎小乘 故
如彼經云 舍利弗等五百聲聞如聾如盲[127] 不聞不見
[19b] 大乘大事也 與同五時者 照眞爲實 智俗爲權 同初
146下 敎也 亦如般若說萬行等 又菩薩行明得[128]空有竝觀 卽
同般若 淨名與未必盡同裒貶耳 得同歸一乘 與方
便接引 則有法華權實 常住因果 本迹之智 苞涅槃
之權實 皆是菩薩道故 是同佛華嚴也 第三明偏方敎
亦名不定敎 亦明二智與權實不定 一開善等云 或
但明實 如枯[129]樹經說常 如偏爲梵志說佛性爲滅不
斷 此則偏明實也 或有偏明權假 如爲毒龍說唯現
佛影示 是權迹也 或一敎備明權實 如夫人經云 一

126) 二 : 필사본들에는 三.
127) 盲 : 필사본들에는 [目*盲].
128) 得 : (續)에는 德.
129) 枯 : (京)에는 [木*合].

諦一依是眞實 而復明一乘及二乘五乘 是方便等
[20a] 卽是權也 金光明經中云 佛眞法身爲實 應物現形
是權也 雖爾未必以權實爲宗 與有遠[130]義也 舊相傳
云 偏方敎正意 處所偏 從衆[131]偏等爲宗也 今大乘明
義 並不同四時五時三種說 非經說言 具如夢覺等
義科中破也 開善等云 實智者 不空爲義 以前境是
眞 稱實與智 目解心名實知 權智者 浮虛爲義 前境
是虛 稱虛與知故 亦目心故名權智也 攝論師亦云
或依他性與分別性 與智名權智 如眞實性 與智名
實知 或如三性與智 名爲權智 如三無性而[132]知 名爲
147上 實知[133] 或云如應化|而知 名爲權智 如法身而知 名爲
[20b] 實智 或二身智慧[134]爲權智 眞如法身智慧爲實智 地
論例此可類也 今觀四家所執二智 多從境得名 故
落二邊 境異於知 知異[135]於境 故無慧[136]方便縛 無方便
慧縛中也 今明由慧[137]方便由方便慧[138] 乃謂有方便慧[139]
有慧方便解[140]故 今謂 只佛性般若爲二智之體 只二知卽
是般若佛性 何事縛 何事解也 如諸佛身 非眞非應
而有眞應之能 般若 非權非實 而有權實二能 今明
曲巧[141]隨從便之能爲權 若一化始終相通 以其昔爲凡

130) 遠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智-2].
131) 衆 : 필사본들에는 [宀/川].
132) 而 : 與의 誤字?
133) 知 : 필사본들에는 智.
134) 眞 : 필사본들에는 慧.
135) 異 : (京)에는 具.
136)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37)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38) 慧 : 필사본들에는 有.
139)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40) 有方便慧有慧方便解 : 필사본들에는 有方便眞方便解.

初求佛道 至雙林則長廣 故方便 但方便該[142]通 如見
諦道前已善相 亦名方便 又諸觀行並前後方便與
[21a] 正觀 而今方便知者 釋迦初生 至金沙集 並是方便
智也 問 大論云方便波羅蜜 唯菩薩有之 二乘則無
此何方便耶 答 一家解不同 一云 無住建立一切
法 爲方便慧[143] 此方便慧 通一切法中 而亡義爲方便
慧[144] 別相知一切法義名道慧[145]種慧[146] 若爾 亡義則總是
方便 別相智義 道慧[147]道種慧[148] 一時義分異 如論師色
是無常法塵所收 青黃等義是五塵所收也 復須智
147下 之 如論師義能智解是至亡 解是體 亡是用義分異
今大乘明義 亡是體 解是用 無分別而知一切境 若
爾 如幻化人無分別義是亡而非是 不知境是解[149] 如
[21b] 色等而知解故解知也 如六度中 般若一度導五度
五度亡前境 而亡知之異 今正法般若故亡一切法
而無所不知 是六度等知 故論云方便智唯菩薩有 如
六度中般若 唯聖人得之異也 二云 得正法般若之
六度等萬行 卽是方便 六度等與方便 義分通別異
耳 問 從王宮生 乃至雙林滅 並是方便慧[150] 與得正
法之方便 爲一爲異 答 總別異也 王宮生雙林滅[151]

---

141) 巧 : (續)에는 없음.
142) 該 : (續)들에는 誰, 필사본들에는 誰로 적은 후 該로 수정하였음[智-3].
143)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44)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45)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46)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47)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48)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49) 是解 : (續)에는 解是.
150)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51) 滅 : (續)에는 哉.

之方便 卽長廣故異也 問 脩行成佛是方便不 他
明修行滿故得成佛 則非方便 若佛菩薩應應化衆生
脩行滿成佛 則是方便 今則不爾 成佛亦是方便 不
[22a] 成亦方便 至論道行 未曾是成與不成也 又他云淺
爲深用 深爲淺用 皆是方便 若淺爲淺用 深爲深用
此則非方便 今明具有四句 並是方便 並非方便者
淺爲深 深爲淺 旣是方便 亦淺爲淺 深爲深 亦是方
便 比論道門 未曾深[152]淺 深淺並是方便 假令方便非
148上 方便 亦是方便引接物故耳 並非方便者 未體語故
並是方便者 體語法相故 淺深不二故 淺得爲深 深
得爲淺 並是方便也 問 淺云何得爲深 答 此淺
〈深淺〉故 若淺非深淺 則不成淺 旣是深淺則無碍 故淺得
爲深 深得爲淺也 問 地攝兩論成毗二家 旣六度
[22b] 等行 得爲方便波羅蜜不 答 不得爲方便 彼[153]只得
徧[154]行六度 與偏卅[155]七十二行等 寧得是方便 故大品
大如品云 六十菩薩五百佛所行萬行 而不得入菩薩位
故授記不得 又小般若經云 八百四千萬億那由他
承[156]事無空過者 而不得授記 於値燃[157]燈佛 方得授記
大品經三歎品 亦然也 若爾 彼四家云何得方便而
得云[158] 彼[159]有所得得方便也 問 淨名經方便品云 方

152) 深 : (京)에는 神.
153) 彼 : 필사본들에는 波.
154) 徧 : 필사본들에는 偏.
155) 卅 : 미상.
156) 承 : (京)에는 最.
157) 燃 : (京)에는 결락. 빈칸으로 두었음.
158) 云 : (京)에는 大.
159) 彼 : 필사본들에는 波.

便意 其相云何 興160)皇161)大師開爲四 若疾爲疾 亦非方
便 若不疾爲疾 亦非方便 若疾爲不疾 亦非方便 若
不疾爲不疾 亦非方便 世人意不疾爲疾 疾爲不疾
[23a] 亦應是方便義 而言非方便者 根師云162)本來正非是
本來 故非方便 大師復云 非疾非不疾 能疾能不疾
148下 此乃是方便 非疾非不疾 疾不疾此疾 此初緣弘道
故方便 不來非不來 來不來 來亦爲緣 不來不來亦
爲緣 故是方便 故淨名不來非不來 亦爲緣不來 故
是方便 寶積亦非來非不來 而爲緣來 故是方便也
大師云 此經文旣明現疾 卽應云疾碍品 而稱方便
品者 又云此是就根本方便二智 權巧現疾 從根本
爲名 故言方便品也 問 三乘初入中道時 必從方
便入中道耶 答 地攝兩論成毗二家宗 必從方便
[23b] 入正觀 通而爲證 亦有得正觀 後脩方便也 今無依
無得宗者 若通明方便 義亦有之 若正法方便者 得
正法後 始得方便 解似如論師等宗拔163)道等世諦解
進不卽退不伏 故得空解後始得之 今正法〈云〉 方便則
別·故於正法後得之也 故大論云 方便波羅密164) 唯菩薩
有之也 問 云何偏行六度等耶 答 一家云 未得
正法般若之萬行 並是徧165)行六度等行也 問 若未
得正法般若行行 並是有所得者 都無無所得菩薩與
二乘耶 答 有 何者 當敎如敎與憕166)故得假無所得

160) 興 : 필사본들에는 與.
161) 皇 : (續)에는 星, (龍)에는 [白/生].
162) 云 : (京)에는 去.
163) 拔 : 필사본들에는 被.
164) 密 : (續)에는 蜜.
165) 徧 : 필사본들에는 偏.

卽是無所得二乘菩薩也 問 若爾 地攝等四家 亦得

[24a] 149上 徧[167]行六度等行 云何是有所得行耶 答 彼境與智

異解故 有所得行 故大品經云 實際作證 故有所得

也 無所得二乘與菩薩所憕[168] 由境故知 由智故境 境智

不二而二憕[169] 故假無所得也 故一家云 破性得假 卽

是初門也 故有兩種徧行 有得無得異也 問 旣言

無所得 云何徧[170]行耶 答 如前未得正法 故名徧[171]行

而如假而無所有解 故無所得 彼有二諦 理與事等

落有所得 故中論最後兩品 明小乘無所得行也 故

論云 已知摩訶衍入第一義諦 云何聲聞行入中道

第一義諦 此論具明大小兩乘無所得行 故一家制[172]

[24b] 云 卄五品明大乘觀行 最後兩品 明小乘觀行 約觀

行明得無得者 一切萬法並得無得異 故思益經 一

切法正 一切法邪 卽是大經 亦名甘露 亦名毒藥意

也 問 無得六度卅[173]七十二行等 未得正法 故名爲

徧[174]行者 無大小乘異耶 答 有之 自行化他 萬行不

行 異[175]故不乖[176]大小兩乘也 問 大品經第一卷云 道

慧[177]道種慧[178]一切智一切種智 其相云何 答 興皇大

---

166) 憕 : 證.
167) 徧 : 필사본들에는 偏.
168) 憕 : 證.
169) 憕 : 證.
170) 徧 : 필사본들에는 偏.
171) 徧 : 필사본들에는 偏.
172) 制 : 判의 誤字?
173) 卅 : 미상.
174) 徧 : 필사본들에는 偏.
175) 異 : (續)에는 果.
176) 乖 : (京)에는 乘.
177)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49下 師云 道慧[179]道種慧[180] 是因中空有兩智 一切〈智一切〉種智 是果
地空有二智 如云權實 猶是眞應二身 然權實宜在
因中 眞應宜在果中也 問 此權實是智慧名 眞應
[25a] 是身名 豈是相主當耶 答 大師云 汝五分法身是
戒定慧[181]解脫解脫智見等 云何是身 若名五陰 豈言
並色耶 故今只眞應身 只是智[182]眞 何是疑耶 又[183]師釋
云 道慧[184]卽是眞空空[185]道 故名爲空慧[186] 道種慧[187]卽是有
〈慧[188]〉 知[189]有中種別故 果地亦然 一切智卽是空智 知[190]一切
法皆一相無相 卽是一切智 一切種智 卽是有智也
又大論中釋有別意 得道眞[191]卽是總慧[192] 明總知三乘
及人天一切諸道 故名爲道慧[193] 道種慧[194]者 卽是別眞[195]
能歷別智三乘及人天一切諸道種別不同 故名爲
道種智 果地亦然 一切知 卽是總知 一切種智 卽別
[25b] 智 若作向空有一往判 道知者 只是實智 道種智 只

---

178)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79)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80)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81)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82) 智 : (續)에는 없음. 필사본을 따름.
183) 又 : 필사본들에는 '亦イ'라는 夾註를 붙였음.
184)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85) 空 : (續)에는 없음. 필사본을 따름.
186)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87)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88)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89) 知 : 필사본들에는 智.
190) 知 : 필사본들에는 智.
191) 眞 : 慧?
192)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93) 慧 : 필사본들에는 兩.
194)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95) 眞 : 慧?

是權智 若總別明之 小異 何以故 總未必是空也 故

二乘唯道慧[196] 此則唯有總智 若作空證 亦唯有空知

故大品經三慧[197]品云 一切智 卽是聲聞辟支佛智

問 何因中言道慧[198]道種慧[199] 若果則不爾也 答 具道

150上 是能通宜當於因也 言道慧[200] 卽是智空道 言道種者

卽是空有種別也 大師或時開爲四句 一者開因果[201]

合境智也 二者開境智合因果也 三者境智與因果

俱開 四者境智與因果俱合也 開因果合境智者 卽

是大品經云 因中開二慧[202] 果中開二智也 因中二慧[203]

[26a] 者 道慧[204]與道種慧[205]也 道慧[206]是空慧[207] 道種慧[208]是有慧[209]也

果中開二智者 一切智與一切種智也 一切智是空

智 一切種智是有智也 故道慧[210]卽是方便實慧[211] 道種

慧[212]卽是實方便慧[213] 因中二慧[214]旣如此 果中二智 亦爾

故一切智卽是方便實智 一切種智卽是實方便智

---

196) 慧 : 필사본들에는 惠.
197)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98) 慧 : 필사본들에는 眞.
199)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00)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01) 果 : (續)에는 뒤에 卽이 있음.
202)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03)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04)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05)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06)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07)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08)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09)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10)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11)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12)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13)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14) 慧 : 필사본들에는 眞.

也 何故因中與慧[215]名 果中與智稱者 慧[216]一往宜[217]知而
已 故羸劣 如十力當相智 故因中與慧名也 智是決
斷達照勝用 如十力中是非智 故果中與智名也 此
經意不明境智 故言合境智也 開境智合因果者 卽
指淨名經意 彼云無慧[218]方便縛 有慧[219]方便解 無方便
[26b] 慧[220]縛 有方便慧[221]解 卽是明菩薩二慧[222]也 旣辨能照之智
卽有所照之境 故言開境智也 而此經不辨因果 故
150下 合因果也 因果與境智俱開者 卽指大經云 「有因有
因因 有果有果果 卽開因果也 有因者 是十二因緣
之境 有因因者 卽是所生之智 卽是開境智 故言俱
開也 境智與因果合者 因是不果因 果是因果 故不
因非因 因果非果 故非因非果 合因果也 境是智境
故非境 智是境智故非智 故非境非智 卽是合境智
義 所以言境智與因果俱合 此是一往結撮語 故大
品經意 非俱開因果 而開境智也 問 境智義爲開
[27a] 佛性者 智諦義與諦智義 爲開何物耶 答 所以辨
智諦者 爲開中實也 所以諦智者 爲開般若也 如地
攝等有得者言 智慧[223]飜般若 故言般若卽是智慧[224] 今
謂不爾 般若非愚非智 所言智諦爲開中實者 諦是

---

215)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16)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17) 宜 : (京)에는 宣.
218)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19)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20) 便慧 : 필사본들에는 眞便.
221)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22)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23) 慧 : 필사본들에는 眞.
224) 慧 : 필사본들에는 眞.

眞諦中非智也 所以智諦爲開中實者 諦是眞俗 中
實非眞俗 故名離 非眞非俗中實 故明眞俗二諦 故
言智諦爲開中實也 所言諦智者 爲開般若 故言諦
智義爲開般若 故中實是般若之異目225) 故中實卽是
般若 二諦是境智之異名 故二諦卽是二智也 以是
義故中實卽是般若 般若卽是中實也 問 菩薩稟佛
[27b] 二諦 發生二智時 理敎義 境智義 若爲異耶 答 若
151上 言|異者 空有是敎 非空非有是理 何以故 空有表非
空非有故 空有是敎 非空非有是理也 若言境智義
識空有故 名爲實方便智 識有空故 名爲方便實智
卽是敎爲境也 若了惟226)空有非空有者 卽是非權非
實 名爲正觀 亦得言名 中發於觀 觀發於中也 問
〈二諦敎理〉 二諦境發生二智 若爲異耶 答 異也 若言二諦敎
爲表理 轉敎爲理 若言轉敎爲理者 卽是二諦境發
生二智也 何者 識有空故 名方便實智 識空有故 有
實方便智 非是二諦境轉爲作二知也 二諦是能發
[28a] 二智是所發 二智是能照 二諦是所照 故智能爲境
所 是卽能所 境所爲智能 是卽所能 智所爲境能 是
卽所能 境能爲智所 是卽能所 故所能非能 能所非
所 非能非所 平等無二 故名爲假中 雖然非能非所
本來不二 而能而所 故名爲中假也 大小兩敎相望
者 小乘望大乘者 小乘二理轉爲大乘敎 大乘望小
乘者 轉敎爲小乘理 如半滿滿半意也 又敎轉爲理
理轉爲敎意 卽是有無爲非有無 〈非有無〉爲有無 卽是指敎

---

225) 目 : (續)에는 없음.
226) 惟 : 미상.

151下 爲理 指理爲敎 如斯之意 非地攝等四家所行處也
第二辨須彌入芥子 有兩重 一明應變義 二論
[28b] 入芥子 第一明應變 所言應變者 權智兩能有應有
變 應則赴感垂迹 變則神通轉境 以垂迹故隨同六
道 示現心形 隨機利物 以轉境故 脩短改變 巨海[227]細相
大海成蘇 須彌入芥 暫應變之功 皆權智也 若法事
相 皆是權智之迹 的[228]窴[229]論其功 正法爲本 有所得四
家云 實智爲本也 應物轉境 由不二爲能 亦得無緣
慈悲有其能 今論權眞之用 則慈愍惻念 運此種道
種道無方 逐[230]慈悲之心 施濟拔種種應赴也 但應物
轉境 地攝等四家不同 一雲旲[231]等諸法師云 應有
法起 如應化七珍及與[232]四大等法 或丈六佛身色[233]形
[29a] 體也 二開善云 應化同物 止令人見 無而現有 無別
法生 如△[234]楪楪則非應 雖應爲淨土及與佛耳 但慈
善根力 於法身上 能令見脩短 體實無有法也 三云
或有法起 或無法起 隨物所宜 神力無碍 若須無起
則能令無起 若物須有起 則能令有起者 智力能現
152上 乃是不測 化物無方 不思議耳 此義似同地攝宗 彼
宗唯識義 心外無別境 起之與不起 但是心所作起
此意不可解 若無別境 卽化道無用 自心作能化[235]所

227) 海 : 필사본들에는 없음.
228) 的 : 約의 誤字.
229) 窴 : 冥?
230) 逐 : (續)에는 遂.
231) 旲 : 미상. 필사본들에는 [目/大]. 旻의 誤字로 생각됨.
232) 與 : (續)에는 없음.
233) 色 : (京)에는 也.
234) △ : 판독미상[智-4].
235) 化 : (京)에는 北.

化 何開顯[236]顚倒衆生 若言顚倒衆生 爲作增上緣者 增
上緣本約法明之 外說無有法 寧作解耶 今大乘無
[29b] 所得意 旣是因緣明義 故因緣起 何不起 因緣空無
故 何所論起[237]故 亦起不起故 起不妨不起 不起不妨
起也 轉變前境 亦釋不同 有三說 一云 果報恒爾 但
令應得應度者見轉變 如大海之水 魚龍所依 忽成
蘇酪 以濟飢者 但能令見 則使食之得飽 得度見之
其質如本 無得異也 如鬼神飽食魚宍 亦吐魚宍等
而人見魚宍等 安在不失也 二云 神力改變 皆轉成
體質故 變土爲金等 實成妙寶 以海水爲酪 能濟長
飢者 如三相擧體 實生實滅等 此解亦難 如論中
破也 三云 備有兩義 或須改質 或須使令見 此意變
[30a] 取前二說 故有質變 而質如本不異也 如一劫爲七
日 七日爲一劫 其義亦爾 隨其利益 則實得用 故海
實成蘇 土實爲寶 若止令須見寶 便有利益 亦能令
152下 見 故方便|自在 開善同此說也 今大乘明義 如大小
般若經中說 無爲法中而有差別 亦如佛藏經云 無
名相中假名說法[238] 故云變不住變 言不變不住不變 不
住變說變 不住不變說不變 說變爲不變 說不變爲
變 變不變 不變變 假名因緣變不變故 雖變不失不
變 雖不變不失[239]變 故假名因緣 言起應法 不失應法
不起應法 不起不失 應法起 故經言 變爲蘇酪 其相
[30b] 如本不異 輕擧遠到 亦本不異 一劫爲七日 七日爲

236) 顯 : 필사본들에는 없음.
237) 起 : (續)에는 記.
238) 法 : 필사본들에는 없음.
239) 失 : 필사본들에는 生.

一劫等 類然也 若非240)學龍樹之風 誰信誰解可證 是
牛馬前彈琴不異也 第二明須彌入芥子義 所言
須彌入芥子義者 此山高廣 而能令見 或入或不入
皆隨應度241)者所宜 芥子不大 而納高山 須彌不小 能
入芥子 可謂力之妙不思議解脫矣 若改山令小 開
芥子使242)大 自能然 但不令大 不令小 而能如此 是謂
奇特 故不思議解脫也 問 若使物變其質 能入義
可解 而須難之 若須彌入芥子 鳥雀呑此芥子 鳥應
食須彌 食須彌而飛行 如其不食 信知非實入芥子
[31a] 153上 中也 今謂有二能 一神力|故 鳥子呑芥子 而不能飛
行 二神力能飛行也 又從來舊說不同 有三家 一云
直神力令其得見入 如重病者 眼見過去父母 此二
親力 亦無來去處 而鬼神力 令其得見也 二云 亦神
力令見須彌入芥子 其實不入 如人從牛尾至背上
騎度頭上 而傍見人 入牛尾從腹裏度出口中也 三
云 實入芥子內中 須彌如此高大 芥子雖小 而能容
芥子亦不令大 須彌亦不令小 而神力入故 名不思
議 郭〈僕〉取他人好馬 與富家人 父母令入唾243)中 亦野猴
牽車 入塚墓中也 又開善等論師 釋延促劫數 若實
[31b] 延七日爲一劫244) 此人經一劫 不見其宗親 若促一切245)
爲七日 則一劫之事 在七日之中 如燈明佛說法華
經六十小劫 說法之後 不見眷屬 眷屬久死亡 而不

240) 非 : (續)에는 州.
241) 度 : (續)에는 없음. 変(=變)의 誤字?
242) 使 : (續)에는 便.
243) 唾 : 睡의 誤字?
244) 劫 : 필사본들에는 切로 적은 후 '恐劫'이라는 夾註를 붙였음.
245) 切 : 劫의 誤字.

爾 則知非實促耶 彼舊答有兩義 若神力則山變入
芥子 業行則山相如本 若於神力 則七日實延爲一
劫 一劫實促爲七日 又以七日之促能入在一劫之
長 能以一劫之賖入在七日之短 業行果報 猶是七
日 亦猶是一劫也 若說法華座六十小劫 則長在促
153下 時中 約兩法延促久得而說也 若神力實以山入芥
子 以劫爲七日 答[246]於行業果報 則山不入芥子 劫不
[32a] 曾促 鳥雀猶是果報義中 無呑山也 眷屬一報之生
非得度[247]者 還知七日而已 於彼不曾延促之也 問
七日遂延成一劫 則此七日遂長 非復七日 異人豈
得更見之耶 如坐斧柯爛者 還家已亡眷屬 又神力
延爲百年 百年遂長非百年 則別有神力之時節爲
一劫 若百年遂不長 何△[248]延百年 則果報神力有長
短兩時 並如淨穢二質同處耶 答 時脩短亦能相
入 不復論 此但就延促之時 實成一劫 此促遂長 終
是神力 令促爲長 於此義非短 經於無量長也 若任
果報 唯應百年 若延之遂長 則不見家 如坐斧 何者
[32b] 也 或作百年之解如一坐 六十小劫 謂如食頃 長作
促解也 自復神力實使成一劫 而果報猶百年 恒自
延長 恒自報促 兩義不妨 乃是神力異也 而彼云 其
相如抽綿令長 如牽白糖申縮 則如蚯蚓縮也 問
日月延與不延 便應兩義 則有長短二時耶 答 靈
根寺令正云 唯一體一時 遂[249]義亦兩時也 問 神力

246) 答 : 若?
247) 度 : (續)에는 廣.
248) △ : 판독미상[智-5]. 得? 語?
249) 遂 : (龍)에는 逐.

154上 延果報則長 果報亦應制神力使[250]短 若各自立論 則
神力與果報 俱不可思議 其理應歒[251] 敵[252]則應相制
答 兩種皆不可思議 故各自有長有短 又有一釋云
果報神力 皆[253]不可思議 但偏就延義邊 脩短自在 皆
[33a] 由神力 使其實長短備[254]有之一劫 當其長時猶能令
短 尙是百年 則見脩短自在皆神力也 如實移世界
復使不移 如經中說 卽皆神力也 故不思議品云 又
菩薩以一佛土衆生 置之[255]右掌 飛到十方遍示[256]一切
而不動本處 此卽移而不動也 問 本自百年 豈是神
力使爾耶 答 神力令短者爲長 長則非復百年 若
復其短卽令長者 短亦莫非神力也 又神力與果報
兩義明之者 則就他人非得度者見 其猶百年或七
日耳 若得度者 乃得無量年 延其果報故久也 若反
受復欲交促 還以長爲短也 出入延促 雖種種釋 而
[33b] 彼義宗有世諦法體 異無而有故 不合大乘無所得
經論意 地論師云 大無大相 小無小相 故小能容大
亦是有箇大法體與小法體 云何相容 終妨大乘無
得之經論 攝論師宗法師云 分別性入解也 今謂亦
154下 不然 心作入解 實無有入者 亦無有大小相 何所論[257]
入不入與大小相也 依他性有法體故 如假相觀入

---

250) 使 : (續)에는 便.
251) 歒 : 敵의 誤字?
252) 敵 : 필사본들에는 歒.
253) 皆 : 필사본들에는 吐.
254) 備 : (續)에는 脩.
255) 之 : 필사본들에는 久.
256) 示 : (續)에는 亦.
257) 論 : (續)에는 冷, 필사본들에는 冷으로 적은 후 '恐論'이라는 夾註를 붙였음.

實無所入 依他性法不入故也 今大乘意言 大小爲
二 非大非小 大小不二 不二故一 一是假一 不一故
異 異是假異 以假一故 一是不一一 異是假異故 異
是不異異也 異是不異異 異是一異也 一是不一一
[34a] 一是異一也 一是異一 而不失異 異是一異 而不失
一 故入出爲二 不入不出 出入不二 不二故入 入是
假入 非入故出 出是假出 以假入故 入是不入入 出
是假出故 出是不出出也 出是不出出 出是入出 入
是不入入 入是出入也 入是出入 故入不失出 出是
入出 故不失入 故入不妨於出 出不妨於入 入出出
入 故經云 一無量 無量一 卽是一身無量身 無量身
一身[258] 類此而言申縮賒促 同質異質 淨穢大小內外 並
是一意也 如居士經不思議品云 菩薩以一佛土衆生
置之右掌 飛倒十方遍示一切 而不動本處 又如海
[34b] 水變爲蘇酪等 而其相如本不異 若如地攝兩論成
毗二家 有世諦虛妄法體 豈得如斯耶 大乘明義 如
155上 空中織羅虛裏織紋 故一不失無量 無量不失一等
也 故興皇大師 開六種簡異他 一巨[259]細相容 二脩短
改變延促 三以空爲有以有爲空 亦如一異可知 四
以心爲非心非心爲心 亦例之 五一爲無量無量爲
一亦如前 六能有所改 火爲水 水爲火等也 此六種
意 若見前大小出入開合散束之意 不須一一釋 但
有得家難見 所以一一釋也 第一明須彌入芥子
有兩 一明須彌入芥子 二明不可思義 一明須彌入

258) 一身無量身 無量身一身 : 필사본들에는 '一身無々量々身々々'.
259) 巨 : 필사본들에는 臣.

[35a] 芥子 前第一意 須彌之大芥子之小異 不可令相容
而菩薩神力能令緣見入 令其作入解 故經云 唯應度
者 乃能見之 此令應度緣入解耳 今難汝言不能令
須彌實入芥子 菩薩則闕大入小能義 言實不入而能
令緣見入者 亦應菩薩能山[260]壁直過 但令緣見過 實不
能通 入三惡道化亦應爾也 次師云從背上度 實不
入腹度者 亦闕能入與令見入義也 第三師云 我具
三義 一神力令其見入 二復背上度 與令其見入 三
實入芥子 如牽車入塚等也 今只難[261]芥子之小須彌
之大 實有兩法體 若爲論其入耶 彼師云 此是諸[262]上
[35b] 155下 地菩薩不思議事 下地菩薩與凡夫 所不能度量也 今更
難 汝若言不能量事 何但此事不可思議 萬事並不
可思議 而因果之道甚深 乃至解惑[263]相卽 金心後成
佛 乃至轉凡爲聖 此亦是甚深事 那得漫分別[264]耶 又
地論師云 大無大相 小無小相 所以得入 此不可解
汝本[265]論巨細相容 旣[266]言大無大相誰入小 又無小相
誰能容耶 攝論云 我唯識[267]義 能入小也 此亦難解 終
是前三種釋中第一意也 實不入而令入解 汝實無
前別境 而亂[268]識入出解 故心外無別境者 亦如前難
闕於有別境義 若爾 有何衆生可度 汝自可度故 則

260) 山 : 出의 誤字?
261) 難 : (續)과 (龍)에는 雜. (京)에는 難.
262) 諸 : (京)에는 者.
263) 惑 : (續)에는 成, 필사본들에는 或.
264) 別 : 필사본들에는 判.
265) 本 : (續)에는 없음.
266)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267) 識 : (京)에는 議.
268) 亂 : (京)에는 故.

[36a] 別有衆生入道義也 今一家意 大是小大 小[269]是大小
旣[270]是因緣大小 何意不能相容 小大復何故不入大
小 小大[271]大小 故無相碍 雖大小相容入 而不失大小
猶如云色[272]卽是空空卽是色 而不相失也 又無名相
中 假名詺入得者 何不假名詺出 若詺入而不得詺
出者 亦不得詺入 旣[273]得入者 亦得名出者 故種種得
詺無所闕少 故經云 一中解無量 無量中解一 如是
展[274]轉生非眞家[275] 智者無所畏也 問 如前人難云 須
156上 彌入芥子 火燒芥子 須彌亦應被燒 鳥食芥子 須彌
亦鳥所食 答 無所得無迹須彌芥子者 鳥亦是無
[36b] 迹之鳥 無迹之食故 具論四句五句並得之 但隨俗
有便有不便 逐轉倒所解 有得不得明之也 故須彌
雖入芥子 而其中衆生不覺不知 亦復[276]不迮 故經云
時衆見燒 淨土不毁也 問 菩薩何不局須彌 開芥子
使入耶 答 如前具有四句五句 亦有能有此權用
但非是巨細相容 權此屬故變權也 二明思議不思
議 一切諸法無非不思議也 問 大能入小 是不可
思議 小入大 非是不可思議不 答 如經云 色不思
議 受想行識亦不思議 乃至薩婆若不思議 得有此
義[277] 而今明小能入大 物理常然 世俗所知

269) 小 : 필사본들에는 山.
270)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271) 小大 : (續)에는 大小. 필사본을 따름.
272) 色 : (續)에는 色色.
273)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274) 展 : (續)에는 辱.
275) 眞家 : 華嚴經 원문에는 實.
276) 復 :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復로 수정하였음.
277) 필사본들에는 義 뒤에 '得有此義'를 중복하여 적었다가 삭제하였음.

[37a] 故非不思議 大能入小 則奇特非常可解 故是不思
議耳 問 小入大非[278]是不思議者 則[279]應大得待[280]小
小應不待大耶 答 待[281]因緣謂[282]通 不思議則別也 問
只今大小小大 旣[283]是因緣 只是因緣 是因緣法 豈非
不思議耶 答 若以大小因緣法甚深 並是不思議
如前 但反常所解故 開思議不思議 異於通義也
問 經云不思議解脫者 解脫與不思議 爲一爲異
156下 答 不|思議是解脫 解脫是不思議 而無別中說別者
菩薩心慮洗盡 畢竟淨 如幻人所行 名爲解脫 此解脫
非下地與二乘度量所行得 故不思議 卽是不思慮
[37b] 也[284] 若爾雖無別 異義分之 由解脫故 不思議也 但釋
不思議不同 一什法師云 亦名三昧 亦名神足 或令
脩短改度 或巨細相容 變化隨意 於法自在解脫於
閑故名解脫 能者能然 物不知所以 故曰不思議 亦
云 法身大士 念則隨應 不入定然後能也 心得自在
不爲不所縛 故曰解脫也 二肇法師云 漸遠幽深 二
乘不能惻[285] 不思議也 縱任[286]無碍 塵累不能拘 解脫也
此經自始于淨土 終于法供養 其中所明雖殊[287] 然其
不思議解脫一也 三竺道生師 亦云巍道生 亦云道

278) 非 : (續)에는 悲.
279) 則 : (京)에는 別.
280) 待 : 필사본들에는 侍.
281) 待 : 필사본들에는 侍.
282) 謂 : (續)에는 誰, 필사본들에는 誰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283)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284) 也 : 필사본들에는 而.
285) 惻 : 測.
286) 任 : (京)에는 在.
287) 殊 : (續)에는 없음.

生法師 此師釋不同 一云長安生肇之生 彼亂之時

[38a] 避難來揚州也 二云八之生弟子 同名生 此生也 法

師云 或止形跡 心不必然 故復言其解脫 更一名不

思議者 凡有二種 一曰理空無 非或[288]情所圖 二曰神

寄[289] 非淺識所量 若體夫空理 則說思議之或[290] 或[291]旣[292]脫

矣 則所爲難惻[293]也 法師云 或正[294]形迹[295] 心不必然故 釋

157上 不同 一云或是不定之辭或也 二云迷之或[296]也 四逕[297]

山遠公弟子曇說師云 不思議[298]有二種 一絶[299]於思慮

慮不能慮 二會於人不思不慮 七住以下 要解思慮

解而得非至極 七[300]地以上 窮理盡性 解[301]方無滯 事無

不了 道無不極 自照滅[302]慮 應不以情 所謂不思議也

[38b] 五巖法師云 菩薩無心 應爲物有說 衆生但覩其教 莫

惻[303]所由 故名所說爲不思議 說而無心 故不碍於有

雖無心而能說 故不碍於無 有無所不能累 故名之

爲解脫 故名不思議解脫也 六騁師云 菩薩得般若方

便故 體惟諸法因緣假名 假說有不在有 假說無不

---

288) 或 : 惑의 誤字.
289) 寄 : 필사본들에는 奇.
290) 或 : 惑의 誤字.
291) 或 : 惑의 誤字.
292)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293) 惻 : 測의 誤字.
294) 正 : 止의 誤字.
295) 迹 : (續)에는 없음.
296) 或 : 惑의 誤字.
297) 逕 : 필사본들에는 迋. 匡의 誤字?
298) 議 : (續)에는 識.
299) 絶 : (續)에는 없음.
300) 七 : 필사본들에는 也.
301) 解 : 필사본들에는 觸.
302) 滅 : (續)에는 我, 필사본들에는 哉. 滅의 異體字의 誤讀으로 생각됨.
303) 惻 : 測의 誤字.

在無 雖說有無 有無是無相也 故般若經云 譬如幻
師於四衢[304]道中 化作幻人化也 毗摩羅經云 譬如幻
化人 爲幻化人說法 當達是意故不思議也 七曰[305]琰
師云 八地菩薩有內有外 內外不思而應 不議而作 外
則二乘下地不能惻[306]度 故名不思議也 問 云何二
[39a] 乘下地不能惻[307]量 答 如數人云 三度 一根度 謂下
根度[308]謂下根不知上根 二地度 謂下地不能惻上地
如初[309]禪不知二禪等 三人度 下[310]果不知上果 今二乘
157下 不能屈|菩薩 故名不思議 然此三度 猶是上絶下地意
也 今明 一下地不能思量上地所爲事 故名不思議
二菩薩神通運變巨細相容 何以言之 假爲不思議也
攝山師住持 超稱之美 爲不思議 故淨名經下文言
有解脫名不思議也 今謂 菩薩得般若方便所爲之事
非以四句五句所得 如騁師意 而有二 一下地不能
思量[311]上地所爲事 故名不思議 二菩薩通運變巨細相
[39b] 容 何以言之 假爲不思議也 問 何位菩薩 爲是不思
議 答 解不同 一什肇二師云 七住菩薩所作 有不思
議 空有並觀 下地未能故也 二招提光宅兩師云 八
地已上 方能眞俗竝照 名不思議 七地學竝不恒也
三開善師云 七地分三忍 下忍失 中不失而竝觀 上

304) 衢 : 필사본들에는 翟.
305) 曰 : 白의 誤字.
306) 惻 : 測.
307) 惻 : 測.
308) 謂下根度 : 衍文?
309) 初 : 필사본들에는 利.
310) 下 : (續)에는 不.
311) 量 : (續)에는 없음.

忍能竝觀也 四虛味[312]小亮師云 初地已能竝觀 不爲
二乘之所圖度 名不思議也 今大乘明義 從初發心
已上 能空有竝觀 所以得竝觀者 爲證正法觀故竝
觀 故名爲不思議 故大經第卅四卷云 發心畢竟二
不別 如是二心先心難 自未得度先度他 是故我禮[313]
[40a] 158上 初發心 故初發心菩薩 識有則知空 有是空有故 ⌈識空
則知有 空是有空故 初心能竝未明後心 並已得就
明晦不同異耳 有經文則用 無文便捨也 問 約何
法論不思議 答 解不同 肇師云 統萬行中 則以權
智爲主[314] 樹德之本 則六度爲根 濟蒙之或[315] 則慈悲爲
首 謂[316]宗極 則不二爲言 斯不思議本也 如借[317]座登王
淸[318]飯香室包像 手[319]接大千 並是不思議之迹 幽開難
啓 聖應不同 非本無以垂迹 非迹無〈以〉雖[320]本 本迹雖殊
不思議一也 諸法師云 觀肇師意 通明境知理敎 皆
名不思議也 生師意 亦擧境智明之也 如招提意 權
[40b] 智是不思議 而二智並得[321]不思議也 問 權可是不
思議耶 彼答 空解導有解 空解爲有解之本 故名並
是不思議也 今大乘明義 有通有別 通而爲論 一切
理敎境智空有 並是不思議 故大品經云 色不[322]思議

---

312) 虛味 : (續)에는 虛昧. 필사본에는 虛昧. 내용상 靈味의 誤字임.
313) 禮 : (續)과 필사본들에는 [智-6]. 내용과 형태상 禮의 異體字임.
314) 主 : (京)에는 生.
315) 或 : 惑의 誤字.
316) 謂 : (續)에는 없음. 필사본들에는 誰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317) 借 : (京)에는 措.
318) 淸 : 필사본들에는 請.
319) 手 : (續)에는 없음.
320) 雖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离로 수정하였음. 내용상 顯의 誤字임.
321) 得 : (續)에는 德.
322) 不 : 필사본들에는 亦.

乃至識受想行薩婆若不思議 別[323]有三種 一如肇師等

云 下地不能[324]惻[325] 二任運行 三如大品云 色乃至薩婆

若通明也 又約有得與無得 判思議不思議 問 云

何有得可思議 無得不思議也 答 師云且傍淨名

經明之 無所得絶有所得境界 故無所得 是不可思

158下 議 故居士經下文 具破有得之大有得之小 故五百

[41a] 聲聞與八千菩薩 並皆被呵 故有[326]得之 若因[327]若果

境智等 並不來故落理外性 故有所所[328]得可思議 無

所得[329]名不可思議也 今就無所得中有三義 一教 二

境 三智 三種並是不可思議 教不可思議者 如題云

維摩詰所說也 智者 聖智能智聖所智 是聖境故 二

智爲能說 二諦是所說 此之行說事理相稱 故如行

而說 說聖所行 如說而行 行聖所說 聖智是能智 聖

境是所智 能智之智 旣[330]是不思議 所智之境 亦是不

思議也 問 何故聖智聖境 並是不思議耶 答 地

攝兩論成毗二家 從多而明之 境是凡夫聖同行 但

[41b] 智有異 如凡夫亦行青黃等之境 而有執着 聖人亦

行青黃等境 而不着 境是可思議 智是[331]

不思議也 今明人之智 旣[332]不與凡夫二乘共智故 是

323) 別 : 필사본들에는 없음.
324) 能 : (續)에는 解.
325) 惻 : 測의 誤字.
326) 有 : (續)에는 不.
327) 若因 : 필사본들에는 두 번 중복하여 적은 후 앞의 것을 삭제하였음.
328) 所 : 衍文?
329) 得 : (續)에는 德.
330)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31) 智是 : 필사본들에는 智와 是 사이에 是不思議智를 적은 후 삭제하였음.
332)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不思議也 境亦是不與凡夫二乘共故 境智並不思
說333) 正由般若方便故耳 問 何以得知 境亦不與凡
夫二乘共耶 答 如華嚴經十地文言 諸佛聖主道
微妙甚難知 非思量境界 唯智者所行處也 仁王經
159上 云 凡夫六識麤故得麤六塵 聖人六識妙故得妙六
塵也 故大品經云 一切諸法 悉不思議也 大論亦云
凡夫見△334)漫證335) 聖人假名誰336)行也 問 何意境智 俱
[42a] 不思議耶 答 因緣境智故 並是無得無碍故 指智
爲境 指境爲智 指境爲智 智旣337)是不思議 指智爲境
境豈可思議耶 指境爲智 聖旣338)有智 指智爲境 聖則
有境 前四家旣339)不指智爲境 非唯無智 卽亦無境 俱
是轉倒 能340)緣之心 所緣之法 皆悉不成也 有得家所
明 凡聖共行一境義 彼宗五住地煩惱 煩惱潤成業
牙341)感得世諦 今行滿得斷五住地或342)盡 則業亦343)隨壞
業與煩惱旣344)壞 世諦卽斷 旣345)無世諦 亦無眞諦 所以
然者 以世諦卽體不可得爲眞諦 旣346)無世諦 寧有眞
諦 是則二諦俱失 二諦旣347)無 亦二智云何有 佛照二

333) 說 : 議의 誤字?
334) △ : 판독미상[智-7].
335) 證 : 미상.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智-7].
336) 誰 : 미상.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智-7].
337) 旣 : (續)에는 說,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38) 旣 : (續)에는 說,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39)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40) 能 : (續)에는 出.
341) 牙 : 互의 誤字.
342) 或 : 惑의 誤字.
343) 亦 : (續)에는 없음.
344)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45)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46)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42b] 諦耶 假令窮急云 雖無世諦而有眞〈諦者〉 則孤眞獨存[348] 如
地論人云獨眞如 若爾便是無俗之眞如 離[349]色有空
而經云 離[350]色無空無色 云何有獨存之眞如耶 又論
師云 有世諦者 析有盡爲不盡 解不同 一云不盡借
空破入[351]空也 二云析盡 此解如大論所破 若析也[352]世
159下 諦遂盡 則失世諦 既[353]失世諦 云何有眞諦 假令云失
眞諦後 方脩世諸者 則是持空爲有也 若言挀[354]世諦
不盡 則無人見空 汝假今[355]借空 破世諦入空 汝終有
世諦 寧得見空 故便無眞諦 故相傳云 自古至今 無
人能釋了了可解者也 唯見南澗仙師云 成[356]有緣假
[43a] 者際空 際空者緣空 緣空者際空 無窮者有窮 際空
者緣 假窮者成無窮也 今明 此釋猶未免上責 汝言
緣假際空 猶是有窮 際空緣假 猶是無窮過也 大乘
明義 菩薩初發心 卽學無所得 卽空有所得有與無得
無得之有無二諦學之 得佛時方淨於地攝等四家
有無 故彼有與無 並鄣般若 故學般若時 不行四家
有之[357]無 故體△[358]諸法 有是不有之有 無是不無之無
得入非有非無 方便假名有無 故得佛時 始得具足

---

347)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48) 存: (續)에는 在.
34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35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351) 入 : (續)에는 人.
352) 也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世를 적으려다 잘못 써서 지운 글자로 생각됨.
353)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354) 挀 : 拆(=析).
355) 今 : 令의 誤字?
356) 成 : 필사본들에는 我.
357) 之 : 與의 誤字?
358) △ : 판독미상[智-8]. 得?

因緣二諦也 又對他明四句 並是不可思議 他云有
一句 無一句 亦有亦無一句 此三句是不可思議 第
[43b] 四非有非無句 言語道斷心行處滅[359] 方是不可思議
攝論師云 第九識名言所不及 故言語道斷[360] 想所不
及 故心行處哉[361] 故第九識不可識 又諸進[362]云 四句並
160上 是可思議 離[363]四句百非 方是不思議|也 今謂不然 汝
言第四句是眞諦 與第九識 破俗入眞 息妄顯眞如
識[364] 終是一邊一物 云何是不可思議 故飜攝論三藏
法師九[365]識義明意 阿摩羅者 正番[366]無[367]垢 無垢有二種
一者 此議[368]雖在衆生煩惱身中 不爲煩惱垢累所染
二者 名言想識所不及 若爾豈非一物 十地觀所證
境可言非一邊耶 故大師呵云 有所得人 如斷頭脚
[44a] 折學問人 好言 我四諦理[369]亦離[370]四句〈百[371]〉非 眞諦與眞如
亦離四句百非 故同三論宗也 汝宗安理明百非 且
息妄顯眞 破俗入眞等 寧得同宗耶 今明三句四句
在四句內之[372] 出四句外 並皆不成不思議 三句與四
句 並是因緣無蹤迹 云何言三句是不可思議 在四

---

359) 滅 : 필사본들에는 哉로 적은 후 옆에 '滅乎'라는 세주를 붙였음.
360) 斷 : 필사본들에는 弓으로 적은 후 斷으로 수정하였음.
361) 哉 : 滅의 誤字.
362) 進 : 미상. 師?
363)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364) 識 : (續)에는 議.
365) 九 : (續)에는 없음.
366) 番 : 飜.
367) 無 : 필사본들에는 每.
368) 議 : 내용상 識의 誤字로 생각됨.
369) 理 : (續)에는 璃.
37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함.
371) 百 : (續)에는 有.
372) 之 : 也의 誤字?

句出四句 求之不可得 寧言可得與不可得 故中論
涅[373]般品云 從因緣品已來 推求諸法 有無亦[374]無 無亦
無 乃至非有非無亦無 若爾可得判云是思議 是可
不思議耶 彼等雖言在四句不在四句 終是有所得
故並是可思議也 故興皇大師常言 決得初章度之
[44b] 初章之言 他有 有可有 無可無 有有自有 無無自無
160下 故有有住有中[375] 無無住無中 若爾分言思議與不思
議耶 今依論並得破〈彼〉四家所明四句與不四句 破洗
方顯不思議 故一家云 非四非不四 故有四不四 並
是不思議 所以然者 以指非四非不四 爲四不四 非
不四 既[376]是不思議 四與不四 豈可思議 若言四是四
不四是不四[377] 可言可思議也 今明指四爲不四 指不
四爲四[378]因緣 四不四等如幻如化[379]無依得無[380]無所得 云何
是思議 故大品經句義品云 如鳥飛空無蹤迹 不可
尋 無處所 菩薩句義 亦復如是 若爾 可得論思議與不
[45a] 可思議耶 問 不思議是因名 是[381]果名 答 不思議
豈是因果 復豈得非因果 若定是因果 是思議 又定
非因果 亦是可思議 故今明因果非因果 思議非思
議 不思議非不思議 方是不可思議也 一家云 有怗[382]

373) 涅 : (續)에는 理.
374) 亦 : (續)에는 없음.
375) 有有住有中 : (續)에는 有住有,
376)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377) 不四 : 필사본들에는 四□(四를 적었다 지웠음).
378) 爲四 : 필사본들에는 없음.
379) 如化 : (續)에는 없음.
380) 得無 : 無得의 잘못?
381) 是 : (續)에는 없음.
382) 怗 : 미상.

義 非因而因 怗[383]之名因 非果而果 怗[384]名果 亦得因果

又菩薩不思議名因 佛不思議名果 亦有之 至論道門

何曾是因 是[385]果 是思議 是不思議也 第二明長短

奢促義 若解須彌入芥子 卽自解長短等五種義 佛

菩薩神力 能延一念爲百劫 能促百劫爲一日 四家釋

161上 意 如入[386]芥子義中說 今明如食須[387]經六十劫 此卽是

[45b] 奢促長短 須識因緣假名詺[388]長短無定相 無往不得

故爾耳 雖爾若正破顚倒時 則不得道 不離[389]〈顚〉倒 別有

不顚倒 則應云顚倒異不顚倒 若使顚倒消盡 何處

離[390]顚倒 別有不顚倒道理也 長短奢促亦爾 長短是

所運 權智是〈能故〉 能[391]所異 亦是不異異也 然長短更無定

相 只長而短短而長 於覺者長而短 於夢者[392]短而長者

爲定是長 爲定是短 於夢是長 於覺常短 擧譬如此

今延促長短亦爾 只以長爲短 於短者常見短 以短

爲長 於長者常見長 正[393]短爲長 只是以短爲長耳[394] 以

長爲短短[395]者見短 此只是現見見現耳 何故然△[396]人

[46a] 夢覺故 若就凡夫二乘有了不了也 問 云何言謂

---

383) 怗 : 미상.
384) 怗 : (續)에는 帖. 미상.
385) 是 : (續)에는 是是.
386) 入 : (續)에는 없음.
387) 須 : 頃?
388) 詺 : (續)에는 없음.
38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39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391) 能 : (續)에는 能能.
392) 者 : 필사본들에는 없음.
393) 正 : 미상.
394) 耳 : (續)에는 壽.
395) 短短 : 필사본들에는 〔豆*寸〕々.
396) △ : 판독미상[智-9].

如食頃[397]耶 若[398]以長爲短 還亦令其見此短 故言謂如
食頃[399] 卽是現見也 宛然能令此見 長亦能令短 然實
不短 令緣見短 亦是一能也 問 今促長爲短 延短
令長者 爲當促其果報所得之長 延其果報之短令
〈長 爲當別有〉長短延促耶 若促其果報所得之長令短 如八萬劫
壽 令促成一念 豈不令其短壽 延令長壽也 更問 汝
促長短者 此緣宜見短 令促長爲短 令其見短 乃好
161下 脫 復有緣須見長者 汝爲當卽取向被促成短之者
作長 令須長緣見長 爲當更別有長令須長緣見長
[46b] 耶 若還取向被促者令緣見長者 則應不[400]被
促 既[401]已被促成短 云何復令作長令被緣見長耶
答 菩薩神力 何所不爲 只被促令長 長者局令促 長者
長 短者短 不定爲奇[402]特也 須彌入芥子亦爾 緣令應
見須彌入芥子 卽令異[403]入脫 復有爲緣不須入芥子
卽令見不入 只令向入者應見不入入 不入因緣 只
是一須彌恒在外 如一音說法 隨類各得解 只一口
業 既[404]各各隨所樂者 皆聞之 身與意二業 亦各各現
之 三種境一 一境亦現種種法門也 何以故然 一家
義宗 說智爲境 說[405]爲智故 智既[406]種種相 境亦得然故

---

397) 頃 : 필사본들에는 須.
398) 若 : 答?
399) 耶 若以長爲短 還亦令其見此短 故言謂如食頃 : (續)에는 없음.
400) 則應不 : 필사본들에는 중복하여 적은 후 뒤의 것을 삭제하였음.
401)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402) 奇 : (續)에는 寄.
403) 異 : 미상. 見의 誤字?
404)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405) 說 : 내용상 뒤에 境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됨.
406)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47a] 也 若別一須彌不入 亦不是爲奇[407]特也 又如只一無
量 無量一 一中解無量 無量中解一 只是一須彌 或
在內或在外 緣欲見內 常見在內 緣欲見外 常見在
外 內外因緣 故名不思議耳 今長短亦然 能[408]令長爲
短緣 恒見短 能令短爲長緣 常見長 於長爲短 於短
者爲長 故名身義 未必分身 一爲多 多爲一 此卽是
162上 動身通亦是奇|特 而前者本相如故 㝡爲奇特也
第三明空爲有有爲空 此亦類前 可尋也 如四家明
義 有與無 各有法體 不得有爲空 空爲有 今明 言有
不住有 言空不住空 故詺有爲空 詺空爲有 故有變
[47b] 爲空 空變爲有 離[409]有無空 離[410]空無有 空卽是有 有卽
是空 雖爾 得意言之 離[411]有有空 離空[412]有有 此離[413]是不
離[414]離[415]故 離[416]不失卽 卽不失離[417] 開合隨意得 但用時有
便〈不便〉 必須有所以明之 又菩薩神力 以空爲有 以有[418]爲空
故普現觀音 變虛空 及與草樹[419]等 化衆生 如木栅變
爲空 令人得出栅獄 并壁鄣爲空 或偸三寶物去而
處處山與水[420] 不得去者 豈非空爲有等也 又如佛神

407) 奇 : (續)에는 寄.
408) 能 : (續)에는 없음.
40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1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11)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12)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13)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14)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15)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16)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17)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18) 以有 : (續)에는 없음.
419) 樹 : 필사본들에는 掛으로 적은 후 '樹乎'라는 夾註를 붙였음.
420) 水 : (續)에는 없음.

力 魔王頭上係蓮華 魔王不耐 便上天上 猶還見花
如此處處求避猶見 無有得脫 又搦取虛空 猶如電
光耳 不可得 卽瞋脚蹹地 便如蹹空 卽是能令有爲
[48a] 空 智空有無定相也 第四明 以心爲非心 非心爲
心 何者 說心爲[421]頑 說頑爲心 故以心爲非心 非心故
經云 潮浪說苦空 樹[422]動明生滅無生滅也 他家卽不
162下 得 彼境與智各法體 |有情與無情二見故也 問 十[423]
一切入觀 神通變現 權智轉變 三種 〈若〉有異耶 答 不
一不異 雖爾 若不二而二明之 若論轉邊[424]亦不異[425]而
三種異者 一十[426]一切觀 彼自見前境變異 而於他則
不見 二若神通 則通外道及二乘 三若權變 唯有菩薩
可 故經云 二乘雖能變身滿虛空 而不令此大身入
嶽塵身 故知[427]無此權智用也 問 眞身權變神通三
[48b] 事 云何異耶 答 若通義亦不異也 而別義明之大
異 若作眞應△[428]則是本迹 眞是本 應是迹 從本垂跡
若是權實 並就[429]應用中明之 權卽是抽應中一用一
時爲如前云方便 是一化始[430]終明之 於方便中抽一
用也 若是神通 亦就應中有此用也 故神通則不齊
應義 如外道及凡夫[431]盡得神通 何必是應耶 問 今

421) 爲 : (續)에는 者.
422) 樹 : 필사본들에는 揃.
423) 十 : 미상. 其?
424) 邊 : 變의 誤字?
425) 異 : (續)에는 具.
426) 十 : 미상. 其?
427) 知 : 필사본들에는 智.
428) △ : 판독미상[智-10]. 論?
429) 就 : (續)에는 旣.
430) 始 : (續)에는 없음.
431) 夫 : (續)에는 失.

不問凡夫神通 只就菩薩所有神通及權用 若爲異並
是改[432]實 云何異耶 答 神通則直取其轉 實不壅故
名爲通 權卽善巧適時宜 名爲權 故神通則短[433] 權卽[434]
長 如面折外道 轉易戲處 並是權用 此非通也 問
[49a] 實大海水爲蘇酪 鷲王皆得蘇酪 而魚等猶見是水
163上 亦[435]遊行飯水如故 此亦如須彌入芥[436]子 三義釋之
問 魚所飯者 定是水 定是蘇酪耶 答 亦飲[437]水[438]亦不
飲[439]水 如前三種解也 今大乘明義 亦如須彌入芥子
菩薩神力能令鷲王實飲蘇酪 魚實得飲水等 互不相
妨也 第五一身無量身 無量身一身 此義若了前
開合束散 亦不須明之 但人恐未解故重辨之 華嚴
經云 一中解無量 無量中解一 展轉生非實 知者無
所畏也 一從無量生 無量從一生 故言展轉生 一爲
無量故一非實 無量爲一故無量非實 一無量非無
[49b] 量 無量一則非一 是則非一非無量 知者解了故無
所畏也 若是愚者 聞一無量非無量 聞無量一非一
便怖畏也 今能一爲無量 無量爲一 卽是權智巧能
也 若他人則離[440]一爲無量 離[441]無量爲一 一不開無量
無量不開一 故若合則失無量 若離則失[442]一也 地[443]攝

---

432) 改 : (續)에는 故. 就 혹은 權의 誤字로 생각됨.
433) 短 : (續)에는 對.
434) 卽 : 필사본들에는 則.
435) 亦 : (續)에는 迹.
436) 芥 : 필사본들에는 如로 적은 후 芥로 수정하였음.
437) 飲 : (續)에는 飯.
438) 水 : (京)에는 永.
439) 飲 : (續)에는 飯.
440)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41)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42) 失 : (續)에는 없음.

兩論等云 一是眞如一也 無量者二義 一理起性 萬
用無量 二於眞如上起妄用也 論師云 一是眞諦 無量
是[444]世諦 非一故也 今明不一不多 而一而多 故一爲多
多爲一也 問 若爾則不得開一爲三 會[445]三歸一耶
163下 答 只爲一不定一 三[446]不定一二[447]故 三可爲一 一可
[50a] 爲三 故三一一三 故言開一乘爲三乘 會三歸一 道
門則非一非三也 第六明能所改[448]實 一家判云 因
果義㝡短 次境知處中 能所㝡長而廣也 論師云 善
惡果牙[449]感得苦樂果 卽是相生故 因感前果生於後
卽是前後因果 若境智是一時因果也 汝生習兩因
必因前果後 如論破 因旣[450]已滅 後果何關因生果耶
若無而爲果作因 得言果從已滅因起者 一果一切
物生 亦是一因能生一切果也 故今論因果約善惡
果牙[451]相生 故㝡短局也 若境與[452]智 一時因果者 若智[453]
未起 境亦未有 而今能照智起 境卽未起未有 云何
[50b] 一時 若是已境發令起智 亦非一時 若言境智一時
起而相生者 此卽竝有 云何判云境生[454]智一時因果
如二角耶 亦復是境一法 是智一法 有兩法 有所得

443) 地 : (續)에는 他.
444) 是 : 필사본들에는 없음.
445) 會 : (續)에는 念.
446) 不定一三 : (續)에는 없음.
447) 一二 : (京)에는 二二. 三의 誤讀으로 생각됨.
448) 改 : 就 혹은 權의 誤字로 생각됨.
449) 牙 : 互의 誤字.
450)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451) 牙 : 互.
452) △ : (續)에는 皮. 필사본들에는 彼로 적은 후 与(=與)로 수정하였음.
453) 智 : 필사본들에는 知.
454) 生 : 내용상 [50a] 9행 12번째 글자와 같음. 與의 誤讀으로 생각됨.

境智 非生死境智也 論師義 四心前後相生 如識心
實爲想心 若擧體變 卽失生滅 若擧體生滅 卽失改[455]
實義 若半生滅半實 則無有是處 具如論中破也 故
彼四心 並非佛菩薩無所得四心也 彼義宗 方便知照
164上 俗境 實知[456]照眞境 故兩知便異 不相關 故方便知亦
縛 實智亦縛 兩眞並縛 豈是方便解眞解耶 故今境
智相生處中也 問 一切法爲智作境 境義亦長 云
[51a] 何處中 答 生智義亦長 而智是但造境義 故言處
中也 能所義 最長而廣 無非能所 前論因果與境智
並不能所 如無爲亦是所緣 虛空等能合 故能所長
如權智爲能 蘇酪爲所也 今一家意 就境智能所者
只境能名爲智所 智能名爲境所 只境所是智能 只
智能是境所 境所是智能 所以說智及智處 皆名爲
般若也 若言境是頑法 法智是解法者 云何得言並
名爲般若 知能是境所 是故說境及境所 背[457]名爲爾
涅槃智母也 例如佛諦知 如行而說名爲知諦 如說
而行名爲諦知 今境智之[458]爾 所照如所行 是境智 所
[51b] 行如所照 名爲智境 此意語[459]據所 行則據能 之[460]不令
其二 故作此說耳 問 權實二智 並有鄣與[461]悉有境
生耶 答 師解不同 一云 權智無別鄣 若有別鄣則
有別境 何謂 權實智有鄣有境 能斷伏也 今難 若言

455) 改 : 權의 誤字?
456) 知 : (續)에는 智.
457) 背 : 皆의 誤字?
458) 之 : 亦의 誤字?
459) 語 : 필사본들에는 諆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미상.
460) 之 : 亦의 誤字?
461) 與 : 미상.

權智無別郭 亦應權智無別脩習 亦應非智耶 且不
164下 能作權用爲有郭故 不能|得權用 未得時不能權用
今得罷能[462]權用故 當智有郭 何故言無別郭 若言無
別境者 權智則無能所 有能所則有境 權智是能所
實蘇酪爲所也 二云 權智有郭有境也 卽難 有別郭
有別境者 與實智何異耶 答 釋不同 一云權智於
[52a] 我上起我 作如此事 事則起也 二若於水作蘇酪時
於水上起如色好 好則屬法塵 色則五塵所收也 三
云於當起蘇酪上生權智也 郭則不解起作不無明[463]
使爲郭也 今大乘明[464]義 不二而二明之 智旣[465]有兩郭
與[466]境亦有二種也 問 若爾正取何〈物〉或耶 答 如前
三種釋也 問 若爾同彼三釋耶 答 名同意異也
前三說性境智或 今明因緣三種郭境智 故無蹤迹
異彼也 問 於三種上起爲境者 於實智何異耶
答 三智必從他上起 卽是背上智 實智當境而生智
故異也 問 若爾[467]是佛境智耶 答 一切盡是也
[52b] 問 者[468]未說所行是境不 答 得是境也 問 若爾 非
正境耶 答 何意非也 非正境者 但境通一切處 非
正智所對照也 問 向智未說所行是理不 答 得
是理也 問 若爾 理是佛智境不 實相是佛境不
165上 答 是也 問 向潛|謀蜜照所宜之根緣是境不 答

462) 罷能 : 罷는 能을 쓰려다 잘못 쓴 글씨로 생각됨.
463) 明 : 필사본들에는 時로 적은 후 明으로 수정하였음.
464) 明 : 필사본들에는 時로 적은 후 明으로 수정하였음.
465)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466) 與 : 미상. 則?
467) 爾 : 필사본들에는 筒으로 적은 후 '恐爾(=爾)'라고 細注를 붙였음.
468) 者 : 미상. 若의 誤字?

是境也 問 佛所說名爲諦 此諦得是佛境不 答
亦得也 但此據佛能說 此諦不正名爲境 而得是境
者佛教 佛何容不解此教 旣是所解故便得是境也
問 發有[469]能發智則有智 若無所照之緣 便應無智
耶 答 無也 何容無事 有此智湛湛如鏡[470]也 問 若
[53a] 爾 一切境等是佛境者 緣亦應爾 諸法皆得是緣智[471]
境 何故言二諦教爲緣智境耶 答 言[472]
二諦教是緣智境者 此據緣知 始生
能發知之功 的是二諦教 故名二諦教爲緣境 此言
二諦教爲境 此據初爲證 此[473]罷何種而非智境 理亦
是智境 纔是所解 纔是能發者 並是知境也 問 境
旣[474]對智 此智可解於境 理旣[475]非境 非境非智 云何以
此境智智 非境非智是境耶 答 何妨非境非智之[476]
知 知非境非智之境耶 問 若言非境非智之智 智
非境非智[477]之境者 便成境智 何謂是理也 答 非境
[53b] 非智 而詺是境是智者 何妨非境非智[478]詺爲非境非智
之理 是所智之理境也 但就理明境智無二明之 若
境對明智者 正約假用明之 須識此意也 復須識一
165下 家宗致 明二智俱如俱不如 二智俱絶俱不絶 俱說

---

469) 有 : (續)에는 者.
470) 鏡 : (續)에는 境.
471) 智 : (續)에는 없음.
472) 필사본들에는 二諦教是緣智境耶 答言가 중복되어 있음.
473) 此 : 필사본들에는 比. 即?
474)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475)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476) 之 : (龍)에는 云으로 적은 후 之로 수정하였음.
477) 智 : 필사본들에는 知.
478) 智 : 필사본들에는 없음.

俱不說 二智說行即是二智俱如 行說即是俱不如[479]
二智說[480]行即是二俱絶 行說即是二智俱不絶 二智
既[481]爾 二諦說不說 如不如 絶不絶 例然也 又雖二智
說只是一智說 二智不說只是一智不說 所以爾者
實方便故 二智俱說 方便實故 二智俱不說 束此二
智說 即是一方便 豈非一智說 束智不說只是一實
[54a] 豈非一智不說 此方便是一亦是二 實亦是一復是
二也 次更轉二智 說即是二 不說即是不二也 論二
不二 即是不二也 說不說 如不如 絶不絶也 若言非
二非不二 則是不論說不說 不論如不如 不論絶不
絶也 問 如此明二智及境智二諦等 並何所以異
於地攝等四家耶 答 大有所以 何者 欲辨於地攝
等論所不至處 亦是令其轉心向[482]無所得 不令住也
何者 二諦即是兩教 此爲欲開道也 用境智爲欲開
佛性 二智爲欲開般若 即是非至處 問 彼並有[483]
三種 寧言非其至處 答[484] 彼只論假中明之 復落綱[485]目
[54b] 所以令其眞非處 向無所得無爲 即是大有所以也
166上 問 如仁王經與地經等云 七方便四十四智 並應
是智慧 若爲攝二智耶 答 仁王經云 七方便者 一
觀色 二觀色[486]集 三觀色滅 四觀色滅道 五觀色味 六觀色過

479) 如 : (京)에는 知.
480) 說 : (京)에는 義.
481)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482) 向 : 필사본들에는 問으로 적은 후 向으로 수정하였음.
483) 有 : (京)에는 有뒤에 한 글자의 빈칸을 두었고, (龍)들에는 有 뒤에 二를 적은 후 지웠음.
484) 答 : 필사본들에는 若.
485) 綱 : (續)에는 納.
486) 二觀色 : 필사본들에는 없음.

七觀色出也 觀色者 觀色果報 苦諦觀也 觀色集者
因緣緣 集諦觀也 觀色滅者 觀色盡處數滅無爲 滅
諦觀也 觀色道者 觀色對治漏漏道 道諦觀也 觀色
味者 觀察前色能[487]生愛味也 觀色過者 觀察前色能
生苦過也 觀色出者 觀察前色能生滅道也 就色觀
中 若然諸法亦此七能 與中假作方便智 橫則爲眞
[55a] 假方便智 竪則爲中作方便也 四十四智者 如地經
中說 亦成論引經明之也 此猶是前七方便中 初四
門觀 就十二因緣 爲此四觀生四十四智差別 十二
因緣次第相生 因果相屬 有十一對 約此十一 從末
尋本 逆以推之 先就老死對生爲四智 一觀老死苦
二觀老死集 三觀老死滅 四觀老死滅道 次第逆推
乃至行支 對前無明亦例 有此四智 所謂觀行行集
行滅及行滅道 無明望前 更無集因 所以不說 何故
逆觀 據果尋因 順諦觀故 是一種觀門 此亦是假觀
166下 也 七十七知也[488] 如地經明之 又如成論引經釋也 此
[55b] 觀亦具中假 亦可二諦假明也 七十七智差別者 現
在世中 生緣老死 不離[489]生緣老死 十一節中生兩智
故 廿二智 過未二世亦然 故六十六智也 此六十六
智是法住智 是世諦智也 滅相觀者 是泥洹智 橫則
眞智 竪則中觀也 從老死乃至無明皆[490]悉同然也 今
窮其相 此智其[491]中假 此十二因緣 淺明之但假上明

---

487) 能 : (續)에는 없음.
488) 也 : 미상.
48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490) 皆 : (續)에는 者.
491) 其 : 具?

也 深則無明畢竟無生無滅[492]卽是中也 而成論等但
假上明之 不及中 復性有得也 今大乘明意說 則具
中假觀也 約假明之 六十六智 就中明之 十一智 今
中假明故七十七智也 問 約三世開六十六者 泥
[56a] 洹智亦應例 何故十一耶 答 此差別無差別明義
六十六是無差別差別故六十六 十一是差別[493]故十
一也 問 別不別故十一者 只應一智 那十一耶
答 實爾 而約十一故十一 如三種中也 前六十六觀
因[494]生果住持不感 名爲法住智 小乘明義 △[495]十一觀
智 苦無常空無我等趣向涅槃 名泥洹智 今大乘論
不然 若漸入明義 亦有此意 若直竪明之 正約中明
167上 也 故通而論之 四十四七十七等智 三乘同觀|亦得
十一智 不同二乘 如成論等意 聲聞人等中 有利有
鈍 四十四智是鈍人觀行 七十七智利人觀行 何者
[56b] 四十四智 觀果由因 爲觀易成 鈍人能作 故判之爲
鈍 七十七智 觀因生果 爲觀難 故約利人方能 故說
也 今大乘意 彼說意彼說[496]並是假上觀 今則具中假觀 故異
彼說 故地經意 爲利根菩薩說 此因緣法 因緣法中 觀
門無邊 廣如彼經弁因緣義也 問 前云現在世中
生緣老死 有二集觀 一生緣老死 二不離生緣老死
此二有何別 答 傍毗婆娑[497]并地經意云 初是正觀
後是逆飜觀也 問 何不從無明乃至老死 先從老

492) 滅 : (續)에는 哉.
493) 差別 : 내용상 뒤에 無差別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됨.
494) 因 : (續)에는 回.
495) △ : (續)에는 故,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智-11]. 後?
496) 意彼說 : 필사본들에는 없음. 衍文으로 생각됨.
497) 娑 : 필사본들에는 婆.

死至無明行因緣耶 答 因緣法中有二種次第 一
順 二逆 從始至498)終順次第 從終至始499)逆次第 觀法
[57a] 多途不可定一也 又此法是聲聞觀法 聲聞人鈍根
從來500)尋本 至觀易生501)成故然矣 似如四諦觀門次第
也 問 因緣相生無窮老死望△502) 何故不說緣生之
義 答 實無窮相生 如地經云 老死△503)作因義 菩薩能
作此觀而不說者 有二義 一聲聞不堪聞故 二欲攝
三世法盡故 亦是教門一種說之也 又見成論文云
167下 諸外|道人多迷因緣 或云寘504)性是衆生因 或說梵天
等爲因故 佛爲破彼〈執〉故 因作果實不虛 故說不離505)現
在世中生緣老死 旣506)有此二邊507)未同然 終是三世法
欲盡 故教門意耳 大乘意亦不無此意 但意異如諸
[57b] 料508)中說也 第三明斷伏 斷伏509)義 俱如十地金剛
心夢覺三科中說 今旣510)開二智故 略爾明之 一家舊
云 伏511)只是動執 斷卽是除諸見之根 何者 皆以初章
動定執令動 亦如前科512)簡中說 如不如不如如 說不

---

498) 至 : (續)에는 없음.
499) 始 : (續)에는 是.
500) 來 : 末의 誤字?
501) 生 : (續)에는 없음.
502) △ : (續)에는 功,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智-11]. 내용상 後로 생각됨.
503) △ : (續)에는 功,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智-11]. 내용상 後로 생각됨.
504) 寘 : (續)에는 (穴/具). 내용상 眞의 誤字로 생각됨.
505)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506) 旣 : (龍)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507) 邊 : 필사본들에는 過.
508) 料 : 科의 誤字.
509) 斷伏 : (續)에는 결락되어 있음.
510) 旣 : (京)에는 說, (龍)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511) 伏 : (續)에는 없음.
512) 科 : 料의 誤字.

說不說說 二不二不二二[513] 作如此動諸見心想等 即
是名爲伏也 斷者 說言不二二 所以非二二 不二非
不二 非二非不二 即是斷諸心想之根裁盡淨 不在
四句五句 故名爲即[514]也 離[515]不了則名爲即[516] 不了則名
爲伏 亦得言深即名即[517] 淺則名爲伏 如云經論云 下
下智即上上煩惱 上上知即下下煩惱者 約假上相
[58a] 麁義論之 至論斷伏義 正洗平心體 如幻化人 不行
心想 不斷不伏 强名即[518]也 一家云 雖言權實即是開
般若 二諦亦然開一實 今明二諦亦只是二智 何以
168上 故然 只諦即是智 智推尋|是諦故 智說諂智爲諦 其
實無異 諦是智之異名 智是諦之殊稱也 諦智旣[519]不
異 所顯亦不異 故言二諦顯一實[520] 權實開般若也 故
今謂一實只是般若也 一家明境智亦不異智權 尋
說相當便名爲諦 緣禀諦生解 即名爲境諦 還以復
是智 如是傳傳得也 次明二智說二諦 智能而諦所
二諦說二智而智所也 問 若爲二諦說二智耶
[58b] 答 二諦正詮辨於二智 即是諦說智也 師有時云 因
緣只是假名 假名[521]只是空耳 有時云 一切不通 因緣
何關空 空何關假名 如此皆不通也 師有時云 無明

---

513) 如不如不如如 說不說不說說 二不二不二二 : (續)에는 如不如如說不說不說二不二不二不二, 필사본들에는 如不如不如如說不說不說二不二不二不二.
514) 即 : 斷의 誤字?
515) 離 : 필사본들에는 雖.
516) 即 : 斷의 誤字?
517) 即 : 斷의 誤字?
518) 即 : 斷의 誤字?
519) 旣 : (龍)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520) 實 : 필사본들에는 家.
521) 假名假名 : 필사본들에는 假々名々, (續)에는 假假名名.

爲與般若相似 何者無明顚倒 能作人天六道 無所
有中 宛然作有此力爲大也 般若力大者 能生刹利
大家 能出生四果聖人 及辟支佛菩薩佛 此此[522]力大大
也 問 旣[523]言實錄無所有 云何得有人天六道等耶
答 只爲須開此諦 此卽世諦故有 若實錄無所有
故此言世諦 非如四家有 緣假之理 虛妄爲世諦體
今謂 假名字有名 爲世諦無所有 於世人顚倒者 爲
[59a] 有 於聖人 妄有無所有也 問 甁衣是因緣 是假不
168下 答 如初章中已說 今言如泥甁卽是切相成是假
若甁衣等無方假假得是假 又諸法無自性 諸佛菩薩
得諸法自在 假名詺 或以人爲甁 或以衣爲柱[524] 此卽
是衣柱人甁 甁人卽是因緣是假也 答[525]別而爲誰[526]則
是果之因 與果爲因 得是因緣 非果因 於果非是因
緣也 問 是因與非因 無果義一理 云何因生果與
非因不生果 答 雖復言無 麻是油因緣故生油 砂
非油因緣 故不生也 問 等是無義一種 何故麻是
因緣 而砂非因緣耶 答 麻雖言無義齊 而是有無
[59b] 非是無無 砂無油是無故無也 一家雖言 能所最長
境智處中 因果最局 今更[527]破令具齊 若言一切皆能
所者 今亦一切諸法皆因緣 皆因緣只是果因 豈有
法而非因緣 若言因緣 △[528]攝法不盡 則應假名攝法

522) 此此 : 比比의 誤字?
523) 旣 : (龍)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524) 柱 : (續)에는 桎.
525) 答 : 若의 誤字로 생각됨.
526) 誰 : 미상. 論의 誤字?
527) 更 : (京)에는 使.
528) △ : 판독미상[智-10].

亦應不盡 旣[529]無非假名者 亦應無非因緣者 若爾能
所攝法 卽旣[530]盡 因緣攝法 何往不盡也 四[531]若言能所
攝法盡者 亦應有非能非所 云何方能所攝盡耶 若
言唯有能所 無有非能非所者 則應唯有相待 無有
絶待耶 今謂 一往能所攝不盡 二往三往則盡 何者
169上 一往能所 唯攝能所 豈攝非能所 二者則盡者 明非
[60a] 能非所 能非能 所非所 此已復是能所 此能所攝已
復得也 問 此言非能非所 可猶是能所攝耶 若言
非能所 非不能所 若爲更能所攝耶 答 此則應言
攝不攝 是菩薩有盡二種法門 有攝不攝 有盡不盡法
門 豈得令一向攝一向盡也 又一家舊云 權實二智
通因果 在因開佛性 在果則開涅槃 何者 佛性名爲
中道 在因權實顯非權非實 非權非實卽是中道 中
道卽是佛性 卽是權顯實佛性[532]也 問 二智得爲牙[533]
相知不 二智爲自智不 答 具如十地義中說 今更
明之 論師等釋不同 一龍光云 用反照故照一切智
[60b] 一切智卽是所照 反照卽是能照 復更有反照智 知
此反照知 如是更有反照 無窮反照也 二開善等云
卽照青知 反照青知 所以穸[534]有 非二乘所得也 三云
一大反照〈智 照〉一切智 更立小反照知 照大反照智 然此
小反照知 還爲大反照知所照 此小反照智 唯能照
大反照 大反照故 大反照知則能照小反照知 復能

529) 旣 : (龍)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530) 旣 : (龍)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531) 四 : 미상.
532) 權顯實佛性 : 내용상 權實顯佛性으로 생각됨.
533) 牙 : 互의 誤字.
534) 穸 : (續)에는 窂. 미상.

照一切知 此似數[535]人四相義 此破如論中說也 今大

169下 乘明義則不然 此能是所能 此所是能所 既[536]是能所

離[537]能無所 既[538]是所能 離[539]所無能 無能故隨意反照無

碍[540]也 問 方便智實智 牙[541]得相知不 若便[542]實智知方[543]

[61a] 170上-4 便 則是實智方便 既[544]照方便 云何名爲實智 若方便

智知實 則是方便照實智方便 既[545]照實 云爲方便智

耶 今謂 只以方便爲實 實爲方便 既[546]實爲方便 既[547]知

實 豈不知方便 只以方便爲實智 方便不妨知實 不

如四家二智各別 着[548]前難亦是 四家義宗權實等 並

可權可實 不能得有所顯 今明 假名權實 故在因得

顯非權非實 即是顯於佛性 在果假名眞應 故得顯

非眞非應定涅槃也 故一家斥[549]四家云 眞應權實等

皆是無首尾屈頭而起 既[550]無首尾 所以是有所得漫

△[551] 故大師云 所說所開等 皆須初章度之 他明權可

[61b] 權 實可實 權可權故不須實故權也 實可實不須權

535) 數 : (續)에는 教.
536)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37)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538)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39) 離 : 필사본들에는 雖로 적은 후 離로 수정하였음.
540) 碍 : (續)에는 得.
541) 牙 : 互의 誤字.
542) 便 : 使의 誤字?
543) (續)과 (京)에는 이하의 61丈과 62丈의 순서가 바뀌어 있음.
544)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45)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46)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47)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48) 着 : (續)에는 若.
549) 斥 : (續)에는 㡿.
550)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51) △ : (續)에는 汚,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智-10].

故實 不須實故權則自權 不須權故實 此實是自實
如斯權實 並自性有所得也 今謂對此 則應云今權
170下 不可權 實不可實 權不可權 須實故權 實不可實 須
權故實 須實故權 權不自權 須權故實 實不自實 權
是實權 所以非權 實是權實 所以非實 此則得從權
實 轉入非權非實 此則亦得言 以權實顯非權非實
所以得其權實 所謂假權假實 故今謂有所對而起
故有首尾也 他四家權實 既[552]可權實 不得從權實 轉
入非權非實也 既不得從權實 轉入非權非實 豈有
[62a] 169下-3 非權非實可從起耶 故今明得非權非實而權而實[553]
也 問 他家計性權實 汝也[554] 今前以初章動 次則拔
如云前以定動 後則前拔 汝今既[555]言 假名諸法非實
亦非假 復用何物拔假耶 若言假有是有 此還是性
實義 答 今明假有非有 何須拔耶 問 汝言假權
實顯非權非實之中道佛性 果地亦顯非眞非應 此
之顯中道 亦應云顯佛性 何故言顯涅槃耶 答 涅槃
猶是佛性之異名[556]耳 是故佛非因非果 以因名怗[557]之
此正法則名爲正因 以果名帖[558]之 則名爲正果 更無
別法 只是一正 在因則以境智開正佛性 在果則寄
[62b] 知卽[559]與總別此正果 此所顯卽是正涅槃也 問 白[560]

---

552)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53) 而實 : (續)에는 없음.
554) 汝也 : 也汝의 잘못?
555)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56) 名 : 필사본들에는 各.
557) 怗 : 미상.
558) 帖 : 필사본들에는 怗. 의미 미상.
559) 卽 : 필사본들에는 卽으로 적은 후 則으로 수정하였음.
560) 白 : 自의 誤字?

果果卽是涅槃〈豈是用涅槃〉開正涅槃耶 答 佛性旣[561]有正[562] 涅槃
亦有緣正 言用智卽[563]總別開涅槃 卽是正涅槃 果果
卽是緣涅槃也 問 白[564]言非因非果 而因而果 此是
緣性與怙[565]若爲異耶 答 若是怙[566]雖是因果 此因果
並正涅槃 非因非果 而因而果 並是緣也 問 旣[567]並
170上 有因果之名 豈得判緣正耶 答[568] 不然 若是緣乃當
以非因非果 正性本然 緣性當體是因果非是怙[569] 故
名爲因果 若是正性當體實非是因果 强以因名怙[570]
名爲因 故此因正 强以果名怙[571] 此果則正也 問 佛
[63a] 性旣[572]須顯 佛便可失可隱耶 答 佛性實未曾隱 豈
可顯 雖復隱之而不失 顯之亦不得也 具如佛性義
說 問 如維摩經佛道品云 非道爲道 若爲斷伏
答 地攝[573]兩論成毗二家宗 卽三毒空眞諦眞如爲道
何以故 彼宗虛妄與虛假是一法 眞如眞諦自是無
相理一法 雖相卽明[574]義 終是理故不勉[575]二見 今謂
不然 道名通一切法 佛道乃至地獄道 九十六種地

561) 旣 : (續)에는 說,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562) 正 : 내용상 앞에 緣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됨.
563) 卽 : 필사본들에는 卽으로 적은 후 則으로 수정하였음.
564) 白 : 自의 誤字?
565) 怙 : 미상.
566) 怙 : 미상.
567) 旣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568) 答 : (續)에는 若.
569) 怙 : 미상.
570) 怙 : 미상.
571) 怙 : 미상.
572) 旣 : 필사본들에는 設로 적은 후 旣로 수정하였음.
573) 攝 : (續)에는 接.
574) 明 : 필사본들에는 時로 적은 후 明으로 수정하였음.
575) 勉 : 免.

水火風至香味觸等道 道未曾有二 但擧佛乘道故
名爲佛道 若爾 佛菩薩行諸法 無非是道 此是權道 權[576]
故於一切法皆道 無非是道也 若然體於一切法無
[63b] 二相 卽是斷伏 明味[577]則爲斷伏也 一家明義 只道是
道 是無而義 故及[578]常合道 通達佛道 道是能通爲義
171上 無而無壅乃名道 以故者[579]無碍 無碍爲而乃名道 如
經云 身子爲女爲身子 故經云 女相無在 無不在 於
此通達無而道 彼經意皆以常破病 通達佛道 破如
地攝等四家 定內外尊卑之病 明無定內之[580]與尊卑
卽是無在不在 是佛所說也 經云 若有眞 是非俱是
若無眞 則是非俱非 故言無眞則不成方便 有眞則
方便□[581] 如住貪瞋耶[582]見等煩惱 而殖衆德本 此非直
貪瞋等非非者爲非口[583]殖衆德本方便亦轉 非唯無
[64a] 慧[584] 只方便亦不成也 若有眞者 非唯是者爲是碍[585]是
既[586]是道 非亦是道 所以反常非道 然通達佛道 佛有
此用 故名佛道 菩薩有此能 故名菩薩道 乃至地獄有此
用 名爲地獄道等 地攝諸家 是道不得非道 非道[587]不得
是道 故是是非[588]俱非也 非種爲種 非[589]番屬爲屬 歡然

---

576) 權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577) 味 : 昧의 誤字.
578) 及 : 反의 誤字.
579) 者 : 미상. 有?
580) 之 : 外의 誤字?
581) □ : 필사본들에는 뒤에 한 글자의 빈칸이 있음.
582) 耶 : 邪.
583) 口 : 필사본들에는 앞에 °를 표시하였음.
584) 慧 : 필사본들에는 惠.
585) 碍 : 미상. 卽?
586) 既 : 필사본들에는 說로 적은 후 既로 수정하였음.
587) 道 : 필사본들에는 없음.

也 又明思議權之與實 皆爲顯非思議非不思議 非

權非實 不二義 亦是淨名現疾之所由 文殊問疾之

本意 現病問病 只爲顯此不二之正道也 然法門無

量 如善財[590]童子俱一善知識怗[591]得一法 得生起涅槃

解 或凡聖等一切法 皆是法門 如淨名經不二法門

[64b] 171下 因二入不二 二爲不二之門 門則有開有閇[592] 此約迷

惟[593]兩緣如諦爲道門緣 若迷教不能通達道 此門則

閇緣 若了悟教 此門則開也 一家相傳 約不二法門

品中 開有兩意二文 有三意 二文亦是三文也 所言

二文者 一前淨名命謂菩薩 各各說所解釋入不二法

門 二者諸菩薩請說不二眞門也 所言兩[594]者 卅二菩薩說

淨名不說 卽是說不說二意也 三意者 一明卅二菩薩

因二入不二也 二文殊因二入不二 三淨名因無言

入不二也 言二文者 卅二菩薩言說入不二 此是一文

〈也 文〉殊亦言說入不二 此是一文 故成兩文 淨名嘿然無

[65a] 言 無現卽無有文也 亦是三文者 卅二菩薩說入不二

一文也 文殊[595]亦說入不二 復是一文 維摩嘿然不說

卽有不說文 故成三文也 初卅二菩薩說 後[596]淨名不說

中間文殊說不說說 則成前說成後[597]不說 說邊成前

---

588) 是是非 : (續)에는 是非非.

589) 地攝諸家 是道不得非道 非道不得是道 故是非非俱非也 非種爲種 非 : (京)은 이 부분에 착간이 있어 '此能故名菩薩道 得非道 非道不得是道 故是是非俱 地攝諸家 是道不'로 적고 있음.

590) 財 : 필사본들에는 者로 적은 후 '財乎'라는 夾註를 붙였음.

591) 怗 : 미상.

592) 閇 : 閉의 異體字.

593) 惟 : 悟의 誤字?

594) 兩 : 내용상 뒤에 意가 생략되었음.

595) 殊 : 필사본들에는 緣으로 쓴 후 옆에 '殊乎'라고 적고 있음.

596) 後 : (續)에는 及.

597) 後 : (續)에는 及.

卅二菩薩說 不說邊卽後淨名不說也 亦得言卅二菩薩
因二入不二 文殊因二不二 入非二非不二 淨名因
非二非不二 入非非二非非不二也 此三意三轉 似
172上 如有淺深階級 然此意|相成 卅二菩薩因二入不二 成
文殊因不二 入非二非不二 文殊非二非不二 成淨
名非非二非非不二 良由非非二非非不二故 有非
[65b] 二非不二 良由非二非不二故 有二非二 如大經師
子吼品云 若不因非二非不二 豈得意[598]一言二也
問 卅一[599]菩薩因二入不二 可攝入不二法門品 文殊入
非二非不二 淨名入非非二非非不二 那攝入不二
法門品相[600] 答 有兩種勢 卅二菩薩此二不二 文殊是
二不二 非二非不二 淨名是非二非不二 非非二非
非不二 故皆攝入不二故 皆攝入不二法門品也 又
三種轉法 卽如二諦八不義中說 有破病意 有無窮
轉勢 有擧淺深門 入中道正法義也
二智義記卷一

[66a]

顯慶三年歲次戊午年十二月六日興輪寺學問僧
法安爲 大皇及內殿故敬奉義章也[601]

---

598) 意 : 言?
599) 一 : 내용상 二의 誤字임.
600) 相 : 耶의 誤字?
601) (續)에는 이 구절의 앞에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九'의 卷次가 있지만 필사본들에는 없음.

◉大乘四論玄義記

三乘義・莊嚴義・三位義

일•러•두•기

1. 이 <三乘義·莊嚴義·三位義>의 교감본은 2종의 필사본 (京都大學소장본과 龍谷大學소장본)과 續藏經本을 비교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2. 세 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비교적 원본에 가깝게 본문을 재구성하고 각 본의 차이를 注에 제시하였다. (京)은 京都大學소장본, (龍)은 龍谷大學소장본, (續)은 續藏經本을 가리킨다.
3. 丈과 行은 필사본에 의거하였다. 필사본의 전면(우측면)을 a, 뒷면(좌측면)을 b로 표시하였다. 즉, 1a는 첫 번째 丈의 우측면, 1b는 첫 번째 丈의 좌측면이다. 대조를 위하여 續藏經本의 페이지와 시작 부분도 아울러 표시하였다.
4. 일부 한자는 편의상 異體字나 略字를 널리 통용되는 글자로 바꾸어 활자화하였다. (예 : サ卄→菩薩, 為→爲, 即→卽, 既→旣 真→眞, 舉→擧, 関·開→關, 咲→笑, 躰→體, 导→碍, 踈→疏, 尒→爾, 弥→彌, 无→無, 称·秤→稱, 応→應, 仏→應, 与→與, 尽→盡, 旧→舊, 号→號 등)
5. 行 사이에 추가로 적은 글자는 < > 안에 집어넣었다.
6. 판독되지 않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1a]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1]

續172下 第一三乘義 第二莊嚴義 第三三位義 三乘
義有四重 第一釋名 第二出體 第三廣料[2]簡
第四明五乘 所言三乘者 一聲聞乘 二辟支佛 三
緣覺菩薩也 一乘言明之 不二而二論無差別差別 有
二種次第 一不二而二起用者 菩薩辟支佛聲聞 二以
通收入不二者 聲聞辟支佛菩薩也 聲聞者 聞聲悟道
故曰言聲聞 故思益經第二卷云 因聲聞[3]得解故名聲
聞 若爾以因得道也 辟支佛 亦名辟支迦也 此云獨
覺 所以言獨覺者 出無佛之世 無師自覺 傍無法侶
[1b] 下無□□□□□□[4]衆生也 亦云緣覺者 至覺悟因
緣也 至意者 偏明得道身 不須師教 而能獨覺 觀因
緣假有不有有 假無不無無 應假理覺 觀覩樹木摧
折 氷沫等須臾間滅 無常苦空理 而覺悟 故名緣覺
獨是因名 因時不須師教 亦得覺境名 卽因緣境覺
道果名中乘 無覺果道果覺也 大論云 辟支迦 亦言
辟支客 今謂彼國[5]輕重音也 如摩訶迦葉等 辟支佛
173上 根性人 故大經梵行品上卷云 於王舍城中百摩訶
迦葉 聞之說十二因緣 以無明乃至老死 卽是觀因
緣理而得道悟 故名緣覺 此意迦葉若不值[6]佛 應作
[2a] 獨覺 而今値釋迦佛 聞具足說十二因緣 悟道也

---

1)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 : (續)과 필사본들 모두 같음.
2) 料 : 필사본들에는 科.
3) 聞 : 필사본들에는 없음.
4) □□□□□□ : 6자 결락되어 있음.
5) 國 : (續)에는 因.
6) 若不值 : 필사본들에는 3글자가 결락되어 있음.

問 此二乘 亦得言悟道[7]理耶 答 得言悟假理 故大經
陳如如得須機文云 應假理也 此理道望不二理 終
是教能表也 如持[8]攝成毗家宗 俗諦爲應假理 眞如
等不得應假理 今大乘宗並是故[9]應假理也 菩薩者 具
存音者 經論不同 漸備經云 以爲開士道 無量壽[10]經上
卷云 十六正士 卽是十六菩薩數也 十住論云 亦云菩
提根[11]上道 薩埵名深心 彼釋云 報果菩提故名菩提薩
埵也 彌天道安法師折疑論 亦開士故 舊斷[12]梁時番
云有二[13]家 一云菩提道 薩埵言心衆生 故名道心衆
[2b] 生 二云菩提言[14] 薩埵言心人 故言心人[15]也 三云菩提
言道 薩埵名道士 取無量經□□□□□□□□□[16]
提言 上道上智上覺開明也 薩名衆生 亦名爲士 亦
云深心大心 道謂上道上智上覺 開悟衆生 大明之
士通 乘者 一家相傳云 有三義 乘是入義 入是出義
173下 開|發釋名義 二當體釋名 乘是運出之義 三表理
釋名 乘是不二義 如諸料[17]中釋也
第二明出體 地攝兩論成毗二家 相輿[18]通而爲言 乘

---

7) 道 : 필사본들에는 없음.
8) 持 : 地의 誤字.
9) 故 : (續)에는 없음.
10) 壽 : 필사본들에는 없음.
11) 根 : 필사본들에는 없음. 《十住論》 본문에는 名임. "菩提名上道 薩埵名深心"(大正藏26, 30b) <逸文>[伊藤隆壽(1974), p.89]에도 名.
12) 斷 : 미상. 蘇의 誤字?
13) 二 : 내용상 三이 맞음.
14) 言 : 내용상 뒤에 결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15) 心人 : 내용상 心人 앞에 결락된 글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16) □□□□□□□□□ : 9자 결락.
17) 料 : 科의 誤字.
18) 輿 : 與의 誤字.

通凡聖有漏無漏 故經云 擧手低頭 乃至童子戲 皆
已成佛道等也 若爾 數則 四諦理解等興[19]等知事解
[3a] 等三乘體 成論宗亦空有兩慧爲體 彼宗乘通道諦
則別 從假空已上故別也 地攝兩論 大意略同[20] 彼家
宗從初地已上眞如相應 是眞乘體 從第卅心已下
未攝相應故 非眞如觀故通 今無依無得家則不然
彼四家 雖作各各相 並是於三乘 今論所破 悉是理
能也 今謂 不二而二 明中假者 正法爲乘體 故大品
經乘乘品云 乘相大乘也 乘是何義 乘是運出義 如
般若能生一切 得無住爲本 建一切行也 問 般若
無二相 如大火聚 四面不可觸 亦如言無得 如因果
所得無有 無有處所 云何言運出耶 答 强名如中
[3b] 也 問 如大品經△[21]達品云 一切行强名 苦能[22]者 何
必俱中是名耶 答 山家以來相傳云 有四種名 一
中是正名 二開假體望性有 爲强名 故大品經卄四
174上 卷有[23]達品云 一切行但假名也 三非性有非性無[24]□
□□[25]中名爲△[26]名中 實非中 △[27]名中也 四如地攝兩
論成毗二家 計有無等一切得△[28]爲有一切法非般

---

19) 興 : 與.
20) 同 : 필사본들에는 因.
21) △ : (續)에는 有, (京)에는 問, (龍)에는 판독미상[乘-1]. 鳩摩羅什이 번역한『摩訶般若波羅蜜經』에 善達品이 있는 것으로 보아 善으로 생각됨.
22) 苦能 : 미상.
23) 有 : 善의 誤字.
24) 無 : (續)에는 天, 필사본들에는 无.
25) □□□ : 3자 결락.
26) △ : (續)에는 施,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 强으로 생각됨.
27) △ : (續)에는 强,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 强으로 생각됨.
28) △ : (續)에는 施,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 强으로 생각됨.

若用△[29]作故△[30]名爲有無等 卽是理解所破也 又二

乘興[31]偏行菩薩解十信觀爲體也 第三廣料簡有

四第一辨[32]體四門料簡 第二明三乘 第三明乎[33]乘至不至 第四廣雜料簡 一家相傳

云 摩訶衍

爲大乘 有四義 一人法 二因果 三出生收入 四能所

[4a] 也 言人法者 摩訶衍具含人法 地攝等四家義宗 摩

訶衍 唯是不得是人法 若然所合論 亦是有人義 今

謂不然 摩訶衍則通人法 爲摩訶衍 故摩訶衍人人

者 卽是佛菩薩也 故十二門論云 法佛大人之所乘故

故攝大也 亦云觀世音大勢至文殊師利彌勒菩薩等

之所乘故 稱爲大 若爾 道非摩訶衍 □□□□□□[34]

者 謂六波羅蜜十八空等 卽是摩訶衍法也 地攝等

四家 問[35]能御是人 能所合論人是乘 那人是當乘耶

今無依無得義宗則不然 前言四種 並是般若用故

四種悉是無相[36]不二故 假名十[37]須不二而二故 種[38]法

[4b] 174下 無人 離人無法 離人無法[39] 法是人法 人是法人 故人

法並乘體也 言因果者 地攝等四家正宗 乘唯是因

不通於果 如言乘涅槃船 入[40]生死 生羅睺等 於涅槃果中

29) △ : (續)에는 施,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 强으로 생각됨.

30) △ : (續)에는 施,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 强으로 생각됨.

31) 興 : 與.

32) 辨 : (續)에는 無.

33) 乎 : 필사본들에는 없음.

34) □□□□□□ : 6자 결락.

35) 問 : 同?

36) 相 : (續)에는 想.

37) 十 : 미상.

38) 種 : 離의 誤字?

39) 離人無法 : 衍文?

40) 入 : (續)에는 人.

神通用 非正因果乘也 今大意則不然 摩訶衍因果
萬行卽是因 萬德卽是果 般若是因法 涅槃是果法也
言出生收入者 菩薩因法化是果人具足 摩訶衍出生
一切法 凡所有一切無量應善 乃至擧手低頭等衆
具 皆以摩訶衍出生 此卽是出生義 又還收入一切
衆善 若大若小 皆[41]歸入摩訶衍故 無依無法[42]三乘並
是般若所〈收〉 故大品經嘆淨品云 無有一法不入法性
[5a] 者也 如衆流皆[43]歸於大海 故今收義 如百川歸於海
也 言能所者 此能所義 最通廣一切法也 如前釋四
種摩訶衍 至論不關人法因果等四種 但持人法名
來取 名爲人法摩訶衍 乃至能所等類然也 所以擧
四種名者 正欲辨乘之體用也 地攝兩論成毗二家
大宗萬善爲乘 離萬善明之 正取空前[44]眞爲乘之體
其政[45]有中萬善等 皆是是[46]莊嚴 挍其非正乘體 所以然
者 空眞正能斷煩惱 昇出運載義 若不能斷煩惱者
175上 終不能出生死 故空眞爲乘體 故彼列[47]經云 等與諸
子一寶車 卽是此法者 是人乘也 招提白琰師云 用
[5b] 決定菩提心爲車 而故來諸師多云 空眞爲乘體也
又釋牛義不同 如龍光空法師云 正取[48]神通爲義牛[49]
而經云 白牛及膚[50]色鮮潔者 明此通此潔[51]內解淸淨

---

41) 皆 : (續)에는 [口*土]. 皆의 異體字의 誤讀임.
42) 法 : 得의 誤字?
43) 皆 : (續)에는 吐. 皆의 異體字의 誤讀임.
44) 前 : (續)에는 取.
45) 政 : 미상.
46) 是是 : 필사본들에는 是.
47) 列 : 引의 誤字?
48) 取 : (續)에는 聚.
49) 義牛 : 牛義의 잘못?

故言白牛膚[52]色鮮潔也 若莊嚴興[53]光宅云 白牛正辟[54]
無漏成[55]也 前云空無漏眞爲車 今改云以無漏眞爲
牛者 彼△[56]釋云 以兩義取至運出義名爲牛 取至能
載義爲車也 光宅又云 以佛眞爲車 彼列[57]經云 爲聞
佛知見故 乃至欲令衆生 令悟佛知見故 故知正佛
眞乘體也 今一家作四發[58]釋乘 具如前 至今更廣辨
人法一發[59] 人卽是能乘 法卽是所乘也 今通論般若
[6a] 中出生三乘五教 如正因正果中出生 因與因因 果
與果果也 今取能乘之正人 正佛與菩薩三乘人也 若
通而辨之 三乘與五乘人等亦法[60] 一切衆生並是能
乘所乘者也 故大品問乘品云 准當乘出者 此卽是
問[61]能乘之人 次問所乘之法者 皆亦通而論之 卽是空
有因果權實等 能一△[62] 人是法人 法是人法 法不異
175下 人 人不異人[63]法 離|法無人 離人無法 卽布施持戒般
若等 卽是人 只人卽是法 法卽是人 一往對地攝等
四家 有應假應妄世諦中有異 故明人法等不二也
故摩訶衍實云不開[64]人法因果等 但將因果來取人[65]

---

50) 膚 : (續)에는 [戶/用], 필사본들에는 扁. 내용상 膚의 異體字임.
51) 潔 : (續)에는 契.
52) 膚 : (續)에는 [戶/用], 필사본들에는 扁. 내용상 膚의 이체자임.
53) 興 : 與의 誤字.
54) 辟 : 譬.
55) 成 : 惑의 誤字.
56) △ : (續)에는 秒,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3].
57) 列 : 引의 誤字?
58) 發 : 雙의 誤字?
59) 發 : 雙의 誤字?
60) 法 : 미상.
61) 問 : (續)과 (龍)에는 間.
62) △ : (續)에는 比,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4].
63) 人 : 衍文?

[6b] 人法 卽具有因果 將因取人名爲因人 將果名取名
爲人[66]等 有得四家義宗 乘義不得非人非法因果等
得卽眞如與卽眞釋之也 又釋因不同 一云 乘正是
果 不存於因 傳云龍意[67]也 如井中水瓶取水也 故彼
列[68]夫人經云 究竟法身 名爲一乘 故知乘義存果 又
法華經云 爲說佛眞故 諸佛興出於世 唯此一事實
餘二則非實 又云開佛知見等 故知乘唯在果也 二
云 乘正在因 彼師還引夫人法[69]云 於法身上 更不復
說一乘法事 旣云於法身上 不談說一乘法事 故知
乘在因不在果 正能越在星屋[70]樂 正是以因起果 是
[7a] 故大品經云 聞以三果生至薩婆若 故知乘要在因
也 法行[71]師多用此意 故言乘義運出釋也 三云 乘通
因果 因乘果至佛果 果乘接因 因果不二 故攝爲一
乘 是故乘通因果也 四今無依無得無差別差別假
176上 名所設意 則不然也 ⌈摩訶衍道 開人法因果 但將因
果取乘 詺乘爲因 將果或取乘名爲果 〈雖〉非因果 將因
果或取名爲因果乘 乘則通因果也 故大品經云 自
從三界出至薩婆若 不二法故 不動法故 假名方便
無碍用開 何不得有也 故大經四相品云 乘涅槃船入
生死海 建立大事 納耶[72]輪陀羅睺羅[73]者 不得定云但在

---

64) 開 : (續)과 (龍)에는 闢.
65) 人 : (續)에는 없음.
66) 人 : 내용상 果人임.
67) 龍意 : 龍光意?
68) 列 : 引의 誤字?
69) 法 : 經의 誤字.
70) 星屋 : 미상. 涅槃의 異體字의 誤讀?
71) 行 : 미상. 衍文?
72) 耶 : 필사본들에는 없음.

[7b] 因 或云但在果 或云通因果 今無所得大乘意 如空
中織羅 空中織紋 無所不有 但拔出顚倒 或[74]識[75]衆生
無差別別[76]引入爲者 且初行者 脩行漸漸出離[77] 有所
得故 今以因起果 此乘在因 雖在因 窮論乘 正在於
果 所以然者 乘正是運出用無壅 所以稱乘在果 始
能運用無碍[78] 因中則門不足分有運用 正無碍運用
無壅 唯在於果地 是故乘正在果地也 在因則傍用
之 前云摩訶衍出生收入者 明摩訶衍出生 三乘五
教及一切法等也 明收之意同歸[79]一摩訶衍不二正
道也 或云以不二正法 出生三乘五教一切法 世與[80]
[8a] 出世善法等同歸[81]一乘 出生則以正行出生 言歸則
同歸一乘也 明一乘猶是正法 正法猶是一乘 今云
176下 以正法出生者 卽是從一乘出生 同歸卽是言歸正
法 一乘而正法 左右之名 眼目之別稱 所以須以正
法出生 收[82]須言歸一乘者 正意摩訶衍正法 實[83]無有
差別 但隨衆生根性不一 所以作種種差別說之 或
說爲三 或說爲五 或說爲世間法 或說爲出世間行
如是隨緣 說無量種種差別 此意說教 隨衆生根性

---

73) 羅 : 필사본들에는 없음.
74) 或 : 惑의 誤字.
75) 識 : (續)과 (龍)에는 織.
76) 無差別別 : 無差別差別의 잘못?
77) 離 : (續)과 (京)에는 雖.
78) 碍 : 필사본들에는 片.
79) 歸 : 필사본들에는 隔.
80) 與 : (續)에는 興.
81) 歸 : 필사본들에는 隔.
82) 收 : 復?
83) 實 : 필사본들에는 異.

所宜不同[84] 故漸以言歸大乘 但如地攝兩論成毗二
家 存心意便執云 心意爲佛因 各[85]執謂有道理應妄[86]
[8b] 理應假理眞如理眞諦理差別故 今破除之 言歸一
大乘 大乘正行 故說三乘五乘差別種種也 實而論
之 一乘作分別 此[87]分別說 皆是摩訶衍正行故 亦名
爲言[88]三歸一 亦名破三歸一 亦名開三歸一 亦名癈
二[89]立一也 言名爲言[90]三歸一者 言[91]有多種 一言[92]教 二
言[93]行 三言[94]緣 乃至言[95]理也 言言[96]教者 獨一佛乘 則開
別爲三乘 今言此等三乘五教 只是一教 所以然者
所表之道 無有二故 能表之教 亦是一也 言無[97]行者
如法華經藥草喻品云 汝等所行皆是菩薩道 明三乘
人所行行 皆是菩薩道 卽是無[98]行也 無[99]緣者 無[100]三乘之
[9a] 177上 人 並是菩薩 彼所行之行 旣是菩薩行者 能行之人 皆是
菩薩人 故云聲聞 若智若斷 皆是菩薩無生法忍也 所以
方會此緣 得是菩薩者 凡是無所得行者 皆是菩薩人 何

---

84) 同 : 필사본들에는 得.
85) 各 : 필사본들에는 冬.
86) 妄 : (續)에는 忘.
87) 此 : (續)에는 無.
88) 言 : 會?
89) 二 : 내용상 三의 誤字.
90) 言 : 會의 誤字?
91) 言 : 會의 誤字?
92) 言 : 會의 誤字?
93) 言 : 會의 誤字?
94) 言 : 會의 誤字?
95) 言 : 會의 誤字?
96) 言 : 會의 誤字?
97) 無 : 會?
98) 無 : 會?
99) 無 : 會?
100) 無 : 會?

者 道理中無有二乘 故凡行此事 此是菩薩人 非復[101]是
聲聞辟支事也 故經云 三乘初果不異於行也 言破
三歸一者 佛世尊赴緣說三教者 本欲令其無[102]歸一
教 而其逐名相 執三作三解 如地攝等四論宗 是故
破此解執 然此破卽收 破是破執 意正破如四論等
但大但小病 收卽收教 令二乘歸一義故 正破三歸
一也 故法華經方便品云 十方佛土中 唯有一乘法
[9b] 無二亦無三 除佛方便說也 言開三歸一者 開三
乘方便者 卽欲歸一 方便開此三卽是開 歸一但定極
密也 言廢三立一者 昔說三乘 此卽權說 如化城喻
品 此是權說 昔爲緣不堪大乘故 經云 權作三乘之
名 今時子心旣已通[103]泰 便作廢於三乘 隨立一乘 此
卽是廢三立一義 是故廢三義 此則據權 無[104]三義 此
據收取 破三義 此據治病 而爲謂執相三爲病故破
177下 之 故云一佛乘 分別開說三也 開三顯一治語 此則
據方便 是故此四義各果也 今一家明 會三乘五教
同歸一乘 此則有能有所也 會三五之教 同歸一乘
[10a] 爲能會 三五之教爲能攝也 三五之教所攝也 然能
亦是所 所亦是能 何者會三五教 歸於一乘 一乘則
是所歸 三五卽能歸也 若言從正[105]法出生一乘 一心
法爲能 一乘爲所生 生一乘爲能攝 一心法爲所攝
此是能所所能 所非所所 能非能能 所[106]不二也 復須

---

101) 復 : (續)에는 後.
102) 無 : 會?
103) 通 : 미상.
104) 無 : 會?
105) 正 : 내용상 一心의 誤讀으로 생각됨.

知之 開三歸一乘者 就假上三一也 復一心法爲强
爲一乘者 眼目異之也 大乘家明 摩訶衍出生一切
法三乘五敎也 出世等善法簡得無得宗也 今就摩
訶衍所生諸法 善惡靜知等 㤼[107]而論之 不生敎 餘有
所得 地攝兩論成毗二家 善靜知與惡散愚等法 今
[10b] 收入二 還是收入歸摩訶[108] 地攝等四家 善惡等諸法
故遠 所不論也 所衍[109]所出生諸法 若以然者 非摩訶
衍所出生 並是有所得 皆是虛妄理外行心 若爾豈[110]
容會能歸摩訶衍耶 故金剛般若經云 於燃燈佛前
得値八百四千萬億那由他諸佛 承事無空過 所種
178上 善根 不得授記 然經意都不知取成 佛授記因者 是
有所得善 皆是虛妄 是故不取知也 從値燃燈佛土
五華[111]所種一念善根 始復是摩訶衍無所得善 得菩
提授記之因也 爾前八百四千萬億那由他諸佛承
事善根 並不餘致取也 故一家相傳判 有所得善不
[11a] 得 無所得善作[112]習因 有所有[113]虛妄善故 然藉有所得 爲
無所得 作次第緣增上緣等也 而佛菩薩勸令 脩有
所得善根相者 有所得善 生於人天 人天是入道之
器 亦名不定聚 並値佛菩薩 解無所得說法 因此得
悟無所得 是故有所得 但爲無所得作緣由等也 一

---

106) 所 : 能所?
107) 㤼 : 필사본들에는 【忄*力】. 미상. 切의 誤字로 생각됨.
108) 摩訶 : 摩訶衍.
109) 所衍 : 所가 衍文이라는 뜻으로 적은 것으로 생각됨. 즉 所出生이 所所出生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110) 豈 : (續)에는 出.
111) 華 : 필사본들에는 花.
112) 作 : (續)에는 없음.
113) 有 : 필사본들에는 없음.

家譬是 如水土爲穀[114]身作緣 正是穀[115]身正因也 問
既言是摩訶衍所出生之三五之教 那忽復破三歸
一 既是摩訶衍三五教 不應復破之 又摩訶衍三五
教 亦不須會也 答 實具摩訶衍之三五教 但緣衰[116]
教不了 落有所得故被破也 問 如二乘人衰[117]教不
[11b] 了 成有所得者 可得言都不稱教者 佛何意說小乘
教耶 答 有二義 一者 聞初說二乘教時 當時未爲
失 但遂[118]守教轉成病 如三脩比丘前衰[119]苦無常教 皆
178下 得阿|羅漢道 未爲失之 如當教悟解也 但後時隨緣
執教 謂爲實有二乘 故被破也 二者 如佛爲破外道
說二乘教 如教悟解 有不有無不無 謂爲究竟[120] 彼[121]名
爲二乘曲見也 此二種意異者 初則如教悟解無所
得小乘 但久後隨緣落有所得成病 後當[122]則如當教
悟解阿[123]羅漢等 而謂爲究竟道 故名爲曲 已成病落
有所得爲失也 此二人 初人則入中道爲少難解人
[12a] 爲人爲說觀 則易入中道也 故夫人經云 三乘初業
宗不愚於法 又法華[124]經 實得阿羅漢 不信是法 無有
是處等 今明出生及收入義 從正法出生三乘五教

---

114) 穀 : (續)에는 穀.
115) 穀 : (續)에는 穀.
116) 衰 : (續)에는 哀.
117) 衰 : (續)에는 哀.
118) 遂 : 逐?
119) 衰 : (續)에는 哀.
120) 竟 : 필사본들에는 意.
121) 彼 : (續)에는 破.
122) 當 : 衍文?
123) 阿 : (續)에는 阿難.
124) 華 : 필사본들에는 花.

等 卽是開此正法爲三五 只此三五敎等 猶是正法
今収[125]入此三與五 歸猶[126]一乘 自出生則從正法生
三五 乃至一乘 今收入還歸一乘 此則是所生爲能收
能出爲所收 然旣言從正法出 應收歸正法 而今言
收歸一乘者 只是正法 但以倚△[127]其言辭也 又開正
法爲三五 此三五只是正法 今旣收三五 還歸一乘
卽是正法歸一乘 是故正法爲所攝也 又昔三乘之
[12b] 法 對外道所法 表正法 會三乘歸一乘 卽是能攝 正
179上 |法[128]爲所攝也 收三歸一 三者是權 旣收歸一[129] 權三則
廢之 雖復收三歸一 非但三乘是權 一亦是假 此則
是權三假一 顯非一也 問 三可是權 一何故復是
假耶 答 昔開一爲三 此是但三 今收三還一 此是
但一 旣除此但三 亦復廢此但一 顯非三非一 乃得
曰平正不二道也 問 涅槃法華大品夫人等經 並
明無[130]三歸一 若爲取異耶[131] 答 若成毗二家釋云 大
宗明之 大品經正明空 明空蕩相 法華經無[132]三歸一
明壽量果 夫人經偏方之說 卽是說頓辨一乘 與大
[13a] 經齊一 此法故 有如此異 但馮觀二師 爲執四五之
異說 前三與四說 猶是無常半字敎 如夢覺義中說
彼家明法敎 釋一乘不同也 無依無得明宗則異也

---

125) 收 : 필사본들에는 從으로 적은 후 收로 수정하였음.
126) 猶 : 於의 誤字?
127) △ : 판독미상[乘-5].
128) 法 : (續)에는 뒤에 法也.
129) 旣收歸一 : (續)에는 旣歸收一.
130) 無 : 會의 誤字?
131) 取異耶 : (續)에는 取耶異邪, 필사본들에는 取異邪.
132) 無 : 會의 誤字?

得定云 涅槃大品及[133]至夫人等經 以明一乘 其事無
二 涅槃亦非半非滿 隨於涅槃非[134]三非一而明三一 般
若亦非半非滿 明於三一半滿 △[135]於般若及[136]至勝鬘
亦然 涅槃亦非常非無常 般若亦非常非無常 及[137]至法[138]
華夫人亦然 是諸大乘 非明一乘義一種齊 今明滿
179下 字教貫通法[139]摩訶衍經 經題是摩訶衍也 故以明一
乘無二 悉是滿字 不同成毗二家云 大品及法華是
[13b] 大乘 而非滿字教 故今明法[140]大乘經 非明一乘無二
此是如來十[141]須爲論 若然[142]爲緣語亦得□[143]此[144]異也 大
品等法[145]般若云 在因名般若 在果名薩婆若 非波若
非薩婆若 名爲正法般若 不二無 淨名等經 非權非
實 隨於不二正法 實法華明非三非一 雖[146]於不二正
一也 如涅槃非常非無常 明正法涅槃也 又得云 法華
開一爲三 則是但三 無[147]三歸一 則是但一 言三歸故
非但三 旣無三 亦復無一非三 然始△[148]與勝鬘經正

---

133) 及 : 乃의 誤字?
134) 非 : (續)에는 판독 미상.
135) △ : 판독미상[乘-6].
136) 及 : 乃의 誤字?
137) 及 : 乃의 誤字?
138) 法 : 필사본들에는 行.
139) 法 : 諸의 誤字?
140) 法 : 諸의 誤字.
141) 十 : 미상.
142) 然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7]. 就?
143) □ : 한 글자가 결락되었음.
144) 此 : 無의 誤字?
145) 法 : 諸.
146) 雖 : 離?
147) 無 : 會?
148) △ : (續)에는 歸,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8]. 復?

法義齊一也 勝鬘經 以正法開爲三乘五教 法華經

則以一乘開爲三乘 而法[149]華三一多是但三但一 夫

[14a] 人經方便故也 問 何故法[150]華經 以一乘開三乘 便

是但三但一 而夫人經不然耶 答 此就緣[151]爲論 開[152]一

爲三□便作三□則成但三 無[153]三歸一 獨作成但一

也 問 勝鬘經 以正法開爲三乘五教 於緣亦應成

但耶 答 亦有如此 但今就緣有强弱判之 法華多

是但 夫人則多方便也 一家相傳云 一乘只是佛性

180上 只是般若 是故亦名爲第一義空 亦名爲般若 亦名

佛性 亦名涅槃 亦名爲一乘 是故般若涅槃碍[154] △[155]摩訶衍

經以明 其宗致是一也 問 若爲得知是大乘摩訶

衍教宗無二耶 答 如地攝兩論成毗二家 以明諸

[14b] 法實相 並是虛妄實實相言 今宗表是復上辨△[156]比[157]

實相 亦是落有所得理外行心 故被破也 問 前云

三時四時五時中 成論等師云 法華已而是牛教無

常故可被彈 如地攝兩論宗 但明牛滿教 可得問今[158]

無得[159]論宗耶 答[160] 雖同明牛滿教 而大異也 彼明無

所得理教△△[161] 何以△[162]知 黑三藏 此師九□[163]義并攝

---

149) 法 : 필사본들에는 論.
150) 法 : 필사본들에는 論.
151) 就緣 : 필사본들에는 한 칸에 두 글자를 적었음.
152) 開 : 필사본들에는 聞.
153) 無 : 會?
154) 碍 : 等의 誤字?
155) △ : (續)과 (京)에는 法, (龍)에는 판독미상[乘-9]. 諸?
156) △ : (續)에는 皆, (京)에는 法, (龍)에는 판독미상[乘-9]. 諸?
157) 比 : 法의 誤字?
158) 今 : (續)에는 个, 필사본들에는 ケ. 今의 誤讀.
159) 得 : (續)에는 行.
160) 答 : (續)에는 若.

論云 此無始時一切此依止164) 故云自性任佛性 一切
法依止 若脩行時依止而自165)消亡166) 自性佛性 朝成如
舍輿名一時有 若鐵練打搥時 名自消亡 眞金自167)朝
出 一去一在 若爾豈非二見也 又云眞如不斷△△168)
[15a] 四義釋眞如不卽煩惱 如土△169)金不囱170)求出 而人須
金種種掘△171)土等 金自172)隨出也 又云眞如非淨非不
淨 眞如如空中日月 非烟雲△173)染 故非淨而非不淨
180下 者 息174)妄△175)顯出 故非不淨也 |眞諦三藏觀釋云 如176)此
可非二見無所得也 又近成177)有人言 於諦之語在是
山舊語 廣州三藏178)與諸覺179)土 朱180)齊二國地攝師 不曾
多法181)語182) 而此間人 偸南183)於諦 不知自於諦 可謂是偸

---

161) △△ : 판독미상[乘-10].
162) △ : 판독미상[乘-11]. 得?
163) □ : 한 글자 결락. 識으로 추정됨.
164) 止 : (京)에는 山.
165) 自 : 필사본들에는 句.
166) 亡 : 필사본들에는 己.
167) 自 : (續)과 (龍)에는 囱.
168) △△ : (續)에는 契或,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2]. 내용상 染或(=惑)의 誤字로 생각됨.
169) △ : 판독 미상.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3]. 下 혹은 中의 誤字로 생각됨.
170) 囱 : 自?
171) △ : 판독미상[乘-14].
172) 自 : 필사본들에는 囱.
173) △ : 판독미상[乘-15]. 所로 생각됨.
174) 息 : (續)에는 忽.
175) △ : (續)에는 开,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6]. 미상. 썼다가 지운 글자가 아닌가 생각됨.
176) 如 : (京)에는 加.
177) 成 : 來의 誤字로 생각됨.
178) 藏 : (續)에는 滅.
179) 覺 : 學의 誤字로 생각됨.
180) 朱 : 周의 誤字로 생각됨.
181) 法 : (龍)에는 皆의 草書體로 썼다가 法으로 수정하였음.
182) △ : (續)에는 濟, 필사본들은 판독미상[乘-17]. 미상.
183) 南 : 兩의 誤字?

牛喩義也 問 地攝宗眞如 不斷△△[184] 今無所得宗
正法斷或[185]不耶 答 無所得宗 亦得斷 二[186]得不斷煩
惱 何者 正法遠離而[187]趣不趣 如[188]大火△[189] 何但△[190]煩惱
[15b] 而[191]遠離 故得意斷或[192]也 亦得言不斷或[193]者 正法非能
非所無得無處 有何得斷不斷等 淨亦淨可也 若言
斷與不斷 就假[194]名[195]相對相却[196]△[197]明之[198]也 問 今一乘與
涅槃 若爲有異[199]那[200] 答 不異[201]也 有二種一乘 涅槃
上有兩種也 一是諸一乘 如無[202]三歸一 一乘故 勝鬘[203]
經云 一乘大方便也 又一家對三明一乘義 卽是大
力菩薩一乘 如對無常得常故 開方便門示[204]眞實相 亦
是橫而明之也 亦是非三非一 强名一乘 卽是不二
道也 涅槃二者 一是□[205]上涅槃 如言接引衆生方便

---

184) △△ : (續)에는 歸式,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8]. 染或(=惑)의 誤字?
185) 或 : 필사본들에는 式. 惑의 誤字.
186) 二 : 亦의 誤字?
187) 而 : 一切의 誤字?
188) 如 : (京)에는 加.
189) △ : (續)에는 恐,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9]. 焚?
190) △ : (續)에는 涅槃,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0]. 焚?
191) 而 : 一切의 誤字?
192) 或 : 惑.
193) 或 : 惑.
194) 假 : (續)에는 佛, 필사본들에는 假의 異體字.
195) 名 : (續)에는 口, 필사본들에는 口 오른쪽 아래에 세 점의 획이 있음. 名의 誤字로 생각됨.
196) 相對相却 : (續)에는 相對劫.
197) △ : (續)에는 涅槃,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1].
198) 之 : (續)에는 文.
199) 異 : (續)에는 實.
200) 那 : 耶의 誤字.
201) 異 : (續)에는 實.
202) 無 : 會의 誤字?
203) 鬘 : 필사본들에는 万.
204) 示 : (續)에는 亦.
205) □ : 한 글자의 결락이 있음.

說涅槃 故大經梵行品云 因世間說涅槃 人無子名

[16a] 181上 爲有子等 又如肇師論云 涅槃者 引物之假[206]名 出處

之方便 名無得物之功 無應名之實 非名非物 名物

何者耶 亦是强涅槃正法涅槃也 所[207]一家相傳云 一

乘只是涅槃只是一乘 所以然者 非常非無常 因非果

常無常因果 將[208]於一乘也 涅槃 非常非無常 非因非

果 顯[209]於涅槃也 問 若言涅槃 非因非果 宜當[210]果名者

一乘非因非果 宜當爲無常名耶[211] 答 不例也 若例

者 一乘非三非一 宜兩[212]强名一乘 若[213]涅槃非常非無

常 宜當强名常 又謂言一乘 非生死三 非生死一 宜

當佛果一乘 故大經云 乘涅槃船入生死 納耶輸生

[16b] 羅睺羅也 涅槃非生死 非小乘灰斷常 宜當涅槃常也

又得云 一乘只是涅槃 涅槃只是一乘 所以然者 涅

槃非常[214]非無常 非因非果 一乘亦非常[215]非無常 非因

非果 〈得[216]〉於涅槃 亦得[217]言常無常因果得於一乘也 是故

涅槃一乘更無有異 而今文欲明其異者 一乘非因

非果 而宜當因名 涅槃非因非果 而宜當[218]果名 所以

---

206) 假 : (續)에는 仕.
207) 所 : 뒤에 以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됨.
208) 將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2].
209) 顯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3].
210) 當 : 필사본들에는 兩.
211) 宜當爲無常名耶 : (續)에는 宜爭當無常名耶.
212) 兩 : 當?
213) 若 : 필사본들에는 名.
214) 常 : 필사본들에는 當.
215) 常 : 필사본들에는 有.
216) 得 : 필사본들에는 [乘-23].
217) 得 : 필사본들에는 [乘-23].
218) 當 : 필사본들에는 常.

然者 本以假[219]方便涅槃接引衆生 令其欣涅槃相離
生死 涅槃是得歸之處 是故宜當果名 旣方便涅槃爲
181下 衆生欣趣之所 是故作脩行之名不便故 宜當果也
而言一乘非因非果 宜當因者 一乘正此明爲萬名
[17a] 同歸 故低頭擧手等是 皆歸一乘也 故經云 令七歲
已上 皆得脩行 是故一乘宜當因目也 不例者 涅槃
宜當常名則爲此義 一乘不得名無常者 去一乘言
而不此歸一乘 論具足義 是故一乘明常無常具足
所以爾者 昔涅槃破耶[220]常 宜全△[221]寫爲明之 今日明涅
槃△[222]正對△[223]昔無常 是故今日涅槃 唯伍疹[224]常也 一
乘則無如常無常 遍[225]寫對斥破 雖言破三而一 終是
無常卽果地 則常亦得常無常具足也 故一家相傳
云 涅槃只△[226]則是對斥破故 唯道道[227]常斷 中△[228]則常至
無常具足能 則一乘亦得齊[229]也 第二明三[230]乘自有兩
[17b] 第一明三乘十地 第二明二乘有無 第一論十地有二[231]第一明名義 第二辨體相 大品
第十七卷 梁武天子敬重此經 大弘大品 題名△△[232]

---

219) 假 : (續)에는 任, 필사본들에는 假의 異體字[乘-24].
220) 耶 : 미상. 邪?
221) △ : (續)에는 德,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5].
222) △ : (續)에는 歸,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6].
223) △ : 판독미상[乘-27]. 斥?
224) 伍疹 : 미상. 假無의 誤字?
225) 遍 : 필사본들에는 通으로 적은 후 遍으로로 수정하였음.
226) △ : △는 (續)에는 快,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8]이지만 帙과 가까운 글자로 보임. <佛性義>[38b]의 내용을 고려할 때 只△는 上帙의 誤字로 생각됨.
227) 道道 : 필사본들에는 殿殿으로 적은 후 판독 미상의 글자로 수정하였음. 미상.
228) △ : (續)에는 快,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29]. 帙의 誤字로 생각됨.
229) 齊 : (續)에는 座.
230) 三 : 필사본들에는 없음.
231) 二 : 一.
232) △△ : 판독미상[乘-30]. 글씨의 모습으로 볼 때 大品經 제17권에 있는 第57 深奧品을 가리키

品 舊云經在[233] 或題灯炷啄[234]品 或歸[235]功德[236]品 或云住[237]菩
提品 品文云須[238]菩提白[239]佛言 世尊何等是十地菩薩
182上 具足阿耨多羅三藐三菩提 佛言菩薩摩訶薩 具足乾
慧地 性地 八忍地 見地 薄地 離欲地 已作地 辟支佛
地 菩薩地 佛地 具足是地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
菩提菩薩摩訶薩 學是十地 非初心得阿耨三菩提
亦不離初心得阿耨三菩提 釋曰依此文 小莊嚴榮
法師云 龍光傳開善云 一神具得三乘十地 一乾慧
[18a] 地 二性地 三八忍地 四見地 五薄地 六離欲地 七已
作地 八辟支佛地 九菩薩地 十佛地 今謂亦可有此義
而實明之 三神明共十地也 而經云 非初心得菩提
亦不離初心得菩提 十地非〈初[240]〉心得菩提 亦不離初[241]心
得[242]菩提也 釋此文不同 一論師等非云[243]初心得者 異
法無明也 不離初心卽菩提△[244]任[245]一明也 △[246]亦然 二
今無依得意 釋有兩義 一者初非是非初菩提中
故 言非初心得 如有不△[247]不是中 菩提非是有是非

는 것으로 생각됨.
233) 在 : (續)에는 此. 미상.
234) 啄 : 喻의 誤字로 생각됨. 大品經 第57 深奧品은 丹本에서는 燈炷品이라고 하였음.
235) 歸 : 필사본들에는 際로 적은 후 歸로 수정하였음.
236) 德 : 필사본들에는 侍로 적은 후 德으로 수정하였음.
237) 住 : 필사본들에는 凡으로 적은 후 住로 수정하였음.
238) 須 : 필사본들에는 得.
239) 白 : 필사본들에는 自.
240) 初 : 필사본들에는 改로 적은 후 後로 수정하였음.
241) 初 : 필사본들에는 改로 적은 후 판독 미상의 글자로 수정하였음.
242) 得 : 필사본들에는 應.
243) 等非云 : 等云非의 잘못?
244) △ : 판독미상[乘-31]]. 猶?
245) 任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32]. 假의 異體字로 생각됨.
246) △ : (續)에는 改,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313]. 後?

有有假[248]故無 亦能不二而二明之也 非△[249]心得 亦不
離後心[250]得 菩提亦類之 二者初與△△[251]並非也 而初
[18b] 與後[252]兩心 並假[253]故非 而初心後[254]心不二 是中菩提故
故言不離心 △[255]不離心 得菩提也 乾慧地 龍光傳開
182下 善 以假[256]空理[257]爲禮[258] 若未 乘義 則卅心爲體 二乘人四
種處理[259] 並是假名空理[260]以爲其[261]體 三三然義三乘同
此乾慧地 未得實法[262] 空理[263]定水少 不免乾枯 故名乾
慧地也 今無得宗 △[264]無所△[265]假名空慧故 則今乾無
枯 無所得生死義故 乾慧地以以[266]乾枯得名也 開生
宗三三然義 二乘人以實法已上無[267]攝〈於[268]〉還生退義
三乘同 今不退有不改之義 故名性地 大乘明義菩薩
初似教△[269]般[270]八萬四千波羅蜜資發空去 空去△△[271]

---

247) △ : 판독미상[乘-34].
248) 假 : (續)에는 任. 假의 異體字의 誤讀임.
249) △ : (續)에는 歸,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35]. 後?
250) 後心 : (續)에는 何以. 필사본들에는 何以로 적은 후 後心으로 수정하였음.
251) △△ : (續)에는 [亻*叉]改.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36]. 後心의 誤字?
252) 後 :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後로 수정하였음.
253) 假 : 필사본들에는 倀으로 적은 후 假로 수정하였음.
254) 後 :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後로 수정하였음.
255) △ : (續)에는 道,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37]]. 非의 誤字?
256) 假 : 필사본들에는 倀.
257) 理 : 필사본들에는 [亻*叉]. 판독 미상.
258) 禮 : 體의 誤字.
259) 理 : 필사본들에는 [亻*叉]. 미상.
260) 理 : 필사본들에는 [亻*叉]. 미상.
261) 其 : (續)에는 具.
262) 法 : (續)에는 淺.
263) 理 : 필사본들에는 판독 미상. [亻*叉]. 미상.
264) △ : (續)에는 口,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38]. 卽?
265) △ : (續)에는 口,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39]. 得?
266) 以 : 衍文?
267) 無 : (龍)은 뒤에 글자를 적다가 지웠고, (京)에는 한 글자의 빈칸을 두었음.
268) 於 : (續)에는 없음.

[19a] 不退常家[272]然義 故假名空理[273] 初無攝於還無退義 但

釋退二乘心釋不同 一玄[274]中但退起二乘心 少有不

退義 二云初十心中前六心退 起二乘心 以七心已

上卄四心無多起二乘心 此意定小乘已六 此[275]故名

性種性義 故言卄四心性地也 八忍地者 三三然義

三乘不同 在見諦中有八忍之位 是八忍人故名八

人[276]地也 見[277]地者小乘義 卽云十六心須陀洹果 具見

諦理[278] 大乘義 以初地終心具見諦理[279]故言見地也 薄

地者 小乘[280]義義欲界 且於發六品重已斷竟 對三品

輕薄者[281] 故名斯陀含也 方[282]乘意義 記[283]二地九門 卽

[19b] 183上 是九品義 說斯陀|含 卽欲界且經四品以上 上卽中

中△[284]名厚 重品已盡[285] 已品輕薄之者 故名薄地也 離

欲地者 小乘義名阿那含也 大乘義三地照門 卽欲

界九品結盡不改[286]還生 故名離欲地也 阿羅漢斷三

---

269) △ : 판독미상[乘-40]. 有?
270) 般 : 필사본들에는 般으로 적은 후 舡으로 수정하였음.
271) △△ : (續)에는 [米*全]得,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41].
272) 家 : 寂의 誤字.
273) 理 : 필사본들에는 [彳*叉]. 미상.
274) 玄 : 云의 誤字?
275) 此 : 필사본들에는 卅? 미상.
276) 人 : 忍의 誤字.
277) 見 : 필사본들에는 是.
278) 理 : 필사본들에는 [彳*叉]. 미상.
279) 理 : 필사본들에는 [彳*叉]. 미상.
280) 乘 : (續)에는 業.
281) 者 : 필사본들에는 者 뒤에 한 글자의 빈칸이 있음.
282) 方 : 大의 誤字?
283) 記 : 미상.
284) △ : 판독미상[乘-42].
285) 盡 : (續)에는 涅槃. 盡의 草書體를 涅槃의 異體字로 誤讀한 것으로 생각됨.
286) 改 : 復의 誤字?

界煩惱已盡[287] 法△[288]無已成辨 故名已辨地 亦已作三
界得△[289]慧究竟 故已作地也 不須[290]教獨然[291]覺悟理 微
遮習氣故 獨覺名 辟支解[292]國語 此番[293]爲獨 番[294]佛爲[295]覺 故
言獨覺也 大△[296]之士 位悕兼物 先人△[297]己[298] 三爲義 以
第十六心卽金剛三昧位已還名爲菩薩地 大乘人元[299]
覺極果 名爲佛地也 第二釋三乘體位 明三乘十地
[20a] 大小兩教不同 龍光傳宜宗已乘 明菩薩乘三乘 明菩薩
乘不異 同明三三然佛因也 三三然萬[300]等兩教三乘
人 同以假名空理[301] 似今眞如名爲乾慧地體 同以實
△△[302]眞似無眞如 名爲性地體也 小乘教同以見諦
△[303]十己心[304] 名爲八人[305]地體 聲聞人第十六心是見地
體也 辟支佛位一 初明作十地 三神明作十地 不同
如前得也 依一云 獨覺人以第六卽辟支佛極果悉
183下 是辟支佛一地|體位也 五乘教菩薩與三乘教菩薩以第

---

287) 盡 : (續)에는 涅槃.
288) △ : (續)에는 四,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43].
289) △ : 판독미상[乘-44].
290) 須 : 필사본들에는 改.
291) 然 : 能의 誤字?
292) 解 : 彼의 誤字?
293) 番 : 飜의 略字.
294) 番 : 飜의 略字.
295) 爲 : 필사본들에는 없음.
296) △ : 판독미상[乘-44a]. 心?
297) △ : 판독미상[乘-45]. 後?
298) 己 : (續)에는 已.
299) 元 : 미상. 大의 誤字?
300) 萬 : 필사본들에는 万. 方의 誤字로 생각됨.
301) 理 : 필사본들에는 [彳*又]. 미상.
302) △△ : (續)에는 計空,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46].
303) △ : 판독미상. [乘-44a]과 같음.
304) 兀十己心 : 十心已上의 잘못?
305) 人 : 忍의 誤字.

十六卷菩薩覺地窮 明是菩薩體他[306] 極果位 是佛地體也
斯陀含果向是薄地 阿那含果向 是離欲地 阿羅漢
[20b] 果向是已辨地 具如釋名義中說 就菩薩位 以初地入
分 卽初地上忍分 未滿已還 約所隨或[307] 傍角相△[308] 小
乘十五心體[309]謂爾相或十六品之十五品 △[310]唯小乘十
五心 約△[311]八忍七智及第十六心 多分名爲八忍
人 是八人[312]地位也 初地滿分窮上忍空解 唯小乘須
陀洹義 說須陀洹 名爲第四已地位 以二地入分已
上 卽△[313]習 窮上忍已還 卽欲界四品不示相或[314] 釋不
濁[315] 一云上上 上下 下上 下中 下下 五品當門 二云一
一地開九品菩薩 何者 有上中下 上三品 中三品 下三
品 義說斯陀含果 名爲薄地體位也 三地入分已上
[21a] 卽修[316]習分滿 則[317]欲界不示相或[318]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 五品門 二[319]如上用 無品盡斷 欲界繫綴 煩惱盡
義 阿[320]那含 名爲離欲地體位也 二三四果向 離未窮
登位 因中說果 並攝屬地位也 以七地入分 乃至脩

---

306) 他 : 也의 誤字?
307) 或 : 필사본들에는 式. 惑?
308) △ : 판독미상[乘-47].
309) 體 : 解?
310) △ : 판독미상[乘-48].
311) △ : 판독미상[乘-49].
312) 人 : 忍의 誤字.
313) △ : 판독미상[乘-50]. 備?
314) 或 : 필사본들에는 式. 惑?
315) 濁 : 필사본들에는 판독 미상. 同의 誤字?
316) 修 : (京)에는 修, (續)과 (龍)에는 備.
317) 則 : (續)에는 弓.
318) 或 : 필사본들에는 式. 惑?
319) 二 : 亦의 誤字?
320) 阿 : 필사본들에는 記?

習分滿窮上品 能侵斷習氣 無明住地 或[321]重將多時
184上 徧觀義說辟支佛 名爲辟支佛地也 以八地入分至
金剛心學地 窮明無生法忍 中品 上品 寂滅忍 下品
中品 是大菩薩位 名爲菩薩地體位也 佛果窮明 是佛地
體位也 初地出分 入二地佛[322]分 名爲菩薩體位也 佛果
窮明 是佛地體位也 初地出分 入二地行[323]分等 並是
[21b] 向牽 如十地九品門五品門義也 唯十地出分 一向
屬十地 初地行分 一向屬初地 與中相隣勝劣身說
不同 一云勝身屬次地 二云猶屬當地身定 開善[324]門
徒相傳作此說也 今無日[325]大乘門義 則不然 具如夢
覺義十地義中釋也 三界正使[326]或假十信[327]位中已釋
意△[328]猶中十信已 已上約小乘義宗明之 卽是習氣[329]
大乘義宗明之 無明煩惱 此無明無知等或 是大乘
之煩惱也 望小乘義 卽是習氣 故瓔珞經云 六地菩薩
斷 非想非非想煩惱也 故相傳謂阿羅漢六地齊功[330]
所以如此者 小乘正使[331]氣 唯不悲[332]想 他若言七地習
[22a] 氣[333]者 此是無明之習氣[334] 非是正使[335]習氣也 故經云 七

---

321) 或 : 惑의 誤字.
322) 佛 : 필사본들에는 仏. (續)에는 佛. 行의 誤字?
323) 行 : (續)에는 八.
324) 善 : 필사본들에는 召.
325) 日 : 得?
326) 使 : 필사본들에는 便.
327) 信 : 필사본들에는 倍.
328) △ : (續)에는 汚,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51].
329) 氣 : 필사본들에는 炁.
330) 功 : (京)에는 切.
331) 使 : 필사본들에는 便.
332) 悲 : 필사본들에는 非.
333) 氣 : 필사본들에는 炁.
334) 氣 : 필사본들에는 炁.

地菩薩愛佛功德 不名無煩惱也 具如十地義中說也

184下 問 事同者 彼十信[336]中十信[337]也[338] 答 夫人經云 三乘初
業不愚於法 大品般若中 開三乘行[339] 又云佛菩薩辟支
佛阿羅漢 用是般若波羅蜜 以度彼岸 涅槃經迦葉品
第四卷云 發心畢竟不二不別[340]如是二心先心難 自未
得度[341]先度[342]他 是故我禮初發心 發心已爲天[343]人師 緣
覺[344]聲聞及緣覺 不是發心返[345]三△[346] 是故△[347]名最上無[348]
十地義中△[349]說 又△[350]元陟[351]釋不得 一如靈味山[352]亮師
云 前四教未能悟道 至第五時大經教等 白[353]悟無 引
[22b] 大經第七四依[354]品云 證彼文自言 自爾之前我[355]等邪
見之人也 法師釋法文云 前四時未明圓脩常住 故
白[356]攝家邪見非是非悟元[357]當教 時時並得悟定[358]道也

---

335) 使 : 필사본들에는 便.
336) 信 : (龍)에는 倍.
337) 信 : (龍)에는 倍.
338) 也 : 耶의 誤字?
339) 行 : (續)에는 引, 필사본들에는 內로 적은 후 行의 草書體로 수정하였음.
340) 別 : 필사본들에는 없음.
341) 度 : 필사본들에는 文.
342) 度 : 필사본들에는 文.
343) 天 : 필사본들에는 無. 天을 无(=無)로 誤讀한 것으로 생각됨.
344) 覺 : 필사본들에는 �.
345) 返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52]. 過?
346) △ : 판독미상[乘-53].
347) △ : (續)에는 今,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54]. 卽?
348) 無 : 미상.
349) △ : 판독미상[乘-55]. 盡?
350) △ : (續)에는 於. 필사본들은 판독미상[乘-56].
351) 元陟 : 미상.
352) 山 : 小의 誤字.
353) 白 : 自의 誤字?
354) 依 : 필사본들에는 浪.
355) 我 : 필사본들에는 乘.
356) 白 : 自의 誤字?

今無所得大乘言 半滿敎並△[359]分悟無求於大小空
人不得說四時等敎明之也 而經云 自爾之前我等
邪[360]見者 依涅槃論釋之 此品正明十六見仕義 故言
耶[361]見 若爾 指小乘計爲攝不正見也 法義意大小△[362]
△[363]義具說也 第二明二乘有無 亦有兩第一明有無 第二明證有無
今序斷釋三乘有無不同 一從佛厶[364]文 漢地開[365]河相
傳說 無有一人釋無有二乘義也 勒那菩提二[366]三藏
[23a] 185上 亦不說無二乘也 番[367]攝論黑眞諦三藏 常呵開等否[368]
云 無有二乘也 執無有二乘 亦少少不同 一但起自
靈味寺[369]小亮法師云 理中唯有一菩薩乘 無別二乘
而說有者 爲欲引接二乘 如雀母方便說也 二開善[370]
亦云無二乘 而父[371]小異靈味者 開善前後說小不同
前云始入內凡得假名空已或[372] 並是實聲聞 但從法
空已去 唯義爲聲聞 凡引十證[373] 如△[374]說 亦改[375]云亦無

---

357) 元 : 无의 誤字?
358) 定 : (續)에는 雲定. (龍)에는 定으로 적은 후 옆에 雲을 적었음.
359) △ : (續)에는 今,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57]. 卽?
360) 邪 : 필사본들에는 社로 적은 후 옆에 耶의 초서체를 적었음.
361) 耶 : 邪의 誤字.
362) △ : 판독미상[乘-58].
363) △ : 판독미상[乘-59].
364) 厶 : 미상.
365) 開 : 關의 誤字.
366) 二 : (續)에는 三.
367) 番 : 飜의 略字.
368) 開等否 : 내용상 開善等의 誤字로 생각됨.
369) 寺 : 필사본들에는 守.
370) 善 : 필사본들에는 否.
371) 父 : 文의 誤字?
372) 或 : 필사본들에는 式.
373) 證 : (龍)에는 澄.
374) △ : 판독미상[乘-60]. 後?
375) 改 : 復?

改[376]假空聲聞法師立[377] 又云聲聞之人 根情鈍弱 怖畏
生死 志憚脩途 不受大化 △[378]岸而退 卽[379]以如來[380]隨機
接故 說有三藏之敎 故有二定十門 定有聲聞辟支
[23b] 佛 偏修定[381]慧二乘道也 但師執不得[382] 窮枚[383]光宅二法
師執實權義 開善執定[384]權義也 實權者 實有如法根
性人也 明法二乘人歲計必應作佛 但逐根性暫時
權爾 偏△[385]定[386]方斷三果[387]或[388]盡 作二乘人 故言權爾也
空捨捨權 假爲義也 明實理無二乘 假名字說二乘
敎也 故法華經方便品 後[389]偈言 十方佛土中 唯有一
乘道 無二亦無三也 無二無第二辟支佛乘 亦無三
無第三聲聞乘 但以假名字 引道於衆生 權假釋權
185下 明證也 實權乘 謂有實行 偏脩空人斷三果[390]或[391]盡 作
聲聞也 侵斷少分習氣或[392] 作辟支佛 無第二無第三
[24a] 究竟也 明聲門義果時節短長 有三師說 不得[393] 一云

---

376) 改 : 復?
377) 立 : (京)에는 결락, (龍)에는 空으로 적은 후 옆에 立이라고 하였음.
378) △ : 판독미상. [宀/丂]. 필사본들에는 定으로 적은 후 [宀/丂]로 수정하였음.
379) 卽 : (續)에는 退.
380) 來 : (續)에는 本. 필사본들은 판독 미상.
381) 定 : 空의 誤字?
382) 得 : 同의 誤字?
383) 窮枚 : 미상. 莊嚴의 誤字?
384) 定 : 實?
385) △ : 판독미상[乘-61]. 修?
386) 定 : 空의 誤字?
387) 果 : 界의 誤字?
388) 或 : 惑.
389) 後 : (續)에는 及.
390) 果 : 界의 誤字?
391) 或 : 惑.
392) 或 : 惑.
393) 得 : 同의 誤字?

名衣阿羅漢 亦是實徧脩 當於[394]聲聞人 二云取衣阿
羅 時節過位 故非實徧[395]脩空慧人 唯取一生身勸脩
者 行辨四果者已上 是偏脩空慧聲人 三云卽是旻
法師覺[396]士 在海壇彌天寶倫法師義 明徧[397]脩[398]空惠聲
聞人 經無量阿僧祇劫 方△[399]之 取衣時促[400]人 並是重
現作也 三果悉△[401]未能廣脩萬行 但偏脩定[402]慧 斷三
界或[403] 聲聞人也 開善意△[404]以無有實 以二乘人者貴
常[405]慧必須備脩 應得以資發定[406]慧 故無有徧脩空[407]慧
二乘人也 又寂[408]相傳云 有二種聲聞 無一種聲聞 有[409]
[24b] 二種聲聞者 實行[410]聲聞卽是六心已還 未登六地頂
退起二乘心行 此是法聲聞 小莊嚴[411]云 此不能斷或[412]
亦未能以似定[413]慧理始伏相或[414] 但以前事有解[415]伏十

---

394) 於 : 前의 誤字?
395) 徧 : 필사본들에는 偏.
396) 覺 : 學.
397) 徧 : 필사본들에는 偏.
398) 脩 : (續)에는 循.
399) △ : 판독미상[乘-62]. 得?
400) 促 : (京)에는 但.
401) △ : 판독미상[乘-63]. 芒?
402) 定 : 空의 誤字?
403) 或 : 惑의 誤字.
404) △ : 판독미상. [乘-57]과 같음. 卽?
405) 常 : 미상. 空?
406) 定 : 空의 誤字?
407) 空 : 필사본들에는 定.
408) 寂 : 一家의 誤字?
409) 有 : (續)에는 者.
410) 行 : (續)과 (京)에는 以. (龍)에는 以로 적고 옆에 行의 초서체를 적었음.
411) 莊嚴 : 필사본들에는 疾枚.
412) 或 : 惑의 誤字.
413) 定 : 空의 誤字?
414) 或 : 惑의 誤字.
415) 解 : (龍)에는 [亻*又]로 적고 옆에 解를 적었음.

煩惱枝條 故取相隨伏也 六心未登△[416]退事 宜[417]如十
地義中說 舍利弗昔曾於於[418]六心中退 波羅門從其
乞眼 得而脚蹋破棄之 舍利弗因心法而退之類例
186上 也 二者捨行聲聞 卽是登受已上六地已還菩薩義說
羅漢等果 以云[419]地始斷三果[420]正便[421]盡 小乘羅漢亦卽
正使盡 三藏方等兩教相屬倚備爲△[422] 故言羅漢斷
或[423]與六地齊功 故得義功也 七地菩薩義說辟支佛七
[25a] 地斷三界正使[424]已盡 復更侵斷習氣無明住地 小乘
教明辟支佛 亦微遮習氣法義片[425]得 故七地菩薩義說
辟支佛也 無一聲聞者 無有不脩萬行 而徧明定[426]慧
則[427]三界煩惱盡者 三藏數宗 定[428]慧易[429]生 有復[430]難生 有
文有理也 文者成論世諦品文云 猶如屋宅等物 易[431]
△[432]難成 如是泥洹知易[433] 分別諸法智慧難生也[434] 理者

---

416) △ : 판독미상. [乘-57]과 같음. 卽?
417) 宜 : 具의 誤字?
418) 於 : 衍文?
419) 云 : (續)의 頭註에서는 '疑七'이라고 함.
420) 果 : 界의 誤字?
421) 便 : 使의 誤字?
422) △ : 판독미상[乘-64].
423) 或 : 惑의 誤字.
424) 使 : 필사본들에는 便.
425) 片 : 미상. 所의 異體字의 誤讀으로 생각됨.
426) 定 : 空의 誤字?
427) 則 : (續)에는 釋. 필사본들에는 釋으로 적은 후 옆에 則이라고 함.
428) 定 : 空?
429) 易 : (續)에는 事. 易의 異體字의 誤讀임.
430) 復 : 필사본들에는 [亻*又]. 理의 誤字?
431) 易 : (續)에는 事.
432) △ : 판독미상[乘-65]. 내용상 壞의 誤字임.
433) 易 : (續)에는 事.
434) 『成實論』 世諦品第一百五十二 "聲聞辟支佛 但有通達泥洹智慧 於分別諸法智中 但得少分 諸佛於一切法一切種本末體性總相別相 皆能通達如人舍宅等物易壞難成 如是空智易得 正分別諸法智慧

無文世諦差別門戶階級條緒多端 有解緣照 此△[435]
差別 故難生也 眞諦無相 △[436]同之理 俗諦 虛假不實
理無有階級意 △[437]照此無階級之理 易[438]生也 以是義
故 三乘聖人皆是△[439]△[440]而來 必有世諦別△[441]也 大乘
[25b] 明之 正反三藏 有△[442]易[443]生 △[444]△[445]難生 必得空有中切[446]
△[447]智慧資發出△[448] 出△[449]及△[450]生衆生從無數世[451]界成
曾習緣 世諦參差境 故不事 有△[452]易[453]生 無相之△[454] 曾
緣無相定[455]理 故定[456]理生衆生情於[457]之外 所以定[458]△[459]難
186下 生|也 今無依無得大乘宗明之 若從凡入空[460] 必從有

難生"(大正藏32, 332c)
435) △ : (續)에는 計,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66].
436) △ : 판독미상. [乘-67].
437) △ : 판독미상. [亻*又].
438) 易 : (續)에는 事.
439) △ : (續)에는 言,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68]. 立?
440) △ : 판독미상. [亻*又].
441) △ : 판독미상. [亻*又].
442) △ : 판독미상. [亻*又]. 解?
443) 易 : (續)에는 事.
444) △ : (續)에는 字,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69]. 空?
445) △ : 판독 미상. [亻*又]. 解?
446) 切 : 功?
447) △ : 판독미상. [亻*支]. 德?
448) △ : 판독미상. [亻*又].
449) △ : 판독미상. [亻*又].
450) △ : 판독미상. [乘-54]와 같음.
451) 世 : 필사본들에는 卅.
452) △ : 판독 미상. [亻*又]. 解?
453) 易 : (續)에는 事.
454) △ : 판독 미상. [亻*又]. 解?
455) 定 : 空의 誤字?
456) 定 : 空의 誤字?
457) 於 : 필사본들에는 相으로 적은 후 於로 수정하였음.
458) 定 : 空의 誤字?
459) △ : 판독 미상. [亻*又]. 解?
460) 空 : 필사본들에는 靈.

入定[461] 故經[462]云[463] 依因此戒[464] 得生諸禪定及滅者[465]知眞[466] 義次第故 至論得陰不二正觀 方△[467]隨△[468] 空有五△[469]不二正△[470]建立 空有[471]與智慧 亦得明之 難與[472]易[473]生也 小莊嚴寺榮法師觀[474]傳[475]開善 △[476]能撮[477]龍光 成結常[478]稍云江南獨出釋三乘 有三種聲聞 無一種聲聞者 如寂[479]

[26a] 云 無有偏△[480]空[481]慧聲聞人也 有三種者 一者於信[482]△[483]立內凡位 但現四諦體 △[484]製四果 如毗曇事[485]所臨終屈指多是此人也 二[486]者於六心 未登頂已還二乘人也 故涅槃迦葉品第二卷末 釋洹河七人 第三位[487]人

---

461) 定 : 空의 誤字?
462) 經 : 필사본들에는 住.
463) 『四分比丘戒疏』 “遺教經云 依因此戒得生諸禪定及滅苦智慧”(大正藏40, 463c)
『天台四教義』 “如經中說 依因此戒 得生諸禪定及滅苦智慧”(大正藏46, 780a)
464) 戒 : 필사본들에는 式.
465) 者 : 苦의 誤字?
466) 眞 : 慧의 誤字?
467) △ : 판독미상. 卽?
468) △ : (續)에는 計,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70].
469) △ : 판독 미상[乘-71]. 陰?
470) △ : 판독 미상. [乘-44a]와 비슷함.
471) 有 : (京)에는 者.
472) 與 : (續)에는 興.
473) 易 : (續)에는 事.
474) 觀 : 親의 誤字?
475) 傳 : (續)에는 得,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傳으로 수정하였음.
476) △ : 판독미상. [丨*又]. 復?
477) 撮 : (續)에는 據, 필사본들에는 [扌*取].
478) 常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72]. 遣?
479) 寂 : 미상.
480) △ : 판독미상[乘-73]. 脩로 생각됨.
481) 空 : 필사본들에는 定.
482) 信 : 필사본들에는 仁.
483) △ : 판독미상[乘-74]. 猶?
484) △ : (續)에는 級,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75]. 復?
485) 事 : 미상.
486) 二 : (續)에는 三.

文云 是名爲住 求佛法中誰是 明次第列 謂舍利弗
大目健連阿若[488]憍陳如等五比丘 釋曰 舍利弗是大
阿羅漢 而言住人 住人位比[489]四種處煗法△[490]七六心
未登頂義 說五方便 及二乘極果 相似定[491]慧也 初心
爲五方便 第二心爲須陀洹 第三心爲斯陀含 第四
心爲阿那含 第五心爲阿羅漢 第六心爲辟支佛 迦
[26b] 葉品第三卷 釋第四遍觀四方 卽頂法 卽須[492]陀洹 釋
187上 第五遍觀已得卽斯陀含 釋第六行已△[493]住卽阿那
含 釋第七水陸俱何[494] 善男子 到[495]彼岸者 △[496]阿羅漢辟
支佛菩薩 猶如神龜水陸俱行 三者於川[497]二乘人則[498]如
大經云 實阿羅漢量與羅漢等也 迦葉品云 住人異
於蹔出還沒人 亦得有證信根成立△[499]地四果人也
今大乘無依意辨之 不同彼諸師說 卽[500]如前釋假十
但[501]中製四果辟支佛與徧行菩薩位 亦卽如十地義中
說也 問 地攝兩論成毗二家云 毗曇家製四果 於四
諦觀位中立 成論於四諦觀△[502]見一滅觀去諦住中

487) 位 : 필사본들에는 住.
488) 若 : 難의 誤字?
489) 比 : 無의 誤字?
490) △ : 판독미상. [乘-44a]와 비슷함. 無?
491) 定 : 空의 誤字?
492) 須 : 필사본들에는 時.
493) △ : 판독 미상. [彳*又]. 後?
494) 何 : 行의 誤字?
495) 到 : (續)에는 若.
496) △ : 판독미상[乘-76]. 喩?
497) 於川 : 捨行의 誤字로 생각됨.
498) 則 : (續)에는 有.
499) △ : 판독미상[乘-77].
500) 卽 : 필사본들에는 碍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501) 但 : 信의 誤字.

[27a] 製立 地攝兩論 三性眞實觀位立法 是盡攝論法師[503]
卽三藏師宗意也 今山家意 並不得[504]法師釋也 彼宗
並是有所得見之心製 何者拾拾高下前後[505]次第異
故 落有所得也 今無依無得宗 無爲法中 無差別差
別明之 無所不是 何者四諦觀見有得道 眞諦觀見
空得道 今謂彼二家各執不得 無依無得 大乘宗有
定[506]定[507]有二諦 不前不後[508]不一時故 今明[509] △[510]定有無 無
有[511]無 有無有 有矢[512]無 無異有[513] 有五[514]是空 空卽是有 △[515]
有爲無 △[516]無爲有 見有爲見空 見雲[517]爲凡[518]有 故數人
187下 見有爲見空 成實見常[519]爲見有 無爲法中 假有方便
[27b] 各異聞 故經云 而[520]法正 有[521]法△[522]也 前後[523]與方便正觀

---

502) △ : 판독미상. (續)에는 [彳*又], (京)에는 [丨*又], (龍)에는 [彳*又]으로 적은 후 [丨*又]으로 수정하였음. 後로 생각됨.
503) 師 : (龍)에는 阿로 적은 후 師로 수정하였음.
504) 得 : 同의 誤字?
505) 後 : 필사본들에는 [彳*又]으로 적은 후 [丨*又]으로 수정하였음.
506) 定 : 空의 誤字.
507) 定 : 空의 誤字.
508) 後 : 필사본들에는 [丨*又].
509) 明 : (京)에는 有, (龍)에는 明으로 적은 후 有로 수정하였음.
510) △ : 판독미상[乘-78]. 非?
511) 有 : 定의 誤字?
512) 矢 : 異의 誤字.
513) 無有無 有無有 有矢無 無異有 : (續)에는 無有無無 有有有矢 無無異有.
514) 五 : 卽의 誤字.
515) △ : 판독미상[乘-79]. 談?
516) △ : 판독미상[乘-80]. 論?
517) 雲 : 空의 誤字.
518) 凡 : 見의 誤字?
519) 常 : 空의 誤字?
520) 而 : 一切의 誤讀?
521) 有 : 一切의 誤讀?
522) △ : (續)에는 位,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81]. 내용상 邪로 생각됨.
523) 後 : (續)과 (京)에는 以.

顯然 諸佛聖人隨衆生根緣 各擧一邊說之 不得彼
四論差別釋之 故中論卄五品 破學大乘先[524]人 △[525]兩
品 破學小乘先[526]人也 問 若然者 亦不得無假十信[527]
位中製四果 中十信已上員[528]脩是菩薩位也 答 不二
而二明之 開爲△[529]十但[530]爲前 中十信在後[531] 若二而不
二論之 卽假不中 故中論云 亦假亦中也 雖開中假
如雲[532]中長短無異相也 第二義推證無有二乘意
擧十事 小莊嚴傳龍光云 開善意 第一於說三乘之
敎之原[533] 道理明之 唯一大乘 而所以開爲二乘者 正
[28a] 爲樂小之人 根情鈍弱 怖畏生死故 成論行者品 心
常爲悅 有身有無身無者 故引接方便云 生死事可
免 設或可一身能辨四果 得灰身滅智 涅槃引進外
凡下愚之人令生微善 實理無有偏脩常[534]慧人也 第
二義推緣無有實行二乘 何者 或境不出十煩惱 十
或皆迷 萬境如邪見 旣拔無一乘同△[535]常住佛果 佛
性法△[536]便亦然 若不識[537]常住佛性一乘同△[538] 復[539]不伏

---

524) 先 : 法의 誤字?
525) △ : 판독미상. [丨*又]. 後로 생각됨.
526) 先 : 法의 誤字?
527) 信 : 필사본들에는 但.
528) 員 : 圓.
529) △ : 판독미상[乘-82]. 假?
530) 但 : 信의 誤字.
531) 後 : (續)에는 改.
532) 雲 : 空의 誤字.
533) 原 : (續)에는 厚.
534) 常 : 空의 誤字?
535) △ : 판독미상[乘-83]. 歸로 생각됨.
536) △ : 판독미상[乘-84].
537) 識 : (續)에는 誠.
538) △ : 판독미상. [乘-83]와 같음. 歸로 생각됨.

188上 邪見等法 或[540]空[541]|△[542]不修萬行而扁[543]意眞卽法便耶 又

地經云 初地中 菩薩△[544]乘[545]相故 尙不貪身 何況所用之

事 是故無有不活畏也[546] 復明無死畏 亦以無我故 不

[28b] 若聲聞已深我相 則應無有畏生死 不須速[547]入涅槃

若意有畏生死者 則我心不除 則不得云卽[548]或[549]齊六

地也[550] 若云脩習無我 有同有異 同者 初地菩薩無五怖

畏 須陀洹亦無此[551]畏 其事卽如婆沙中說也 異者 二

乘人 由知無我覺在 故猒在△[552]卑[553]求解脫 故成論滅

法心品云 卽佛弟子△[554]猒生死 皆以七門去[555]來不生

無所有故[556] 見雲[557]彌增猒離也 大士菩薩脩空[558]眞[559]道 年[560]萬

---

539) 復 : (續)에는 改.
540) 或 : 惑.
541) 空 : 필사본들에는 也.
542) △ : (續)에는 空,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 [乘-54]와 비슷함. 卽?
543) 扁 : (續)에는 謳, (京)에는 扁, (龍)에는 謳으로 적은 후 扁으로 수정하였음.
544) △ : 판독미상[乘-85]. 離.
545) 乘 : 我의 誤字.
546) 『十地經論』 "是菩薩離我想故尙不貪身 何況所用之事 是故無有不活畏." (大正藏26, 137a) {『華嚴經』에도 비슷한 표현이 보인다. 『華嚴經』十地品 "是菩薩 離我相故 尙不貪身 何況所用之事 是故無有不活畏也" (80권본, 大正藏10, 500c); "是菩薩離我相故 尙不貪身 況所用物 是故菩薩無不活畏" (60권본, 大正藏9, 545a)}
547) 速 : (續)에는 連.
548) 卽 : 斷의 誤字.
549) 或 : 惑.
550) 『法華玄論』 "若爾二乘斷惑便與六地齊功 若二乘斷惑齊六地者無有是處" (大正藏34, 427b)
551) 此 : 필사본들에는 比.
552) △ : 판독미상[乘-86]. 旣?
553) 卑 : 미상.
554) △ : 판독미상[乘-87]. 深.
555) 七門去 : 見法本의 잘못.
556) 『成實論』 "又若佛弟子深厭生死 皆以見法本來不生無所有故" (大正藏32, 334a)
557) 雲 : 空의 誤字.
558) 空 : 필사본들에는 雲.
559) 眞 : 慧의 誤字.
560) 年 : 미상.

川[561]悉安在生死 普濟含識也 同心而廣狹有異 其事
相反 若爾不得偏脩空慧卽或[562]△[563]人也　第三義推
說如超位實行聲聞 初六心未登頂有退者 而有能
[29a] 於得[564]中[565]則[566]三界正使[567]盡 與六地菩薩齊功 能全有徧脩
空[568]慧聲聞 只可小速於菩薩 那忽相絶△[569]菩薩廣明萬行
功德智慧絶性地則[570]結猶尙難[571]了應劫方△[572]六地卽[573]
三界煩惱常 二乘人卽正使[574]常速於菩薩過於縣絶 家[575]
188下 云 有二義不可 一者卽或過遠 若爾無退者也 二者
二乘人貴空理不貴萬行 答[576]爾豈[577]能速卽故無有聲
聞等也　第四義 推說無有實行二乘 谷[578]假全有利根
二乘者 能於一身中 卽或[579]與六地齊功者 此二乘人
復[580]過[581]緣發心 廻心作菩薩 遍脩行得伏無亡[582] 難於菩薩絶

561) 川 : 미상.
562) 或 : 惑.
563) △ : 판독미상[乘-88]. 受?
564) 得 : (續)에는 道.
565) 中 : 필사본들에는 申.
566) 則 : (續)에는 斷.
567) 使 : 필사본들에는 便.
568) 空 : 필사본들에는 雲.
569) △ : (續)에는 有,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89]. 於?
570) 則 : (續)에는 斷.
571) 難 : 필사본들에는 往?
572) △ : 판독미상. [乘-57]과 같음. 得?
573) 卽 : 필사본들에는 見?
574) 使 : 필사본들에는 便.
575) 家 : 一家?
576) 答 : 若의 誤字.
577) 豈 : (續)에는 出.
578) 谷 : 미상.
579) 卽或 : 斷惑의 誤字.
580) 復 : 後의 誤字?
581) 過 : 遇의 誤字?
582) 亡 : 필사본들은 미상.

下△[583]碍[584]脩萬行爲當　易於菩薩絕[585]　山來[586]宜脩行者　答[587]
彼[588]

[29b] 難者　二乘人已即[589]正便[590]功德[591]家　鄣[592]久已盡　何故難得[593]
若實易者　暫作二乘則作佛　此即[594]太速也　而論理之
亦有兩義　一者　不應暫作聲聞建大心　碍[595]脩萬行者
二者　大而論之　一切神識脩行時節　時時大體是同
皆應退作聲聞　則無有絕性地　初地等大心菩薩者也
又若聲聞得△[596]已在同歸　則不待爲法華△[597]也　若已
尤[598]常住　亦不待爲說涅槃也　旣待說盡[599]方能受悟　則
△[600]說不△[601]已悟也　若言初果不過於法則　前已碍[602]說
今則因雲[603]化凡　凡夫[604]頂[605]修[606]方悟故　須爲說法華經等

---

583) △ : 판독미상[乘-90]. 乘? 下△은 小乘의 誤字?
584) 碍 : 得의 誤字?
585) 絕 : (續)에는 陀.
586) 山來 : 미상. 小乘의 誤字?
587) 答 : 若의 誤字?
588) 彼 : 필사본들에는 皮.
589) 即 : 斷의 誤字?
590) 便 : 使의 誤字.
591) 德 : (續)에는 侑, (龍)에는 侑로 적은 후 德으로 수정하였음.
592) 鄣 : (續)에는 彰.
593) 得 : (京)에는 假.
594) 即 : (京)에는 山.
595) 碍 : 필사본들에는 得의 誤字?
596)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597) △ : 판독미상[乘-91]. 經? 說?
598) 尤 : 无의 誤讀?
599) 盡 : (續)에는 登.
600) △ : 판독미상[乘-92].
601) △ : 판독미상[乘-93]. 說?
602) 碍 : (京)에는 則, (龍)에는 㝵로 적은 후 則으로 수정하였음. 得의 誤字?
603) 雲 : 空의 誤字.
604) 夫 : (續)에는 失
605) 頂 : 須의 誤字?
606) 修 : (續)에는 판독미상.

也 谷[607]未說時 聲聞人斷或[608]齊功 無有是處 故知無有

[30a] 實行二乘人也　第五義撥說無有實行二乘人 約數

論兩宗撿[609]之無有也 毗曇宗見有則[610]或[611]等智 卽△[612]阿

189上 羅漢有退 初果見理 卽[613]迷理或[614]盡 |緣事生或[615]輕重碍[616]

△[617] 五逆等惡 皆是事或[618] 初果碍[619]△[620]也 成論宗明之 見

空△[621]道 初果十惡五逆悉已盡 將成論宗撿毗曇 撿

毗曇阿羅[622]漢　依△[623]△[624]猶是△[625]凡△[626]　故無[627]有實行

二乘

則然人也 答[628]言實行聲聞 於六心退有者 成論法師

云 迷[629]是捨行聲聞也 又法賢空[630]中如繪[631]世現滅人等

---

607) 谷 : 미상. 若의 誤字로 생각됨.
608) 或 : 惑.
609) 撿 : 檢.
610) 則 : (續)에는 斷.
611) 或 : 惑.
612) △ : 판독미상[乘-94].
613) 卽 : 필사본들에는 卽으로 적은 후 則으로 수정하였음.
614) 或 : 惑.
615) 或 : 惑.
616) 碍 : 필사본들에는 㝵로 적은 후 則으로 수정하였음. 得의 誤字?
617) △ : 판독미상. [乘-92]와 같음. 知?
618) 或 : 惑.
619) 碍 : 得의 誤字?
620) △ : (續)에는 爲,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95]. 盡?
621) △ : 판독미상[乘-96]. 得?
622) 羅 : (續)에는 夢.
623) △ : 판독미상[乘-97].
624) △ : 판독 미상. [亻*叉].
625) △ : [亻*叉].
626) △ : 판독미상[乘-98]. 意 ?
627) 無 : (續)에는 繪.
628) 答 : 若의 誤字?
629) 迷 : 悉의 誤字?
630) 空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99].
631) 繪 : (續)에는 論.

何△[632]頓斷災法[633] 便成羅漢 過爲迷法[634] 羅漢亦應例然
故無有脩空故二乘人也 第六義推說元[635]多[636]二乘
[30b] 人得行[637]明之 寂[638]云慳爲對行[639]檀 嗔爲慈悲行[640]對 二乘
人不然 行[641]惡法遍脩法 切[642]然[643]伏正使[644]枝條異△[645] 然後[646]
方脩空方△[647]除皆[648]或[649] 理而論之 有則正使[650]盡 又無慈
悲等切然[651] 故相傳云 小乘阿羅漢 不碍[652]慈悲切信[653]行
故知無有實行二乘人也 第七義說無有實行二乘
人 約遲速明之 有人在欲界 脩得三界禪定卅三品
一分 或言卅三品定一生身斷三界煩惱盡 成阿羅
漢等 如論八△[654]脫[655]△[656] △[657]衣時有煩惱 取[658]衣已了[659]無煩

---

632) △ : 판독미상[乘-100]. 得?
633) 災法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01]. 煩惱?
634) 法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02].
635) 元 : 无의 誤字?
636) 多 : 有의 誤字?
637) 行 : (續)과 (龍)에는 川.
638) 寂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03].
639) 行 : (續)과 (龍)에는 川.
640) 行 : (續)과 (龍)에는 川.
641) 行 : (續)과 (龍)에는 川.
642) 切 : 功의 誤字?
643) 然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04]. 能?
644) 使 : 필사본들에는 便.
645) △ : 판독미상[乘-105].
646) 後 : (續)에는 판독 미상.
647) △ : (續)에는 亦,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06]. 忘?
648) 皆 : 필사본들에는 此?
649) 或 : 惑.
650) 使 : 필사본들에는 便.
651) 切然 : 功能의 誤字?
652) 碍 : 具의 誤字?
653) 切信 : 功德의 誤字?
654) △ : 판독 미상. [亻*叉]. 解?
655) 脫 : 필사본들에는 晩.
656) △ : 판독미상[乘-107]. 品?
657) △ : 판독미상[乘-108]. 取? 得?

惱[660] 又三去[661]品云 取[662]衣時有三毒 著衣時已 則無三毒

等[663] 如此[664]偏脩空與有[665] 三界或遲速 當[666]爲縣[667]遠 故無實

[31a] 行人 若云取衣聚應迹捨人者 小乘宗明義 從凡入

189下 空[668]望聖 未[669]明捨行 捨行△[670]則傍大乘意也　第八義 論[671]

說無有實行二乘人 約人人者佛人也 如佛自始應

在第四天生 在現爲凡夫 如初教宗所明 菩薩從兜率

陁天上於摩尼寶殿中 放大光明 遣法[672]菩薩先下 或爲

父母觀幾貧窮疾病等 如涅槃論 初意神通反示意

又如梵志來至如來所一聞爲說法 便得悟△[673] 迹[674]大

乘教理 而意之如來等一生得道 旣非實錄得道 故

知聲聞脩道 亦引接方便說 無實行二乘人也　第十

義論[675]說無有實行二乘人 約△[676]理明之無二乘 何者

[31b] 凡有衆生不識一 然三寶常住 一乘同歸 而得脩知

空有[677]卽三界或[678]盡 △[679]二乘極果 無有是處 故知[680]無有

---

658) 取 : (續)에는 판독미상.
659) 了 : (續)에는 乃.
660) 『成實論』 八解脫品 “如經中說 我見比丘欲取衣時有煩惱 取衣已卽無煩惱” (大正藏32, 340a)
661) 去 : 慧의 誤字.
662) 取 : (續)에는 판독미상.
663) 『成實論』 三慧品 “脫如經中佛說比丘取衣時有三毒 著衣已則滅” (大正藏32, 368b-c)
664) 此 : (續)에는 法.
665) 空與有 : (續)에는 宜去見.
666) 當 : (續)에는 過.
667) 縣 : 懸.
668) 空 : 필사본들에는 雲.
669) 未 : (續)과 (龍)에는 朱.
670) △ : (續)에는 內,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09].
671) 論 : (續)에는 於.
672) 法 : 諸?
673)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내용상 道로 생각됨.
674) 迹 : 述의 誤字?
675) 論 : (續)에는 於.
676)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내용상 道로 생각됨.

實行二乘人也 開善門徒 智[681]法師十意了 有實行二
乘意說 亦種種不同 大意同一家無得無依義宗科
科中 所以廣去[682]者 只爲地攝兩論成毗二家義宗 據
塞無碍無得道爲作△[683]碍 所以廣△[684]破有 如四論廣
破繁若無有 有得四論據塞大道△[685] 如鳥飛空 無有
蹤跡 不得廣去[686] 爲有所得四論宗故 了莫言繁廣也
190上 一家相傳云 ⌈如第一△[687]中說 古昔諸[688]三藏師等 無有
一人說無二乘 △[689]經論中亦不見無二乘文也 但衆
[32a] 根性不同 隨其根性說二乘 如是了是 地攝兩論成
毗二家 與無得論 各各願[690]樂不得 故開三乘人也
問 若然者 何意性性[691]破四論相 各[692] 亦處處科中說 爲
著名取相[693]故落有所得被 亦名甘露亦名毒藥也 亦
是有得四論 失於中假 於位中謂[694]爲究竟至極 無故
△[695]落無所得宗 故被破也 如成論三大法師 並云三

677) 知空有 : (續)에는 去定者.
678) 或 : 惑.
679) △ : 판독미상[乘-110].
680) 知 : (續)에는 云.
681) 智 : (續)에는 去, (京)에는 智, (龍)에는 去로 적은 후 智로 수정하였음. 諸의 誤字로 생각됨.
682) 去 : 미상.
683) △ : 판독미상[乘-111].
684) △ : 판독미상[乘-112].
685)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686) 去 : 미상.
687) △ : 판독 미상. [亻*又]. 解.
688) 諸 : (續)에는 淨.
689) △ : 판독미상[乘-113]. 諸?
690) 願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14].
691) 性性 : 往往의 誤字?
692) 各 : 答의 誤字?
693) 著名取相 : (續)에는 著各四相.
694) 謂 :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695) △ : 판독미상[乘-115]. 復?

乘得696)觀 三法師及△697)法行師698) 自引文證 三乘 亦得觀
四文談一 大品經往生品云 聲聞辟支佛具智若斷
皆是無生法忍 又三慧品云 諸佛菩薩辟支佛阿羅
漢 通是般若波羅蜜得度699)彼岸 此二文証 三乘同觀般
[32b] 若空也 又法華經身子領解文云 我等同入法性 云
何如來 以小乘經而見濟度 卽是同觀無生一文也
又經珍如品云 於第一義諦中 下智觀故 得聲聞菩
提 中智觀故 得緣覺菩提 上智700)觀故 得無上菩提 此
兩種經文 證三701)同觀第一義空也 攝論宗豐702)廣兩處
190下 不同 在豐處說 毗曇四諦理爲去703)實性 來廣州爲諸
覺704)士說 經部705)眞諦爲去706)實性 三法師三乘同觀眞諦
理爲眞實性 依他分別性 自是世諦也 三無性有707)是
已前三性之至極理也 今無依無得宗宣708)之 並709)是空
實二諦 名字論之 悉是假十信位辨之 實爾△△710)是
[33a] 無所得理解法並被破也 問 何以得智諸法師宗
假十信711)但爲明之 答 大乘無得宗 非唯是無所得

696) 得 : 同의 誤字?
697) △ : 판독미상[乘-116]. 後?
698) 法行師 : 諸法師의 誤字?
699) 度 : (續)에는 變, 필사본들에는 文.
700) 智 : 필사본들에는 相.
701) 三 : 내용상 뒤에 乘이 탈락되었음.
702) 豐 : (京)에는 實.
703) 去 : 眞의 誤字?
704) 覺 : 學의 誤字.
705) 部 : 필사본들에는 異體字[乘-117].
706) 去 : 眞의 誤字?
707) 有 : 者의 誤字.
708) 宣 : 미상.
709) 並 : (續)에는 普.
710) △△ : 판독미상[乘-118]. 後復?

爲宗 復[712]是△△[713]非無所得至處 如處處中說 問 何
以得智有 答 夫人經云 一依章言[714] 三乘初果不過於
法 若爾三乘初果 卽是假十位 於法是中十信[715]也 又
法華經云 實得阿羅漢 若不信是法 無有是處 又大
品經云 於般若波羅蜜中 開三乘之教也 問 三乘
初空[716]何位耶[717] 答 諸論[718]師[719]云 假名空爲三乘初果 法
空非初果 今無得宗 彼假實兩空 小乘宗明之 亦得
之 今大乘宗 兩空並是假空 不同彼辨位也 若然者
[33b] 三師[720]云三乘同觀 △[721]非議耶 故大經云 迦旃延子 學
等引大乘經證義宗不得也 何者小乘空 生法二空
爲至極 生法不二是非彼所稱 不得引證也 前大法
師等 引大品法華涅槃經云 三乘同觀 卽非也
191上 第三明一乘義有兩第一明乘至[722]佛[723] 不至[724]佛 第二論乘功用 釋一乘體位
上至極佛果不至佛果 釋不同 一莊嚴光宅二法師
義宗明 一乘正體上位 但是因地 不通極佛果 而兩
法師自△[725]小小左右不得[726] 光宅所以一乘不通佛果

---

711) 信 : 필사본들에는 𠘧.
712) 復 : (續)에는 改.
713) △△ : 판독미상[乘-119].
714) 言 : (續)에는 玄.
715) 信 : 필사본들에는 [亻*儿].
716) 空 : (續)에는 定.
717) 耶 : (續)에는 歟.
718) 論 : 필사본들에는 誰로 적은 후 論으로 수정하였음.
719) 師 : 필사본들에는 阿로 적은 후 師로 수정하였음.
720) 師 : 필사본들에는 阿로 적은 후 師로 수정하였음.
721) △ : (續)에는 爲, (京)에는 力, (龍)에는 [乘-100]과 같음. 卽?
722) 至 : 필사본들에는 卽으로 적은 후 至로 수정하였음.
723) 佛 : (續)에는 없음.
724) 至 : 필사본들에는 卽으로 적은 후 至로 수정하였음.
725) △ : 판독미상[乘-120]. 復?

者 正由比[727]莊嚴[728]開善義故義宗 補處相[729]續故無有△[730]
反[731]相續假義也 莊嚴師義宗 後法無有接前[732] 故無假
[34a] 致[733] 前法有不斷續[734]作後法 後法無有接前 故無有軍[735]
前法義故 乘不通極佛果也 開善義宗 佛果起續金
剛 金剛心被續不斷△[736]作佛果 故乘通佛果也 光宅
不許 前法不滅△[737]作後法 故於大乘中 難二法師 相
續△[738]反[739]義 高聲唱言 佛[740]有角等義也 光宅義宗相
續假 假實前自滅後自生 大詠[741]始終 是等[742]類故名相
續假 無有後續前 前不滅反[743]作後義故 開善莊嚴兩
法師 共斥破云 雲師義無相續假義 光宅雲法師釋
常住佛果定是有 而無有續[744]金心[745]中 金心[746]中被續[747]不
滅 △[748]作佛果義 既佛不續接金心 便[749]金心[750]不

---

726) 得 : 同의 誤字?
727) 比 : 미상. 此?
728) 嚴 : (續)에는 蒙.
729) 相 : (京)에는 初.
730) △ : 판독미상[乘-121]. 轉으로 생각됨.
731) 反 : 變의 의미임.
732) 前 : 필사본들에는 결락되어 있음. 한 글자의 빈칸을 두었음.
733) 故無假致 : 필사본들에는 4字에 선을 둘렀음. 삭제의 의미로 생각됨.
734) 續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22]. 轉?
735) 軍 : 미상. 運의 誤字?
736) △ : 판독미상. [乘-122]와 같음. 轉?
737) △ : 판독미상. [乘-122]와 같음. 轉?
738) △ : 판독미상. [乘-122]와 같음. 轉?
739) 反 : 變의 의미임.
740) 佛 : 필사본들에는 佛 다음에 한 글자의 빈칸이 있음.
741) 詠 : 미상.
742) 等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23]]. 氣?
743) 反 : 變의 의미임.
744) 續 : (續)에는 該.
745) 金心 : 필사본들에는 舍四.
746) 金心 : 필사본들에는 舍四.
747) 續 : (續)에는 該.

[34b] 滅△[751]作佛故 即佛無有運金剛心故 光宅云 乘不通
191下 佛果也 莊嚴師云 一乘所以不通佛果者 執佛果寂
照義 彼理金剛心證得佛時 實無佛無不佛 息機照
亦無應化 但無名相中 寄名相說 有衆生得佛義 隨
寄名說 有常住佛果 而常住不接續金剛心 無有運
金剛心因地法義 故一乘上位 不通常住佛果也 光
宅莊嚴兩實[752]宗 常住佛果 不接運金剛心因地也 彼
二師引夫人經云 於一乘上 更無說一乘法事 証一
乘不通佛果 開善家辨此文 佛果更無動轉義 故△[753]
於上更無說 一乘法事也 故開善家宗 明一乘[754]
[35a] 通佛果 有文有理 文者 卽夫人經 一乘音十文云 今
得究竟法身者 則究竟一乘也 釋云究竟法身 卽是
常住佛果 旣言究竟法身 卽究竟一乘 證常住佛果
一乘也 小莊嚴師 又引金光明經三身品文言 若了
義說是身 卽是大乘 是如來性 是如來藏義理者 正
以佛果續金[755]心 金心得轉[756]作果 卽是佛果運金剛心
佛果旣能運金心 故一乘通佛果也 今無依無得大
乘 並不同法說 一家意 無名相中假名說 開爲因果
由因故果 由果故因 因是 因能運出果 果能運出因
離因無果 離果無因 因卽是果 果卽是因 故得言一

---

748) △ : 판독미상[乘-124]. 轉?
749) 便 : 使의 誤字?
750) 便金心 : 필사본들에는 뒤에 便舍心 3字를 다시 적고 삭제 표시를 하였음.
751) △ : 판독미상. [乘-124]와 같음. 轉?
752) 實 : 義의 誤字?
753) △ : (續)에는 言,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25].
754) 一乘 : 필사본들에는 一乘을 중복하여 적고 삭제 표시를 하였음.
755) 金 : 필사본들에는 舍.
756) 轉 : (續)에는 續, 필사본들에는 轉의 초서체로 보임.

[35b] 192上 乘通因果 人法法人 反[757]滅滅反 補勝反勝[758] 前後後前
△[759]可尋也 問 若然者 常無常 無常常 迷[760]例者 佛果
常由無常故 佛果亦是無常耶 答 亦然也 故中
論涅槃品云 有人言佛果常是涅槃也 論言破云 由
無常故常 無常去 常亦去 云何常是涅槃耶 故知佛
果亦是無常義也 至論涅槃非因非果 非人非法 非
有非無 故無得 非因果所得無 至非處所也 雖然强
名者 亦得言涅槃果常 種種得而不同 地攝兩論成
毗二家義宗 如處處科中斥[761]破也 榮法師就光傳開
善義宗 通而爲言 通三性心體並有爲佛果 作習因
[36a] 義 即是正因佛性 皆有相資出義 悉是一乘 據夫人
經法華經明 一乘皆徧作善[762]性 善[763]性摠[764]體通召[765] 佛果
力强緣故也 惡無記性心 雖有一乘義 設而不論也
三藏教中所明五乘皆[766]善 至方等教撿 有者皆是一
乘體攝也 三藏教中有偏[767]空慧故 二乘善及三藏佛
因果 空去善 諸三乘善至方等教中撿 皆無非一乘
體攝也 以方等教撿三藏教 依三藏教從多論之 但
能生解凡夫善也 答[768]正論乘體取去無△[769]善△[770]等 及

---

757) 反 : (續)에는 双.
758) 反滅滅反 補勝反勝 : 미상.
759) △ : 판독미상[乘-126].
760) 迷 : 悉의 誤字?
761) 斥 : 필사본들에는 片.
762) 善 : 필사본들에는 並으로 적은 후 善으로 수정하였음.
763) 善 : 필사본들에는 並으로 적은 후 善으로 수정하였음.
764) 摠 : (續)에는 捻.
765) 召 : 미상. 善?
766) 皆 : (續)에는 法.
767) 偏 : (續)에는 徧.
768) 答 : 若의 誤字?

192下 相似無△771)善△772)等 及外凡夫有漏善△773)等 並是一體

故 法華經方便品云 童子聚沙散花心低頭等善 皆

[36b] 已成佛道也 今無依無得宗 則不同彼說 論師等存

心意世諦空假皆774)有義故 悉是理外 落有所得 被破

也 若了悟不二而二 無爲法中假名 無差別別775)

亦有諸義等 如法花經方便品云 童子聚沙等善 並

是無所得善 故法花論云 低頭776)擧手777)善 是性地菩薩善

亦如大品經三慧云 敬心念佛 乃至一華散虛空 并

一稱南無佛 乃至畢在其福不盡 如是佛福田中福

種其福無量 以是義故 當知佛與化佛 無有差別法778)

今於無異故 若爾 兩經意無異 △779)是性地菩薩 無所得

智不開780)存心意有所得善等故 如四論諸義 迷781)是有

[37a] 所得被破 不入一乘宗 只得次第緣 不得作習因得

佛也 就782)光傳開善義宗 一乘意於三假降金剛心已

還 因成假毁於萬善運出 亦△783)云萬善共成因假人

有運載乘 法784)有一因成假人能785)運載 名爲因成假一

---

769) △ : 판독미상[乘-127]. 漏?
770) △ : 판독 미상. [亻*又].
771) △ : (續)에는 緣, 필사본들에는 [乘-127]과 같음. 漏?
772) △ : 판독 미상. [亻*又].
773) △ : 판독 미상. [亻*又].
774) △ : (續)에는 法.
775) 無差別別 : 필사본들에는 '無差別々別々로 적은 후 뒤의 別々을 삭제하였음.
776) 頭 : 필사본들에는 凡.
777) 手 : 필사본들에는 午.
778) 法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 [乘-113]과 비슷함.
779) △ : (續)에는 意,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28]. 卽?
780) 開 : (龍)에는 關.
781) 迷 : 悉의 誤字?
782) 就 : 龍의 誤字.
783) △ : 판독미상[乘-129]. 得?

也 初令[786]善細詮相勝假善法[787]運心體能運假人 乃至

常住極果 該[788]金剛心 卽續生死中有心[789]能運金剛心 動

193上 出作|佛 卽能運生死中有心動厶[790]作佛 能卽相勝假[791]

心善人能運載名爲相勝假[792]一也 論相待有兩種 一

者 捨實二教相待 二者 當衆教一乘體有總別[793]自有

相待 捨實兩教相待者 捨教明開三乘也 實教但明

[37b] 一乘 △[794]三一相待 待三故一也 一乘體總別自相待

者 別則有萬善不同[795] 總則得[796]運歸一極不異 以總一

乘之一 待善體之萬△[797]相待 待萬故一也 此卽相待

假[798]一也 此三種一以相待一爲乘端 而有二義 一者

相待一乘攝乘體通常 此卽是體通無相待故也 因

成相待有兩 一則攝乘體[799]不盡因成一 攝乘體有兩

義 一者因成假[800]上不通常住極果 卽是不攝佛果乘

二者依假[801]實相△[802]義 乘體萬善有不成因成假[803]人義

---

784) 法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 [乘-113]과 비슷함.
785) 能 : (續)에는 然,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能으로 수정하였음.
786) 令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30].
787) 法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 [乘-113]과 비슷함.
788) 該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31]. 續?
789) 有心 : (續)에는 怖, 필사본들에는 두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로 적고 있음[乘-132].
790) 厶 : 미상. 出?
791) 假 : (續)에는 任.
792) 假 : (續)에는 任.
793) 別 : 필사본들에는 不.
794) △ : (續)에는 法,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 [乘-113]과 비슷함.
795) 同 : 필사본들에는 得.
796) 得 : 同의 誤字?
797) △ : (續)에는 比,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33]. 法?
798) 假 : (續)에는 任.
799) 體 : (續)에는 禮.
800) 假 : (續)에는 任.
801) 假 : (續)에는 任.
802) △ : 판독미상[乘-134]. 明?

卽是下地善相不常義也 相待[804]一攝乘體不盡 亦有兩

義 一者 極果善解體通入一乘 但勝前金心義 故入

[38a] 一乘 乘果不勝金剛心義 則不入一乘 二者 下地善

解入一乘 有待[805]不待[806]義 不待[807]義者 如習釋兩因論善

生而滅義 而有資生運義 故入一乘 此善義非相續

義攝也 二者因成相續 兩一則別相 待一乘則通 通

193下 者|則因成一形 待彼衆因故 一是待一相續假[808] 一形

待於△△[809]二因故 一卽是待 一不論待 賴須待之待

待賴須待之 待於三假[810]中語義 各屬假[811]也 就[812]光云 開

善常云 此三假[813]待不待 卽不善出應人之表 今無依

無得宗 空[814]之嘍咧 嘍咧[815]生於分別心 於入道△[816]無益

如百草也 如八不義中破三假[817]也 中論燃可燃品 龍

[38b] 樹菩薩云 若法因待成 是法還成待 今則無因待 所[818]成

法亦無 此四句語[819] 並破洗[820]盡三假待不待具不具等

803) 假 : (續)에는 任.
804) 相待 : 필사본들에는 한 칸에 붙여 적었음.
805) 待 : 필사본들에는 續.
806) 待 : 필사본들에는 續.
807) 待 : 필사본들에는 續.
808) 假 : (續)에는 任.
809) △△ : (續)에는 義以,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35]. 前後의 誤字?
810) 假 : (續)에는 任.
811) 假 : (續)에는 任.
812) 就 : 龍의 誤字.
813) 假 : (續)에는 任.
814) 空 : (續)에는 定.
815) 嘍咧嘍咧 : (續)에는 嘍嘍別別, 필사본들에는 嘍々別々.
816)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817) 假 : (續)에는 任.
818) 所 : (續)과 필사본들에는 판독 미상.
819)『中論』"若法因待成　是法還成待　今則無因待　亦無所成法" (大正藏30, 15c)
820) 洗 : (龍)에는 詵.

義也 雖然破衆生△[821]緣性[822]無爲法中 而有差別 亦得
有之 故云一切[823]正[824] 有[825]法邪[826] 雖然爾 有便不便 得不慢[827]
事也

第二解功用 諸論師等云 乘正以運載爲義 亦言乘
運致爲義 能運行人 遠進至佛果 佛果續於因法 法
能運人 人能馭行也 亦言進趣 進趣於果也 彼四論
義宗 恰恰有人與法 從[828]小[829]至上[830]也 今無依無得宗 永
異於有得四論宗 若名字假名方便無爲法中 開差
別亦得有此[831]數名 而旣言無差別差別故 雖言運載
[39a] 194上 運致與進趣[832]等抑[833]名而至有如彼從下至至[834] 故經云
來[835]無所從 去無所至 如淨名細說[836] 又大品經發趣品
善吉白佛言 云何從一地至一切[837] 佛答云 菩薩摩訶薩
知[838]有[839]法無來[840]無去 相上無有法 若來若去 若至若不

821) △ : (續)에는 於,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36].
822) 性 : 필사본들에는 情.
823) 一切 : (續)에는 有, 필사본들에는 而. 一切의 誤讀임.
824) 正 : 내용상 앞에 法이 생략된 것으로 보임.
825) 有 : 一切의 誤讀임.
826) 邪 : (續)에는 願, 필사본들에는 耶의 초서체.
827) 慢 : 得의 誤字?
828) 從 : 필사본들에는 絶?
829) 小 : 下의 초서체의 誤讀으로 생각됨.
830) 上 : (續)에는 至, 필사본들에는 々. 上의 초서체의 誤讀으로 생각됨.
831) 此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37]. 無?
832) 與進趣 : (續)에는 焉近趣.
833) 抑 : 필사본들에는 판독 미상. 將?
834) 上 : (續)에는 至, 필사본들에는 々. 上의 초서체의 誤讀으로 생각됨.
835) 來 : 필사본들에는 成.
836) 淨名細說 : 필사본들에는 細名淨說.
837) 一切佛 : (續)에는 一地.
838) 知 : (續)에는 者.
839) 有 : 一切의 誤讀임.
840) 來 : 필사본들에는 成.

至 諸法相不滅故也 然地攝兩論成毗二家宗致 十
地恰恰有高下法學[841]差別 若爾豈非有所得耶 事事
具如十地義斥破也 龍光云 開善義宗乘切通便 所
運動上 不無運動義 但能運未必動而運故 不以運
動數乘不動而逆有上下兩種 上則佛果不動而能
運金剛已定[842] 習釋兩因 善解生而卽滅者 不動而能
[39b] 運資行便出作佛也 乘所運心人必動出也 人動至
金剛例滅心動心動至佛而假[843]不△[844]動二不例也 故
諾便動出卽是載義 故言運必載 以運載釋乘也 法
師云 運有三種 一者運前 二者運後 三者同時運 何
者以後續前 便[845]前動出至後名一爲運前也 以外凡
夫善等 便[846]△[847]雲十地心出作佛 名爲運後也 以同時
心善無作善等 便[848]同時心轉[849]出向佛 名爲同時運也
據此三種運 而爲言 佛果但有運前之運 卽佛果續
194下 金剛心 便[850]金剛心動出轉[851]作佛 下地具有三種運 卽
如向所論 三種運義 假人亦使心動出[852]此卽假[853]實牙[854]
[40a] 運義也 問 假實牙[855]相運者 心卽[856]佛果 假人亦卽佛

---

841) 學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38]. 法學는 勝劣의 誤字?
842) 定 : 空?
843) 假 : (續)에는 任.
844) △ : 판독미상. [丨*又]. 復?
845) 便 : 使의 誤字?
846) 便 : 使의 誤字?
847) △ : 판독미상[乘-139].
848) 便 : 使의 誤字?
849) 轉 : (續)의 頭註에는 '疑續'.
850) 便 : 使의 誤字?
851) 轉 : (續) 頭註에는 '疑續'.
852) 出 : (京)에는 山.
853) 假 : (續)에는 任.
854) 牙 : 互.

果耶 答 開善宗 佛果非實具非成故 假人但至金
心 佛果但法因成假上 有人言佛果異具因成假非
開善宗也 問 何故以運載釋乘言運卽具載 不以
運動釋乘耶 答[857] 運卽是能[858]載 運亦卽是能[859]動耶 答
開善云耳 能[860]載卽當分是載佛果 便[861]金心動而佛果
不動 故能載而能動[862] 此義非例 例如前△[863]△[864]迷
或 便迷或卽滅 而能卽△[865]是 卽△[866]是能卽滅非卽迷
或所△[867]迷或自是卽滅也 乘能運載是載能動非動
亦然也 陟[868]亦能分疏而△[869]是是二見客[870] 今無依無得
[40b] 宗則不然 大品經三慧品 自標問 云何名爲有所得
無所得 佛答云 諸有二者名有所得 無有二者 名無
所得 佛自分明言 無有二者 名爲無所得 云何言佛
果不動 金剛心動 金剛心滅 佛果不滅等也 今謂動
卽靜 靜卽動 能[871]卽所 所卽非[872] 離[873]動無靜 離靜無動 果

---

855) 牙 : 互.
856) 卽 : 필사본들에는 卽으로 적은 후 至로 수정하였음.
857) 答 : 若의 誤字?
858) 能 : (續)에는 然.
859) 能 : (續)에는 然.
860) 能 : (續)에는 然.
861) 便 : 使의 誤字?
862) 動 : 필사본들에는 動과 此 사이에 此動을 반복하여 적은 후 삭제하였음.
863) △ : 판독미상. [亻*叉]. 後?
864) △ : 판독미상[乘-140].
865) △ : 판독미상. [乘-140]
866) △ : 판독미상. [乘-140]
867) △ : 판독미상. [乘-140]
868) 陟 : 미상. 師의 誤字?
869) △ : (續)에는 證,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41]. 終?
870) 客 : 미상.
871) 能 : (續)에는 卽, 필사본들에는 然으로 적은 후 卽으로 수정하였음.
872) 非 : 能.
873) 離 : 필사본들에는 沒.

因因果 常無常類然 至論非動非靜非因非果 因果
不二也 而經云 佛果常等者 橫云斥破二乘故爾 有[874)]
195上 如涅槃等義|科中辨也 問 若常無常無常常不二
云何捨無常色獲得常住色 受想行識亦復如是耶
答 此意就[875)]情悟心有法界故爾 亦是引接故爾 若
[41a] 理而論之 如前動與靜等不二也　第四雜料簡 一
往不二而二明之 乘是對人名也 行能運人 爲人所
乘 故名乘也 所言一者[876)] 隨義釋有四義 一者簡[877)]別名
爲一也 二者破別名爲一也 三者今[878)]別名爲一也 四
者無爲故名爲一也 言簡別者 據實理明之 唯一大
乘 隨緣隨化分三 簡別破三 是故言一也 言破別者
佛隨衆生根性 方便假設三乘 衆生聞已 執假開三
是故言一 故法華云 十方佛土中 唯有一佛乘 無二
亦無三也 又經亦言唯此一事實 餘二則非眞也 言
無二者 一大乘外 無別聲聞緣覺二乘也 言無三者
[41b] 一大乘外[879)] 無別聲聞緣覺二乘并無有隨緣化偏[880)]行
所設大乘也 問 直說無三時 無二已△△[881)] 復[882)]何得
別說無二無二[883)]耶 答 聲聞緣覺二乘者 是大乘家
對說偏悟假有不有 假無不無 二乘也 大乘亦有二

---

874) 有 : (續)에는 礙, 필사본들에는 㝵로 적은 후 有로 수정하였음. 具의 誤字?
875) 就 : 필사본들에는 然.
876) 者 : (京)에는 去.
877) 簡 : 필사본들에는 前.
878) 今 : 合의 誤字?
879) 外 : 필사본들에는 [彳*又]로 적은 후 '外乎'라는 細注를 달았음.
880) 偏 : 필사본들에는 徧.
881) △△ : 판독미상[乘-142]. 所含의 誤讀?
882) 復 : 필사본들에는 [亻*又].
883) 無二 : 衍文?

195下 種 一悟假有不有 假無不無 脩萬行菩薩大乘 二悟有
不有無不無 圓[884]悟中假 方是實大乘 亦得言前權大
後是實大 亦得言如言三阿僧祇劫 但脩六度 不脩
習諸地無漏 次於百劫脩相好業 隨業明之 名爲權
大 破此權大 并破餘小 是故言一也 今[885]別者撿[886]而明
之 唯一佛大乘 隨衆生 分一爲三 今還攝三 歸大因
[42a] 無異 趣大果無別從 故言一 故夫人經言 大戒儀以
爲木叉 毗尼學者卽是大乘學 故云波羅提木叉毗
尼 此二法者 義一名異 毗尼者卽是大乘學也 又經
云 汝等所行是菩薩道 正是根本無二法故一也 問
曰前破三辨一 今復何故合[887]三爲一耶 答 對執情
其別若[888]故說破三廢[889]執情明之 就理爲言 一理[890]外無
三 是言別卽是一也 問 乘者人所行 三乘人別 隨
人敎乘 乘應定有別 何故言一耶 答 以理一故爾
故經云三乘雖異 同一佛性 猶如諸牛色雖種種 乳
色無別 三乘亦爾 佛性無別 性無別故證未圓[891] 唯一
[42b] 佛因 証之因極唯一佛果 是故就[892]實論 唯一大乘 故
大經菩薩品云 世若無佛非[893]無二乘 證於二種涅槃 而
196上 世界唯一佛 更無餘故 無別二乘得二種涅槃 故言

884) 圓 : 필사본들에는 員.
885) 今 : 合의 誤字?
886) 撿 : 檢.
887) 合 : 필사본들에는 令.
888) 若 : 名의 誤字?
889) 廢 : (續)에는 處.
890) 理 : 필사본들에는 [彳*又].
891) 圓 : 필사본들에는 員.
892) 就 : 필사본들에는 然.
893) 非 : (續)에는 則.

無別 如是意也 言無別者 就[894]實理明之 乘無有別 非是有三別可破可合[895] 猶如虛空平等無二言一也

問 一乘以行爲體別多種△[896]得言乘耶 答 不二而二論之 法行[897]有二種 一別相門 二共相門 此別相是共相 共相是別相 非一非二 假名開之 若別相門 乘有多種 令得共相義故言一 猶如衆木[898]共成△[899]五陰共成人等 此義亦然也 此一乘如十二門論云 亦名

[43a] 大乘 此則隨人△[900] 釋佛菩薩是大 是大行乘故言大乘也 前釋名中有出 亦得數法辨備攝如六度相攝則廣大故名大也 山[901]家相傳云 若言一者 要有四種 一無三故一 即是無二故一也 故法華經 有一乘法無二亦無三也 二者因一[902]故一 即是萬行一[903] 即是果因 故一同也 汝等所行是菩薩道 三者果一故一 即是一萬位故 法華經云爲一佛乘故也 四者體一故一 此[904]通因果 即△[905]通一故 勝鬘經云 說[906]入一乘 體此[907]一乘 亦名大乘 四義同向 四一亦名無上之乘 物不能[908]過此[909]

---

894) 就 : 필사본들에는 然.
895) 合 : 필사본들에는 令.
896) △ : 판독미상[乘-143]. 安으로 생각됨.
897) 行 : 門의 誤字?
898) 木 : (續)에는 等.
899) △ : 판독미상[乘-144]. 林?
900) △ : 판독 미상. [亻*叉].
901) 山 : (續)에는 出.
902) 一 : 필사본들에는 없음.
903) 一 : (續)에는 없음.
904) 此 : 필사본들에는 [乘-137]과 비슷함.
905) △ : 판독미상[乘-145]. 會?
906) 說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46].
907) 此 : 필사본들에는 比.
908) 能 : 필사본들에는 然.

也 卽是簡非二乘之大 故法華經云 是淸淨於此910)世
[43b] 196下 間爲無有上 又一乘之名△911)行理之一矢912)也 大乘亦
然 卽歸大本以當體屬稱難也 故就913)△914)菩薩十二門論
擧六義釋大義 何者 一者於二乘上故大 二者法佛
最大乘此大乘能斷故大 三者諸佛大人之所乘915)
故大 四者除衆生大苦 然916)興大益 故言大 五者觀世
音彌勒諸大士之所乘故言大 六者然917)苞諸邊故言
大也 如來出世本爲一大事因緣故出現於世 但衆
生殖因不同 隨其所樂 於一爲開爲三 三卽是一也
隨緣說有四門義 一令918)三歸一也 二破三說一也 三
開三明一也 四癈三興919)一也 如前說之 此四種門 不二
[44a] 而二明之 通於人法理敎△920)行六種 前略故四也 論
師云別而爲言 令行者破出執餘二通三 謂敎行理
也 今無依無得宗 彼所明宗 若行若敎若理 有921)諸法
並破洗 無有留微毫922)也 問 以法能923)運運御而不說
人御 御卽運不 答 迷通尋法 運通是載之別名 而

909) 此 : 필사본들에는 [乘-137]과 비슷함.
910) 此 : 필사본들에는 [乘-137]과 비슷함.
911) △ : (續)에는 含,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47]. 내용상 解로 생각됨.
912) 矢 : 미상. 내용상 乘의 誤字로 생각됨
913) 就 : 필사본들에는 然.
914) △ : 판독미상[乘-148]. 就△는 龍樹의 誤讀으로 생각됨.
915) 乘 : 필사본들에는 乘 뒤에 '脫(乎)'가 추가되어 있음.
916) 然 : 能.
917) 然 : 能.
918) 令 : 會의 誤字?
919) 興 : 與의 誤字?
920) △ : 판독미상[乘-149]. 내용상 解로 생각됨.
921) 有 : 一切의 誤讀?
922) 毫 : 필사본들에는 [艹/豪].
923) 能 : 필사본들에는 然.

不二而二明之 宜指於法尋 此御通卽統之別種 宜
屬於人 此卽人法法人 隨便不便論也 問 尋一名
不諦於三 亦通於四 理一名一義一事一教一 卽是
九[924] 何故但四門耶 答 實如斯也 而者[925]不二而二略[926]
197上 言者 止[927]說無二故一攝衆 一已當指事通爲體亦攝
[44b] 通 此前釋理名義政[928]此四屬無三故一所攝具足 攝
具足當也 問 若令三行△[929]一行者 何意不令政[930]歸一
政[931]耶 答 並得也 故大經言 以珠力故水清淨 如前
三△[932]是方便說 今一乘旣正觀明了 前方便亦了也
論師云 行是因近遠向果 所以令之 正[933]是非因法 癈
於一時 行有△[934]進義 以開脩習故 正[935]非別脩習 復無
進義 故非例也 今無依無得宗則不然 如經云 一中
有無量無量九中[936]一 指一爲無量 指無量爲一 指習
爲無習 指無習爲習 故一例義也 又不二而二義 亦
得言政[937]非脩習故 不令[938]政[939]而得言政[940] 何者政[941]爲行 行

---

924) 九 : 門의 誤字?
925) 者 : 미상. 若의 誤字?
926) 略 : (續)에는 毗.
927) 止 : (續)에는 正.
928) 政 : 教의 誤字?
929) △ : 판독미상[乘-150]. 歸로 생각됨.
930) 政 : 教의 誤字?
931) 政 : 教의 誤字?
932) △ : 판독미상[乘-151]. 教?
933) 正 : 필사본들에는 政. 教?
934) △ : (續)에는 長,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52]. 無?
935) 正 : 필사본들에는 政. 教?
936) 九中 : 中有의 잘못으로 생각됨.
937) 政 : 教의 誤字?
938) 令 : 會의 誤字?
939) 政 : 教의 誤字?
940) 政 : 教의 誤字?

[45a] 爲政942) 解何不言政943) 故變言會 亦得其不舍944)政945)也 論言

令946)不令947)相 不同四論宗義也 問 乘義道無義 復948)何別

屬 答 不二而二明之 總相釋之 能949)通名九950) 能951)運名

乘 雖952)然人馭具載人 人法相成 人能馭法 能953)運出 法

能954)載人能955)運出 兩相成運出進趣義 名爲乘宗 道則

能956)法通得果義 名爲無957)宗 不二而二明之 大宗乘958)是

擧959)人法法人 運出進趣名乘義 △960)是人法行通得果

197下 義△961)|義 問 △962)但行通得果義△963)人邊卽無有通得

義耶 答 而明之人亦得果義 別如前義名有宗△964)

乘與△965)位高耶 答 乘運出正得因中運出正宗 至

---

941) 政 : 敎의 誤字?
942) 政 : 敎의 誤字?
943) 政 : 敎의 誤字?
944) 舍 : 會의 誤字?
945) 政 : 敎의 誤字?
946) 令 : 會의 誤字?
947) 令 : 會의 誤字?
948) 復 : 필사본들에는 [彳*又].
949) 能 : 필사본들에는 然.
950) 九 : 門의 誤字로 생각됨.
951) 能 : 필사본들에는 然.
952) 雖 : (龍)에는 陰으로 적은 후 雖로 수정하였음.
953) 能 : 필사본들에는 然.
954) 能 : 필사본들에는 然.
955) 能 : 필사본들에는 然.
956) 能 : 필사본들에는 然.
957) 無 : 미상.
958) 宗乘 : 乘宗?
959) 擧 : 필사본들에는 氣로 적은 후 擧로 수정하였음.
960)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961) △ : 판독 미상. [乘-44a]와 같음.
962) △ : 판독 미상. [乘-44a]와 같음.
963) △ : 판독 미상. [乘-44a]와 같음.
964) △ : 판독미상[乘-153].
965)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45b] 得果則傍[966]義 △[967]則正得通得義爲宗 因中通義傍也
問 不二而二義橫竪中 何不二而二耶 答 此中不
二而得假[968]明[969]故橫明之 竪義則傍 問 門與乘△[970]三云
何取別 答 不二而二論之 一往明之 通入名門 然
運界[971]乘通別名△[972]△[973]開三△[974] 無名相中分 若如空[975]假
世諦 虛妄世諦等者 卽落有所得 理外所無依無得
宗落 問[976]論宗卽一一破洗纖豪不留之 一家宗如空
中織羅 虛中織紋 假名名字 無有蹤跡 問 乘通三
性也 答 如毗曇宗 乘通三聚[977]爲體 彼明善惡無記通
三聚法故 成實論宗善惡但通兩聚 不通於色 故二
[46a] 聚以爲乘體 又毗曇宗無作是色 成實論宗無作非
名非心 若毗曇宗善色自是乘體 訶梨宗緣具合明
之 色亦是乘體 實爾論之 色非乘體也 今無依無得
宗 作無作作因緣假名方便 不二而二明之 經旣云
捨無常色獲凡[978]常住色 受想行識亦如是者 無所不
198上 有 雖然都不得地攝|兩論成毗二家宗 何者 點空作
色心無作 因成相續相待等故 無相無迹等法也 三

966) 傍 : (續)에는 倿.
967) △ : 판독 미상. [乘-44a]와 같음.
968) 假 : (續)에는 任.
969) 明 : (龍)에는 名으로 적은 후 明으로 수정함.
970)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971) 界 : 미상.
972)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973) △ : 판독미상[乘-154].
974) △ : 판독미상[乘-155].
975) 空 : 虛의 誤字?
976) 問 : 미상.
977) 聚 : (續)에는 種.
978) 凡 : 得의 誤字. 天台『維摩經略疏』“涅槃云 捨無常色獲得常色 受想行識亦復如是” (大正藏38, 698c)

性亦如是 於般若正法中 開立多種法 無所不有 故
言一切正一切邪 論師等云 無作有與無 師[979]說[980]不同
七地已還有無作無中解涉假於別法 八地已上則
[46b] 無無作法 但有心善惡 二云至金剛心有無作 佛果
則無無作也 今大乘則不然 具如上述 點空明義 永
異此論宗也 大乘宗無所不有 故大品經三慧品云
一花嚴虛空中 念佛乃至畢竟 故其福不盡 若爾可
得言七地已下有 八地已上無有耳 何且直造井橋[981]
梁等生善 但七地已下生無作 八地已上不生耳 今
大乘宗通而爲言 緣碍[982]明義 教境等亦乘體 如假十
信前學無所得 凡夫大乘體都不取 若地攝等四論
一切法不入體 故大品經大經云 有所得者無道無
果 不動不出 故都收乘 問 法花經云駕以白牛 此
[47a] 文云何釋 答 此前已釋 今更明之 但說不同 生法
師云 神通無垢爲白牛 內解[983]窮深[984]爲肩[985]色 充累[986]通[987]宣
大乘之化 入於五△[988]駕之而遊也[989] 光宅雲法師云 空
198下 慧爲白牛 招提師云 一法兩△[990] 「指此乘明有本[991]義 速

979) 師 : (京)에는 耶.
980) 說 : 필사본들에는 晩.
981) 橋 : (龍)에는 槁.
982) 碍 : 필사본들에는 㝵로 적은 후 有로 수정하였음. 具의 誤字로 생각됨.
983) 解 : 필사본들에는 [彳*叉]로 적은 후 解로 수정하였음.
984) 深 : (續)에는 後, 필사본들에는 後로 적은 후 深으로 수정하였음.
985) 肩 : 膚의 誤字.
986) 累 : 潔의 誤字?
987) 通 : (續)에는 道 .
988) △ : 판독미상. [乘-4]와 같음. 道로 생각됨.
989) 吉藏『法華義疏』“用大乘之化入於五道爲駕 與之如遊也” (大正藏34, 528c)
990) △ : 판독미상[乘-156]. 義?
991) 本 : 車의 誤字?

出說白牛也 今大乘意人法爲別 牙[992]可△[993]法牛說行
人也[994] 問 明位云何 答 論師云 位始成終滿 始成
有兩者[995] △[996]行初卽相佛成 若△[997]初地始是眞成示從
方便入於正觀 終滿二因金剛果於仙示從因至[998]果
但釋初位有三說不同 一斌師云 地前是正乘位 諸
師云作此釋者 得之方便先於正觀 二△[999]師云窮[1000]於
[47b] 初地始是乘位 又諸師云此得正體知[1001]方便 三匡山
遠師云 八地已上 方是無上大乘令[1002]之 又諸師云 此
得就[1003]觀及與乘體失於偏乘及與乘通也 四招提云
含[1004]通三釋 若能相資義 地前此善 相從入乘 故法華
經云 低頭舉手 皆以成佛道 若論眞成 從地已去 是
故法花經云 是乘淸淨也 若論成 八地已去方是也
辨論終位 亦有三家不同 一云 乘位在因 況在門而
人[1005]入裏 乘亦置果附假[1006]人作去 夫人經於上更不說
一乘法事 此指果上無因事 此師意得因出果也 二

---

992) 牙 : 互의 誤字.
993) △ : 판독미상[乘-157].
994)『大乘玄論』“云何喻牛耶 答一法兩義 引導如牛 運義如車 餘不爾 運出故有車義 無引導之能故無牛義 界內爲儐從 果地牛者 眞慧爲牛 六通無垢爲白牛 駕遊五道運出衆生”(大正藏45, 43b)
995) 者 : 미상.
996) △ : 판독미상. [亻*叉].
997) △ : 판독미상[乘-158]. 登으로 생각됨.
998) 至 : (續)에는 還.
999) △ : 판독미상[乘-159].
1000) 窮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60]. 登으로 생각됨.
1001) 知 : (續)에는 者.
1002) 令 : 會의 誤字?
1003) 就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61]. 能?
1004) 含 : 會의 誤字?
1005) 人 : (續)에는 入.
1006) 假 : (續)에는 任.

云 一向置果 此師意得果出因也 三云 亦得論之 若
[48a] 因乘 但極金剛心 若果乘則至佛果 旣是常故 不復
199上 運動 猶故載人果無因事緣中運他|此通不息例如
於道[1007]也 今無依無得大乘宗則不然 彼意凡夫不相
似乘者[1008]乘佛乘 空[1009]執高下參差 空[1010]處不同 開善落有
所得理△[1011]於[1012]其恭[1013]不關 諸佛菩薩假名乘故 並被破 四
論氣 空[1014]無所得乘 遠作次第緣 故三位中不定位也
今無得意開 則有六位 一學無所得凡夫二乘位 二
假十但[1015]位乘 三初發心中信位乘 四相似乘位有卅[1016]
心也 五從初地已上至[1017]金剛心△[1018]位乘[1019] 六佛果是位
乘 大乘意無差別差別 開則六種位 合則無所得無
[48b] 纖[1020]毫[1021]相 開不失合 合不舍開 至[1022]論非開非善 亦得言
並中地敎高下十地 具如十地義科中說也 地攝兩
論成毗二家 好言三論信[1023]破相門 又言[1024]破執 何時破

1007) 道 : 필사본들에는 판독 미상.
1008) 者 : 필사본들에는 판독 미상.
1009) 空 : 定의 誤字?
1010) 空 : 定의 誤字?
1011) △ : 판독미상. [彳*叉].
1012) 於 : 論의 誤字?
1013) 恭 : 미상.
1014) 空 : 定의 誤字?
1015) 但 : 信의 誤字. <逸文>[伊藤隆壽(1974), p.75]에도 信.
1016) 卅 : <逸文>[伊藤隆壽(1974), p.75]에는 此.
1017) 至 : (續)에는 還.
1018) △ : (續)에는 亥,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62]. <逸文>[伊藤隆壽(1974), p.75]에는 眞.
1019) 位乘 : <逸文>[伊藤隆壽(1974), p.75]에는 乘位.
1020) 纖 : (續)에는 讖, (龍)에는 織.
1021) 毫 : 필사본들에는 [++/豪].
1022) 至 : (續)에는 還.
1023) 信 : 필사본들에는 㐰. 但?
1024) 言 : (續)에는 云.

法 此[1025]人不見 龍樹菩薩與提婆菩薩 凡俗何足怪之也 淨
名經云 但治[1026]其病 不除其法[1027] 若爾 豈非破執耶 答 經
云[1028]不除法者 因緣假名法 有何法可除 經云但除[1029]其病
者 如中百論中所破 彼若竟智若因果 若有無有法
悉是病△[1030]智等也 何信[1031]除執 如四論所明 而法無非[1032]
所破除法也 一家開凡有五義 一政[1033] 二理 三機 四根
199下 此中言四種 自有〈△〉|△[1034]乘體也 地攝兩論成毗二家義
[49a] 宗 五種卽是一乘 逐近說三 涉[1035]政[1036]名爲小乘 中政[1037]名
爲中乘 △[1038]政[1039]得名爲大乘 本遠空此三種總歸[1040]一乘
也 今謂不二而二 開說名字假名說 亦有此意而意
故不相關也 問 三乘權說得有理不 答 論師等
有三說不同 一云 實有三乘故有理 二云 二乘言政[1041]
一向無理空權故 開善言 三招提云 不得偏通理空
二乘不勉[1042]例或那忽成聖 此意想被政[1043]二乘也 亦不

1025) 此 : (續)에는 比.
1026) 但治 : (續)에는 但除,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63].
1027)『大乘止觀法門』"是故經言 但治其病而不除法" (大正藏46, 651b)
1028) 云 : 필사본들에는 不.
1029) 除 : 필사본들에는 없음.
1030) △ : 판독미상. [乘-149]와 같음.
1031) 信 : 필사본들에는 仴. 但?
1032) 非 : 能의 誤字?
1033) 政 : 教의 誤字?
1034) △△ : (續)에는 △從,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64].
1035) 涉 : 初의 誤字?
1036) 政 : 教의 誤字?
1037) 政 : 教의 誤字?
1038) △ : (續)에는 彌,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65]. 後의 誤字?
1039) 政 : 教의 誤字?
1040) 歸 : 稱의 誤字?
1041) 政 : 教의 誤字?
1042) 勉 : 免.
1043) 政 : 教의 誤字?

通無理 却[1044]無理者 云何而說二乘耶 今日兩空亦有
方便說 卽名權 非理窮竟 故得言是無 而終歸極故
得言理也 今大乘意明之時[1045] 敎論之 於小乘中二諦
[49b] 爲理 如陳如品說 人[1046]究竟大乘意二諦爲敎 故經云
有無方便 入非有非無 如小敎[1047]中心滅空 大乘卽心
不滅 作佛性意也 問 三乘心令[1048]同不 答 嚴家云
正令[1049]於二 以歸於一也 菩薩與佛信[1050]是應現 个[1051]一發其
迹示之 以本名字爲令[1052] 令[1053]迹歸本 卽通小機滅此挃[1054]
敎也 今[1055]大乘則不然 若爾從[1056]凡夫位 去[1057]入菩薩乘 却[1058]無
耶[1059] 彼或徧待捨行明之也 無依無得大乘義者 △[1060]凡
200上 夫位依偏脩萬行入徧 脩△[1061]十信[1062] 亦得言行假十信[1063]
三乘入中十信[1064] 名爲會[1065]三歸一大乘義也 第四釋

1044) 却 : 미상.
1045) 時 : 미상. 將?
1046) 人 : 미상. 入?
1047) 敎 : (續)에는 經.
1048) 令 : 會의 誤字?
1049) 令 : 會의 誤字?
1050) 信 : 필사본들에는 仸. 但의 誤字?
1051) 个 : 今의 誤字?
1052) 令 : 會의 誤字.
1053) 令 : 會의 誤字.
1054) 挃 : 權?
1055) 今 : 필사본들에는 个.
1056) 從 : (續)에는 陀.
1057) 去 : 미상.
1058) 却 : 都의 誤字?
1059) 耶 : 邪의 誤字.
1060) △ : 판독미상. [彳*又]. 從?
1061) △ : 판독미상[乘-166]. 假?
1062) 信 : 필사본들에는 仸.
1063) 信 : 필사본들에는 仸.
1064) 信 : 필사본들에는 仸.
1065) 會 : (續)에는 令.

五乘義 一家關河相傳 屋[1066]攝嶺高句麗△[1067]朗法師等
[50a] 云 不二而二明之 五乘並是正法 般若家方便通故
悉是無依無所得五乘也 故思益經云 門有有門[1068]耶
亦如名甘露 亦名毒藥也 又如大品耶屋或品[1069]等云
於般若波羅蜜中 開三乘△[1070] 又歎淨品云 無有一法 不
入法性者也 故一家云 如釋迦從摩耶夫人右腋[1071]
下墮地 乃至雙林涅槃 並是何勿[1072]方便通也 如地攝
兩論成毗二家義宗 有虛假[1073]與虛妄兩世諦體有故
悉落理外有所得 故般若方便五乘故 並被破 理解[1074]
法故 非方便通也 今不二而二明之 開人天[1075]聲聞辟
支佛菩薩謂[1076]五乘也 人以[1077]仁慈爲義 天以自然皎淨爲
[50b] 義 自然卽天然也 人天二乘從果得名 當分能滅人
卽果也 人卽之異正是擇因能是人天以雖[1078]惡△[1079]諸
義宗 卽攝習常在其內 故法華經云 擧手低頭 皆能
成佛 其猶萬里之行 始發爲之也 今無所得大乘宗
200下 如此[1080]論師宗悉是理△[1081]行行起[1082]不習因 但遠由入理

1066) 屋 : 미상. 至의 誤字?
1067)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大 혹은 道로 생각됨.
1068) 門有有門 : 미상.
1069) 耶屋或品 : 經述成品의 誤字임.
1070)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道로 생각됨.
1071) 腋 : 필사본들에는 液.
1072) 勿 : (京)에는 刀.
1073) 假 : (續)에는 任.
1074) 解 : 필사본들에는 [彳*又]로 적은 후 解로 수정하였음.
1075) 天 : 필사본들에는 無.
1076) 謂 : (續)에는 涅槃, 필사본들에는 涅로 적은 후 謂로 수정하였음.
1077) 以 : 필사본들에는 似.
1078) 雖 : 離의 誤字?
1079) △ : 판독 미상. [乘-44a]와 같음. 道로 생각됨.
1080) 此 : 필사본들에는 [乘-137]과 같음. 諸?

內漸由 不得作習因 只得次第緣增上緣 而經云 汝
等所行是菩薩道等 如論云 性地菩薩所行 無所得行也
亦是通明得無得[1083]法 若遠與近弁菩薩△[1084]也 問
若遠近得言菩薩△[1085] 何故往往破地攝兩論成毗二家
義宗耶 答[1086] 得得意之 地攝等四論法善是不定△[1087]
[51a] 亦是遠入△[1088]之器△[1089]也 入理內無所得 決得打破洗
四論家諸善因故 一家相傳云 理△[1090]外入理內時有
四句 如佛性等義說之 有人好云 三論家宗衆生不
得作作[1091] 今時衆生作佛來者[1092] 有四句義也 故經論勸
情[1093]十善五戒等善 但不得切習因作佛菩薩等也 故遠
而論之 便釋因擇生善處 先以此善法 調伏身心 其
心能受△[1094]法 爲說無所得善全脩行也 故人卽報因
亦得是佛乘之由漸 無所得三乘懸△[1095]而遠由義故
開五乘也 龍樹提婆 風俗[1096]□[1097]以決須破地攝兩論者
彼義宗六識動[1098]阿梨耶識 成種子 造六識 六識無沒[1099]

1081) △ : 판독미상. [亻*又]. 外?
1082) 起 : 都의 誤字?
1083) 無得 : 필사본들에는 無得 2字를 중복한 후 뒤의 것을 삭제하였음.
1084)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道로 생각됨.
1085)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道로 생각됨.
1086) 答 : (續)에는 若.
1087) △ : 판독미상[乘-167].
1088)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道로 생각됨.
1089) △ : 판독미상[乘-168].
1090) △ : 판독미상. [亻*又]. 衍文?
1091) 作 : 佛의 誤字?
1092) 者 : 知의 誤字?
1093) 情 : 請의 誤字?
1094)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大?
1095) △ : 판독미상[乘-169].
1096) 風俗 : 미상.
1097) □ : 한 칸의 빈칸이 있음.

[51b] 識 更互[1100]相成 名爲虛妄世諦 體相差別 如論虛假世
諦體相 本無今有 名爲生虛妄世諦 信[1101]心解[1102]無境異
201上 成論宗故 若有人異於此宗 通於攝論宗者 則非三
藏宗 卽偸[1103]無所得宗故 非廣州三藏義宗故
言騍攝論 又諸師與地論師成毗二家諸人 並入三
論家 悉打破彼四論義宗 故得同[1104]宗漫語耶 問 徧
行六度菩薩 得何果佛 答 得卅二相八十種好佛 故
大品經 釋論佛云 有二種身 一是父母生身佛 卽是
相好佛 二法性生身佛 卽是常住佛故 △[1105]云光明無
量徒衆無量也 問 法性佛 定是無常身佛 爲是常身
[52a] 佛耶 答 亦無常亦常 故大品經句義品云 一切[1106]種智
有爲也 亦如常住佛是身佛 若至而論之 常住佛亦
是無常佛 故中論涅槃品云 有一論師云 涅槃是道
龍樹破〈云〉 由無常故明常 若無有去常亦去 云何常耶
涅槃是得無處所 無量△[1107]處所 若爾 離[1108]於有無所四
句所得 强名涅槃正般若正法 涅槃非四論宗也
二莊嚴義有三意 一釋名 二出體 三料[1109]簡 不二而二
明之 二莊嚴者 一福德莊嚴 亦名功德也 二慧莊嚴

1098) 勳 : 薫.
1099) 沒 : 필사본들에는 設.
1100) 互 : (續)에는 牙. 필사본들에는 午.
1101) 信 : 필사본들에는 佀.
1102) 解 : 필사본들에는 판독 미상. 外의 誤字?
1103) 宗卽偸 : 필사본들에는 3字를 중복하여 적은 후 삭제하였음.
1104) 同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乘-170].
1105) △ : 판독 미상. {彳*叉}. <逸文>[伊藤隆壽(1974), p.90]에는 經.
1106) 一切 : 필사본들에는 而. <逸文>[伊藤隆壽(1974), p.90]에는 一切.
1107) △ : 판독미상[乘-171].
1108) 離 : (續)에는 雖.
1109) 料 : 필사본들에는 科.

也 若言福德莊嚴者 無所得善法 能[1110]濟潤利行人故

201下 名爲福 福則是其善行家德[1111] 如清冷[1112]等是水家德[1113]也

[52b] 言功德者 功體功能[1114]也 善有濟潤福利之功故 名爲

功也 是其善行△[1115]待[1116] 名爲功德也[1117] 言慧莊嚴者 有人

言智慧者 照見名知[1118]也 △[1119]了△[1120]慧 此[1121]二種別 了知世

諦者 名照[1122] 第一義說名爲慧 今大乘意 如大經師子

吼品云 般若者 謂諸衆生 毗婆舍那者 謂諸賢聖 闍[1123]

那者 諸佛菩薩也 成論師釋番[1124]無癡善根 爲諸衆生也

今大乘明義 凡夫衆生旣△屋[1125] 故不知中假而緣般

若耶[1126]直擧不二義種爲般若 故涅槃論云 衆生是佛

內亦非 外亦非 四句並非衆生是也 亦如有衆生悉

有佛生[1127]也 毗婆舍那 謂諸聖人 諸賢聖始悟假 故名

[53a] 爲見勝見 見四諦明了故勝 屬仕[1128]賢聖 異於凡夫也

1110) 能 : 필사본들에는 然.
1111) 德 : 필사본들에는 待.
1112) 冷 : 필사본들에는 令.
1113) 德 : 필사본들에는 付.
1114) 能 : 필사본들에는 然.
1115) △ : 판독미상[莊-1]. 家의 誤字.
1116) 待 : 德의 誤字.
1117) 慧遠『大乘義章』“言功德者 功謂功能善有資潤福利之功 故名爲功 此功是其善行家德 名爲功德” (大正藏44, 649c)
1118) 知 : (續)에는 去.
1119) △ : 판독 미상. [亻*又]. 復?
1120) △ : 판독미상[莊-2].
1121) 此 : (續)에는 皆.
1122) 照 : 智의 誤字?
1123) 闍 : 필사본들에는 開.
1124) 番 : 필사본들에는 香.
1125) △屋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莊-3].
1126) 耶 : 則의 誤字?
1127) 生 : 性의 誤字?
1128) 仕 : 諸의 誤字?

闍那者 △[1129]決斷明了中假故 名爲諸佛菩薩 具般若義
中說 亦是無差別差別明之 若諸衆生不識中假 故
擧體般若强名之 諸聖人假義故名爲見 諸佛菩薩悟
中與假[1130]悟窮極 如十力初力故物[1131]智 若爾開之凡夫
衆生擧體名之 聖人待假[1132]邊說之 諸佛菩薩合[1133]中任[1134]名
之 第二明體法 二種莊嚴 不二而明之 功德與智
202上 慧 並是事般[1135]爲體 故大品經勸學文云 欲得六波羅
蜜與卌七品等因果智慧境智諸法者 當學般若波
羅蜜 文△△[1136]勝勸文云 欲得如是功德 當學般若波
[53b] 羅蜜 故知是通般若爲體也 第三料簡 問 無差別
差別 通如勸學文云 六度等爲功德者 然功德門功
德與智慧義不 答 亦得之 如五度爲功德 第六度
爲智慧 又得善靜二通爲功德莊嚴 若智慧莊嚴也
此言不二而二 造境爲智 不造境爲功[1137]也 又二不
二明之[1138] 六度並是智慧爲體 亦是悉是功德也
故通義則齊此福與智 如經中意 成[1139]般若[1140]名[1141]爲莊嚴
或以說之菩提具 或名助△[1142] 或言律儀也 言莊嚴者

1129) △ : 판독미상[莊-4]. 知?
1130) 假 : (續)에는 任.
1131) 物 : 惣의 誤字?
1132) 假 : (續)에는 任.
1133) 合 : (續)에는 令.
1134) 任 : 假의 誤字?
1135) 事般 : 般若의 誤字?
1136) △△ : 판독 미상[莊-5].
1137) 功 : 필사본들에는 뒤에 德을 적은 후 지웠음.
1138) 明之 : 필사본들에는 明之를 중복하여 적은 후 뒤의 것을 삭제하였음.
1139) 成 : 或의 誤字로 생각됨.
1140) 若 : 필사본들에는 결락되어 있고, 한 글자의 빈칸이 있음.
1141) 名 : (龍)에는 若로 적은 후 名으로 수정하였음.
1142) △ : 판독미상. [乘-44a]와 같음. 道로 생각됨.

如大經分別有四義 一能政[1143]人 二能[1144]政[1145]心 三政[1146]果 四諸行共相莊餝 故四莊嚴 能爲佛因菩提具之[1147] 脩順

[54a] 菩提 名爲助道法也 言律義者 身能[1148]理隨順戒律不令地地者 地有得心 卽是菩薩破戒律 故名律義也 此四種謂[1149]開之無纖豪[1150]之異相 亦作假[1151]亦中故也 開善大乘義云 分體者 功德智慧二法門 諸經論 分之有異

202下 大經師子吼品云 有三復次說 初|以空慧爲智慧 有行悉入功德 何知 文云 慧莊嚴 從初地 乃至十地 以是理空慧爲地體上 所生別屬功德 福德者 檀波羅蜜 乃至般若 非般若波羅蜜 則以五度 屬有行中智慧 非般若波羅蜜 屬功德[1152]門 般若波羅蜜 以屬智慧故簡異非功德也 第二復次 智[1153]慧莊嚴 諸佛菩薩 則是

[54b] 佛乃十地也 福德莊嚴 則是九地菩薩 又能[1154]緣劣△[1155]沒[1156]明之 佛果與十地 皆有功慧二門 九地已還亦然 但[1157]福德義劣[1158] 智慧義勝 卽或成論言 故則爲高位說也

1143) 政 : 嚴의 誤字.
1144) 能 : 필사본들에는 然.
1145) 政 : 嚴의 誤字.
1146) 政 : 嚴의 誤字.
1147) 之 : (龍)에는 也로 적은 후 之로 수정하였음.
1148) 能 : 필사본들에는 然.
1149) 謂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莊-6].
1150) 豪 : 필사본들에는 [++/豪].
1151) 假 : (續)에는 任.
1152) 德 : (續)에는 屬.
1153) 智 : 필사본들에는 玄. 知의 誤字로 생각됨.
1154) 能 : 필사본들에는 然. 就의 誤字?
1155) △ : 판독미상[莊-7]. 故?
1156) 沒 : 說의 誤字?
1157) 但 : (續)에는 信, 필사본들에는 但.
1158) 劣 : 필사본들에는 当으로 적었다가 劣로 수정하였음.

第三復次 謂[1159]因果位分之云 福德莊嚴 有爲有漏有
果報有碍[1160] 故非道智也 慧莊嚴者 無爲無漏無有果
報無碍 是常住因果分門 △沒[1161]明之也 今謂第一[1162]復
次者 有二義 一六度並是功德 故非六度爲六度 如
非有有非無無 約般若波羅蜜 爲非般若波羅蜜也
二就[1163]中假明之 檀[1164]與乃至般若 約[1165]假辨之 非般若波
羅 徧擧正法般若論之 卽横意也 第二復次△[1166]第十
[55a] 地與佛果 亦是徧約煩惱盡 故福慧 第九地已下煩
惱未盡 因爲功德也 第三復次言亦是惑[1167]盡不盡 因
203上 果明之 經中三復次言 不二而二明[1168]之 法[1169]開三意 初
卽後二意 二意卽初意 初意不異後兩[1170]意[1171] 後兩意不
異初意 第二[1172]意不異[1173]初後 初後不異[1174]第二 實論非初
非後中也 經論中 諸德行不同 如優婆塞經云 戒精
進以爲福分 忍禪般若爲智分 何者 如施與戒 於身
口麤事情行資勸行人利義△[1175]相 故說爲福分 不能

1159) 謂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莊-8]. 隨?
1160) 碍 : 필사본들에는 尋.
1161) △沒 : 필사본에는 판독미상[莊-9]. 故說의 誤字?
1162) 一 : 필사본들에는 二.
1163) 就 : 필사본들에는 然.
1164) 檀 : (續)에는 擅.
1165) 約 : 필사본들에는 非.
1166) △ : 판독미상[莊-10]. 言?
1167) 惑 : 필사본들에는 或.
1168) 明 : 필사본들에는 開.
1169) 法 : 필사본들에는 판독미상[莊-11].
1170) 兩 : 필사본들에는 南.
1171) 意 : (京)에는 高.
1172) 二 : 필사본들에는 三.
1173) 異 : 필사본들에는 實.
1174) 異 : 필사본들에는 實.
1175) △ : 판독미상. [莊-8]과 같음. 隨 ?

照見 緣細境故 不名智分也 精進除然策此行而精

進 性是發勸脩事情行而事相是麤[1176]故精進故 施戒

[55b] 攝之 爲福分 政[1177]三種中 般若正照見空[1178]之性 說爲智

卽般若中要忍名忍 忍體是慧 故攝智中 如伏忍證

諸忍 順忍無生忍寂滅忍也 法[1179]六度實是並是慧性

亦是般若 名字通故 功德分 但就[1180]假中通中逐事麤

微分之福慧也 又一般若中 義分之六 如六度相攝

也 又定[1181]觀身心不見故 △[1182]來割折身心不動是慧性

禪定則能[1183]當念停住極難故慧性攝 般若自是慧也

二[1184]依相續假[1185]解[1186]說[1187]經云 施戒爲福分 般若慧性也 三

依大品經云 五度是福分 故說爲盲[1188] 般若是慧體故

慧性也 四大經言 如師子吼品中說如前也 次就[1189]位

[56a] 203下 明之 如法鼓經云 地前卅心 與二種十信[1190]行 名爲福

分 初地已上所行 名爲智慧 大意地前△[1191]行未好淨

與福分 初地已上 見法明淨故 名爲智慧性也 雖爾

1176) 麤 : 필사본들에는 魚.
1177) 政 : 故의 誤字?
1178) 空 : (京)에는 學.
1179) 法 : 諸의 誤字?
1180) 就 : 필사본들에는 然.
1181) 定 : 空의 誤字?
1182) △ : 판독 미상. [彳*又]. 復?
1183) 能 : 필사본들에는 然.
1184) 二 : 필사본들에는 三.
1185) 假 : (續)에는 없음.
1186) 解 : 필사본들에는 [彳*又].
1187) 說 : 脫의 誤字로 생각됨.
1188) 盲 : 내용상 福의 誤字로 생각됨.
1189) 就 : 필사본들에는 然.
1190) 信 : 필사본들에는 們.
1191) △ : 판독 미상. [彳*又]. 解로 생각됨.

當分碍[1192]之 福慧亦是不二而二明之 福智緣義 離福
無智 離智無福 福卽是智 智卽是福 實論之 非福非
智也 次約見不見分之 如大論云 初地至九地 聞見
佛性 未能[1193]分見與證見 同名爲福分 第十地與佛 分
見證見故 同名爲慧性也 此義如佛性義中說也 次
約人明 凡夫隨事行行俱資潤說 名爲福分 三界各
行 假信與中信[1194]故 因名慧分 如法名福分 二門不二
[56b] 而二來[1195] △[1196]沒[1197]明之也 問 由智故靜 亦是以[1198]智爲定
體智慧門 大論言 以智爲定體 體正意爲令靜攝故
智皆[1199]屬定 行非智門耶 例如解[1200]脫是慧爲體 而無縛
義而明此義 屬功德門 非照境故非智門 問 以智
爲定體 慧門云何功德 若爾四無畏亦然 應屬功德
耶 答 智爲定體 而屬慧門故 屬功德門也 無畏門
以智爲體 明此智目△[1201]照照通義 △[1202]智之能非功德
法 不得△[1203]屬功德門也 問 定慧分爲兩門 定屬功
204上 德者 力與無畏 亦分兩門 無所[1204]畏 何言智耶 答 不
二而二義 有觀定興[1205]慧明疎明之 力無畏觀[1206]密[1207] 力則

1192) 碍 : 具의 誤字?
1193) 能 : 필사본들에는 然.
1194) 信 : 필사본들에는 化.
1195) 來 : (續)에는 平. 互의 誤讀?
1196) △ : 판독미상[莊乘-12]. 故?
1197) 沒 : 說의 誤字?
1198) 以 : 필사본들에는 似.
1199) 皆 : 法의 誤字?
1200) 解 : 필사본들에는 [亻*叉].
1201) △ : 판독 미상. [亻*叉].
1202) △ : 판독미상. [莊-12]와 같음. 得?
1203) △ : 판독미상. [乘-116]과 같음. 復?
1204) 所 : 필사본들에는 無.
1205) 興 : 與.

[57a] 無畏義異 又力無畏無碍[1208]三法 並是果地德[1209]故 釋論云
有法[1210]智慧名力 智慧△[1211]通[1212]名無[1213]畏也[1214] 第三[1215]三
位義
有三 一釋名 二明體相 三料簡 所言三位者 諸經論中 有三種名
也 一[1216]邪道 二不定道 三正定道也 邪者 起儀[1217]無因果等
諸法道 因緣世諦法權劃 起於慧或心名爲邪 亦名
邪定也 不定者 開善 或正或邪 遇[1218]善友 生於信心 於
三寶四諦因果 信善現前 卽是正見 正見未安立 過[1219]
物復忌[1220]△[1221]謗法斷[1222]善根故 復生邪見 名不定也 今大
乘明義 不定義 有兩 一或起有所得善 二或起有所
得惡 亦名爲不定也 二遇[1223]善緣起向入無所得 名爲
[57b] 不定 亦名共位 五戒十善 雖復是有所得善 而入道
器也 故名不定聚也 故經論中 勸脩五戒十善 正是
入道器故也 正定聚者 正是慧正爲乘義 亦是定不

1206) 觀 : 親?
1207) 密 : (續)에는 蜜.
1208) 碍 : 필사본들에는 碍.
1209) 德 : (續)에는 得,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德으로 수정하였음.
1210) 法 : 諸의 誤字?
1211) △ : 판독 미상. [亻*又]. 外로 생각됨.
1212) 通 : 用의 誤字?
1213) 無 : (續)에는 없음.
1214) 『大智度論』卷24, "集諸智慧是名力 智慧外用是無畏" (大正藏25, 237a)
1215) 三 : 필사본들에는 없음.
1216) 一 : 필사본들에는 없음.
1217) 儀 : 필사본들에는 판독 미상.
1218) 遇 : 필사본들에는 過.
1219) 過 : 遇의 誤字?
1220) 忌 : 忘의 誤字?
1221) △ : 판독미상[位-1]. 法?
1222) 斷 : 필사본들에는 卽.
1223) 遇 : 필사본들에는 過.

改義也 通稱位者 有二義 一集義 二賴義 卽是同[1224]類
而集 如言方以類集也 又通稱位者 分尊卑高下爲
義也 第二明體相 三位體 論師釋不同 一開善云
204下 擧大經 有恒河中七人 於初有三種明之 一謂常沒
人 二謂[1225]漸[1226]出還沒人 三得[1227]住人也 若起邪見一闡提
等 及起四重惡 自現沒故 此位不能[1228]出生去 故言常
沒也 復有暫出還沒 過[1229]有善知識 發菩提心 故出之
[58a] 生信心正見情 若經生 若遇[1230]惡智識 還復起邪見
斷[1231]善根還沒 還沒或生或沒也 住人者 安立善法 是
第三人 如曲[1232]令處 若小乘有[1233]立信根 不尺[1234]善根 善根
性已立 不復退起邪見 故住理也 此三人體位者 初
人卽侍[1235]凡夫位 未識三寶四諦因果等 從無明初念
無始生已來 未曾値一佛 未曾發一念菩提心 不脩
世出世善 而然[1236]起邪見 卽[1237]世出世善根 此名爲具縛
邪聚 常沒位 卽是其無體也 故本業經云 有具位[1238]凡
夫 不識三寶 不信因果 未發道心故也 若有起小微

1224) 同 : (續)에는 因.
1225) 謂 :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를 표시하였음.
1226) 漸 : 暫의 誤字.
1227) 謂 : 필사본들에는 得으로 적은 후 °를 표시하였음. 謂?
1228) 能 : 필사본들에는 然.
1229) 過 : 遇의 誤字?
1230) 遇 : 필사본들에는 遇過.
1231) 斷 : 필사본들에는 則?
1232) 曲 : 미상.
1233) 有 : 미상.
1234) 尺 : 미상. 斷의 誤?
1235) 侍 : 미상.
1236) 然 : 能.
1237) 卽 : 斷의 誤字?
1238) 位 : 縛의 誤字?

善根 卽是不定共位體 若識發一念求佛出世善根

[58b] 已來 須入共位之始 如大經云 從[1239]一照[1240]連河沙未滿

已還 悉是此中人法 並名共位不定聚 亦是暫出還

位故 邪正相間 故以邪正善惡爲體也 若曾値滿照[1241]

連河沙佛所 發菩提心 始證性地之初 是性體位故

205上 地持經云 不尺[1242]善根 傍正法緣法成體故 云正定聚

也 從三種性 習種性 性種性 道種性 是性地之終 正

善已見立善法爲體位也 二云 邪定 不定 正立宗 只

約一世中 約三人 開三聚 都不關無明初念等也 故

經云 一闡提尺[1243]善 唯人中有也 今無得大乘義宗 從[1244]

假[1245]十信等住人正定聚位體 八洹沙義說不同 或云

[59a] 假[1246]十信 或云中十信 判之不關卅心位中 亦具如

五種菩提義中至也 亦是三定有所得善 五戒七[1247]信

爲體 位亦應是直擧三根性 判三定聚也 未必如論

從無明初念釋之也 第三料簡 開合師說不同 一

大經□□[1248]品云 三種病人 爲三位 何者 初傳[1249]凡夫不

可人 謂必死人 少[1250]爲耶[1251]定位也 若遇醫則差 不遇醫

1239) 從 : (續)에는 陀.
1240) 照 : (續)에는 熈.
1241) 照 : (續)에는 熈.
1242) 尺 : 미상. 斷의 誤?
1243) 尺 : 미상. 斷의 誤?
1244) 從 : (續)에는 徒.
1245) 假 : (續)에는 任.
1246) 假 : (續)에는 任.
1247) 七 : 十의 誤字?
1248) □□ : 내용상 德王임.
1249) 傳 : 爲의 誤字로 생각됨.
1250) 少 : 次의 誤字.
1251) 耶 : 邪.

不差 人爲共爲人也 若是[1252]自差人 是性地位也 二釋
云 如前三種病人者 約可救而子住[1253]有成未成判也
若未立信根 名爲必死人 不差則未事[1254]救位故 非盡
具縛人 今若具縛與共位 悉是病人 若初發心人 至
[59b] 第六心已還 明可救遇師差人也 七心已上 是自差
205下 也 遇醫及自差 開十|種性 初十心爲兩種性人也 具
縛位中 含[1255]而不開 共位中 開爲四種菩薩 若性地位 有
兩種 開爲三別 依瓔珞經 開初一十信爲習種性 中
十心爲性種性 後十心爲道種性也 二依地攝論 開
爲兩種也 初十心爲性地 後六心爲解[1256]行地 若就[1257]初
十心復應有爲兩 若初心至六心已還 或退或不退
三乘共性地 第七心以上 則不退爲二乘 若大乘明
之□[1258]性也 論師次第釋之 依瓔珞本業經下卷云 若
從不識三寶根凡夫地位 〈於〉若佛菩薩政[1259]行中 起一念信[1260]
[60a] 發菩提心 爾時名爲信根菩薩 亦名假名 亦名名字菩薩
△[1261]是人△[1262][1263]行十善 若一劫二劫 脩行十善 受六
天果報[1264] 此文意前引三菩薩△[1265]釋△[1266]行十善得是[1267]十善

1252) 是 : 필사본들에는 尺. 後의 誤字?
1253) 子住 : 미상.
1254) 事 : 易의 誤字?
1255) 含 : 合의 誤字?
1256) 解 : 필사본들에는 [亻*又].
1257) 就 : 필사본들에는 然.
1258) □ : 한 칸의 빈칸이 있음.
1259) 政 : 미상.
1260) 信 : 필사본들에는 仏.
1261) △ : 판독미상. [乘-116]과 같음. 後?
1262) △ : 판독미상[位-2]. 내용상 復임.
1263) 人△ : 필사본들에는 人△을 중복하여 적은 후 뒤의 것을 삭제하였음.
1264) 『菩薩瓔珞本業經』“佛子 發心住者 是人從始具縛凡夫 未識三寶聖人 未識好惡因之以果 一切不識 不解不知 佛子 從不識始凡夫地 值佛菩薩 敎法中起一念信便發菩提心 是人爾時住前 名信想菩薩

果報菩薩 爲四種菩薩也 此[1268]法師云 若雖[1269]大品經□□[1270]品
云 輕毛明位行未定 隨風東西行不定 又大經迦葉
品牛[1271]菩薩有二種 一假名菩薩 二實行菩薩 此意同假名也
本業經同名 復云名字 卽是輕不定故名字說之也
又瓔珞業云云 具足有[1272]煩惱集無量業 亦退亦成 出
若値善知識學佛法 若一劫二劫 方入住位 若不爾
206上 者 常沒不出法 明亦退亦不退 是不定聚人 皆出還
[60b] 沒 沒已復出 若未登性地 第三住位 則猶暫還沒也
若遇善友 可得登入住位 從不定位不住位性地者
本業經有六種 習種性 性種性 道種性 聖種性 等覺
性 此總始終說之也 今大乘無依無得宗則不然 具
如前說三位三聚主[1273]意 直總約三根性 判三位 但正
定位 有兩[1274]意 一是假十但[1275]明之 二中十信明之 都不
開卅心信中辨之也 若不二而二 通而明之 如一中
有無量無量中有一等義論 何妨種種說之也 問
三聚人得有一神命 得三聚人以不 答 △[1276]後具縛

亦名假名菩薩 亦名名字菩薩 其人略行十心 所謂信心進心念心慧心定心戒心廻向心護法心捨心願心 復行十心 所謂十善法五戒八戒十戒六波羅蜜戒 是人復行十善 若一劫二劫三劫修十信 受六天果報 ” (大正藏24, 1017b)

1265) △ : 판독미상. [位-2]와 같음. 後?
1266) △ : 판독미상. [位-2]와 같음. 復?
1267) 得是 : 具足의 誤字?
1268) 此 : 諸의 誤字?
1269) 雖 : 필사본들에는 離. 미상.
1270) □□ : 내용상 成辨임.
1271) 牛 : 미상. 云의 誤字?
1272) 有 : 필사본들에는 布. 一切?
1273) 主 : 미상. 立?
1274) 兩 : 필사본들에는 南.
1275) 但 : 信?
1276) △ : 판독미상[位-3].

凡夫 時節能然 無有邊際也 故論[1277]阿含經與云 舍[1278]衛國
[61a] 獦師進逐一鴿 鴿入舍利弗影中 猶故戰慄 入佛影
中爾乃安樂 佛令舍利弗 以神通力觀於然[1279]此[1280]鳥[1281] 止[1282]
受鴿身見鳥畔直只一鴿鳥前身 嘗非二乘所見所
說六道之神身乎 若爾一神身 何所不經作智 亦得
一神命三聚身乎[1283] 又諸法師云 凡發道心 有期限 猶
故賒遠不可知之 故釋迦於大通智勝佛所化 第十
六沙[1284] 改[1285]化衆生 而大通智勝佛滅度已來 若三千世
206下 界 破之微塵過[1286]東[1287]方五百世界 至下一點 復粖所點
爲塵 復過是數 而大通智勝佛滅度已來 復過[1288]於此[1289]
而△[1290]衆生故 此[1291]二乘凡夫之地△[1292]時節 猶△[1293]長遠 而
[61b] 本業經云 百劫千劫者 諸法師云 指福共位 始終通
列物耳 性位時節者 本業經云 初一阿僧祇劫中 二
阿僧祇劫 亦應是列衆生故爾也 一家意但一往擧
三時節 判三位也 問 此三位 於變易分段 淨穢兩

1277) 論 : 미상.
1278) 舍 : 필사본들에는 없음.
1279) 然 : 衍文?
1280) 此 : 필사본들에는 [乘-137]과 같음.
1281) 鳥 : (續)에는 邊.
1282) 止 : (京)에는 山.
1283) 乎 : (京)에는 中.
1284) 沙 : 미상.
1285) 改 : 復의 誤字?
1286) 過 : 필사본들에는 通.
1287) 東 : 필사본들에는 未.
1288) 過 : 필사본들에는 通.
1289) 此 : 필사본들에는 [乘-137]과 같음.
1290) △ : 판독미상[位-4].
1291) 此 : 無의 誤字?
1292) △ : 판독미상[位-5]. 與?
1293) △ : 판독미상. [乘-174]와 같음. 知?

土云何 答 一家義宗 邪定不定兩聚者 穢土 若正
定 或穢土 或多是反事[1294]淨土 此通三乘辨之也 問
邪聚人 攝因果等法 亦攝[1295]因緣中假法不 答 一家
義宗 正拔[1296]理△[1297]有所得法 不拔[1298]因緣中假法 何不識
知 而亦得言總相拔因緣無所得法 如總相緣反照
知也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十(終)[1299]

[62a] 顯慶三年歲次戊午年十二月六日興輪寺學問
僧法安爲大皇及內殿故敬奉義章也

1294) 反事 : 變易의 誤字?
1295) 攝 : 필사본들에는 拔.
1296) 拔 : 攝의 誤字?
1297) △ : 판독 미상. [彳*叉]. 外?
1298) 拔 : 攝의 誤字?
1299) 無依無得大乘四論玄義記卷第十(終) : 필사본들에는 없음.

판독 미상 글자

[初章中假義]

初-1
初-2
初-3
初-3-1
初-4
初-5
初-6
初-7
初-8
初-9
初-10
初-11



[二諦義]

諦-1
諦-2



諦-3
諦-4
諦-5



[感應義]

感-1
感-2
感-3
感-4
感-5



[斷伏義]

斷-1
斷-2
斷-3
斷-4
斷-5
斷-6



斷-7
斷-8
斷-9
斷-10
斷-11
斷-12
斷-13
斷-14
斷-15
斷-16
斷-17
斷-18
斷-19
斷-20
斷-21
斷-22
斷-23
斷-24
斷-25
斷-26
斷-27
斷-28



斷-29
斷-30
斷-31
斷-32
斷-33
斷-34
斷-35
斷-36
斷-37
斷-38
斷-39
斷-40
斷-41
斷-42
斷-43
斷-44
斷-45
斷-46
斷-47
斷-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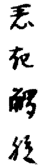


【金剛心義】

金-1
金-2
金-3
金-4
金-5



金-6
金-7
金-8
金-9



【佛性義】

佛-1
佛-2
佛-3
佛-4
佛-5
佛-6
佛-7
佛-8
佛-9
佛-10
佛-11



【二智義】

智-1
智-2



智-3
智-4
智-5
智-6
智-7
智-8
智-9
智-10
智-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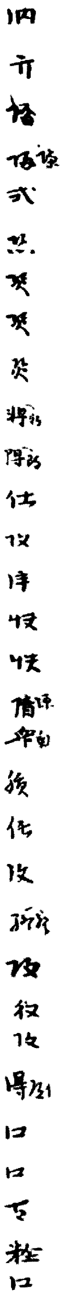


【三乘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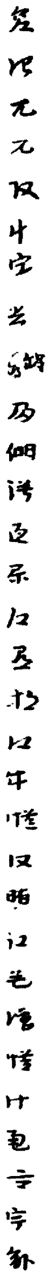
乘-1
乘-2
乘-3
乘-4
乘-5
乘-6
乘-7
乘-8
乘-9
乘-10
乘-11
乘-12
乘-13
乘-14



乘-15
乘-16
乘-17
乘-18
乘-19
乘-20
乘-21
乘-22
乘-23
乘-24
乘-25
乘-26
乘-27
乘-28
乘-29
乘-30
乘-31
乘-32
乘-33
乘-34
乘-35
乘-36
乘-37
乘-38
乘-39
乘-40
乘-41



乘-42
乘-43
乘-44
乘-44a
乘-45
乘-46
乘-47
乘-48
乘-49
乘-50
乘-51
乘-52
乘-53
乘-54
乘-55
乘-56
乘-57
乘-58
乘-59
乘-60
乘-61
乘-62
乘-63
乘-64
乘-65
乘-66
乘-67
乘-68
乘-69
乘-70



乘-71
乘-72
乘-73
乘-74
乘-75
乘-76
乘-77
乘-78
乘-79
乘-80
乘-81
乘-82
乘-83
乘-84
乘-85
乘-86
乘-87
乘-88
乘-89
乘-90
乘-91
乘-92
乘-93
乘-94
乘-95
乘-96
乘-97
乘-98
乘-99
乘-100
乘-101



乘-102
乘-103
乘-104
乘-105
乘-106
乘-107
乘-108
乘-109
乘-110
乘-111
乘-112
乘-113
乘-114
乘-115
乘-116
乘-117
乘-118
乘-119
乘-120
乘-121
乘-122
乘-123
乘-124
乘-125
乘-126
乘-127
乘-128
乘-129
乘-130
乘-131
乘-132
乘-133
乘-134
乘-135
乘-136
乘-137
乘-138
乘-139
乘-140
乘-141
乘-142
乘-143
乘-144
乘-145
乘-146
乘-147
乘-148
乘-149
乘-150
乘-151
乘-152
乘-153
乘-154
乘-155
乘-156
乘-157
乘-158
乘-159
乘-160
乘-161
乘-162
乘-163
乘-164
乘-165
乘-166
乘-167
乘-168
乘-169
乘-170
乘-171

【莊嚴義】

莊-1
莊-2
莊-3
莊-4
莊-5
莊-6
莊-7
莊-8
莊-9
莊-10
莊-11
莊-12

【三位義】

位-1 

位-2 

位-3 

位-4 

位-5 

인명색인

現 數에서 12를 合해 주십시오(ex: 羅什法師 94(初章)+12=106).

道安

道融

白琰

法朗

法安

法瑤

法雲

寶亮

미상인명

금강학술총서 2

校勘 大乘四論玄義記

2009년 6월 28일 초판 발행
2009년 6월 30일 초판 1쇄

撰者 慧均
校注 최연식
펴낸이 박상근(至弘)
주간 류지호
책임편집 사기순
편집 정선경
표지디자인 김소현
본문디자인 매컴
제작 김명환
홍보마케팅 허성국
관리 윤애경

펴낸 곳 불광출판사
138-844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5-14 진양빌딩 2층
대표전화 02) 420-3200
편집부 02) 420-3300
팩시밀리 02) 420-3400

출판등록 제1-183호(1979. 10. 10)

ISBN 978-89-7479-122-3 94220
ISBN 978-89-7479-121-6 94220 (세트)
값 50,000원

독자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http://www.bulkwang.or.kr